
제8장 역사

- 제 1 절 선사시대의 동두천
- 제 2 절 동두천의 고대사
- 제 3 절 삼국시대의 동두천
- 제 4 절 통일신라시대의 동두천
- 제 5 절 고려시대의 동두천
- 제 6 절 조선시대의 동두천
- 제 7 절 근대의 동두천
- 제 8 절 대한제국기의 동두천
- 제 9 절 일제강점기의 동두천
- 제10절 동두천 현대사
- 제11절 한국전쟁과 동두천

DONGDUCHEON HISTORY OF





30 YEARS 1981-2011

東豆川市30年史

제1절 선사시대의 동두천

1. 선사시대 개요

역사는 기록에 의하여 사료로 남은 과거의 사실들을, 그 사료를 해석하여 이해하는 학문이다. 그러므로 기록으로 남은 사료가 없으면 우리는 과거의 사실을 이해할 근거를 잃게 되고, 객관적 근거가 없는 전설이 되고 만다. 따라서 기록으로 남은 사료가 있느냐의 여부는 역사적 해석과 이해가 성립되는 가장 큰 근거가 되며 이에 따라 우리는 과거를 문자로 기록된 사료가 존재하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역사 이전, 즉 선사(先史)와 역사가 존재하는 시대 즉, 역사(歷史) 시대로 크게 구분지어 나누게 된다.

그러나 학문의 방법과 과학적 기법이 진보 발전함에 따라 비록 문자로 기록된 문헌사료가 나타나기 이전 시대라 하여도 그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게 되어 문자 이전 시대 사람들의 삶을 상당 부분 추적하여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비록 문자기록물이 아니어도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추적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여러 물질들을 '물질사료'로 설정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물질 사료의 해석을 통하여 우리는 역사 이전 시대를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로 구분하는 바 각 시대는 생산양식과 지배 구조 등 시대의 정치적 사회적 특징을 지니게 되고 이 특징은 지역을 초월하는 보편성을 지녀 각각의 시대를 이해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2. 동두천의 구석기 문화

석기시대라는 용어는 기본적으로 '돌로 연모를 만들어 쓰던 시대'라는

정의(定義)를 함축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 당시의 시대를 규정하는 정치, 문화, 사회적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다.

석기시대는 생산양식의 변화와 연모의 가공 방식에 따라 다시 구석기, 중석기, 신석기로 구분된다.

구석기는 채집경제 방식의 경제가 운용되고 가족이 구성되기 이전의 보다 원시적인 '무리(밴드band)'를 사회의 기본 단위로 하던 시대이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밴드라는 용어는 채집활동과 공동 소비에 평등하게 참여하는 남녀 집단, 즉 가족이 아닌 무리를 일컫는 말이다. 이들은 먹을거리를 찾아 끊임없이 이동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바위 그늘, 숲, 강가 등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임시로 머무는 한편 천연 동굴 등에 머무는 경우에는 그 곳에 많은 흔적을 남겨 놓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주 빌레못동굴, 제천 점말동굴, 청원 두루봉동굴, 북한 평남 상원의 검은모루동굴 등에 구석기인들이 흔적을 남겨 각종 깻 석기류와 함께 당시 그들의 먹을거리였던 동물의 뼈를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혼거하였으므로 아이가 출생할 경우 그 아이의 부친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인지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자연히 태어난 아이는 어머니에게 소속되게 마련이었는데 이와 같은 사회를 우리는 모계사회라고 칭한다. 채취와 수렵을 통하여 얻어진 수확물은 무리 전체가 참여하여 평등하게 소비하였으므로 결국 경제는 공동 생산, 공동 소비의 형태가 되는데 이를 원시공산사회라고 부르며 무리의 구성원은 먹을거리의 풍요 여부와 공동체 운영의 내용을 따라 비교적 자유롭게 공동체를 떠나 다른 공동체에 소속할 수 있었고, 공동체 내부에서 생산적이지 않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구성원은 무리로부터 추방되어 결국 적자생존(適者生存)의 기본 구조가 유지되었다. 이들이 거주지에 남기는 삶의 흔적 가운데는 소위 말하는 원시미술 형태의 그림, 조각 등이 있어 우리는 이들 최초의 인류 공동체 내에 주술적 성격을 띤 원초적 신앙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동두천 지역의 구석기문화는 그동안 하봉암동에서 뎀석기가 발견되어 연천 전곡리 유적과 문화의 성격이 유사하며 이를 전곡리 선사 문화의 일환으로 평가하여 왔다. 주지하는 것처럼 전곡리 구석기 문화는 한탄강 유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우리나라 유수의 구석기 문화로서 아직 그 성격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는 있지만 특히 아슐리안 계통의 주먹도끼가 수습되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유적이다.

그런데 금번 동두천시사 편찬을 계기로 진행된 지표조사에서 구석기 문화와

연관하여 그간의 학설을 재검토해야 할 중요한 자료들이 출현하게 된 것이다. 동두천 전역에서 다양하고도 광범위한 구석기들을 수습하였고 발견된 유물들을 통하여 동두천 지역에 존재하는 상당한 규모의 구석기 문화를 확인하게 된 것이다. 전곡리 선사 유적 발굴의 주역이었던 건국대학교 명예교수 최무장 박사가 김택기 동두천향토문화연구소장, 이영일 동두천문화원 이사 등과 함께 진행한 동두천 지역 고고 지표조사 결과 기존의 하봉암동 지역에서의 추가 확인은 물론 상패동 정감마을, 중앙동, 안흥동을 비롯한 동두천 전역에서 여러 종류의 뎀석기가 다량 수습되었다.

이들 뎀석기들은 석핵과 박편을 망라하는 다양한 용도의 유물들로서 특히 하봉암동 일대에서 새로이 수습된 석기들은 한탄강 전곡리 선사 유적에 나타나는 석기들보다 연대가 더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되어 이후 추가 발굴 및 연구 결과가 매우 주목되는 상황이다.

특히 비교적 단기간에 그것도 단순 지표조사의 결과 수습된 유물이어서 보다 정밀하고 체계적인 조사 및 발굴이 이루어진다면 동두천 지역의 구석기와 전곡리 한탄강 유역의 구석기의 연관 관계 규명은 물론, 독자적인 동두천 구석기 문화권의 설정도 상정해 볼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게 되었다.

한강 유역에는 두 개의 구석기 문화 흐름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북한 개마고원에서부터 출발하여 동해안을 따라 남하한 후 화천 지역을 거쳐 북한강을 따라 이동해 온 것으로 추정되는 흑요석 문화로서 이 문화는 끝단이 의정부 민락동 유적에서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는 한탄강 계통 구석기 문화로서 파주, 연천의 여러 지역과 함께 현재 확인되는 것처럼 그 끝단이 동두천 지역에 나타나는 강자갈 문화이다. 따라서 동두천은 흑요석 문화와 강자갈 문화의 접점에 있어 두 문화의 접촉 및 연계 여부와 함께 이후 한반도 구석기 문화의 상호관계 연구의 주요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동두천 지역에서의 광범위한 구석기 문화 존재 확인은 아직 구석기는 물론 신석기 문화조차도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양주 지역에서의 석기 문화 존재 가능성을 한층 높여주는 계기도 되었다.

3. 동두천의 신석기 문화

구석기시대가 끝나고 신석기시대가 도래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후 변동이었다. 빙하기가 끝나면서 기후는 따뜻해졌고, 이에 따라 구석기인들에게 풍요로운 먹을거리를 제공하던 숲이 사라지는 대신 넓은 초원이 이를 대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숲에 살던 큰뿔사슴, 쌍코뿔이 같은 짐승들은 후퇴하는 숲을 따라 북상하고 들판을 무대로 서식하는 사슴, 토끼 같은 작고 빠른 동물들이 출현하였다. 이들을 사냥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활이나 투석기 같은 새로운 개념의 연모를 제작 사용하였으나 그들의 수요를 충족할 충분한 먹을거리를 얻기에는 태부족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그들이 택한 새로운 생산 수단이 바로 농경이었고 이는 인류의 생활 양식과 사회 구성 및 문화 자체를 철저히 변화시켰다. 신석기 농경혁명의 시작이었다.

농경은 이동 대신에 정착을, 공동소비 대신에 자기소비를 새로운 문화 양식으로 고정시켰고, 생산된 곡식을 다음 수확기까지 보관하기 위한 도구, 즉 토기가 제작되었다. 따뜻해진 기후에 맞추어 가죽옷 대신 직조를 통해 새로운 옷감을 마련하였고, 혈거를 중심으로 한 원초적 주거형태가 수혈식 움집으로 대체되어 나아가서는 마을을 형성하게 된다. 농경은 그 전제 조건으로 농업용수와 함께 별채와 개간을 통한 토지의 확보가 필수적이었고 이를 위하여 공동 작업이 필요하였기에 자연히 작업을 지휘하는 지도자가 나타나게 되며 이는 정치권력의 출현으로 귀착되기에 이른다. 먹을거리 소비 형태 역시 계획적이고도 조직적인 소비가 필수적이었기에 소비의 범위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고 소비에 참여하는 기준을 혈연에 두면서 자연히 태어나는 아이의 부친을 특정(特定)하게 되어 이후 여자와 그 여자가 낳는 아이 모두가 남자에게 소속되는 소위 '부계사회'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동두천에는 다양한 모습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구석기 문화유적과는 달리 신석기 문화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유물은 상대적으로 적게 수습되었다. 동두천시사 편찬을 계기로 동두천 지역의 고고학적 지표조사를 진행한 최무장 박사는 빗살무늬 계통의 토기편 1점과 잔편 형태로 발견된 마제 돌창 1점, 마제 석부 1점, 그리고 돌을 다듬어 만든 어망추를 찾아내었다. 이로써 동두천 지역에서도 구석기와 마찬가지로 신석기 문화가 존재하였고 이 신석기 문화가 한강 유역을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빗살무늬 토기 계통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이후 더 본격적이고도 체계적인 발굴조사를 진행한다면 광범위한 신석기 문화 유적을 찾아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였다고 본다. 특히 동두천 시내를 관통하여 흐르는 신천과 동두천 등 여러 냇강의 풍부한 농업용수와 이 냇강을 따라 전개되는 기름진 들판 등 농경이 가능한 풍요로운 자연환경을 감안할 때 동두천 지역에서 다양한 신석기 유물과 유적을 찾아낼 가능성은 대단히 크다고 본다.

4. 동두천의 청동기 문화

청동(Bronze)은 인류가 처음으로 사용한 금속 도구로서 이 청동의 사용은 신석기 문화를 내부에서 변화시켜 보다 정교한 사회체제로 변전시키는 핵심적인 계기가 된다. 신석기시대에 이미 나타나기 시작한 잉여생산물 약탈과 이를 통한 씨족집단의 불평등 통합이 비약적으로 진척되어 사회의 보편 현상으로 구체화하는 것이다. 중국 동북의 우리 고대문화 유적지인 우하량 유적에서는 이미 신석기시대에 집단 방어시설인 성벽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이는 외부로부터의 조직적인 약탈에 대응하는 군사시설로 이는 이미 신석기시대에 집단과 집단이 서로 대응하는 무력투쟁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방증이다.

식량을 약탈하기 위한 이와 같은 부족 갈등은 일부 세력이 당시로서는 최첨단 기술이었던 청동 제련술을 통해 각종 무기를 제작하여 월등한 무력을 확보함으로써 단순한 식량 약탈 단계를 넘어 피정복 부락민을 노예로 확보하는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게 된다. 이른바 고대노예제 사회의 출현이다. 대부분 역사학자는 청동기를 통한 이와 같은 불평등 사회를 '국가'라고 부른다. 물론 학자에 따라 '연맹국가', '부족국가', '읍락국가' 등 사회 발전 단계에 따르는 구분은 있으나 기본적인 사회는 생산수단으로서 노동력을 소유한 귀족과 자신의 노동력을 대가 없이 무제한 착취당하는 노예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청동기 문명 출현 시기를 대체로 국가의 시작으로 본다.

우리나라 청동기는 그간 대체로 기원전 10세기경에 시작된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 우리 민족 최초 고대 국가들이 건국되는 것으로 여겨왔으나, 근래에

이르러 중국 동북 지방은 물론 한반도 내에서도 기원전 2,000년경까지도 소급이 가능한 여러 유적이 발견되어 우리 민족의 국가 시원 상한을 많이 끌어 올리게 되었다.

우리나라 청동기를 대표하는 유물들이 바로 무늬없는 토기, 반달모양 돌칼, 고인돌, 선돌, 동검, 청동거울 등인데 우리는 이들 유물을 통하여 이 시기에 본격화하는 농경과 함께 지역을 장악한 정치권력의 존재라는 청동기 사회의 여러 특징들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동두천 지역에서는 이번 시사편찬을 계기로 진행된 지표조사를 통하여 다양한 청동기문화의 존재를 확인하였고 아울러 많은 유물을 수습하였다. 그 중 기존에 알려진 송내동 아차노리 지역 고인돌과 함께 안흥동 담안과 지행동, 상패동 등에서 새로이 고인돌과 선돌을 찾아내었다. 특히 안흥동 담안에서는 기반식 고인돌 3기와 이 고인돌에 짝지어 세워진 3기의 선돌을 찾아냈는데 이처럼 고인돌과 선돌이 1기씩 짝지어 나타나는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동두천의 청동기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의 필요성을 확인한 상당히 중요한 유적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청동기 유적의 존재는 동두천 지역사의 상한을 고조선시대까지로 끌어올리는 확실한 방증이 될 것이다.

제2절 동두천의 고대사

1. 고조선시대 동두천

고조선 사회는 일반적으로는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전조선, 후조선의 2기로 나누기도 한다. 일제시기 관변 식민 사학자들은 단군조선 전체를 부정하는 한편, 위만조선의 강역을 대동강 인근으로 한정하여 민족사 출발점으로서의 단군조선을 말살하려 하였다. 그러나 근년 고조선에 대한 문헌적, 고고학적 연구 성과가 집적되면서 고조선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 특히 고조선의 강역과 문화에 관한 연구가 상당히 진척되어 단군조선의 실존을 확인하는 한편 강역의 변천 과정에 대한 자세한 이해가 가능해지게 되었다. 이에 따르면 고조선의 초기 강역은 그 서변이 요서를 지나 내몽골 흥산 지역에 이르고 중심은 대릉하 지역에 있었으나 진개(秦開)의 침공으로 표현되는 중국 전국시대의 강호 연(燕)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서부 지역 2,000여 리의 영토를 빼앗긴 후 그 중심을 현재의 요동지역으로 옮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울러 고조선의 동방 영토는 현재의 한반도 전역에 미쳤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고조선 문화를 대표하는 유물인 동검이 전반기에는 주로 중국 동북, 내몽골 등지를 중심으로 출토되는 비파형에서 후기에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조선식 '좁은 낫단검'으로 바뀌고, 함께 이 '좁은 낫단검'이 고인돌과 함께 한반도 전역에 걸쳐 분포하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한때 그 존재가 부정되던 기자조선 역시 대릉하 지역에서 <고죽(孤竹)>, <기후(箕侯)> 등 기자조선과 연관된 명문을 지닌 고고자료들이 출토되어 그 존재가 확인되었는데 기자조선은 단군조선을 대체하는 후계왕국이 아니라 단군조선의 영역 서부 지역 일부에 존재하던 고조선의 후국(侯國)으로 이해되고

있는 추세이다.

동두천 지역에서 발견되는 고인돌과 선돌 등 청동기 문화 유적들은 동두천 지역이 고조선의 강역이었음을 강력히 증언한다. 주목할 것은 동두천 지역에서 발견되는 고인돌이 모두 기반식 내지는 개석식인데 비하여 동두천에 인접한 강화, 포천, 연천 등에서는 북방식으로 분류되는 탁자식 고인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이후 다시 설명되겠지만 동두천 지역은 북방식 탁자형 고인돌과 남방식 기반형, 혹은 개석형 고인돌 분포의 한계점 내지는 접촉점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고인돌의 축조 형태가 그 고인돌을 만든 현지인의 문화와 사회는 물론 부족까지도 반영한다고 상정하면 이와 같은 상이한 형태의 고인돌이 동두천 지역에서 접점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이 지역 정치 상황을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시사점이 되어 준다.

동두천과 고조선 관계를 시사하는 사료는 단군조선의 마지막 왕 준이 바다를 건너 한반도 지역으로 망명하여 마한의 왕이 되었다는 기록이다.

㉠ 위지(魏志)에 이렇게 말했다. "위만(魏滿)이 조선(朝鮮)을 공격하자 조선왕(朝鮮王) 준(準)은 궁인(宮人)과 좌우 사람을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 서쪽 한(韓)의 땅에 이르러 나라를 세우고 마한(馬韓)이라고 했다" (『삼국유사』 마한조)

㉡ 초 조선왕 준(準)은 위만에게 패하여 무리 수천을 거느리고 바다로 도망하여 마한 무리들을 공파하고 스스로 한왕(韓王)이 되었다. 준(準) 후 대(代)가 끊어지고 마한인들이 다시 진왕을 세웠다. (후한서 한전)
(初朝鮮王準 爲衛滿所破 乃將其餘衆數千人 走入海 攻馬韓破之 自立爲韓王 準後 絕滅 馬韓人復立爲辰王 後漢書 韓傳)

㉢ 연의 유민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좌우의 궁인들과 바다를 건너 한의 땅에 가 살았다. 스스로 한왕을 칭하였는데 그 후 후손이 끊어졌다. 지금 한인들이 그 제사를 받든다. (삼국지 오환선비동이전, 한전)
(燕亡人衛滿所攻奪 將其左右宮人走入海居韓地 自號韓王其後絕滅 今韓人猶有奉其祭祀者 三國志 烏丸鮮卑東夷傳 韓傳)

위의 사료들은 기원전 194년, 고조선(기자조선)의 마지막 왕 준이 위만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도망쳐 새로이 나라를 창설하였다고 전하는데 사료마다 그 내용이 약간씩 다르게 나타난다. 위 사료 ㉠과 ㉡은 준이 세운 나라의 이름이 마한(馬韓)이라고 명시한 반면 사료 ㉢은 그저 한(韓)이라고 기록하였다. 그런데 한(韓)은 한반도 삼한(三韓)을 통칭하는 이름이며 마한(馬韓)은 한(韓)의 한 부분이니, 결국은 그가 마한을 세웠다고 하는, 또는 마한 왕이 되었다는

데에는 틀림이 없다. 문제는 준이 마한 왕이 되는 과정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즉 ㉠과 ㉡은 준이 마한 지역에 이르러 평화적으로 마한을 건국하였다고 하였는데, ㉢은 전쟁을 통하여 해당 지역을 점령하였다고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엄정한 사료 비판이 필요하다.

『후한서』는 위만조선이 멸망하고 난 후 비교적 짧은 기간에 기록되었고, 한의 적국이던 조선에 대한 적개 의식이 비교적 강하게 남아있는 상황에서 당시 사료를 사용하여 기록되었다. 따라서 위만조선 멸망과 그 마지막 왕 준의 행적을 기록하는 입장 역시 상당히 공격적일 수밖에 없었다. 준은 나라가 멸망하는 황급한 상황에서 극히 일부 잔존 세력을 수습하여 망명길에 나섰고 그것도 위만의 정치권력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을 골라 배를 타고 도망치는 상황이었다. 이 경우 준이 선택한 망명지는 적어도 자신들에 대하여 우호적이거나, 고조선 왕실의 지배력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준은 망국의 왕으로서 망명하는 입장이지 군대를 거느리고 전투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준왕이 마한 지역에다 새로이 나라를 만드는 과정은 『후한서』보다는 『삼국지』의 설명이 훨씬 합리적이다. 『삼국지』는 준왕이 한(韓) 땅에 머물러 살면서 왕이라 자칭하였다고 기록하였다. 『삼국지』에서 말하는 '자칭 왕'이라는 표현은 그가 실질적으로 그 땅을 지배했다기보다는 일종의 망명정부를 수립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고 보인다. 『후한서』나 『삼국지』 모두에 나타나는 바, 준왕의 건국 기사에 이어 “그 후, 대가 끊어지니 마한(馬韓)인들이 다시 진왕(辰王)을 세웠다”거나, “지금도 한(韓)의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주고 있다”는 기사가 바로 이와 같은 추정을 보다 확실하게 해준다.

즉 준왕이 마한 지역으로 망명한 것은 적어도 이 지역이 준왕이 다스리던 고조선 영토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방증하는 기사가 『위략(魏略)』에 나타나는 다음 기사이다.

우거왕 말기에 조선상 역계경이 간하였으나 우거왕이 듣지 않자 동쪽 진국으로 갔는데 따라간 사람이 2천여 호나 되었다.(初右渠末破時 朝鮮相歷谿卿以諫 右渠不用 東之辰國 時民隨出居者二千餘戶(魏略))

이 기사는 앞에 제시한 사료로부터 90여 년이 흐른 후 위만조선과 한(漢)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결국은 전쟁 국면으로 치닫게 되자 이를 위요하여 나타나는 위만조선 내부의 혼란 상황을 반영한 기사이다. 이 기사에 따르면 우거왕의 강경론에 반발한 조선상 역계경이 당시로서는 상당한 규모인 2천 호의 속민을 거느리고 진국으로 망명하였다고 되어 있다.

주목하여야 할 점은 역계경이 속민을 거느리고 진국으로 즉 삼한 지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현지 주민의 반발이나 저항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진(辰) 지역이 조선의 영역 안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진(辰), 즉 마한을 포함한 삼한 지역은 조선 영토의 일부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고조선의 마지막 왕 준이나 위만조선의 중신 역계경의 망명 기사를 검토하면 마한의 영토로 나타나는 동두천 지역은 고조선 영역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후에 위만조선(衛滿朝鮮)이 한(漢)과 전쟁에서 패하여 멸망하고 그 땅에 4군이 설치되면서 한(漢)의 지배가 시작되자 유민들의 격렬한 저항이 시작되고, 결국 임둔·진변 양군의 철폐와 함께 현도군이 북방으로 이치(移置)하게 되어 4군의 영역이 급속히 축소되는 과정에서 동두천 지역은 마한의 영토로 정착되는 것이다.

아울러 최근 임진강, 한탄강에서 한강 유역에 이르는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는 주거 유적 중 ㄱ자형 또는 ㄴ자형 주거 유적을 함께 나타나는 조선식 좁은 늦단검이나 중도식 무문토기 등과 함께 고조선 계통 재지인의 유적으로 해석하려는 움직임도 동두천이 고조선 영역이었음을 방증하는 자료로 참고할 수 있다. 물론 이들 주거 유적을 말갈계 또는 초기 한성 백제의 관련 유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마한 지역이나 낙랑, 대방 지역 역시 고조선기에는 고조선의 후국이 위치하였다는 점에서 관점의 차이가 있을 뿐, 동두천 지역이 고조선의 영역이었음을 부정하는 확실한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동두천시 안흥동, 송내리에서 확인되는 고인돌, 선돌 유적은 이들이 고조선의 표지 유물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보다 정밀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2. 고조선 멸망 이후 동두천

고조선은 중국 전국시대의 강국인 연(燕)과 자웅을 겨룰 정도의 강국이었고 그 정치체제 역시 열국을 거느린 동방의 천자국이었다. 따라서 고조선의 영역 안에는 기자조선을 비롯한 여러 제후국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한(漢)과 전쟁에서 고조선이 멸망하자 조선 제후국들은 한이 설치한 군현과 다투는 한편, 다른 제후국들과 경쟁을 통하여 스스로 강역을 유지하거나 확장해 나가게 된다.

임진강 유역 경기 북부 지역에도 이와 같은 지역 분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정리하면 대체로 마한(馬韓), 말갈(靺鞨) 두 토착 세력과 이를 북에서 압박하는 한(漢)의 군현 낙랑(樂浪)이 갈등하는 상황이 전개된다. 동두천은 이들 세력이 충돌하여 공격과 방어, 점령과 후퇴가 거듭되는 역동의 현장이었다.

문헌을 추적하여 구체적인 경과를 살펴보기로 하자.

1) 마한과 동두천

마한은 임진강 이남 한반도 서부 지역에 위치한 부족연맹체 성읍국가들을 통칭하여 부르는 이름이며 삼국지를 비롯한 중국의 사서들은 마한을 구성하는 성읍국가 수를 모두 54개라고 기록하였다. 그리고 그 성읍국가는 목지국이라는 나라를 종주국으로 하여 느슨한 연맹을 구성하고 있었고 각자 부족연맹체 성읍국가는 그 규모에 따라 규모가 큰 곳은 '신지(臣智)', 작은 곳은 '읍차(邑借)'라고 불리는 지배자의 통치를 받고 있으며, 목지국의 왕이 전체 마한을 대표하여 중국 등 외국과 외교관계에서 전체 마한을 대변하였다. 따라서 동두천 지역이 마한 영토였다는 설명은 전체 사실의 일부만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를 정확히 하려면 마한 54개국 중 어느 나라 영토였는가를 밝혀야 한다.

(1) 고리국(古離國) 설

동두천 지역을 영유하였던 마한의 나라는 어느 나라였을까?

이병도는 이를 지명 고증을 통하여 설명하려 하였다.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양주 진접(榛接)의 고구려시대 지명인 골의노현(骨衣奴縣)을 신라 경덕왕이 황양(荒壤)으로 개명하였다는 기사에 주목하여 '고리'와 '골의' 음이 흡사하고 지역이 근접한 것에 착안하여 이를 근거로 양주 일대에 마한의 고리국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후 이병도의 이 추정론은 《양주군지》를 비롯한 각종 관계 자료에 마치 정설인 것처럼 소개되었다.

그러나 이를 역사적 사실로 확정하기에는 문헌적, 고고학적인 근거가 없음은 물론 지명상으로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삼국사기 지리지』에 나타나는 ‘골의노(骨衣奴)’라는 지명은 한자(漢字)로 바꾸는 과정에서 ‘황양(荒壤)’으로 개정되는데 그 의미는 ‘거친 땅’이다. 마한의 나라이름 ‘고리’가 거친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근거를 이병도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고리’와 ‘골의노’의 음이 일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고리국을 양주 지역으로 비정하는 데에는 절대적인 무리가 따른다. 고리국의 위치를 찾는 데 이를 참고할 수는 있겠으나, 음(音)이 그것도 현대 한국어 독음(讀音)이 서로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정설이나 사실(史實)로 확정할 수는 없다.

(2) 신분고국(臣濱古國) 설

근래에 이르러 동두천 지역 마한과 관련하여 주목받는 부분이 ‘기리영(岐離營)전투’이다.

기리영전투는 한(漢)이 고조선 땅에 설치한 군현과 현지 토착세력 간에 벌어진 전투로서 이를 추적하면 현재 동두천 지역을 영유하고 있었던 고대 정치 세력을 파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 준다.

삼국지에 기록된 기리영전투 전말을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초(景初) 중(237-239년)에 명제는 몰래 대방태수 유흔과 낙랑태수 선우사를 바다 건너로 보내어 2군을 다스리게 하였다. 여러 한국의 신지들에게 읍군 인수를 주고 그 아래는 읍장 인수를 주었다. 그들의 풍속은 의척(옷과 두건)을 매우 좋아해서 하호까지 군에 조알하러 왔는데, 모두 가짜 의척을 하고 있었다. 스스로 인수, 의척을 만들어 입은 이도 천여 명이 넘었다. 부중사 오림이 한국은 본래 낙랑군이 통치하였으므로 진한 팔국을 분할해서 낙랑군으로 한다고 하니 통역이 잘못되어 한의 신지들이 격분하여 대방군 기리영을 공격하였다. 대방태수 궁준과 낙랑태수 유무가 군사들을 동원하여 이들을 정벌하다가 궁준이 전사하였다. 2군은 마침내 한을 멸망시켰다.(景初中 明帝密遣帶方太守劉昕 樂浪太守鮮於嗣越海定二郡 諸韓國臣智加賜邑君印綬 其次與邑長 其俗好衣幘 下戶詣郡朝謁 皆假衣幘 自服印綬衣幘千有餘人 部從事吳林以樂浪本統韓國 分割辰韓八國以與樂浪 吏譯轉有異 同 臣智激韓忿 攻帶方郡岐離營 時太守弓遵 樂浪太守劉茂興兵伐之 遵戰死 二郡遂滅韓 三國志 魏志 韓傳)

3세기 중엽에 일어난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세력과 중국 군현 사이에

발생한 싸움이다. 여기에서 중국 군현이란 물론 낙랑군과 대방군을 가리킨다. 하지만 그 반대편인 한반도 세력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적지 않은 논란이 있다.

일반적으로 구해볼 수 있는 『삼국지』 통행본에는 ‘한의 신지들이 격분하여(臣智激韓忿)’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기리영전투의 한쪽 측은 ‘신지’로 대표되는 세력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 문장 ‘臣智激韓忿’을 ‘한의 신지들이 격분케 하여’로 해석하는 것은 문맥에 맞지 않는 억지 해석이다. 이 문장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아 해석이 어려운데 그나마 이를 억지로라도 해석하자면 ‘신지가 한을 격분케 하여’가 되어 전체 문장 뜻이 대단히 모호해진다. 신지는 한(韓)의 지배자인데 그 신지가 한을 격분케 하였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격분케 하였다는 말이 되니 앞뒤가 전혀 맞지 않게 된다.

그런데 남송 때 나온 백남본인 소흥(紹興)본에는 문제의 ‘신지격한분(臣智激韓忿)’이 ‘신책점한분(臣幘沾韓忿)’으로 표기되어 있다. ‘신책점한이 분노하여’라고 쉽게 해석된다. 즉 한 군현이 마한 일부 국가를 자신들 영역으로 재편하려 하자 이의 대상이 되는 경기북부의 마한 국가 중 하나인 ‘신책점한(臣幘沾韓)’이 격분하여 한 군현과 싸워 대방태수 궁준을 전사하게 하였다는 것이고 이 전투가 바로 기리영전투인 것이다. 신책점한(臣幘沾韓)이란 무엇인가? 이는 필시 마한 50여 국 가운데 하나일 것인데 삼국지 등 관련 사료에는 마한 54개국 중에 ‘신책점한(臣幘沾韓)’이라는 나라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다른 사료에는 ‘신분활국(臣幘活國)’이라는 이칭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명 ‘신책점한(臣幘沾韓)’, ‘신분활국(臣幘活國)’은 삼국지에 나타나는 ‘신분고국(臣幘沽國)’의 오기(誤記)일 것이라는 비교적 확실한 추론을 얻게 된다. 더욱이 이 ‘신분고국’은 삼국지 한조에서 백제(伯濟) 바로 앞에 거론되고 있다. 한조에 기재된 국명 순서가 대체적으로 북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경로를 따라 거명되고 있다는 기존 연구 성과에 비추어 볼 때 이 ‘신분고국’과 백제는 연결해 있었고 다만 ‘신분고국’ 쪽이 보다 북쪽 즉, 대방에 좀 더 가까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기리영전투는 한 군현, 구체적으로는 대방 최남단 지역에서 한 군현 연합 세력과 마한의 신분고국이 격돌하였던 전투다.

통설에 따르면 대방은 대략 황해도 지역으로 비정된다. 즉 마한과 대방 경계는 지금의 임진강 계선을 따라 형성되어 있었고, 백제와 신분고국이 나란히 인접하여 위치하였다면 신분고국의 위치는 바로 현재 동두천 일대가 된다. 그리고 동두천

지역에 위치하였던 신분고국은 마한 지역으로 진출하여 이 지역을 영유하고자 하는 낙랑, 대방의 남진로에 위치하여, 기리영전투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군현 연합 세력의 주축인 대방태수를 전사시킬 정도로 강력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시적인 대승에도 불구하고 거듭되는 전쟁 끝에 결국은 군현 세력에 의하여 멸망하게 되고 동두천 지역은 말갈, 백제, 한 군현이 혼재하며 쟁패하는 혼란 상황으로 빠져들게 된다.

『삼국지』의 기리영전투 관련 기사는 마한이 군현에 의하여 멸망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지하는 것처럼 마한은 하나의 통일된 국가가 아니라 50여 개의 연맹체 소국이 결성한 느슨한 연방이었다. 아울러 군현 세력이 임진강, 한강 계선을 넘어 한반도 남부 내부로 진출한 흔적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마)한이 마침내 멸망하였다'라는 기사는 마한 전체에 적용할 수 없고, 기리영전투를 담당하였던 신분고국을 해체하고 그 영토의 일부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된다. 신분고국이 멸망한 직후의 상황은 『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조왕조'의 다음 기사로 짐작할 수 있다.

온조왕 13년 여름 5월

왕이 신하에게 이르기를 “나라의 동쪽에는 낙랑이 있고 북쪽에는 말갈이 있어 변경을 자주 침공하기 때문에 편안한 날이 적으며...”

이 기사는 마한의 영토 할양으로 한수 이북 양주 지역에 정착한 온조 집단이 거듭되는 한 군현과 말갈의 압박을 피해 근거지를 한강 이남으로 옮기는 시기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서울, 양주, 동두천 등 경기 북부 지역에는 백제, 말갈, 낙랑이 서로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기리영전투에 등장하였던 마한이 언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신분고국의 멸망은 기정사실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신분고국 멸망 이후 동두천을 비롯한 경기 북부 지역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해당 세력 별로 추적하여 보자.

2) 말갈과 동두천

① 문헌에 나타나는 말갈

『삼국사기』에 대거 등장하는 말갈(靺鞨)의 존재와 정체에 대하여는 그간

많은 추정과 논란이 있었다. 왜냐하면 『삼국사기』 초기 기사부터 나타나는 말갈은 이후 만주지역에 나타나는 말갈보다 그 출현 시기가 현저히 앞선데다 무엇보다도 연원과 활동, 종족, 문화의 모든 면에서 명확히 구분되는 별개의 존재임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삼국사기』에 나타나는 말갈, 즉 ‘한반도 말갈’과 읍루에서 연원하여 이후 고구려에 예속되었다가 고구려 멸망 이후에 발해 건국에 참여하고 만주 지역의 정세 변화를 따라 그 후 여진족으로 칭해지며, 청을 건설하는 ‘만주말갈’ 각각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는 한반도 고대사에서 가장 어려운 일종의 미스테리에 속하는 부분이다.

정약용을 비롯한 조선시대의 역사가들로부터 시작하여 최근에 이르기까지 이 ‘한반도 말갈’은 용어를 잘못 사용한 ‘가짜말갈(僞靺鞨)’로 이해되었고 사기에 나타나는 그들의 활동은 ‘동에(東濊) 혹은 ‘예(濊)’의 별종의 것으로 취급하여 가능한 한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 ‘한반도말갈’의 활동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데에 있다. 존재 기간이 삼국시대 전반에 걸칠 정도로 장구하며, 그들의 활동을 도외시킬 경우 해당 시기 전체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데에 있었다. 결국 한반도의 말갈을 실체 그대로 인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작업이 본격화했고 최근에는 한반도 말갈에 대한 본격적인 문헌 검토와 함께 고고학적 자료들의 해석이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 말갈의 활동과 이동을 추적하여 이들을 영서말갈과 영동말갈로 구분하고 해당 지역에 나타나는 고고학적 흔적을 추적함으로써 한반도 말갈에 관한 연구는 상당한 집적을 보이게 된다.

아울러 한반도 말갈의 정체성에 대하여도 ‘말갈(靺鞨)’이 종족 고유의 명칭이 아니라 주변부에 대한 멸칭(蔑稱)이었다는 해석이 나타나고 결국은 우리가 흔히 이민족에 대하여 사용하는 ‘오랑캐’나 ‘양키’ 또는 중국이 주변부 여러 종족을 부르던 ‘이(夷)’ 또는 ‘흉노(匈奴)’처럼 말갈도 특정 명칭이 아니라 문화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정치 군사적으로 경계의 대상이 되던 이들을 타방에서 부르던 멸칭이 특정 명칭으로 채택되고 굳어지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대두되었다. 즉, 한반도에 위치하던 만주에 위치하던 정치권력의 주변부에서 대치하던 종족을 말갈(靺鞨)이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이는 만주의 말갈이 고구려와 당에 예속되거나 이들과 정치 군사적으로 대치된 상황에서 말갈이라고 불렸고, 한반도의 말갈 역시 백제, 신라와 군사적으로 대립, 항쟁하거나 고구려에 예속된 상황에서 역시 말갈이라는 비칭(卑稱)으로

불린 집에서 일맥이 상통한다.

『삼국사기』 초기의 백제 관계 기록에 나타나는 말갈의 위치를 동두천을 비롯한 경기 북부 일대로 보는 이유는 서울, 의정부, 포천 지역에 자리 잡고 건국한 백제와의 항쟁 기록 때문이다. 우선 이에 관계되는 기록들을 살펴보자.

春正月百濟王謂群臣曰 靺鞨連我北境其人勇而多詐 宜繕兵積穀爲拒守之計

봄 정월에 백제왕이 군신들에게 이르되 “말갈이 우리의 북쪽에 접하여 있는바 그들은 용맹하고 또 음모를 잘 꾸미니 마땅히 군사를 기르고 군량을 저축하여 그들을 막아내는 계책을 삼아야 하겠다” 하였다.¹⁾

春正月靺鞨大入北境 殺掠吏民 秋七月又襲大柵嶺 過於泥河

봄 정월에 말갈이 북쪽 변경에 대거 침공하여 관리와 백성을 죽이고 노략질하였다. 7월에 다시 대척령을 습격하고 니하를 지났다.²⁾

秋九月 靺鞨侵北境王帥勁兵急擊大敗之 賊生還者十一二

은조왕 3년 가을 9월에 말갈이 북쪽 경계에 침공하였다. 왕이 굳센 군사를 거느리고 이를 급히 쳐서 물리쳤다. 적중에 살아 돌아간 자가 열에 하나 둘에 불과하였다.³⁾

春二月 靺鞨城三千來圍麗澤城 王閉城門不出經旬賊糧盡而歸 王簡銳卒追及大斧峴 一戰克之殺虜五百餘

은조왕 8년 봄 2월에 말갈 적병 3천여 명이 와서 위례성(慰禮城)을 포위하자. 왕은 성문을 닫고 나아가 싸우지 않았다. 열흘이 지나 적의 양식이 다 떨어져 돌아가자 왕은 날랜 군사를 뽑아 대부현(大斧峴)까지 쫓아가 한 번 싸워 이겼으며 5백여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다.⁴⁾

冬十月 靺鞨寇北境 王遣兵二伯拒戰於昆彌川上 我軍敗績依青木山自保 王親帥精騎一百出 烽嶼救之賊見之退却

은조왕 10년 겨울 10월에 말갈이 북쪽 경계를 노략질하였다. 왕은 군사 2백 명을 보내어 곤미천(昆彌川) 가에서 막아 싸우게 하였다. 우리 군사가 패배하여 청목산(靑木山)을 의지하고 스스로 지켰다. 왕이 친히 정예 기병 1백 명을 거느리고 봉현(烽嶼)으로 나아가 구원하니 적이 보고는 곧 물러갔다.⁵⁾

冬十月 靺鞨掩至 王帥兵逆戰於七重河 虜獲酋長素牟送馬韓 其餘賊盡坑之

은조왕 18년 겨울 10월에 말갈이 갑작스럽게 습격하여 왔다. 왕은 군사를 거느리고 칠중하(七重河)에서 맞아 싸워 추장인 소모(素牟)를 사로잡아 마한(馬韓)에 보내고 그 나머지 적들은 모두 살아있는 채로 구덩이에 묻어버렸다.⁶⁾

秋九月 靺鞨來攻述川城 冬十一月又襲斧峴城 殺掠百餘人 王命勁騎二百拒擊之

은조왕 40년 가을 9월에 말갈이 술천성(述川城)을 침공하였다. 겨울 11월에 또 부현성을 습격하여 백여 명을 죽이고 약탈하였다. 왕이 날랜 기병 2백 명에 명하여 이를 반격하도록 하였다.⁷⁾

秋九月 靺鞨攻陷馬首城放火燒百姓薳屋 冬十月又襲瓶山柵

다루왕 7년 가을 9월에 말갈이 마수성(馬首城)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불을 놓아 백성의 집을 태웠다. 겨울 10월에 또 병산책(瓶山柵)을 습격하였다.⁸⁾

1) 『三國史記』百濟本紀 溫祚王二年

2) 『三國史記』新羅本紀 祗摩尼師今14年

3) 『三國史記』百濟本紀 溫祚王3年

4) 『三國史記』百濟本紀 溫祚王8年

5) 『三國史記』百濟本紀 溫祚王10年

6) 『三國史記』百濟本紀 溫祚王18年

7) 『三國史記』百濟本紀 溫祚王40年

8) 『三國史記』百濟本紀 多婁王7年

9) 『三國史記』百濟本紀 肖古王 49年

秋九月 命北部眞果領兵一千 襲取鞋鞞石門城

초고왕 49년 가을 9월 북부의 진과(眞果)에게 명하여 군사 1천 명을 거느리고 말갈의 석문성을 습격하여 획득하였다.⁹⁾

온조왕 대의 백제는 한강 북부에 건국되었고 그 초기 영역은 임진강 남쪽에 국한되었다. 그리고 그 임진강 남쪽에서 전술한 것처럼 한의 군현과 백제, 말갈이 서로 경쟁하며 지역 패권을 다투었다.

위에 인용한 자료들은 말갈이 백제에 침공하여 백제와 싸우는 기록인데 특기할 사항은 전투가 모두 백제 북단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인용한 자료에 나타나는 당시 지명 중에 현재 위치가 확인된 곳들을 검토하면 백제와 말갈의 당시 영역을 상당 부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8-1〉 백제와 말갈의 영역

당시 지명	현재 위치	전투 상황
니하	임진강 상류	말갈군의 기동
위례성	의정부	말갈군의 포위 공격
곤미천	임진강 중류	말갈군과 전투
청목산	개성	백제군의 저항선 구축
봉현	파주	백제 구원군의 기동
칠중하	파주 임진강 하류	백제군의 요격
석문성	양주 옥정동	백제군의 공격

위의 자료를 분석하면 온조왕 대에서 다루왕 대까지 초기 전투는 말갈의 기동과 공격을 백제가 요격하거나 반격하는 상황으로 주로 전개되고 있는데 말갈군은 임진강을 따라 대체적으로 서남 방향으로 진출, 기동하여 백제를 공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의정부, 파주 등이 말갈의 공격지향선이다. 따라서 말갈군은 이 공격 지향선의 동북 방향에서 군을 출발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말갈의 본진 위치는

대체로 의정부의 동북방, 파주의 동방으로 파악되어 구체적으로는 동두천을 위시한 임진강, 한탄강 상류 지역에 비정할 수 있게 된다.

말갈은 의정부 지역 하북 위례성을 근거로 임진강 하류, 포천 지역, 양주, 연천 방향 등으로 진출해 오는 백제를 견제하고 한강에서 임진강 사이 옛 마한 영역을 점령하고자 하는 기도로 백제에 대한 침공을 거듭하였고, 결국 백제는 말갈의 이 거듭되는 침공을 견디지 못하여 결국 수도를 한강 이남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다. 다음의 사료를 보자.

夏五月王謂臣下曰 國家東有樂浪北有靺鞨 侵迭疆境少有寧日 況今妖祥屢見國母棄養 勢不自安必將遷國 予昨出巡觀漢水之南 土壤膏腴宜都於彼以圖久安之計

온조왕 13년 여름 5월 왕이 신하에게 말하였다. “우리나라의 동쪽에는 낙랑이 있고 북쪽에는 말갈이 있어 영토를 침략함으로 편안한 날이 적다. 하물며 이제는 요망한 징조가 자주 나타나고 국모가 돌아가시니 형세가 스스로 편안할 수 없다. 장차 꼭 도읍을 옮겨야겠다. 내가 어제 순행을 나가 한수(漢水) 남쪽을 보니 땅이 기름지므로 마땅히 그곳에 도읍을 정하여 길이 편안할 수 있는 계책을 도모하여야 하겠다.”¹⁰⁾

온조왕 13년의 이 기사는 백제 세력이 말갈에 밀리면서 일시적으로 한강 이북 지역을 포기하고 남하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말갈 영역이 한탄강 지역으로부터 남쪽으로 확대되어 의정부, 양주 일대까지 미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따라서 말갈은 양주 지역에 성을 쌓는 등 나름대로 확장된 영역 통치의 기반을 조성해 나갔다. 다음의 사료는 이를 확인하게 해준다.

秋九月 命北部眞果領兵一千 襲取靺鞨石門城

초고왕 49년 가을 9월 북부의 진과(眞果)에게 명하여 군사 1천 명을 거느리고 말갈의 석문성을 습격하여 획득하였다.¹¹⁾

위 기사는 214년, 그러니까 말갈에게 한수 이북 지역의 주도권을 빼앗긴 지 거의 200년이 경과한 후의 기록이다. 초고왕은 신라와 전투로 옥천 등지를 탈취하여 동부지역 지배가 안정되자 이어 북부 공략에 나서게 된다. 이때 진행된 말갈과 전투에서 확인되는 말갈의 성이 바로 석문성이다. 석문성은 현재 양주 옥정동 지역으로 여기에는 지금도 석문리라는 지명이 남아있다. 그리고 이후 말갈과 백제와 전투는 근초고왕의 백제 전성기를 맞으며 그 주도권이 백제로 넘어가고 동두천을 비롯한 기존 생활 근거지를 상실한 말갈은 부족 전체가

10) 『三國史記』百濟本紀 溫祚王 13年

11) 『三國史記』百濟本紀 肖古王 49年

- 12) 『三國史記』百濟本紀 東城王 4年
- 13) 『三國史記』百濟本紀 武寧王 6年
- 14) 『三國史記』百濟本紀 武寧王 7年
- 15) 『三國史記』百濟本紀 義慈王 15年

동부로 이동하여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나서게 된다. 이 과정에서 말갈은 제천 지역에서 신라와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되고 그 중 일부 말갈 세력은 아예 대관령 서쪽 일대에 정착하여 우리는 이를 영서말갈이라는 명칭으로 말갈 주류와 구분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소백산을 넘어 영주, 순흥 일대로 진출을 노리던 말갈 주류는 신라의 치열한 저항으로 그 기도가 좌절되자 다시 임진강 유역으로 회귀하게 되는데 당시 경기 북부를 두고 백제와 치열한 공방을 벌이던 고구려는 이들 회귀하여 오는 말갈을 수용하여 군사적으로 예속하고 이후 말갈은 고구려 휘하에서 한수 이북 패권을 놓고 다시 백제와 전투를 거듭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의 사료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靺鞨破漢山城 虜三百餘戶以歸

동성왕 4년 가을 9월 말갈이 한산성을 습격하여 격파하고 300여 호를 포로로 하여 데리고 돌아갔다¹²⁾

靺鞨來侵破高木城 殺虜六百餘人

무령왕 6년 7월 말갈이 침입하여 고목성을 깨뜨리고 600여 명을 살상 포로하였다.¹³⁾

高句麗將高老與靺鞨謀 欲攻漢城進屯於橫岳下 王出師靺鞨退之

무령왕 7년 겨울 10월 고구려 장수 고로가 말갈과 짜고 한성을 치기 위하여 횡악 아래에 와서 둔을 치므로 왕이 군사를 출동시켜 그들과 싸워 물리쳤다.¹⁴⁾

동성왕 대에서 무령왕 대에 이르는 이들 자료들에 나타나는 말갈은 위 사료에서 보듯 고구려의 통제를 받고 있었다. 이미 말갈은 독자적인 자립 기반을 잃고 고구려의 예속민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 말갈은 삼국 쟁패가 종결되어 갈 무렵까지 이와 같은 예속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종족의 운명을 다하게 된다.

八月 王與高句麗靺鞨攻破新羅三十餘城 新羅王金春秋遣使朝唐 表稱百濟與高句麗靺鞨侵犯 北界沒三十餘城

의자왕 15년 8월 왕이 고구려 말갈과 함께 신라의 30여 개 성을 격파하였다. 신라왕 김춘추가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표문을 올려 이르기를 백제와 고구려 말갈이 우리의 북쪽지경에 침입하여 30여 개의 성을 함락시켰다 하였다.¹⁵⁾

위 사료는 의자왕의 신라 침공을 기록한 사료인데 이 기록에도 역시 고구려 예속민 말갈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말갈이 삼국시대가 종결될 때까지 비록 예속민의 형태로나마 끈질기게 종족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흔히 말하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에 더하여 가야와 함께 말갈을 첨가한 5국 시대의 새로운 개념의 연구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다.

② 고고학 자료로 본 말갈

오랜 기간 한반도 중부에 존재하였던 말갈에 관련한 고고학적 자료는 아직 분명하고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구자들은 동두천을 비롯한 한수 이북, 그리고 말갈족의 정착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춘천, 가평 등 영서 지역에서 말갈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고학적 자료들에 주목하기 시작하고 있다.

학자들이 말갈족과 연관을 검토하는 자료는 첫째 ㄱ자형, 또는 ㄴ자형 주거지와 이를 중심으로 발견되는 중도식 토기와 증석식 무덤이다.

물론 ㄱ자, ㄴ자형 주거지는 풍납동 토성을 비롯한 백제 초기 유적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며 증석식 돌무지무덤과 방이동, 석촌동 등 초기 백제 고분들과 연관성 등이 보다 깊이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이들 주거지와 돌무지무덤이 외지 유입민보다는 현지인들에 의하여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사실에는 이의가 없는 듯하다.

이흥중에 의하면 한강 유역 주거지는 크게 두 계통, 즉 재지계와 외래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재지계의 경우 방형계 주거지가 이에 해당하며, 원형계의 경우 와질토기를 동반하면 외래계로 볼 수 있다고 한다. 특이한 것은 이 와질토기를 공반한 원형주거지의 경우 부뚜막을 가지고 있는데 부뚜막은 그 기원 문제에 있어서 같은 형태의 부뚜막이 중국 서부 내륙 지역이나 북방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요녕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북 지역과 관련을 유추해 볼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반하여 ㄴ자형 주거지 경우는 청동기시대 이래 이 지역 재지계 주거지에 연원이 닿는다고 한다.

아울러 이와 같은 형태 주거지와 무덤 분포지가 문헌에 나타나는 말갈 지역, 즉 임진강, 한탄강 유역과 함께 그들이 백제에 패하여 영서 일대로 이동하는 경로로 파악되는 한강 상류에서도 많이 발견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특히 이번 최무장 교수의 동두천 지역 지표조사 결과 발견된 동두천 송내리의 증석식 돌무지무덤 역시 동두천 지역이 말갈계 유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어 주목된다. 이후 본격적이고도 체계적인 조사, 연구를 진행하면 더 많은 말갈 관련 유적이 동두천에서 확인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3) 한 군현과 동두천

이미 기술한 것처럼 고조선 멸망 이후 설치된 한 군현들은 고조선 유민들의 적극적이고도 치열한 저항을 통하여 단기간 내에 존립근거를 잃고 만다. 공식적으로도 진번군은 26년 만인 기원전 82년에 임둔군은 23년 후인 기원전 85년에 각각 폐치(廢置)되었고, 현도군은 본래 설치 관할지역을 떠나 북방으로 멀리 이치(移置)되는 등 실질적인 지배권을 상실하게 된다. 고조선의 강역 일부에 한(漢)이 설치한 군현 중 이제 남은 것은 낙랑군뿐이었는데 낙랑군은 폐치(廢置)된 진번군 지역을 흡수하고 여기에 낙랑군 남부도위를 설치하였다가 후한 말기 혼란의 와중에 요하 지역의 지배권을 갖게 된 공손 씨 정권이 이를 대방군으로 승격시킴으로써 동두천 일대를 둘러싼 영유권 쟁탈에 뛰어들게 된다. 낙랑과 대방이 경기 북부 지역으로 진출하고자 했던 것은 남부의 한(韓)과의 관계에서 정치적 수위권을 확보하고자 한 때문이었다. 따라서 한강 유역에 정착한 초기 백제 정권과,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 지역으로 진출하려는 한 군현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이 조성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기리영전투에서 본 것처럼 이미 한강 유역 토착 세력과 한 군현 세력 사이에는 군사적 충돌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말갈과 백제 대립 못지않은 첨예한 대치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夏五月 王謂臣下曰 國家東有樂浪北有靺鞨侵軼疆境少有寧日
況今妖祥屢見國母棄養勢不自安必將遷國 汝昨
出巡觀漢水之南土壤膏腴宜都於彼以圖久安之計
秋七月就漢山下立柵多墾墾城民戶

㉠ 온조왕 13년 여름 5월

왕이 신하에게 이르기를 “나라의 동쪽에는 낙랑이 있고 북쪽에는 말갈이 있어 변경을 자주 침공하기 때문에 편안한 날이 적으며 더군다나 요즘은 요망한 징조가 자주 나타나며 왕모마저 세상을 떠나시니 사세가 스스로 불안하게 되었다. 필히 장차 도움을 옮겨야 하겠다. 내가 어제 순행을 나가 한강의 남쪽을 살피니 토지가 비옥하였다. 마땅히 거기에 도움을 정하여 오래 평안한 계획을 도모하여야 하겠다” 라고 하였다. 가을 7월에 한산 아래 목책을 세우고 위례의 백성을 옮겼다.¹⁶⁾

春 樂浪來侵焚燬豐城

㉡ 온조왕 17년 봄

낙랑이 침입하여 위례성을 불살랐다.¹⁷⁾

王欲襲樂浪牛頭山城 至曰谷遇大雪乃還

㉢ 온조왕 18년 11월

왕이 낙랑의 우두산성을 습격하고자 구곡까지 갔다가 큰 눈을 만나 돌아오고 말았다.¹⁸⁾

秋九月 漢與貊人來侵 王出禦為敵兵所害 薨

㉣ 책계왕 13년 가을 9월

한이 맥인을 거느리고 와서 침략하므로 왕이 나가서 막다가 적병들에게 살해되었다.¹⁹⁾

春二月 濊師襲取樂浪西縣 冬十月 王爲樂浪太守所遣刺客害薨

㉤ 분서왕 7년 봄 2월

비밀히 군사를 출동하여 낙랑의 서현을 습격하여 빼앗았다. 겨울 10월에 왕이 낙랑태수가 보낸 자객에게 살해되었다.²⁰⁾

16) 『三國史記』百濟本紀 溫祚王 13年

17) 『三國史記』百濟本紀 溫祚王 17年

18) 『三國史記』百濟本紀 溫祚王 18年

19) 『三國史記』百濟本紀 責稽王 13年

20) 『三國史記』百濟本紀 汾西王 7年

위에 인용한 사료들은 백제와 한 군현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을 기록한 것이다. 특히 백제가 수도를 한강 남쪽으로 옮긴 이후에는 보다 대규모 군사 충돌이 일어나고 있고 책계왕, 분서왕 등 백제 최고위 지도자들이 한 군현 세력과 전투를 일선에서 지휘하는 한편, 그들에 의하여 사망하고 있는 사실은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대단히 주목된다.

특히 ㉠사료는 동두천, 양주 등 한강 이북 지역이 비록 일시적이라고는 하여도 한 군현의 침공으로 점령되었을 뿐 아니라 ㉢사료에 나타나는 것처럼 낙랑의 군사적, 행정적 거점으로 산성이 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한 군현의 남하 진출은 초기 백제에게는 상당한 압력과 위기로 작용하였다. 그런데 한 군현의 이와 같은 압박은 뜻밖의 상황으로 제거, 종식되었다. 고구려가

한 군현을 공격하여 이를 궤멸시켜 버린 것이었다.

고구려는 최초 건국지인 만주 중부 부여 지역 환인에서 압록강 중류 국내성으로 근거지를 옮기고 다시 이를 평양으로 이동하였던 사실에서 보는 것처럼 국가 경영 중심지를 거듭 동천(東遷)해 왔다. 이 과정에서 고구려는 필연적으로 한 군현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고구려는 건국 당시부터 현도군의 압박과 위협을 극복하여야 했고, 근거지를 동쪽으로 옮기고 인근 여러 부족을 복속시키는 과정에서도 역시 군현과 전투를 거듭하여야 했다.

나라가 안정되고 중앙집권적인 왕권이 확립되면서 고구려는 요하 지역에 대한 진출을 강화하였다. 특히 요서의 서안평을 둘러싸고 벌어진 치열한 중국과의 거듭된 공방전은 한때 고구려의 국가 위기를 불러오기도 하였으나 결국 요하 일대에 대한 고구려의 지배권 확립으로 마무리되면서 이후 고구려는 본국과 연결 통로를 상실한 낙랑과 대방에 대한 공격을 강화한다. 백제 역시 마한 지역에 대한 영유가 확정되고 왕권이 강화되면서 한수 이북 지역에 대한 진출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게 되자 313년 대방태수 장통의 도주와 낙랑 함락으로 한 군현은 마침내 소멸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하던 한 군현의 소멸은 이 지역의 지배권을 둘러싼 고구려와 백제의 충돌로 이어지고 이후 고구려의 대대적인 침공으로 한성백제가 멸망하는 상황으로 발전된다.

4) 백제의 건국과 동두천

중국 사서 『삼국지(三國志)』에는 마한(馬韓) 54개국의 하나로 백제(伯濟) 라는 나라가 언급되고 있다. 이 '백제(伯濟)'와 '백제(百濟)'는 어떤 관계인가? 『삼국지』는 서진(西晉)의 관리이자 역사가인 진수(陳壽, 233~297년)에 의하여 편찬된 중국 정사의 하나이다. 따라서 이 책이 편찬될 무렵에는 백제라는 국가의 존재가 정확하게 중국에 알려진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삼국지의 마한조에 기록된 백제(伯濟)는 백제(百濟)의 오기이거나 혼용이 될 수는 없다. 이는 편찬자가 두 개 국명을 분명히 구분하여 쓴 것이 틀림이 없다. 따라서 백제(伯濟)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은 백제의 정착과 건국을 이해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백제의 건국과정을 이해하는 데는 두 가지 접근 방향이 있다. 하나는 백제 건국 신화를 통한 접근이요, 하나는 『삼국사기』의 초기 백제 건국 과정을 통한 접근이다.

백제 건국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초기 한성백제 정착지가 우리 동두천 지역이기에
기원을 전후한 동두천 지역 정치 상황과 강역 문제를 이해하는 단서가 되는
때문이다.

(1) 백제의 건국신화와 동두천

『삼국사기』는 백제의 창건자 온조를 고구려의 창건자 주몽의 아들로서 주몽의
또 다른 아들 유리와의 갈등을 피하여 동조자들과 함께 이주하여 새 나라 백제를
창건하였다고 기록하였다. 관련 기록을 보자.

百濟始祖溫祚王 其父鄒牟或云朱蒙 自北夫餘逃難至卒本夫餘
夫餘王無子只有三女子 見朱蒙知非常 人以第二女妻之 未幾夫餘王薨朱蒙嗣位
生二子長曰沸流次曰溫祚 及朱蒙在北夫餘所生子來爲太子 沸流溫祚恐爲太子所不容
遂與烏干馬黎等十臣南行百姓從之者多 遂至漢山登負兒嶽望可居之地 沸流欲居於海濱
十臣諫曰 惟此河南之地 北帶漢水東據高岳南望天澤西阻大海 其天險地利難得之勢
作都 於此不亦宜乎 沸流不聽分其民歸彌鄒忽以居之 溫祚作都於南慰禮豐城以十臣爲輔翼
國號十濟是前漢成 帝鴻嘉三年也 沸流以彌鄒土濕水鹹不得安居 歸見慰禮
都邑鼎定人民安泰 遂暫悔而死 其臣民皆歸於 慰禮 後以來時百姓樂從 改號百濟
其世系與高句麗同出夫餘 故以夫餘爲氏

백제 시조 온조왕은 그의 아버지가 추모(鄒牟)인데 혹은 주몽(朱蒙)이라고도 한다.
주몽이 북부여(北夫餘)로부터 난을 피하여 졸본부여(卒本夫餘)에 이르렀더니
부여왕이 아들은 없고 다만 딸 삼 형제가 있었는데 주몽을 대함에 그가 보통이
아님을 알고 둘째 딸로서 아내를 삼게 하였다. 그 후 얼마가지 않아서 부여왕이
죽고 주몽이 그의 위를 이었다. 주몽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맏아들은 비류(沸流)
요, 둘째 아들은 온조(溫祚)이다. 주몽이 북부여에서 낳은 아들이 와서 태자가 되매
비류와 온조는 태자에게 용납되지 못할까 염려하여 마침내 오간(烏干), 마려(馬
黎) 등 열 명의 신하를 데리고 남쪽지방으로 떠나니 백성들 중에서 따르는 자가
많았다. 한산(漢山)에 이르러 부아악(負兒嶽)에 올라 살 만한 곳을 살피더니 비류는
바닷가에서 살고자 하였다. 열 명의 신하가 간하여 아뢰기를 "바로 이곳 강 아래의
땅은 북으로 한수를 띄우고, 동쪽으로는 높은 산에 가로 막혔으며, 남으로는 비옥한
들만이 펼쳐지고, 서쪽은 큰 바다로 막혀 있으니 이러한 천연의 요새를 얻기가 그리
쉽겠습니까?"

여기에 도읍을 정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그러나 비류는 이를 듣지
않고 따라온 백성들을 나누어 미추홀(彌鄒忽)로 가서 살았다. 온조는 하남위례성(河
南慰禮城)에 도읍을 정하고 열 신하의 보조를 받으며 나라의 이름을 <십제(十濟)>
라 하니 이 때가 바로 전한(前漢) 성제(成帝)의 홍가(鴻嘉) 3년이였다. 미추홀의 땅이
습하고 물이 짜서 백성이 살수 없게 된 비류가 위례에 돌아와 보니 도읍이 완성되고
백성들이 태평한 것을 보고 그만 부끄럽고 한스러워 병이 되어 죽으니 그의 신하와
백성들이 모두 위례로 귀속하였다. 그 후에 위례로 올 때 백성들 모두가 즐겁게
따랐다 하여 국호를 <백제(百濟)>라 고치고 그의 조상이 고구려(高句麗)와 함께 부여
(夫餘)에서 나왔다하여 부여(夫餘)를 성(姓)으로 하였다.²¹⁾

21) 『三國史記』百濟本紀始祖溫祚王

이 기사는 백제의 건국을 둘러싼 당시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압축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를 개조식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ㄱ. 백제의 시조 온조는 주몽의 아들로서 부여에서 기원되었다.
- ㄴ. 온조는 부여를 떠나 이주해온 이주세력이다.
- ㄷ. 백제의 건국과정에서 온조와 그의 형 비류는 근거지 설정을 둘러싼 주도권을 놓고 심각하게 대립하였다.
- ㄹ. 백제의 건국 당시의 국호는 <십제(十濟)>였고 정치상황이 안정된 후에 이를 <백제(百濟)>로 고쳤다.
- ㅁ. 온조는 부아악에 나라를 세웠다.

정리된 건국 기사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온조가 나라를 세운 장소인 ‘부아악(負兒嶽)’이다. 고대사 연구자들은 모두 이 부아악(負兒嶽)이 현재 북한산이라는 사실에 동의한다. 그리고 <부아악(負兒嶽)>이 북한산이라는 전제 아래서 백제의 첫 수도인 하북위례성의 위치를 추정하여 왔다. 하북위례성의 위치를 정약용은 북한산 동록 지금의 미아리 일대로 보았고 이병도는 세검정으로, 김양수는 고양으로 비정하였다. 한편 김정학은 <풍납리토성>을, 차용길은 중랑천 유역을, 오순재, 한종섭은 방학동에 비정하였다. 모두 부아악, 즉 북한산을 기점으로 그 주변부에 당시 상황에 부합되는 장소를 각각의 주관에 따라 찾아보니 나타난 결과다.

근년에 들어서 안국승이 두 개의 초기 백제산성과 그 산성에 결부된 다량의 초기 백제 고분을 근거로 새로이 의정부 호원동을 하북위례성으로 추정한 학설은 매우 주목되는 의견이다. 이는 북한산 근처에서 찾아낸 백제 유적을 바탕으로 비정된 대단히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백제 건국지 하북위례성의 정확한 위치는 앞으로 보다 진척될 새로운 발견과 연구를 기다려야 확정되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백제의 건국 세력은 한강 이북 지역에 자리잡고 이를 근거지로 국가를 건설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백제 건국과 관련한 동두천 지역의 고대 정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동두천 지역은 이 지역을 영유하던 고조선의 멸망 이후 마한에 속하여 그 중 한 나라인 신분고국이 차지하고 있었고, 이어 한 균현과

말갈이 이 지역 영유를 다투는 가운데 다시 새로운 이주 세력인 백제가 그 다툼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한 군현 세력과 말갈 세력을 구축한 백제가 이 지역을 영유하며 이를 근거로 북방으로의 진출을 적극 모색하게 된 것이다.

문헌에 나타나는 백제와 한 군현 그리고 백제와 말갈과의 전투 기록을 검토하면 동두천을 둘러싼 여러 지명이 나타나고 있다. 포천, 고양, 파주, 양주 등으로 비정되는 당시의 전투지들이 그것이다. 동시에 고고학적인 자료도 이와 같은 기록을 여러모로 뒷받침하고 있는데, 의정부 민락동 유적 상층부에 나타나는 초기 백제 유물, 포천 반월산성에서 찾아낸 초기 백제 토기, 양주 대모산성의 백제계 토기 그리고 동막골을 비롯한 동두천 전역에서 수습되는 다량의 백제 토기편들이 바로 그것들이다. 특히 초기 백제의 영역을 추정할 수 있는 주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 파주의 육계토성이다.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호로고루, 당포성 등 고구려의 관방과 대척점에 위치하고 있는 이 토성은 몽촌토성이나 풍납토성 등 초기 백제계 토성과 축성 방법이나 구조가 매우 닮아 있는데다가 초기 백제 유적에 나타나는 ㅼ자형, 또는 ㅊ자형 주거지도 발견되어 이 유적이 초기 백제 유적임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들 관련 유적, 유물은 백제의 건국 세력이 첫 수도인 하북위례성을 근거로 그 영역을 확장해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들이며 이들의 외연 안에 동두천이 포함되어 있어 백제의 건국과 발전이 마침내는 동두천 지역의 백제 영유로 연결되어 갔음을 보여주는 방증이 된다.

동시에, 후술하겠지만 경기 북부 일대를 지역적 근거로 했던 진(眞) 씨 세력이나, 토착 세력이 아닌 이주 세력으로 보이지만 역시 동두천 등 경기 북부를 그 세력권으로 하였던 해(解) 씨 세력 등 백제의 정치, 군사의 상층부에서 권력을 행사하며 백제의 성쇠를 이끌었던 지방 세력 또한 지속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2) 문헌자료에 나타나는 백제의 건국과 동두천

『삼국사기』 「백제본기」 초기 자료에는 백제의 건국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들이 등장한다. 이는 백제 건국 세력의 경기북부 정착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다.

- 22) 『三國史記』百濟本紀 溫祚王 10年
- 23) 『三國史記』百濟本紀 溫祚王 14年
- 24) 『三國史記』百濟本紀 溫祚王 18年
- 25) 『三國史記』百濟本紀 溫祚王 24年

삼국지 등 중국 사서에는 백제(百濟)라는 국명의 유래를 ‘백가제해(百家濟海)’에서 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많은 무리가 바다를 건넜다.”라는 뜻이다. 이는 백제가 해양세력임을 추정하게 하는 기록이다. 아니면 적어도 건국 과정에서 바다를 건너왔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기록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추정을 전제로 하고 이들 백제 건국 세력이 이주해오던 당시 경기 북부 지역이 신분고국을 비롯한 지역 군장지배체가 존재하는 마한의 영역이었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 마한의 영역 안에 백제의 건국이 가능했을까? 하는 의문이 발생한다.

다음 사료들은 이를 해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秋九月 王出獵獲神鹿以送馬韓

ㄱ) 온조왕 10년

가을 9월 왕이 나아가 사냥을 하다가 신록을 잡아 마한 왕에게 보냈다.²²⁾

秋七月 命立柵于漢山下 移慰禮民戶以實之 八月遣使馬韓告遷都

定疆場北至溟河南限熊川西窮大海東極走讓

ㄴ) 온조왕 14년 가을 7월, 명하여 한산(漢山) 아래 목책(木柵)을 세우고 위례성의 백성을 옮겨 채웠다. 8월에 사자를 마한(馬韓)에 보내어 도읍을 옮긴 것을 고하였다. 영토를 정하니 북으로는 패하(溟河)에 이르고 남으로는 웅천(熊川)에 이르며 서로는 대해가 있고, 동쪽의 맨 끝은 주양(走壤)이었다.²³⁾

冬十月 靺鞨寇至 王帥兵逆戰於七重河 虜獲酋長素牟送馬韓 其餘賊盡坑之

ㄷ) 온조왕 18년

겨울 10월에 말갈이 갑작스럽게 습격하여 왔다. 왕은 군사를 거느리고 칠중하(七重河)에서 맞아 싸워 주장인 소모(素牟)를 사로잡아 마한(馬韓)에 보내고 그 나머지 적들은 모두 살아있는 채로 구덩이에 묻어버렸다.²⁴⁾

秋七月 百濟王立雄川柵 馬韓王遣使責曰 王初度河無所容足 吾割東北五百里之地界之 其待王不爲不厚 宜思有以報之 今以國完民聚謂我莫與敵 大設城池侵犯我 封疆其如義何 王旣遂壞其柵

ㄹ) 온조왕 24년 가을 7월, 백제왕이 웅천책(雄川柵)을 세우니 마한 왕이 사신을 보내어 꾸짖어 말하기를 “왕이 처음 강을 건넌을 때 아무 곳도 의지할 곳이 없어 내가 동북의 500리를 떼어주었고 왕을 대접함이 이미 후하였으면 마땅히 그 일에 보은을 생각하여야 하거늘 이제 나라의 체제가 갖추어지고 백성이 모였다고 하여 나와 대적 할 자가 없다 하며 크게 성지를 설치하여 우리의 영토를 침범하는 것이 과연 의로운 일인가?” 하니 왕이 크게 부끄러워 마침내 그 책(柵)을 허물어버렸다.²⁵⁾

위 사료는 모두 백제 건국기에 백제와 마한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들이다. 이들 사료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건국기의 백제와 마한이 연속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료 ㄱ)과 사료 ㄴ), ㄷ)은 이를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한편 사료 ㄹ)에서는 이와 같은 종속관계가 발생한 이유를 보다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동시에 이주해온 백제가 어떤 연유로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 당시 마한의 영역이었던 경기 북부에 정착하게 되었는지를 상당 부분 구체적 증언하고 있다. 사료 ㄷ)에서 마한 왕은 동북의 영토 500리를 백제 건국 세력을 위하여 떼어주고 거기에 나라를 세우게 하였다고 말한다. 그리고 “강을 건너”라는 표현을 통하여 백제의 이주가 북방에서 남방으로 진행되었음을 시사한다. 이 기록을 종합하면 백제는 고구려를 떠나 남행하여 강을 건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강은 임진강이나 예성강 어느 곳에 비정하여도 이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데에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

우리가 이미 검토한 것처럼 당시 경기 북부, 즉 한강에서 임진강 사이의 지역에는 마한, 말갈, 한 군현이 서로 쟁패하는 전쟁터였다. 그리고 현재 역사학계 통설에 따르면 고구려와 마한 지역 사이에는 낙랑과 대방이라는 두 개의 한 군현이 존재하고 있었다. 따라서 고구려를 떠난 백제의 창건자 온조가 북방에서 남방으로 육로를 거쳐 남하하려면 이 군현 지역을 통과하여야 하는데 이는 당시의 정치 상황 상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다. 백제가 떠난 당시의 고구려는 환인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따라서 백제가 만주 지역을 떠나 한반도의 중부로 진입하려면 결국 바다를 건너야 한다는 쉬운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렇다면 마한 왕이 말하는 “강을 건너”라는 표현은 보다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고구려 광개토태왕과 장수왕이 백제에 침공할 때 그들은 수군을 동원하여 한강 하구에 상륙하였고 이후 파주를 거쳐 감악산, 불곡산, 의정부를 거치는 침공로를 선택하였다. 신라의 통일전쟁 과정에서 당군 역시 동일한 경로로 침공한다. 한강 또는 임진강 하구에서 서울에 이르는 이 고대 교통로는 흔히 ‘장단로’라 부르며 고려 후기에 개성에서 파주를 거쳐 고양, 홍제동을 지나 서울에 이르는 ‘벽제로’가 활용될 때까지 고대 경기북부 지방의 가장 주된 교통로였다. 후술하겠지만 고구려의 남방 관방시설이 바로 이 장단로를 따라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매초성전투를 비롯한 한강 유역의 주요 전투 역시 대부분 이 길을 따라 전개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황해를 건너 한강 유역에 진출한 온조 세력 역시 이 통로를 따라 움직였을 것을 간단히 상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마한 왕이 온조를 향하여 “강을 건너 왔을 때”라는 표현을 사용한 전후 사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를 방증하는 또 하나의 사례가 바로 온조의 형 비류의 움직임이다. 비류는 한강

유역 의정부 호원동 지역에 정착하려는 온조의 의도에 반대하여 굳이 바닷가에 정착하고자 하여 마침내 세력을 나누어 분가하였다. 이와 같은 비류의 행동을 비판하는 온조 측의 입장에서 표현된 것이 바로 “땅이 습하고 물이 짜서 백성이 살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농사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인데 비류가 이를 감안하면서까지 굳이 바닷가를 고집하는 것은 결국 이들이 해양세력임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마한 왕이 이주민에 불과한 온조 집단에게 동북 지역 500리를 할양하여 준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답은 바로 사료 ㄱ) ~ ㄷ)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온조는 사냥하여 잡은 신록(神鹿)을 마한 왕에게 진상하고 있고, 전투 중에 획득한 말갈 추장을 역시 마한 왕에게 이송하고 있다. 물론 이는 백제와 마한의 신속 내지는 종속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특히 말갈의 추장을 사로잡아 마한 왕에게 보낸 것은 승전 보고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왜 백제는 전쟁의 결과를 마한 왕에게 보고하고 있을까? 결국 마한 왕이 온조에게 동북의 영토를 500리나 할양하여 거기에 정착하게 한 것은 백제를 말갈이나 한군현의 침공을 막는 용병의 역할을 맡기려는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결국 비류와 온조의 갈등 역시 이와 같은 마한의 의도를 수용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에 있었다. 일부 사학자들이 일본을 개척하고 여기에 고대 왕권을 형성한 한반도 세력을 일러 비류백제라고 해석하게 되는 것도, 일부 유적을 근거로 백제의 최초 건국지를 익산 등으로 추정하는 것도 비류 집단의 이와 같은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

이 두 갈래의 접근을 통하여 우리는 온조가 경기 북부에 이주하여 정착하는 한성백제의 초기 영역에 순방(順方)이 되었던 역방(逆方)이 되었던 동두천 지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말갈의 이동과 한 군현 철수 이후 동두천은 마한을 제압하고 본격적으로 북방 진출에 나서는 백제의 최전선 지역이 되었다.

제3절 삼국시대의 동두천

1. 백제의 발전과 한강 유역 제패

1) 백제의 발전과 마한 정복

백제는 말갈과 한 군현, 특히 낙랑의 압박에 의하여 온조왕 13년 최초 건국지인 하북위례성을 포기하고, 한강 이남의 새로운 근거지 하남위례성으로 천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천도는 한강이라는 천혜의 방어선을 구축한 결과로 나타나고 이후 직접적인 북방 세력의 압박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다시 국가를 추스릴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 이후 백제는 북방의 말갈, 군현과 대립하는 한편, 남방으로 영토를 확대하는 새로운 국가 확장 정책을 추구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마한 병합이었다. 물론 마한은 백제에게 있어서 정착지를 얻게해 주고 그 정착지에 나라를 세우도록 기반을 제공한 고마운 존재이기는 하였다. 그러나 마한은 아직도 연맹 단계의 군장 지배체제를 벗어나지 못한 느슨한 연방이었고 본격적인 철기문화 단계에 들어서지 못한 후진국이었다. 거기에 더하여 이 마한 연방은 균열과 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다음의 자료들은 마한에 나타나는 붕괴의 조짐을 반영한 기사들이다.

1) 『三國史記, 新羅本紀 始祖赫居世居西干 38年

2) 『三國史記, 新羅本紀 脫解尼師今 5年

春二月 遣瓠公聘於馬韓 馬韓王讓瓠公曰 辰下二韓爲我屬國 比年不輸職貢 事大之禮其若是乎 對曰 我國自二聖肇興 人事修天時和倉庾充實人民敬讓 自辰韓遺民以至弁韓樂浪倭人無不畏懷而吾主謙虛

遣下臣修聘 可謂過於禮矣 以大王赫怒劫之以兵是何意也 王憤欲殺之 左右諫止乃許歸 前此中國之人 苦秦亂東來者衆 多處馬韓之東與辰韓雜居至是寔盛 故馬韓忌之有責焉 云云

① 시조 (혁거세 거서간) 38년 봄 2월

호공을 보내어 마한에 예방하였더니 마한 왕이 호공을 꾸짖어 말하기를 "진, 변 두 한은 우리의 속국이 되어 근년에는 공물을 바치지 아니하니 대국을 섬기는 예절이 어찌 이와 같은가?" 하였다.

호공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나라의 두 성인이 처음으로 임금이 되면서부터 사회가 안정되고 시절은 좋아져서 창고는 가득 차고 백성은 서로 존경하고 겸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진한의 유민들로부터 변한, 낙랑, 왜인에 이르기까지 두려워하고 심복하지 않음이 없건만 우리 임금이 겸허하여 저를 보내어 귀국을 예방하는 것은 오히려 지나친 예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왕은 몹시 성을 내어 무력으로 위협하니 이것이 무슨 까닭입니까?" 하였다.

왕이 분이 나서 그를 죽이려고 하니 측근에서 말려 돌아가게 하였다. 이보다 전에 중국 사람들 중에서 진(秦)의 난리를 견디지 못하여 동쪽으로 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대부분이 마한의 동쪽에서 진한 사람들과 섞여 살더니 이때에 이르러 점점 번성하여 가므로 마한이 이것을 싫어하여 이런 책망이 있었던 것이다.¹⁾

② 온조왕 24년 가을 7월.

백제 왕이 웅천책(雄川柵)을 세우니 마한 왕이 사신을 보내어 꾸짖어 말하기를 "왕이 처음 강을 건넌을 때 아무 곳도 의지할 곳이 없어 내가 동북의 500리를 떼어주었고 왕을 대접함이 이리 후하였으면 마땅히 그 일에 보은을 생각하여야 하거늘 이제 나라의 체제가 갖추어지고 백성이 모였다고 하여 나와 대적할 자가 없다 하며 크게 성지를 설치하여 우리의 영토를 침범하는 것이 과연 의로운 일인가?" 하니 왕이 크게 부끄러워 마침내 그 책(柵)을 허물어 버렸다.

③ 온조왕 26년 가을 7월

왕이 말하기를

"마한이 점차 쇠약해지고 임금과 신하가 각각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니 그 나라 형편이 오래 유지될 수가 없다 만일 다른 나라가 이를 병합하여 버리면 이른 바 입술이 없어지면 이빨이 시리다는 격이 되어 후회한들 미치지 못할 것이다. 차라리 다른 사람보다 먼저 취하여 뒷날의 어려움을 면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 라고 하였다.

秋八月 馬韓將孟召以覆巖城降

④ 탈해이사금 5년 가을 8월

마한의 장수 맹소가 복암성을 바치고 항복하였다.²⁾

이들 사료에는 인접 세력의 진흥과 내부 세력의 분열로 주변 종속국에 대한 종주권을 잃어가는 마한 왕의 초조함이 반영되어 있다. 좀 더 검토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백제는 고구려와 고구려를 둘러싼 한 군현 세력으로부터 보다 선진적인 철기를 전수, 습득하였을 것이며, 기록에 나타나는 것처럼 신라는 진한 지역으로

망명한 군현의 중국인들로부터 역시 선진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 점차 국력을 충실히 확장해간 반면, 마한은 여전히 군장 단계의 느슨한 동맹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마한 왕의 연방 지배력도 이 무렵에는 현저히 떨어져 있어 사료 ②에 나타나는 것처럼 “신하가 다른 마음을 품는다.”라는 현저한 분열 상태에 이르고 있었고, 이와 같은 상황은 사료 ④에 나타나는 것처럼 구체적인 이반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한의 내부 분열은 마한의 멸망 과정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마한은 백제의 침공에 변변한 대응조차 못한 채 순식간에 멸망하고 마는 것이다. 물론 목지국으로 추정되는 마한 중심부의 몰락 이후에도 일부 마한 연방 소속국의 국지적인 저항은 계속되었지만 이는 결코 사태를 복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마한의 멸망 과정을 기록한 사료를 보자.

秋七月 王曰馬韓新弱上下二心其勢不能久 儻爲他所并則唇亡齒寒悔不可及
不如先人而取 之以免 之以免後艱
冬十月 王出師陽言田獵潛襲馬韓 遂并其國邑 唯圓山錦峴二城固守不下

온조왕 26년 가을 7월

왕이 말하기를 “마한이 점차 쇠하여지고 임금과 신하가 각각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니 그 나라 형편이 오래 유지될 수가 없다 만일 다른 나라가 이를 병합하여 버리면 이른 바 입술이 없어지면 이빨이 시리다는 격이 되어 후회한들 미치지 못할 것이다. 차라리 다른 사람보다 먼저 취하여 뒷날의 어려움을 면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 하였다.

겨울 10월에 왕이 사냥을 하러 간다고 둘러대며 군사를 출동시켜 마한을 습격하여 마침내 그 국읍을 병합하였다. 단지 원산(圓山), 금현(錦峴) 두 성이 굳게 지켜 함락되지 않았다.³⁾

夏四月 二城降移其民於漢山之北 馬韓遂滅

온조왕 27년 여름 4월

원산과 금현 두 성이 항복하며 그 곳 백성들을 한산(漢山) 북쪽으로 옮기니 마한(馬韓)이 마침내 멸망하였다.⁴⁾

冬十月 馬韓舊將周勤據牛谷城叛 王躬帥兵五千討之 周勤自經腰斬其尸并誅其妻子

온조왕 34년 겨울 10월

마한의 옛 장수 주근(周勤)이 우곡성(牛谷城)에 웅거하여 반역하므로 왕이 몸소 군사 5천 명을 거느리고 이를 치니 주근이 제 손으로 목을 매어 죽으며 그 허리를 베고 그의 처자들까지 죽였다.⁵⁾

3) 『三國史記』百濟本紀 濞祚王 26年

4) 『三國史記』百濟本紀 濞祚王 27年

5) 『三國史記』百濟本紀 濞祚王 34年

6) 『三國史記』百濟本紀 始祖溫祚王 41年

7) 『三國史記』百濟本紀 比流王 9年

8) 『三國史記』百濟本紀 腆支王

2) 한수 이복의 백제 지방 세력

(1) 해 씨

그러나 사료들을 보다 주목하면 고이왕 대의 왕권 강화까지 각 지방 부(部)를 장악하는 과정이 그리 만만하지 않았음을 알게 하는 또 다른 정황이 있다. 우리는 우리 동두천 지방을 근거로 하고 있었던 북부의 한 가문을 추적하여 이 정황의 실상을 파악하고 나아가 한수 이복 동두천 일대의 고대사적 면모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사료에 따르면 북부(北部)로 구획된 한수 이복 지역에는 유력한 두 개의 가문이 일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 중 하나가 ‘해(解)’ 씨 일족이었다. 이 해(解) 씨 일족은 그 연원이 부여계의 유이민이었다. 즉 백제 건국 세력이 북방에서 건국지로 남하할 때 함께 이동해 온 북방계 부족이었다. 이에 관계된 사료를 보자.

春正月 右輔乙音卒 拜北部解婁爲右輔 解婁本夫餘人也
神識淵奧年過七十膂力不羸故用之

시조은조왕 41년 봄 정월

우보(右輔) 을음(乙音)이 죽으매 북부 해루(解婁)를 임명하여 우보로 삼았다. 해루는 본래 부여(夫餘) 사람인데 그의 정신과 식견이 깊으며 나이가 비록 칠십을 지났어도 체력이 쇠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등용한 것이다.⁶⁾

拜解仇爲兵官佐平

비류왕(比流王) 9년

해구(解仇)를 임명하여 병관좌평(兵官佐平)을 삼았다.⁷⁾

梁書名映 阿辛之元子 阿辛在位第三年立爲太子 六年出質於倭國 十使年王薨 王仲弟訓解 攝政以待太子還國 季弟磔磔與訓海自立爲王 腆支在倭國請哭立諱 倭王以兵士百人衛送 既至國界 漢城人解忠來告曰 大王棄世 王弟磔磔殺兄自立 願太子無輕入 腆支留倭人自衛 依海島以待之 國人殺磔磔迎腆支即位

전지왕(腆支王)의 이름을 양서(梁書)에서는 영(映)이라 하였는데 아신왕(阿辛王)의 아들이다. 아신왕이 왕위에 있는 지 3년만에 태자가 되었고 6년에 출국하여 왜국의 인질이 되었다 14년에 아신왕이 죽자 왕의 둘째 아우 훈해(訓解)가 섭정을 하면서 태자의 귀국을 기다렸는데 왕의 막내 아우 설례(磔磔)가 훈해를 죽이고 자신이 위에 올라 왕이 되었다. 이 때 전지가 왜국에서 부고를 듣고 울면서 돌아가기를 청하니 왜왕이 군사 1백 명으로 호송하였다. 전지가 국경에 들어서게 되자 한성(漢城)사람 해충(解忠)이 와서 고하기를 “대왕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 왕의 아우 설례가 형을 죽이고 자기가 왕위에 올랐사오니 원컨대 태자께서는 경솔히 들어오지 마소서” 하였다. 전지가 왜인을 만류하여 자기를 호위하게 하면서 바다 섬에 의거하여 기다리고 있더니, 나라 사람들이 설례를 죽이고 전지를 영접하여 왕위에 오르게 하였다.⁸⁾

秋九月 以解忠爲達率 賜漢城租一千石

전지왕 2년 가을 9월

해충(解忠)으로 달솔(達率)을 삼고 한성(漢城)에 있는 벼 1천 석을 주었다.⁹⁾

春二月 拜庶弟餘信爲內臣佐平 解須爲內法佐平 解丘爲兵官佐平 皆王戚也

봄 2월에 서제(庶弟) 여신(餘信)으로 내신좌평을 삼고 해수(解須)로 내법좌평을 삼고 해구(解丘)로 병관좌평을 삼으니 모두 왕의 친척이었다.¹⁰⁾

秋七月 徵東北二部人年十五已上築沙口城 使兵官佐平解丘監役

전지왕 13년 가을 7월

동, 북 2부의 15세 이상되는 사람들을 징발하여 사구성을 쌓게 하고 병관좌평 해구를 시켜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다.¹¹⁾

冬十月上佐平餘信卒 以解須爲上佐平

비유왕(毗有王) 3년 겨울 10월

상좌평(上佐平) 여신(餘信)이 죽으매 해수(解須)로 상좌평(上佐平)을 삼았다.¹²⁾

9) 『三國史記』百濟本紀 腆支王 2年

10) 『三國史記』百濟本紀 腆支王 3年

11) 『三國史記』百濟本紀 腆支王 13年

12) 『三國史記』百濟本紀 毗有王 3年

위 사료에 등장하는 해(解) 씨 부족 세력은 북부 또는 '한성(漢城) 사람'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북부에 근거한 세력이기는 하였으나 그보다는 중앙 귀족으로서 일정한 지위를 확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가문은 건국 주체 세력의 하나로 건국에 참여하였던 것 같으나, 주로 전지왕 이후 연간에 지배 상층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전승되는 집안의 정치적 역량보다는 오히려 전지왕의 집권 과정에서의 역할과 기여가 당대의 집권으로 연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욱 정확할 듯하다.

즉 아신왕 사후에 기도된 설례(磔禮)의 쿠데타를 제압하고 정통 계승자인 전지를 왕위에 올리는 과정에서 해충(解忠)은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였고 그 공로가 인정되면서 일족 모두가 최고위 직위에 등용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인다. 물론 이에 해 씨 일족이 건국 이래로 한성을 중심으로 한 북부 일대에 형성한 정치적 역량이 뒷받침되었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해 씨의 세력은 그러나 한성이 고구려군에 의하여 함락되어 웅진으로 남천하는 과정에서 더욱 증대된다. 문주왕은 남천 이후 국내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병권을 병관좌평 해구에게 맡겼는데 이를 계기로 국권 전체가 해구에게 장악되더니 마침내 해 씨 세력에 의하여 왕이 시해되는 사태로까지 발전하였다. 그러나 문주왕의 뒤를 이은 삼근왕(三斤王)은 국왕 시해 세력을 제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계속 중용하다가 본격적인 반란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관한 사료를 보자.

13) 『三國史記』百濟本紀 文周王 2年

14) 『三國史記』百濟本紀 文周王 4年

15) 『三國史記』百濟本紀 三丘王

16) 『三國史記』百濟本紀 三丘王 2年

秋八月 拜解仇爲兵官佐平

문주왕 2년 가을 8월
해구를 병관좌평으로 삼았다.¹³⁾

秋八月 兵官佐平解仇 擅權亂法有無軍之心王不能制 九月王出獵解仇使盜害之遂薨

문주왕 4년 가을 8월
병관좌평 해구가 권력을 천단(擅斷)하여 법을 문란케 하여 임금을 없애려는 마음을 두었으나 왕이 이를 제어하지 못하였다. 9월에 왕이 사냥하러 나갔다가 궁 밖에 묵었더니 해구가 도적을 시켜 해치매 왕이 드디어 죽었다.¹⁴⁾

文周王之長子 王薨繼位年十三歲 軍國政事一切委於佐平解仇

삼근왕(三丘王)은 문주왕의 맏아들이다. 왕이 죽으매 왕위를 이으니 나이가 13세였다. 군국(軍國)의 권한 일체가 좌평 해구에게 맡겨졌다.¹⁵⁾

春 佐平解仇與恩率燕信聚衆據大豆城叛 王命佐平眞男以兵二千討之不克 更命德率眞老帥 精兵五百 擊殺解仇 燕信奔高句麗 收其妻子斬於熊津市

삼근왕 2년 봄
좌평 해구가 은솔(恩率) 연신(燕信)과 함께 무리를 끌어 모아 대두성(大豆城)에 웅거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왕이 좌평 진남(眞男)에게 명령하여 군사 2천으로서 치게 하였으나 이기지 못하므로 다시 덕솔(德率) 진로(眞老)를 시켜 정예한 군사 5백을 거느리고 쳐서 해구를 죽였다. 연신은 고구려로 달아나므로 그의 처자들을 잡아서 웅진 저자 거리에서 목을 베었다.¹⁶⁾

이 기사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대두산성'이라는 지명이다. 이 성은 백제가 웅진으로 남천한 뒤 바로 쌓은 성이다. 그리고 이 성의 수축을 완료한 이후 한북(漢北) 민가(民家)를 옮겼다고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해구는 자신의 정치적 근거인 한북민을 근거로 그들이 집단으로 이주된 성, 즉 대두산성에 웅거하여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이는 건국 초기 이래 해 씨 집단의 세력이 한북, 즉 한수 이북을 근거로 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자료라 하겠다.

아울러 해구의 반란을 진(眞) 씨 세력을 동원하여 진압하고 있는 것 역시 대단히 흥미로운 부분이다. 진(眞) 씨는 해(解) 씨와 더불어 북부, 한수 이북 지역을 근거로 하는 세력이기 때문이다. 이는 아마도 같은 지역을 정치적 기반으로 하는 두 가문의 대립과 경쟁이 뿌리 깊은 것임을 방증하는 자료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반란의 실패를 계기로 이후 해 씨는 권력을 상실하고 정치무대에서 사라진다.

(2) 진 씨

또 하나 한수 이복을 근거로 세력을 형성한 세력은 진(眞) 씨 세력이다. 해(解) 씨가 부여계 유이민으로서 건국 주체 세력이었던 데 비하여 진(眞) 씨는 자신들의 역량을 바탕으로 백제의 정계에 왕비족(王妃族)으로서 탄탄한 기반을 확립하였다. 진 씨의 대두에 관하여는 대단히 풍부한 사료가 있다. 먼저 이들 사료를 보자.

冬十月北部眞會爲右輔

다루왕 10년 겨울 10월

북부 진회(眞會)로 우보(右輔)를 삼았다.¹⁷⁾

秋九月 命北部眞果領兵一千 襲取靺鞨石門城

초고왕(肖古王) 49년 가을 9월

북부 진과(眞果)를 시켜 군사 1천 명을 거느리고 말갈(靺鞨)의 석문성(石門城)을 습격하여 빼앗게 하였다.¹⁸⁾

夏四月 拜眞忠爲左將 委以內外兵馬事

고이왕(古爾王) 7년 여름 4월

진충(眞忠)을 임명하여 좌장(左將)을 삼아 서울과 지방의 군사에 관한 일을 맡겼다.¹⁹⁾

秋八月 魏幽州刺史田丘儉與樂浪太守劉茂朔方太守王遵伐高句麗 王乘虛遣左將眞忠襲取樂浪邊民 茂聞之怒

고이왕 13년 가을 8월

위(魏)의 유주자사(幽州刺史) 관구검(毋丘儉)이 낙랑태수(樂浪太守) 유무(劉茂), 삭방태수(朔方太守) 왕준(王遵)과 함께 고구려(高句麗)를 치므로 왕이 좌장(左將) 진충(眞忠)을 시켜 빈 틈을 타서 낙랑(樂浪) 변방 주민을 습격하여 잡아 왔더니 유무가 이 말을 듣고 몹시 분개하였다.²⁰⁾

고이왕 14년 2월

진충(眞忠)을 임명하여 우보를 삼고 진물(眞勿)을 임명하여 좌장을 삼아 그들에게 군사에 관한 일을 맡겼다.²¹⁾

二月 拜眞可爲內頭佐平(云云)

고이왕 28년 2월

진가(眞可)를 임명하여 내두좌평(內頭佐平)을 삼고(운운)²²⁾

拜眞義爲內臣佐平

비류왕 30년

진익(眞義)을 임명하여 내신좌평(內臣佐平)을 삼았다.²³⁾

以王舅眞高道爲內臣佐平委以政事

근구수왕(近仇首王) 2년

왕의 외삼촌 진고도(眞高道)로 내신좌평(內臣佐平)을 삼아 정사를 맡겼다.²⁴⁾

17) 『三國史記』百濟本紀 多婁王 10年

18) 『三國史記』百濟本紀 肖古王 49年

19) 『三國史記』百濟本紀 古爾王 7年

20) 『三國史記』百濟本紀 古爾王 13年

21) 『三國史記』百濟本紀 古爾王 14年

22) 『三國史記』百濟本紀 古爾王 28年

23) 『三國史記』百濟本紀 比流王 30年

24) 『三國史記』百濟本紀 近仇首王 2年

- 25) 『三國史記』百濟本紀 辰斯王 3年
 26) 『三國史記』百濟本紀 辰斯王 6年
 27) 『三國史記』百濟本紀 阿辛王 2年
 28) 『三國史記』百濟本紀 阿辛王 4年
 29) 『三國史記』百濟本紀 三斤王 2年

春正月 拜眞嘉謨爲達率.....

진사왕 3년 봄 정월
 진가모(眞嘉謨)를 임명하여 달솔을 삼고 ...²⁵⁾

九月 王命達率眞嘉謨伐高句麗拔都申城 虜得二百人 王拜嘉謨爲兵官佐平

진사왕 6년 9월
 왕이 달솔 진가모를 시켜 고구려를 치게하여 도곤성(都坤城)을 함락시키고 2백 명을 사로잡았다. 왕이 가모를 임명하여 병관좌평을 삼았다.²⁶⁾

拜眞武爲左將委以兵馬事 武王之親舅沉毅有大略 時人服之 秋八月 王謂武曰 關彌城者我北鄙之襟要也 今爲高句麗所有 此寡人之所痛惜 而卿之所宜 用心而雪恥也 遂募將兵一萬伐高句麗南鄙 武身先士卒以冒矢石 意復石岷等五城 先圍關 彌城 麗人嬰城固守 武以糧道不繼 引而歸
 아신왕 2년

진무(眞武)를 임명하여 좌장을 삼아 군사에 관한 일을 맡기니 진무는 왕의 외삼촌으로서 침착하고 굳세며 큰 지략이 있으므로 그 때 사람들이 심복하였다. 가을 8월에 왕이 진무에게 말하기를 "관미성은 우리 나라 북쪽 변경의 요충인데 그것이 지금 고구려의 소유로 되어있다. 이를 내가 통분히 여기는 바이니 그대도 애를 써서 수치를 갚을 방도를 찾으라"하고 드디어 군사 1만을 거느리고 고구려의 남쪽 변경을 칠것을 도모하였다. 진무가 병졸보다 솔선하여 화살과 돌을 무릅쓰고 석현 등 5성을 회복하고자 먼저 관미성을 포위하였더니 고구려 사람들이 그 성을 굳게 지키고 또한 양도(糧道)가 이어지지 않으니 이에 군사를 돌려 돌아왔다.²⁷⁾

秋八月 王命左將眞武等伐高句麗 麗王談德親帥兵七千 陣於貝水之上拒戰 我軍大敗死者八千人

아신왕 4년 가을 8월
 왕이 좌장 진무 등에게 명하여 고구려를 치게 하였더니 고구려왕 (담덕(談德))이 친히 군사 7천을 거느리고 패수 가에 나와 진을 치고 대항하여 싸우매 우리 군사가 크게 패하여 죽은 자가 8천 이었다.²⁸⁾

春 佐平解仇與恩率燕信聚衆據大豆城叛 王命佐平眞男以兵二千討之不克 更命德率眞老帥 精兵五百 擊殺解仇 燕信奔高句麗 收其妻子斬於熊津市

삼근왕 2년 봄
 좌평 해구가 은솔(恩率) 연신(燕信)과 함께 무리를 끌어 모아 대두성(大豆城)에 웅거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왕이 좌평 진남(眞男)에게 명령하여 군사 2천으로서 치게 하였으나 이기지 못하므로 다시 덕솔(德率) 진로(眞老)를 시켜 정예한 군사 5백을 거느리고 쳐서 해구를 죽였다. 연신은 고구려로 달아나므로 그의 처자들을 잡아서 웅진 저자 거리에서 목을 베었다.²⁹⁾

위의 사료들은 진(眞) 씨 일족이 왕의 처족(妻族) 즉 왕비족(王妃族)이었다는 것과 함께 그 세력 근거지가 북부 즉, 한수 이북 지역이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동시에 그들의 세력 근거지인 한수 이북 지역에 대한 군사적 공략에 주로 동원되었다는 사실과 좌장(左將)이라는 군사직을 차지하고 있음도 알게 한다. 특히 고구려에 침탈된 한강 유역의 회복 노력에 일정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흥미롭다.

2. 동두천 지역의 고대 관방시설

한수 이북 지역의 백제 관방시설은 주로 북방의 적, 즉 군현과 말갈 그리고 고구려의 남진 세력에 대응하는 축선에서 건설되었다. 오순제³⁰⁾는 이 축선을 통일로(統一路) 쪽, 의정부(議政府) 쪽, 양주(楊州) 쪽, 남양주(南楊州) 쪽의 4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 각각의 방향 축선에 따르는 경로를 다음과 같이 상정하였다. 통일로 쪽은 개성→파주→고양→서울로 이동하는 루트로 덕진산성→봉서산성→명봉산성→북한산성, 오두산성→고봉산성→행주산성→북한산성 등이 거점 성으로, 의정부 쪽은 연천→전곡→동두천→의정부→서울로 이동하는 루트로 군자산성→대전리산성→소래산·독바위·고장산보루→천보산성→방학동토성 등이 거점 성으로, 양주 쪽은 개성→장단→적성→양주로 이어지는 루트로 임진강의 최대 요충지인 칠중성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방어라인인데 호로그루·육계토성→칠중성→망당산보루→천보산보루→불국산보루→대모산성 등이 거점 성으로, 그리고 남양주 쪽은 철원→영평→포천→남양주로 이동하는 루트로 동주산성→성동리산성→반월산성→테뢰산성 등이 거점 성이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거점성 외에도 이 남진, 방어 루트의 지역 연선에 위치한 대소의 각 능선과 구릉 지역마다 크고 작은 보루성들이 구축되어 있다.

먼저 우리는 사료를 통하여 백제가 구축하는 관방시설들을 점검해 보고 이어 다음절에서 고고학적인 입장에서 현존하는 시설들을 살펴보자. 단 현존하는 여러 관방 유적 중 검토 대상이 되는 것은 동두천과 관련된 일련의 유적에 한한다.

1) 『삼국사기』에 나타나는 한수 이북 관방시설 축조 상황

백제 건국 이후 한수 이북 지역에 관방시설을 설치한 것은 시조 온조왕 8년 마수성(馬首城)을 쌓은 것이 시초였다. 이후 거듭되는 북방세력과의 전투로 말미암아 사료에는 숱한 시설 축조 기록이 등장한다. 이를 일괄하면 다음과 같다.

30) 명지대교수

31) 『三國史記』百濟本紀 始祖 溫祚王 8年

32) 『三國史記』百濟本紀 始祖 溫祚王 11年

33) 『三國史記』百濟本紀 始祖 溫祚王 14年

34) 『三國史記』百濟本紀 始祖 溫祚王 22年

35) 『三國史記』百濟本紀 始祖 溫祚王 27年

36) 『三國史記』百濟本紀 始祖 溫祚王 36年

37) 『三國史記』百濟本紀 始祖 溫祚王 41年

38) 『三國史記』百濟本紀 多婁王 29年

39) 『三國史記』百濟本紀 蓋婁王 2年

40) 『三國史記』百濟本紀 초고왕 (肖古王) 45年年

41) 『三國史記』百濟本紀 責稽王 元年

42) 『三國史記』百濟本紀 阿辛王 7年

秋七月築馬首城豎瓶山柵.....

시조(始祖) 온조왕(溫祚王) 8년 가을 7월
마수성(馬首城)을 구축하고 병산책(瓶山柵)을 세웠더니.....³¹⁾

秋七月 設禿山狗川兩柵 以塞樂浪之路

시조 온조왕 11년 가을 7월
독산(禿山)과 구천(狗川) 두 곳에 목책(木柵)을 세워 낙랑(樂浪)으로부터 오는 길을 차단하였다.³²⁾

秋七月 築城漢江西北 分漢城民

시조 온조왕 14년 가을 칠월
한강(漢江) 서북 쪽에 성을 쌓고 그 곳에 한성(漢城) 백성들을 나누어 살게 하였다.³³⁾

秋八月 築石頭高木二城

시조 온조왕 22년 가을 8월
석두(石頭), 고목(高木) 두 성을 쌓았다.³⁴⁾

秋七月 築大豆山城

시조 온조왕 27년 가을 7월
대두산성(大豆山城)을 쌓았다.³⁵⁾

秋八月 修葺圓山錦嶼二城 築古沙夫里城

시조 온조왕 36년 가을 8월
원산(圓山), 금현(錦嶼) 두 성을 수리하고 고사부리성(古沙夫里城)을 쌓았다.³⁶⁾

春二月 發漢水東北諸部落人年十五歲以上 修營壘豐城

시조 온조왕 41년 봄 2월
한수의 동북 모든 부락의 1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을 징발하여 위례성을 수리하였다.³⁷⁾

春二月 王命東部築牛谷城以備捍竭

다루왕(多婁王) 29년 봄 2월
왕이 동부에 명령하여 우곡성(牛谷城)을 쌓아 말갈을 방비하게 하였다.³⁸⁾

春二月 築北漢山城

개루왕(蓋婁王) 5년 봄 2월
북한산성(北漢山城)을 쌓았다.³⁹⁾

春二月 築赤嶺沙道二城 移東部民戶

초고왕(肖古王) 45년 봄 2월
적현(赤嶺)과 사도(沙道) 두 성을 쌓고 동부의 민가들을 그 곳으로 옮겼다.⁴⁰⁾

王慮其侵寇 修阿且城蛇城備之

책계왕(責稽王) 원년
왕이 (고구려의) 침공을 염려하여 아차성(阿且城)과 사성(蛇城)을 수축하여 방비하게 하였다.⁴¹⁾

三月 築雙峴城

아신왕(阿辛王) 7년 3월
쌍현성(雙峴城)을 쌓았다.⁴²⁾

冬十月 葺雙峴城設大柵於青木嶺 分北漢山城士卒戍之

개로왕(蓋鹵王) 15년 겨울 10월

쌍현성을 수축하고 청목령(靑木嶺)에 큰 목책을 설치하여 북한산성의 병졸들을 나누어 지키게 되었다.⁴³⁾

43) 『三國史記』百濟本紀 蓋鹵王 15年

44) 『輿地圖書』上卷, 漣川邑誌, 山川條:

45) 漣川文化院, 『鄉土資料集』, 1995, pp.537~538.

위 사료들은 건국 이래 계속되어 온 북방 세력과의 투쟁과 이에 따른 국가적 필요에 따라 끊임없이 관방 시설의 구축과 보수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백성들의 삶이 신산한 고초로 이어졌음을 넉넉히 짐작하게 한다. 하지만 이것이 모두는 아니다. 문헌자료에 나타나는 관방시설은 극히 일부일 뿐 실제로는 유적과 유물을 아울러 훨씬 더 많은 고고학적 자료가 존재한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유적을 따라 실제 백제의 방어 시설을 살펴보도록 하자.

2) 동두천 일대의 백제 관방 유적

(1) 군자산성(君子山城) 일대의 방어체계

군자산성은 연천읍 차탄리(車灘里)의 해발 327.8m 군자산(君子山)에 있는 성이다. 『여지도서(輿地圖書)』상권, 《연천읍지》, 산천조에 “성산(城山)은 보개산(寶蓋山)의 내맥으로 석축이 있고 2개의 우물이 있으며 성황사가 있다. 현의 서남쪽 3리에 있다.”(城山寶蓋山來脈有石築有二井有城壇祠在縣西南三里)⁴⁴⁾ 고 하였고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 경기도 연천군조에 “군내면 차탄리와 군남면 왕림리 사이의 군자산에 있다. 서방의 일부가 석축이고 나머지는 토축으로 주위는 약 120칸, 높이는 반칸 내지 2칸이다”라고 하였다. 이우형(李宇衡)의 조사에 의하면 두 개의 봉우리를 중심으로 표주박에 가깝게 정상부의 9부 능선에 테피식으로 축조되었으며 동고서저(東高西低)의 형태로 전체 둘레는 약 600m정도이고 동벽은 경사가 급한 자연 절벽을 이용하였는데 정상부에만 축조한 흔적이 나타나고 있으며 서벽의 석축은 약 200m 가량 확인되었다.⁴⁵⁾ 이 산이 연천현의 중심적 방어 시설이었음을 볼 때 동쪽으로 철원-동두천 간의 국도와 경원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길목을 지키는 동시에 서쪽으로 길게 흐르는 임진강을 그 부근의 옥녀봉산성(玉女峯山城)과 함께 지켰던 것으로 보인다. 위의 3개 성은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임진강을 건너 동쪽에 있는 연천과

46) 韓陽總督府, 叢書, 1942, p.45.

47) 김성범, 앞글, 1992

48) 文化財研究所, 『漣川三串里百濟積石冢發掘調査報告書』, 1994.

49) 漣川文化院, 叢書, 1995, pp.565 ~566.

50) 土地博物館, 叢書, 1999, pp.159 ~173.

전곡(全谷)으로 쳐들어오는 적을 막으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곳의 중심성은 군사산성이었다.

이 부근의 옥녀봉산성은 군남면(郡南面) 옥계리(玉溪里) 해발 200m의 옥녀봉에 있는데 성의 서편으로 약 50미터 지점에 임진강이 북에서 남으로 흘러 내려가고 강 건너는 왕징면(王澄面)이다. 임진강과 거의 평행을 이루며 남으로 흐르는 옥계천과 그와 나란히 놓여진 324번 지방도로 서편에 위치한 이곳은 서, 남, 북으로 전망이 가능한 요충지로, 남으로 멀리 군사산성이 마주 보인다. 이로 볼 때 이 성은 강의 대안인 서편을 감시하기 위해 축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 연천군에는 “둘레가 130간(236m)의 석축이었으나 붕괴되었다”⁴⁶⁾고 하였는데 근래 문화재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테뫼식 산성으로 둘레가 대략 1km 내외로, 수습되는 유물로 보아 통일신라 이전에 축성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⁴⁷⁾ 그러나 이 부근의 삼곶리(三串里)에서는 백제 초기의 전방후원식 적석총이 발굴되었고⁴⁸⁾ 횡산리(橫山里)에도 백제 초기의 적석총 2기가 남아 있는 것으로⁴⁹⁾ 보아 이 성은 이미 백제시대에 축성되었던 것으로 본다.

무등리산성(無等里山城)은 왕징면 무등리(無等里) 왕징면사무소 북쪽 200m 지점 약 100m 높이의 장대봉 정상에 있는 테뫼식 석성으로 급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동편 아래로는 임진강이 흐르고 있고 강 건너 넓은 평야에는 백제 초기 적석총과 삼거리산성(三巨里山城)이 있다. 남쪽으로는 우정리산성(牛井里山城)과 임진강 변의 백제 초기 우정리석총(牛井里積石塚)이 보이며 그 사이에 넓은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다. 이 산성 유적을 국립문화재연구소, 연천문화원, 육군박물관에 이어서 토지박물관⁵⁰⁾에서 조사하였는데 2개의 보루로 분류하여 1보루는 168.4m, 2 보루는 장대봉에서 북쪽으로 500m 정도 뺀 능선의 해발 124m 봉우리에 있는 테 둘레는 244m이다. 이곳에서는 고구려 토기편과 군량미로 사용하였던 탄화미, 탄화조 등이 출토되었다. 이 성은 임진강변에 위치하여 강 건너 삼거리산성과 마주 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백제의 한강 변 유적에서 나타나듯이 강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성을 만들어 빗장을 건 형태의 성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우정리산성(牛井里山城)은 미산면(巒山面) 우정리(牛井里)의 해발 89.5m의 산 정상에 있는 테뫼식 산성으로 마을에서는 “매봉”, “털봉”, “백제장대봉(百濟將臺峰)” 등으로 불리고 있다. 전체 둘레 약 250m, 동서의 지름 약 50m, 남북 약 120m의 크기이며 평평한 정상부는 넓이가 약 1,000평 정도이다.

우정리 마을 쪽은 인위적으로 삭토와 보축을 해놓은 여러 단의 폭 5~8m의 외 환도가 개설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유물은 정상부에 개설된 교통호 부근에서 격자문과 사선문이 타날된 백제 초기 회청색경질토기편(灰青色硬質土器片)이 소량 수습되었다. 이곳의 동쪽에는 임진강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있는데 강변에 백제 초기 적석총이 2기 있어 이로 보아 이 성은 4세기 말 이전에 백제에 의해 축조된 초기 산성으로 본다.⁵¹⁾

삼거리산성(三巨里山城)은 군남면(郡南面) 삼거리(三巨里)에 있는 성으로 육군박물관의 조사에 의하면 임진강 본류를 따라 남북으로 뻗어 있는 322번 도로와 324번 도로의 교차지점인 삼거리마을 동남쪽 해발110m의 산봉우리 정상 부근에 타원형으로 축조되어 있는데 장축은 130m, 단축은 60m로 둘레는 360m정도이다.⁵²⁾ 이 성은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고구려 토기가 출토된 무등리산성(無等里山城)과 마주보고 있어 강변을 지키던 성으로 본다. 더구나 이 부근에 백제 초기의 적석총이 남아 있는데 대부분 파괴되고 흔적이 조금 남아 있다.

(2) 대전리산성(大田里山城)과 한탄강 방어 체계

대전리산성은 연천군 청산면(靑山面) 대전리(大田里)의 해발137.5m 일명 '성재'라고 불리는 산 위에 테뫼식으로 쌓은 석축의 성으로 전체의 둘레는 670m이다. 동쪽에 있는 정상부에는 52×32m의 평지가 있는데 현무암들이 일렬로 놓여 있다. 이로 볼 때 이 곳이 성내의 중심역할을 하던 건물지로 보인다. 성 내부에서 백제 초기의 유물들이 수습되고 있다.⁵³⁾ 이 성은 북쪽을 향하고 있는데 바로 밑에는 한탄강이 있고 강 건너에는 전곡읍이 펼쳐져 있으며 서쪽 바로 밑에는 동두천에서 연천으로 가는 3번 국도가 지나가고 있어서 군사적으로 요충지였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이 성의 바로 아래쪽 밤나무골에는 도강 지점이 있었으며 강 건너에는 마귀할미각담이라고 불리던 백제초기의 대형 적석총⁵⁴⁾이 있었으나 현재는 없어졌다.

이 성은 삼국통일 무렵 나당군의 격전지였던 매초성(買肖城)으로 보는 곳이다.⁵⁵⁾ 그 이유는 당나라의 대군이 포진할 수 있는 강 건너의 넓은 벌판은 가사평(袈裟坪)이라 불리던 전곡읍이 가장 적합하며 매(買)란 '水'를 뜻하고

51) 漣川文化院 院誌 1995, pp.54 9~550.

52)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院誌 1995, pp.33~36.

53) 漣川文化院 院誌 1995, pp.5 48~549.

54) 漣川文化院 院誌 1995, p.113.

55) 閔德植「羅·唐戰爭에 관한 考察-買肖城 戰跡를 中心으로-」 『史學研究』40, 韓國史學會, 1989. 안국승 <매초성연구> 경기향토사학 3집

56) 漣川文化院 叢書 1995, p.114.

57) 漣川文化院 叢書 1995, p.566.

肖란 '초소(哨所)'를 뜻하는 것으로 '물가를 지키던 성'이었음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하는 곳이 바로 대전리산성이다. 이 성에서 북으로 내려다보이는 한탄강 건너편에 전곡리 구석기 유적이 있고, 이곳의 북쪽에는 원형의 토성이 있었으나 현재는 없어졌고 '성안'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다.⁵⁶⁾ 서북쪽에는 장진천과 한탄강이 만나는 강이 있는데, 이곳에는 은대리토성(隱垓里土城)이 있다. 또 동쪽으로는 고소성(姑蘇城)이 있고, 남으로는 평지에 초성리토성(哨城里土城)과 초성리산성(哨城里山城) 등이 있다. 즉 이 성을 중심으로 하여 무려 5개의 성이 포진되어 있는데 대전리토성이 이들의 중심 성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부근의 신담리(薪沓里) 쪽에는 아우라지라는 도강지점이 또 하나 있다. 이곳은 한탄강과 영평천(永平川)이 만나면서 유속이 느려져 퇴적물이 쌓여 수심이 매우 얕아 한탄강에서 가장 유력한 도강지점이다. 그 이유는 이곳 신담리의 강 언덕에는 고구려 고분이 3기가 있었는데 현재는 2기만 남아 있기⁵⁷⁾ 때문이다. 이것은 둘 다 이미 도굴되었는데 고구려식의 말각 천정이 뚜렷이 남아 있는 석실벽으로 연도와 석실벽은 온전하며 천장석 일부가 남아 있다. 아우라지를 건너서 5km 정도 서쪽으로 가면 대전리산성이 나오게 된다. 밤나무골의 도강지점은 도강 후 대전리산성의 북쪽 골짜기를 타고 이동하게 되는데 한탄강에서 가장 중요한 2개의 도강지점을 지키던 성이 바로 대전리산성이므로 이 성은 지역의 중심 성(城)이 된다.

전곡리토성(全谷里土城)은 전곡읍 전곡리 구석기유적지 부근에 있는 토성으로 발굴조사 사무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오른쪽 구릉이 가장 높다. 그 옆을 지나는 도로 사이에 개울이 흘러 해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통로가 서문 자리인 동시에 수구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곳에서 북쪽 나무들이 줄지어 서있는 곳으로 토성이 연결되어 있었다. 사무실에서 동쪽으로 길을 따라 파괴된 성벽의 토축부가 나오는데 이곳에서는 판축으로 다져진 단단한 점토층이 드러나 있으며 그 높이는 2.5m 정도이다. 이곳에서 시작된 토성은 J자 형태로 휘어지면서 흐른다. 중간 부분은 완벽하게 남아 있어 높이는 2.5m 정도, 상부 폭이 2m, 하부 폭은 4~5m 정도이다. 성 안쪽은 약간 들어간 평지로 매우 넓다. 동문으로 보이는 부분이 나타나면서 이곳에서 성벽이 두 갈래로 갈라진다. 동남쪽으로는 ㄱ자로 다시 휘어지면서 계속되고 있고 북으로도

한 줄기가 뺀어 나가고 있다. 북으로 뺀은 성벽은 현재 입구로 사용되는 서문 쪽에서 시작되어 북쪽으로 뺀은 성벽과 만나면서 타원형의 내성을 이루게 된다. 한편 동문에서 동남쪽으로 뺀은 토성의 줄기는 ㄱ자로 휘어지면서 내성의 성벽 중간 부분과 연결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는 훼손되어 버렸다. 이것은 이성의 주 방어선이 강변 쪽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외성으로 보고 있다. 이 성을 시굴한 바 있는 배기동에 의하면 성벽에서 삼국시대로 보이는 와편과 토기편 등이 나왔었다고 한다. 이 부근의 밤나무골은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평상시에는 수심이 무릎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장비 없이도 건널 수 있는 도하지점으로 6·25 당시에도 중공군들이 이곳을 건넜다고 한다. 이곳에는 마귀할멈각담이라고 불리던 백제 초기의 대형 석적총⁵⁸⁾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전곡리토성은 백제 시대에 사용된 토성이었을 것으로 본다.

은대리토성(隱垓里土城)은 전곡읍 은대3리(隱垓3里) 음터에 있다. 전곡읍 서쪽의 한탄강과 장진천이 합류하는 강안(江岸)에 축성된 평지성이다. 삼면이 현무암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육안으로 확인되는 성벽은 신양농원 뒤편에 남북 일직선으로 나타나는 성벽으로 폭 10m, 높이 2~3m, 길이 120m이다. 원형은 파손되었고 성의 동서길이는 약 400m 정도이다. 최근 토지박물관의 조사에 의하면 “전체 둘레는 952m로 현존하는 성벽은 동쪽이 12m, 북쪽이 150m 정도로 약 270m가 남아 있다”⁵⁹⁾고 하였다. 주민들에 의하면 일제시대까지도 북쪽 성벽이 끝나는 지점에서 음터마을 방향으로 석축으로 된 외성이 ㄱ형태로 남아 있었으나 차츰 훼손되어 흔적을 찾기 어렵다고 한다. 이 성의 동쪽에는 전곡리토성이 자리잡고 있고 그 강 건너는 대전리산성이 자리잡고 있어서 전곡리토성과 함께 한탄강을 오가는 선박을 통제하였을 것으로 본다.

초성리토성(哨城里土城)은 『조선고적보물조사자료』에는 “경원선 전곡역 남쪽 평탄지에 주위 300間(545m)의 원형 토축이 있는데 대부분 붕괴되고 일부만이 남아 있는데 높이가 6尺(1.8m)이다”⁶⁰⁾라고 하였는데 민덕식(閔德植)에 의해 방형토성(方形土城)이었음이 밝혀졌다.⁶¹⁾ 그 후 이우형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성은 학담동 학담초등학교의 3·8선 돌파기념비 옆에 있는데, 연천에서 동두천 쪽으로 가는 322번 지방도로가 지나가고 있어 도로가 토성을 동서로 가르고 지나간다고 하였다.⁶²⁾ 문화재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토성의 길이가 동서

58) 漣川文化院 앞책 1995, p.113.

59) 토지박물관, 앞책 1999, pp.174~177.

60) 조선총독부앞책 1942, p.44.

61) 閔德植, 앞글, 1989.

62) 漣川文化院 앞책 1995, pp.547~548.

63) 金聖範, 앞글, 1992.

64) 韓陰總督府, 앞책, 1942, p.44.

65) 한글학회, 앞책, 1986, p.75.

66) 『眉叟記言』別集, 卷15, 戊戌舟行記:

67) 漣川文化院, 앞의 책, 1995, p.550~551.

陸軍士官學校陸軍博物館, 앞의 책, 1994, p.89.

150미터, 남북 100미터로 성내에서 무문회색연질토기편이 나온 것과 관축의 기법으로 보아 백제계의 토성으로 보고 있다.⁶³⁾

초성리산성(峭城里山城)은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 “청산면(靑山面) 초성리 부락 남쪽 5정(550미터), 포천·양주군의 경계의 산 정상에 주위 약 120간의 타원형 석성이 있다”⁶⁴⁾고 하였고 『한국지명총람(韓國地名總覽)』에는 “청산면 초성리와 대전리 경계에 있는 205.7m의 산에는 노고성이라는 토성이 있다”⁶⁵⁾고 하였다. 이 성은 초성리역 부근 약수터 옆에 있는 산으로 이곳에 오르면 한탄강의 대전리산성과 초성리토성 등이 조망되고 있어 초성리토성의 배후 성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연천에서 동두천으로 들어오는 3번 국도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전리산성의 서쪽에 있는 당포성은 연천군 미산면(帽山面) 마전리(麻田里)에 위치한다. 임진강 본류와 한탄강이 도감포(都監浦)에서 만나서 북쪽으로 돌아드는 강 북쪽 절벽 위에 있는데 성의 서북쪽으로는 작은 시내가 임진강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급경사를 이루어 마전 쪽과 단절이 되어 있다. 이곳의 서쪽에 삼화리에서 마전리로 건너던 당개나루터가 자리잡고 있다. 당포는 어유지리(漁遊池里)와 마전을 잇는 중요한 나루터로 당성의 강북대안의 단애에 있고 강이 북으로凸자 형태로 굽이쳐 올라오는 지점, 도하가 용이한 지점, 셋강이 임진강과 합류하는 지점 등 지리적 조건이 호로고루 성과 몹시 흡사하며, 다른 점은 이 성곽이 외성과 내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과 강물이 깊어 걸어서 건널 수 없다는 것이다. 허목(許穆)의 『미수기언(眉叟記言)』 별집, 권15, 무술주행기(戊戌舟行記)에 “마전 앞 언덕 강벽 위에 옛 진루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위가 총사(叢祠)가 되었고 그 앞에 나루를 당포(唐浦)라고 하는데 큰물이 지면 나루 길로 통한다.(麻田前江岸壁上有古壘今其上爲叢祠其前浦曰堂浦大水卽津路所通.)”⁶⁶⁾라고 하였다. 임진강 쪽 절벽의 높이는 13m, 성 좌측의 삼각형 대지의 꼭지점 끝에서 내성까지는 200m, 외성까지는 270m이며 내성은 높이가 6m, 길이는 50미터이고 외성은 높이가 4m, 길이가 150m이다. 내성 바로 안 북쪽에는 직경 4m의 우물터가 있다.⁶⁷⁾ 최근에는 경작지를 만들면서 외성을 너무 훼손시켜 겨우 흔적이 남아 있다. 이곳에서 채집되는 유물은 호로고루와 거의 같아 삼국, 고려, 조선시대의 와편과 토기류가 다량

출토되고 있다. 특히 고구려 계통의 적갈색 와편이 나오고 있어 고구려의 남진 거점인 동시에 남쪽세력의 도하 저지를 위한 성임을 알 수 있다. 이 곳을 정약용(丁若鏞)은 『대동수경(大東水經)』 권4, 웅수조(滄水條)에서 “백제시대에 패하(溟河)에 이르렀다는 것은 그 당시 도로가 곡산(谷山), 이천(伊川)에서 남으로 삭녕(朔寧), 마전을 거쳐 칠중하를 건너 적성, 양주에 도달하였는데 이 길이 조선시대의 길에 비하여 지름길이였다.”(百濟史所謂北至溟河者當時道路原自今谷山伊川南由朔寧麻田涉七重河以達積城楊州道里戰今徑捷)⁶⁸⁾ 고 하였고 『문헌비고(文獻備考)』 권24, 여지고(輿地考) 12, 도리조(道里條)에도 양주→상수역(湘水驛)→간파점(間坡店)→당포진(堂浦津)→마전으로 이르렀음을 밝혀주고 있다. 이와 같이 당포성은 의정부에서 양주를 거쳐 마전으로 북진하거나 거꾸로 남진하는 길목에 자리잡은 성으로 삼국시대 당시 적성 쪽의 육계성 또는 호로그성보다는 왕래가 빈번하지 않아 이 성을 둘러싼 항쟁의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나 이 두 지점 외에 보조적인 도강 지점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본다.

당포성을 지나면 만나는 아미성(阿未城)은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1, 적성 고적조에 “아미성은 현의 동쪽 80리에 있으며 주위가 1,937척이다.”(在縣東十八里石築周一千九百三十七尺)⁶⁹⁾라 하였고 『대동지지』 권3, 경기도, 적성, 성지조에 “아미성(我眉城)은 현의 동북쪽 80리에 있으며 주위가 1,937척이다.”(東北十八里周一千九百三十七尺)⁷⁰⁾라 하였다.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 경기도, 적성군에는 “적성면 적암리에 있는 주위 150간(272m)의 석성으로 석축부분이 온전히 남아 있다”고 하였다.

『문화유적총람』에서는 석축으로 주위는 270m이며 높이는 5.4m 정도로 여러 곳이 붕괴되었다고 하였다. 최근 육군박물관의 조사⁷¹⁾에 의하면 길이가 270~280m, 장축이 130m, 폭이 20~40m 정도라고 하였으며 토지박물관의 조사⁷²⁾에 의하면 성의 둘레는 290m로 성의 정상 부분과 동쪽 부분에서 승문이 타날된 와편이 수습되고 있어 삼국시대에 사용한 성이었음이 밝혀졌다.

현재도 이곳에는 석축부분이 잘 남아 있는데 최근 문화재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삼국시대 축성술 연구에 귀중한 자료임이 밝혀졌다. 이곳은 적성에서 전곡으로 가는 도로를 따라 가다가 적암초등학교가 있는 곳에서 부대가 있는 바로 우측의 산 정상에 위치한 테피식 산성으로 정상부분은 평탄하며

68) 『大東水經』卷第4,滄水條

69) 『新增東國輿地勝覽』卷11, 積城, 古蹟條:

70) 『大東地志』卷3, 京畿道, 稷城, 城地條:

71)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앞의 책, 1994, pp. 45~52.

72) 土地博物館, 앞의 책, 1999, pp.194~203.

73)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1, 積城縣, 古跡條:

74)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앞책, 1995, p.135.

동쪽은 절벽을 이루는 요새이다. 연천군 미산면 마전리 쪽에서 임진강을 건너 적암리(赤岩里)를 지나 양주군 회천(檜泉) 쪽으로 쳐들어오는 적이 37번 국도(적성-전곡)로 내려오는 것과 368번 지방도로(전곡-회천)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곳에서 서남으로는 칠중성, 남남서에는 감악산성이 보이고, 서북쪽으로 전곡이 조망되는데 특히 대전리 산성이 보이고 있다. 성의 동쪽 밑으로는 양주로 들어가는 368번 지방도로가 조망되어 길 건너의 수철성(水鐵城)과 함께 적을 정확하게 차단할 수 있는 곳이다.

아미성과 마주하고 있는 수철성(水鐵城)은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兩遠里) 산223번지에 위치한 397m의 산 정상부에 테피식으로 축조된 성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1, 양주 고적조와 적성 고적조水鐵城在縣東十里, 同書, 卷11, 楊州, 古跡條: 水鐵城在州北五十一里周三百五十七尺高十四尺與積城水鐵城相對.⁷³⁾에는 각각 하나씩 모두 두 개가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조사 결과 연천 쪽의 성은 수철성으로 파주군 적암리의 성은 아미성으로 비정되었다. 수철성은 보존 상태가 양호하며 동서 90m, 남북25m, 둘레가 250m에 높이는 4m정도이다. 이 성의 축조기법은 서쪽 1.3km에 마주 대하고 있는 고구려 계통의 놀목리 노고성과 동일한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⁷⁴⁾ 성의 정상부에서는 양주군으로 통하는 368번 지방도로와 연한 간파리(干坡里)와 놀목리, 서쪽으로 놀목리 아미성, 북쪽으로 양원리와 전곡 시가지, 파주군 적성면 적암리가 조망되는 것으로 보아 미산면 마전리의 당포성을 거쳐 임진강을 도하한 후 어유지리, 적암리로 남하하는 세력과, 전곡리·고릉리·양원리를 거쳐 어유지리 방향 또는 368번 지방도로를 따라 간파리 방향으로 남하하는 적을 방어할 목적으로 축조된 성이다.

3. 고구려의 한강 유역 점유

1) 고구려의 한 군현(낙랑, 대방) 고지 장악

고구려의 한강 유역 진출은 고구려의 남진 정책에 따른 결과였다. 따라서 고구려의 한강 유역 진출의 배경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먼저 4세기 중엽 고구려가 처했던 국제적인 입지를 이해하여야 한다. 고구려의 남진이 시작되기 전 한반도 한강 유역은 말갈 세력을 제압하고 이 지역의 패권을 장악한 백제가 한 군현과 대립하고 있었다. 이 한수 이북 지역에서 백제와 대립하던 한 군현 세력은 그러나 고구려의 압박으로 마침내 운명을 다하고 만다. 한 군현이 고구려의 압박으로 소멸되는 과정을 잠시 살피고 이어 백제와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놓고 충돌하는 과정을 점검하도록 하자.

고구려는 왕권을 강화하고 지방 세력을 통합한 뒤 정비된 국력을 바탕으로 요동의 중국 군현 세력을 압박하여 한반도 중국 군현의 배후를 끊는 한편 동시에 이 방향에 대한 영토 확장을 도모하였다.

王遣將襲破遼東西安平

동천왕 16년

왕이 장수를 보내어 요동의 서안평을 습격 격파하였다.⁷⁵⁾

高句麗伐帶方 帶方請救於我 先是王娶帶方王女寶果爲夫人 故曰帶方我舅甥之國 不可不副 其請 遂出師救之 高句麗怨

책계왕(責稽王) 원년

고구려가 대방을 공격하니 대방이 우리(백제)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앞서 왕이 대방의 왕녀 보과(寶果)를 취하여 부인으로 삼았으므로 이로 인하여 말하기를 대방은 (우리) 구생(舅甥)의 나라이니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하여 드디어 군사를 보내어 구원해 주니 고구려가 이를 원망하였다.⁷⁶⁾

秋九月 王率兵三萬侵玄菟郡 虜獲八千人移之平壤

미천왕(美川王) 3년 가을 9월

왕이 3만의 병사를 거느리고 현도군에 침공하여 8천 명을 사로잡아 평양으로 옮겼다.⁷⁷⁾

秋九月 遣將襲取遼東西安平

미천왕 12년 가을 8월

(왕이) 장수를 보내어 요동의 서안평을 습격하여 점령하였다.⁷⁸⁾

冬十月 侵樂浪郡 虜獲男女二千餘口

미천왕 14년 가을 10월

(왕이) 낙랑군에 침공하여 남녀 2천 여 구(口)를 사로잡았다.⁷⁹⁾

75)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東川王 16年

76) 『三國史記』 百濟本紀 責稽王

77)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美川王 3年

78)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美川王 12年

79)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美川王 14年

80) 『三國史記』高句麗本紀 美川王 15年

81) 『三國史記』高句麗本紀 美川王 16年

82) 『三國史記』高句麗本紀 故國壤王 2年

83) 曹魏는 요동의 공손 씨를 공격하는 것과는 별도로 군대를 보내어 한반도의 군현을 무력으로 제압하여 복속시켰다. 다음의 사료가 이를 입증한다.

景初年간(237-239) 明帝는 비밀리에 帶方太守 劉昕과 樂浪太守 鮮于嗣를 보내어 바다를 건너(樂浪 帶方) 二郡을 평정하였다. (三國志 권 30, 魏志 烏丸鮮卑東夷傳 30 韓傳) 景初中 明帝密遣帶方太守劉昕樂浪太守鮮于嗣 越海定二郡

84) 『三國志』魏志 卷4 上 世祖紀 上, 延和 元年

秋九月 南侵帶方郡

미천왕 15년 가을 9월 남으로 대방군을 쳤다.⁸⁰⁾

春二月 攻破玄菟城 殺獲甚衆

미천왕 16년 봄 2월 현도군을 공격하고 죽이고 포로로 한 것이 매우 많았다.⁸¹⁾

夏六月 王出師兵四萬襲遼東 先是 燕王垂命帶方王佐鎮峭城 佐聞我軍襲遼東遣司馬郝景將兵救之 我軍擊敗之 遂陷遼東玄菟虜男女一萬口而還 冬十一月 燕慕容農將兵來侵復遼東 玄免二郡

고국양왕 2년 여름 6월

왕이 4만의 병력을 보내어 요동을 습격하였다...(중략)...이에 사마(司馬), 학경(郝景)을 보내어 구원하게 하였다. 우리(고구려) 군대가 이를 격파하고 마침내 요동, 현도 2군을 함락시키고는 남녘 1만 구(口)를 포로로 해서 돌아왔다. 겨울 10월에 연(燕)의 모용농(慕容農)이 군대를 이끌고 침범해 와 요동, 현도 2군을 수복하였다.⁸²⁾

한이 멸망한 후 요동의 신흥 군벌 모용 씨의 휘하에 들어갔던 한반도의 군현 세력은 그 배후 세력이 되었던 요동의 공손 씨가 조조가 보낸 진압군에 의하여 멸망된 후(AD 238) 이후 실질적으로 위(魏)에 복속하는 군현이 되었으나⁸³⁾ 고구려가 배후세력인 요동 서안평을 장악하면서 약화되기 시작한 길로 보인다. 고구려는 이 틈을 이용하여 만주 요동과 한반도의 군현 모두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고구려의 군사 활동에 편승한 백제는 남부의 대방을 압박하여 일종의 혼인동맹을 체결하며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결국 미천왕대에 들어 선 고구려는 요동의 서안평을 장악하고 이어 낙랑, 대방 두 군현을 공격하여 이를 제압하게 되고 고구려의 끈질긴 공격에 따라 제압된 이 군현들은 만주로 위치를 옮겨 재편성되면서 한반도에서의 본래 명칭만을 유지하게 된다.

徙營丘成周遼東樂浪帶方玄菟六郡三萬家于幽州開倉以賑之

영구, 성주, 요동, 낙랑, 대방, 현도의 6군민 3만가를 유주로 옮기고 창고를 열어 이들을 진휼(賑恤)해 주었다.⁸⁴⁾

군민을 이사하게 하였다면 그 군현은 한반도의 군현이 될 수 없다. 육로로는 고구려에 가로막혀 있고 해로로는 그 많은 주민들을 한꺼번에 이주시키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의 사료에 등장하는 낙랑, 대방은 이미 만주에서

재편성되어 요서 어디쯤에 위치하였던 군현을 유주, 즉 북경 근처로 재배치한 기사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313년, 고구려의 양 군 멸망 기사는 이로써 두 군현의 정치적 존재가 소멸하였음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정확하다. 그러나 고구려가 멸망한 두 군현의 고지(故地)에 바로 행정권을 행사하거나 이들 지역을 영토로 편입한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발견되는 군현 멸망 이후의 고고학 자료들은 두 군현의 고지에 상당 기간 중국계 토착 세력이 존재하였음을 입증하기 때문이다.

다음 표는 양군 고지에서 발견되는 고고학 자료들을 일괄한 것으로서 공석구의 『고구려 영역 확장사』에서 인용한 것이다.⁸⁵⁾

85) 공석구, 『고구려영역확장사 연구』 p180, 1999, 서경문화사

번호	연대	명문	유적종류	소속	출토장소	사료 출전
1	316	建興四年會景□□	塼築墳	西晉	황해도	〈昭和 7年度 古蹟照査報告〉 1993
2	327	泰寧五年 三月十日	塼築墳	東晉	황해도 신천군	〈昭和 7年度 古蹟照査報告〉 1993
3	335	咸和十年太歲乙未 孫氏造	塼築墳	東晉	황해도 신천군	〈昭和 7年度 古蹟照査報告〉 1993
4	343	建武九年 三月三日 王氏造 奉車□	塼築墳	後趙	황해도 신천군	〈昭和 7年度 古蹟照査報告〉 1993
5	345	建元三年 太歲□□□ 八月 孫氏造	塼築墳	東晉	황해도 신천군	〈昭和 7年度 古蹟照査報告〉 1993
6	348	太歲在戊 滄陽張撫夷 太歲在甲 滄陽張撫夷 使君帶方太守 張撫夷 張使君	塼築墳	東晉	황해도 봉산군	〈昭和 7年度 古蹟照査報告〉 1993
7	350	建武 十六年 太歲□	塼築墳	後趙	황해도 신천군	〈昭和 7年度 古蹟照査報告〉 1993
8	352	永和八年 二月四日 韓氏造塼	塼築墳	東晉	황해도 신천군	〈昭和 7年度 古蹟照査報告〉 1993
9	353	永和九年 三月十日 遼東 韓 玄菟太守 領修利造	塼築墳	東晉	평양	〈昭和 7年度 古蹟照査報告〉 1993
10	357	永和十三年 十月戊子朔二十六日 癸丑 使持節都督諸軍事 平東將軍護撫夷校尉 樂浪相 昌黎玄菟帶方太守 都鄉侯 幽州遼東平郭都鄉敬上里 冬壽字□安 年六十九薨官	石室墳	東晉	황해도 안악군	〈인악 제 3호분 발굴〉 과학원 출판사 1958

- 86) 『三國史記』高句麗本紀 廣開土王 元年
- 87) 『三國史記』高句麗本紀 廣開土王 元年
- 88) 『三國史記』高句麗本紀 廣開土王 二年
- 89) 『三國史記』高句麗本紀 廣開土王 三年
- 90) 『三國史記』高句麗本紀 廣開土王 四年

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한반도 내의 옛 한 군현지역에는 한 군현 멸망 이후에도 한 군현의 영향이 강한 고고학적 자료들이 다수 출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구려는 이들 중국계 토착 세력을 상당 기간 정치 실세로 인정하면서 이들을 현지 통치에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국 고구려는 한반도의 옛 군현을 기반으로 남진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다.

2) 고구려의 남진과 한성 백제의 멸망

고구려는 영토 확장의 영걸(英傑) 광개토태왕(廣開土太王)이 즉위하면서 한강 유역에 대한 본격적인 남하를 시작하였다.

사료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전한다.

秋七月 南伐百濟拔十城

광개토왕 원년 가을 7월

남쪽으로 백제 10 여 개 성을 함락하였다.⁸⁶⁾

冬十月 攻陷百濟鄒鄒城 其城四面峭絕 海水環繞 王分軍七道 攻擊二十日乃拔

광개토왕 원년 겨울 10월

백제의 관미성을 쳐서 함락하였다. 그 성은 사면이 절벽인데다 바다에 둘러싸여 있어 왕이 군사를 일곱 길로 나누어 공격한지 20여 일 만에야 함락시키게 되었다.⁸⁷⁾

秋七月 百濟侵南邊 命將拒之

광개토왕 2년 가을 칠월

백제가 남쪽 변경을 침노하므로 장수에게 명하여 막게 하였다.⁸⁸⁾

百濟來侵 王率精騎五千逆擊敗之 餘寇夜走 八月築國南七城以備百濟之寇

광개토왕 3년 가을 칠월

백제가 와서 침노하므로 왕이 강력한 기병 5천을 거느리고 맞받아 쳐부수니 남은 적들이 밤에 달아났다. 8월에 나라 남쪽에 일곱 개의 성을 쌓아 백제의 침공에 방비하였다.⁸⁹⁾

秋八月 王與百濟戰於湏水之上 大敗之 虜獲八千餘級

광개토왕 4년 가을 팔월

왕이 패수 물가에서 백제와 더불어 싸워 그들을 크게 쳐부수고 8천여 명을 사로잡고 목베었다.⁹⁰⁾

위 사료와 대비하여 광개토왕 대의 고구려 남진 상황을 기록한 백제 측의 사료는 전황을 보다 상세히 전하는 동시에 고구려의 공격에 대응하는 백제의 군사력이 일면 역부족인 듯한 일면을 드러내고 있다.

백제 측의 사료를 보자.

秋七月 高句麗王談德帥兵四萬來攻北鄙 陷石峴等十餘城 王聞談德能用兵不得出拒漢水北 諸部落多沒焉 冬十月 高句麗攻拔關彌城

진사왕 8년 가을 7월

고구려 왕 담덕이 군사 4만을 거느리고 와서 북쪽 변경을 침공하여 석현 등 10여 성을 함락 시켰다. 왕이 담덕은 군사 지휘에 능하다는 말을 듣고 나가서 항전하지 못하고 한수 이북의 부락들을 많이 빼앗겼다. 겨울 10월에 고구려가 관미성을 쳐서 함락시켰다.⁹¹⁾

秋八月 王謂武曰 關彌城者 我北鄙之襟要也 今爲高句麗所有 此寡人之所痛惜 而卿之所宜用心而雪恥也 遂發將兵一萬 伐高句麗南鄙 武身先士卒以冒矢石 意復石峴等五城 先圍 關彌城 麗人嬰城固守 武以糧道不繼引而歸

아신왕 2년 가을 8월 왕이 진무에게 말하기를 “관미성은 우리나라 북쪽 변경의 요충인데 그것이 지금 고구려의 소유로 되어있다. 이는 내가 통분하게 여기는 바이니 그대도 애를 써서 이 원한을 갚아야 할 것이다” 하고 드디어 군사 1만을 거느리고 고구려의 남쪽 변경을 칠 것을 도모 하였다. 진무가 자신이 병졸보다 솔선하여 화살과 돌을 무릅쓰고 석현 등 5성을 회복하기로 작정하고 우선 관미성을 에워싸더니 고구려 군사가 성을 둘러막고 굳게 지켰다. 군량 수송이 계속되지 않자 진무가 군사를 이끌고 돌아왔다.⁹²⁾

秋七月 與高句麗戰於水谷城下 敗績

아신왕 3년 가을 7월 고구려와 더불어 수곡성 아래서 싸워 패하였다.⁹³⁾

秋八月 王命左將眞武等伐高句麗 麗王談德帥兵七千 陣於湏水之上 拒戰 我軍大敗 死者 八千人 冬十一月 王欲報湏水之役 親帥兵七千人 過漢水 次於靑木嶺 會大雪 士卒多凍死 迴軍至漢山城 勞軍士

아신왕 4년 가을 8월 왕이 좌장 진무 등에게 명하여 고구려를 치게 하였더니 고구려 왕 담덕이 친히 군사 7천을 거느리고 패수 가에 나와 진을 치고 대항하여 싸우매 우리 군사가 크게 패하여 죽은 자가 8천이었다. 겨울 11월에 왕이 패수의 패전을 보복하려고 몸소 군사 7천을 거느리고 한수를 건너서 청목령 밑에서 묵더니 때마침 큰 눈이 내려 병졸들이 얼어죽은 자가 많으므로 군사를 돌려 한산성에 와서 군사들을 위로하였다.⁹⁴⁾

秋八月 王欲侵高句麗 大徵兵馬 民苦於役 多奔新羅 戶口衰減

아신왕 8년 가을 8월 왕이 고구려를 치려고 군사와 말들을 크게 징발하니 백성들이 노역에 시달리어 신라로 달아나는 자가 많으므로 호구 수가 줄었다.⁹⁵⁾

91) 『三國史記』百濟本紀 辰斯王八年

92) 『三國史記』百濟本紀 阿莘王二年

93) 『三國史記』百濟本紀 阿莘王三年

94) 『三國史記』百濟本紀 阿莘王四年

95) 『三國史記』百濟本紀 阿莘王八年

위 사료들은 광개토왕 대의 고구려 남진이 패수를 전장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여기에서 전쟁터의 위치를 알게 해 주는 단서는 청목령(靑木嶺)이다. 『동국여지승람』 「개성부 산천조」에는 이 청목산을 곧 개성 송악산이라 하였다.⁹⁶⁾ 그런데 패수(湏水) 즉 임진강 전투에서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백제군이 한성으로 돌아와 군사를 위로하였다 하였으니 고구려의 남진과 이에 다른 백제와의 전투는 임진강과 한강 사이를 무대로 하여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96) 『東國輿地勝覽』開城府 山川條 松嶽

...왕창근(王昌瑾)의 경문(鏡文)에 이르기를 "사년(巳年) 중에 두 용이 나타났는데 하나는 몸을 푸른 나무(靑木)에 감춘다" 하였는데 푸른 나무는 솔(松)이니 곧 송악을 말한 것이다. 살펴보면 백제 시조 10년 겨울 10월에 말갈이 백제의 북쪽 국경에 침입하니 임금이 군사 200을 보내어 곤이천(昆彌川) 위에서 막아 싸웠는데, 백제 군사가 패하여 청목산(靑木山)을 의지하여 지켰다. 임금이 친히 정기(精騎) 100명을 거느리고 봉현(峰峴)에 나가 구원하니 적이 그제서야 물러갔다고 하였는데 이른바 청목산이란, 곧 이 산인 것 같다.

(王昌瑾鏡文云 巳年中二龍見 一則藏身靑木中 靑木松也 講松嶽也
○按 百濟始祖十年冬十月 蘇利王寇百濟北境 王遣兵二百拒戰於昆彌川上 百濟軍敗績依靑木山自保 王親率精騎一百出 峰峴救之 賊乃退 所謂靑木山處也)

97) 근래 아차산성 일원에는 상당한 규모의 고구려 보루성이 배치되었던 것을 발굴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이 아차성, 즉 아단성은 이후 한강 유역을 돌려 쓴 고구려, 백제의 정맥의 최전선이 되었다

98) 이 고모루성을 중원 고구려 비에 나오는 고모루성과 동일시하여 남한강 유역에 비정하려는 일부 견해가 있으나 필자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광개토 태왕의 한강 유역 진출은 한수를 넘어서 한성을 압박하는 선에서 종결되기 때문이다. 이후 고구려는 북연과의 분쟁에 들어가 백제와 고구려의 한강 경계선은 일종의 소강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탓에 고구려의 방어선이 당시에는 남한강까지 이를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 고모루성을 제천 근처에 비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러나 광개토태왕의 비문에는 『삼국사기』의 기록과는 달리 백제의 수도 한성이 이때 이미 함락되었다고 기록한다. 중국 요녕성 집안시에 소재하는 광개토태왕 비문에 의하면 광개토태왕은 영락(永樂) 6년 즉 서기 396년 한강 유역의 백제를 공격하여 백제군을 대파하고 이 지역의 58성 700촌을 공취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광개토태왕비의 병신 6년 기록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6년 병신(丙申)에 태왕(太王)은 친히 수군을 거느리고 잔국(殘國)을 토벌(討伐) 하였는데, 軍□□ 먼저 壹八城·日模盧城·各模盧城·幹氏利城·□□城·關彌城·牟盧城·彌沙城·固舍焉城·阿旦城·古利城·□利城·雜珍城·奧利城·勾牟城·古模耶羅城·莫□□·□□□ 등을 공격하여 빼앗았다. 그리고 이어서 耶羅城·瑋城·□□城·□□城·豆奴城·沸□□

(2면) 利城·彌鄒城·也利城·大山韓城·掃加城·敦□城·□□□城·婁賣城·散那城·那旦城·細城·牟婁城·于婁城·蘇灰城·燕婁城·析支利城·巖門□城·林城·□□城·□□城·□利城·就鄒城·木拔城·古牟婁城·閔奴城·貫奴城·彡穰城·□□城·□□盧城·仇天城·□□□□ 등을 쳤다. □其國城(그 도읍에 접근하였는데도) (百)殘은 의(義)에 굴복하지 않고 감히 백전(百戰)을 불사(不辭)하였다.

태왕은 진노하여 아리수(阿利水)를 건너 소수의 정예병을 보내어 국성(國城)을 압박하였다. 殘□□□, □便國城(그리하여) 백전(百殘)의 임금(阿莘王)은 황급하여 포로(男女生口) 1천명과 세포(細布) 일천 필을 바치고 태왕에게 무릎을 꿇어 스스로 맹세하기를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대왕의) 종(奴客)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태왕은 그들이 처음에 잘못된 허물을 널리 용서하고 뒤에 순종하는 정성을 가상히 여기었다. 그리하여 (태왕은) 58성과 700촌을 탈취하고 잔왕(殘王)의 아우와 대신(大臣) 열 사람을 볼모로 데리고 군대를 철수하여 수도(首都)로 돌아왔다.

이 비문을 검토하면 한수 이북 지역의 백제 영토가 점령되고 고구려군이 한강을 도하하여 수도인 하남 한성에 접근하여 이를 포위하고 마침내 백제 왕의 항복을 받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 과정에서 광개토태왕이 공취한 백제의 성들이 기록되었는데 이 중 우리가 현재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성들이 관미성(關彌城), 아단성(阿旦城), 미추성(彌鄒城), 고모루성(古牟婁城) 등이다.

관미성은 본문에 각미성(關彌城)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글자의 모양으로 보아 관미성이 분명하다. 관미성의 위치는 강화도, 혹은 김포반도의 임진강변 오두산 성으로 비정되며 비교적 그 위치가 임진강 어귀로 확정할 수 있는 지명이다. 아단성은 현재의 아차산성으로 서울 한강변의 북안(北岸)임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 되었다.⁹⁷⁾ 미추성은 인천으로 비정되며 이 지명은 미추홀에서 유래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고모루성은 의정부와 포천의 경계지점에 위치하는 고모리 산성으로 비정된다.⁹⁸⁾

이후 고구려는 한강을 경계로 백제와의 국경을 새로이 획정하고 이미 점령한 한강 이북 서울, 의정부, 양주, 연천, 김포 일대를 지배하게 되었으나, 백제와 새로운 군사 갈등은 표출하지 않고 일시 소강상태에 접어들게 된다, 이는 고구려가 새로이 화북의 강자로 등장한 북연(北燕)와 분쟁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이었다. 관계 사료를 보자.

二月 燕王盛以我王禮慢 自將兵三萬襲之 以驍騎大將軍慕容熙 爲前鋒拔新城南蘇二城 拓地七百餘里 徙五千餘戶而還

광개토왕 9년 2월

연(燕)의 임금 성(盛)이 우리 왕의 예절이 거만하다 하여 스스로 군사 3만을 거느리고 습격하여 왔는데, 표기대장군(驍騎大將軍) 모용희(慕容熙)를 선봉으로 하여 신성(新城) 남소(南蘇)의 두 성을 함락하여 7백여 리의 지경을 넓혀서 자기들의 백성 5,000여 호를 옮겨 놓고 돌아갔다.⁹⁹⁾

王遣兵攻宿軍 燕平州刺史慕容歸棄城走

광개토왕 11년

왕이 군사를 동원하여 연(燕) 나라의 숙군성(宿軍城)을 치니, 연(燕)의 평주자사(平州刺史) 모용귀(慕容歸)가 성을 버리고 달아났다.¹⁰⁰⁾

冬十一月 出師侵燕

광개토왕 13년 겨울 십일월

군사를 출동하여 연나라를 쳤다.¹⁰¹⁾

春正月 燕王熙來攻遼東城且陷 熙命將士 毋得先登 俟剗平其城 朕與皇后乘輿而入 由是城中得嚴備 卒不克而還

광개토왕 14년 봄 정월

연나라 임금 희가 요동성에 쳐들어와서 함락시키려 할 때, 희가 장병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들은 성에 먼저 오르지 말라. 성이 평정된 후에 내가 황후와 함께 가마를 타고 들어가리라.”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성안에서 물 썰 틈 없이 방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마침내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다.¹⁰²⁾

冬十二月 燕王熙襲契丹至涇北 畏契丹之衆欲還 遂棄輜重輕兵襲我 燕軍行三千餘里 士馬疲冬死者屬路 攻我木峴城 不克而還

광개토왕 15년 겨울 12월

연나라 임금 희가 거란을 습격하여 경북(涇北)까지 와서는 거란의 군사가 많은 것을 두려워하여 돌아가려 하다가 그냥 군수품들을 버린 채 경쾌한 군사로서 우리나라를 습격하였다.

그러나 연 나라에서 3,000여 리를 행군하여 왔으므로 군사와 마필이 피로하고 얼어죽은 자들이 길에 잇달아 우리 목저성을 치다가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다.¹⁰³⁾

이와 같이 고구려가 북연과의 분쟁에 집중하고 있는 틈을 타서 백제는 한강 이북의 실지(失地)를 회복하는 데에 노력을 경주하여 마침내 광개토태왕의 남진 작전으로 상실한 옛 영토를 거의 다시 회복하는 데에 이르게 된다. 백제가 잃었던

99) 『三國史記』高句麗本紀 廣開土王 9年

100) 『三國史記』高句麗本紀 廣開土王 11年

101) 『三國史記』高句麗本紀 廣開土王 13年

102) 『三國史記』高句麗本紀 廣開土王 14年

103) 『三國史記』高句麗本紀 廣開土王 15年

- 104) 『三國史記』百濟本紀毗有王 2年
- 105) 『三國史記』百濟本紀毗有王 3年
- 106) 『三國史記』百濟本紀毗有王 7年
- 107) 『三國史記』百濟本紀毗有王 8年
- 108) 『三國史記』百濟本紀毗有王 29年
- 109) 『三國史記』百濟本紀 蓋鹵王 15年

실지를 회복하는 데에는 군사작전과 함께 외교적인 노력에도 힘입은 바가 크다. 백제는 신라 및 왜, 그리고 중국 남조와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특히 신라와는 소위 혼인동맹이라 불리는 동맹관계를 수립하는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이다.

倭國使至從子五十人

비유왕 2년
왜국 사신이 왔는데, 수행자가 50여 명이었다.¹⁰⁴⁾

遣使入宋朝貢

비유왕 3년 가을
송 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조공하였다.¹⁰⁵⁾

秋七月遣使入新羅請和

비유왕 7년 가을 7월
신라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였다.¹⁰⁶⁾

비유왕 8년 봄 2월

신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좋은 말 두 필을 보내고 가을 9월에 또 흰 매를 보냈더니, 겨울 10월에 신라에서 답례로 좋은 금과 구슬을 보내 왔다.¹⁰⁷⁾

최근의 발굴에 의하면 한때 한강 유역에 있어서 고구려와 백제의 최전선 이었던 아차성 일대의 고구려 보루와 광진구 구의동의 고구려 보루들이 백제의 급습으로 함락된 확인한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백제군은 고구려의 보루 및 진지에 대한 대대적인 군사 작전을 통하여 이 지역의 수비를 돌파하고 나아가 서울, 의정부, 양주, 파주 일대의 옛 영토를 다시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기는 대략 비유왕 말년에서 개로왕 초기에 이르는 때였다. 다음 사료를 통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春三月 王獵于漢山 秋九月 黑龍見漢江 須臾雲霧晦冥飛去

비유왕 29년 봄3월
왕이 한산에서 사냥을 하였다. 가을 9월에 한강에 검은 용이 나타났는데, 잠시 후에 구름과 안개가 끼어 어둡게 되더니 날아가 버렸다.¹⁰⁸⁾

秋八月 遣將侵高句麗南鄙 冬十月 葺雙峴城設大冊於青木嶺 分北漢山城士卒戍之

개로왕 15년 가을 8월
장수를 보내어 고구려의 남쪽 변경을 침공하였다.
겨울 10월, 쌍현성을 수축하고 청목령에 큰 목책을 설치하고, 북한산성의 병력을 나누어 이를 수비하게 하였다.¹⁰⁹⁾

위의 사료를 검토하면 비유왕은 말년에 이미 한산(漢山) 즉, 지금의 서울·의정부 지역에서 사냥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영토인) 한강(漢江)에 이상 징후인 흑룡(黑龍)의 출현이 있다고 사서(史書)에 기록하고 있고, 개로왕 15년이 되면 임진강 일대인 쌍현성(雙峴城)과 청목령(靑木嶺)에 수비군을 배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살펴본 바 그대로 청목령이 지금의 개성 송악산 일대를 의미한다면 이는 한강의 북부 일대, 즉 한강에서 임진강까지의 지역을 이미 백제가 회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쌍현성을 크게 수축하고 송악산 일대에 방어시설을 만들고 서울, 의정부 지역의 군사를 나누어 주둔하게 했다는 것은 일단 후퇴한 고구려군과 북진해 온 백제군 사이의 군사적 충돌 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백제는 이와 같은 군사적 대치를 근본적으로 풀어낼 속셈으로 북위(北魏)에 사신을 보내어 고구려 공격을 간청하는데, (自馮氏數終餘燼奔竄醜類漸盛遂見凌逼構怨連禍三十餘載 財殫力竭轉自孱弱若天 慈曲矜遠及無外速遣一將來救臣國 當奉送鄙女執掃後宮并遣子弟 牧圉外廐 尺壤匹夫不 敢自有云云)¹¹⁰⁾ 북위는 그러나 고구려와의 오랜 친교를 이유로 백제의 이와 같은 간청을 간곡히 거절하게 되고... (但以高句麗稱藩先朝供職日久 於彼雖有自昔之 於國未有犯令之愆 卿使命始通便求致伐尋討事會理亦未周 故往年遣禮等至平壤欲驗其由狀 然高句麗奏請頻煩 辭理俱詣 云云)¹¹¹⁾ 이는 고구려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동시에 일종의 위기의식을 불러오게 된다. 장수왕은 백제의 대 북위(北魏) 군사 외교(秋七月軍君入京 既而有五子 (百濟新撰云 辛丑年 蓋鹵王遣弟昆支君向大倭侍天王 以修 兄王之好也))¹¹²⁾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마침내 백제에 대한 선제 공격을 계획하고 이에 대한 치밀한 준비에 들어간다. 『삼국사기』는 승(僧) 도림(道琳)이 첩자로 백제에 파견되어 마침내 백제 궁중에 접근하고 개로왕으로 하여금 크게 토목공사를 일으키게 하여¹¹³⁾ 국력을 낭비하고 민심을 흘렸다고 기록하고 있다. (於是 盡發國人 悉土築城 卽於其內 作宮室樓閣臺榭 無不壯麗 又取大石於郁里河 作櫛以葬父骨 緣河樹堰 自蛇城之東 至崇山之北 是以 倉廩虛竭 人民窮困 邦之隍兀 甚 於累卵 云云)¹¹⁴⁾ 이 기사의 내용이 사체(事體)의 진실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를 차치(次置)하고라도 우리는 이를 통하여 고구려 장수왕의 백제 침공이 얼마나 치열한 사전 준비를 거쳐 진행되었는가를 알 수 있게 한다. 아울러 고구려의 백제 침공에는 백제 출신의

110) 『三國史記, 百濟本紀 蓋鹵王 18年

111) 『三國史記, 百濟本紀 蓋鹵王 18年

112) 개로왕은 461년 동생 곤지를 왜국에 보내어 대외관계를 돈독히 하였고 이를 통하여 군사적인 협조관계를 구축하기도 하였다.

『日本書紀, 卷13 雄略天皇 5年

秋七月軍君入京 既而有五子 (百濟新撰云 辛丑年 蓋鹵王遣弟昆支君向大倭侍天王 以修 兄王之好也)

113) 이기동, 1974, 『中國史書에 보이는 百濟王 牟婁에 대하여, 歷史學報 62집 p. 30-33

개로왕이 토목공사를 크게 일으키고 궁실을 수축한 것은 개인적인 사치와 낭비였기보다는 왕권을 강화하고자 한 측면도 있다. 개로왕은 친히 근친 왕족을 왕후(王后)에 봉하고 스스로는 대왕이라 칭하였고, 왕족을 지방에 분봉하는 한 편 자신의 동생들인 여되(餘都)와 여근(餘昆)을 좌현왕(左賢王), 우현왕(右賢王)에 임명하는 등 왕실 중심의 친위체제 수립에 노력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114) 『三國史記, 百濟本紀 蓋鹵王 21年

115) 『三國史記』新羅本紀 蓋鹵王 2年

116) 『三國史記』百濟本紀 蓋鹵王 2年

도망병을 앞장 세워 일종의 향도를 삼기도 하였다.... 桀婁·萬年 本國人也 獲罪逃竄高句麗¹¹⁵⁾ 고구려 장수왕은 군사를 동원하여 한수 이북 지역을 석권하고 마침내 백제의 수도 한성에 접근하여 이를 포위하였고 마침내 아들 문주를 먼저 남천시키고 남은 군사와 함께 성을 빠져나가는 개로왕을 포획, 이를 죽임으로써 백제의 한성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道琳逃還以告之 長壽王喜將伐之 乃授兵於帥臣 近蓋婁聞之 請子文周曰 予愚而不明 信用姦人之言 以至於此 民殘而兵弱 雖有危事 誰肯爲我力戰 吾當死於社稷 汝在此俱 死無益也 豈避難以續國系焉 文周乃與木菴滿致·祖彌架取(木菴·祖彌皆復姓 隋書以木 菴爲二姓未知孰也)南行焉 至是 高句麗對盧齊于·再曾桀婁·古尔萬年(再曾·古尔皆復 姓)等帥兵 來攻北城七日而拔之 移攻南城 城中危恐 王出逃 麗將桀婁等見王下馬拜已 向王面 三唾之 乃數其罪 縛送於阿且城下壯之 桀婁·萬年本國人也 獲罪逃竄高句麗

개로왕 2년

그제서야 도림이 도망쳐 돌아와 왕에게 실정(實情)을 고하니 장수왕이 기뻐하여 장수들에게 군사를 나누어 주었다. 근개루가 이 말을 듣고 아들 문주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리석고 총명하지 못하여 간사한 사람의 말을 신용하다가 이 지경이 되었다. 백성들이 영락하여지고 군사가 약하니 아무리 위급한 사태가 있을 들 누가 나를 위하여 힘들여 싸우고자 하겠는가? 나는 당연히 나라를 위하여 죽어야 하지만 너는 여기 있다가 함께 죽어도 유익함이 없으니 어찌 난을 피하여 왕통을 잇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문주가 곧 목협만치(木菴滿致)와 조미걸취(祖彌架取) 등을 데리고 남쪽으로 떠났다. 이 때 고구려의 대로(對盧) 제우(齊于), 재증걸루(再曾桀婁), 고이만년(古尔萬年)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북쪽 성을 와서 친 지 7 일만에 함락시키고, 남쪽 성으로 옮겨와서 치매 성안이 위협에 빠지고 왕은 도망하여 나갔다. 고구려 장수 걸루 등이 왕이 말에서 내려 절하는 것을 보고 직접 왕의 얼굴을 향하여 침을 세 번 뱉고, 곧 죄목을 따진 다음 아차산 밑으로 묶어 보내어 죽이게 하였다. 걸루와 만년은 본래 백제 사람으로서 죄를 짓고 고구려에 도망하였던 자들이다.¹¹⁶⁾

여기에서 말하는 북성은 북한산성 즉 지금의 서울·의정부 일대를 말하는 것이요, 남성은 하남 위례성 즉 지금의 풍납토성을 말하는 것이니 북한산성이 함락되고 난 후 백제는 주력 일부가 왕자 문주와 함께 빠져나가버린 상황에서 별다른 반항 한 번 못해보고 멸망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백제의 전반기 500년에 걸치는 한강 시대가 종결되고 백제는 웅진·부여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3) 백제의 중흥 노력과 신라의 한강 유역 점유

한성이 함락되고 개로왕이 전사하면서 백제는 심각한 국가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임시 수도로 정한 웅진(熊津)에서 일단 숨고르기에는 성공하였으나 이미 요충을 상실하고 만 백제는 그나마 왕권조차도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척이 발호하고 대외의 협조체제도 그 근본이 흔들리고 있었으며 백제에 복속하던 지방 세력들마저 심각한 이탈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가까스로 피난 정부를 구성한 문주왕이 피살되고 그 뒤를 이은 삼근왕조차 불과 3년 만에 흥서(薨逝)하면서 백제는 총체적으로 표류하고 있었던 것이다.

秋八月 兵官佐平海仇 擅權亂法有無君之心 王不能制 九月 王出獵宿於外 海仇使盜害之 遂薨

문주왕 4년 가을 8월

병관좌평 해구가 권력을 마음대로 하여 법을 문란하게 하며 임금을 없애려는 마음을 두었으나, 왕이 이를 제어하지 못하였다. 9월에 왕이 사냥하러 나가 들에 묵었더니 해구가 도적을 시켜 해치매 마침내 죽었다.¹¹⁷⁾

春 佐平海仇與恩率燕信聚衆 據大豆城叛 王命佐平眞男以兵二千討之不克 更命德率眞老師 精騎五百 擊殺海仇 燕信奔高句麗 收其妻子斬於熊津市

삼근왕 2년 봄

좌평 해구가 은술 연신과 함께 도당을 끌어 모아 대두성에 은거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왕이 좌평 진남에게 명하여 군사 2천으로써 치게 하였으나, 이기지 못하므로 다시 덕솔 진로를 시켜 정예한 군사 5백을 거느리고 쳐서 해구를 죽였다. 연신은 고구려로 달아남으로 그의 처자들을 잡아서 웅진 저지에서 목을 베었다.¹¹⁸⁾

한편, 이와 같은 백제 정국의 혼란은 바로 외부의 혼란으로 이어지면서 백제와 소백산맥을 경계로 대립하던 대가야 세력의 섬진강 하류 일대로의 진출을 허용하였고, 이어 남원·임실까지도 대가야의 소유로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¹¹⁹⁾ 아울러 그동안 백제의 통치를 받아왔던 영산강 일대의 토착 세력도 독자적인 세력 형성에 나서면서 이탈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다.¹²⁰⁾

이와 같은 총체적인 백제의 혼란이 수습의 가닥을 잡기 시작한 것은 동성왕이 즉위하면서부터였다. 동성왕은 우선 대외 관계를 수습할 목적으로 외교 역량을 강화한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그는 중국의 남조(南朝) 남제(南齊)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신라에도 사신을 보내어 기존의 우호관계를 재정비하는 한편, 신라의 왕실과 결혼을 통한 동맹을 성립시켰다. 이와 같은 외교적 노력이 어느 정도

117) 『三國史記』 百濟本紀 文周王 4年

118) 『三國史記』 百濟本紀 三斤王 2年

119) 태식, 1997, 『가이연맹의 발전』, 한국사 7(국사편찬위원회) p.339

120) 현재 영산강 일대에 나타나는 독자적인 고분형식, 한국형 전방후원분이라고 불리는(장고형 고분)이 바로 이와같은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고고학계는 분석하고 있다

임영진, 1997, 『전남지역 석실분의 입지와 石室構造』, 제5회 호남고고학회 학술대회 발표 요지

121) 『三國史記』百濟本紀 東城王
20年

성과를 거두자 그는 이를 바탕으로 이탈 움직임을 보였던 영산강 일대의 토착 세력에 대한 지배력 회복에 나서게 된다.

八月 王以耽羅不修貢賦 親征至武珍州 耽羅聞之遣使乞罪 乃止 耽羅謂耽牟羅

동성왕 20년 가을 8월

왕이 탐라(耽羅)에서 공납과 조세를 바치지 않는다 하여 그를 몸소 치고자 무진주(武珍州)에 이르니 탐라에서 이 소문을 듣고 사신을 보내어 사죄하므로 중지하였다. 탐라(耽羅)는 곧 탐모라(耽牟羅)이다.¹²¹⁾

이 기사에 등장하는 탐라(耽羅)를 흔히 통용하는 제주(濟州)로 보기에는 기사 내용에 무리가 따른다. 우선 이 탐라를 제주로 이해하면 기사의 내용이 상당 부분 보충되지 않으면 안된다. 제주를 공격하는 데 왕이 직접 나섰다는 내용 자체가 우선 무리인데다, 해전을 준비하였다는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또 하나 위의 기사는 동성왕 20년 즉 서기 498년의 기사인데 일본 서기에 따르면 제주가 백제와 처음 통교한 것이 이보다도 10년이 더 지난 무령왕(武寧王) 8년, 즉 508년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기사에 등장하는 탐라는 제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탐진강(耽津江) 일대, 즉 전남 해안 일대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전체적인 의미가 통한다. 탐라(耽羅)라는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탐진강 유역의 별판'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해야 당시 백제의 국가적 위기를 틈타 이탈의 기미를 보이던 전남 해안 일대의 토착 세력에 대한 지배권을 백제가 회복하였다는 당시 상황과 일치된다.

전남 해안, 영산강, 탐진강 일대의 토착세력을 다시 아우른 백제는 소백 산맥을 넘어 진출해 온 대가야 세력과 싸워 다시 이를 축출하고 있다. 소위 '임나일본부'와 관련하여 일본서기에 윤색된 바 임나가 백제에 주었다는 임나 4현은 아마도 이를 반영하고 있는 기사인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백제의 국력이 정비되어가면서 이제 당면한 과제는 상실한 고토 한강 유역의 회복이었다. 동성왕 대를 지나 무령왕 대에 이르면 사료에는 유난히 고구려 및 한강 유역의 공백 상태를 이용하여 다시 이 지역에 진출한 말갈과의 전투가 빈번히 등장하게 된다.

冬十一月 遣達率優永 帥兵五千 襲高句麗水谷城

무령왕 1년 겨울 11월

달솔(達率), 우영(優永)을 보내어 군사 5,000명을 거느리고 고구려의 수곡성(水谷城)을 습격하였다.¹²²⁾

冬十一月 遣兵侵高句麗邊境

무령왕 2년 겨울 11월

군사를 보내어 고구려의 변경을 침공하였다.¹²³⁾

秋九月 鞞鞞燒馬首柵 進攻高木城 王遣兵五千襲退之

무령왕 3년 가을 9월

말갈이 마수책(馬首柵)을 소각하고 고목성(高木城)으로 진공(進攻)하여오매 왕이 군사 5,000명을 보내어 쳐 물리쳤다.¹²⁴⁾

秋七月 鞞鞞來侵破高木城 殺虜六百餘人

무령왕 6년 가을 7월

말갈이 침입하여 고목성(高木城)을 깨뜨리고 600여 명을 죽이고 사로잡아 갔다.¹²⁵⁾

夏五月 立二柵於高木城南 又築長嶺城 以備鞞鞞 冬十月 高句麗將高老與鞞鞞謀欲攻漢城 進屯於橫岳下 王出師擊退之

무령왕 7년 여름 5월

고목성 남쪽에 두 개의 목책(木柵)을 세우고 또 장령성(長嶺城)을 쌓아 말갈을 방비하였다.

겨울 10월에 고구려 장수 고로(高老)가 말갈과 짜고 한성(漢城)을 치기 위하여 횡악(橫岳) 아래 와서 둔(屯)을 치므로 왕이 군사를 출동시켜 그들과 싸워 물리쳤다.¹²⁶⁾

秋九月 高句麗襲取加弗城 移兵破圓山城 殺掠甚衆 王帥勇騎三千 戰於葦川之上 麗人見王 軍少易之不設陣 王出奇急襲大破之

무령왕 12년 가을 9월

고구려가 가불성(加弗城)을 습격하여 빼앗고 군사를 옮겨 원산성(圓山城)을 쳐서 깨뜨리고, 죽이고, 약탈하여 간 것이 매우 많았다. 왕이 기병 3,000명을 거느리고 위천(葦川) 북쪽에 나가 싸웠더니 고구려 사람들이 왕의 군사가 적은 것을 보고 만만히 여겨 진을 치지 않으므로 왕이 불의에 습격하여 그들을 깨뜨렸다.¹²⁷⁾

冬十一月 遣使入梁朝貢 先是爲高句麗所破 衰弱累年 至是 上表稱 累破高句麗 始與通好 而更爲強國

무령왕 21년 12월

양(梁) 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조공하였다. 이에 앞서 고구려에 격파되어 나라가 쇠약해진 지 여러 해를 지났으나 이 때에 표문(表文)에 이르기를 "여러 번 고구려와 싸워 그들을 격파하였으며 이제 더불어 통교하게 되었으니 비로소 다시 강국이 되었다"라고 하였다.¹²⁸⁾

春二月 王行漢城 命佐平因友·達率沙烏等 徵漢北州郡民年十五歲已上 築雙峴城 三月 自漢城

무령왕 23년 봄 2월

왕이 한성(漢城)으로 가서 좌평(佐平) 인우(因友)와 달솔(達率), 사오(沙烏) 등에게 명하여 나이 15세 이상 되는 한북(漢北)의 주(州), 군(郡) 백성들을 징발(徵發)하여 쌍현성(雙峴城)을 쌓았다. 3월에 왕이 한성(漢城)으로부터 돌아왔다.¹²⁹⁾

122) 『三國史記』百濟本紀 武寧王 1年

123) 『三國史記』百濟本紀 武寧王 2年

124) 『三國史記』百濟本紀 武寧王 3年

125) 『三國史記』百濟本紀 武寧王 6年

126) 『三國史記』百濟本紀 武寧王 7年

127) 『三國史記』百濟本紀 武寧王 12年

128) 『三國史記』百濟本紀 武寧王 21年

129) 『三國史記』百濟本紀 武寧王 23年

130) 『三國史記』百濟本紀 聖王 26年

131) 『三國史記』百濟本紀 聖王 28年

春正月 王遣將軍達己 領兵一萬 攻

위 기사를 검토하면 무령왕 대에 이르러 백제는 이미 한강 북안의 옛 고토를 상당 부분 다시 회복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특히 무령왕이 흥서(薨逝)하는 동왕 23년에 이르면 왕이 수도 웅진을 떠나 한성(漢城)에서 1년 이상을 머무르고 있고, 뿐더러 동 지역의 백성들을 축성 작업에 징발하고 있기까지 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이 백제가 이미 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지역에서는 여전히 고구려와 백제의 지역 쟁탈을 위한 군사 대립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령왕 사후 왕권을 계승한 성왕(聖王)은 익히 알려진 바 그대로 백제의 중흥주(中興主)이다. 그는 동성왕, 무령왕에 이어 백제의 국권을 다시 안정 상태로 완전히 회복한 왕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는 한강 유역의 옛 고토를 완전히 회복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이를 마침내 달성해 낸다. 그러나 불운하게도 그가 확보한 한강 유역의 고토가 다시 신라의 영유로 돌아가면서 중흥의 꿈을 접어야 했던 비운의 왕이기도 하다.

성왕은 한강 유역을 둘러싼 고구려와의 군사적 대립 과정에서 신라와의 동맹을 활용하게 되는데 신라는 백제의 요청에 따라 대 고구려 군사 작전에 참가하며 이 지역에 대한 나름대로의 관심을 확대해가고 있었다. 신라가 한강 유역에 진출하여 교두보를 확보하는 과정을 사료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春正月 高句麗王平成與濊謀 攻漢北獨山城 王遣使請救於新羅 羅王命將軍朱珍 領甲卒三千發之 朱珍日夜兼程至獨山下與麗兵一戰 大破之

ㄱ. 성왕 26년 정월

고구려왕 평성(平成)이 예(濊)와 짜고 한북(漢北)의 독산성(獨山城)을 치므로 왕이 신라에 사신을 보내어 구원을 청하니 신라 왕이 장군 주진(朱珍)을 시켜 갑옷 입은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떠나게 하였다. 주진이 밤낮으로 길을 걸어서 독산성 아래 이르러 고구려 군사들과 한바탕 싸워 이를 크게 깨뜨렸다.¹³⁰⁾

取高句麗道薩城 三月高句麗兵圍金峴城

ㄴ. 성왕 28년 봄 정월

왕이 장군 달기(達己)를 보내어 군사 10,000명을 거느리고 고구려의 도살성(道薩城)을 쳐서 빼앗았다. 3월에 고구려 군사가 금현성(金峴城)을 에워쌌다.¹³¹⁾

春正月 百濟拔高句麗道薩城 三月高句麗陷百濟金峴城 王乘兩國兵 命伊淪異斯夫出擊之 取二城 增築 留甲士一千戌之

ㄷ. 진흥왕 11년 봄 정월

백제가 고구려의 도살성을 함락하고 3월에는 고구려가 백제의 금현성을 함락시켰다. 왕이 두 나라 군사가 피로한 틈을 타서 이찬(伊淪, 이사부(異斯夫))을 시켜 군사를 내어 이를 쳐서 두 성을 빼앗아 성을 증축하고 군사 1,000명을 머물게 하여 그 곳을 지켰다.¹³²⁾

眞興王在位十一年大寶元年 百濟拔高句麗道薩城 高句麗陷百濟金峴城 王乘兩國兵 命異斯夫出兵擊之 取二城 增築 留甲士戌之 時高句麗遣兵來攻金峴城 不克而還 異斯夫追擊之 大勝

ㄹ. 이사부 열전(列傳)

진흥왕 재위 11년, 대보(大寶) 원년에 백제가 고구려의 도살성을 빼앗자 고구려는 백제의 금현성을 함락시켰다. 왕은 양국의 병사가 피로한 틈을 타서 이사부에게 명하여 나아가 치게 하였다. 두 성을 모두 취하여 증축하고 갑병(甲兵)을 머물러 지키게 하였다. 이 때 고구려 군사를 보내어 금현성을 쳤으나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을 이사부가 추격하여 크게 이겼다.¹³³⁾

132) 『三國史記』新羅本紀 眞興王 11年

133) 『三國史記』列傳4 斯夫

134) 같은 내용을 고구려의 입장에서 기록한 사료가 하나 더 있으나 (『삼국사기』 권 19 고구려 본기 양원왕 조) 내용이 동일하여 인용을 생략한다

135) 이병도 『삼국사기』
을유문화사 1977 p57

136) 민덕식,
『고구려의 도서현성고』,
시학연구 36, 한국사학회, 1983, p47,
51-53

137) 『三國史記』新羅本紀 眞興王 12年

138) 『三國史記』高句麗本紀 陽原王 7年

위에 인용한 사료 중 ㄷ. 에서 ㄹ. 까지 3건은 모두 한 가지 사건을 각각 다른 입장에서 서술한 것이다.¹³⁴⁾ 이 기사가 다루는 사건은 550년 한강 유역을 둘러싼 고구려, 백제, 신라의 전투로 이 전투의 결과 신라는 한강 유역에 마침내 교두보를 확보한 것이다. 문제가 되는 도살성과 금현성의 정확한 위치는 미상이다. 이병도는 이를 각각 천안과 전의에 비정하였고¹³⁵⁾ 이와는 달리 민덕식은 이를 괴산과 진천으로 추정하였으나,¹³⁶⁾ 우리가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성왕의 전대인 무령왕대에 백제가 이미 한강 유역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 이를 충청 지역에 비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필자는 이를 임진강 유역의 어느 지역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 해 즉 551년에는 보다 주목할 만한 전투가 발생한다. 먼저 사료를 보자.

春三月 王命居柒夫等 侵高句麗 乘勝取十郡

진흥왕 12년 3월

왕이 거칠부 등을 시켜 고구려에 침공하였다. 승리를 틈타 열 고을을 빼앗았다.¹³⁷⁾

秋九月 新羅來攻取十城

양원왕 7년 가을 9월

신라가 침공하여 10 성을 빼앗았다.¹³⁸⁾

139) 『三國史記』列傳4 居柒夫

140) 日本書紀 欽明紀 12年

十二年辛未 王命居柒夫 及 仇珍大角滄·比台角滄·耽知迺食·非西迺食·奴夫波珍滄·西力夫波珍滄·比次夫大阿滄·未珍夫大阿滄等八將軍 與百濟侵高句麗 百濟人先攻破平壤 居柒夫乘勝取竹嶺以外高峴二內十郡

거칠부(居柒夫)열전(列傳)

진흥왕 12년 신미(辛未), 왕이 거칠부(居柒夫) 및 대각찬(大角滄) 구진(仇珍), 각찬(角滄) 비태(比台), 잡찬(迺食) 탐지, 잡찬(迺食) 비서(非西), 파진찬(波珍滄) 노부(奴夫), 파진찬(波珍滄) 서력부(西力夫), 대아찬(大阿滄) 비차부(比次夫), 아찬(阿滄) 미진부(未珍夫) 등 여덟 장군에게 명하여 백제와 함께 고구려를 치도록 하였다. 백제인이 먼저 평양성을 격파하니 거칠부 등이 그 승세를 타고 죽령(竹嶺)에서 고현(高峴)까지의 열 고을을 빼앗았다.¹³⁹⁾

是歲 百濟聖明王親率衆 及二國兵(二國謂新羅·任那也) 王伐高麗 獲蕪城之地 又進軍討平壤 凡六郡之地遂復故地

일본서기(日本書紀) 흥명왕(欽明王) 12년

이 해에 백제의 성명왕(聖明王)이 친히 (백제군과) 두 나라(두 나라는 신라(新羅)와 임나(任那))의 군대를 거느리고 고려(高麗)를 공격하여 한성(漢城) 땅을 얻고 또 군대를 전진시켜 나아가 평양(平壤)을 쳤다. 6 고을의 땅을 얻으니 마침내 고토(故土)가 회복되었다.¹⁴⁰⁾

위 사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서기 551년에 백제와 신라의 연합군이 양동 작전으로 고구려를 공격하여 백제는 임진강 교두보로부터 평양 방면으로 진격하고 승리를 거두고 이 틈을 타 신라는 죽령(竹嶺)의 대치선을 넘어 남한강 상류에서 북한강 중, 하류에 이르는 지역을 점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구려는 수도(首都)가 위협에 빠지는 상황에서 신라군의 공격에 전면 대응할 수 없었고, 신라는 이를 이용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한강 지역을 공취(攻取)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사료에 ‘승리를 힘입어(乘勝)’라 한 것은 바로 이를 두고 이룬 말일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할 사실은 이 승리로 말미암아 백제는 한강 유역의 고토를 완전히 회복하였다고 한 기록이다. 동성왕, 무령왕을 거치며 점진적으로 북진해온 백제의 불안정한 한강 유역 점유 내지는 고구려와의 거듭되는 군사적 대치, 대립 상황이 비로소 종결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문제는 이 괄목할 만한 승리의 기록이 왜 백제 측 사료에는 누락되었는가 하는 사실이다. 같은 사건이 고구려, 신라 측 사료에는 나타나는데 백제 측 사료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한강 유역의 회복이 문주왕의 남천 이래로 백제의 가장 중요한 국가 관심사였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우리는 이에 대한 해답을 그 다음 해인 553년의 사건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백제가 애써 확보한 한강 유역의 고토를 이번에는 다시 신라에 빼앗겨버린 것이다. 신라는 550년 도살성과 고현성을 점령하여

한강 유역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이어 551년 백제의 평양성 공격에 힘입어 한강 상, 중류 일대를 점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발판으로 553년에는 마침내 백제가 확보한 고토 전체를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신라의 한강 유역 점유는 이후 신라의 삼국 소통일에 결정적 전기로 작용하는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의 경과를 알려주는 사료는 그 내용이 대단히 소략하여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사료를 보자.

秋七月 新羅取東北鄙 置新州

성왕(聖王) 31년 가을 7월

신라가 동북 변경을 빼앗아 신주(新州)를 설치하였다.¹⁴¹⁾

秋七月 取百濟東北鄙 置新州 以阿武力爲軍主

진흥왕(眞興王) 14년 가을 7월

백제의 동북 변방을 빼앗아 새로 주를 설치하고 아찬(阿湊) 무력(武力)으로 군주(軍主)를 삼았다.¹⁴²⁾

이 기사는 분명 신라가 백제의 고토인 한강 유역을 확보하였고 그 땅에 새로운 주(州)를 설치하였다고 증언하지만 그 경위에 대하여는 침묵한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신라가 그토록 쉽게 한강 유역을 영토로 확보할 수 있었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 단지 이 과정에서 전후의 사료를 검토하면 이 사건의 배후에 치밀한 외교전이 전개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먼저 다음의 자료를 검토해 보자.

141) 『三國史記』百濟本紀 聖王 31年

142) 『三國史記』新羅本紀 眞興王 14年

143) 『三國史記』高句麗本紀 陽原王 7年

144) 『三國史記』高句麗本紀 陽原王 10年

145) 『三國史記』百濟本紀 聖王 31年

夏五月 遣使入北齊朝貢

秋九月 突厥來圍新城不克 移攻白巖城 王遣將軍高紇領兵一萬拒克之 殺獲一千餘級 新羅來攻取十城

ㄱ) 양원왕(陽原王) 7년 여름 5월

백제(北齊)에 사신을 보내어 조공(朝貢)하였다.

가을 9월에 돌궐(突厥)이 신성(新城)에 와서 포위하였다가 이기지 못하고 다시 백암성(白巖城)을 침공하였다. 왕이 장군 고졸(高紇)을 보내어 군사 10,000을 거느리고 항전하여 그들을 이기고, 1,000여 명을 죽여 머리를 얻었다. 신라가 공격하여 와서 열 개의 성을 빼앗아 갔다.¹⁴³⁾

冬 攻百濟熊川城 不克

ㄴ) 양원왕(陽原王) 10년 겨울

백제의 웅천성(熊川城)을 쳤으나 이기지 못하였다.¹⁴⁴⁾

秋七月 新羅取東北鄙 置新州 冬十月 王女歸于新羅

ㄷ) 성왕 31년 가을 7월

신라가 동북 변경을 빼앗아 신주를 설치하였다.

겨울 10월에 왕의 딸이 신라에 시집을 갔다.¹⁴⁵⁾

위 기사들은 정황에 비추어 얼핏 이해가 되지 않는 사료들이다. 우선 ㄱ)은 왜 고구려가 백제군에 패하여 평양성이 함락되는 상황까지 갔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즉 고구려는 북방 유목 강국인 돌궐의 침공을 받아 백제군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아울러 한강 상, 중류 일대의 10여 성을 신라에 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알 수 있게 한다. 고구려는 남쪽의 전란보다는 북쪽의 전황이 더 급했던 것이다. 아울러 돌궐의 공격을 막고 있는 사이 남쪽에서 습격해 온 백제의 침공에 고구려는 상실된 영토 이상의 감정적 상처를 입게 되었던 것이다. 이 감정적 상처가 고구려로 하여금 신라에 접근하게 된 계기를 만들어 두 나라는 서로 외교적으로 접근하고 한강 유역을 백제에 주느니 차라리 신라에 주는 국가적 전략을 수립하게 하였다. 물론 이를 적시한 한국 측의 사료는 없다. 단지 정황에 따른 유추일 뿐이다. 이 유추를 가능하게 하는 또 다른 정황 증거가 바로 ㄴ) 자료이다.

사료는 ㄷ) 사건이 일어나기 1년 전에 한강 유역이 신라에 점령되고 신라는 여기에 신주를 설치하였다고 증언한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는 ㄷ)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고구려가 백제의 웅천성을 공격하기 위하여는 신라의 신주를 통과하여야 하고 당연히 신라와 먼저 충돌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료는 고구려와 신라의 충돌 없이 고구려군이 신라군이 점령하고 있는 한강 유역을 통과하여 백제의 웅천성을 공격하였다고 기록하였다. 즉 신라는 고구려군의 한강 유역

통과를 묵인하였거나, 방조하였다는 말이 된다. 바로 이 사실이 신라의 한강 유역 점유를 고구려가 인정하였다는 뚜렷한 정황 증거가 된다.

고구려가 신라의 한강 유역 점거를 방조하였다면 이는 분명 두 나라의 상호 밀약이 존재하였다는 말인데 이와 같은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또 다른 자료가 있다.

五月 戊申朔乙亥 百濟·加羅·安羅 遣中部德率木·今敦·河内部阿斯比多等 奏曰 高麗 與新羅 通和并勢 謀滅臣國與任那 故謹求講教兵 先攻不意 軍之多少 隨天皇勅

일본서기(日本書紀) 흘명기 13년 5월 무신삭 을해
백제(百濟)·가라(加羅)·안라(安羅)가 중부(中部) 덕솔(德率) 목협금돈(木脇今敦)·하내부아사비다(河内部阿斯比多) 등을 보내어 말하기를 “고(구)려(高麗)와 신라(新羅)가 서로 통호하고 세력을 합하여 저희 나라와 임나(任那)를 멸망케 하고자 꾀하고 있어, 삼가 구원병을 청합니다. 먼저 공격하고자 하지는 않사오나 보내주실 군대의 수는 귀국 임금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하였다.¹⁴⁶⁾

흠명천황 13년은 서기 552년으로 신라가 한강 유역을 점거하던 바로 그 전 해이다. 위 일본서기의 기사가 어느 정도 사실(史實)의 실재를 반영하고 있는지는 차치하고라도 위의 기사는 적어도 552년 5월 이전에 이미 백제는 신라와 고구려의 외교적 밀약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거기에 더 기사는 더더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싣고 있다.

신라가 백제를 배반하고 백제가 애써 점유한 한강 유역의 고토를 점령하였는데도, 백제는 신라에 왕녀를 시집 보내고 있는 것이다. 왜 백제는 이처럼 납득되지 않는 조치를 취한 것일까? 이 사건은 바로 전술한 것처럼 백제, 고구려, 신라 삼국 사이에 한강 유역을 둘러싼 치열한 외교전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로만 설명이 된다. 즉 고구려는 북방의 긴급한 정세 때문에, 백제는 고구려와 신라의 접근을 봉쇄하기 위하여 각각 신라를 상대로 한 한편 만들기 외교전을 전개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고구려는 한강 유역이라는 영토를 제공하고 있고, 백제는 전통적인 혼인동맹 유지에 매달려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결국 백제는 고토 회복을 위하여 다시 신라와 전투상태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백제의 고토 한강 유역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것은 신라였기 때문이었다. 이른바 관산성전투였다.

그러나 이 관산성전투는 백제의 총력을 다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실패로 돌아갔을 뿐 아니라, 백제의 중흥주 성왕의 전사라는 치명적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 전투의 실패를 치명적이라고 표현하는 까닭은 이후 백제의 한강 유역

147) 『三國史記』百濟本紀 聖王 32年

148) 『三國史記』新羅本紀 眞興王 15年

149) 『三國史記』新羅本紀 眞興王 16年

회복 노력은 다시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수도를 사비로 옮김으로써 한강 유역 회복을 실질적으로 포기하게 되기 때문이다.

秋七月 王欲襲新羅 親帥步騎五十 夜至狗川 新羅伏兵發與戰 爲亂兵所害薨 諡曰聖

성왕 32년 가을 7월

왕이 신라를 습격하려고 친히 보병, 기병 50명을 거느리고 밤에 구천에 이르렀더니 신라의 복병이 튀어나오므로 그들과 싸우다가 왕이 난병들에게 살해되었다. 시호를 성왕이라 하였다.¹⁴⁷⁾

秋七月 百濟王明禮與加良來攻管山城 軍主角干于德·伊瀨耽知等逆戰失利 新州軍主金武力以州兵赴之及交戰 裨將三年山郡高干都刀 急擊殺百濟王 於是 諸軍乘勝大克之 斬佐平 四人士卒二萬九千六百人 匹馬無反者

진흥왕 15년

백제왕 명농(明禮)이 가야(加良)와 함께 와서 관산성(管山城)을 쳤다. 군주(軍主)인 각간(角干) 우덕(于德)과 이찬(伊瀨) 탐지(耽知) 등이 이를 맞아 싸우다가 불리하여 신주(新州)의 군주 김무력(金武力)이 주병(州兵)을 데리고 달려와 교전하게 되면서 그의 비장(裨將)인 삼년산군(三年山郡) 고간도도(高干都刀)가 급격히 몰아쳐 백제왕을 죽였다. 이 때 모든 군사들이 승세를 타고 싸워 이를 크게 이기고 좌평(佐平) 4명과 장병 29,600명을 목베니 말 한 필도 살아 돌아가지 못했다.¹⁴⁸⁾

冬十月 王巡北漢山 拓定封疆

진흥왕 16년 겨울 10월

왕이 북한산을 순행하고 국경을 넓혀서 정하였다.¹⁴⁹⁾

한강 유역을 무대로 일어나 500년의 한성 시대를 누렸던 백제의 고도 회복의 꿈은 마침내 시세를 얻지 못하고 이렇게 좌절되어 버렸다. 그리고 한반도의 동남 구석에서 때를 기다려온 신라는 한강 유역을 얻어 마침내 소통일의 용지를 펼쳐나가게 되었다.

제4절 통일신라시대의 동두천

1. 신라의 삼국통일

1) 통일전쟁

(1) 통일전쟁의 추이

신라의 수도 경주에서 발견된 <광개토태왕명호우(廣開土太王銘壺杆)>의 존재나 중원 고구려비에 나타나는 것처럼 초기 신라는 고구려에 군사적·정치적으로 예속되어 있었다.

신라가 고구려와의 우호 관계를 단절하게 된 것은 고구려의 남진이 본격화한 이후, 백제와 혼인동맹을 체결하여 공동 대응 체제를 갖추면서부터였다. 그러나 이 동맹은 한강 유역을 수복하는 과정에서 파탄나고 특히 성왕이 전사하고 난 이후에는 백제의 집중적인 침공을 받으며 외교적·군사적으로 고립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결국 신라는 당과의 동맹을 추진하였고, 고구려 침공에 실패한 후 한반도 내부의 호응 세력을 모색하던 당과 동맹을 체결하는데 성공한다.

백제 멸망 과정에 나타난 당과 신라의 군사협력 체제는 상당히 효율적이었다. 해상을 통하여 한반도의 서해안에 상륙하여 직접 수도 사비성을 공격하는 당군과 육로로 백제의 후면을 공략하는 신라를 앞뒤에서 맞이하게 된 백제는 군사력을 분산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결국 급격한 전선의 붕괴와 국도의 함락이라는 최악의 사태로 종결되고 말았다.

고구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중원 제국과 고구려와의 전쟁은 언제나 중원제국 측의 실패로 귀결되었었다. 큰 강과 높은 산, 그리고 튼튼히 축성된 산성으로 연접한 각종 험로를 하나씩 극복하며 전진하는 과정에서 중원제국은

보급과 병참의 고갈이라는 근본적인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신라가 전선의 후면에서 고구려를 군사적으로 견제하는 한편 막대한 군량을 보급함으로써 기존의 문제점이 한꺼번에 해결된 것이었다.

660년의 백제 멸망과 668년의 고구려 멸망은 이처럼 당과 신라의 유기적인 동맹 운영으로 얻어낸 결과였다. 그러나 문제는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당면한 동맹의 목표가 달성된 다음에 나타났다. 멸망한 백제와 고구려의 영토를 놓고 동맹 당사자인 당과 신라는 각각 다른 속셈을 드러냈다.

당이 백제의 고토에 웅진도독부(熊津都督府)를 설치하고, 고구려의 옛 땅에 안동도호부(安東都護府)를 설치하여 이를 당의 직할체제로 만든데 이어, 신라에조차 계림도독부(鷄林都督府)를 설치하여 한반도 전체를 자신의 영토에 편입하려는 야욕을 드러내자 신라는 곧장 당과의 동맹을 단절하고 전투태세에 돌입하였다. 이른바 나당전쟁(羅唐戰爭), 즉 신라통일전쟁의 시작이었다.

당나라가 먼저 백제를 구원한다는 구실로 대규모 병력을 백제 땅에 증파하자, 신라 장군 죽지는 석성 방면에서 당군과 싸워 대승을 거두었다. 이때 당은 전사자가 5,300명에 장군 6명이 포로로 잡히는 대패를 당하였다.

이에 당나라는 말갈병 4만을 동원하여 평양성을 점령한 후, 신라가 차지하였던 대방에 침범하여 점령하자, 신라도 당의 조운선 70여 척을 공격하여 괴멸시키는 전과를 올렸다.

다음 해 문무왕 12년에는 백제 방면에 주둔하고 있던 당군을 공격하였지만 뚜렷한 전과를 거두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그 사이 당은 고보가 이끄는 1만 명, 이근행이 이끄는 3만 명 등 총 4만의 병력을 동원하여 평양성을 재점령하고, 신라와 500보의 거리를 두고 대치하였다.

이처럼 일진일퇴의 상황에서 문무왕은 조공을 통한 외교로 평화적인 해결을 모색하게 되고 이에 따라 약 3년간의 휴지기를 맞게 된다. 그동안 신라는 군량을 축적하고 군사를 늘일 수 있었다. 신라가 계속 군비를 강화하자, 당은 다시 신라를 군사적으로 압박하려 하였다.

서기 674년, 문무왕 15년 당은 설인귀를 총관으로 삼아 거란과 말갈 병력을 동원하여 신라의 북방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신라는 이 전투에서 다시 승리하여 적병 1,400명을 죽이고 병선 40척을 빼앗았으며, 말 1,000필을 노획하였다.

(2) 매초성전투의 대승

당은 주력병을 동원하여 신라를 치기로 하고 한강 어귀의 교두보에 20만 명의 대군을 상륙시켰다. 당군은 감악산을 넘어 양주 지역에 진입하지만 신라는 당의 근거성인 매초성을 공격하여 전마(戰馬)만 무려 3만 380필을 얻는 전과를 얻었다. 이 기록으로 추산하면 당시 당군의 전사자 수는 최소 5만에서 10만에 이르는 대승리였고 실질적으로 나당 통일전쟁을 종결하는 전투였다.

매초성은 현재 연천 한탄강 남안의 대전리산성으로 추정된다. 북방에서 한강 유역으로 진출하는 세력은 한강 어귀인 관미성, 즉 파주 오두산성에 상륙하여 교두보를 확보하고 호로나루를 도하하여 파주의 칠중성을 거쳐 감악산 고개를 넘고 양주 지역으로 진출하거나, 관미성에서 임진강을 따라 동진하여 한탄나루에서 강을 도하한 후 동두천, 덕계리, 양주 지역으로 진출하여 의정부 분지를 거쳐 한강 광나루 방향으로 가는 것이 기본적인 군사전략이었다.

당군 역시 이 통로를 따라 군사를 양분하되 주역은 감악산 설마치고개를 넘어 양주 방향으로 나가고 지대는 동진하여 한탄나루에서 동두천 방향으로 진출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설마치고개의 지명이 당장 설인귀와 연관하려 설명되고 있는 것과 매초성을 대전리산성에 비정하는 이유가 모두 이와 같은 전통적인 작전로와 관계되어 있다.

매초성전투를 이해할 때 먼저 전제하여야 할 사실은 이 전투가 농성전이나 공성전이 아닌 평야전이었다는 사실이다. 즉 신라군은 한탄강 방향으로 진출하여 매초성을 근거로 삼은 당군을 양주 지역을 거쳐 북상하면서 양주, 덕계리, 동두천 일대에서 기병, 보병전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매초성전투의 전과를 전마 3만필 노획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 단적인 증거이다.

당의 고종이 명령을 내려 이근행을 안동진무대사로 삼고 신라 영토의 매초성에 주둔하여 그 땅을 경영하게 하였다.
(唐高宗下詔任命 李謹行爲安東鎮撫大使 屯兵新羅的買肖城以經營該地之)¹⁾

아울러 매초성전투는 1회에 그치는 농성전이 아니었으므로 일진 일퇴의 기복이 있었고, 이에 따라 어느 전투에 중점을 두어 기록하느냐 하는 것은 전투의 양상을 기록한 자료의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측의 자료인 『삼국사기』는

1) 『삼국통감』

매초성전투를 신라의 대승으로 기록했지만 당의 기록은 자신들의 승전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이근행이 매초성을 경영하여 세 번 싸워 모두 크게 이겼다.
(李謹行肖城以經略之 三戰皆捷...)

여기에서 이근행이 이겼다고 하는 세 번의 전투는 칠중성(七重城)전투, 적목성(赤木城)전투, 석현성(石峴城)전투를 말하는 것으로 이들 전투에서의 패배는 우리 측 자료인 『삼국사기』에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전투들은 매초성전투를 구성하는 한 부분들이며 이들 전투에서의 승리가 매초성전투 전체의 승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당 측이 아무리 매초성전투의 결과를 편파적으로 해석하여 왜곡한다 하여도 중요한 것은 매초성전투의 전체적인 결과이다. 즉, 이 전투와 이어지는 기벌포해전에서의 패배는 당이 한반도에서 손을 떼고 만주로 철수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당이 승리하였다면 나타날 수 없는 결과이며 신라의 삼국통일이 실질적으로 완성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그림 2-8-1〉 통일신라의 행정구역

2. 통일 후 국가의 정비

1) 지방제도의 확립

(1) 9주 5소경

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이후 삼국의 영토를 다시 정비하여 9주 5소경으로 재편하였다.

이는 새로이 편입된 고구려의 백제의 고토, 그리고 신라의 구강(舊疆)에 모두 각각 3개의 주(州)를 설치하고 아울러 각국의 고토에 각각 2개의 경(京)을 설치한 것으로 이로써 통일 이후 3국은 모두 1가(家)를 이루어 평등한 가족이 되었음을 내외에 공포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표 2-8-2〉 9주 5소경

주명	소경(小京)	군(郡)	현(縣)	고토(故土)
한주(漢州)	중원(中原:충주)	27	46	고구려
삭주(朔州)	북원(北原:원주)	11	27	
명주(溟州)		9	25	
웅주(熊州)	서원(西原:청주)	13	29	백제
전주(全州)	남원(南原:남원)	10	31	
무주(武州)		14	44	
상주(尙州)		10	30	신라
강주(康州)		11	27	
양주(良州)	금관(金官:김해)	12	34	
계		117	293	

한편 각 주마다 1개의 지방군을 배치하였는데 이를 정(停)이라 하였고 단, 넓은 관할과 한강 유역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한주에는 2개의 정을 두어 정은 모두 10개가 되었다.

〈표 2-8-3〉 9주 10정

주명	정(停)	고토(故土)
한주(漢州)	남천정(南川停)	고구려
	골내근정(骨乃斤停)	
	벌력천정(伐力川停)	
명주(溟州)	이화혜정(伊火兮停)	백제
웅주(熊州)	고량부리정(古良夫里停)	
전주(全州)	거시물정(居斯勿停)	
무주(武州)	미다부리정(未多夫里停)	신라
상주(尙州)	음리화정(音里火停)	
강주(康州)	소삼정(召參停)	
양주(良州)	삼랑화정(參良火停)	
계	10	

이 군제(軍制)는 9주에 둔 것으로 보아 9주 5소경제도가 확립된 685년(신문왕 5) 전후에 설치된 것 같으나, 『삼국사기』 「직관지(職官志)」에는 그보다 140년

전인 544년(진흥왕 5)에 모두 설치 완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10정은 8주에 1정씩 두고, 2정은 한주(漢州)에 두었는데, 이는 한주의 지역이 넓은 데도 있지만 국방상 가장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停)에는 대대감영기병(隊大監領騎兵:나마~아찬) 각 1명, 소감영기병(小監領騎兵:대사~기하) 각 2명, 대척영기병(大尺領騎兵:대사~기하) 각 2명, 삼천당주(三千幢主:사지~사찬) 각 6명, 삼천감(三千監:사지~대나마) 각 6명 등 군관을 두어 군졸을 통솔하였다.

이러한 군관조직이 갖는 특징으로는 군관들이 대체로 기병 중심으로 편성되었다는 점과 삼국시대 정(停)의 군관조직에 비하여 격이 한 단계 낮아졌다는 것 등이 지적될 수 있다.

3. 통일신라 시기의 동두천

1) 동두천 지역의 행정편제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통치하면서 동두천 지역에 설치한 행정 지명은 내을매현(內乙買縣)이었다. 접미에 포함된 매(買)는 우리 고대어로 '물'을 뜻하므로 '내을매'는 '~강(江)', 또는 '~천(川)'을 의미하여 결국 현재의 지명처럼 시내를 관통하는 물을 내포한 '동두천'과 같은 계통의 지명임을 알 수 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한주(漢州)에 편제된 동두천은 경덕왕 때에 이르러 '사천(沙川)'이라는 한자식 지명으로 개명되는데, 사천은 '모래내'의 한역(漢譯)이므로 결국 우리는 '내을매'가 고대 우리말로 '모래내'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된다.

자료는 경덕왕(景德王)이 새로이 영토로 편입된 내을매현(內乙買縣)을 사천현(沙川縣)으로 개명하여 포천의 속현으로 하고 한산주의 관할 아래 두었다고 하였다.

당시 한산주의 주치(州治)는 지금의 경기도 광주(廣州), 즉 한강 이남에 있었고, 한주에 두었던 두 개의 부대, 남천정(南川停)과 골내근정(骨乃斤停)은 각각 이천과 여주 지역에 주둔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점은 상당히 많은 사실을 시사한다. 즉 통일신라는 한수 이북 지역을 확고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마도 한강을 심리적인 북쪽 국경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하는 추측도 가능해진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던 당시, 즉 685년(신문왕 5)의 신라 군현은 모두 105군(郡), 281현(縣)으로 이를 평균하면 1개 군(郡) 당 3개 정도의 현이 배속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748년, 통일이 이루어진 지 50여 년 후인 경덕왕 7년에 예성강 이북에 14개 군현이 설치되어 106군, 298현으로 다시 755년에 117군, 293현으로 808년(애장왕 9)에 이르면 115군, 286현으로 정리되었다가 헌덕왕 대인 815년에 이르러 한수 이북의 1군 3현을 새로이 편입하여 120군, 298현으로 정비된다.

이는 비록 신라의 지방조직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한수 이북 지역은 중앙 정부의 절대적인 통제 아래 편입되기보다는 여전히 지방 호족의 세력으로 남아 있었음을 시사한다.

더군다나 사천현은 포천의 영현, 즉 속현으로 이는 사천현 지역에 중앙으로부터 지방관이 직접 파견된 것이 아니라 사천현 스스로 자치하면서 단지 지방관이 파견된 포천현의 형식적인 통제만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통일신라 후 기까지 동두천 지역은 자치지역으로 남아있었을 가능성이 주목된다.

2) 김헌창, 김범문의 난

통일신라의 하대에 이르기까지 동두천을 포함한 한수 이북 지역이 여전히 강력한 지방 호족 세력의 세력권으로 남아있었다는 유력한 방증이 바로 김범문의 난이다. 김범문(金梵文)은 김헌창(金憲昌)의 아들로 부자 모두가 신라 중앙정부에 반란을 일으킨 인물들이다.

김헌창의 반란은 그 아버지 김주원(金朱元)이 왕위 계승에 실패하면서 시작되었다. 김주원은 태종 무열왕의 6세손으로 유력한 왕위 계승자였다. 그러나 선덕왕이 그에게 왕위를 계승하려 하자 내물계인 김경신(金慶信)이 선덕왕을 죽이고 원성왕에 즉위하면서 그는 왕위 계승권에서 밀려나 북쪽 변방 실직주로 추방되고 말았다. 무열계와 내물계의 왕권 다툼에서 무열계가 패하는 순간이었다. 공주 일대를 근거로 일어난 아들 김헌창의 반란은 무열계 왕통을 회복하려는 시도가 군사적으로 구체화된 사건이었으나 결국 실패하고 만다.²⁾

김범문은 김헌창의 아들로서 그 역시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는 무열계의

2) 熊川州의都督金憲昌이 그의부 周元이 왕이 될 수 없음을 이유로 반발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국호를 長安이라 하고 건원하여 慶雲 원년이라고 하였다. 武珍, 完山, 黃, 沙伐의 4주 都督과 國原, 西原, 金官의 仕臣 및 여러 군현의 수령을 위협하여 자기의 소속으로 만들었다. (중략) 한창은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스스로 죽었다. …宗族 黨與를 주륙하였는데 무릇 239 명이었다. 그 백성들은 풀어주었다. (『三國史記』 10, 신라본기 10, 헌덕왕 14년 3월).

3) 동상 10, 신라본기 10,
현덕왕 17년 1월

마지막 반격이었으나 이 역시 실패함으로써 이후 무열계는 역사의 흐름에서 제외되고 만다.

헌창의 아들 梵文이 高達山の賊 壽神 등 100여 인과 더불어 함께 반란을 모의하고 평양(楊州)에 도읍을 세우고자 하여 北漢山州를 공격하였다. 都督 聰明이 병사를 이끌고 그를 체포하여 살해하였다.³⁾

김범일의 반란에서 주목되는 것은 그의 반란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세력이 고달산(高達山)의 수신(壽神)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김범문이 평양에 도읍하고자 북한산(北漢山)을 쳤다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북한산은 현재의 북한산, 즉 서울, 의정부 일대임이 틀림이 없다. 그런데 북한산을 친 목적이 바로 평양에 도읍하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만약 이 평양이 현재의 북한 평안도 지역의 평양(平壤)이라면 그가 북한산을 공격하였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평양(平壤)은 바로 3국 통일 이전에 남평양(南平壤)이라 불리던 지금의 양주 일대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김범문이 경기도 여주 지역인 고달산의 호족 세력을 통솔하고 한강을 건너 북한산을 공격하고 양주 일대를 도읍으로 하여 신라에 대응하는 국가를 세우려 했다는 것은 여전히 양주, 동두천 일대가 반독립적인 지방 호족들에 의하여 자치 형태로 존속되었을 것이라는 강력한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이후 혼란 시기를 겪으며 동두천 일대의 호족 세력은 더욱 자치권을 강화해 나간다.

4. 통일신라의 붕괴

1) 통일 신라의 정치적 사회적 동요

(1) 정치적 동요

통일신라가 동요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골품(骨品)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골품(骨品)이란 지배 계층을 그 출신 성분에 따라 구분하고 이에 따라 왕위 계승은 물론 관리의 승진과 등용의 한계를 정하여 시행하는 제도로서 이는 신라의 건국기부터 각 지방의 왕족, 귀족을 지배층으로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온 대대의 전통이었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신라 사회를 경직시키는 한편, 특히 6두품 계급을 위시한 통일 주도 세력의 사회 지도층 진입을 철저히 제한하는 장치로 변전되어 오히려 통일 이후 신라의 사회적 정치적 갈등을 조장하는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결국 6두품은 골품적 한계에 반발하여 당시 신라의 주류 이데올로기인 왕실불교에 반하는 새로운 사상 즉, 유교와 선종불교의 도입에 앞장서게 되고 특히 각 지방의 분권을 주도함으로써 결국 신라 사회를 해체하는 선도 계층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신라의 왕실이 내물계와 무열계로 나뉘어 치열한 왕권 다툼을 벌이며 분열하게 되자 6두품을 위시한 각 지방의 세력들은 중앙정부의 허약해진 지방 통제력을 틈타 각자의 입지를 이용하여 독립적인 지방 세력을 형성해나가게 된다.

이들 지방세력의 성장은 결국 조세의 납부와 인력 차출을 거부하여 점차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약화시켰고, 이는 다시 지방 세력의 발호로 확대되어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결국 신라 사회의 해체를 촉진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4) 《三國史記》卷11 新羅本紀 眞聖王 3年조

(진성여왕) 3년에 국내 여러 주군(州郡)에서 공세(貢賦)를 바치지 아니하여 국고(國庫)가 텅 비고 용도(用度)가 궁핍하므로, 왕이 사자를 보내어 이를 독촉하니 이로 인하여 도처(到處)에서 도적이 벌떼와 같이 일어났다. 이 때 원종(元宗)·애노(哀奴) 등은 사벌주(沙伐州)에 의거(依據)하여 반기(叛旗)를 들었다. 왕이 나마(奈麻) 영기(令奇)로 하여금 이를 포축(捕捉)케 하였는데, 영기(令奇)는 적루(賊壘)를 바라보고 두려워 진공(進攻)치 못하고, 촌주(村主) 우련(祐連)이 애써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왕은 영(令)을 내려 영기(令奇)를 참(斬)하고 나이 10여 세 된 우련(祐連)의 아들로 촌주(村主)를 승습(承襲)케 하였다.⁴⁾

동두천 지역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통일신라의 전성기에조차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토착 지방세력의 세력권인데다 당시 신라의 영토의 최북단에 위치하여 중앙의 통치권력이 미치지 어려운 입지적 조건까지 갖추었다는 점에서 통일신라의 해체가 일어나는 진성여왕 대에는 반 중앙세력의 일단이었을 것을 쉽게 추정할 수 있게 된다.

(2) 지방 호족 세력의 대두

각 지방의 지방 세력을 유형별로 구분하는 데에는 많은 견해와 이론(異論)이 있지만, 이들의 정체를 이해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이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도시(圖示)할 수 있다.

〈표 2-8-4〉 통일신라 말 대표적 지방호족 세력

구분	대표적 지방호족 세력	내용
지방 지주	김순식(金順式), 왕봉규(王奉規), 기훤(箕萱), 양길(梁吉)	지방 촌주
군진 (軍陣)	견훤(甄萱)	지방 주둔 군 사령관
초적 사원	적고적(赤袴賊), 원종(元宗), 애노(哀奴), 궁예(弓裔)	민중봉기세력
해상	왕건(王建), 장보고(張保臯), 유천궁(柳天弓), 오다련(吳多隣)	상업세력

이들은 위에 도시한 것처럼 나름대로의 세력 기반을 활용하여 지방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중앙 정부에 대항하여 조세와 공납을 거부하는 한편, 지방민을 징모하여 각각의 군사력을 확보하고 각각 성주(城主), 장군(將軍) 등의 명칭을 사용하며 그 세력을 확대해나가고 있었다. 대표적인 군진 세력인 견훤(甄萱)에 대한 자료를 통하여 지방 세력의 성장과 성격을 이해해 보자.

견훤(甄萱)은 은근히 반심(叛心)을 품고 무리를 모아 서울 서남(西南)쪽의 주현(州縣)들을 진격(進擊)하니, 가는 곳마다 호응(呼應)하여 그 무리가 달포 사이에 5,000여 명에 달하였다. 드디어 무진주(武珍州)를 습격하여 스스로 왕이 되었지만 감히 공공연히 왕(王)을 일컫지 않고 자서(自署)하여 '신라서남도통지휘병마제치지절도독전공무등주군사행전주자시겸어사중승상주국한남군개국공식읍이천호(新羅西面都統指揮兵馬制置持節都督全武公等州軍事行全州刺史兼御史中丞上柱國漢南郡開國公食邑二千戶)'라고 하였다.

이때 북원의 도적 양길(良吉)이 강성하자 궁예가 스스로 투항하여 그 휘하가 되었는데 견훤이 그 말을 듣고 멀리 양길에게 관직을 주어 비장(裨將)으로 하였다. 환(萱)이 서쪽으로 순행(巡行)하여 완산주(完山州)에 이르니 주민(州民)들이 맞이하여 환영하였다.

환(萱)이 인심(人心)을 얻은 것을 기뻐하여 좌우(左右)에게 이르기를 "내가 삼국(三國)의 기원(起源)을 상고해 보면, 마한(馬韓)이 먼저 일어나고 후에 혁거세(赫居世)가 발흥(勃興)하였으므로 진한(辰韓)·변한(卞韓)이 따라 일어났다. 이에 백제(百濟)는 금마산(金馬山)에서 개국(開國)하여 600여 년이 지났는데, 총장(總章) 연간(年間)에 당고종(唐高宗)이 신라(新羅)의 청원(請願)을 받아들여 장군(將軍) 소정방(蘇定方)을 보내어 선병(船兵) 13만 명으로써 바다를 건너게 하고, 신라의 김유신(金庾信)도 황산(黃山)을 거쳐 사비(泗水)에 이르기까지 휩쓸어 당군(唐軍)과 합세(合勢)하고 백제를 공격하였다. 지금 내가 도읍(都邑)을 완산(完山)에 정하였으니, 어찌 감히 의자왕(義慈王)의 원한을 씻지 아니하라" 하고, 드디어 후백제왕(後百濟王)이라 자칭(自稱)하였다. 관부(官府)를 설치하여 직책(職責)을 나누니, 이것이 당(唐)의 광화(光化) 3년이며, 신라 효공왕(孝恭王) 4년이었다.⁵⁾

5. 궁예 세력과 고려의 건국

1) 궁예 세력의 대두

태몽을 건국한 궁예는 원래 신라의 왕실 출신이었다. 47대 헌안왕(憲安王) 또는 48대 경문왕(景文王)의 아들이라고 하나, 대략 경문왕의 서자로 추정된다. 헌안왕은 아들이 없었고 경문왕에게는 두 명의 왕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나면서부터 이빨이 있었고 태어나는 날 지붕위에 상서롭지 못한 광채가 있었다 한다. 이에 조정에서는 그를 죽이려 하였으나 계집종이 구출하여 도망가 살았다. 나이 10여 세가 되어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궁예는 길러준 어머니의 곁을 떠나 세달사로 들어갔다. 세달사는 고려시대에 홍교사로 불렸는데 영월 지역에 있었다.

세달사에서 승려생활을 하던 궁예는 진성여왕 대의 혼란기에 뜻을 품고 환속하였다. 죽주의 기훤에게 의탁했던 그는 다시 북원(원주)의 양길 휘하에 들어갔다.

- 6) 『三國史記』卷50 弓裔傳
- 7) 『三國史記』卷50 列傳 10
- 8) 《高麗史》卷1 世家1 太祖6年 春3 月 辛丑
- 9) 《高麗史》卷1 世家1 太祖8年 春3 月 甲寅

그 후 정복길에 나서서 원주, 강릉을 거쳐 철원까지 장악하였다. 그리고 양길을 격파한 후 896년 태봉을 건국하였다. 그러자 왕건 부자가 귀순해 왔고 송악에 도읍을 정하게 되었다. 이후 왕건의 활약에 의해 양주(楊州), 광주(廣州), 충주(忠州), 청주(淸州) 등지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로써 경기도, 강원도, 황해도 일대는 물론 충청도 북부에 이르는 영토를 확보하게 되었다.

천복(天復) 원년(元年) 신유(辛酉)에 선종(善宗)이 왕(王)을 자칭(自稱)하고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옛날에 신라가 당(唐)에 청병(請兵)하여 고구려를 멸하였기 때문에 평양(平壤) 옛 서울이 황폐(荒廢)하여 풀만 무성하니 내가 반드시 그 원수를 갚으리라” 하였다. 대개 그가 출생(出生)해서 나라의 버림을 받은 것을 원망하였던 까닭에 이런 말을 한 것이다.⁶⁾

궁예는 처음 양길의 휘하였다가 그의 지시로 군대를 끌고 북상하여 영서 일대를 차지하고 다시 영동에 진출하여 강릉 지역의 토호 김순식을 제압한 후 이를 계기로 양길에게서 독립하게 된다. 이후 한강을 따라 남하하여 예성강 일대의 토호 작제건과 그의 아들 왕건 세력을 통합한 후 송악을 근거로 후고구려를 건국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동두천 일대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궁예세력에 포함되고 궁예가 북진정책을 구체화하며 철원으로 근거지를 옮긴 후에는 왕건세력의 일부로 남게 된다.

弓裔 光化元年 春二月

궁예(弓裔)가 우리 태조(太祖)(왕건)를 정기대감(精騎大監)으로 삼아 양주(楊州)와 견주(見州)를 쳤다.⁷⁾

『삼국사기』의 위 기사는 양주와 견주가 왕건의 공격을 받아 궁예의 휘하에 편입되었음을 확인한다. 아울러 자료는 송악으로부터 임진강을 건너 양주, 동두천 일대로 확대된 궁예의 영토가 북상, 동진하며 확대되는 과정을 보여주게 된다.

명지성장군(命旨城將軍) 성달(成達)이 그의 아우 이달(伊達), 단림(端林)과 함께 귀순하여 왔다.⁸⁾

매조성장군(買曹城將軍) 능현(能玄)이 사절을 보내와 항복하기를 청하였다.⁹⁾

위의 두 성 즉, 명지성(命旨城), 매조성(買曹城)을 각각 포천 북부의 명지산과 한탄강 남안의 대전리산성에 비정할 때 이는 양주, 즉 한양과 전주 즉 양주, 동두천을 장악한 궁예 세력의 동, 북으로의 확장을 의미한다고 보아 틀림이 없다. 이처럼 동두천은 이와 같은 한탄강 일대에서의 궁예 세력 확장에 최전선에 위치하고 있었다.

2) 궁예 세력의 몰락

궁예는 건국 초기에 자신의 군사와 고락을 같이하며 군심을 장악하고 중앙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난 지방 호족들의 횡포로부터 민초들을 구출하는 한편 적극적인 호족 회유, 포섭정책으로 단기간에 신라의 영토 3분의 2를 장악하며 삼한 통일의 대업을 완성하는 듯 하였다.

그러나 그는 단기간에 다시 몰락하여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다.

하나는 궁예가 불교국가, 그것도 미륵불교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사상적 이데올로기로 채택하였다는 사실이다.

신라를 비롯한 삼국의 불교는 국민이 신앙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국왕이 신앙을 선택하는, 이른바 왕실불교였고, 그 이유는 철저히 정치적이었다. 즉 왕권을 강화할 필요로 불교를 전 국민의 신앙으로 채택한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신라 말기의 6두품 계층이 신라의 진골 정권에 대항하면서 기존의 왕실불교와는 다른 선종불교를 도입하고 전파한 이유이다.

즉, “왕즉불(王即佛)”이 아닌 “인즉불(人即佛)”, “성즉불(性即佛)”을 신앙의 그 궁극적 목표로 하여 진골 정권의 왕권에 대항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궁예는 자신이 바로 난세를 구원할 “미륵불의 강탄”이라고 주장하며 특히 관심법(觀心法) 등 초월적 능력을 통하여 왕권 강화에 불교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자 했다. 이는 이미 민중의 가슴에 깊이 인각된 선종불교를 버리고 이전의 왕실, 호국불교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시대의 조류를 거스르는 역류였기에 당연히 거센 비판과 저항이 따랐다. 그는 자신에게 저항하는 반대파를 숙청하는데 그치지 않고 고위급 승려와 대신은 물론 나아가 자신의 아들과 왕비조차 잔인하게 처형하는 극단적인 종교 원리주의로 일관함으로써

10) 『삼국사기』신라본기경덕왕2년

11) 동사강목 제5하

무안년 경명왕(景明王) 2년 진원 27
 년 궁예 18년 ○ 고려(高麗) 태조(太祖)
 신성왕(神聖王) 왕건(王建) 원년
 ○ 이해에 궁예가 망하였다(후량
 말제 정명 4, 가란 태조 신책 3, 98)

결국 극심한 민심 이반을 초래하게 된다.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전선을 왕건에게 일임하여 왕건 세력의 성장을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후고구려 건국 초기에 궁예는 스스로 전투의 일선 지휘관으로 전투의 최일선에서 병사들과 고락을 같이하였으나 건국 이후에는 중요 전선을 거의 부장(部將)들에게 위임하고 자신은 지휘에 임하지 않았다. 특히 왕건은 육군 뿐 아니라 수군의 지휘권도 장악하여 후일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건국하는 인적 기반을 형성하게 된다. 궁예는 왕건을 견제하기 위하여 본래 왕건의 세력 기반이었던 송악을 버리고 철원으로 천도하면서 충주 세력을 중용하여 이를 통한 왕건 세력 견제를 획책하였으나 이는 지금까지 건국과 영토 확장 과정에서 가장 공이 큰 자신의 심복 세력 왕건을 적으로 돌리고 마침내는 왕건 군벌에게 자신이 타도되는 비극적 사태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그해(918) 6월 을묘에 기병장군 홍유·배현경·신송겸·복지겸 등이 비밀리에 짜고 밤중에 태조의 저택으로 가서 그를 왕으로 추대할 뜻을 함께 말했다. ...궁예는 산골로 도망쳤으나 이틀 밤을 지낸 뒤에 배가 몹시 고파서 보리이삭을 몰래 잘라 먹었다. 그 뒤 곧 부양(평양)의 백성에게 살해당했다.¹⁰⁾

궁예는 암곡(巖谷) 사이로 도망쳐 숨었으나 주림이 심하여 보리 이삭을 잘라 먹다가, 얼마 안 되어 부양(斧壤) 백성에게 살해당하였으니, 예가 군사를 일으킨 지 28년 만에 망하였다.

최씨는 이렇게 적었다. “궁예는 신라의 유열(遺孽)로서 중국(宗國)에서 버림 받고 치류(繼流 승려)에 몸을 의탁하였다가, 뭇 도적 가운데서 우뚝 일어나 흑양(黑壤, 철원을 말함)을 몰래 점거하고 나라를 세우고 연호를 일컬어 문득 삼한의 3분의 2를 차지하였었다. 그러나, 성품이 본래 흉악하여 사람 죽이기를 끝없이 좋아하여 처자를 해치고 공경들을 도륙하니, 생령(生靈)이 모두 어육(魚肉)이 되었었다. 하늘이 그 악덕을 싫어하여 고려에 손을 빌려주매 도망치다 죽었다. 아 아, 제 스스로 얻었다가 제 스스로 잃었으니, 누구를 허물하라?”¹¹⁾

3) 왕건과 동두천

왕건(王建)은 본래 그 할아버지 작제건(作帝建) 이래 송악의 호족으로 예성강 포구를 근거로 해외 무역을 통하여 크게 세력을 넓힌 해상 세력이었고 신라 서북 변경의 여러 군진 출신 호족들이 패서 세력의 맹주이기도 하였다.

그의 아버지 왕룡[王隆, 본명은 용건(龍建)]이 서진해온 궁예에게 항복한 이후 왕건은 그의 부장이 되어 태봉(泰封)의 영역을 남으로 크게 확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수상(首相)인 시중에 오르고 마침내 부장(副將)들의 추대를 받아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高麗)를 건국하여 태조(太祖)가 되었다.

그는 일찍이 궁예의 부장 시절에 정기대감(精騎大監)이 되어 양주(楊州)와 견주(見州)를 정복하여 영토로 영입한 바 있었다. 즉 서울과 의정부, 양주, 동두천 일대가 모두 왕건의 공으로 궁예에게 예속된 것이다. 고려는 송악에 도읍하였고 수도 송악으로 진, 출입하려면 송악의 바로 남쪽을 흐르는 임진강을 도하하여야 했으므로 임진강의 도하점인 임진나루가 수도 진입의 길목으로 크게 각광을 받게 된다. 양주는 장단로를 통하여 이 임진나루로 접근하는 주요 교통로였고, 동두천 역시 삼방로 상에 위치한 임진강 도하점이었으므로 이후 양주 지역은 고려의 근기(近畿)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제5절 고려시대의 동두천

1. 궁예세력의 대두

1) 골품제도의 모순과 호족 세력의 대두

골품은 신라 고유의 신분제도로써 건국 초기, 여러 세력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었는데, 왕족을 대상으로 하는 '골(骨)'과 귀족 및 평민을 대상으로 하는 '품(品)'으로 구분된다. 골(骨)은 다시 왕위 계승권을 가진 성골(聖骨)과 방계 왕족인 진골(眞骨)로 나누지만 진덕여왕(眞德女王)을 끝으로 성골(聖骨)은 계급 자체가 소멸된다. 이후 가야계통의 김유신(金庾信) 세력이 김춘추(金春秋)와 연합하여 진골(眞骨)의 왕위 계승을 공식화하는데 이는 지금까지 왕위를 계승해 온 내물왕(奈勿王)계의 왕통을 대신하여 새로이 무열(武烈)계가 왕권을 확립한 것을 의미한다. 삼국을 통일하고 하대(下代)에 접어들면서 내물계와 무열계는 치열한 왕권 다툼을 벌여 결국 신라의 붕괴를 초래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품(品)은 귀족 계층의 6두품, 5두품, 4두품과 평민층인 3두품, 2두품, 그리고 천민인 1두품으로 구별되고 신분과 그에 따른 사회적 권리 및 의무는 세습된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골품제도는 각양의 세력을 통합하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예컨대 사로부족의 통합은 물론 가야 유민이나 진한 세력, 나아가서는 중국 계통의 유이민과 일부 한반도의 왜 등을 규합하는 기축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특히 삼국통일을 전후한 시기에 신라에 합류한 다양한 세력들을 6두품 등 지배층에 편입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통일 후에도 골품제도를 고집함으로써 골품제도가 가지는 폐쇄적인 기능이 극대화했고 이는 유능한 인재들을 신분적 한계로 제약하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골품제도의 폐쇄적인 역기능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 및 시취에 의한 인재 등용, 즉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나 국학(國學) 같은 대체 제도를 모색해보기도 하였으나¹⁾ 이는 곧 기존 권력층에 의하여 거부되고 이후 골품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신흥 세력의 불만이 높아지게 된다.

특히 6두품 계층의 불만이 시간을 거듭할수록 높아지면서 기존의 사회질서와 신분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불만을 표시하며 동시에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하는데, 이와 같은 모색은 바로 기존의 이데올로기인 불교에 대한 재검토로 나타나게 된다. 즉 중국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유학(儒學)과 선종(禪宗)을 수용 하는 새로운 사상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다.

유학은 6두품 중에서 당에 유학한 건당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수용되었다. 이들은 10년간을 수학 연한으로 당의 국학에 입학하여 공부하였는데 이들 중 유능한 석학이 많이 배출되었다. 당의 빈공과(賓貢科)²⁾에 합격한 자가 58명이고, 오대(五代)의 후당(後唐)·후량(後梁) 때에도 32명이 합격하였다. 그 중에서 문명을 떨친 석학으로 최치원(崔致遠)·박인범(朴仁範)·김악(金渥)·최승우(崔承祐)·최신지(崔愼之) 등이 배출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습득한 학문적 소양을 본국 신라에서 마음대로 펼치고 아울러 권력과 부를 누리는 신분의 상승을 꿈꾸며 귀국하였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여전히 견고한 골품제도, 즉 신분의 굴레였다. 그들은 바로 신라의 기존 질서를 해체하는 작업에 돌입한다.

또 다른 사상적 제도적 변화의 시도는 선종(禪宗) 불교의 수용이었다. 선종은 왕권 강화 및 사회 통합을 목적으로 도입된 기존의 불교, 즉 왕실불교, 호국불교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었다. 왕실불교에서는 왕즉불(王則佛), 즉 '왕은 곧 부처이다'라는 명제를 기초로 하지만 선종불교는 '심즉불(心則佛)', 즉 '너 자신이 곧 부처이다'라는 혁명적 명제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내가 곧 부처'이고 '부처가 곧 나'라면, 모두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왕>과 <나>는 평등하고 동일한 존재 가치 위에 있게 된다. 따라서 선종불교는 당시 집권자의

1) 682년(신문왕 2) 국학(國學)이 설립되었고 717년(성덕왕 16)에는 당으로부터 공자(孔子)·10철(哲)·72제자의 화상을 얻어와서 국학에 안치하였다. 이어서 경덕왕 때에는 국학을 태학감(太學監)으로 개칭하고 경(卿)·박사·조교를 두고 《논어(論語)》와 《효경(孝經)》을 필수 과목으로 한 3분과로 나누어 교육하였다. 입학 자격은 15~30 세까지의 귀족자제이며 수업연한은 9년이었다.

788년(원성왕 4)에는 독서 출신과를 두고 능력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 관리에 채용하였다. 이 제도는 관리채용의 기준을 골품보다 유학의 실력에 두었기 때문에 6두품의 환영을 받았으나 귀족들의 반대로 실패하였다.

2) 당나라에서 당에 유학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치르던 과거

3) 신라말 홍척(洪陟)에 의하여 처음 도입된 선종은 빠른 시간에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실상산파, 가지산파 등 9개의 종파, 즉 산문(山門)을 형성하게 된다.

입장에서는 반역(反逆)이고 동시에 혁명(革命)이었다.

선종은 도시가 아닌 산중에 사찰을 만들었고, 의식이 아닌 수도(修道), 즉 참선(參禪)을 위주로 하였으며, 왕이 만드는 불국(佛國)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나 자신이 부처가 되어 스스로의 삶을 부처의 삶으로 바꾸는, 보살행(菩薩行)을 강조하게 된다. 이러한 새로운 불교는 민중은 물론 특히 이미 각지에서 대두하고 있던 호족층에 전폭적인 환영을 받으며 수용된다.³⁾

이와 함께 신라사회에 타격을 준 것이 바로 왕실의 분열과 이에 다른 왕권 다툼이었다. 신라 하대에 접어들면서 왕실은 피로 피를 씻는 왕위 계승 다툼에 빠져들었고 이는 왕실의 권위를 바닥까지 떨어뜨리는 동시에 다량의 반왕실세력을 양산해 냈다. 아울러 왕실의 행정 장악력을 저하시키고 기존의 신분 및 사회 체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반동적 요소를 극대화하면서 귀족 및 민중의 이탈을 촉진해 갔다.

이에 따라 각 지방의 유력자들은 중앙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신들만의 세력을 구축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조세 및 공부의 탈점으로 이어져 중앙정부는 재정 부족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리고 재정 부족은 군대 및 관료 유지의 어려움을 가져와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더욱 약화되는 이른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렇게 신라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영역을 확보한 지방의 유력층을 호족(豪族)이라고 부른다. 결국 신라는 이들 호족에 의하여 해체 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 호족 세력을 형성하게 된 배경을 따라 죽주(竹州)의 기훤(箕萱), 원주(原州)의 양길(梁吉), 강릉(江陵)의 김순식(金順式) 등 지주(地主), 촌주(村主) 세력과, 지방에 주둔하던 군부대의 지휘관들인 전주(全州)의 견훤(甄萱) 같은 군진(軍陣)세력, 그리고 해상무역을 통하여 부를 축적한 왕건(王建), 유찬궁(柳天弓), 장보고(張保皋) 등의 해상(海上)세력, 사원(寺院)과 초적(草賊) 등 민중 세력을 등에 업은 궁예(弓裔) 등이 있다. 이들의 세력 형성 과정은 상이 하지만 대개 <장군(將軍)> 등의 군직(軍職)을 표방하면서 한 지방의 실질적인 권한을 장악하고 나아가 쟁투(爭鬪)를 통하여 이웃 호족을 통합하면서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2) 궁예의 한수 이복 진출

4) 『삼국사기』 권50 열전10 궁예

(1) 궁예의 후고구려 건국

궁예는 본래의 신라 왕족이라고는 하나 죽주의 호족 기훤 아래에서 성장하여 양길에게 옮겨 갔다가 양길로부터 강원도 일대를 공략하라는 명을 받고 출전하여 결국 그에게서 독립한 후 강원도로부터 한강을 따라 서진(西進)하여 한강, 임진강 하류로 세력을 확장하고 결국 개성의 해상 세력인 왕건을 포섭하며 국가 건설의 기초를 다지게 된다. 궁예는 스스로 고구려의 계승자를 자처하여 국호를 후고구려로 정하고 고구려의 강역을 회복한다는 명분으로 수도를 철원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 후에는 폭정과 압제를 일삼아 결국 상하의 인심을 잃고 왕위에서 쫓겨나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된다.

궁예와 왕건이 연합하여 후고구려를 건국하고 신라에 대항한 것은 동두천 지역 역시 신라로부터 이탈하여 궁예의 판도에 들어갔음을 의미한다. 이에 관련하여 사서(史書)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려 있다.

광화(光化) 원년(元年) (898) 봄2월
(궁예가) 우리 태조 (왕건)를 정기대감(精騎大監)으로 삼아 양주(楊州)와 견주(見州)를
쳤다.⁴⁾

여기 이 기사에 우리 고장 양주(楊州)와 견주(見州)가 지명으로는 처음 나타나는데, 군사를 동원하여 의정부, 양주, 동두천 지역을 궁예의 판도에 편입하였다는 내용이다. 특히 이때 왕건이 부여받았던 칭호가 정기대감(精騎大監)임을 감안하면 주로 기병(騎兵) 위주의 부대가 동원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궁예 세력의 양주, 동두천 장악은 이후 한반도의 정세 변화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즉 양주와 견주를 장악하였다는 것은 왕건 세력이 기존에 확보하였던 예성강과 함께 임진강과 한강을 함께 확보하였음을 의미한다. 왕건의 세력 배경이 중국과의 해상무역에 있었고 이후 후백제의 견훤을 제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해상권의 장악에 있었다면 한강, 임진강 하구의 확보는 그 의미가 엄청나다고 보아야 한다. 아울러 견주 즉, 양주·동두천 지역을 왕건과

궁예의 연합세력이 장악한 것은, 당시 한강 하구에서 해안과 내륙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인 장단로가 온전히 이들 세력 판도에 들어갔음을 의미한다. 이로써 원주에서 한강의 물줄기를 따라 서진해 온 내륙세력 궁예는 해상 세력을 통합하여 바다로 나아가 보다 다양한 군사전략의 수립이 가능해지면서 동시에 국가를 경영하기 위한 막강한 재부(財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된 것이다.

2. 왕건의 삼한 통일과 고려의 건국

1) 궁예의 몰락과 고려 건국

궁예가 한강 유역의 하구들을 장악하게 되면서 비약적인 세력 확장이 가능해진다. 그는 이어 남한강 물길을 따라 충주 지역으로 진출하여 그곳을 장악함으로써 문경을 넘어 경상도 지역으로, 그리고 금강을 도하여 호남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게 된다.

이는 궁예가 삼한을 통일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궁예는 여기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된다. 그는 고구려의 계승자를 자처하는 중에 스스로 고구려의 옛 강역을 수복하기 위한 북진(北進)정책으로 국가 발전 방향을 변경하게 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송악(松嶽)을 떠나 철원(鐵原)으로 수도를 옮긴 것이다.

궁예가 송악을 버리고 철원으로 수도를 옮긴 것은 나름대로의 사정과 계산이 반영된 것이었다. 즉 그는 지금까지의 협력자였던 왕건의 거머잡는 성장과 세력 확대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책 변경의 배경에는 충주세력과 왕건의 결합을 견제하기 위한 아지태, 환선길 등 청주세력의 작용이 있다. 즉 이들 청주 세력은 한강 하구를 장악한 후 이를 배경으로 광주(廣州), 충주(忠州), 남양(南陽) 등지로 진출하는 왕건과 유공달(柳肯達)을 비롯한 충주 세력, 그리고 기존의 왕건 세력인 패서 세력의 연합 가능성을 의구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궁예의 염려를 자극한 것이다.

결국 궁에는 지금까지의 국가 발전 방향을 모두 회수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급선회한다.

첫 번째가 국호의 변경, 천도, 그리고 새로운 국가 지도 이념의 도입이었다. 국호 '후고구려'를 '마진(摩震)'으로, 수도를 '송악'에서 '철원'으로 바꾸고 거기에 더하여 새로이 선종불교가 아닌 미륵신앙을 지도이념으로 정한다. 미륵은 먼 미래에 이 땅에 강탄(降誕)하여 용화세계(龍華世界)를 구현할 미래불이다. 즉 미륵신앙은 이미 민중신앙이 되어 있는 선종불교 대신 다시 왕실불교로 회귀하는 일종의 퇴행이었고 민중의 여망에 대한 배신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모든 정책 변경에는 왕건을 위시하는 패서 세력, 해상 세력, 충주 세력의 결합을 견제하려는 궁예와 청주 세력의 정치적 책략이 내재되어 있었다.

궁예의 정책 변경은 그러나 곧 거센 반발에 직면한다. 즉, 그가 견제하려 하였던 패서, 해상, 충주 세력과 함께 더하여 민중들의 실망과 불복(不服)을 불러오게 된 것이다. 그가 미륵신앙을 국가 이념으로 강요하며 스스로 현생 미륵을 자처한 것이라든지 패서 가문 출신이었던 왕비와 그 소생 왕자들을 모두 잔인하게 처형한 것이라든지 국력 이상의 토목 공사를 일으킨 일들이 모두 이에 비롯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의 몰락과 죽음이었다. 왕건은 궁예가 견제하려던 바로 그 세력에 의하여 왕으로 추대되고 새로운 왕조 고려(高麗)를 개창하게 된다.

2) 동두천 호족 세력의 고려 귀부

궁예가 국가의 중심을 철원으로 옮기고 왕건은 이에 반발하여 수군을 인솔하고 남해안의 백제 지역 공략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 동두천을 비롯한 임진강 상류 지역에는 다시 독립적인 호족 세력이 대두하였다. 다음 기록을 검토하여 보자.

태조 8년(925) 가을 9월 갑인일

매조성(買曹城) 장군(將軍) 능현(能玄)이 사절을 보내와 항복하기를 청하였다.⁵⁾

태조 6년 봄 3월 신축일

명지성(命旨城) 장군(將軍) 성달(成達)이 그 아우 이달(伊達), 단림(端林)과 함께 귀순하여 왔다.⁶⁾

5) 《고려사》세가1

6) 《고려사》세가1

이 두 기록에 나타나는 매조성과 명지성은 각각 포천과 동두천, 연천을 의미한다. 특히 매조성은 매초성의 다른 표기임이 확인하여 이를 임진강가 대전리로 비정할 때 이 매조성 장군의 관할이 동두천 일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이 두 성, 즉 포천, 동두천 지역에 고려 건국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려에 통합되지 않은 별도의 호족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포천은 궁예의 도읍지 철원의 인후(唵候)에 해당하는 이웃 길목이고, 동두천은 고려의 수도 개경에서 한강 유역의 한양으로 나가는 장단로의 요충에 위치할 뿐 아니라 개경으로부터 멀지 않은 가까운 곳에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리고 이 두 지역의 호족은 군사작전에 패하여 항복한 것이 아니라 각각 투항(投降), 귀순(歸順)이라는 평화적 절차에 따라 고려에 통합되었다.

즉, 동두천과 포천은 왕건의 흥기(興起)와 궁예의 몰락이라는 급변 사태를 맞이하여 고려 건국에 주도적인 협조를 거부하였다는 것이 확인된다. 이 사실은 고려의 삼한 통일 이후 동두천 지역의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3) 고려의 삼국통일

(1) 후백제와 신라의 붕괴

궁예 정권의 몰락은 그러나 고려 왕건 정권에 상당한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궁예의 잔존 세력과 우호세력들이 고려에의 협조를 거부하면서 계속 반발하는 한편, 일부는 고려를 떠나 건훤의 후백제로 귀부하게 되는 것이다.

궁예의 측근으로 청주 세력의 일원이었던 마군장군 환선길은 왕건에게 반기를 들고 반역을 꾀하다가 죽었고 이어 마군대장군 이혼암이 반역하다가 죽었으며, 홍주(洪州, 홍천)와 웅주(熊州, 공주) 등 10여 성이 후백제에 투항하였다. 이어 순군리 임춘길이 모반하다가 복주(伏誅)되었고, 청주의 장사인 진선과 그 아우 선장이 모반하여 역시 처형되었고 궁예정권의 수상이었던 구진은 나주로 좌천되자 부임하지 않으려 하다가 협박을 받고서야 겨우 부임하기도 하였다. 한편 청주의 분위기가 끝내 진정되지 않자 할 수 없이 왕건이 직접 방문하여

진압하고 청주에 성을 쌓아 군사력을 시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점차 정권이 안정되자 각지의 호족들이 연이어 투항해오고 불만 세력이 진정되면서 고려는 본격적인 삼한 통일의 길에 나서게 된다.

한편 신라는 여전히 내부의 사상적, 신분적 모순을 극복하지 못하고 붕괴가 가속화하는 과정에서 후백제로부터의 침공이라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후백제 왕 견훤은 대군을 거느리고 신라의 천 년 수도 경주를 급습하여 이를 함락시키고 경애왕 대신 경순왕을 왕위에 올려 자신의 괴뢰 정권을 수립한 후 귀로에 신라로부터 급박한 구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왕건을 대구 팔공산에서 대파하는 전과를 올리게 된다. 이로써 고려는 일시 수습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지지만 이후 안동전투에서 견훤을 대파함으로써 겨우 전선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후백제에 유리하게 전개되던 상황은 그러나 뜻밖의 반전을 맞게 된다. 즉 후백제에 왕위 계승을 둘러싼 내분이 일면서 견훤의 아들 신검이 동생 양검 등과 모의하여 동생 금강을 죽이고 아버지 견훤을 금산사에 유폐하는 정변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금산사를 탈출한 견훤이 고려에 항복해 옴으로써 상황은 급전직하 반전을 맞이하게 된다. 왕건은 선단을 파견하여 견훤을 송악으로 모셔오고 그에게 양주를 식읍으로 하사하며 우대한다. 이에 더하여 국가 경영의 능력을 상실한 신라의 경순왕이 나라를 들어 투항해 오자 고려의 삼한 통일은 이제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마침내 복수를 요구하는 견훤의 요청을 받아들여 왕건은 그를 선봉으로 삼아 후백제군을 대파함으로써 마침내 삼한의 재통일은 왕건의 손으로 완성되게 되는 것이다.

(2) 양주 하사(下賜)

왕건은 금산사를 탈출하여 귀부(歸附)해 온 견훤을 상부(尙父)로 높이고 그에게 저택과 함께 많은 재보(財寶)를 하사하는 한편 양주(楊州)를 식읍(食邑)으로 하사한다. 이왕에 왕건은 자신에게 귀부해온 호족들에게 그들이 영유하였던 지역의 지배권을 그대로 인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호족의 투항(投降)을 장려하는 정책을 삼았다. 강릉의 장군 순식(順植)에게 강릉의 지배권을 주었고 항복해온 신라의 경순왕(敬順王) 역시 경주의 사심관(事審官)⁷⁾에 봉한 것이 그 예가 되겠다.

7) 고려시대에 지방에 연고가 있는 고관에게 자기의 고장을 다스리도록 임명한 특수관직

8) 동두천시 공식 홈페이지는 동두천의 역사를 고구려(내이미현)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이 점은 양주도 의정부시도 마찬가지다. 모두가 자기들 역사의 시작을 고구려(매성현)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하였다.

9) 견훤의 묘는 확실한 근거는 없으나 현재 충남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 산18-3에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황산의 절에서 죽어 전주가 보이는 곳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따라 이곳에 묘소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전한다.

양주를 견훤의 식읍(食邑)으로 하사한 것은 나름 해석이 필요한 조치이다. 본래 식읍은 위의 예에서 보듯이 그의 지배 근거지를 하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다면 견훤에게 하사하는 식읍은 당연히 그의 지배 연고가 있는 후백제 지역, 구체적으로는 전주(全州)라야 상례에 맞는다. 그러나 견훤이 고려에 귀순할 당시, 후백제는 아직 존속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전주(全州)를 식읍으로 하사할 경우 이는 실봉(實封)이 되지 못하고 허봉(虛封)에 그치게 된다. 이는 이용가치가 막대한 견훤을 대접하는 예가 아니며 이후 후백제를 초무(招無)하는 실효를 거둘 수도 없게 된다.

이를 감안하여 양주를 견훤의 식읍으로 지정한 것은 결국 양주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즉 견훤은 후백제를 건국하여 기원전 18년 건국한 온조의 백제, 서기 660년에 멸망한 의자왕의 백제를 계승하였으니 온조의 건국지 양주를 그의 식읍으로 삼은 것이다. 이는 적어도 고려 건국기인 10세기까지도 양주, 즉 한수 이북은 여전히 백제라는 인식이 존재하였음을 반증한다. 오히려 오늘의 우리가 그 역사의 연고지 백제의 고토에 살면서도 정작 백제를 잊고 사는 어리석음이 부끄럽다.⁸⁾

그러나 견훤은 식읍으로서의 양주를 오래 향유하지도, 후손에 승계하지도 못했다. 그는 자신이 세운 나라를 공격하는 고려군의 선봉으로 자신의 아들 신검(神劍)군과 싸워 마침내 이를 멸망시키고 화병(火病)으로 죽어 연고도 없는 산야에 초라하게 묻힌다.⁹⁾

3. 고려 전기의 동두천

1) 견주 설치

고려는 삼국을 통일한 후 각지의 호족 세력을 다시 국가 권력 안에 통합하는 상당히 난해한 숙제에 직면한다. 왕건은 각지의 호족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무력으로 제압하기보다는 가능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연합하거나 흡수하였다. 물론 규모와 세력이 작은 호족은 스스로 왕건에게 귀부(歸附), 귀순(歸順)하였고 때로는 군사적인 압박을 통하여 투항(投降)을 받기도 하였으나 상당수의 호족은 왕건의 결혼정책을 받아들여 자신의 딸과 왕건을 결혼 시키거나 왕건의 딸과 결혼하는 방식으로 왕건과 통합하였다. 태조는 정부인 신혜왕후 유 씨, 나주인 오 씨, 충주인 유 씨 등 무려 29명의 왕비가 있었는데, 이들의 분포지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8-5〉 태조 왕건의 29인 왕비 분포지역

지역	경기도	강원도	황해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기타	계
수	4	3	9	3	2	6	2	29

그러나 왕건 사후 이들 왕비의 친족은 자기 집안 출신의 왕비들이 낳은 왕자의 정치적 후견인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고려는 외척의 권력 각축장이 되었고 이는 필연적으로 지방(호족)에 대한 통제력의 약화로 이어졌다. 따라서 지방 행정을 담당할 지방관은 일부 대성(大城), 대읍(大邑)에 국한하여 파송되고 대부분 지역은 호족의 자치에 맡겨진 채 이를 속현(屬縣)이라 하여 주현(主縣)에 형식적으로 예속되어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한수 이북 지역은 일찍부터 중앙 정부의 실질적인 통제에 들어가 지금의 서울 지역에 양주(楊州)가 설치되었고, 한수 이남 지역에는 광주(廣州)가 설치되어 이들 2개의 주현(主縣)이 관할하는 인근 속현을 망라하여 양광도(楊廣道)를 구성하여 개성 인근의 경기(京畿)¹⁰⁾에 인접하였다. 그 후 고려 정부의 지방 장악이 확장되면서 경기(京畿)의 범주도 확대되었는데 문종 23년에 이르러

10) 경기(京畿)는 본래 국왕이 주둔(駐蹕)하는 경현(京縣)과 국왕이 직영(直營)하는 기현(畿縣)을 합친 개념으로 수도와 그 부근 지역에 설치하는 특수 직할 행정 구역이었다.

그 규모가 이전의 13개 주현에서 50개 주현으로 늘어나면서 옛 양광도 관할의 군현 상당수가 경기로 이속(移屬)되었다. 이때 의정부, 양주 지역의 견주(見州)와 우리 동두천 지역의 사천(沙川)이 또한 경기에 포함되었다. 문종 13년에 확장된 경기도에 속한 지역은 <표 2-8-6>와 같다.

<표 2-8-6> 고려 문종 때 경기 지역 범위

당시지명	현재의 지역	당시 지명	현재의 지역	당시지명	현재의 지역
한양(漢陽)	서울	견주(見州)	양주, 의정부	사천(沙川)	동두천
부원(富原)	부천	풍양(豐陽)	남양주	포주(抱州)	포천
행주(幸州)	고양	고봉(高峰)	벽제	황조(荒調)	고양
교하(交河)	파주	봉성(峰城)	파주	심악(深岳)	파주
석천(石泉)	파주	김포(金浦)	김포	양천(陽川)	서울 양천구
동성(童城)	김포	수안(守安)	김포	통진(通津)	통진
부평(富平)	부평	인주(仁州)	인천	황어(荒魚)	계양
금주(衿州)	시흥	과천(果川)	과천	안산(安山)	안산
남양(南陽)	화성	영흥(永興)	포천 영평	삭녕(朔寧)	연천
승령(僧嶺)	연천	안협(安峽)	강원 이천	철원(鐵原)	철원
연안(延安)	황해 연안	백주(白州)	황해 배천	평주(平州)	황해 평산
협주(峽州)	재령				

여기에 기존의 경기로서 개성부 관할이었던 정주(貞州), 덕수(德水), 강음(江陰)의 3현과 장단현(長湍縣) 관할이었던 송림(松林), 임진(臨津), 토산(兔山), 임강(臨江), 적성(積城), 파평(坡平), 마전(麻田)을 합하면 경기의 관할 면적은 그야말로 대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경기가 확장된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고려 왕권의 확대와 지방에 대한 통제권 확장이라고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토지의 개념을 공전(公田)과 사전(私田)으로 나누었는데 전조(田租), 즉 토지세를 징수하는 조세(租稅)의 권한이 국가에 있느냐 아니냐의 여부가 구분의 기준이 된다. 즉 국가가 조세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가 바로 공전이며, 국가 이외의 개인, 단체에 조세권이 귀속되어 있으면 사전이다. 그런데 고려는 경기 전체를 공전으로 지정하였는데, 이는 국가기관의 운영 경비를 충당할 비용의 조달처를 국왕 주변에 집중함으로써 운용의 편리를 도모하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경기의 관할지역이 확대된다는 것은 공전의 확대를 의미하며

이는 동시에 왕권의 확립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건국 초기의 경기는 주로 예성강, 임진강 하류의 수운처(水運處)를 중심으로 일정 지역에 한정되었던 것이 문종 23년에 오면 현재의 경기도는 물론, 강원도 서부 일대와 황해도 남부지역으로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동시에 이는 남경(南京) 설치 및 남경 인맥(人脈)의 대두라고 하는 국왕 친위 세력의 확장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

동두천 지역 역시 이 시기에 경기에 편입되었고 이는 동두천 지역의 호족이나 토착 세력이 국왕의 중앙권력에 완전히 예속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왕권이 강화되고 호족 및 지방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군사조직도 지방으로 확대되었다. 건국 초기 2군(軍)¹¹⁾, 6위(衛)¹²⁾의 중앙군 체제로 운용되던 고려의 군제는 정종(定宗) 연간에 농민군을 조직화한 광군(光軍)¹³⁾이 편성되어 지방 농민군에 대한 중앙 정부의 통제가 시도되더니, 성종(成宗) 14년에 오면 전국에 12군(軍), 12절도사(節度使)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지방군 체제를 확립하였다.

11) 응양군(鷹揚軍)과 용호군(龍虎軍)으로 모두 3령(領)의 인원으로 구성된 친위군(親衛軍)이다

12) 좌우위(左右衛), 신호위(神虎衛), 흥위위(興威衛)는 수도 개경의 수비 및 변경 방위를 함께 맡는 핵심 군력이었고, 금오위(金吾衛)는 경찰, 천우위(千牛衛)는 의장(儀仗), 감문위(監門衛)는 궁성 내외의 수문(守門)을 담당하였다.

모두 42령(領)의 병력을 상장군, 대장군, 장군, 중랑장, 낭장, 별장, 산원, 오위, 대정 등이 지휘하였다

13) 광군은 각지의 호족들의 지휘 아래 농민으로 조직된 예비군이지만 중앙정부의 전국적인 통제 아래 통일된 군사조직이었다. 뒤에 지방의 농민군은 주현군으로 개편되었다

14) 고려시대의 백정(白丁)은 천민이 아니라 벼슬하지 아니한 평민 즉 조선시대의 양민(良民)을 지칭한다

〈표 2-8-7〉 고려 성종 때 지방군 체제

지역	군명	지역	군명	지역	군명
양주(楊州)	좌신책군(左神策軍)	해주(海州)	우신책군(右神策軍)	광주(廣州)	봉국군(奉國軍)
황주(黃州)	천덕군(天德軍)	충주(忠州)	창화군(昌化軍)	청주(淸州)	전절군(全節軍)
공주(公州)	안절군(安節軍)	전주(全州)	순의군(順義軍)	상주(尙州)	귀덕군(歸德軍)
진주(晉州)	정해군(定海軍)	나주(羅州)	진해군(鎭海軍)	승주(昇州)	연해군(淹海軍)

위의 12군을 살펴보면 먼저 남해지방인 진주, 나주, 승주 등지에는 수군 위주의 조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수도인 개경을 방어하는 두 요충 즉, 양주와 해주에는 신책군을 두어 이곳을 수도 방어의 외곽 기지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주현군은 전국에 약 30만의 병력을 조직화하고 여기에는 양반(兩班), 한인(閑人), 백정(白丁),¹⁴⁾ 잡종(雜種, 화척(禾尺), 재인(才人) 등 천민 등 신분을 망라한 지방민들을 참여시켰다. 그리고 주현군에도 각 병종(兵種)이 있어 정용(精勇, 보병), 마대(馬隊, 기마병), 노대(弩隊, 궁병), 신기(神騎, 기병),

15) 사천은 처음에 포주(抱州), 즉 포천에 속하였으나 후에 양주로 이관되었다

16) 물자의 의도적인 매입과 매출을 통하여 물가를 조정할 목적으로 설치한 기관

17) 이때 설치된 10도는 관내(關內), 중원(中原), 하남(河南), 강남(江南), 영남(嶺南), 영동(嶺東), 산남(山南), 해양(海陽), 식방(朔方), 패서(溍西)로 대개 당(唐)의 제도를 본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반(柴班, 노역병), 해군(海軍, 수병), 공장(工匠, 공병) 등으로 구성되어 형식 상 중앙군과 별로 차이가 없었다. 이들 주현군이 중앙정부의 통제 하에 들어간 것은 왕권이 강화되는 구체적인 결과라고 하겠다.

2) 고려시대 양주의 변천

먼저 전제할 것은 고려시대 양주(楊州)의 개념이다. 협의(狹義)의 개념에서 고려시대의 양주는 지금의 서울지방이다. 따라서 고려시대 사료에 등장하는 양주는 지금의 양주가 아니다. 그러나 지금의 양주, 의정부 지역인 견주(見州)는 양주의 속현(屬縣)이었고 동두천 지역인 사천(沙川) 역시 양주에 속해 있었다.¹⁵⁾

따라서 고려시대 양주의 연혁은 바로 우리 동두천 지역의 정치적 위격(位格)에 연결되는 바 이에 대한 검토가 없을 수 없다.

고려 성종 2년(983)에 고려는 처음으로 전국에 12목(牧)을 설치하였고 양주는 이때 12목(牧)의 하나로 선정되었다. 이때 설치된 12목은 양주(楊州), 광주(廣州), 충주(忠州), 청주(淸州), 공주(公州), 진주(晉州), 상주(尙州), 전주(全州), 나주(羅州), 승주(昇州), 해주(海州), 황주(黃州)이다.

아울러 각 주(州), 부(府), 군(郡), 현(縣)과 각 관(館), 역(驛)에 전지(田地)를 지급하여 목의 행정권을 실질적으로 확립하고자 하였다. 이는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이 목(牧)에 할당된 속현(屬縣)의 여러 향직(鄕職)을 통제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고려 왕권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반영한다.

986년에는 12목의 지방관이 가족을 데리고 부임하도록 규정하였고, 987년에는 목(牧)마다 경학박사(經學博士)와 의학박사(醫學博士) 각 1명을 배치하여 지방 행정의 전문화를 꾀하였다. 아울러 성종 12년(993)년에는 12목에 상평창(常平倉)¹⁶⁾을 설치하여 지방 경제 운영의 요체인 물가 관리의 기능을 부여하였으며, 같은 해 6월에는 아울러 각 주(州), 부(府), 군(郡), 현(縣)과 역로(驛路)에 공수시지(公須柴地)를 부여하는 행정 강화 조치를 취한다.

995년 거란과의 전쟁이 끝나자 새로이 10도(道)¹⁷⁾제가 시행되고 양주는 광주,

해주 등과 함께 관내도(關內道)에 속하였지만 도(道)의 행정적인 절제를 받는 것은 아니었고 이때의 도(道)제는 이후 실시되는 도(道)제의 선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이때에 설치된 도(道)는 행정기관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감찰(監察)기관으로의 성격이 강하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목(牧)을 폐하고 절도사(節度使)제를 실시하여 군사거점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지방군을 중앙군이 장악하게 하여 지방 행정에 군사적 의미를 한층 강화시킨다.

양주는 '좌신책군(左神策軍)'이 설치되어 '양주좌신책군', 또는 '좌신책군'이라는 읍호로 불리게 된다.

성종은 이 12절도사 외에도 2유수(留守), 5도호부사(都護府使), 7도단련사(都團練使), 11단련사(團練使), 15자사(刺史), 21방어사(防禦使)를 전국에 설치 하였으니 이로써 고려는 호족에 의한 지방 통치가 비로소 종식되고 중앙 정부가 지방을 장악하는 행정체제를 확립하게 된다.¹⁸⁾

1012년(현종3)에 이르면 12목의 절도사 제도가 혁파(革罷)되고 대신 5도호(都護), 75 안무사(按撫使)제도가 새로이 시행되었다. 따라서 양주 역시 절도사(節度使)에서 안무사(按撫使)로 명칭이 바뀌는데 이는 중앙의 지방에 대한 군사 통제 거점을 확대한 것으로 지방에 대한 통제의 강화를 의미한다.

현종 9년에 이르면 전국의 행정체제는 다시 전반적인 개편을 보게 되는데, 각도의 안무사(按撫使)를 폐지하고 전국을 4도호(都護)¹⁹⁾, 8목(牧), 56지주군사(知州郡事), 28진장(鎭將), 20현령(縣令) 관할로 재정비하게 된다.

이 개편에서 12목(牧) 중 해주는 도호부로 승격하고 8목은 존치되었지만 양주는 승주, 공주와 함께 지주사(知州事)에 머물러 읍격(邑格)이 하락되고 만다. 이는 개경의 확장에 따라 개경의 인근에 군이 도호부나 목을 설치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 그 이유로 보인다.

1012년에 혁파된 절도사는 1036년(정종2년)에 안찰사(按察使)라는 이름으로 부활되고 문종 18년에는 도부서(都府署)로, 다시 예종 8년에는 안찰사(按察使)로 복원되다가 1018년(현종 9년) 5도(道)제로 확립된다.

18) 중앙정부의 지방행정 장악은 동시에 각지 호족의 지방 통치권 상실을 의미한다. 이때부터 호족은 향리(鄕吏)가 되어 지방 행정의 실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이들 향리 계층은 무인정권 이후 성리학을 수용하여 과거를 통하여 중앙 관리로 출사(出仕)하게 되어 시대부리는 새로운 계층을 형성하고 조선 개창의 주요 세력이 된다

19) 안서도호부(安西都護府-해주), 안북도호부(安北都護府-안변),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승주),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수원)

고려 지방행정의 기본 틀이 완성되었다고 보는 5도양계 체제를 도시(圖示)하면 <표 2-8-8>와 같다.

3) 장단로의 활성화

고려는 송악(松嶽), 즉 개성에 도읍하면서 예성강의 수운(水運)을 활용하였는데, 수도 개경으로 국내외의 물산이 집중하면서 예성강 하구의 벽란도

<표 2-8-8> 고려 지방 행정의 틀인 5도양계

행정단위 명	행정관	내용		비고
5도(五道)	안찰사(按察使)	양광도(楊廣道)	경기, 충청 지역	
		전라도(全羅道)	전라도 지역	
		교주도(交州道)	강원도 지역	
		서해도(西海道)	황해도 지역	
		경상도(慶尙道)	경상도 지역	
양계(兩界)	병마사(兵馬使)	북계(北界)	평안도 지역	
		동계(東界)	함경도 지역	
삼경(三京)	유수(留守)	개경(開京)	개성	
		서경(西京)	평양	
		동경(東京)	경주	
4도호부	도호부사(都護府使)	안서도호부(安西都護府)	해주	
		안북도호부(安北都護府)	안변	
		안변도호부(安邊都護府)	등주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	수원	
8목(牧)	사(使)	광주(廣州)	성남, 광주, 하남	
		충주(忠州)	충주	
		청주(淸州)	청주	
		진주(晉州)	진주	
		상주(尙州)	상주	
		전주(全州)	전주	
		나주(羅州)	나주	
		황주(黃州)	황주	
군(郡)	지사(知事)	129군		양주
현(縣)	령(令)	335현		
진(鎭)	장(將)	29진		

(碧瀾渡)는 국제적인 항구로 번성하였다. 그러나 개경은 육로 교통의 중심에 있지 않았다. 남부 방향의 교통로는 예성강, 임진강으로 남쪽에서 차단되었고 특히 동서 방향의 육로는 동부 방향의 산악(山岳)지대에 차단되어 한반도의 중부에 고립되는 형상이었다.

거기에 서북 방향에서 진입하는 적을 막을 천연의 방벽이 없고 서경에서 남하하는 적 진입로의 최단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고려는 거란, 몽골, 여진, 홍건적 등 외침을 당할 때마다 급히 수도 개성을 버리고 피난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곤 하였다. 거기다가 해안선마저 근접하고 있어 특히 고려 후기 왜구의 침공이 극성일 때는 수도 개경이 함락의 위기를 맞곤 했다. 따라서 고려는 일찍부터 임진강을 건너 한양 방향으로의 접근과 소통을 위한 교통로를 개척했는데 이 길이 바로 '장단로(長湍路)'이다.

장단로는 개성에서 남하하여 임진강 어귀에 이르고 여기에서 강안을 따라 동쪽으로 이동하여 '장단나루' 일명 '호로하나루'를 건너 감악산을 넘은 후, 현재의 양주와 의정부를 거쳐 한양에 이르는 통로이다. 실상 이 길은 광개토태왕, 장수왕 등 고구려 세력이 수군을 이용하여 백제를 공격할 때 사용하였던 길이며, 당(唐)이 나당전쟁을 비롯한 한반도 내의 군사작전에 사용하던 통로이기도 하다.

고려조에서는 이른바 현종의 혈통을 이은 후기 왕들이 삼각산으로 그의 유적을 찾아 참배하는 참배로로, 혹은 남경 순행로로, 아니면 외침을 피하여 몽진(蒙塵)하는 왕의 피난로로 역대의 국왕들이 이 길을 상용(常用)하면서 이 장단로는 국도 개경에서 남행하는 중요 통로로 사용되었다.

다음은 장단로와 관련하여 이 길이 실지로 이용되는 모습을 기록한 자료들이다.

숙종 4년 9월

왕이 왕비, 원자(元子)와 함께 삼각산에 거둥하고 윤달에 양주에 도착하여 도읍으로 정할 땅을 살펴보았다.²⁰⁾

숙종 9년 7월

남경에 거둥하였다. 신축일에 어기(御駕)가 봉성현(峰城縣)에 에 행차하였다. 관전(官錢)을 내어 군신(群臣), 군사(軍士)에게 차등있게 하사하였다.²¹⁾

20) 『고려사절요』 권6

21) 『고려사절요』 권7

22) 『고려사절요』 권8
23) 『고려사절요』 권24

예종 12년 8월

왕이 남경(南京)에 이르렀는데 거란에서 투화(投化)하여 남경 근처에 흩어져 사는 자들이 거란의 가무(歌舞)와 여러 유희(遊戱)를 연출하여 행차를 맞이하니 수레를 멈추고 구경하였다.²²⁾

충혜왕 즉위년 12월

왕이 견주에 가서 덕비를 밟고 남경을 순시하고 돌아왔다.²³⁾

장단로의 활성화는 동두천의 입지와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 장단로의 방로(傍路)로서 임진강 상류에서 임진강을 도하하여 동두천, 양주, 의정부를 거치는 도로는 비록 상용(常用)되지는 않았으나, 특히 임진강이 범람하여 장단나루를 건너지 못하거나 급무(急務)로 감악산을 넘는 수고를 덜고자 하는 경우에 활용되면서 노중(路中)에 위치한 동두천을 교통의 요지로 자리매김해 주었다. 고려 중기 이후에 이르면 새로이 고양로가 활성화하면서 장단로는 쇠퇴기에 접어들게 되고 조선조에 이르면 한양에서 함경도, 금강산으로 가는 길이 포천, 철원을 지나는 동북 경흥대로로 이어지면서 동두천 지역은 주요 교통로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두천 지역에 이담원(伊淡院)과 같은 여로 시설이 오래 운영되고 동두천 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동두천이 가지는 교통 요지로서의 입지를 확인하게 해주는 방증이 된다.

4) 현종의 즉위와 삼각산의 성지화

현종(顯宗, 991~1031)은 고려 제8대 왕(재위: 1009~1031)이다. 휘는 순(詢), 자는 안세(安世), 시호는 현종대효덕위달사원문대왕(顯宗大孝 德威達思元文大王), 태조의 아들 안종(安宗)과 헌정왕후(獻貞王后) 황보 씨(皇甫氏)의 아들이다.

그 어머니 황보 씨는 본래 경종(景宗)의 제4비로 남편 경종이 죽자 출궁(出宮)하여 사가에 머물렀는데 이때 이웃에 살던 태조의 아들 왕욱(王郁)과 사통하여 아들 대량원군(大良院君)을 낳았다. 당시 왕위에 있던 목종(穆宗)은 대량원군의 이모(姨母) 형(兄)으로 아들이 없었는데 목종의 어머니인 천추태후(千秋太后)는 자신이 승려 김치양(金致陽)과 사통하여 얻은 아들을 왕위에 올리려 획책하였고 이는 결국 유일한 태조(太祖)의 혈통인 대량원군에 대한 박해로 이어진다. 그녀는 대량원군을 삼각산 승교사(崇敎寺)의 승려로 만들었다가

시해(弑害)하고자 여러 차례 자객을 보냈는데 당시 승교사의 승려들이 그를 구하고자 신혈사(新穴寺)로 옮기고 방밀에 굴을 파서 숨겨주는 노력 끝에 목숨을 건져 왕위에 오르게 된다. 그러나 그가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 개입한 강조(康兆)가 천추태후 일파는 물론 현종을 보호하려고 애썼던 목종(穆宗)마저도 시해(弑害)하는 참극을 벌이게 되어 이는 거란이 고려에 침공하는 하나의 구실이 되기도 하였다. 현종(顯宗)은 거란의 침공을 받아 몽진(蒙塵)하는 과정에서 심한 고초(苦楚)를 겪었으며 무신들의 폭란으로 왕권이 위기에 빠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무신들을 숙청하면서 문치를 확립하였고, 귀주대첩으로 거란군을 대파하여 북방의 근심을 진정시켰으며 1022년 향리의 장의 명칭을 군현에서는 호장(戶長), 향·부곡 등에서는 장(長)으로 간소화 시키고, 1024년에는 개경을 확장하여 5부(部) 35방(坊) 314리(里)로 정했다. 또한 그동안 폐지되었던 연등회와 팔관회를 부활시켰으며, 최초로 문묘종사(文廟從祀)의 선례를 만들었다.

경제정책으로는 농상(農桑)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감목양마법(監牧養馬法)을 제정했으며 조세의 균등을 기하고 양창수렴법(養倉收斂法)을 실시하는 등 자못 중흥의 기세를 올린 왕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종이 가지는 정치적 위상은 정작 다른 곳에 높은 비중으로 존재한다. 즉 현종 이후 대부분의 고려 왕은 현종의 혈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현종은 고려 왕실의 중흥조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적어도 무신정권이 수립되기 이전의 모든 고려왕은 치세 중에 적어도 한번 현종의 유거지인 삼각산을 찾아 현종과 관련된 사원에 참배하는 것이 일종의 불문율이었다. 어떤 면에서는 바로 이점이 양주를 고려의 3경 중 하나인 남경(南京)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고려사에는 삼각산을 찾은 고려의 왕들과 관련하여 덕종(德宗), 정종(靖宗), 문종(文宗), 선종(宣宗)이 각각 1회, 숙종(肅宗)이 2회, 예종(睿宗)이 4회, 인종(仁宗) 1회, 의종(毅宗) 2회에 걸쳐 각각 양주 삼각산을 찾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왕의 잦은 행행은 양주 지역의 정치적 위상을 제고하고 이른바 남경 세력이라고 불리는 지역 출신 관료 집단의 형성, 남경의 설치 운영 등 양주를 둘러싼 고려의 여러 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24) 『고려사절요』 권5

25) 『고려사절요』 권5

26) 김홍현 <고려의 남경 한양> 제
장 <고려시대 양주의 상징과 남경의
변천> 2 남경의 창설과 변천 P29,
2006년 신서원

5) 남경 설치와 남경 세력의 대두

고려는 건국기부터 3경제도를 채택하여 송악(松嶽)을 개경(開京), 고구려의 옛 도읍 평양을 서경(西京), 그리고 신라의 옛 도읍 경주(慶州)를 동경(東京)으로 삼아 지방직의 최고위에 두었다. 여기에 남경(南京)을 더하여 4경제로 운영하게 된다. 남경의 설치의 우리 동두천을 위시한 양주 일대의 읍격(邑格)이 승격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즉 기존의 고려 인맥에 새로이 남경 인맥이 정치적인 위상을 확보하였다는 것과 조선 건국 후 이루어지는 한양 천도의 발판이 이때에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려 후기에 이르러 계속 제기되는 한양 천도 운동 역시 남경의 설치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남경 설치의 모두 2차례의 논의를 거치며 설치와 폐지를 거듭하게 되는데, 후기에 나타나는 한양 천도론까지를 포함하여 그 남경설치의 명분에는 풍수설이 있었다. 먼저, 문종 대의 남경 설치 과정을 보자.

문종 21년 12월

양주를 고쳐서 남경유수관으로 하고 이웃 군의 백성을 이주시켜 채웠다.
(改楊州爲南京留守官 徙旁郡民實之)²⁴⁾

남경에 새 궁전을 창건하였다.(創新宮于南京)²⁵⁾

사서(史書)에 나타나는 이 기록이 양주에 남경을 창설하였다는 고려 문종 대의 기사이다.

문종이 양주에 남경을 창설한 것은 현종(顯宗)을 보호하고 왕위에 올립하는데 끼친 남경 사람들의 공적을 평가하고 현종의 자손들인 역대 고려 국왕이 남경 지역의 삼각산을 순행하여 이를 사실 상의 고려 왕실의 성지로 공인한 점, 그리고 문종 자신이 외가이자 남경의 인근 고을인 안산에서 성장하였다는 사실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²⁶⁾

이보다 더 설득력을 가지는 설명은 고려가 삼한을 재통일한 후 고구려의 옛 수도인 평양을 서경으로, 신라의 옛 서울인 경주를 동경으로 하였으므로 여기에

백제의 옛 수도인 한양에 남경을 설치하여 실질적으로 삼한 통일의 정치적 상징성을 극대화하려 하였다는 설이다.²⁷⁾

그러나 문종 대의 남경은 불과 몇 년을 유지하지 못하고 곧 폐지되어 다시 양주로 격하되고 만다. 문종 32년 송나라 황제의 사신이 고려에 도착한 것을 축하하여 문종에게 하전(賀箋)²⁸⁾을 올린 각 지방관의 명단에 동서2경(東西二京)과 동북양계(東北兩界), 그리고 8목(八牧) 4도호부(四都護府)만이 나타나는 것을 보아 남경은 이미 그 이전에 양주로 다시 환원된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종 대의 남경이 양주로 다시 환원된 이유를 학자들은 지리도참설(地理圖讖說)이나 행정의 효율이 아닌 왕실 내부의 사건으로 설명하려 한다. 즉 남경을 근거로 한 반역 기도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다.

문종 26년 교위(校尉) 거신(巨身)이 왕실인 평양공(平壤公) 기(基)를 추대翁립하려다가 고변(告變)에 걸려 주살(誅殺)되고 왕무숭(王武崇), 장녕궁주(長寧宮主) 이 씨, 수안택주(綏安宅主) 이 씨 등 당시 남경 세력의 핵심이었던 인주(仁州) 이 씨(李氏) 세력이 대거 숙청된 사건이 바로 남경의 폐치로 연결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남경의 폐치와 관계 없이 문종 자신이 문종 36년 9월에 여전히 장단로를 이용하여 남경을 거쳐 온수(溫水)에 다녀오고, 선종(宣宗) 역시 동왕 7년에 인예태후를 받들고 삼각산에 행행하였던 일 등은 여전히 남경이 가지는 왕실 성지로서의 위상과 정치적 입지를 방증하고 있고, 이는 결국 숙종 대에 이르러 다시 한 번 남경을 설치하는 일로 귀착(歸着)되는 것이다. 숙종 대의 남경 설치 문종 대의 그것보다 훨씬 다양한 논쟁을 거쳐야 했다. 조금 번잡하기는 하나 숙종 대 남경 설치 과정을 보다 상세히 이해하기 위하여 해당 사료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

27) 앞의 책 P30

28) 왕실이나 국가의 경사가 있을 때 신하들이 국왕에게 올리는 축하문

- 29) 『고려사절요』 권6
 30) 『고려사절요』 권6
 31) 『고려사절요』 권6
 32) 『고려사절요』 권6
 33) 수락산 아래 넓은 들, 현재의 노원역 근처이다.
 34) 북한산 아래 기슭지역, 현재의 방학동 지역이다.
 35) 남산 아래 지역, 현재의 한남동 일대를 말한다.
 36) 『고려사절요』 권6
 37) 대봉의 현재 위치는 낙타봉, 즉 낙산(駱山-동대문 근처)로 추정한다.
 38) 사리(沙里), 즉 모래말은 「동국여지승람」 등에 나타나는 대로 사평 나루(沙平渡)이며 현재의 신사동, 이촌동 지역이다.
 39) 기봉(岐峰)은 안현(鞍峴), 즉 모악재이다.
 40) 지금의 북악(北岳)이니 경복궁의 뒷산을 이른다.
 41) 『고려사절요』 권 6
 42) 『고려사절요』 권 7

숙종 원년 8월

위위승동정(衛尉丞同正) 김위제(金謂禪)가 글을 올려서 남경으로 도읍을 옮기기를 청하였는데 그 대략에 “도선기(道詵記)에 이르기를 고려국에 세 서울이 있으니, 송악(松嶽)이 중경(中京)이 되고, 목역양(木覓壤)이 남경(南京)이 되며, 평양(平壤)이 서경(西京)이 되는데 (중략)... 지금 국가에 서경과 동경은 있사오나 남경이 없사오니 삼각산(三角山) 남쪽, 목역산 북쪽 평지에다가 도성을 건설하고 때로 순주(巡駐)하시기를 엿드려 바랍니다” 하였다. 이에 일자(日者) 문상(文象)이 그 말에 따라서 부동(附同)하였다.

(衛尉丞同正金謂禪 上書請遷都南京 略曰 道詵記云 高麗之地有三京 松嶽爲中京 木覓 壤爲南京 平壤爲西京(中略)... 今國家有中京 西京而南京闕焉 伏望於三角山 南木覓北 平建立都城 以時巡駐 於時日者 文象從而和之)²⁹⁾

숙종 4년 9월

재신(宰臣)과 일관(日官)에게 남경을 양주에 건설하는 것을 의논하게 하였다. (令宰臣日官等 議建南京于楊州)³⁰⁾

숙종 4년 9월

왕이 왕비와 원자(元子)와 함께 삼각산(三角山)에 거둥하고 윤달에 양주에 도착하여 도읍으로 정할 땅을 살펴보았다. (王與王妃元子 幸三角山 閏月至楊州相宅都之地)³¹⁾

숙종 6년 9월

남경개창도감(南京開創都監)을 설치하고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 최사추(崔思諫), 어사대부(御史大夫) 임의(任懿), 지주사(知奏事) 윤관(尹瓘) 등에게 명하여 돕게 하였다. (置南京開創都監 命門下侍郎平章事崔思諫 御史大夫任懿 知奏事尹瓘等相之)³²⁾

숙종 6년 10월

최사추 등이 아뢰기를 “신들이 노원역(蘆原驛)³³⁾, 해촌(海村)³⁴⁾, 용산(龍山)³⁵⁾ 등 여러 곳에 나아가서 산수를 살펴보았사오나, 도성을 건설하기에 합당하지 않았사오며 오직 삼각산 면악의 남쪽은 산형과 수세가 옛 문서와 부합되오니 주산 줄기의 중심 큰 맥에 임좌병향(壬坐丙向)으로 지형에 따라 도성을 건설하기를 원합니다” 하니 좃았다. (崔思諫等奏 臣等就蘆原驛海村龍山等處 審視山水不合建都 唯三角山面岳之南山 形水 勢符合 古文 請於主幹中心大脉壬坐丙向隨形建都 從之)³⁶⁾

숙종 7년 3월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에서 아뢰기를 “새로 남경을 만들려면 반드시 땅을 넓게 차지하게 되어 백성의 토지를 많이 빼앗게 될 터이니 경위령(京緯令)의 말을 따라 산을 따라서 지세대로 하시든지 혹은 물을 한계로 하여 지형을 정하여 먼저 안으로는 산수의 형세를 좃아서 동으로는 대봉(大峰)³⁷⁾까지, 남으로는 사리(沙里)³⁸⁾까지, 서로는 기봉(岐峰)³⁹⁾까지, 북으로는 면악(面岳)⁴⁰⁾까지를 경계로 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좃았다. (中書門下省奏 新作南京度地必廣多奪民田 請據京緯令所說 或依山取勢或約水表 形先以內從山水形勢 東至大峰南至沙里西至岐峰北至面岳爲界 從之)⁴¹⁾

숙종 9년 5월

남경의 궁궐이 완성되었다.(南京宮闕成)⁴²⁾

숙종 9년 7월

남경에 거동하였다. 신축일에 어가가 봉성현에 행차하였다. 관전을 내어 군신, 군사에게 차등있게 하사하였다.(幸南京 辛丑駕次峯城縣出官錢賜君臣軍士有差)⁴³⁾

숙종 9년 8월

왕은 남경에 이르러 대서(臺榭)와 원유(園囿)를 유람하였다. 모든 일은 다 일관이 아뢴 바에 따랐기 때문에 예법에는 맞지 않았으나 유사로서는 말하는 자가 없었다.(王至南京遊覽臺榭園囿 凡事皆依日官所奏不合禮制 有司莫有言者)⁴⁴⁾

43) 『고려사절요』 권 7

44) 『고려사절요』 권 7

이상의 기록은 숙종이 남경을 창설하고 궁궐을 준공하는 약 5년간의 공사 과정을 요약한 것이다.

숙종이 남경을 창설하고 여기에 궁궐을 경영한 이유를 저술이론 즉, 개경을 중심축으로 서경과 남경을 균형있게 배치하여 이를 통한 세력의 균형과 왕권의 강화를 도모한 사건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왕의 친위 인맥(人脈)을 육성하고자 하였던 인종(仁宗)대의 남경 건설과 서경에 대응하는 또 다른 친위(親衛) 지역을 설정하여 이를 통한 세력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였던 숙종(肅宗) 대의 남경 건설이나 그 표면적인 명분은 역시 풍수(風水) 이론이었다. 즉 지덕(地德)이 왕성(旺盛)한 지역에 왕경(王京)을 창설하여 이를 통하여 국가의 번영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숙종 대의 기사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 풍수이론의 바탕에는 고려의 강한 자주(自主)의식이 있었다. 즉 남경 궁궐을 만들면서 건물의 배치와 조영(造營)을 전혀 예법(禮法)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의 편찬자는 숙종 대의 남경 궁궐 조영이 예법(禮法)을 따르지 않고 일관(日官)의 의견을 따라 진행하였다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기술하고 있다. 여기에서 예법이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중화질서를 의미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스스로 제후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일관(日官)의 의견을 따랐다고 하는 것은 천자국, 즉 황제의 예제를 따라 궁궐을 조영하였음을 의미한다.

남경 경영은 물론 고려의 국가 경영 전반에 적용된 풍수이론은 구체적으로는 풍수설에 따라 국기를 경영하고 궁궐을 조영하면 이웃의 여러 나라들이 고려에 조공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예종 2년 9월

평장사 최홍사 등이 아뢰기를 “태사(太史)가 말하는데 송악(松嶽)을 국도(國都)로 삼은지 지금 200여 년이니, 국운(國運)을 연장(延長)하려면 마땅히 서경 용언의 옛터에 따로 새 궁궐을 짓고 옮겨 거처하여 조회(朝會)를 받으소서”라고 하였다. 지주밀원사(知樞密院事) 오연총(吳延寵)이 다시 아뢰기를 “홍사 등이 아뢰는 바 용언에 궁궐 짓는 일에는 세가지의 불가함이 있습니다. 문종(文宗)의 밝으심으로도 오히려 술수에 혹하여 서경에 좌 우궁을 지었다가 조금 후에는 누워쳐 개달아 효험이 없다고 여기어 마침내 순어(巡御)하지 않아 재물과 인력만 허비하였사오니, 그 불가함의 하나입니다. 근자에 남경을 개창한 지 7, 8년에 이르러도 길한 징조가 없사오니 그 불가함의 둘째입니다.

서경의 옛 궁궐은 지금 경영하는 바 용언과 거리가 멀지 않아 지세(地勢)의 길흉(吉凶)이 반드시 다른 것이 아니온 데, 하물며 명확한 비결이 징험(徵驗)될 만한 것이 없는데도 조종(祖宗)의 옛 궁궐을 버리고 따로 새로운 대궐을 세우느라고 살림집을 철거하고 백성을 소동함이 그 불가함의 셋째입니다.

바라옵건대 영단(英斷)으로 의심하지 마시고 노신의 아뢴 대로 옛 궁궐이 순어하시고 역설(臆說)을 좇으셔서 함부로 공역을 일으켜 백성의 원한을 부르지 마소서”라고 하였다.

(平章事崔弘嗣等奏 太史言自御松嶽都城今二百餘年 欲延國基業 宜卜西京龍堰舊墟別創新闕 移御受朝 知樞密院事吳延寵復奏曰 弘嗣等所奏龍堰作宮有三不可以 文宗明睿猶惑術數 作西京左右宮 旣而悔悟以爲無應終不巡御 虛費財力 其不可一也 近者開倉南京迨七八年而無吉應 其不可二也 西京舊宮與今所求龍堰相距不遠 地勢吉凶未必有異 況無明訣可徵而棄祖宗舊宮 別構新闕毀撤屋廬 騷動人民 其不可三也 伏望英斷勿疑一依老臣所奏 巡御舊宮無從臆說 妄興工役以致人怨)⁴⁵⁾

당시 남경의 규모는 조선 건국 후 태조에 의하여 획정된 조선의 한양보다 그 규모가 더 컸을 뿐더러 거기에 더하여 직할지와 속현을 거느리고 있는 거대 행정 구역이었다.

남경의 영역은 전술(前述)한 대로 고봉(高峰-낙산), 사리(沙里-이촌동), 면악(面岳-북악), 기봉(岐峯-무악) 외에도 직할지로 건주(見州)·포주(抱州)·행주(幸州)의 3속주(屬州)와 교하(交河)·봉성(峯城)·고봉(高峰)·심악(深岳)·풍양(豊壤)·사천(沙川)의 6속현(屬縣)을 거느리고 거기에 더하여 금주(衿州) 등 6개의 속현을 거느린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 1개의 속군과 1개의 속현을 거느린 인주(仁州), 7개의 속현을 거느린 수주(水州), 3개의 속현을 거느린 강화현(江華縣) 등 모두 4개의 관할지를 배속받아 지방행정상 최고의 음격을 소유하게 되었다.

거기에 더하여 현종의 종맥(宗脈)을 계승한 고려의 왕들이 성지 삼각산 순례 행행(行幸)을 겸하여 남경을 찾아 지속적으로 순어(巡御)한 것 역시 남경의 정치적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표 2-8-9〉 남경의 영역

읍격	관할 내용		비고		
경역(京域)	동계(東界)	고봉(高峰)	낙산(駱山)- 동대문		
	서계(西界)	기봉(岐峰)	무악재 - 불광동		
	남계(南界)	사리(沙里)	사평나루(沙平渡)- 한남동		
	북계(北界)	면악(面岳)	북악(北岳)- 경복궁 뒷산		
속군(屬郡) 3	견주(見州)		현재의 의정부 양주지역		
	포주(抱州)		현재의 포천 지역		
	행주(幸州)		현재의 고양 지역		
속현(屬縣) 6	교하현(交河縣)		현재의 파주지역		
	봉성현(峰城縣)		당시 양주지역, 현재는 파주지역		
	고봉현(高峯縣)		현재의 파주지역		
	심악현(深岳縣)		현재의 고양지역		
	풍양현(豊壤縣)		현재의 남양주 지역		
	사천현(沙川縣)		현재의 동두천 지역		
영도호부 (領都護府) 1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 수주(楸州) - 부평		금주(衿州)		현재의 시흥
			동성현(童城縣)		현재의 김포시 하성면
			통진현(通津縣)		현재의 김포시 통진
			공암현(孔巖縣)		현재의 서울시 양천구
			김포현(金浦縣)		현재의 김포시
			수안현(守安縣)		현재의 김포시 대곶면
영지사군 (領知事郡) 2	인주(仁州)		당성군(唐城郡)		지금의 화성시 남양
			재양현(載陽縣)		지금의 안양시
	수주(水州)		안산현(安山縣)		지금의 안산시
			영신현(永新縣)		지금의 송탄, 평택
			쌍부현(雙阜縣)		지금의 화성시 장안면
			용성현(龍城縣)		지금의 평택시 안중읍
			정송현(貞松縣)		지금의 수원 지역
			진위현(振威縣)		지금의 평택 지역
			양성현(陽城縣)		지금의 평택 지역
영현령관 (領縣令官) 1	강화현(江華縣)		진강현(鎭江縣)		지금의 강화지역
			하음현(可陰縣)		
			교동현(喬洞縣)		지금의 교동

자료에 따르면 속종 대의 동두천 지역은 남경의 6개 속현의 하나로 편제되어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양주 속현으로서의 읍격은 변함이 없으나 남경으로 소속이 변경됨으로써 동두천 지역에 대한 고려 중앙 정부의 통제는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천현이 한 때 유지하였던 포천과의 관계는 이로써 완전히 단절되게 되었다.

문종 대에 설치되었다가 폐지된 남경을 속종이 즉위와 함께 다시 복치(復置)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는 속종의 왕위 찬탈에 따른 정통성의 확보가 우선

46) 소성(召城)은 인천의 또 다른 이름으로 신라 경덕왕 대에 매소홀군(買召忽郡)을 개칭한 것이다.

소성 이씨는 역시 인천을 근거로 성장하였던 고려 초기의 대호족 인주 이씨와 대립하였다. 소성 이씨는 기본적으로 고려 왕실의 지지 세력이었을 뿐 아니라, 숙종의 어머니 인예태후가 바로 소성 이씨였다. 숙종은 이를 계기로 소성현을 경원군으로 승격시킨다.

고려된 듯하다. 즉 숙종은 조카 헌종(憲宗)을 꺾박하여 그의 왕위를 강제로 선양(禪讓)받아 즉위하였고,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조카인 한산후(韓山侯) 윤(昞)과 그를 지지하는 인주 이씨를 숙청하는 등 유혈 사태가 있었고 아울러 거듭되는 천재지변으로 민심이 이탈하는 사태를 수습하고자 하는 계산된 사건이었다. 그리고 인주 이씨와 대립하던 또 다른 남경 세력인 소성(召城)⁴⁶⁾ 이씨를 포용하는 차원에서 남경 설치가 고려되었다.

아울러 한강 양안의 광대한 지역을 경(京)으로 지정하여 이 지역에 대한 사전 토지지배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 따라서 숙종의 남경 설치의 의도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1) 남경이 가지는 지리적 여건의 활용이다.

남경은 한강의 수운을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역참, 조운, 봉수, 교통의 요지로 활용할 수 있었다. 개경은 서경 방향으로의 육로 연결은 용이하였으나 예성강, 임진강, 한강으로 막힌 동남 방향으로의 발전에는 지리적 한계가 있었다. 숙종은 남경이 가지는 지리적인 여건, 즉 조운, 역참, 해상운송 및 육로 통행의 중심이 되는 입지를 활용하여 개경이 가지는 약점을 상쇄하려 하였다.

(2) 남경 개발을 통한 왕권 강화의 측면이 있다.

전술하였지만 숙종의 즉위는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정권의 정통성이 상당 부분 결여되어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선대부터 지속되어 호족들의 강력한 세력을 제압해야 하는 어려움도 여전하였다. 숙종은 남경을 개발하여 여기에 경(京)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서경과 개경을 연결하는 통치의 중심축을 형성하는 한편 전시과 등 정비되어가는 각종 문물제도를 확립하고 한강 유역에 대한 왕실의 토지지배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3) 대외 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기지 건설을 의도하였다.

숙종 대의 고려는 북방이 적대적인 유목 제국에 의하여 장악됨으로 말미암아 대외무역 및 중국 사행(使行)은 오로지 해상(海上)에 의존하고 있었다. 당시의 대송(對宋) 해상 무역, 교통로는 북로(北路)와 남로(南路)가 있었다. 남로(南路)⁴⁷⁾ 예성강에서 출발하여 서해안을 따라 남하(南下)한 후 흑산도(黑山島)에서

직선거리로 서행(西行)하여 장강(長江) 어귀의 영파(寧波)에 도착하는 경로였고, 북로(北路)는 예성강(禮成江)의 벽란도를 출발하여 웅진반도까지 간 후 거기에서 직선으로 서행(西行)하여 산둥반도(山東半島)에 이르는 항로(航路)이다.

산둥반도로 향하는 북로는 고려 전기에 그리고 장강에 이르는 남로는 북송이 망하고 남송(南宋)이 세워진 고려 후기에 주로 이용되었다. 따라서 고려 왕조는 이들 해상으로 자체를 보호함은 물론 이 해상로에 위치한 항(港), 포구(浦口)와 도서(島嶼)들을 통제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하여 남경을 설치하였다고 판단된다.

47) 남로의 구체적인 경로는 예성강의 벽란도 - 인천 자연도(紫燕島, 지금의 영종도) - 충남 해미의 마도(馬島) - 전북의 고군산열도 - 죽도(竹島) - 흑산도(黑山島) - 중국 명주(明州)이다.

48) 절도사는 해당 지방의 군권(軍權)은 물론 행정(行政), 수세(收稅), 사법(司法), 징병(徵兵) 등 전권을 장악하여 마침내 중앙 국가 권력에 대항하는 거대 세력으로 성장하곤 하였다. 당의 멸망이 안록산 등 절도사들로 말미암았고, 그 후 5대 왕조와 지방의 10국을 건국한 사람이 모두 절도사였을 뿐 아니라 송을 건국한 조광윤 자신도 후주의 절도사 출신이었다.

4. 고려 중기의 동두천

1) 거란의 침공과 임진강 지역

당(唐) 왕조가 절도사(節度使)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결국 절도사에 의하여 멸망한 후, 이어지는 5대(五代) 십국(十國)의 혼란을 수습한 송(宋) 왕조는 국가와 왕권의 안정은 그 핵심이 절도사 세력을 제압하는데 있다고 보고 지방의 군권을 장악한 절도사들을 억압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⁴⁸⁾

송 왕조는 절도사를 제압하는 방법으로 군 지휘권을 문관(文官)이 행사하고 무신에게는 작전권(作戰權)만을 허용하는 한편, 그나마 허락한 작전권도 감찰관의 통제 아래서만 행사하도록 하였고, 무신의 지위를 철저히 문신의 아래에 두는 문민(文民) 우위 정책을 강력히 시행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무신 억압책은 상당부분 성공하여 당 멸망 이후 혼란의 주역이었던 절도사 세력을 척결하고 왕권을 확립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으나, 동시에 군사력의 약화라는 부작용을 불러오게 된다.

고려 역시 송과 동일한 국가 과제를 안고 있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 역시 동일한 축선에서 진행이 되었다.

고려 초기 실제 권력을 장악한 호족들은 실상 지방의 행정권, 병권, 사법, 징병, 조세권 등을 장악하고 있었고, 중앙 권력과의 혼연(婚緣)을 통하여 중앙의

49) 예컨대 고려의 과거에는 무신을 선발하는 무과(武科)가 제도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무신 선발이 제도 외로 운영되어 결국 무신의 신분적 우월을 희석하는 결과로 나타 나는데 예컨대 경주의 관노(官奴) 출신이었던 이의민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다. 이와같은 신분적 우월권의 상실을 문신에 의한 무신 차별을 더욱 확대하는 결과로 나타낸다.

50) 여진족을 평정한 윤관. 거란족의 침입을 막아내고 귀주대첩을 이끌어 낸 강감찬 등은 모두 문신이었다. 그들은 문민 우위의 원칙을 따라 군 지휘권을 행사했다.

51) 베이징(北京)·다롄(大同)을 중심으로 장성(長城) 남쪽에 있는 탁(檀)·계(薊)·단(檀)·순(順)·영(瀛)·막(莫)·울(蔚)·삭(朔)·응(應)·신(新)·규(媯)·유(儒)·무(武)·환(獫狁)의 16주(州)를 말한다. 할양 이후 중원(中原)의 한인국가(漢人國家)와 오랫동안 분쟁의 불씨가 되었다. 뒤에 후주(後周)의 세종(世宗)이 영(瀛)·막(莫)의 2주를 회복하였으나, 송나라 때 역주(易州)를 다시 잃었으므로 15주가 되었다. 또한 장성 남쪽에 위치 하면서도 일찍이 거란의 영토로 편입된 평(平)·난(滋)·영(靈)의 3주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연운(燕雲)이라는 말은 북송(北宋)의 휘종(徽宗)시대 이후 부터 사용된 것으로, 이전에는 연대(燕代)·연계(燕薊)·유계(幽薊) 등으로 불리었다.

권력 중심에 진출해 있었다. 그런 면에서 고려의 호족은 중국의 절도사보다 더욱 강력한 왕권 도전 세력이었다.

고려의 호족들은 왕위 계승 분쟁을 실제로 주도하였고, 그 연장선상에 권력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었으며, 정치·경제·문화의 전 방면에 걸쳐 주도적인 권력을 행사하였다.

호족들의 강대한 권력 장악이 왕권의 혼란으로 이어지자 고려의 왕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게 되는데 광종(光宗)의 왕권 강화책이 그것이다. 그리고 광종의 왕권 강화책은 결국 그 핵심이 호족이 장악하고 있는 권력, 특히 군사력의 침탈에 있었다

그는 중앙 무력인 광군을 창설하고 호족들의 경제력을 약화시키며, 시취(試取)를 통한 관리의 선발로 왕의 행정권을 강화하고자 노력한다.

이후 점차 국가 권력은 왕실에 귀착(歸着)되고 호족은 권력의 실체를 상실하고 점차 중앙 귀족화하는 한편, 중앙에 기반을 만들지 못한 지방의 군소 호족은 향리로 편제되어 지방관의 통제하에 편제된다. 그리고 현종 이후 역대 왕의 문물제도의 정비는 이들 중앙 귀족을 문관 중심의 귀족으로 편제(編制)하며 문신(文臣) 우선의 국가제도를 확립시켜 나간다.⁴⁹⁾

무신은 군사지휘권을 상실하고⁵⁰⁾ 토지 분배에서 차별을 받았을 뿐 아니라 나아가 문신에게 예속되어 그들을 시종(侍從)하는 위치로 전락하게 되는데, 이는 마침내 무신들의 극단적인 분노와 반발을 야기하여 무신의 난이라는 정변(政變)으로 이어지게 되지만 그전에 이미 송 왕조에 나타났던 것처럼 국방력의 약화라는 부작용을 동반하게 된다.

한편 이보다 앞서 고려 건국 초기 발해를 멸망시키고 요(遼) 왕조를 세운 거란족은 만주를 장악한데 이어 중원(中原)으로의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다.

후당(後唐)의 금군장관(禁軍長官)으로서 하동절도사(河東節度使)와 북경유수(北京留守)를 겸하고 있던 석경당(石敬瑭, 892~942)은 군사력을 동원하여 후당(後唐)을 멸하고 새로운 자신의 왕조 후진(後晉)을 세우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는 거란의 군사력을 빌리고 그 대가로 연운 16주(燕雲十六州)를 거란에 할양하게 된다.⁵¹⁾ 이 연운 16주의 할양은 결과적으로 장성(長城)의 무력화를 가져왔으므로 이를 수복(收復)하는 것이 후진(後晉) 이후 역대 중국 왕조 모두의 염원이자 국가 제1의 목표가 되었다. 그러나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거란의 수중에서 연운 16주를 회복하기는 용이한 일이 아니었고 오히려 거란은 이 연운 16주를 근거로 본격적인 증원 진출을 도모하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 시점에서 송 왕조는 고려를 주목하게 된다. 즉 고려와의 군사동맹을 통하여 거란을 협격하면 오랜 숙원인 연운 16주의 회복은 물론 거란 자체를 도모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었다.

한편 고려의 입장에서도 거란은 도모의 대상이었다. 고려는 국가의 발전 방향을 북진(北進)에 두었으므로 북진 방향에 위치하고 있는 거란은 처음부터 고려의 가상 적국이었다. 거기에 동족 국가인 발해를 멸망시켰다는 혐원이 더해졌고, 태조의 훈요십조에는 거란과의 통교를 금하는 명문(明文)까지 있는 터였기에 송의 동맹제와는 마다할 사항이 아니었다.

그러나 거란은 국경을 마주대하고 있는 현실적인 위협이었던 반면, 송은 바다 건너 멀리에 존재하는 비현실적 동맹 세력이었다. 거기에 더하여 고려는 거란을 침공할 실질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음은 물론 거란과 싸워서 얻을 이익도 없었다. 따라서 고려는 송과의 군사동맹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거란의 입장에서는 5대 10국의 혼란을 극복하고 증원을 통일한 강대한 송과의 대립도 여의치 않는데 만약 배후로부터 고려의 협격을 받게 될 경우 이는 국가 존립 자체가 위협 당하는 중대한 변수가 될 수도 있었다. 거란으로는 고려와 송의 군사동맹은 결코 묵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따라서 거란은 고려에 선제 공격을 가하되 군사행동의 전략적 최종 목적은 이 군사동맹을 와해시키고 고려를 거란의 후방 위협 세력이 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데에 두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고려 왕의 입조를 통한 거란과 고려의 화평조약 체결이었다.

주지하는 것처럼 거란의 고려 침공은 3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제1차는 거란의 소손녕과 고려의 서희가 담판을 지어 거란이 가지고 있는 위구심을 해소하고 평화적으로 종결되었다.

고려왕의 입조(入朝)를 요구하는 소손녕에게 여진의 위협이 있음을 설득하여 오히려 강동(江東) 6주를 얻어내는 실질적 성과를 얻어내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고려왕이 입조를 미루고 실행하지 않자 거란의 위구심은 되살아나고 이는 다시 제2차 침공으로 이어진다. 강조(康兆)가 정변을 일으켜 목종(穆宗)과 천추태후를 시해하고 현종(顯宗)을 옹립하자 거란은 이를 구실로 고려에 침공한다. 이 2차 침공에서 개경이 함락되고 왕이 나주까지 몽진(蒙塵)하는 비상상황이 발생한다.

현종은 개경을 떠나 장단나루를 건너 감악산을 거쳐 전주 창화현, 즉 지금의 의정부에 이르렀는데 이때 반역배의 공격을 받게 된다. 이때 현종이 급박한 상황을 피하여 숨은 곳이 바로 삼각산 기슭의 도봉사였다. 반역배의 습격을 막아낸 후 현종은 남하를 계속하여 거란이 철병할 때까지 나주에 머물게 되지만, 현종의 피신처가 된 도봉사는 이후 현종의 혈맥을 계승한 후대의 왕들이 순행하는 성지가 된다.

이후 거란은 다시 왕의 친조(親朝) 거부를 구실로 강동 6주의 반환을 요구하며 고려에 침공하게 되는데 이가 바로 거란의 3차 침공이다. 이 3차 침공으로 동두천 일대는 침공해 온 거란과 고려군이 사투를 벌이는 전쟁터가 되었다.

거란군은 1·2차 침공과는 달리 3차 침공 때는 기존의 의주로와는 달리 산악을 이용한 행군로를 설정하였다. 그 이유는 1·2차전 모두 고려의 강에 막혀 고전하였던 경험을 작전에 반영하였던 것이다. 거란군의 1·2차 침공로와 3차 침공로를 비교하면 그 차이를 확연히 이해할 수 있다.

〈표 2-8-10〉 고려시대 거란 침공 지역

1차 거란침공	2차 거란침공	3차 거란침공
의주	의주	의주
흥화진	통주	천마
용주	곽주	태주
철주	정주	운산
통주	안북부	자주
곽주	서경	마탄
박주	황주	강동
안북부	봉주	수안
	평주	신계
	개경	금교역
		평주
		개경

따라서 3차 침공 당시 개경을 점령한 거란군은 고대 고구려가 이용하던 장단로, 즉 임진강을 상류로 거슬러 호로하에서 임진강을 도강한 후 감악산을 거쳐 양주, 남경 방향으로 진입하거나 아니면 임진강을 더 거슬러 대탄에 이른 후 거기에서 한탄강을 도강하여 지금의 동두천, 양주를 거쳐 남경에 이르는 남행로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려군의 조직적인 저항을 피하여 산길과 소로를 따라 최대한 빨리 기동하여 고려군의 측면이나 배후를 치는 전술인데 아래의 사료들은 이와 같은 전황을 비교적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고종 3년 9월

거란군사가 청주에서 연주의 개평역, 원림역 두 역으로 옮겨 둔치고 종일토록 왕래하여 그치지 않음으로 삼군이 신기의 장수를 보내어 이를 뒤쫓아 가서 신리에서 싸워 머리 190급을 베었다. 삼군이 나아가 연주에 주둔하고 광유, 연수, 주저, 광세, 군제, 조웅 등 여섯 장수는 사자암을 지키게 하고 영린, 적부, 문비의 세 장수는 양주를 지키게 하였다.

(丹兵自昌州移屯延州之開平原林兩驛 終日絡繹不絕 三軍遣神騎將追之與戰于新里斬一百九十級 三軍進次延州以光裕延壽周氏光世君梯趙雄等六將守獅子嶺 永麟迪夫文備三將守楊州)⁵²⁾

52) 『고려사절요』 권4

53) 『고려사절요』 권4

54) 『고려사절요』 권5

55) 『고려사절요』 권5

고종 3년 9월

창주분도장군 김공석이 급히 보고하기를 “거란의 나중에 이른 군사가 지난 달부터 국경에 많이 들어 왔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삼군이 연주에 진주해서 내상(內廂) 군사만 남겨두어 스스로 방위하게 하고 그 나머지 군사는 모두 출발하니 후군이 홀로 양주에서 적군을 만나 수십 여 명을 잡아 죽였다.

(昌州分道將軍金公奭飛報 契丹後至兵自前月大入境 三軍次延州唯留內廂自衛其餘悉發 後軍獨遇楊州擒殺數十百級)⁵³⁾

고종 4년 5월

대장군지윤심을 양광충청도방어사로 삼아 도내의 군사와 승군을 거느리고 적을 막게 하였다. (以大將軍池允深爲楊廣忠靑道防禦使 率道內兵及僧軍以禦敵)⁵⁴⁾

고종 4년 5월

오군이 승첩을 아뢰기를 “거란 군사가 풍양현, 효성 고개에 이르렀을 때 우리 군사가 싸우려고 횡탄을 건너려고 할 무렵 적이 아군의 후미를 치니 좌군이 먼저 싸우다가 패하여 달아났고, 중군과 후군은 산 밖으로 부터 적군의 배후로 나와 (이를) 쳐서 물리치고 노원역 선의장에 까지 쫓아가 적군을 많이 목 베어 죽이니 우마와 의물을 모두 버리고 갔습니다.

(五軍奏捷云 丹兵至豐壤縣曉星峴 我師欲戰 將渡橫灘 敵尾擊之 左軍先戰敗走 中軍後軍自山外出 敵背擊却之 追至蘆原驛宣義場 斬馘甚多 牛馬衣物悉棄而去)⁵⁵⁾

즉 남경을 방어 거점으로 삼고 있는 고려군과 거의 유격전의 개념으로 출몰하는 거란군이 양주 일대를 전장으로 하여 격전하고 있는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거란의 침공과 관련한 위의 기사는 동두천과 연계된 장단로가 고려 중기까지도 고려의 간선도로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겠다.

2) 고양로의 대두

그러나 고려 중기를 지나면서 이와 같은 장단로의 활용도는 새로이 개설되는 고양로(高陽路)에 비하여 점차 떨어지기 시작한다. 기존의 장단로(長湍路)를 대신하여 새로이 고양로가 활용된 것은 한강을 도하하여 남하하는 여객에게 한강 도하 나루인 사평도(沙平渡)에 보다 빨리 도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었다. 즉 기존에는 임진강을 도하하여 봉성현(峯城縣)에 이르러 동쪽으로 감악산을 넘고 지금의 양주 유양리를 거쳐 의정부에 이른 후 거기에서 남경으로 들어갔다 남경 남문을 나와 사평도에 이르는 여정이 가장 일반적인 여정이었다.

고구려군이 남진할 경우에는 장단나루를 건너지 않고 임진강 중류의 호로하의 얇은 여울을 건너 역시 감악산과 전주, 즉 지금의 양주를 거쳐 역시 남경에 이르는 통로가 더 일반적이었고 신라는 북진하면서 양주, 동두천을 거쳐 한탄강을 건넌 후 서행하여 개성이 이르는 통로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고려 전기에 이 장단로가 고양로보다 더 비중있게 활용된 것은 현종 이후 역대 임금이 현종의 피난지인 삼각산의 여러 사찰을 순행한 것과 연관이 있다. 역대 국왕이 순행(巡幸)하던 장의사(莊義寺), 진관사(津寬寺)는 삼각산의 서면에 위치하지만 신혈사(新穴寺)나 도봉사(道峯寺)는 물론 문수사(文殊寺), 승가굴(僧伽窟) 등은 모두 북한산의 동면에 위치하여 국왕의 삼각산 순행은 삼각산의 동면에 집중되었다. 따라서 행행로(行幸路)는 자연히 양주를 거쳐 의정부, 남경에 이르는 행로를 따라야 했고 이에 따라 개경에서의 남경에 이르는 행로는 자연히 장단로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몽골의 침공을 받은 후에는 남경이 한양부로 격하되고 왕들의 삼각산 순행도 뜸해지게 된다. 따라서 남행로 역시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제시되는데, 즉 장단나루를 건너 고양, 벽제를 지나 무악재를 넘어 바로 사평나루에 이르는 직선 행로 즉, 고양로가 활발히 이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장단로를 대신하여 고양로가 활성화한 것은 결국 전주의 위축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동두천 등 장단로의 길목에 위치한 고을은 활기를 잃고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5. 고려 후기의 동두천

1) 몽골의 침공과 동두천

몽골과 고려와의 최초 접촉은 우호적이었으나 이는 곧 적대관계로 변질되었다. 이미 세계제국을 지향하고 있던 몽골에게 자주국 고려는 용납할 수 없는 모순이었고, 고려 역시 자주성의 상실과 굴종을 전제로 한 몽골과의 평화나 공존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따라서 고려는 고려를 무력으로 제압하려는 몽골과 치열한 전면전을 치를 수 밖에는 없었다.

초원과 중원, 그리고 실크로드를 위시한 대서방 교통로 전체를 장악하고 무수한 국가와 민족을 통합한 막강한 몽골과 동방의 소국 고려의 전면전은 누가 보아도 너무나 쉽게 승패가 결정되는 싱거운 싸움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세계를 정복하고 대제국을 건설한 몽골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그것은 몽골이 수전(水戰)의 경험도, 수전을 치르기 위한 무기도, 수전을 전문으로 하는 병력과 부대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고려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그리고 무수한 도서(島嶼)를 보유한 준 해양국이라는 사실이었다.

몽골의 약점을 간파한 고려는 즉시 수도를 강화(江華)로 옮기고 바다를 천연의 방어선으로 하여 길고도 긴 대몽항쟁에 돌입한다. 이미 해상과 강을 통한 조운(漕運)체계를 완비하고 이를 운영하던 고려는 비록 강화(江華)로 중심부를 옮겨 스스로 좁은 섬 안에 갇힌 듯이 보였지만 어떤 면에서는 역으로 몽골을 육지에 가두고 해양으로 포위한 상황을 만들어 낸 것이기도 하였다.

조운을 통한 전시 보급이 유지되었다고 하지만 강토의 대부분을 점령당한 상황에서 고려 민중이 겪는 고난은 처절한 것이었고, 고려 왕실 역시 승리의 전망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대몽 투쟁은 여의롭지도, 주도적이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강도(江都)를 거점으로 저항하는 고려 왕실은 적어도 남경을 위시한 한강 하구를 육지의 고려 영역으로 확보하고자 하였고, 강화도를 압박하고 강화도로의 진입을 도모하던 몽골 역시 한강 하구의 남경, 양주 일대를 작전의 거점으로 확보하고자 하였기에 양주 등 한강 하류 일대를 둘러싼 양국의 대립은

전쟁 기간 내내 팽팽한 긴장과 접전을 유지하고 있었다.

강화도의 고려 정권은 양주 일대의 주민들에게 산성에 들어가 농성하면서 몽골군과 싸우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양주 지역의 주민들 역시 산악에 깊이 들어가 대몽 투쟁을 지속하였을 것이나 이 지역이 주요 교통로를 이루고 있었고 몽골군이 집결한 곳이라는 점에서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투쟁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2) 남경 폐지와 한양부 설치

몽골에게 항복하고 개경으로 환도하면서 고려는 이제 본격적인 몽골제국 체제에 편입되었다. 따라서 고려의 자주성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몽골의 간섭을 받으며 겪는 경제적 압박과 문화적 침탈 역시 심각하였다. 가장 현저한 침탈은 역시 정치 부분에서 두드러졌는데 고려의 모든 국격은 자주국에서 예속국으로 전락하였고 고려 국왕은 몽골의 공주와 결혼하는 몽골의 부마국으로 격하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3경체제 역시 더 이상의 존속이 어렵게 되어 서경은 평양부로, 동경은 계림부로 그 지위가 하락하였고 남경 역시 한양부로 개편되었다. 동시에 남경의 관할 구역도 대폭 축소되었는데 기존의 속군과 속현을 제외한 관할 주, 군, 현이 폐지되었다.

우리 동두천은 사천현이라는 이름으로 한양부의 속현으로 존속되어 계속 한양부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남경이 폐지되고 새로이 한양부가 설치된 것을 몽골의 정치적 간섭에 의한 강제조치라는 측면이 아닌 다른 측면에서 이해하려는 시각도 있다.

충선왕이 남경을 폐지하고 한양부를 설치하여 부윤(府尹)을 파견한 것은 오히려 독자적인 남경의 행정구역과 행정권을 축소하고 왕권에의 예속이 강한 지방관을 파견함으로써 왕권을 강화하고 한강 하류 지역에 대한 국왕의 통제권을 보다 확립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⁵⁶⁾ 동시에 충선왕이 오랜 기간에 북경에

56) <의정부시정 40년사> 고려 말기의 지방제도와 남경, p53

57) 『고려사』 권34, 세가 34

58) 『고려사』 권35, 세가 35

머물러 있었고 유교적 교양으로 양육되어 기존의 고려 왕들과는 달리 풍수론의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점도 남경 폐지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한양부로 격하된 이후의 남경 지역은 정치적인 비중이 급감하면서 왕의 휴양지나 사냥터로 이용된다.

충숙왕 4년 2월

또 한양에 가서 사냥하였는데 삼사사 홍응, 밀직사 조연수와 원충, 대사헌 조운경, 만호 장선, 조석, 권준, 대언 허부 등과 기병 300여 명이 따라 갔다. 때마침 농사철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원성이 심하였다.

(又獵于漢陽 三司使洪戎密直司趙延壽元忠大司憲趙雲卿萬戶張宣曹碩權準代言許富及獵騎三百餘人從之 時方農作民甚怨咨)⁵⁷⁾

충숙왕 12년 11월

왕과 공주가 한양으로 가서 부원과 용산의 높은 언덕에서 바다가 바라보이는 장소를 택하여 전막을 설치하고 거처하였다.

(王與公主幸漢陽 張氈幕於富原龍山高阜望海處而御之)⁵⁸⁾

3) 남경 복원

몽골에 의한 국격(國格) 강하(降下)의 결과 폐지되었던 남경은 이후 충렬왕(忠烈王) 16년에 원이 점거하였던 서경(西京)과 자비령 이북 지역을 고려에 되돌려 주면서 다시 정상화되었다.

충선왕(忠宣王) 즉위년 5월에 단행된 관제개편에 따르면 안향(安珦)을 동경유수(東京留守)로, 이혼(李混)을 서경유수(西京留守)로, 그리고 정해(鄭陟)를 남경유수(南京留守)로 임명하고 있고, 이어 동왕 즉위년 8월에 충선왕이 실각하고 충렬왕이 재집권하면서 한층 강화되어 개경, 서경, 동경, 남경의 4경 체제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충렬왕 34년 다시 충렬왕이 실각하고 충선왕이 재집권하자 동경과 남경을 폐지하고 부(府)로 환원함으로써 남경은 다시 한양부(漢陽府)가 되었다.

4) 남경천도론의 대두

공민왕 대에 이르러 한양의 정치적 입지는 다시 주목의 대상이 되며 비중이 급격히 상승한다. 한양 천도론(遷都論)이 대두된 것이다. 한양으로 도읍을 옮겨야 한다는 천도론은 공민왕, 우왕, 그리고 공양왕 대에 각각 제기되었는데 그러나 이들 각 왕대의 천도론은 그 배경이 조금씩 다르다.

먼저 공민왕 대의 한양천도 운동이다. 중원을 장악하였던 몽골족은 몽골인 위주의 신분제도 고수와 몽골 문화 강요, 극한적인 왕권계승 다툼, 지폐 남발 등 정치·경제정책의 실패로 급격히 민심이 이탈하며 조직적인 민중의 저항에 부딪히게 되는데, 특히 백련교도의 반란이 홍건(紅巾) 기의(起義)로 확대되면서 마침내 이를 기반으로 장강 유역에 건국된 신흥 명(明) 정권에 밀려 북방으로 후퇴하기 시작한다.

몽골의 간섭에 오래 시달리던 고려에서도 공민왕을 중심으로 반몽골, 자주성 회복 운동이 전개되고 공민왕은 반몽골 정책의 일환으로 국내의 친몽골 세력을 숙청하고 자주적인 국격을 회복하는 대대적인 정치 개혁에 나서게 된다. 공민왕대의 한양 천도는 이러한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시도(試圖)된다.

즉, 한양으로 수도를 옮겨 개경에 기반을 둔 기존의 부원(附元)세력을 약화시키고,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되었던 한양의 풍수적 장점을 활용하여⁵⁹⁾ 자주성 회복 운동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다.

공민왕 5년 7월

판서운관사 진영서에게 명령하여 남경의 터를 둘러보게 하였다.
(命判書雲觀事陳永緒 相地于南京)⁶⁰⁾

공민왕 5년 7월

가족을 데리고 성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금하였다. 남경의 지세를 보고 집터를 구하게 한 후부터는 인심이 동요하여 이거나 지고서 남쪽으로 가는 자가 저자에 가는 것 같이 많으므로 이것을 금한 것이다.
(禁人挈家出城 自相地南京 人心動搖 負戴南行者如歸市 故禁之)⁶¹⁾

59) 공민왕은 “한양으로 천도하면 36국이 와서 조공한다”는 승려 보우의 건의를 받아 한양 천도를 추진하기로 결심하였다.

60) 『고려사』 권39 세가 39

61) 『고려사』 권39 세가 39

- 62) 『고려사』 권39 세가 39
- 63) 『고려사』 권39 세가 39
- 64) 『고려사』 권39 세가 39
- 65) 『고려사』 권39 세가 39
- 66) 『고려사』 권39 세가 39
- 67) 『고려사』 권39 세가 39

공민왕 5년 12월

남경의 궁궐을 보수하였다.(修楨南京宮闕)⁶²⁾

공민왕 6년 정월

왕이 봉은사에 가서 태조 진전에 참배하고 한양 천도에 대하여 점을 쳤더니 왕의 손에 정(靜)자가 잡혔다. 계묘일에 다시 이제현에게 명령하여 점을 치라 하였더니 동(動)자를 얻었다. 왕이 기뻐하여 “그대가 몸을 깨끗이 하고 제사하여서 길한 점괘를 얻었으니 참으로 내 마음이 흡족하다”라고 하였다.
(王如奉恩寺謁太祖眞殿 卜遷都漢陽 王探珮得靜字 癸卯更命李齊賢卜之 得動字 王喜曰卿禱記得吉卜實副予心)⁶³⁾

공민왕 6년 2월

남경에 궁궐을 지음에 양광도의 금년 둔전을 그만두라 하였다.
(以營南京宮闕 除楊廣道今年屯田)⁶⁴⁾

공민왕 6년 2월

이제현에게 명령하여 한양에서 집터를 보아 궁궐을 건축하라 하였다.(命李齊賢 相宅于漢陽築宮闕)⁶⁵⁾

공민왕 9년 정월

태묘에서 천도에 관하여 점을 쳤더니 불길한 괘를 얻었다. 그때 한양의 궁궐을 수축하는 사람들이 많이 얼어 죽었다.
(卜遷都于太廟不吉 時修漢陽城闕人多凍死)⁶⁶⁾

공민왕 9년 7월

백악에 궁궐을 짓기 시작하였다. 이에 앞서서 남경으로 천도하고자 하여 전 한양윤 이안을 파견하여 성곽과 궁궐을 수축하게 하였더니 백성에게 커다란 고통이 되었으며 태묘에서 점을 쳐도 불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사를 일으켰는데 그 때 사람들이 이것을 신경(新京)이라 하였다.
(始營白岳宮闕 先是欲遷都南京 遣前漢陽尹李安 修其城闕 民甚苦之 卜于太廟不吉 又興是役 時人謂之新京)⁶⁷⁾

자료의 인용이 조금 장황해졌지만 천도의 제반 과정을 이해하는 방편이 된다고 여겨 관계 사료 다수를 전재하였다. 위의 자료들을 자세히 검토하면 한양으로의 천도를 강행하려는 공민왕의 의지가 대단히 강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천도의 길흉을 알기 위해 점을 친 것이 아니라 천도가 길(吉)하다는 징험을 획득하기 위하여 점을 쳤다. 그리고 흉조(凶兆)를 얻자 다시 재차 점을 쳐서 길조(吉兆)가 나오기까지 이를 거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민왕이 강력하게 추진한 한양천도는 개성부윤 윤택(尹澤)을 비롯한 중신들의 거듭된 반대로 결국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말았다. 아울러 태묘에서 얻은 점괘가 흉조(凶兆)로 나온 것도 공민왕이 한양 천도를 포기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5) 우왕의 한양 천도 추진

공민왕 사후 그를 계승한 우왕 역시 한양천도론자였다. 우왕은 아버지 공민왕의 반원자주개혁운동이 그를 비극적인 죽음으로 몰아갔다고 여겨 아버지의 정책을 재평가하고 결국은 친원정책으로 선회한 사람이었다. 물론 우왕의 정책선회는 공민왕의 갑작스런 죽음이 친원정책으로 회귀하려는 공민왕 반대파의 소행일 수 있다는 의구심을 가진 명이 고려를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나선 일과, 명의 중원 제패가 반드시 고려에 유익하지만은 않다는 상황 전개 등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⁶⁸⁾

우왕은 즉위와 함께 천도를 기획하고 여러 곳에 천도지를 알아보게 하였는데, 그 대상으로 검토된 곳이 철원, 연천, 장단, 황해도도의 신계 등이었다. 그러나 우왕의 천도 계획은 당시 극에 달했던 왜구의 침구와 파탄 상태에 이르렀던 재정 상황, 그리고 우왕의 후견인이었던 최영(崔瑩)의 강력한 반대로 미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당시 왜구는 덕적도, 강화도 등에 대규모의 병선을 집결하고 한강 하구 일대에 대한 지속적인 침노를 계속하고 있었고, 한양은 물론 수도 개경에까지도 저들의 병화(兵禍)가 미칠 지경이었다. 우왕 대의 왜구는 최영, 이성계 등 여러 장수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우왕 6년에 이르러서야 겨우 제압되었다.

우왕(禡王) 7년에 이르자 우왕은 미루어 두었던 천도 문제를 다시 추진하면서, 천도지를 한양으로 특정하고 이를 강력히 밀어붙였다. 우왕 8년, 드디어 왕이 한양의 옛 궁궐을 수리하고 한양으로 이주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때의 천도는 임시적인 것으로써 약 6개월간을 한양에 머물고는 이듬해 2월에 개경(開京)으로 환도하였다. 한양 천도에 대한 국왕의 강력한 의지를 선포하는 시위(示威)의 성격이 강한 정치적 제스처로서, 이후 항구적인 천도를 계획하고 있었으나, 이성계의 위화도회군(威化島回軍)으로 우왕이 실권(失權)함으로써 한양 천도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다.

우왕의 한양 천도론도 역시 근본적인 명분은 풍수론이었고 그 풍수론의 핵심은 개경의 지덕이 쇠하였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우왕(禡王)대의 천도운동은 목덕(木德)의 땅, 한양의 지기를 눌러 왕권의 위협 요소를 제거하려는 왕권강화책의 일환으로 기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⁶⁹⁾ 아울러 자신을 둘러싼 최영 등 실권 그룹을 견제하려는 왕권 강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였다.

68) 명은 원이 소유하였던 옛 고려 영토를 명에 귀속시키도록 압력을 가하였고, 과도한 공물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69) 본래 한양에 목덕(木德)의 지기(地氣)가 있어 이(李) 씨 성을 가진 사람이 한양을 근거로 원이 된다는 도참(圖讖)은 이자겸(李資謙)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고려 후기에 정치와 사회가 혼란해지면서 이 도참설이 다시 유행하자 고려 왕실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여러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예컨대 한양에 이(李) 씨를 상징하는 오얏 자두를 심었다가 이를 발채하기도 하고 이(李) 씨 성을 가진 사람을 한양의 행정관으로 발령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한양으로의 천도를 통하여 한양의 지기를 왕 씨가 받도록 하는 것 역시 당시의 도참(圖讖)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추진된 것이었다.

70) 공양왕은 조선이 건국된 후 그에게 주어진 시호(諡號)로서 '공순히 나라를 양보하였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고려 절신들은 공양왕(恭讓王)이라는 치욕적인 시호 대신에 그가 죽음을 당한 장소를 따서 그의 시호를 간성왕(干城王)이라고 따로 부른다.

6) 공양왕의 한양 천도

이성계 등 변혁파에 의하여 주도된 위화도회군은 고려 정권의 실체가 변혁파에 장악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들은 전제개혁을 실시하여 기존의 전시과(田柴科)를 새로이 대체한 과전(科田)을 시행함으로써 보수파로부터 경제적 특권을 박탈하였고, 변혁파 대부분을 공신(功臣)에 책봉하여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였다. 그리고 '폐가입진(廢假立眞)'을 통하여 고려 왕통의 정당성 자체를 부인해버렸다. 우왕과 아들 창왕이 공민왕의 아들인 왕 씨가 아니고 실은 신돈의 자손인 신(辛) 씨이므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폐가입진(廢假立眞)은 결국 공민왕 이후의 고려 왕통 자체를 부정하고, 조선 왕조를 창립하는 역성혁명(易姓革命)의 정당성과 명분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고려 말기 정치적 변혁에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게 된다. 그리고 변혁파가 추구하던 혁명의 절차를 승인하는 비극의 역할을 수행할 인물로 선택된 사람이 바로 공양왕(恭讓王)이었다.⁷⁰⁾

그러나 공양왕은 정도전(鄭道傳), 조준(趙浚), 이방원(李芳遠) 등 변혁파의 요구대로 괴뢰(傀儡)의 역할을 순수히 수행하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축소되고 허물어져 가는 고려를 되살리고 왕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 바로 한양 천도였다. 그는 한양으로의 천도를 통하여 변혁파의 세력 중심인 개경 대신 보수파의 근거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하여 조직적인 반격의 기회를 만들려 하였다. 그 천도의 추진 명분 역시 풍수론이었다.

공양왕 2년 7월

평리 배극렴을 양광도찰리사로 임명하여 한양 궁궐 수축을 감독하게 하였다.
(以評理裴克廉爲楊廣道察里使 監修漢陽宮闕)⁷¹⁾

공양왕 2년 7월

좌헌납 이실이 왕에게 글을 올려 말하기를 “전하가 참위의 말들을 믿고 서울을 한양으로 옮기려 하니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물며 지금 추곡이 성숙하였으나 아직 거두어들이지 못하였으니 사람과 말이 농토를 짓밟으면 백성의 원망을 사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힐책하여 말하기를 “비록(秘錄)에 만일 옮기지 않으면 임금과 신하가 없어질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네가 어찌 혼자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가?” 하였다. (左獻納李室上疏曰 殿下信讖緯之說 欲遷漢陽 既爲不可 況今秋成未穫而人馬蹂踐 必所民怨 王詰之曰 秘錄云 苟不遷廢君臣 爾何獨執不可也)⁷²⁾

공양왕 2년 9월

한양에 천도하였다. 판삼사사 안종원과 문하평리 윤호에게 명하여 송경에 유수하게 하고 또 백관에게 명령하여 분사를 두게 하였다. (遷都于漢陽 命判三司使安宗源門下評理尹虎 留守松京 且令百官分司)⁷³⁾

공양왕 2년 9월

왕이 한양에 도착하였다. 양광도관찰사 유규가 채뽕을 매고 온갖 놀이를 베풀어 왕을 맞이하였다. (駕至漢陽 楊廣道觀察使柳珣 結彩棚陳百戲以迎)⁷⁴⁾

공양왕 3년 2월

왕이 남경을 출발하여 신유일에 회암사에 머물면서 불사를 크게 베풀었다. 온갖 사치를 다하였으며 중 1,000여 명에게 음식을 주고 악관(樂官)을 시켜 향악(鄉樂)과 당악(唐樂)을 연주하게 하였다. 왕이 손수 향로를 쥐고 동서 승당(僧堂)을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권하였다. 순비(順妃)도 역시 그대로 하였다. 또 왕은 왕비와 왕세자와 함께 밤새도록 부처에게 절하였다.

(王發南京 辛酉次檜巖寺 大張佛事 窮極奢侈飯僧千餘 使伶官奏鄉唐樂 手執香爐 巡東西僧堂 以侑食 順妃亦隨之 又與妃及世子 禮佛徹夜)⁷⁵⁾

공양왕의 한양 천도는 변혁 세력의 반대 속에 강행되었고 나름대로 기대하는 효과가 있었겠으나 이미 대세를 이루고 있던 새 왕조 창업의 기세를 거스르지 못하고 마침내 고려 왕조의 몰락과 함께 역시 한때의 정치적 해프닝으로 마무리되고 만다. 남경 천도의 좌절은 동두천의 위상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 이미 동두천을 통과하던 장단로는 그 중요성을 고양로에 빼앗기고 전주의 쇠퇴와 함께 한미한 지방 소읍으로 전락하게 되고 이런 쇠락은 조선 왕조 개창 후에도 반전되지 못하고 오랜 낙후의 늪에 침잠하게 된다.

71) 『고려사』 권 45, 세가 45

72) 『고려사』 권 45, 세가 45

73) 『고려사』 권 46, 세가 46

74) 『고려사』 권 46, 세가 46

75) 『고려사』 권 46, 세가 46

7) 소요산과 불교

소요산에 소요사가 창립된 정확한 연기는 아직 규명되지 못했다. 여러 기록에 자재암의 창건자를 원효로 기록하고 있고, 심지어 요석공주가 원효를 찾아 아들 설총과 함께 소요산 기슭에 머물렀다는 전설이 있지만 정사로서의 사실성(史實性)은 확보되지 못한 형편이다. 그러나 원효개창연기설과는 별도로 고려 중기에는 이미 소요산에 소요사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이 소요사에 관하여는 장을 달리하여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소요사는 현재의 자재암을 포함한 산내의 사역(寺域) 모두를 포괄하고 있었던 것 같다.

현재 자재암의 사력(寺歷)에는 소요사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자재암은 소요사를 구성하는 승당(僧堂)의 하나였을 것이다. 고려시대 소요사의 사찰 규모와 운영 상황 등은 전혀 기록에 남아있지 않으므로 이를 규명할 방법이 없다. 단지 소요사와 관련하여 전해지는 아주 단편적인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주로 당시 소요사에 머물던 승려들의 시이다. 이를 예거하면 다음과 같다.

○ 소성거사를 기리며

이규보(李奎報)

산을 찾아들어 위태로운 다리를 건너고	(循山渡危橋)
발걸음 조심조심 좁은 길을 따라가면	(疊足行線路)
백길 높은 봉우리 아래	(上有百仞嶺)
원효 스님 지으신 작은 절 있네	(曉聖來結宇)
신령스런 발자취 간 곳 없는데	(靈蹤渺何處)
님의 모습 오히려 흰 물줄기에 남았네	(遺形留素鸚)
샘에는 찬 옥수가 고여	(茶泉貯寒玉)
한 모금 물맛이 달고 달아라	(酌飲味如乳)
이 땅에 본래 물이 없어서	(此地舊無水)
중들이 머물 터전 없더니	(釋子難栖住)
원효스님 찾아와 머문 자리에	(曉公一來寄)
바위 틈 사이로 단물 솟았네	(甘液湧巖竇)
나의 스승이 그 발자취를 이어 받아	(吾師繼高躄)
누추한 형편으로 여기 머무네	(短葛此來寓)
사방 겨우 여덟 자 비좁은 방에	(環顧八尺房)
단지 한 켤레의 신발 있을 뿐	(惟有一雙履)
모시는 상좌 하나 찾을 수 없어도	(亦無侍居者)
홀로 묵묵히 세월을 헤아리네	(獨坐度朝暮)
그 모습 원효를 다시 보는 듯하니	(小性復生世)
감히 엎드려 예배하지 않으랴	(敢不排僂僂)

고려의 대문호 이규보가 지은 이 시에는 고려 중기 소요사의 모습이 단편적으로나마 그려져 있다.

사찰 창건 초창기에 지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 시를 검토하면 고려 중기에 이미 소요사의 개창 연기(緣起)에 원효(元曉)가 등장한다는 것과 현재 자재암에 존재하는 샘과 폭포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아직 암자라고 하기에 그 규모가 왜소한 작은 절집과 시자(侍者)를 거느리지 못한 독거승 등이 소재로 등장하고 있어 당시 소요사의 한 단면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고려 후기 소요산을 찾았던 태고 보우 스님은 이규보 당시보다 조금은 규모를 갖춘 절을 노래한다. 보우 스님이 지은 〈백운산가(白雲山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

(전략)

길이 다하는 곳 동쪽으로 열린 암자 있어 (路窮庵門向東開)
주인과 나그네가 말없이 마주 앉았네 (貧主同會無言設)

(중략)

지친 몸 한가로이 백운루에 누웠으니 (困來閑臥白雲樓)
쓸쓸한 솔바람이 귓전에 애닦아라 (松風蕭蕭聲淅淅)
그대여 이곳에서 남은 생을 머무세나 (請君來此保餘年)
배고프면 나물먹고 목마르면 물마시고 (飢有蔬兮渴有泉)

앞에서 본 단칸 암자와는 달리 울도 두르고 누각도 갖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 절집은 인적 없는 깊은 산중에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절 아래 마을은 형성되지 않은 듯하다. 회자(膾炙)되는 유명한 문구 “나물먹고 물마시고” 류의 은둔 가사가 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소요산의 절집을 노래한 태고 보우의 다른 시는 그 내용보다 시의 소재가 관심을 끈다.

유혹의 바람 불어도 흔들림 없고 (藍風吹不動)
협박이 몰아쳐도 더욱 굳세네 (劫火洞逾堅)
깨달은 참 사람 자취 없는 데 (無爲真人住無住)
흰 구름 한 자락이 기웃거린다 (白雲徒自訪門前)

이 시의 제목은 석암(石庵)으로 현재의 자재암 나한전을 뜻한다. 현재는 나한전으로 쓰이지만 당시는 수도처였던 것 같다. 시의 제목인 석암(石庵)이 저자가 임의로 형상을 따라 붙인 명칭인지, 아니면 굴에 조성된 수도처의 당시 명칭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적어도 절에 부속된 시설임에는 틀림이 없고 그렇다면 이 시를 통해서도 이규보 당시보다는 절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아울러 수도자가 상주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석굴에 관한 기록은 보우와 전후하는 시대, 즉 고려 말기의 승려 나옹(懶翁)의 시에도 나오는데 보우의 시와 비교하면 미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소요산에 머물기 몇 해이던가	(自在逍遙經幾劫)
깊은 산 석굴에서 참선하기 좋았네	(深産石窟愛觀空)
그대여 권하노니 어서 속히 돌아가게	(勸君早早回頭去)
높은 산길이니 서둘러야 하지 않겠나	(最上門中驚得通)

이 시의 마지막 구절은 함의(含意)를 어찌 푸느냐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시의 문맥을 따라 해석하면 '절을 찾아온 탐승객에게 날이 저무니 그만 머물고 속히 내려가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소요산에는 수도자들 외에도 절을 찾는 별도의 일반 신도나 탐승객이 존재하였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구절이다.

이처럼 고려시대 중기 이후 소요산은 수도에 적합한 명산으로 자리 잡으며 이후 대찰 소요사로 성장할 기반을 닦아가게 된다. 이에 수려한 소요산의 산세라는 환경적 요인(要因)과 함께 보우, 나옹, 무학, 진각 등 당대의 고승들이 이곳을 찾아 주석하며 수도에 정진하였던 소중한 인연이 작용한 것이라고 하겠다.

제6절 조선시대의 동두천

1. 조선의 건국

1) 급진사대부 세력의 대두

고려 건국의 중추세력이었던 호족은 태조 왕건과 협력하여 통일 대업을 성취하였고 이후 고려의 국가 권력을 실제로 장악하게 된다. 그들 호족 세력이 왕위 계승 분쟁에까지 개입하며 극심한 혼란을 야기하자 광종은 호족 제압을 목적으로 강력한 왕권 강화책을 추진하고 광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왕권 강화 정책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게 되면서 독점적인 지위를 상실하고 점차 귀족 관료 집단으로 정착하게 된다.

한편, 지방의 일정 지역에서 세력을 유지하던 지방의 호족은 지방에 대한 고려 중앙정부의 통제가 강화되면서 역시 독점적인 지위를 상실하고 해당 지역을 관리하는 향리가 된다.

고려가 '무신의 난', '거란과의 전쟁', '여진과의 갈등', '몽골의 내침' 등 국내외의 격변을 겪는 동안 중앙의 귀족집단은 형세를 따라 부침을 거듭하였지만 지방의 향리들은 토지에 바탕을 둔 자신들의 향권을 관리, 수호하면서 꾸준히 중앙 관료로의 신분상승을 도모하고 있었다. 그들이 향리의 범주를 벗어나 중앙의 귀족으로 진출하는 거의 유일한 통로가 바로 과거(科擧)였다. 그리고 과거에 등과 하려면 반드시 유교적 교양을 쌓아야 했으므로 그들은 고려의 기본적인 정치 이데올로기였던 불교 대신에 유교의 경전과 관련 서적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이들 향리와 향리 출신의 관료집단에게 송(宋)의 주자(朱子)로부터 유입된 새로운 학문 성리학은 단순히 유학을 새롭게 해석하는 학리(學理)에 머물지 않고

기존의 불교 이데올로기를 대신하여 새로운 국가 질서를 정립할 수 있는 혁명의 이론이었고 이렇게 성리학을 새로운 시대 이념으로 수용한 사람들을 우리는 사대부(士大夫)라고 부르게 된다.

이들 성리학을 수용한 사대부는 그러나 그들이 취한 정치적 입장을 따라 강운을 달리하는 두 부류로 나뉘게 되는데, 하나는 고려 말의 부정적인 현실을 개혁하되 그 개혁을 고려라는 국가 체제 안에서 진행하고 추진하자는 온건파 사대부 세력과, 또 하나는 현실을 개혁하는 한계를 뛰어 넘어 성리학적 이념을 구현하고 구체화하는 새로운 국가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믿는 급진 사대부 세력이 있었다. 온건 개혁파 사대부는 정몽주, 이색, 길재 등이 이끌었고 급진파는 정도전, 조준 등이 주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성리학자, 사대부들은 아무리 급진적이라 하여도 근본적으로 문인(文人)이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처음부터 그들이 꿈꾸는 성리학적 국가체제를 쟁취하기 위한 무력이 없었다. 그리고 군사력이 없으면 혁명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과 동맹하여 자신들의 꿈을 성취시켜줄 군벌을 찾았는데 그가 바로 이성계였다. 이성계는 동북 출신이라는, 그리고 귀순계급 출신이라는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 화가위국(化家爲國)할 수 있는 지지세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 급진사대부 세력은 구체적인 혁명 무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신흥 이념과 신흥 군벌은 마침내 1392년 500년 고려 왕조를 타격하여 멸망시키고 마침내 혁명을 성공시켜 새 왕조 조선(朝鮮)을 건국하는 위업을 완성하게 된다. 그러나 이 두 세력의 결합은 성리학적 이념을 정치 이데올로기로 하는 새로운 국가 조선의 건국을 가능하게 하는 현실적 대안이기는 하였으나 동시에 장차 조선을 신권(臣權)과 왕권(王權)의 다름이라는 긴 갈등 구조로 몰아넣는 일이기도 하였다.

2) 조선의 건국과정

고려 말, 고려를 둘러싼 국제 질서는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

쇠퇴하는 원(元) 제국을 북방으로 밀어내는 주원장(朱元璋)의 신흥 명(明) 세력의 대두가 그 소용돌이의 핵심이었다. 중원을 위시한 동아시아 전체가 추이를 주목하며 자신의 거취를 가늠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려가 먼저 친명을 표방하며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공민왕의 반원 개혁정치는 자주성의 회복을

목표로 그렇게 추진되었다.

몽골 간섭기 고려의 왕들은 몽골의 공주와 결혼하며 자신의 왕위와 왕권을 보장받았다. 그러나 몽골 공주와의 결혼은 동시에 고려에 대한 몽골의 간섭을 보다 노골화하는 계기가 되었고 친정의 위세를 앞세운 몽골 공주들의 행태는 종종 고려 왕실의 내부 분란으로 연결되기가 일수였다. 특히 몽골의 황실과 연결된 일부 부원배(附元輩)들의 행패는 고려 내부의 질서와 왕권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고질이 되고 있었다.

공민왕은 이를 개혁하여 안으로는 왕권을 확립하고 밖으로는 고려의 자주성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그는 기철(奇徹)을 중심으로 한 부원(附元) 세력을 척결하고 고려의 관직(官職)을 회복하며 상실했던 영토(領土)를 회복하였다.

그러나 그의 개혁 정치는 곧 기득권 상실에 반발하는 구 세력의 반발에 부딪혔고, 특히 그가 기용하여 개혁의 실무를 총괄하게 하였던 신둔(辛旽)에 대한 원망(怨望)이 막심하여 결국은 공민왕이 불의의 사태로 시해(弑害)되는 비극으로 종결되었다. 거기에 더하여 왜구(倭寇)와 홍건적(紅巾賊)의 거듭되는 침구(侵寇)는 상황을 극한으로 몰고 가고 있었다. 이 극심한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시기에 특히 외적(外賊)의 침탈(侵奪)을 수습해가는 일부 무장(武將)에 대한 신망(信望)이 결국은 군벌(軍閥)의 대두로 연결되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이성계(李成桂)였다.

이성계(李成桂)는 고려 동북 출신의 귀순인(歸順人)이었다. 대대로 동북 여진의 천호(千戶)를 지내던 그의 집안¹⁾은 그의 아버지 대에 이르러 고려에 귀순하였고 이후 최영(崔瑩) 등의 휘하에서 왜구(倭寇)와 홍건(紅巾) 적당(賊黨)을 토벌하는 여러 전투에 참가하여 뛰어난 공적을 세웠다. 특히 왜구를 섬멸한 황산(荒山) 싸움은 그의 무명(武名)을 천하에 떨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승승장구(乘勝長驅)하는 그를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었다. 급진파 사대부의 지도자 정도전(鄭道傳)이었다.

공민왕 사후 왕위를 계승한 우왕(禡王)은 최영(崔瑩)과 협의하여 중국에 출병하려 하였다. '요동(遼東) 정벌(征伐)'이라 불리는 이 출병은 공민왕 사후 고려의 친원 회귀(回歸)를 염려한 명이 공민왕이 회복한 영토의 중국 반환을 요구하며 고려를 압박한데 대한 반발이기는 하였으나, 그보다는 공민왕의 반원친명 정책을 다시 친원반명으로 되돌리려는 정책 기조에서 나온 것이었다. 비록 몽골 세력을 장성 밖으로 몰아내었다고는 하나 몽골이 북원(北元)을 칭하며 세력을 모아 다시 중원에 진출하려는 상황을 염두에 둔 포석이었다. 그러나 우왕(禡王)과

1) 학위논문 '몽(蒙)·원(元)나라 기(期) 옷치긴(家)의 동북만주 지배를 저술한 윤은숙 박사는 "13~14세기 동북 만주 지역을 원나라의 옷치긴(Otchigin·翰赤斤) 왕가가 지배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칭기즈칸이 1211년 자신이 정복한 영토를 여러 동생들에게 분봉했을 때 막내동생 옷치긴에게 이 지역을 다스리게 했던 것. 옷치긴가는 유목과 농경이라는 경제 인프라를 기반으로 이 지역에서 독립적인 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이들의 지배 영역 안에 전주이씨 가문의 본거지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조선왕실의 태조 이성계의 고조부 이안사(李安社·목조)는 전주를 떠나 두만강 유역인 오동(韓東) 지역에 자리잡은 뒤인 1255년 5000호 천호장(千戶長)과 다루가치(원나라의 지방관리)의 지위를 원나라 국왕으로부터 하사 받았다.

천호장은 몽골족이 아닌 사람이 임명되는 일이 매우 드문 고위 관리로, 사실상 옷치긴가로부터 승인 받은 군벌세력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윤 박사는 말했다. 1290년 옷치긴가의 내분으로 이안사의 아들 이행리(李行里·익조)는 오동의 기반을 상실하고 함흥평야로 이주했지만 천호장과 다루가치의 직위는 이행리의 증손자 이성계 때까지 5대에 걸쳐 세습됐다.

최영(崔瑩)이 추진하는 이런 대외정책은 정통 중국왕조 명의 증원회복과 명제국이 주도하는 화이(華夷) 질서의 구축을 천명(天命)으로 인식하는 성리학자들에게는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불순(不順)이었다. 이미 급진 사대부 세력과 결탁한 이성계가 회군(回軍)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리고 이성계의 회군 성공은 고려왕조의 멸망을 구체화하는 시발점이기도 하였다.

급진 사대부 세력은 회군에 성공하여 우왕과 최영을 제거함으로써 정치의 실권을 장악하였다. 그리고 우왕과 그의 뒤를 이은 창왕(昌王)을 공민왕의 혈통이 아닌 신돈의 혈통으로 규정하여 이를 고려 왕실에서 축척(黜陟)하는 이른바 '폐가입진(廢假立眞)'을 통하여 고려 왕권을 부정하였고, 전시과(田柴科) 체제를 과전(科田) 체제로 바꾸어 기존의 귀족(貴族)세력의 경제권을 박탈해냄으로써 실질적인 새 왕조 개창의 기반을 닦았다.

그러나 만만하다고 판단되어 허수아비 국왕으로 추대되었던 공양왕(恭讓王)의 저항이 대단하였다. 그는 자신의 손발이 묶이고 권력의 끈이 모두 잘려버린 상황에서도 왕권과 사직을 지키기 위한 저항을 결코 멈추지 않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혁명세력과 싸웠다. 한양으로의 천도를 추진하기도 하고 친 이성계파 인물들을 주요 포스트에서 해임시키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기도 하며 혁명파가 추진하는 정책 변혁에 힘을 다하여 저항하기도 했다. 그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나서도 그는 자신이 왕위에서 쫓겨나는 그날에도 이성계와 동맹을 맺어 왕위와 사직을 지켜내려는 마지막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이성계가 사냥을 하다가 낙마하여 중상을 입은 것을 계기로 왕조 수호파의 마지막 대반격이 시작되었다. 과전법 추진자들을 축척(黜陟)하여 귀양을 보내고 이를 반전의 기회로 삼고자 하였으나 이성계가 급히 귀경하고 수호파의 중심 정몽주(鄭夢周)가 격살되자 이제 왕조의 몰락은 기정사실로 되고 말았다. 1392년 8월 혁명파는 대비 안 씨로부터 공양왕 폐위교서를 받아내고 당일 이성계의 잠저(潛邸)로 몰려가 그를 새 국왕에 추대함으로써 왕씨 왕조는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

이성계의 즉위로 고려는 실질적으로 멸망하였으나, 아직 이성계는 고려의 왕, 정확히는 고려의 권지국사(權知國事)였다. 새 왕조가 <조선(朝鮮)>이라는 국명을 사용한 것은 그 후 명에 주청하여 조선을 국명으로 사용하라는 칙허(勅許)를 받은 후의 일이었다. 화이관(華夷觀)에 입각하여 명 중심의 국제 질서에 스스로 편입하는 이른바 사대(事大) 외교의 시작이었다.

2. 한양 천도와 동두천

1) 한양 천도

개국 초부터 추진되던 천도(遷都)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새 수도의 위치가 한양(漢陽)으로 결정되면서 양주는 또 다시 대 변혁을 맞이하게 된다. 옛 양주 즉 한양부가 새로이 수도로 결정되면서 양주는 그 위치를 변동하여 옛 전주(見州)지역으로 옮겨가고 읍격이 새로이 차정(差定) 되는 동시에 관할 지역 역시 상당한 변화를 맞게 된다.

먼저, 한양으로의 천도 과정을 살펴보자.

조선의 건국은 이성계가 백관의 추대를 받아 왕위에 오른 1392년이었지만 그때는 아직 국호도 예전 왕조 그대로 <고려>였고, 수도 역시 여전히 개성이었다. 수도를 한양으로 옮기는 일은 여러 대신들의 찬반이 있었으나 보다 중요한 문제는 새로운 도읍의 면모를 갖추어 궁실을 포함한 여러 시설을 갖추는 일이었다. 따라서 이에 따르는 절차가 필요하였다. 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 명령을 내려 한양(漢陽)으로 도읍(都邑)을 옮기게 하였다.²⁾

삼사 우복야(三司右僕射) 이염(李恬)을 한양부(漢陽府)에 보내어 궁실(宮室)을 수축(修葺)하게 하였다.³⁾

도평의사사에서 상신(上申)하였다.

"좌정승 조준·우정승 김사형 등은 생각하건대, 옛날부터 임금이 천명을 받고 일어나면 도읍을 정하여 백성을 안주시키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요(堯)는 평양(平陽)에 도읍하고, 하(夏)나라는 안읍(安邑)에 도읍하였으며, 상(商)나라는 박(亳)에, 주(周)나라는 풍호(豐鎬)에, 한(漢)나라는 함양(咸陽)에, 당나라는 장안(長安)에 도읍하였는데, 혹은 처음 일어난 땅에 정하기도 하고, 혹은 지세(地勢)의 편리한 곳을 골랐으나, 모두 근본 되는 곳을 소중히 여기고 사방을 지정하려는 것이 아님이 없었습니다. 우리 나라는 단군 이래로 혹은 합하고 혹은 나누어져서 각각 도읍을 정했으나, 전조 왕씨가 통일한 이후 송악에 도읍을 정하고, 자손이 서로 계승해 온 지 거의 5백 년에 천운이 끝이 나서 자연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는 큰 덕과 신성한 공으로 천명을 받아 의젓하게 한 나라를 두시고, 또 제도를 고쳐서 만대의 국통(國統)을 세웠으니, 마땅히 도읍을 정하여 만세의 기초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윽이 한양을 보건대, 안팎 산수의 형세가 훌륭한 것은 옛날부터 이름난 것이요, 사방으로 통하는 도로의 거리가 고르며 배와 수레도 통할 수 있으니, 여기에 영구히 도읍을 정하는 것이 하늘과 백성의 뜻에 맞을까 합니다."

왕이 분부하였다.

"상신한 대로 하라."⁴⁾

2) 태조 1년 8월 13일 (임술)

3) 태조 8년 8월 15일 (갑자)

4) 태조 3년 8월 24일 (신묘)

- 5) 태조 3년 9월 9일 (병오)
- 6) 태조 3년 9월 9일 (병오)
- 7) 태조 3년 9월 9일 (병오)

판문하부사 권중화(權仲和)·판삼사사 정도전·청성백 심덕부·참찬문하부사 김주·좌복야 남은·중추원 학사 이직 등을 한양에 보내서 종묘·사직·궁궐·시장·도로의 터를 정하게 하였다. 권중화 등은 전조 숙왕(肅王) 시대에 경영했던 궁궐 옛터가 너무 좁다 하고, 다시 그 남쪽에 해방(亥方)의 산을 주맥으로 하고 임좌병향(壬座丙向)이 평탄하고 넓으며, 여러 산맥이 굽어 들어와서 지세가 좋으므로 '여기를 궁궐터로 정하고', 또 그 동편 2리쯤 되는 곳에 감방(坎方)의 산을 주맥으로 하고 임좌병향에 종묘의 터를 정하고서 도면을 그려서 바치었다.⁵⁾

한양으로 서울을 옮겼다. 각 관청의 관원 2명씩은 송경에 머물러 있게 하고, 문하시랑 찬성사 최영지(崔永址)와 상의문하부사 우인열(禹仁烈) 등으로 분도평의사사(分都評議使司)를 삼았다.⁶⁾

판삼사사 정도전(鄭道傳)에게 분부하여 새 궁궐의 여러 전각의 이름을 짓게 하니, 정도전이 이름을 짓고 아울러 이름 지은 의의를 써서 올렸다. 새 궁궐을 경복궁(景福宮)이라 하고, 연침(燕寢)을 강녕전(康寧殿)이라 하고, 동쪽에 있는 소침(小寢)을 연생전(延生殿)이라 하고, 서쪽에 있는 소침(小寢)을 경성전(慶成殿)이라 하고, 연침(燕寢)의 남쪽을 사정전(思政殿)이라 하고, 또 그 남쪽을 근정전(勤政殿)이라 하고, 동루(東樓)를 응문루(隆文樓)라 하고, 서루(西樓)를 응무루(隆武樓)라 하고, 전문(殿門)을 근정문(勤政門)이라 하며, 남쪽에 있는 문[午門]을 정문(正門)이라 하였다.(후략)⁷⁾

실록의 기록을 보면 1392년 7월 개국과 함께 시작된 천도 논의는 격렬한 찬반 토론을 거쳐 선지된 후 다시 궁궐을 비롯한 여러 시설과 성곽을 건설하여 완전히 천도까지를 마치게 된 것이 태조 4년의 일이니 무려 4년이 넘는 세월이 소요된 국가적 사업이었다.

2) 양주의 변천

고려시대에는 한양을 양주라 불렀다. 조선이 개국되고 한양이 수도로 결정되어 도성 및 궁궐 건립이 끝나 천도가 이루어지자 양주는 소멸될 처지에 몰렸다. 조선은 이에 양주를 존속하기로 결정하고 그 이름을 옛 견주일대에 붙였다. 새로운 양주의 시작이었다.

태조는 한양 정도 후 한양의 양주 읍치를 동촌(東村) 대동리(大同里)로 옮겼다가 다시 고주내(古州內)로 옮겼다. 이는 양주의 중심이 견주(見州) 지역으로 이동한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조선시대 새로운 양주의 개막을 뜻하기도 하였다.

양주는 한양 정도 이전 전국의 25개 처의 계수관(界首官) 중 하나였고, 이는 세종 대에 이르러 전국의 계수관(界首官)이 37개로 증액될 때에도 양주도호부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유지되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따르면 세종 대 경기도는

1목(牧), 8도호부(都護府), 6군(郡), 20현(縣)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중 양주도호부에는 원평도호부(原平都護府), 고양현(高陽縣), 교하현(交河縣), 임진현(臨津縣), 적성현(積城縣), 포천현(抱川縣), 가평현(加平縣)이 영속(領屬)되어 있었다. 그러나 고려시대 이래의 이 계수관(界首官) 제도는 점차 도제(道制)가 확립되고 군정(軍政)이 분화해가면서 약화하더니 세조(世祖)대에 이르러 진관(鎭管)체제가 확립되면서 소멸되고 말았다.

양주는 조선 태조 3년(1394) 한양 지역에서 견주로 옮겨 설치되고, 1397(태조 6)년에 양주부(楊州府)로 승격되었다가, 1413(태종 13)년에 양주도호부(楊州都護府)로 다시 1466(세조12)년에 양주목(楊州牧)으로 승격되어 성종(成宗)대에 확정된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양주가 목(牧)으로 규정되게 된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나타나는 양주의 속현 중 견주(見州)와 사천현(沙川縣)은 폐현(廢縣)되어 양주에 흡수 통합되고 풍양현(豐壤縣)만이 속현으로 잔존하게 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나타나는 양주의 행정구역은 다음과 같다.

고주내(古州內)	동쪽으로 처음이 10리, 마지막이 52리	양주시
주내(州內)	읍내(邑內)	양주시
어등산(於登山)	동쪽으로 처음 10리, 마지막이 30리	양주시
별비곡(別非谷)	동남쪽으로 처음이 30리, 마지막이 50리	의정부시
진벌(榛伐)	동쪽으로 처음이 50리, 마지막이 70리	남양주
진관(眞官)	동남쪽으로 처음이 40리, 마지막이 60리	남양주
와곡(瓦谷)	동남쪽으로 처음이 60리, 마지막이 80리	남양주
상도(上道)	동남쪽으로 처음이 70리, 마지막이 100리	남양주
하도(下道)	동남쪽으로 처음이 80리, 마지막이 100리	남양주
둔야(屯夜)	처음이 15리, 마지막이 30리	의정부시
구지(龜旨)	동남쪽으로 처음이 40리, 마지막이 70리	남양주
망우리(忘憂里)	동남쪽으로 처음이 20리, 마지막이 60리	구리시
해등(海等)	남쪽으로 처음이 30리, 마지막이 50리	도봉구
광석(廣石)	처음이 25리, 마지막이 10리	양주시
천천(泉川)	북쪽으로 처음이 10리, 마지막이 20리	양주시
현내(縣內)	남쪽으로 처음이 30리, 마지막이 45리	남양주시

산내(山内)	동북쪽으로 처음이 50리, 마지막이 60리	양주시
영근(嶺斤)	북쪽으로 처음이 60리, 마지막이 80리	포천시
회암(檜岩)	동쪽으로 처음이 20리, 마지막이 30리	양주시
접동(接洞)	동쪽으로 처음이 40리, 마지막이 50리	남양주시
건천(乾川)	동남쪽으로 처음이 40리, 마지막이 60리	남양주시
금촌(金村)	동남쪽으로 처음이 60리, 마지막이 70리	남양주시
시북곡(柴北谷)	동남쪽으로 처음이 20리, 마지막이 40리	의정부시
미음(美音)	동남쪽으로 처음이 50리, 마지막이 60리	남양주시
고양주(古楊州)	동남쪽으로 처음이 60리, 마지막이 80리	광진구
노원(蘆原)	남쪽으로 처음이 40리, 마지막이 50리	노원구
백석(白石)	서쪽으로 처음이 10리, 마지막이 40리	양주시
석적(石積)	서북쪽으로 처음이 30리, 마지막이 40리	양주시
신혈(神穴)	서남쪽으로 처음이 30리, 마지막이 60리	고양시
진담(陳沓)	북쪽으로 처음이 20리, 마지막이 40리	양주시
이담(伊淡)	북쪽으로 처음이 30리, 마지막이 50리	동두천시
청송(靑松)	북쪽으로 처음이 50리, 마지막이 80리	연천군

따라서 『신증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되던 조선 초기의 양주는 현재의 양주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동두천시, 연천군과 고양시의 일부, 그리고 서울 북부지역을 포괄하는 상당한 규모였음을 알 수 있다.

양주의 행정 조직에 동두천은 이담(伊淡)으로 나타난다. 별비곡(別非谷), 시북곡(柴北谷), 둔야(菴夜), 미음(美音) 등 당시 양주 지역의 명칭 상당수가 향찰(鄕札)로 표기되었던 것처럼, 이담(伊淡) 역시 당지의 지명을 한자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향찰이었다.

이담(伊淡)으로 표기된 동두천 지역 명칭에서 주목할 것은 이 명칭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담(淡)>이라는 표기이다. 주지하는 바 이는 ‘물이 맑다’는 뜻으로 물(水)에 연관된 지명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담(伊淡)’은 무슨 뜻일까?

이에 관련하여 우리는 두 가지 접근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하나는 동두천의 고려시대 지명인 ‘사천(沙川)’이다. 사천(沙川)은 우리말 ‘모래내’의 한자 표기이다. 따라서 물과 관련된 지명이기는 하지만 이를 ‘이담(伊淡)’으로 표기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실제로 동두천 지역에는 지금도 ‘모랫말’이라는 지명이 별도로 남아있고 사천(沙川)이 이미 현지 지명의 한역(漢譯)이므로 기왕의 한역 지명을 두고 다시 굳이 향찰을 사용하면서까지 이담(伊淡)이

라는 지명을 사용할 것 같지는 않다.

또 하나의 방향은 '못골'이라는 현지 지명이다. 이 지명은 현재 동두천시 생연동 시청 일대를 부르는 우리말 지명으로 일명 '연못골'인데 이곳의 한자 표기가 바로 '생연동(生淵洞)'이다. '맑은 연못'이라는 뜻인데, 다른 문헌에는 역시 '연못'이라는 의미의 '일담(一潭)'으로 나타나기도 한다⁸⁾. '못골'의 한자 표기가 '생연(生淵)'이나 '일담(一潭)'인 것이다.

따라서 '이담(伊淡)'을 '맑은 물'이라고 해석하면 이 역시 '못골'의 또 다른 한자식 표기로 추론할 수 있다. 결국 이담(伊淡)은 현재의 생연동 일대로서 당시 동두천 지역의 다른 지명, 즉 가정자(可停子), 안흥(安興), 북창(北倉), 모래말 등에서 이 지역을 부르는 대표 지명으로 취택(取擇)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양주의 군정(軍政)

조선 초기에는 오위(五衛)를 중앙군으로 하여 오위도총부(五衛都總府)가 이를 관장하고 점차 군정을 행정에서 분리하면서 계수관제는 소멸되어 간다.

세조(世祖)대에 이르러 전국의 지방군은 군익도체제(軍翼道體制)로 확정되어 각 도(道)는 몇 개의 군익으로 나뉘고 이 군익을 다시 각각 중(中), 좌(左), 우(右)의 3익(翼)으로 나누어 각 익(翼)에 중추가 되는 거진(巨鎭)을 설정한 후 인근 읍(邑)을 통솔하게 하였다.

경기의 경우 도를 광주도(廣州道), 양주도(楊州道), 부평도(富平道)의 3군익(軍翼)에 별도의 독진(獨鎭)을 설치하였는데 이를 도시(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광주도(廣州道)	중익	광주(廣州), 이천(利川), 양근(楊根), 양지(陽智)
	좌익	여흥(驩興), 천령(川寧), 지평(砥平), 음죽(陰竹)
	우익	안성(安城), 진위(振威), 양성(陽城), 용인(龍仁), 죽산(竹山)
양주도(楊州道)	중익	양주(楊州), 원평(原平), 포천(抱川), 적성(積城), 가평(加平)
	좌익	삭녕(朔寧), 마전(麻田), 영평(永平), 연천(漣川)
	우익	풍덕(豊德), 장단(長湍), 임진(臨津), 임강(臨江)
부평도(富平道)	중익	부평(富平), 인천(仁川), 양천(陽川), 금천(衿川), 고양(高陽)
	좌익	수원(水原), 남양(南陽), 안산(安山), 과천(果川)
	우익	김포(金浦), 교하(交河), 통진(通津)
독진(獨鎭)		개성(開城), 강화(江華), 교동(喬洞)

8) 천주교 순교자 홍성원 일가의 출신지가 양주 일담리로 되어 있고 <동두천대관>에는 동두천 지역의 조선 전기 지명이 (일담면)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후 다시 진관(鎭管)체제가 자리 잡으면서 이 군익(軍翼)체제를 대신하게 되는데 진관(鎭管)체제는 도(道)와는 별개의 각지 거진(巨鎭)을 중심으로 해당 거진(巨鎭)이 근읍(近邑)들을 통할하는 체제인데 이는 특히 왜구(倭寇) 등 해상으로부터의 불시(不時) 외침(外侵)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진관체제 아래서의 경기에는 5개의 거진(巨鎭)이 설정되었고 양주는 이 5개의 경기 거진 가운데 하나로 인근 고을의 군정(軍政)을 관할하며 비상 사태에 대비하는 거점이 되었다. 진관체제 아래에서 양주가 관할하던 근읍은 마전(麻田), 영평(永平), 연천(漣川), 포천(抱川), 적성(積城), 가평(加平), 교하(交河), 고양(高陽)이었고 양주의 군정(軍丁)은 시위군(侍衛軍) 133명, 선군(船軍) 132명으로 도합 265명이 군액(軍額)으로 책정되어 있었다.

한편,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 따르면 양주의 간전(墾田) 결수(結數)는 모두 15,190결(結)로서 이는 수원(水原)의 19,154결(結), 광주(廣州)의 16,269결에 이은 도(道) 전체의 3위에 해당하는 토지 결액(結額)을 보유하고 있어 대읍(大邑)으로의 면모를 잘 나타내고 있다.

역시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의 기사에 따르면 당시 경기도 전체의 호구(戶口)는 20,892호(戶), 50,352구(口)였는데 이 중 양주는 1,481호(戶), 2,728구(口)로 수원, 강화, 광주에 이은 4위의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정치가 안정되고 수도 한양으로의 인구 집중현상이 일어나면서 양주의 인구는 세종(世宗)대의 1,481호(戶)에서 영조(英祖)대에는 11,254호(戶)로, 구(口) 역시 2,726구(口)에서 53,497구(口)로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조선시대에 걸쳐 다음의 경기 호구(戶口) 변동 사항을 참고할 수 있다.

시기	호(戶)	구(口)
1406(태종6년)	20,727	38,238
세종대 (세종실록지리지)	20,892	50,352
1648(인조26년)	26,043	81,244
1657(효종8년)	42,050	132,947
1669(현종10년)	120,058	546,237
1717(숙종43년)	126,668	566,120
1753(영조29년)	157,236	642,012
1807(순조7년)	164,351	674,627
1852(철종3년)	158,000	672,603
1904(광무8년)	170,424	672,636

조선 시대 동두천의 인구는 1757년 홍양한(洪良漢)의 주청으로 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에 나타난바 호(戶) 427, 남구(男口) 1,046, 여구(女口) 1,215계 2,261구(口)로써 이는 당시 양주의 戶 11,254, 口 53,497 중 백석, 별비곡 구지에 이어 4위에 해당하는 규모가 된다.

한편, 동두천 지역의 교통로는 서울에서 원산, 경흥에 이르는 삼방로(三防路)였는데, 이 삼방로 상에 이담원(伊淡院)이 설치되어 있었다. 동두천을 지나자마자 대탄(大灘), 즉 한탄나루를 지나고 이 길은 결국 금강산, 원산 지역을 거쳐 함경도 끝단 서수라에 이르게 되어 있었다.⁹⁾

이와 함께 조운(漕運)을 위한 창고가 동두천지역의 조세를 모으고 수송할 목적으로 설치되어 이를 북창(北倉)이라 하고 이 북창이 위치하였던 지역을 현재도 '창말'이라 부르게 된다. 기록에는 사무실이 4칸, 창고 30칸의 규모였다고 되어 있다.¹⁰⁾

이와 함께 목득선(穆得善), 목시선(穆是善), 그리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아 아마도 여자로 추정되고 문장의 내용으로 보아 열녀로 추정되는 목 씨(穆氏)와 황 씨(黃氏)의 정문(旌門)이 동두천에 위치하고 있다고 되어 있으나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¹¹⁾

9) 삼방로는 경흥대로의 지로로서 서울에서 출발하여 의정부에서 길이 나뉘어 포천, 철원길과 동두천길이 되고 동두천길은 다시 비선거리에서 나뉘어 가래비, 상수길과 동두천길이 된다.

10) 北倉 在伊淡面坐起廊四間庫舍三十間

11) 睦得善 睦是善皆旌門在伊淡面
...~黃氏睦氏皆旌門在伊淡面

3. 태조의 소요산 주필

1) 태조 소요산 주필의 배경

태조는 조선 창업 과정에서 성리학을 전공하고 이를 정치 이념으로 추종하는 신진 사대부(士大夫)세력과 협조하게 된다. 정도전(鄭道傳), 조준(趙浚) 등으로 대표되는 이들 사대부 세력은 이념상 숭유억불(崇儒抑佛)과 함께 성리학적 가치의 구현, 친명사대(親明事大)외교를 추구하는 한편 정치는 신권(臣權) 중심의 운영을 핵심으로 추구하고 있었다.

최영과 함께 왜구와 홍건적을 격파하며 고려 말의 대표적 군벌(軍閥)로 성장한 이성계(李成桂)는 동북(東北)의 원(元) 관리(官吏) 출신이라는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던 중 정도전의 적극적인 교섭으로 이들 급진파 사대부들과 제휴하여 결국 새 왕조 개창의 길로 나서게 된다. 아울러 개국 이후 사대부 세력은 그

12) 태조 1년 8월 20일(기사)

들의 신념과 소신대로 신권 중심의 정치를 펼치게 되고 결국 이는 개국의 또 다른 한 축이었던 이방원 등 군벌 세력 중심의 왕권파(王權派)와 충돌하게 되는 것이다. 서로의 입장이 상이하였던 이들 왕권파와 신권파는 특히 명과의 외교 갈등과 왕위 계승자 선정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게 된다. 특히 후계자 문제는 당시 정국의 날카로운 현안으로서 양측이 격돌하는 뇌관이었다.

신권파는 강한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갖춘 이방원이 왕위를 계승할 경우 자신들의 입지가 약해질 것을 염려하여 그를 후계자에서 제척(除斥)하려 하였다. 조선 개국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정안군 이방원을 비롯한 한 씨 소생 왕자 전원이 개국공신 책록에서 제외된 것이 이를 입증한다. 한편 신덕왕후 강씨는 태조 이성계의 향처인 신의왕후 한 씨가 조선 개국 전에 세상을 떠났으므로 비록 왕비에 추존되었다하나 생전에 왕비가 아니었으므로 정식 왕비인 자신의 소생이 왕위를 계승하여야 한다는 논리로 역시 이방원 등 한 씨 소생 왕자들을 후계에서 제척하려 하였으므로 여기에서 신권파 공신 관료들과 신의왕후 강씨의 양파 세력의 합세가 이루어져 적극적으로 태조를 설득하므로 마침내 신덕왕후 소생인 8남 방석(芳碩)이 세자에 책봉되었고 이는 한 씨 소생 왕자들과 왕권파에게 위기의식을 불러오게 된다.

—어린 서자(庶子) 이방석(李芳碩)을 세워서 왕세자로 삼았다. 처음에 공신(功臣) 배극렴(裨克廉)·조준(趙浚)·정도전(鄭道傳)이 세자를 세울 것을 청하면서, 나이와 공로로써 청하고자 하니, 임금이 강 씨(康氏)를 존중하여 뜻이 이방번(李芳蕃)에 있었으나, 이방번은 광망(狂妄)하고 경솔하여 불품이 없으므로, 공신들이 이를 어렵게 여겨, 사적으로 서로 이르기를,

“만약에 반드시 강 씨(康氏)가 낳은 아들을 세우려 한다면, 막내 아들이 조금 낫겠다.”라고 하더니, 이때에 이르러 임금이,

“누가 세자가 될 만한 사람인가?”라고 물으니, 장자(長子)로서 세워야만 되고,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서 세워야만 된다고 간절히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극렴이 말하기를 “막내 아들이 좋습니다.”하니 임금이 드디어 뜻을 결정하여 세자로 세웠다.¹²⁾

세자 책봉 이후 정도전 등은 더욱 병권을 강화하면서 특히 사병(私兵)을 혁파하는 일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었다. 한 씨 소생 왕자들의 세력을 꺾고 신권파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였다.

한편, 정안군(靖安君) 이방원(李芳遠)은 당시 조선에 외교적 압력을 가해오던 명(明)에 대한 반발로 정도전이 주도하는 군사훈련이 강화되고 병력을 모으는 일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이방원은 신권파의 병력 증강이 바로 자신을 제거

하기 위한 거사준비의 일환으로 판단하고 모든 정보력을 동원하여 면밀히 사태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침 태조의 병환이 깊어지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왕자들을 입궁시키라는 지시가 내려오자, 정안군 이방원은 이를 자신들을 제거하기 위한 신권파의 행동으로 이해하고 자신을 비롯한 왕권파의 사병(私兵)과 마침 상번(上番)하여 있던 안산군수 이숙번의 군대를 동원하여 군사정변을 일으킨다.

일명 무인정사(戊寅靖社)라고 일컫는 이른바 '제1차 왕자의 난'이다. 왕권파는 이 정변을 통해 정권을 장악하고 강 씨 소생의 두 왕자 의안대군(宜安大君)과 무안대군(撫安大君), 부마 이제(李濟)를 살해하고 정도전(鄭道傳), 심효생(沈孝生), 남은(南閔)등 신권파를 숙청하는 한편 태조의 왕위를 한 씨 소생 왕자인 2남 방과(芳果)에게 양위하게 한다. 그리고 새로이 정권을 장악한 왕권파는 수도를 다시 개경으로 환도(還都)하게 된다.

새 왕조 창업에 성공하면서 화가위국(化家爲國)에 성공하였던 태조는 왕자의 난으로 왕위를 물려주고 아들들을 죽음에 몰아넣은 것도 모자라 진력(盡力)을 다하여 개창한 수도 한양과 궁궐을 버리고 구도(舊都) 개경으로 돌아가는 일은 차마 감당할 수 없는 수치이며 굴욕이기도 했다. 결국 태조는 개경에 머물지 못하고 각처를 떠도는 유랑을 시작한다.

다음의 표는 왕자의 난 이후 왕위를 떠난 태조 이성계가 개경 환도 후 유랑하는 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일시	상황
정종 1년 3월 9일	개경으로 환도 이성계는 궁에 머무르지 않고 변안렬의 옛집에 나감
정종 1년 3월 13일	다시 윤희의 옛집으로 옮김
정종 1년 3월 13일	관음굴에 감, 능엄 법석을 베풀
정종 1년 4월 1일	평주 온천에 감, 16일에 돌아옴
정종 1년 8월 26일	낙산사에서 능엄 법회를 베풀
정종 1년 10월 19일	한양에 감
정종 1년 11월 22일	한양에서 개경으로 돌아옴
정종 1년 12월 1일	성가산 관음굴에 감
정종 2년 4월 18일	정릉사 탑전에서 불사를 베풀
정종 2년 10월 15일	한양에 감
정종 2년 10월 26일	한양에서 오대산 낙산사로 떠남
정종 2년 11월 13일	오대산에서 개경으로 돌아옴

태종 1년 3월 11일	보개산에 감
태종 1년 3월 22일	보개산에서 개경에 돌아옴
태종 1년 윤 3월 1일	한양에 감
태종 1년 윤 3월 11일	한양에서 금강산으로 떠남, 이후 안변 석왕사에 머무름
태종 1년 4월 28일	안변에서 돌아옴
태종 1년 9월 27일	평주 온천에 감
태종 1년 10월 17일	평주 온천에서 개경에 돌아옴
태종 1년 11월 26일	소요산에 감 소요사에 머무름
태종 2년 3월 9일	소요사 아래에 별전을 짓고 계속 머무름
태종 2년 4월 28일	소요산에서 한양으로 감
태종 2년 5월 1일	한양에서 다시 소요산으로 감
태종 2년 6월 9일	소요산에서 양주 회암사로 감
태종 2년 11월 1일	회암사에서 동북면으로 떠남, 조사의의 난 시작

위의 자료에 나타나는 것처럼 태조는 개경으로 환도한 지 불과 사흘 만에 그나마 궁이 아닌 옛 신하들의 집에 머물다가 바로 개경을 떠나 유람을 시작한다. 오대산과 금강산, 안변 등지를 떠돌며 약 3년의 세월을 보낸 태종 1년 11월 26일 일단 소요산에 정착하게 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때 태조가 함흥에 머물며 태종이 보낸 차사(差使)들을 사살(射殺)하는 소위 함흥차사(咸興差使) 사건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나 위의 표에 정리된 것처럼 이 시기에 태조는 함흥에 주필(駐蹕)한 적이 없었고, 따라서 함흥차사(咸興差使)는 사건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었다.

이처럼 태조는 왕위를 내어주고 복잡한 정치 현장을 떠나 산천의 경계를 즐기며 한가로이 유람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 속내는 대단히 복잡하였다. 태조는 여전히 자신을 왕위에서 몰아내고 동생들을 죽인 왕자의 난 당사자들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있었다.

따라서 자신의 주필지에 찾아오는 태종이나 차사들에게 너그럽게 대하지 않았으며 종종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기에 주저하지 않았다.

- 백운사(白雲社)의 늙은 중 신강(信剛)이 태상왕을 알현하니, 태상왕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이방번(李芳蕃)·이방석(李芳碩)이 다 죽었다. 내가 비록 잊고자 하나 잊을 수가 없구나!" 하니¹³⁾

- 임금이 태상왕을 소요산에 가서 뵈었다. 임금이 조용히 헌수(獻壽)하였다. 태상왕과 임금은 술이 거나하자 시(詩)를 읊고 화답하였다. 시연(侍宴)하였던 종친(宗親)과 성석린(成石璘) 등이 태상왕의 환가(還駕)를 극력 청하였다. 또 사퇴기를, "염불하고 불경을 읽음에 어찌 꼭 소요산이라야만 되겠습니까?" 하니 태상왕이 말하기를

"그대들의 뜻은 내가 이미 알고 있다. 내가 부처를 좋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만 두 아들과 한 사람의 사위를 위함이다." 하고 공중에다 큰 소리로 말하기를 "우리들도 이미 서방 정토(西方淨土)로 향하여 있다." 라고 하였다. 태상왕은 무인년에 병이 든 뒤로부터 마음이 항상 답답하여 즐겁지 아니하기 때문에, 놀기 위한 행사가 점점 잦아졌다.¹⁴⁾

위의 자료들은 태조가 공공연히 심지어는 왕자의 난을 일으킨 장본인인 태종을 면전에 두고 토로한 일종의 원망이며 증오심이었다. 더욱이 태종과 그를 시위하여 온 정권 탈취자들이 모두 함께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은 "우리들도 이미 서방 정토(西方淨土)로 향하여 있다" 라는 말은 "네가 비록 지금 권력을 가졌으나 너도 언젠가는 죽을 날이 있을 것이다"라는 의미의 일종의 저주에 가까운 절규였다.

아울러 그는 아들 태종에게 강권하다시피 사찰에 전지를 내려줄 것을 요구한다. 이는 자신이 창업한 왕조 조선의 건국이념인 송유억불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일종의 정치적 시위였다.

-회암사(檜巖寺)에 전지 3백결을 주었다. 처음에 사전(寺田)이 5백결이었으나, 무인년에 3백결을 제(除)하여 공신(功臣)에게 주었다가 이때에 이르러 환속(還屬)시키고 또 60결을 더 주었으니 태상왕의 뜻을 좇은 것이었다.¹⁵⁾

-밭 74결을 회암사(檜巖寺)에 내려 주었으니, 태상왕의 청(請)에 따른 것이었다.¹⁶⁾

-태상왕이 소요산에서 회암사(檜巖寺)로 행차하였다. 태상왕이 회암사를 중수(重修)하고, 또 궁실(宮室)을 지어 머물러 살려고 하니, 임금이 그 뜻을 어기기가 어려워서 대부(隊副) 1백 50명을 보내어 부역(赴役)하게 하였다. 어느 한 사람이 망명(亡命)하였으므로, 태상왕이 체포하여 죽이라 명하였다.¹⁷⁾

-회암사(檜巖寺)에 밭 1백 20결(結)을 주었으니, 태상왕의 뜻을 따른 것이었다.¹⁸⁾

- 13) 정종 1년 3월 13일 (갑신)
- 14) 태종 2년 1월 28일 (신해)
- 15) 태종 2년 5월 22일 (갑진)
- 16) 태종 2년 6월 6일 (무오)
- 17) 태종 2년 6월 9일 (신유)
- 18) 태종 2년 8월 8일 (기미)

- 19) 태종 1년 12월 17일 (신사)
- 20) 태종 2년 1월 8일 (임오)
- 21) 태종 1년 12월 17일 (신미)
- 22) 태종 2년 1월 12일 (을미)

2) 소요산 행궁

(1) 태조의 소요산 주필과 소요산 행궁 건설

태조가 처음 동두천 소요산을 찾은 것은 태종 1년(1401) 11월 26일 흑한의 겨울이었다. 금강산을 유람하고 안변 석왕사에서 약 한 달간 머물던 그는 이후 황해도 평산의 평주 온천에 다녀오고 난 후 개경에서 지내던 참이었다. 하필 흑한기의 겨울에 거처도 마땅치 않은 소요산으로 들어 온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단지 다음의 기록에서 그 이유의 일단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신 등이 오래 머물면서 영선(營繕)하는 폐단을 자세히 진달하였더니, 태상왕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지만 장차 나의 후사(後事)를 닦으려는 것이다. 경들은 돌아가라. 내가 치제(致齋)하겠다.’¹⁹⁾

“이 절에 명사(名師)가 있으니, 절 아래에다 집을 짓고 거처하고자 한다.”²⁰⁾

즉 태조가 소요산에 머물러는 이유는 자신의 주장대로라면 종교적인 것이었다. 즉 좋은 스승(승려)을 찾았으니 여기에서 불도에 전념하려 한다는 의미가 되겠다.

그러나 태조가 내세운 소요산 주필은 이와 같은 종교적인 것 외에 또 다른 실질적 이유가 있었다. 후술하겠지만 태조는 이미 골육상쟁을 통하여 집권하며 자신을 권좌에서 몰아낸 아들 태종을 향한 반정(反正)을 준비하고 있었다. 한편 갑작스런 태조의 소요산 주필은 당장 필요한 거처 마련에서부터 심한 어려움을 동반했다. 한 겨울에 행궁을 수축하는 어려운 공사를 감행하여야 했기 때문이다.

—태상왕이 소요산에 이르러 근처의 본궁(本宮) 노예(奴隸)와 좌도(左道)·강원도·충청도의 가까운 고을의 사람들을 징발하였는데, 날은 차고 얼음이 얼어 쉼 볼 피워가며 땅을 파서 터를 쌓고 대궐을 경영하여 연말(年末)에 이르니, 백성들이 몹시 괴롭게 여기었다.²¹⁾

—“때가 몹시 추사운데, 태상왕께서 소요산에 계시는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모시는 사람들은 한데서 자고, 나무와 돌을 다듬는 사람은 모두 동상에 걸려서 살가 죽이 얼어 터졌습니다. 또 경기(京畿)에서 공역(供億)으로 왕래가 번거로워 폐단이 되오니, 나이 많고 덕이 높으신 대신에게 명하여 간절히 청하여 모시고 돌아오도록 해야 합니다.”²²⁾

- 태상왕이 소요산 아래에다 별전(別殿)을 지었다. 태상왕이 경기우도 도사(京畿右道都事) 이명덕(李明德)에게 말하기를, "전(殿)을 하나 지어 손님을 대접하려고 한다." 하니, 이명덕이 의정부에 고하고, 의정부에서 임금에게 아뢰어, 바로 경기의 백성들을 동원하여 역사에 나가게 하였다.²³⁾

23) 태종 2년 3월 9일(임진)

24) 태종 2년 1월 8일(임오)

25) 허목(許穆) 『미수기언(眉叟記言)』 「소요산기(逍遙山記)」 중

결국 행궁 조성공사는 강추위가 몰아치는 가운데 쉴 틈을 놓아가며 얼어붙은 땅을 녹이는 난공사로 진행되었고 동원된 백성들의 고초가 말이 아니었다. 아울러 태조의 수행원의 숙소도 마련되지 않아 노숙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태조를 포함한 관계 인원의 수발 역시 보통이 아니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기 지역의 고을이 이를 부담하여 그 왕래에 드는 공력이 만만치 않았다. 태조 역시 이 문제, 특히 부족한 숙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요산 행궁을 증축하기에 이르렀는데, 이 역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모자랐으므로 이윽고 태조는 행궁을 회암사로 옮기게 되는 것이다.

당시의 행궁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려주는 자료는 없다. 그리고 태종 9년 즉 행궁의 증축이 완료되고 나서 불과 7년 만에 행궁이 불타버렸으므로, 500여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그 흔적을 요연하게 확인할 수도 없다. 단지 일부 기록을 통하여 행궁의 면모를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 "...절 아래에다 집을 짓고 거처하고자 한다."²⁴⁾

- 소요산 양주의 처소에서 북으로 40리에 있다. 대탄까지는 20리를 더 가야하는데 왕방산의 서쪽 기슭으로 또 다른 별개의 산을 이룬다.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이 전하는 말에 의하면 골짜기의 초입에 왕궁의 유적이 두 군데 있다 한다. 풀이 우거진 속에 여러 줄의 주춧돌이 남아있는데 이곳이 바로 영락 연간 태상왕의 행궁이 있던 곳이라 한다. 서울에서 백 리 떨어져 있고, 풍양궁에서도 백 리 떨어져 있는데, 골짜기 입구에 이제는 쓰지 않는 옛 우물의 돌 난간이 있다.

(逍遙山, 楊州治北四十里, 不及大灘津二十里, 爲王方西麓別山, 谷口内外山下人相傳, 王宮遺墟二處, 荒草中有石砌數重而已, 此永樂間太上行宮云, 去京城百里, 豐壤宮又百里, 谷口有廢井石欄)²⁵⁾

이 자료들을 검토하면 먼저 제시한 실록의 기록한 상당 부분 부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미수 허목의 소요산 기행문을 실록의 기록과 대조하면 실록에는 태종 1년 12월에 행궁을 초축하고 이어 태종 2년 3월 9일에 별전을 증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허목의 기행문에는 건물의 유적이 두 군데에 있다고 기록하여 이

두 개의 기록이 맞아 떨어진다. 그리고 실록에는 절 아래에 머물 곳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는데 허목의 기록에는 골짜기의 입구에 주춧돌이 남아있다고 하여 역시 두 기록이 모두 부합한다.

단지 소요산 행궁의 위치를 비정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골짜기의 입구[谷口]라는 표현뿐인데 현재의 상황에서 이 골짜기 입구를 어디로 보아야 하는 지는 상당히 어려운 난제이다. 그러나 적어도 백 명이 넘는 수행원이 동거하였을 정도, 그리고 태종이 소요산에 찾아와 헌수하였다면 태종의 수행원까지 수백 명이 함께 머무를 정도의 공간이라면 현재의 소요산 입구 평지에서 많이 올라간 지점은 아니었을 듯하다. 입구의 골짜기가 복개되지 않고 원형대로 남아 있었다면 행궁의 유지를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듯싶은 아쉬움이 남는다.

(2) 태종과 여러 차사의 소요산 방문

태종이 우리 동두천 소요산에 머문 기간은 모두 약 7개월간이었다.

이 기간 소요산에 머문 태조를 찾아 두 번 행행(行幸)하였고 행행 때마다 연회(宴會)를 차려 헌수(獻壽)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찾지 못할 경우에는 신하를 보내어 여러 차례 문안하였다. 당시의 상황을 자료로 정리해 보자.

① 태종의 소요산 행행

일시	목적	내용	비고
태종 2년 1월 16일	문안	헌수(獻壽), 시회(詩會)	환가(還駕) 요청 불응
태종 2년 3월 19일	외교 협의	명과의 말(馬) 무역 현안 논의	사냥 겸행

② 태종의 소요산 행행 불발

일시	목적	불발 사유
태종 1년 12월 17일	문안	태조가 설 후에 오라고 지시
태종 2년 2월 8일	조회	태종의 신병(身病)
태종 2년 5월 3일	문안	폭우로 길이 막힘
태종 2년 5월 8일	헌수	태조가 능엄법회(楞嚴法會)를 이유로 왕래를 금함
태종 2년 6월 1일	헌수	간관이 농사철을 이유로 행행(行幸)을 반대

③ 태종차사의 소요산 방문

26) 태종 2년 6월 9일 (신유)

일시	차사명	내용	비고
태종1년 12월 17일	판승녕부사 정용수 승녕부윤 유창	문안	태종의 문안을 막음
태종1년 12월 21일	좌정승 김사형	문안	
태종2년 1월 8일	지신사 박석명	문안	태종이 아파 대신감
태종2년 1월 16일	판서운관사 황하준	재해 위문	소요산에 큰돌이 무너짐

④ 관리의 개인 방문

일시	방문자	목적	내용
태종 2년 4월 21일	박만(朴蔓)	지방발령 인사	동북면 인민에 대한 선정 부탁

이처럼 태조의 소요산 행궁에는 태종의 친행(親行) 2회와 차사의 사행(使行) 4회, 그리고 지방으로 떠나는 박만의 고별 방문까지 모두 합하여 7회의 공식 방문이 있었고 대부분은 문안(問安)과 헌수(獻壽)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태조는 이후 비좁은 소요산을 떠나 보다 넓은 회암사에 새로이 행궁을 짓고 거처를 옮기게 되는데 회암사에 행궁을 건설하는 일 역시 급작스러운 공역으로 여기에 동원된 군인이 힘든 노역을 이기지 못하여 이탈하자 태조는 그를 잡아 사형에 처하기까지 하였다. 왕위에서 물러난 자신을 업신여기는 일로 간주하였던 것으로 추론되지만 이는 당시 태조의 심중을 엿볼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하였다. 임금이었던 태종이 태조의 뜻을 어기기 어려워 노역군을 동원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서울(당시에는 개경)에 머물지 않고 지방을 떠돌며 머무는 곳마다 자신의 거처를 마련하며 토목사업을 요구하는 아버지 태조의 요구에 태종도 어느 정도는 지쳐있음을 이 기록은 암시한다.

- 태상왕이 소요산에서 회암사(檜巖寺)로 행차하였다. 태상왕이 회암사를 중수(重修)하고, 또 궁실(宮室)을 지어 머물러 살려고 하니, 임금이 그 뜻을 어기기가 어려워서 대부(隊副) 1백 50명을 보내어 부역(赴役)하게 하였다. 어느 한 사람이 망명(亡命)하였으므로, 태상왕이 체포하여 죽이라 명하였다.²⁶⁾

27) 회암사는 태조 이후에도 태종, 세종 조에 걸쳐 왕실 사찰로 번성하였고, 특히 명종 조에 이르러 문전왕후의 적극적인 비호 아래 크게 융성하였다.

28) 태종 5년 3월 19일(갑인)

29) 태종 16년 3월 5일(정유)

오늘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회암사 유적은 거의 왕궁에 버금가는 제도와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태조 당시의 중수(重修) 결과는 아니겠지만²⁷⁾, 그 기본은 아마도 태조의 주필 기간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태조가 회암사로 떠나간 후 소요산 행궁은 비어 있었다. 그리고 의문의 화재로 불타버리게 된다. 기록은 이를 아주 간단히 산불이 옮겨 붙어 소실(燒失)되었다고 전하지만 그 위치가 소요산 골짜기의 입구였다는 여러 기록으로 보아 이는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아마도 실화였거나, 방화의 혐의도 아주 없지는 않다. 왜냐하면 산불이 옮겨붙어 행궁이 소실되었다는데, 정작 보다 산림에 접근하여 있는 소요사는 불에 탔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후술하겠지만 세종 초년에 전국의 사찰을 훼파할 때 소요사는 살아남고 그 당시에 이미 상당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태종 대에 소실되었다면 이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 소요산(逍遙山)의 이궁(離宮)에 불이 났으니, 산불이 연소(延燒)된 것이었다.²⁸⁾

그리고 당시의 화재로 피해를 입기는 하였겠지만, 소요산 행궁이 완전 소실된 것은 아니고 일부라도 조금은 남아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 보장산(寶藏山)에서 물이하고, 저녁에 사천현(沙川縣)의 소요산(逍遙山) 아래에 머물렀다. 대가를 따르는 사람들로써 숙소에 이르러 독초(毒草)를 잘못 먹고 갑자기 죽은 사람이 6인이었는데, 약을 복용하여 살아난 사람이 2인이었다.²⁹⁾

위의 자료는 소요산 행궁이 화재를 당한 후 11년이 지나고 작성된 것이다. 즉 태종이 모처럼 강무(講武)에 나서 영평현 보장산(지금은 포천시 창수면)에서 사냥한 후 한탄나루를 거쳐 소요산에 이르러 숙박하는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정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강무는 사냥의 형식을 띤 군사훈련이므로 수많은 군사가 동원된다. 따라서 강무장은 국가에서 지정하여 관리하는데 특히 평상시 일반인의 출입을 금하여 사냥의 대상이 되는 짐승을 보호하고 강무장이 경작지로 변환되는 일을 엄격히 방지하였다. 영평은 왕방산이 강무장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관리가 부수되었지만 소요산은 강무장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강무와 관련된 왕의 행행이 소요산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것이 유일한 예이며 동시에 아주 특별한 사건이기도 하다. 문제는 강무를 행할 때에 당일이 아닌 여러 날이 걸릴 경우 왕의 숙소가 문제가 된다. 일반 수행원과 달리 왕이 막차(幕次)에 유하는 것은 아주 번거롭고 위험한 일하기에 가능한 피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위의 사실과 정황을 감안하면 당시 강무를 진행하며 숙소를 '소요산 아래'로 잡은 것은 여기에 부응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즉 왕이 묵을 숙소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그렇다면 '소요산 아래' 즉 소요산 행궁 자리에 아직 소실되지 않은 일부 건물이 잔존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타당하다.

(3) 어수정

어수정(御水井)은 문자 그대로 '임금이 떠 마신 우물'이다. 물론 왕궁 안에 있는 우물이 가장 전형적인 어수정이 되겠지만 현재 전국 각지에 어수정이라는 지명이 존재하고 있어 이는 아마도 왕의 지방 행행(行幸)과 관련된 유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동두천시 중앙동에도 <어수정>이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동명(洞名)이 <어수동>이며 현재는 <동두천중앙역>으로 명명된 기차역도 이전에는 <어수동역>이었다. 이와 같은 지명이 유래된 근거로 관련 자료³⁰⁾들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설명이 있다.

어수정은 태조 이성계가 태종 이방원이 2차례에 걸쳐 일으킨 왕자의 난으로 인해 왕위에서 물러나 영흥을 거쳐 함흥으로 낙향하던 중 여가를 멈추고 길가 우물물을 마시고 간 곳이다. 그후 이 우물을 어수정이라고 하고 지명도 어수동이라고 하였다. 예전에는 이곳에 어수동 팔각정과 연못이 있었다고 하나, 1978년 이후 팔각정은 헐리고 연못은 메워졌다고 한다.³¹⁾

그러나 이와 같은 지명 인식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 우선 이 지명과 유적이 태조와 관련되었다는 사실은 상당한 역사적 근거가 있다. 전술한 것처럼 이 유적은 태조가 1년여간 주필하였던 소요산 행궁과 행궁 주필 중에 방문한 한양, 또는 회암사 등지로 이동하는 중간 지점 도로상에 위치하고 있어 그가 이 우물물을 마셨을 개연은 충분하다. 태조 뿐 아니라 태조의 소요산 행궁을 2차례나 찾았던 태종 역시 그의 행행 도중 이 우물물을 마셨을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근거

30) <어수노인정 표지석>. <동두천시문화유적분포지도>. <동두천시사>. 이명수의 논문 <태조 이성계의 소요산 별궁 생활의고> 등
31) "동두천 중앙동 어수정지" <동두천시문화유적분포지도>, p. 67, 2006, 국민대학교박물관

32) 실제로 이 같은 조사의의 난에 가담하였던 태조가 함흥에서 개경까지 조선 정부군에 의하여 압송되는 길이기도 하다.

33) 태종 2년 4월 21일(계유)

로 이 우물을 어수정이라 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태조가 함흥 낙향 길에 이 우물을 이용하였다는 유래담은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앞에서 검토한 것처럼 태조는 조사의의 난이 일어나기 전에는 결코 함흥에 '낙향'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당시 조선은 왕자의 난 이후 수도를 한양에서 개경으로 옮겼으므로 우리 동두천은 함흥으로의 낙향 길에 위치하고 있지 않다. 개경에서 함흥으로 가는 길은 개경에서 바로 북상하여 황해도에 금교를 거친 후 평양으로 나아가 거기에서 맹산을 거쳐 동행하였기 때문이다.³²⁾ 어수정의 복원과 이전 '어수정' 지명의 환용(還用)을 요구하는 일부 여론을 감안하면 이후 보다 자세한 고증을 거쳐 이의 시정 및 확정이 요구된다고 보겠다.

(4) 조사의의 난

소요산 및 회암사에 주필하던 태조는 겉으로는 불교에 심취하여 불사에 전념하고 있는 듯 보였지만, 기실 내심으로는 치밀한 거사(舉事)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들과 사위를 죽이고 자신을 왕위에서 내몰며 집권한 태종 등 왕자의 난 당사자들에 대한 반격과 함께 복권(復權)을 꿈꾸며 은밀히 작업을 진행시켰던 것이다. 이른바, '조사의(趙思義)의 난'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조사의는 신덕왕후 강 씨의 일족으로 태종 세력에 의하여 죽은 의안대군, 무안대군 및 관련자들의 복수를 노리던 중 그가 안변부사로 부임하는 것을 기회로 군사 정변을 준비하였다고 한다. 그는 안변부사로 부임하면서 동북지역의 옛 태조 세력을 규합하기 시작하였다. 동북세력이 반군에 가담한 이유는 우선 태조의 실각에 따른 반발과 함께 이런 반발을 염려한 태종 세력의 동북지역에 대한 위력 통치가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다음의 기록이 저간의 사정을 짐작하게 해준다.

— 동북면 도순문사(東北面都巡問使) 박만(朴蔓)이 소요산(逍遙山)으로 가서 하직을 고하니, 태상왕이 말하기를 “동북면의 사람들은 모두 내 형제들이다. 지난번에 순문사(巡問使) 윤사덕(尹師德)이 매우 시끄럽게 굴었다. 경이 편안하게 어루만져 줌이 좋겠다.” 하며, 박만이 머리를 조아리며 사례하기를 “신이 마땅히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하니 태상왕이 웃었다. 박만이 울면서 아뢰기를, “지금 도망 온 군대가 많이 양계(兩界)에 이르러 국가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모두가 전하의 환궁(還宮)을 바라고 있으나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속히 환궁하시지 아니하옵니까?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전하께서 나라 일을 염려하지 않는다고 여기옵니다.” 하니, 태상왕이 말하였다. “옳다. 내 장차 돌아가겠다.”³³⁾

위의 기사는 동북면 도순문사(東北面都巡問使)로 부임하게 된 박만(朴蔓)이 소요산으로 태조를 찾아가 하직하면서 나눈 대화를 기록한 것이다. 이 기사에는 순문사(巡問使) 윤사덕(尹師德)이 동북민들에 대한 위압통치와 이에 따른 동북민들의 반발, 그리고 저간의 사정을 태조가 이미 파악하고 있는 정황 등이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왕자의 난을 일으켜 집권한 태종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면서 그 근무지를 이탈한 일부 군대가 동북 등으로 집결하고 있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이후 태조는 조사의의 반란에 가담하기 위한 행보를 구체화하고 있어 박만이 소요산으로 태조를 찾아가 나눈 이야기는 실록의 기사와는 달리 거사에 관련된 사항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박만은 조사의 반란의 핵심인물 중의 하나였고 태조 역시 반란의 주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소요산을 떠나 회암사로 이주하였던 태조는 마침 조선에 와있던 명(明)의 사신이 금강산 유람을 마치고 귀경하는 길에 태상왕을 뵈기를 청하자 그들을 접대한다는 명목으로 징파나루[澄波渡]³⁴⁾로 떠나며 조정에 의장병(儀仗兵) 파송을 요구하고 태종 정부는 이에 응하여 여러 명의 종친과 변현 등이 이끄는 별시위를 보내어 이성계의 통제를 받게 하였다. 그러나 이는 조사의의 난에 참여하려는 태조의 계책이었다.

사신 접대가 끝나자 태조는 틈을 주지 않고 별시위 부대를 휘몰아 동북으로의 북행(北行)에 나선다. 변현 등 별시위 부대의 지휘관들이 이성계의 급작스러운 북행을 문제삼으며 이를 거부하려 하자 태조는 불과 얼마 전까지도 이들이 자신이 통제하던 부대였음을 강조하며 그들의 북행을 강요하여 마침내 부대 전체를 인솔하기에 이른다. 실록의 기사를 보자.

- 태상왕이 사신 온전(溫全)에게 징파도(澄波渡)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전(全)이 금강산(金剛山)에서 돌아오매, 태상왕이 중로(中路)에서 청(請)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임금이 기생과 풍악을 보내고, 또 종친(宗親)과 별시위(別侍衛)를 보내어 호종하게 하였다. 태상왕이 별시위를 거느리고 동북면(東北面)에 행차하려고 하니, 변현(邊顯) 등이 아뢰기를

“주상께서, 전하가 사신을 보려고 하시기 때문에 신 등을 보내어 시위(侍衛)하게 한 것이고, 처음에는 거가를 따라 깊이 먼 지방까지 들어간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물며 자량(資糧)의 준비가 넉넉지 못하니, 멀리 대가(大駕)를 따르기가 실로 어렵습니다.” 하였다.

34) 현재의 연천 왕징면이다.

35) 태종 2년 10월 27일 (정축)

태상왕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모두 내가 기른 군사인데, 지금 어찌하여 나를 배반하느냐?”하고, 인하여 눈물을 흘리니, 변현 등이 마지못해 따랐다.

태상왕이 보개산(寶蓋山)의 심원사(深源寺)로 향하려고 하다가 그만두고, 안변(安邊)의 석왕사(釋王寺)로 향하려고 하였다.

임금이 태상왕께서 북쪽으로 거동한다는 말을 듣고 중로(中路)에 나가서 온전(溫全)을 맞아 위로하고, 인하여 태상왕의 행재소(行在所)에 나가 전송하려고 하니, 대제학 이직(李穡)이 우정승 이무(李茂)에게 말하기를

“요동(遼東)에서는 비록 일개의 지휘(指揮)가 출성(出城)하더라도 오색(五色) 군용(軍容)이 매우 성(盛)한데, 지금 주상께서 다만 천여 인만 거느리고 사신(使臣)을 초차(草次)에서 만나보는 것이 어떨까요?”하였다.

무(茂)가 옳다고 하고, 곧 대궐에 나아가 갖추 아뢰고 거가(車駕)를 정지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지신사(知申事) 박석명(朴錫命)을 보내어 태상왕께 고(告)하기를

“부왕(父王)께서 이미 두 사신을 보시고 도로(道路)에서 영송(迎送)하시었으니, 상(上) 부사신(副使臣)도 또한 보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상·부사 신이 모두 뵈기를 원하오니, 한번 서울에 오셔서 사신과 서로 접견(接見)하시기를 바랍니다.”하였다. 태상왕이 말하기를 “사신이 오면 보고, 반드시 가서 볼 필요는 없다.”하였다. 임금이 태상왕의 향하는 곳을 알지 못하여 사람을 시켜 살피었으므로, ‘사람의 행렬이’ 길에 잇달았다.³⁵⁾

이 기사에는 조사의의 난에 동참하여 거사를 총지휘하려는 태조의 행보가 나타나고 있는데 반란의 현장인 동북과 3-4일 행보(行步)나 떨어져있는 양주에서 조정에서 보내준 시위(侍衛)부대까지 휘몰아 동북의 반란 현장으로 급히 출발하는 내용을 감안하면 태조의 반란 참여는 우발적이 아니라 이미 상당히 조직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태종 정부는 사신을 접대하던 태조가 군사를 대동하고 급히 어디로인가를 향하여 북행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그의 행로(行路)가 구체적으로 어디를 향하는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다. 이에 비추어보면 태조가 개경 환도 이후 여기저기 유람하였던 그간의 행적도 실은 이미 그가 계획하였던 반정(反正) 계획을 추진하던 사전(事前) 포석이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하겠다.

그러나 동북에서 조사의가 반란을 진행하고 있다는 정보가 조선 정부에 전해지고, 태조가 이 반란에 참여할 것이라는 상황이 파악되면서 사태는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하였다. 조사의의 반란은 세 개의 경로를 통해 정부에 보고되었다. 하나는 이지란의 아들 이화영(李和英)이 아버지의 묘소에서 시묘하다가 반란의 정황을 파악하고 보고한 것이고 또 하나는 동북에 주둔하던 호군(護軍) 김옥겸(金玉謙)이 탈출하여 정황을 보고한 것이었다. 그리고 태조의 사신 접대 자리에 별시위로 파견되었다가 태조의 강권으로 북행길에 동행하게 된 부대의 지휘관들도 현지의 상황을 통하여 반란이 진행되는 것을 감지하게 된다. 당시의 상황을 기록을 통하여 검토해 보자.

36) 태종 2년 11월 8일 (정해)

37) 태종 2년 11월 11일 (경인)

－ 상호군(上護軍) 박순(朴淳)을 동북면(東北面)에 보내었는데, 저쪽 군중(軍中)에서 피살되었다. 순(淳)이 함주(咸州)에 이르러 도순문사(都巡問使) 박만(朴蔓)과 주군(州郡) 수령(守令)에게 ‘사의(思義)를 따르지 말라’고 교유(教諭)하다가, 마침내 저쪽 군중(軍中)에 피살되었다.³⁶⁾

－ 호군(護軍) 김옥겸(金玉謙)이 동북면에서 왔다. 처음에 옥겸을 동북면에 보냈었는데, 이 때에 이르러 와서 아뢰었다.

“처음에 안변(安邊)에 이르러 부사(府使) 조사의(趙思義)를 보니, 사의가 즐겨보고 예(禮)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시켜 신의 칼과 마패(馬牌)를 빼앗았습니다. 신이 잠행(潛行)하여 문주(文州)에 이르러, 박양(朴陽)이 고을에 들어와서 군사를 조련(調練)한다는 말을 듣고 들어가 보니, 양(陽)이 또한 즐겨보고 더불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다만 조병첩(調兵牒)에 서명(署名)만 하고 있었습니다. 영흥부(永興府)에 이르러 부윤(府尹) 박만(朴蔓)을 보니, 만(蔓)이 울며 말하기를, ‘내가 처음에 군사를 조련하라는 사의(思義)의 통첩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 아뢰었고, 또 갑옷과 무기를 실어 보내라는 통첩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 아뢰었는데, 그대가 보았는가?’ 하였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였다고 대답하니, 만이 말하기를, ‘그 사람들이 반드시 잡힌 것이니, 내가 위태하다.’ 하고, 만이 또 말하기를, ‘내가 처음에 빠져나갈 수 있었지만, 장수(將帥)로서 번진(藩鎭)을 가볍게 버릴 수가 없으니, 그대는 셋길로 돌아가서 주상께 진달하라. 그대가 만일 잡히면, 그대와 나는 해를 당할 것이다.’ 하고, 인하여 칼을 주고 상등마(上等馬)를 주었습니다. 떠나서 영풍(永豐)에 이르러 길에서 한방(韓方)을 만났습니다. 방이 잠깐 더불어 말하고 지나갔습니다. 신이 영풍의 촌가(村家)에 이르러 자는데, 방이 사람을 시켜 그 집에 이르러, 신의 손을 묶어 방 가운데에 가두고 10여 인이 지켰습니다. 밤이 깊어 지키는 자가 잠이 들었기에, 가만히 도망하여 나오니, 지키는 자가 이를 깨닫고 쫓아와 높은 산에 이르렀습니다. 신이 산으로 기어올라 도망하여 왔습니다.”³⁷⁾

호군 김옥겸(金玉謙)이 감찰관으로 동북에 파견되어 반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감지하고 결국 박만으로부터 정확한 정황을 전해들은 후 반란군 장악 지역을 탈출하는 내용이 비교적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이 중 주목할 것은 박만이 반란군 지역에 있지만 반란에 적극 동조하지 않고 상황을 정부에 보고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김옥겸의 고변은 이후 박만이 극형(極刑)을 명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38) 태종 2년 11월 10일 (기축)

39) 태종 18년 4월 27일 (정묘)

— 전 전서(典書) 이화영(李和英)이 동북면(東北面)에서 처자(妻子)를 데리고 도망하여 왔다. 이때에 화영은 아내의 상중(喪中)에 있었는데, 아우 이화미(李和美)와 더불어 최질(衰絰)을 입고 절령(鐵嶺)에 이르니, 기병(騎兵) 백여 명이 길을 막고 있으므로 통과할 수가 없었다.

화영이 아우와 꾀를 내기를, “우리들이 최질(衰絰)을 벗고, 갑옷을 입고 무기를 가지고 가자.” 하고, 최복을 벗고 갑옷과 병기를 갖추고 고향을 지르며 말을 달리니, 백여 명이 모두 흩어져 달아나서 막는 자가 없었다.³⁸⁾

.....조말생 등이 교지(教旨)를 받들고 안우세를 문초하니, 안우세가 말하였다. “처음에 신이 변현(邊顯)·조홍(趙洪) 등 16인과 별시위(別侍衛)로서 명(命)을 받고 시종(侍從)하였는데, 11월 4일에 금화(金化) 도창역(桃昌驛)에 이르니, 정용수와 신호창이 비밀히 나를 불러서 말하기를, ‘함승복(咸承復)·배상충(裨尙忠)이 북쪽 땅으로 들어가 군마(軍馬)를 뽑으니, 반드시 변란(變亂)이 일어날 것이다. 이같이 좋지 않은 기별(奇別)을 즉시 주상(主上)에게 아뢰겠느냐? 그 사건이 발발하기를 기다려서 이에 아뢰겠느냐?’ 하였으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초야(初夜)에 이 사건을 듣고 어찌하여 5경(五更)을 기다려서 이에 말하는가?’ 하고, 즉시 도망하여 말을 달렸습니다.

5일 초경(初更)에 예궐(詣闕)하여 바로 아뢰니, 성상이 친히 물으시고 눈물을 흘리고, 곧 김옥겸(金玉謙)을 보내어 먼저 동북면(東北面)에 들어가 도순문사(都巡問使)와 각 고을의 수령(守令)을 태일러서 군사를 뽑지 말게 하고, 순문사(巡問使)는 인신(印信)을 봉(封)하여 즉시 바쳐 오게 하였습니다. 또 신에게 명하기를, ‘너는 몰래 가서 사변(事變)을 탐지(探知)하라.’고 하였으므로, 신이 이를 받들고 11월 8일에 밤을 틈타서 복장을 바꾸어 입고 남산역(南山驛) 막차(幕次)에 이르러 두 재상(宰相)의 막사(幕舍)를 찾았으나, 마침내 발견하지 못하고, 또 변현을 찾아서 서로 만나고, 또 조홍을 만나 성상의 교지(教旨)를 자세히 알리고, 이어서 두 재상에게 전교(傳敎)하도록 약속하고, 말을 끝내자 몰래 도망하여 나왔습니다.”³⁹⁾

위의 세 기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즉, 태조가 금강산 관광에서 돌아오는 중국 사신을 접대하겠다고 하며 ‘징파나루’에 연회를 차리고 접대에 필요한 수행원과 기생, 그리고 시위군을 보내도록 요청한 것이 10월 27일이었다. 그리고 연회가 끝나는 즉시 시위군을 휘동하여 북행길에 오르고 이에 강제로 동행하게 된 별시위 지휘부에서 반란의 조짐을 감지하고 안우세를 시켜 조정에 보고한 것이 11월 5일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상호군 박순을 현지에 파견하였는데 그는 반란군을 효유하다가 11월 8일 반란군에게 피살되었고 이어 파견된 호군 김옥겸이 반란을 확인하여 정부에 보고한 것이 11월 11일이었다. 한편 김옥겸의 보고가 있기 하루 전인 11월 10일 동북 현지에서 반란 상황을 감지한 이화영이 급히 현지를 탈출하여 역시 정부에 상황을 보고하였다. 이에 비로소 조선 정부는 반란의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태조의 반란 합류를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 즉 동북

으로 향하고 있는 태조의 목적지를 함흥으로 인식한 태종은 급히 차사를 함흥방면으로 파견하여 태조의 반란 참여를 저지, 만류하려 하였던 것이다.

실록에 나타나는 차사 파견 상황을 다음과 같다.

차사명	파견일시	파견상황	비고
김완	11월 3일	이성계를 만나 문안	11월 5일 귀환
심중, 유창	11월 7일	태상왕을 호위하게 함	귀환하지 않음
(승)무학	11월 9일	함주로 파견	만나지 못함(?)
이서,익륜,설오	11월 15일	함주 행재소로 파견	만나지 못함. 11월 24일 철령에서 귀환
(내관) 노희봉	11월 27일	행재소-장소 불명(맹주?)	이무렵 태조가 관군에게 체포됨
이서, 설오	11월 28일	행재소-장소 불명(맹주?)	이성계 문안
(내관)	12월 1일	행재소-장소 불명(맹주?)	이성계에게 의견을 드림
한상경	12월 6일	행재소-평양과 금교 사이	이성계에게 연향을 배품

조사의가 반군을 기병한 것은 대략 11월 5일 경으로 파악된다. 아마도 이 부분에서 조사의 반란이 차질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즉 태조의 합류를 기다려 기병하도록 되어 있었던 당초의 계획이 누설되면서 조사의는 급히 계획을 당겨 거병하였다고 판단된다. 태조는 이런 상황을 전해 듣고 급히 동북으로 향했지만 조사의는 기병한 상태에서 더 이상 태조를 기다리지 못하고 군대를 움직여 당초의 계획대로 평안도로 향하게 된다. 미루어 추정컨대 조사의의 군의 전략은 평양을 점령하여 서북의 군대를 합류시킨 후 남진하여 개경으로 향하려 하였던 것 같다. 그리고 이천우가 거느리는 정부군과 평안도 맹산(孟山)에서 부딪혀 전단(戰端)을 열게 된다. 11월 19일의 일이었다.

- 이천우(李天祐)가 유기(游騎) 백여 인을 옛 맹주(孟州)로 보냈으나, 조사의(趙思義)의 군사에게 잡히었다.⁴⁰⁾

- 이천우(李天佑)가 조사의(趙思義)의 군사와 더불어 옛 맹주(孟州)의 애전(艾田)에서 싸워 패하여, 천우가 포위를 당하였다. 아들 이밀(李密) 등 10여 기(騎)와 함께 역전(力戰)하여 포위를 뚫고 나왔다.⁴¹⁾

40) 태종 2년 11월 19일 (무술)

41) 태종 2년 11월 20일 (기해)

42) 태종 2년 11월 27일 (병오)

43) 태종 2년 12월 8일 (정사)

태조는 마치 역마(驛馬)를 갈아타듯 전속력으로 함흥에 도착하였지만 이미 조사의는 군사를 평안도 방면으로 이동한 뒤였고 여기에서 태조는 약 10여 일을 머물며 시간을 허송하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조사의의 반군에 가담한 군사들은 이 반란의 지휘자가 태조인 것으로 알고 반란에 참여하였는데 태조의 합류가 계속 늦어지면서 현격한 동요를 보이기 시작했고 마침내 대규모의 토벌군이 조직되어 내려온다는 정부군 측의 정보전에 휘둘리며 급격히 붕괴되어 버린 것이다.

태조가 함흥에 머무르지 않고 전속력으로 이동하여 반란군에 합세하였더라면 정부군은 반란군을 저지하지 못하고 정권 자체가 붕괴되어 버릴 수도 있었던 절대 절명의 순간들이었다.

— 조사의(趙思義)의 군사가 안주(安州)에 이르렀는데, 밤에 궤멸(潰滅)되었다. 사의의 군사가 살수(薩水) 가에 주둔하였었는데, 밤에 스스로 궤멸되어 물을 건너다가 얼음이 꺼져서 죽은 자가 수백여 인이었다. 처음에 김천우(金天祐)란 자가 사의(思義)의 군사에게 잡혔었는데, 그 군사가 어군(我軍)의 수를 물으니, 천우가 말하기를, “조영무(趙英茂)는 동북면으로 향하였고, 이천우(李天祐)·이빈(李彬)·김영렬(金英烈)·최운해(崔雲海) 등은 맹주(孟州)에 이르렀고, 또 황주(黃州)·봉주(鳳州) 사이로 군사 4만여 명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를 당하려는가?” 하였다. 군사들이 이 말을 듣고 모두 두려워서 얼굴빛이 변하였다. 조화(趙和)가 군중(軍中)에서 도망하려고 꺾어져, 밤에 군막에 불을 지르고 크게 소리치니, 군사들이 모두 놀라서 시방으로 흩어졌다.⁴²⁾

결국 시일을 천연하다가 전투가 종결되고 난 후 뒤늦게 전장인 맹주로 이동한 태조는 정부군에 체포되고 만다, 11월 17일의 일이다. 그리고 12월 2일 평양으로 압송되고 이어 12월 9일에는 개경으로 이송된다. 흔히 여러 야사에 태종이 태조를 만나 연회를 베풀었는데 하륜의 지략으로 태종이 죽음을 면하여 결국 태조로부터 전국(傳國) 옥새를 넘겨받았다는 그 유명한 맞대면이 이루어지는 것은 태조가 개경으로 잡혀 돌아오는 과정에서 12월 8일에 이루어진다. 황해도 금교역에서의 일이다.

— 임금이 금교역(金郊驛)에 나가서 태상왕을 맞이하고, 장전(帳殿)으로 들어가서 헌수(獻壽)하였다.⁴³⁾

반란에 실패하여 평양으로 끌려온 태조는 자신을 압송하는 관리들에게 웅색한 변명을 늘어놓는다.

- 태상왕의 거가(車駕)가 평양부(平壤府)에 머물렀다. 태상왕이 말하기를, "내가 동북면(東北面)에 있을 때에 국왕이 사람을 보내지 않았고, 맹주(孟州)에 있을 때도 역시 사람을 보내지 않았으니, 감정이 없지 않은 것이다." 하였다. 사자(侍者)가 말하기를, "주상께서 전 정승(政丞) 이서(李舒)와 대선사(大禪師) 익륜(益倫)·설오(雪悟)를 시켜 문안하게 하였사는데, 길이 막혀서 도달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니, 태상왕이 말하였다. "모두 내가 믿고 중하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낸 것이다."⁴⁴⁾

이렇게 태종 정권을 한때나마 위기로 몰아넣었던 조사의의 난은 가까스로 수습되었다. 난을 주도했던 조사의(趙思義)·강현(康顯)·조홍(趙洪)·홍순(洪洵)·김자량(金子良)·박양(朴陽)·이자분(李自芬)·김승(金昇)·임서균(林西筠)·문중침(文仲僉)·한정(韓定) 등이 모두 복주(伏誅)되었고,⁴⁵⁾ 반란을 고변하였던 박만 등은 귀양을 갔다. 특이한 것은 태조의 강권에 못 이겨 북행길에 동행하였던 별시위의 지휘관들 역시 중벌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 변현(邊顯)을 순위부(巡衛府)에 가두었다. 현(顯)이 동북면(東北面)에서 오니, 임금이 말하기를, "조사의(趙思義)에게 부동하여 용사(用事)한 자가 누구인가?" 하고, 순위부에 가두고 삼성(三省)과 위관(委官)에게 명해 교좌(交坐)하여 국문(鞫問)하게 하였다.⁴⁶⁾

- 정용수(鄭龍壽)·신효창(申孝昌)을 순위부(巡衛府)에 가두었다. 용수와 효창은 승녕부(承寧府) 당상관(堂上官)으로서 태상왕(太上王)을 호종(扈從)하여 동북면에 이르러 조사의(趙思義)의 역모(逆謀)에 참여했기 때문이었다.⁴⁷⁾

이 조사의의 반란과 관련하여 야사에는 ‘함흥차사(咸興差使)’라는 이야기가 널리 회자(膾炙)된다. 이 성어(成語)의 뜻은 ‘어딘가로 심부름 보낸 사람이 돌아올 시간이 넘었는데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그 의중(意中)에는 왕위를 떠난 태조가 함흥으로 떠나자 태조를 돌아오도록 설득하려 차사(差使)를 함흥본궁으로 보냈고 태조는 이들을 모조리 죽였다는 속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함흥차사의 사실(史實)성을 입증하기 위한 여러 에피소드가 함께 전해지기도 한다.

44) 태종 2년 12월 2일(신해)

45) 태종 2년 12월 18일(정묘)

46) 태종 2년 12월 2일(신해)

47) 태종 2년 12월 3일(임자)

- 48) 『연려실기술』 소재 태조의 함흥 주필(駐驛) 조 - 조아찰재(朝野僉載)
 49) 『연려실기술』 소재 태조의 함흥 주필(駐驛) 조 - 축수편(逐睡篇)
 50) 『연려실기술』 소재 태조의 함흥 주필(駐驛) 조 - 명신록(名臣錄)
 51) 『연려실기술』 태조의 함흥 주필(駐驛) 조 - 노봉집 시장(老峰集 詩狀)

이 설화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기록을 보자.

- 상왕(上王-태조)이 한양에 돌아왔다가 금강산에 가서 그 길로 함흥 본궁에 갔다.⁴⁸⁾

- 방석의 변이 있는 뒤에 태조가 왕위를 버리고 함흥으로 피하여 갔는데 태종이 여러 번 중사(中使)를 보내어 문안을 하였다. 태조가 번번이 활을 버티고 기다리고 있어서 전후 여러 차례 갔던 사자가 감히 문안을 전달하지 못하였다. 성석린(成石璘)은 태조의 옛 친구로 그가 자청하여 태조의 뜻을 돌이킬 것을 다짐하므로 태종이 허락하였다. 석린은 백마를 타고 벼옷 차림으로 과객같이 하고 말에서 내려 불을 피우고 밥을 짓는 시늉을 하였다니 태조가 바라보고 내시를 시켜 가보게 하였다. 석린이 “용무가 있어 지나가다가 날이 저물어 말을 매고 유숙하려 한다.”고 말하니, 내시가 돌아가서 그대로 태조에게 아뢰었다. 태조가 심히 기뻐하여 곧 불렀다. 석린이 조용히 인륜(人倫)의 변고를 처리하는 도리를 진술하니, 태조가 변색하여 이르기 “너도 너의 입금을 위하여 나를 달래려고 온 것이 아니냐?” 하니 석린이 대답하여 아뢰기를 “신(臣)이 만일 그래서 왔다면, 신의 자손은 반드시 눈이 멀어 장님이 될 것입니다”하였다. 태조는 이 말을 믿었다. 그래서 양궁(兩宮 - 태조와 태종)은 이로부터 화합해졌다. 뒤에 석린의 두 아들은 과연 눈이 멀었다.⁴⁹⁾

- 석린의 맏아들 지도(至道)와 지도의 아들 창산군(昌山君) 귀수(龜壽)와 귀수의 아들이 다 태종에서부터 장님이 되어 삼대를 이었고, 석린의 작은 아들 발도(發道)는 후사가 없었다.⁵⁰⁾

- 그 당시에 문안사(問安使)가 한 사람도 돌아 온 이가 없었다. 태종이 여러 신하에게 묻기를 “누가 갈 수 있는가?”하니 응하는 사람이 없었으나, 판승추부사(判承樞府使) 박순(朴淳)이 자청하여 갔는데, 하인도 딸리지 않고 스스로 새끼 달린 어미 말을 타고 함흥에 들어가서 태조 있는 곳을 바라보고 일부러 그 새끼 말을 나무에 매어 놓고 그 어미 말을 타고 나아가니, 어미 말이 머뭇거리면서 뒤를 돌아보고 서로 부르며 울고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 아니하였다. 태조를 뵈오매, 태조는 말의 하는 짓을 보고 괴이히 여겨 물었더니, 그가 아뢰기를, “새끼 말이 길 가는데 방해가 되어 매어 놓았더니, 어미 말과 새끼 말이 서로 떨어지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비록 미물이라 하더라도 지친(至親)의 정은 있는 모양입니다” 하고 풍자하여 비유하니, 태조가 척연(惕然)히 슬퍼하고 잠저(潛邸)에 있을 때에 사건 옛 친구로서 머물러 있게 하고 보내지 않았다. 하루는 태조가 순(淳)과 더불어 장기를 두고 있을 때 마침 쥐가 그 새끼를 끼어 안고 지붕 모퉁이에서 떨어져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도 서로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순이 다시 장기판을 제쳐 놓고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더욱 간절하게 아뢰니 태조가 이에 서울로 돌아갈 것을 허락하였다. 순(淳)이 서울로 돌아가겠다는 태조의 허락을 듣고 곧 그 자리를 하직하고 떠나니, 태조를 따라와 모시고 있던 여러 신하들이 극력으로 그를 죽일 것을 청하였다. 태조는 그가 이미 용흥강(龍興江)을 건너갔으리라고 생각되므로 사자에게 길을 주면서 이르기를, “만약 이미 강을 건넜거든 쫓지 말라” 하였다. 순(淳)은 병이 나서 중도에서 체류하였다가, 이때에 겨우 강에 도달하여 배에 오르고 아직 강을 건너지 못하였으므로 아직 강을 건너지 못하였으므로, 드디어 그 허리를 베었다. 그 때에 “반은 강 속에 있고 반은 뱃속에 있다 (半在江中半在船)하는 시가 있었다” 태조가 크게 놀라 애석하게 여겨 이르기를, “박 순은 좋은 친구이다. 내가 마침내 전일에 그에게 한 말을 저버리지 않으리라.” 하고, 드디어 남으로 (서울에) 돌아오기로 결정하였다. 태종은 순(淳)의 죽음을 듣고 곧 그의 공을 생각하여 벼슬을 증직하였으며, 또 화공(畫工)에게 명하여 그 반신을 그려서 그 사실을 나타내었다. 그 부인 임 씨(任氏)는 부고를 듣고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다.⁵¹⁾

박순의 옛 마을은 고양(高陽)과 교하(交河)의 경계에 있다. 지금까지 그 마을을 이름하여 부사문(府使門)이라 한다.

- 태조가 처음에 덕원에 갔다가 또 함흥으로 갔는데, 문안사(問安使)로 죽은 사람이 속출하였다. 태종이 태조의 돌아 올 것을 청하고자 하나 방법이 없었다. 어떤 사람이 아뢰기를, “무학(無學)이면 능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므로, 태종이 물색하여 찾아서 간곡히 청하니, 무학(無學)이 어쩔 수 없이 함흥에 가서 태조를 뵈었더니, 태조가 노하여 이르기를, “너도 또한 나를 달래러 왔구나.” 하였다.

무학이 웃으면서 아뢰기를, “전하께서 제 마음을 모르십니까?. 빈도(貧道)가 전하와 더불어 서로 안 지가 수십 년인데, 오늘 특별히 전하를 위로하기 위하여 왔을 뿐입니다.” 하니 태조의 안색이 조금 부드러워져서 머물러 함께 잤다.

무학은 말을 함에 언제나 태종의 단점을 이야기하였다. 이렇게 하여 수십 일을 지내니, 태조가 굳게 믿었다. 하루는 밤중에 무학이 태조를 달래어 아뢰기를, “방원(芳源)이 진실로 죄가 있으나, 전하의 사랑하는 아들이 이미 다 죽고 다만 이 사람이 남아 있을 뿐이니, 만약 이것마저 끊어 버리면 전하가 평생 애써 이룬 대업(大業)을 장차 누구에게 맡기려고 하십니까? 남에게 부탁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혈육에게 주는 것이 나으니, 원컨대, 세 번 생각해보소서.” 하니, 태조가 그의 말이 그럴듯하다고 생각하고 드디어 행차를 돌릴 뜻이 생겼다.

무학이 급히 돌아 갈 것을 권하였다. 그러나 태조가 성(서울)에 들어가기 원하지 아니하고 처음에는 소요산에 이르러 두어 달 머물렀다가 그 길로 풍양(豐壤)에 가서 궁을 이 지어 거처하였다. 뒤에 무학이 죽은 데는 알지 못한다.⁵²⁾

- 태조가 함흥으로부터 돌아오니, 태종이 교외에 나가서 친히 맞이하면서 성대히 장막을 베풀었더니, 하륜(河倫) 등이 아뢰기를, “상왕께서 성난 것이 아직 다 풀어지지 아니 하였으니, 모든 일을 염려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차일(遮日)에 받치는 높은 기둥을 마땅히 큰 나무를 써야 할 것입니다” 하니 태종이 허락하고 열 아름이나 되는 큰 나무로 기둥을 만들었다. 양전(兩殿, 태조와 태종)이 서로 만나매 태종이 면복(冕服)을 입고 나아가 보았는데 태조가 바라보고 노한 얼굴빛으로 가졌던 동궁(彤宮)과 백우전(白羽箭)을 힘껏 당겨서 쏘았으나, 태종이 급해서 차일 기둥에 의지하여 몸을 가리웠으므로 화살이 그 기둥에 맞았다. 태조가 웃으면서 노기를 풀고 이르기를, “하늘이 시키는 것이다” 하고 이에 나라의 옥새를 주면서, “네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이것이니, 이제 가지고 가라” 하였다. 태종이 눈물을 흘리면서, “술통 있는 곳에 가서 잔을 잡고 <술을 부으시고> 잔을 올릴 때에 친히 하지 말고 마땅히 내시에게 주어 드리시오” 하므로 태종이 또 그 말대로 하여, 내시가 잔을 올렸다. 태조가 다 마시고 웃으면서 소매 속에서 쇠망치를 찾아내어 자리 옆에 놓으면서 이르기를, “모두가 하늘이 시킨 것이다” 하였다.⁵³⁾

여러 야사에 나타나는 위의 기사들은 사실과 허구, 그리고 오류를 적당히 섞어 꾸며낸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우선 태조는 조사의의 난이 일어나기 전에는 함흥에 간 적이 없고 조사의의 난 외중에는 불과 10여 일 함흥에 머물렀으며 이어 바로 관군에 포착(捕足)되어 압송되었으므로 함흥차사(咸興差使) 사건이 일어날 일체의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없었다.

따라서 위의 속설은 모두가 허구이다. 이 속설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

52) 『연려실기술』 태조의 함흥 주필(駐蹕) 조 - 오산설림(五山設林)

53) 『연려실기술』 태조의 함흥 주필(駐蹕) 조 - 죽수면(逐睡篇)

54) 태종 1년 4월 26일 (갑신)

55) 태종 2년 2월 5일 (무오)

약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전개 과정도 결말도 전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

차사	장소	설득 방법/ 내용	비고
성석린	함흥	인륜의 변고를 처리하는 방도로 설득	자손이 장애자가 됨
박 순	함흥	새끼 떨어진 어미 말을 데리고 감 쥐가 지붕에서 떨어지려는 새끼를 끌어 안음	용흥강에서 죽임을 당함
무학	함흥	자손이 다 죽고 방원 밖에 남지 않았음을 설득	무학은 행방불명이 됨

우선 성석린의 자손은 장애자(맹인)가 되지 않았고, 박순은 조사의의 난 외중에 태조가 함흥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태조가 아닌 조사의의 군에 의하여 피살되었고, 무학은 행방불명된 것이 아니라 회암사에서 입적하였다.

아울러 사건의 전개 과정이 사실과는 다르다. 관계기록을 보자.

먼저 성석린의 경우이다.

— 임금이 마이천(麻伊川)에 나가서 머물렀다. 처음에 태상왕(太上王)이 동북(東北)에 오랫동안 머무를 뜻이 있었는데, 마침 단주(端州)에 숯비[炭雨]가 내린 과변이 있었고, 또 가뭄과 흉년으로 인하여 백성이 굶주려 죽는 사람이 많으므로 돌아오려고 하였다. 마침 성석린(成石璘)이 그곳에 이르니, 태상왕이 기뻐하여 말하기를, “일찍이 문안(問安)하는 자를 보아도 역시 기쁘지 않았었는데, 이제 경(卿)을 보니 반갑고 기쁘기 그지없다.” 하였다.

석린이 곧 궁온(宮飮)을 바쳐 헌수(獻壽)하고, 술이 얼근히 취하여, 조용히 돌아 가시기를 청하는 뜻을 아뢰었더니, 태상왕이 웃으며 말하기를, “경이 돌아가자고 청한 것이 내가 돌아가려고 작정한 뒤이다. 경이 먼저 가라. 내가 뒤를 따르겠다.” 하였다.

석린이 대답하기를, “주상께서 날마다 회가(回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였다더니, 태상왕이 선뜻 고쳐 말하기를, “그렇다면 마땅히 경과 함께 돌아가겠다.” 하였다.

석린이 머리를 조아려 사례하고, 곧 사람을 보내어 이 사실을 아뢰었다. 임금이 이를 듣고 감동하고 기뻐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태상왕의 거가(車駕)가 장차 도착될 것이므로, 나가서 마이천(麻伊川)에 머물러 공장(供帳)을 갖추고 기다렸다.⁵⁴⁾

— 창녕 부원군(昌寧府院君) 성석린(成石璘)과 판승녕부사(判承寧府事) 정용수(鄭龍壽)가 소요산에서 돌아왔다. 성석린 등이 아뢰었다.

“태상왕께서 빨리 돌아오실는지, 늦게 돌아오실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⁵⁵⁾

이 자료에 나타난 것처럼 성석린이 이성계를 찾아가 환궁을 설득하였던 곳은 태종 1년의 경우 안변의 석왕사였고, 태종 2년의 경우는 소요산이었다. 그러나 모두 태조의 환궁을 성공시킨 것도 아니었다. 안변에 머무는 태조를 찾아가 설득했던 태종 1년의 경우는 설득에 성공하였으나 소요산의 경우는 태조의 환궁이 굳이 성석린의 설득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안변의 경우도, 소요산의 경우도 임금이 보내는 차사는 모두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성계는 자신의 환궁을 설득하려 오는 차사를 귀찮아하기는 하였으나 그 차사를 죽이지는 않았다. 따라서 함흥차사로 이성계의 환궁을 성공시켰다는 「연려실기술」의 기사는 정확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둘째 박순의 경우를 보자.

박순이 조사의의 난과 관련되어 함흥에서 죽임을 당한 것은 맞다. 그러나 그는 소위 말하는 함흥차사가 아니었다. 그는 함흥에서 당시 반란을 일으키려는 조사의 군을 선무하다가 태조가 아닌 조사의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이성계가 조사의 군에 합류하기 위하여 함흥으로 출발하여 미처 함흥에 도착하기 이전의 일이었다.

- 상호군(上護軍) 박순(朴淳)을 동북면(東北面)에 보내었는데, 저쪽 군중(軍中)에서 피살되었다. 순(淳)이 함주(咸州)에 이르러 도순문사(都巡問使) 박만(朴蔓)과 주군(州郡) 수령(守令)에게 '사의(思義)를 따르지 말라고' 교유(教諭)하다가, 마침내 저쪽 군중(軍中)에 피살되었다.⁵⁶⁾

따라서 그는 이성계의 환궁을 설득하기 위하여 태종으로부터 함흥에 보낸 받은 사람, 즉 함흥차사가 될 수 없다.

셋째 무학의 경우를 보자.

만약에 함흥차사로 그 임무를 완수한 사람을 든다면 무학이 바로 그 예가 될 수는 있겠다. 조사의의 난 중에 사체(事體)의 급박함을 느낀 이방원 정권이 여러 차례의 차사를 이성계 쪽으로 보내는데 이 중 함흥의 이성계를 방문한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 태상왕이 역마(驛馬)를 타고 함주(咸州)로 향하였다. 임금이 왕사(王師) 무학(無學)을 태상왕의 행재소에 보내었으니, 무학은 태상왕께서 공경하고 믿는 자이기 때문에, 주상의 뜻을 상달하여 속히 환가(還駕)하기를 청하도록 함이었다.⁵⁷⁾

이성계가 동북면으로 향한 것이 태종 2년 11월 1일이었고 김화를 지난 것이 11

56) 태종 2년 11월 8일 (장해)

57) 태종 2년 11월 9일 (무자)

월 4일, 철령을 넘은 것이 11월 8일, 다시 함흥으로 향한 것이 그 다음 날인 11월 9일이었다. 이성계는 중간에 행군 속도가 느리자 역마를 갈아타고 달렸다고 했으니, 이를 계산에 넣지 않는다 하여도 서울에서 함흥까지의 일정이 대략 10일이 되겠다. 그런데 무학이 함흥으로 출발한 것이 11월 9일이었고, 이성계가 함흥을 떠나 맹주로 향한 것이 11월 18일이니 이 일정만으로는 무학이 이성계를 만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인다.

이성계가 함흥을 출발한 후에 무학이 함흥에 도착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연려실기술』은 이성계와 무학이 ‘수십 일’을 함께 묵으며 회포를 나누는 가운데 그를 설득했다고 기록하였는데, 비록 무학과 이성계가 만났다 하여도 수십 일을 함께 머무는 상황을 성립이 되지 않는다. 비록 이성계와 무학이 함흥에서 만났다 하여도, 무학이 이성계의 환궁 설득에 성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성계는 환궁하지 않고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서북면의 맹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함흥차사는 파견되지 않았던 것일까?

그것은 그렇지 않다. 적어도 태조의 이동 목표를 함흥으로 상정하여 그 전후 이성계의 환궁을 설득하기 위하여 차사들이 파견된 것은 사실이다. 단지 죽임을 당하지 않은 것뿐이다.

함흥차사 사건은 우리가 조사의의 난의 전모를 살펴본 것처럼 태조의 생애 중 그가 왕위에서 물러난 정종 1년부터 조사의의 난이 종결되는 태종 2년의 사이, 즉 1400년에서 1404년 약 4년간의 시간 상황과 함흥이라는 공간을 상황 조건으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실록에 따르면 이성계가 왕위에서 물러난 후 함흥에 갔었던 것은 태종 2년 11월 1일에서 12월 8일까지 약 한 달 간, 조사의의 난에 가담하려 함흥에 갔었던 사건이 유일하므로, 함흥차사는 11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라는 시간적 제한을 받는다.

조사의의 난이 발생하고 이성계가 이 반란에 가담할 것이라는 정황이 분명해지면서 이방원 정권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그 노력의 일환이 이른바 차사의 파견이다. 바로 함흥차사 사건의 모티브가 되는 사건이지만 차사 대부분은 태조를 만나지 못하였고, 한 명도 죽임 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함흥차사라는 사건은 그 자체로는 역사적 실체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4. 소요사(寺)

1) 조선의 억불정책

조선은 고려를 부정하며 세워진 나라이다. 특히 고려의 정치, 사회 이데올로기였던 불교는 처음부터 조선 건국의 주체인 사대부들의 혁파의 대상이었다. 건국의 핵심인 정도전이나 조준은 불교를 극단적인 사설(邪說)로 폄하하고 공격하는 논문을 집필하고 이를 불교 공격의 주교재로 삼을 정도였다.

조선 건국이후 개국 세력 간에 벌어진 알력이 진정되고 정치와 사회, 외교의 전반이 점차 안정 국면에 접어들자 조선은 기왕의 반 불교 정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그리고 반 불교정책의 핵심에는 출가(出家)의 제한과 사찰 소속 노비의 혁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찰의 철폐 등 불교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조치들이 포함된다.

(1) 태종의 억불정책 - 사노비(寺奴婢) 혁파

국가에서 회암사는 불교의 수법 도량(修道道場)이요, 진관사는 수륙 도량(水陸道場)이므로, 노비를 넉넉하게 주어 공양하게 하였으니, 여기에 있는 자는 진실로 마음을 깨끗하게 가지고 욕심을 적게 하여 불조(佛祖)의 임금을 수(壽)하게 하고 나라를 복되게 하는 정신을 계승하고, 국가의 무거운 은혜에 보답하여야 할 것인데, 이제 회암사 중 가휴(可休)·정후(正厚)와 진관사(津寬寺) 중 사익(斯益)·성주(省珠) 등 수십여 인은 항상 절의 계집종과 음욕을 방지히 행하여 삼보(三寶)를 더럽혔고 국법을 범하였습니다. 이름난 절로서 이와 같을진댄, 단 절 중들의 더럽고 행실이 없음은 단정코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절에 노비가 있는 것은 대개 예부터 내려오는 폐습에 기인한 것이므로, 갑자기 개혁하지 못하던 것이나, 이것은 중들을 죄에 빠지게 하는 것으로서, 불도의 수치일 뿐만 아니라, 또한 국법의 결함이라 하겠습니다. 공손하게 생각하건대, 주상 전 하께서는 총명하고 슬기로운 자질로서, 천명을 받고 왕위에 오르시어 정신을 가다듬고 정치를 하고 계시니, 옛날의 폐습을 개혁하고 새로운 정사를 선포함이 마땅합니다. 신 등은 원컨대 여러 절의 노비를 다 없애어 중들로 하여금 음란한 행동으로 죄에 빠지는 잘못이 없고 청정 과욕(淸淨寡欲)하는 아름다움이 있게 하면, 이 위에 더 다행이 없을까 합니다.”

하고, 육조에서도 상서하기를,

...회암사와 진관사는 청정하다고 하는 절인데, 그 절 중이 계집종을 간음하여 혹 두세 사람에게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음양이 서로 구하는 것은 이치의 떳떳한 것이라, 밤낮으로 친근하니 어찌 범하지 않겠습니까. 회암사와 진관사가 이러할진대, 하물며 단 절이 리오, 각 절의 노비를 모두 관에 이속(移屬)시키고, 중들로 하여금 괴롭게 수행하게 하여, 그 도를 바르게 하기를 비나이다.” 하였으며,

58) 세종 1년 11월 28일 (무진)

대간의 상소에는, “가만히 생각하건대, 석 씨의 교는 청정과 과욕을 으뜸으로 삼는 까닭에, 고행 결식(苦行乞食)하고, 안일과 포식을 구하지 않는 것이 그 도입니다. 주지(住持)된 자가 전지와 백성에게서 수입한 것으로 방자스럽게도 안장 차린 말과 의복·주식비(酒食費)로 쓰고 있으며, 도징(道澄)·설연(雪然)과 같이 스승의 가르침을 배반하고 절의 계집종을 간음한 자도 있어, 스스로 그 도를 파괴하였으니, 진실로 그 노비를 혁파하여, 그 도를 다하게 함이 마땅하나, 적년(積年)된 폐습을 갑자기 개혁할 수 없어서, 다만 절을 줄이고 그 노비의 수를 정하여, 10리 밖에 살게 하되, 비자는 <절>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을 금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중들을 음욕에 빠지지 않게 하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회암사와 진관사는 이름난 절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사익과 성주(省珠)는 그 절의 비자와 간음하다가 일이 발각되어서 도망하였고, 정후(正厚)와 신각(信覺)·가휴(可休)도 또한 비자를 간음하였으니, 그 음욕을 자행한 것은 도징과 설연보다 심한 것입니다. 회암사와 진관사에 있는 자가 이럴진대, 하물며 다른 절 중이겠습니까. 또 중은 이미 어버이[親]를 이별하고 애정을 끊었으니, 비록 부모의 노비라 할지라도 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원컨대 절의 노비는 혁파하고, 중들의 노비도 본집으로 돌아가게 하여, 그 스승의 청정한 가르침에 부응하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3의정 및 대사헌을 불러서 명하기를, “서울과 지방의 사찰 노비를 혁파함이 가하다. 개경(開慶)·연경(衍慶)·대자암(大慈菴)의 노비도 또한 혁파할 것이나, 오직 정업원(淨業院)은 과부(寡婦)들이 모인 곳이고, 또 노자(奴子)가 가까이 하는 곳이 아니니 면하라.” 하고⁵⁸⁾

위의 기사는 사찰에서 일어난 승려들의 사비(寺婢) 간음을 계기로 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노비를 혁파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특히 여종들이 승려의 취사, 세탁을 핑계로 절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고 나아가 아예 절에 분급한 노비를 혁거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물론 이 조치는 표면적으로는 회암사와 진관사의 승려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삼아 이의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지만 기실 내용은 절의 노비를 체탈(遞奪)함으로써 사찰의 경제력을 축소, 제한하는 것이다. 이로써 조선 불교는 심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다.

이 조치는 세종 즉위년에 이루어졌지만 당시 태종은 상왕으로서 특히 군국(軍國)의 주요 결정권을 여전히 장악하고 있었고, 사안(事案)의 내용에서도 일부 사찰에서 발생한 승려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보고받고 관계기관에 밀명을 내려 사노비(寺奴婢)의 혁파(革罷)를 주청하도록 시주함으로써 본 조치의 목적을 극명히 드러내고 있다.

(2) 세종의 억불정책 - 사찰(寺刹) 혁파(革罷)

59) 세종 6년 4월 5일(경술)

이어 세종은 좀 더 진일보한 반불교정책을 내놓는다. 사찰의 난립으로 인한 사찰 관리 부실을 이유로 전국의 사찰을 36개소만 남기고 모조리 혁파하여 버린 것이다. 이는 일종의 극악한 종교 탄압이었다.

- "... 또 서울과 지방에 사사(寺社)를 세워, 각 종(宗)에 분속(分屬)시켰는데, 그 수효가 엄청나게 많으나, 중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절을 비워두고 거처하는 자가 없으며, 계속하여 수습(修葺)하지 않으므로 점점 무너지고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조계(曹溪)·천태(天台)·총남(總南) 3종을 합쳐서 선종(禪宗)으로, 화엄(華嚴)·자은(慈恩)·중신(中神)·시흥(始興) 4종을 합쳐서 교종(敎宗)으로 하며, 서울과 지방에 중들이 우거할 만한 곳을 가려서 36개소의 절만을 두어, 양종에 분속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전지를 넉넉하게 급여하고 우거하는 중의 인원을 작정하며 무리지어 사는 규칙을 작성하여, 불도(佛道)를 정하게 닦도록 할 것입니다. 이어 승록사(僧錄司)를 혁파하고, 서울에 있는 흥천사(興天寺)를 선종 도회소(禪宗都會所)로, 흥덕사(興德寺)를 교종 도회소(敎宗都會所)로 하며, 나이와 행동이 아물러 높은 자를 가려 뽑아 양종의 행수장무(行首掌務)를 삼아서 중들의 일을 살피게 하기를 청합니다. 이제 분속하려는 서울과 지방의 사사(寺社)와 우거하는 중의 정원과 급여할 전지의 결수(結數)를 가지고 낱날이 아립니다.

선종에 예속된 것으로는 절이 18개소, 전지(田地)가 4,250결입니다... 회암사(檜巖寺)는 원속전이 5백결이고, 향거승이 250명이며, 진관사(津寬寺)는 원속전이 60결인데, 이번에 90결과 수륙위전 1백결을 더 주고, 거승은 70명이며, 고양(高陽) 대자암(大慈菴)은 원속전이 152결 96복(卜)인데, 이번에 97결 4복을 더 주고, 거승은 120명입니다...

교종(敎宗)에 소속된 것으로는 절이 18개소, 전지가 3,700 결입니다. ... 소요사(道遙寺)는 이번에 속전이 150결이고, 거승은 70명입니다...⁵⁹⁾

물론 세종 자신은 독실한 불교 신자였고, 반불교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한 아버지 태종의 죽음 후에 그의 명복을 비는 수륙제(水陸齋)를 진관사에서盛大하게 지냈음은 물론 자신은 후에 경복궁 안에 내불당을 두고 불교에 심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왕 개인의 사적인 신앙이었고 불교를 억압하는 것은 조선의 건국이념인 성리학의 확산, 보급과 함께 국가적인 정체성 구현 차원에서 진행해야 할 공적인 국왕의 임무였다. 따라서 불교는 승려의 출가를 제한하는 도첩제(度牒制)의 시행과, 사찰 소속 노비(奴婢)의 혁거, 나아가서는 불교 사찰의 혁파라는 존망의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다.

세종의 사찰 혁파 와중에서 살아남은 사찰은 그 상당수가 왕실과 인연을 가진 사찰이라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그 36개의 생존 사찰 중에 우리 동두천 소요산의 소요사가 있었다.

2) 소요사

(1) 소요사 존립의 전말

전국의 사찰을 36개소만 남기고 혁파하라는 세종의 불교 억압 조치 가운데에도 소요사는 그대로 존치되었는데 허락된 소요사의 규모는 소속 토지 150결에 향거승 70명이었다.

토지 1결(結)의 넓이는 토지의 등급에 따라 다르나 가장 좋은 1등급 토지의 경우 2,760평, 가장 낮은 6등급 토지가 11,030평이었으므로 소요사가 받은 토지를 환산하면 대략 412,500평에서 1,654,500평에 이르는 규모가 된다. 그리고 향거승은 절에 머물 수 있는 승려의 정원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수가 70명이니 작다고 할 수는 없는 규모였다. 법보 종찰인 해인사와 속리산 법주사가 각각 100명 수준이었다.

소요사가 가혹한 불교 탄압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원인은 아무래도 사찰의 유래나 규모에 기인한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전의 불교 사찰 관련 자료에 소요사가 규모나 법연(法緣)의 모든 면에서 뚜렷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 때문이다.

그렇다면 소요사의 생존은 아무래도 특별한 경우로 보아야겠고 그 특별한 사연은 왕실, 즉 태조와의 인연 외에는 달리 찾을 수가 없다. 즉 태조의 소요사 주필과 이에 관련한 태종의 소요사 행행이 바로 소요사 생존의 이유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전국 사찰이 36개로 제한되면서 각 도의 유수한 사찰이 모두 혁파의 비운을 맞아 심지어 2-3개 정도의 사찰만이 살아남고 심지어 함경도와 평안도에도 전체에 단 1개소의 사찰만이 잔류하게 되는 상황에서 유독 경기 지역의 흥천사, 관음굴, 진관사, 승가사, 회암사, 대자암, 그리고 함경도의 석왕사 등 특히 태조와 관련이 깊은 사찰들이 살아남는 정황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조사의의 난이라는 반정의 기지로 활용되었다하더라도 소요사의 입장에서 태조와의 인연이 대단히 소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관련하여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의 다음 기사는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 소요사(소요산 허리에 있다.) 태종 3년 임오에 태조가 절 남쪽 행전에 머물러, 여러 달을 두고 <절>의 온갖 그림을 새롭게 하였으며, 금상 6년 갑진에 태조의 원당으로 하여 교종에 붙이고, 발 1백 50결을 주었다.

즉, 소요사를 태조의 원당(願堂)으로 삼았다는 기록이다. 본래 원당(願堂)은 능의 근처에 위치하여 죽은 왕의 명복(冥福)을 비는 사찰을 의미하는데, 태조의 건원릉에 마땅한 원찰이 없었으므로 소요사를 태조의 원찰(願刹)로 삼았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불교 탄압에서 살아남은 소요사가 이후 교세(教勢)가 크게 진작되었다든지, 선풍(禪風)이 크게 떨쳤는지 한 것 같지는 않다. 소요사는 이후 조용하고 한적하며 산수(山水), 특히 단풍이 미려(美麗)한 소요산의 작은 사찰로 풍류(風流)의 탐방 대상으로 나타나지 불교신앙의 중심지나 선승(禪僧)의 주류지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따라서 소요사라는 이름은 불교 관련 기사보다는 오히려 유사(儒士)들의 원족(遠足)이나 답산(踏山) 기록에 주로 나타나다가 이윽고는 소요사라는 이름마저 소멸되고 자재암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현존하게 되는 것이다.

3) 소요사와 소요산

(1) 허목(許穆)의 방문

조선시대에 소요사를 찾은 많은 문사(文士)가 시문을 남겼지만 당시의 소요사를 짐작할 수 있는 기행문을 남긴 사람은 아마도 미수(眉叟) 허목(許穆)이 거의 유일하다고 생각된다.

허목은 서울을 떠나 연천으로 북행하는 노정(路程) 중에 소요사를 찾았고, 이를 기행문으로 적어 자신의 문집인 『미수기언(眉叟記言)』에 남겼다.

미수 허목의 이 기행문 「소요산기(逍遙山記)」는 조선 후기의 소요사를 대략이나마 개관할 수 있는 기록이기에 해당 전문을 여기에 인용하기로 한다.

- 산중에 들어서면 산이 모두 돌이어서 봉우리와 동굴, 장명등(長明燈)과 다리도 다 돌로 되었으며, 산의 나무는 소나무·단풍나무·철쭉나무가 많다. 궁터가 있는 남산(南

60) 「기언 별집」 제9권 기(記) - 소요산기(逍遙山記)

山)에는 돌이 뾰족하게 솟았으니, 가장 높은 곳에 백운대(白雲臺)가 있고 조금 아래 중백운(中白雲)이 있고 또 조금 아래 동북으로 하백운(下白雲)이 중대(中臺) 위에 있다. 궁터 위에 폭포가 있는데 높이는 8, 9인(勿 1인은 8척)이 되고, 그 밑으로 계곡을 따라 중대로 올라가면 큰 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빈터만 남았다. 폭포 옆 높이가 10여 인이나 되는 절벽에 비스듬히 걸쳐 있는 나무사다리를 올라가면 원효대(元曉臺)이고 원효대를 지나면 소요사(逍遙寺)가 있다.

소요사 벽기(壁記)에, “신라의 중 원효가 이 산에 머물러 있었고, 그 뒤 3백 년 갑술년에 고려(高麗)의 중 각규(覺圭)가 태상왕(太上王)의 명을 받들어 정사(精舍)를 지었고, 그 뒤 2백 년 계유년에 이 정사가 불에 탔고 그 이듬해 갑술년에 관동(關東)의 중 각령(覺玲)이 불전(佛殿)과 법당을 중건했다.” 하였는데,

목암(牧庵)의 기(記)에는, “원효는 신라의 태종(太宗)과 문무(文武) 때의 중이니, 그 연대를 따져 보면 신라의 태종 때부터 우리 강헌대왕(康獻大王) 갑술년까지는 767년이 되고, 또 만력(萬曆) 갑술년까지는 180년이나 되는데, 벽기에 ‘3백 년’이라 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하였다.

동쪽 모퉁이에서 폭포 구경을 하는데, 그 위에 5, 6장이나 되는 큰 돌이 절벽 위에 서 있다. 암벽 사이의 돌구멍에서는 샘물이 졸졸 흐르는데 이것이 원효정(元曉井)이다.

이규보(李奎報)는 다음과 같은 시(詩)를 지었다.

산 따라 위험한 다리 건너	(循山渡危橋)
발을 포개며 좁은 길 걷네	(疊足行線路)
백 길이나 높은 산마루에	(上有百仞巔)
원효가 일찍이 절을 지었네	(曉聖會結宇)
신령한 자취는 사라지고	(靈蹤渺何處)
초상만이 흰 비단폭에 남았구나	(遺影留鶴素)
차 끓이던 샘에 찬물이 고여	(茶泉貯寒玉)
마셔보니 젓갈이 맛있네	(酌飲味如乳)
이곳에 예전에 물이 없었기에	(此地舊無水)
중들이 머물러 살 수 없었는데	(釋子難棲住)
원효가 와서 거쳐하매	(曉公一來寄)
단물이 돌구멍에서 솟았네	(甘液湧石竇)

암벽을 오르고 깊고 험한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 구봉(九峯)을 바라보니, 산의 돌이 모두 기이하게 생겼다. 중봉(中峯)의 바위굴을 지나 현암(懸庵)의 동남쪽으로 나와서 의상대(義相臺)에 오르니, 여기가 최고의 정상이고, 그 북쪽은 사자암(獅子庵)이다. 골짜기 입구에서 폭포를 지나 층벽을 따라 의상대에 오르기까지의 높이가 9천 장(丈)이다. 10월이어서 산은 깊고 골짜기는 음산한데, 아침 비가 지나간 뒤에 시냇가 돌에 긴 푸른 이끼는 봄철 같고, 단풍잎은 마르지 않았다.

- 4년 계묘 10월 기해에 공암 미수는 기(記)한다.

4년 계묘 맹동(孟冬) 무술에 목(穆)은 완산(完山) 이진무(李晉茂), 상당(上黨)한 균오(韓均吾), 외생(外甥) 이규(李綏)와 이무경(李茂卿)의 세 아들 원기(遠紀)·정기(鼎紀)·현기(玄紀)와 함께 소요사에서 자고, 그 이튿날 같이 의상대 아래서 논 뒤에 제명(題名) (명승지(名勝地)에 등람(登覽)한 날짜와 등람자의 이름을 적는 것) 하였다. 공암 허목은 쓴다.

- 원효대 아래 폭포 옆 바위굴에 또 제명하고, 저녁에 무경(茂卿)의 청초별업(靑草別業)에서 잤다. 그 이튿날 대탄진(大灘津)을 건너 10리를 가서 구절탄(九折灘)에 있는 이생(李生)의 계장(溪莊)에 당도하니, 옛날 화암(花巖) 최유원(崔有源)의 별업으로 산수가 가장 아름다웠다. 미수는 기록한다.⁶⁰⁾

이 기행문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절 주위의 경치를 묘사한 부분인데 얼핏 보아도 현재의 자재암에서 바라보는 주변 산 경치를 마치 오늘에 보는 것처럼 그대로 묘사하였다. 따라서 일부 논란과는 달리⁶¹⁾ 현재의 자재암이 소요사였다는 사실을 이 기록으로 미루어 확연히 알 수 있게 된다.

또 하나는 이 허목의 「소요산기」에 산경(山景)은 자세히 묘사되어 있지만 정작 소요사 절집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산 입구의 태조 행궁을 묘사하고 역내의 광경을 고사(故事)를 인용하여 자세히 기록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산행의 주 목적지였던 소요사의 절집을 단 한 줄도 묘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의문이다.

미수의 기행문에 절집에 관련된 내용은 소요사의 연혁을 소요사 벽기(壁記), 즉 건물 외벽에 써놓은 기록에서 인용하는 부분이 유일한데 이 미수의 기행문에 나오는 벽기가 실제로 건물 벽에 기록한 내용인지, 단지 이전에 즉 절집이 있었을 때의 벽기를 기행문에 인용하였는지는 추후 검토의 대상이 된다. 왜냐하면 미수가 실제로 건물의 벽에 쓰인 내용을 보고 그 내용을 옮겼다면 벽기 이외에도 건물 자체에 대한 별도의 묘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수의 기행문에 절집에 관한 묘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해서 당시에 이미 절집 없는 폐허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미수와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계곡(谿谷) 장유(張維)의 시문에는 소요사의 절집을 노래하면서

동긋동긋 뽕족뽕족 푸르른 산봉우리
금빛 은빛 빛나는 벽옥(碧玉) 빛 사찰
풍진 세상 시끄러움 완전히 격리된 채
불상도 새로 곱게 단장됐구나

(靑山上琬琰)
(碧殿煥金銀)
(忽覺塵喧隔)
(因瞻像設新)

라고 읊어 건물이 웅장하고 화려하였음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기록이

태종 3년 임오에 태조가 절 남쪽 행전에 머물러, 여러 달을 두고 절의 온갖 그림을 새롭게 하였으며....

라고 한 「세종실록지리지」의 기록에 부합된다.

61) 자재암의 연혁에는 소요사가 빠져있어 현재 자재암에서는 소요사와 자재암을 별개의 사찰로 인식하고 있는 듯 보인다.

62) 『추강집』 2권 시(詩) ○오언고시(五言古詩)

63) 梅月堂詩集 卷之十 詩○遊關東錄 逍遙寺

(2) 여러 문인들의 방문

소요사는 일찍이 산세의 장려함과 특히 가을철 단풍의 미려함에 이끌려 많은 문인들이 찾아 유람하며 경치를 즐겼기에 소요사를 노래한 많은 시문이 현재도 남아 있다.

그 중 일부를 소개하고 함께 감상해 보자.

생육신 중의 한 명인 추강(秋江) 남효온(南孝溫)의 소요산 기행시이다.

소요산(逍遙山)에서 원효(元曉)의 옛터를 지나며 나무를 깎아 시를 적다.

그 옛날 신라 시대의	(今昔新羅代)
고승 원효 살던 이곳	(高僧元曉居)
청산은 본래 속되지 않는데	(靑山元不俗)
비 온 뒤 푸른 빛 더욱 펼쳐네	(雨後靑更舒)
아득한 천만고의 옛일이건만	(茫茫千萬古)
한번 담론에 시대를 뛰어넘네	(代序一談餘)
신통은 본래 생멸하지 않으니	(神通不生滅)
법상이 응당 처음과 같으리라	(法象應如初)
배도 화상은 어디로 가셨는가	(柁渡向何處)
마치 목어 소리 들리는 듯 하네	(如聞響木魚) ⁶²⁾

다음은 역시 생육신 중의 한 명이며 남효온과 동시대를 살았던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의 소요산 시(詩)이다.⁶³⁾

—소요사(逍遙寺)	
길 따라 찬 계곡에 드니	(路入寒溪洞)
천개의 봉우리 모두 노을에 물들었네	(千峯落照明)
산은 모두 가파르고 높는데	(四山皆峯嶺)
한 줄기 계곡물이 차고 맑아라	(一澗正淸冷)
절집에는 빛나는 부처요	(殿有金銀像)
중들은 구름처럼 모였네	(僧多雲水情)
일찍이 태조께서 머무시던 곳이언만	(上王曾駐輦)
같은 묻히고 찾는사람 없어라	(徑廢少人行)

이율곡 선생은 학문의 벗 우계(牛溪) 성혼(成渾)과 함께 소요산을 찾아 친히 함께 온 성혼에게 시 한수를 헌정하였다.

- 우계 성훈과 함께 소요산을 찾아와
 잡초 우거진 계곡에 비 넘쳐 다리가 무너졌으니 (草合山溪雨壞橋)
 어디로 향하여야 소요산에 이르는고 (不知何處向逍遙)
 우연히 만난 사람 어디선가 본 듯도 한데 (相逢似是曾相識)
 우거진 숲으로 이끌어 함께 달 보자 하네 (引入煙蘿共月宵)⁽⁶⁴⁾

다음은 조선 후기의 대문호 계곡 장유선생의 소요산 시이다.

- 소요산
 둥글둥글 뽕죽뽕죽 푸르른 산봉우리 (青山上琬琰)
 금빛 은빛 빛나는 벽옥(碧玉) 빛 사찰 (碧殿煥金銀)
 풍진 세상 시끄러움 완전히 격리된 채 (忽覺塵喧隔)
 불상도 새로 곱게 단장됐구나 (因瞻像設新)
 산 그림자 방문까지 드리워지고 (亂峯當戶闌)
 폭포수 날리는 물 의관이 다 젖는다. (飛瀑洒衣巾)
 이리 길까 저리 길까 더 이상 망설이라 (歧路長形役)
 이제부터 승승(殊勝)한 인연 맺게 됐도다 (從今結勝因)⁽⁶⁵⁾

다음은 소요산에 주석(駐錫)하였던 승려 편양(鞭羊)의 선시이다.

- 소요산에 머물러
 늦은 저녁 소요동에 오르니 (晚陟逍遙洞)
 이 아름다운 경치를 어디 비길꼬? (奇觀自異同)
 산의 크기가 비록 작아도 (地偏天若少)
 굽이 굽이 계곡은 길고 길구나 (川遠曲迷重)
 대나무 우거진 바위길 위로 (亂竹岩前徑)
 안개는 먼 산까지 피어가는데 (輕霞霽後峰)
 가슴 속 시흥은 도도하여도 (高吟徒遣興)
 정작 묘사할 필재는 없네 (揮筆句難工)⁽⁶⁶⁾

5. 조선 전기 정치상황의 추이

1) 훈구세력의 득세

태조가 조선을 개국하는 과정에서 이에 협력한 사대부들은 조선 개국과 함께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 공신에 녹훈(錄勳)되었다. 이른바 개국공신(開國功臣)이다.

개국공신(開國功臣)은 1, 2, 3등으로 구분되고 정공신 외에 원종공신이 별도로 책록되었다. 이들 개국공신들에게는 공신의 지위에 걸맞은 막대한 상훈(賞勳)과 특권이 부여되었는데 이에 따라 그들은 일반 관리들과는 구분되는 특권층을 형성하게 된다.

공신등급	상훈
공통사항	모습을 기록하기 위한 기념전각 공을 기록하기 위한 기념비 장자의 공신 계승권 지손의 범죄 사면권
1등	아버지, 어머니, 아내의 작위 3등급 상승 및 봉작 제공 직계 아들의 작위 3등급 상승 및 음식 제공 아들이 없을 경우 조카, 사위의 작위 2등급 상승 및 음식 제공 구사(丘史) 7명, 진배파령(眞拜把領) 10명 전지, 봉작: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음). 배극령, 조준, 정안군, 익안대군, 회안대군: 식읍(食邑) 1,000호, 식실봉(食實封) 300호, 전지 220결, 노비 30구 김사형, 남은, 정도전: 전지 200결, 노비 25구 김인찬, 오몽을, 정충: 전지 150결, 노비 15구 나머지: 전지 170결, 노비 20구
2등	아버지, 어머니, 아내의 작위 2등급 상승 및 봉작 제공 직계 아들의 작위 2등급 상승 및 음식 제공 아들이 없을 경우 조카, 사위의 작위 1등급 상승 및 음식 제공 구사 5명, 진배파령 8명 전지 100결, 노비 10구
3등	아버지, 어머니, 아내의 작위 1등급 상승 및 봉작 제공 직계 아들의 작위 1등급 상승 및 음식 제공 아들이 없을 경우 조카, 사위의 음식 제공. 구사 3명, 진배파령 6명 전지 70결, 노비 7구

이들 개국 공신은 조선 개국 초기 정도전을 중심으로 한 신권파(臣權派)와 태

중 이방원을 필두로 하는 왕권파(王權派) 사이의 격렬한 내분을 겪으며 그 인원이 가감하지만 그들이 향유하는 정치적, 경제적, 신분적 특권은 여전히 막강하였다.

한편 태종이 신권파를 몰아내고 집권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세조가 집권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권력자를 옹립한 공을 세운 사람들이 거듭 공신으로 책봉되어 점차 공신은 그 숫자가 확대되어 갔다. 아울러 특권을 지닌 공신 집단의 존재는 녹훈 당시와는 달리 오히려 왕권을 제한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이익 집단으로 변질되었을 뿐 아니라 때로는 왕권으로도 통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아가게 된다.

개국공신 이후의 공신

공신칭호	책봉사유
개국공신(開國功臣)	조선의 개국 공로자
정사공신(靖社功臣)	왕자의 난과 관련된 유공자
정난공신(靖難功臣)	김종서 등 원로세력과 안평대군 등을 숙청한 공로자
좌익공신(佐翼功臣)	세조의 즉위에 공을 세운 자
익대공신(翼戴功臣)	남이의 숙청에 공을 세운 자
좌리공신(佐理功臣)	성종 임금을 잘 보좌한 공로

이전에 자신을 왕위에 올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지만 일찍이 이들 공신 집단의 존재를 왕권과 통치의 장애요소로 인식한 태종은 아들 세종에게 통치권을 이양하기 이전에 공신들을 철저히 숙청하기도 하였다. 자신의 처족인 민무질, 민무구 등과 이숙번 등의 공신, 그리고 심지어는 아들 세종의 처족인 청송 심씨 일족 등 무구한 사람들을 단지 특권을 지닌 공신이며 동시에 차후 자신의 후계자인 세종의 정치 입지에 저해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죽임으로 내몰아 갔다.

그러나 세조는 태종과 달랐다. 수양대군(首陽大君) 시절 김종서, 황보인 등 실권을 장악한 권신들은 물론 자신의 아우인 안평대군(安平大君)과의 왕권 경쟁에서조차 열세였던 자신을 도와 왕위에 올린 여러 공신들을 자신의 정치 파트너로 삼아 종신토록 동반하려 하였던 것은 물론 그들을 후대함으로 자신처럼 자신의 후계자 예종과도 고락을 같이하는 동반 세력이 되어주기를 원했다. 한명회, 신

숙주, 정인지 등 세조(世祖) 대의 공신들이 조선 전기에 막대한 정치적, 경제적, 신분적 특권을 장악하게 된 원인이다.

이들 공신의 특권은 공신 자신의 당대에 국한되지 않고 적장(嫡長)을 중심으로 한 자손들에게 세습되었다. 공신이 하사받은 엄청난 공신전(功臣田)과 중죄(重罪)를 제외한 법률에 구애되지 않는 신분적 특권, 그리고 과거를 통하지 않고도 사로(仕路)에 나갈 수 있는 정치적 특권까지 모두를 자손들이 상속받았고 회맹(會盟)과 혼인(婚姻)을 통하여 이들 공신 집단은 더욱 공고한 특권 집단을 형성해 나갔다.

이들을 바로 훈구(勳舊) 세력이라 한다. 세조(世祖) 이후 성종(成宗) 연간에 이르도록 이들 훈구세력은 실질적인 조선의 지배세력이었고 누구도 허물지 못하는 강력한 특권집단이었다. 이들 공신 훈구집단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들에게 권력을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거나 낙향하는 패배 집단은 이후 권력에서 밀려나 지방에 은거하며 조용히 학문 연구에 몰두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들이 점차 성장하고 있었다.

2) 사림파의 대두

공신세력, 즉 훈구파라 불리는 특권집단의 그늘에는 이들에게 권력을 빼앗긴 소수집단이 있었다. 일찍이 조선 개국과정에서 이에 반대하여 침몰한 고려 절신(節臣)들을 비롯하여 태종(太宗)의 집권과정, 세조(世祖)의 집권과정, 예종(睿宗)과 성종(成宗) 대의 정권 다툼에서 패배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살아남는 다 해도 중앙 정치판에서 밀려나 낙향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재야(在野)에 묻힌 이들은 사대부(士大夫)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빈약한 토지를 경영하면서 성리학을 비롯한 학문 연구에 몰두하게 된다. 이들을 사림(士林) 또는 산림(山林)이라 불렀다.

이들 사림은 정치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사대부 세력으로서 학문, 즉 성리학의 정통을 자임하는 한편 동일한 사람끼리의 학문적 교제와 혼인을 통한 결속을 다져가게 된다. 이들 사림이 다시 정치판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은 조선의 유일한 환로(宦路), 즉 과거(科擧)제도 덕분이었다. 정치판에서 밀려나 학문 연찬에

67) 『동각잡기』(東閣雜記)

몰두해 온 그들은 적어도 성리학적 수준에 있어서는 공신집단의 특권에 안주해 온 훈구 공신 세력을 압도하고 있었고 점차 과거를 통한 사로(仕路)에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었다.

이윽고 훈구 세력 내에서도 노장세력과 소장세력의 갈등이 깊어져 예종 대에 이르러 아버지 세대가 육성해 온 공신집단에 대한 공식적인 견제가 시도되기도 하였고 남이(南怡)의 숙청이나 성종(成宗)의 즉위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훈구세력 내부의 갈등이 정치적 혼란으로 표출되기도 하였다.

결국 성장을 거듭하며 훈구세력에 도전하는 사람과 이를 견제하려는 훈구 공신세력, 그리고 개국 이래 거듭되어 온 왕권과 신권의 갈등에 더하여 외척세력의 발호가 겹쳐지면서 결국 조선의 정국은 사화(士禍)로 대표되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된다. 바로 그 혼란의 와중에서 왜란과 호란, 즉 양난(兩難)으로 지칭되는 이민족의 침노와 왕권과 신권이 갈등하는 연산군, 광해군 시대의 무질서, 외척 세력의 다툼, 그리고 당쟁 등 혼란의 불씨가 자라나기 시작한다.

6. 어유소 장군의 활약

1) 어득해

어득해(魚得海)는 본관이 충주로서 그의 선조 어중익이 어(魚) 씨를 사성(賜姓) 받기 전 본래의 성은 지(池) 씨였다. 자료는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 어중익(1041?~1132 魚重翼)의 본래는 충주 지씨 6세손으로 지중익(池重翼)이었는데 그의 거드랑이에 비늘이 세 개가 있다고 해서 고려 문종이 이것을 보고 '인갑이 있으니 이는 물고기다.' 하며 어씨 성을 하사 했다고 한다. 비늘은 평장사를 지냈다.⁶⁷⁾

동두천의 충주 어씨는 시조 어중익의 11세손 어승진이 입향한 후 그의 손자인 어득해에 이르러 중앙 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한다.

어득해는 무과로 진출한 후 세조의 정권 장악에 적극 협력하여 원종공신 2등에 책봉되고, 영월 청령포로 귀양가는 단종을 호송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 68) (세조 3년 6월 21일 (계축))
- 69) (세조 3년 11월 9일 (기사))
- 70) (세조 3년 11월 27일 (정해))
- 71) (세조 4년 2월 10일 (기해))
- 72) (세조 4년 3월 4일 (신묘))

— ... “전날 성삼문(成三問) 등이 말하기를, 상왕(上王)도 그 모의(謀議)에 참여하였다.’ 하였으므로, 종친과 백관들이 합사(合辭)하여 말하기를, ‘상왕(上王)도 종사(宗社)에 죄를 지었으니, 편안히 서울에 거주(居住)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달 동안 청하여 마지않았으나, 내가 진실로 윤휴(允許)하지 아니하고 처음에 먹은 마음을 지키려고 하였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안심(人心)이 안정되지 아니하고 계속 잇달아 난(亂)을 선동하는 무리가 그치지 않으니, 내가 어찌 사사로운 은의(恩誼)로써 나라의 큰 법을 굽혀 하늘의 명(命)과 종사(宗社)의 중(重)함을 돌아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에 특별히 여러 사람의 의논을 따라 ‘상왕(上王)’을 노산군(魯山君)으로 강봉(降封)하고 궁에서 내보내 영월(寧越)에 거주시키니, 의식(衣食)을 후(厚)하게 봉공(奉供)하여 종시(終始) 목숨을 보존하여서 나라의 민심을 안정시키도록 하라. 오로지 너희 의정부에서 중외(中外)에 효유(曉諭)하라.” 하고,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어득해(魚得海)에게 명하여 군사 50명을 거느리고 호송(護送)하게 하였다. 군사감정(軍資監正) 김자행(金自行)·판내시부사(判內侍府事) 홍득경(洪得敬)이 따라갔다.⁶⁸⁾

어득해는 특히 활숨씨가 뛰어난 세조가 참여하는 활쏘기에 자주 배석하였던 기록이 나타난다. 후일 아들 어유소 역시 뛰어난 활숨씨로 인하여 많은 일화를 남기었으니 무인 집안으로 환로(宦路)를 열었던 부자 모두가 특출한 사술(射術)을 공유하였던 셈이다.

— 임금이 후원(後苑)에 나아가 관사(觀射)하니, 종친(宗親)과 좌찬성 신숙주(申叔舟), 판중추원사 권남(權孳), 병조판서 홍달손(洪達孫), 지중추원사 양정(楊汀)·홍윤성(洪允成), 승지(承旨) 등과 첨지중추원사 어득해(魚得海)가 모시고 쓰았는데, 홍윤성(洪允成)에게 백철관(白鐵罐)을 하사하였다.⁶⁹⁾

— 후원에 나아가서 관사(觀射)하였는데, 종친과 우의정 강맹경(姜孟卿), 좌찬성 신숙주(申叔舟), 병조판서 홍달손(洪達孫), 지중추원사 홍윤성(洪允成)·양정(楊汀), 동지중추원사 심결(沈決), 부윤(府尹) 강곤(康袞), 첨지중추원사 어득해(魚得海)와 승지 등이 모시고 활을 쏘았다.⁷⁰⁾

— 후원에 나아가 활쏘는 것을 구경하니, 양녕대군 이제·효령대군 이보(李補)·임영대군 이구·영응대군 이엄(李琰)·경녕군(敬寧君) 이비·함녕군(咸寧君) 이인·계양군 이증·익현군 이관·영해군 이당·의창군 이공·밀성군 이침·영천 부원군 윤사로(尹師路)·연창위 안맹담(安孟聃)·하성위 정현조(鄭顯祖)·영의정 정인지(鄭麟趾)·양산군(梁山君) 이징석(李澄石)·병조판서 홍달손(洪達孫)·우참찬 성봉조(成奉祖)·지중추원사 양정(楊汀)·도승지 조석문(曹錫文)·우승지 한계미(韓繼美)·우부승지 권지(權孳), 행상호군(行上護軍) 봉석주(奉石柱)·어득해(魚得海)·이비 등이 시사(侍射)하였다. 이긴 자에게는 유안룡(油鞍籠)을 내려 주었다.⁷¹⁾

— 후원에 나아가 관사(觀射)하니, 임영대군 이구·계양군 이증·의창군 이공·익현군 이관·강맹경(姜孟卿)·신숙주(申叔舟)·윤사로(尹師路)·박중손(朴仲孫)·성봉조(成奉祖)·홍달손(洪達孫)·양정(楊汀)·홍윤성(洪允成)·조석문(曹錫文)·김질(金質), 행상호군 양성지(梁誠之)·어득해(魚得海) 등이 시사(侍射)하였다.⁷²⁾

73) (세조 4년 7월 26일 (신해))

- 경회루(慶會樓) 아래에 나아가서 활 쏘는 것을 구경하였는데, 임영대군(臨瀛大君) 이구·함녕군(咸寧君) 이인·계양군(桂陽君) 이증·밀성군(密城君) 이침(李琛)·의창군(義昌君) 이공·영해군(寧海君) 이당·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하성위(河城尉) 정현조(鄭顯祖)·좌찬성(左贊成) 신숙주(申叔舟)·우찬성(右贊成) 황수신(黃守身)·이조판서(吏曹判書) 한명회(韓明澮)·병조판서(兵曹判書) 홍달손(洪達孫),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홍윤성(洪允成)·양정(楊汀), 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 이윤손(李允孫)·행상호군(行上護軍) 김수온(金守溫)·승지(承知) 등과 병조참의(兵曹參議) 한계희(韓繼禧)·행상호군(行上護軍) 어득해(魚得海) 등이 시사(試射)하였다. 인과 신숙주(申叔舟)·황수신(黃守信)·한명회(韓明澮)에게는 매[鷹子] 각각 1련(連)씩을 내려 주고, 황수신·어득해에게는 호피(虎皮) 각각 1장(張)씩을 내려 주었다.⁷³⁾

실제 세조 대의 시사(侍射), 즉 왕이 종친(宗親)과 근신(近臣)들을 불러 궁중에서 여는 활쏘기 모임은 자신의 정권의 기반이 되는 공신들과 친교를 두터이 하고자 한 것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는 훈신(勳臣)들은 세조 정권의 핵심을 이루고, 후일 훈구파(勳舊派)라는 공신 그룹을 형성하여 조선 정치의 중핵을 구성하게 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공신세력을 견제하여 왕권을 강화하는 것을 자신의 정치적 책무로 알았던 태종과는 달리 세조는 공신세력을 바탕으로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특히 자신의 집권과정에 정통성이 결여되었던 탓으로 그는 측근 세력의 결집을 대단히 중시하였다. 세조가 종친과 공신을 자주 궁으로 불러 사적인 모임을 주축한 것은 이처럼 자신과 측근 공신 그룹과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정치적 노력의 일환이었고 어득해가 이 시사(侍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있는 것은 어득해에 대한 세조의 신임이 대단히 두터웠음을 확인하게 하는 동시에 이는 후일 아들 어유소가 입신하는 확실한 배경을 형성하게 된다.

「세조실록」의 다음과 같은 기사가 바로 어득해에 대한 세조의 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 술자리를 베푸니, 임영대군(臨瀛大君) 이구·영응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계양군(桂陽君) 이증·밀성군(密城君) 이침(李琛)·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오산군(烏山君)·이주(李澍)·하성위(河城尉) 정현조(鄭顯祖) 등이 또한 입사(入侍)하였다. 좌부승지(左副承旨) 김질(金質)에게 명하여 선전표신(宣傳標信)을 도진무(都鎭撫) 하우명(河友明)과 위장(衛將) 김개(金溉)·어득해(魚得海)·이인(李茵)에게 주게 하여, 제위(諸衛)의 휘하(麾下) 군사(軍士)와 갑사(甲士)들로 하여금 입사(入侍)하게 하고, 술과 고기를 내려 주고 전자하기를, “일기가 심히 추우니, 너희들이 비록 몹시 취하여 예의(禮儀)를 범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 죄를 주지 않겠다.” 하였다.

74) 《세조 7년 11월 12일(무신)》

동시에 어득해는 당시 현안으로 제기되었던 북방 야인(野人) 문제 해결의 선봉에 섰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갔다. 야인(野人)은 여진(女眞)의 한 갈래로서 본래는 고구려에 복속되었던 말갈족의 후손들이다. 고구려 멸망 후 그 유민들과 함께 발해를 세웠고 발해가 거란에 망한 후에는 따로 여진을 칭하다가 후일 금나라를 세웠다.

1234년(고종 21) 몽골의 침략으로 금이 망하자 여러 부족으로 분산된 뒤 차례 차례 각각 원(元)·명(明)의 지배를 받았다. 명은 송화강 유역의 여진을 해서여직(海西女直), 파저강(婆猪江)·훈강(渾江) 유역의 여진을 건주여직(建州女直), 헤이룽강 유역의 여진을 야인여직(野人女直)이라 하여 독특한 군정으로 이들을 통치하였다. 조선은 두만강 유역에 살고 있던 여진족의 한 부족인 오랑캐(兀良哈)·오도리(斡都里)가 자주 침범해 오자, 1406년(태종 6) 함경북도 경원(慶源)·경성(鏡城)에 무역소를 두고 조공무역 및 국경무역을 허락하였으며, 한양에는 북평관(北平館)까지 설치하였다. 그런데도 침범이 계속 되자 1434년(세종 16)에는 6진과 4군을 두어 그들의 침입을 막았다.

세조 대에 이르러 여진이 대규모의 군사 도발을 감행하며 국경을 어지럽히자 조정에서는 이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강화하게 되는데 세조 7년 한명회를 평안도, 황해도, 함경도, 강원도의 도체찰사(都體察使)로 임명하여 여진의 준동을 제압하고자 북변에 파송할 때 어득해는 상호군(上護軍)으로 그 실무에 임하여 자못 공을 세웠다. 그리고 그가 함경도 전면의 여진족을 안정시키자 그의 귀환을 재촉하여 평안도절제사로 삼아 다시 평안도 방면에 파견하는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세조의 신임이 어떠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 ...어득해(魚得海)·민발(閔發)·구문로(具文老) 등이 함길도로부터 와서 근래에 장차 서울에 들어오려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미 도착하였느냐? 하니,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아직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전지하기를, ‘속히 승정원을 불러서 곧 어득해 등에게 치서하기를, “경 등이 온다고 들었는데 만약 역매(驛買)가 여유가 있으면 속히 함께 오고, 부족하면 어득해만 먼저 달려오라”고 하라.’⁷⁴⁾

어득해는 평안도절제사에 이어 강계절제사로 전임(轉任)하며 평안도 방면의 여진족에 대한 조선의 방어실무를 담당하였을 뿐 아니라 세조 10년에 이르면 압록강을 건너가 여진족에 대한 위력시위를 감행하고 아울러 명으로 가는 조선 사신의 사행(使行) 길을 확보하는 위험한 역할을 수행하고 돌아오기도 하였다.

이후 서울로 돌아온 어득해는 다시 상호군으로 조선군의 지휘부에 참가하고, 이어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使)로 승급하여 세조의 측근으로 군사부분의 자문을 담당하며 민가에 출몰하는 호랑이 사냥이나 궐내에서 시행된 군사훈련의 실무를 맡게 된다.

어득해가 가문의 배경 없이 2품 벼슬에 오르며 국왕의 최측근으로 영달(榮達)하게 된 것은 그의 뛰어난 무예, 특히 궁술과 함께 무장으로서의 지휘능력은 물론 때로는 국왕에게도 대드는 두둑한 배포와 소신에도 힘입은 바 크다.

- ...권경(權擎)과 어득해(魚得海)가 군율(軍律)을 어겼는데, 신숙주에게 명하여 힐문(詰問)하게 하기를, '진법(陣法)이 마땅히 이와 같을 수가 있는가?' 하니, 어득해가 스스로 옳게 여기면서 억지로 떠들썩하기를 그치지 않으므로, 임금이 명하여 술로써 벌하고 또한 군사들에게도 술을 하사(下賜)하였다.⁷⁵⁾

세조의 어득해를 향한 이와 같은 두터운 신임은 바로 그의 아들 어유소에게 이어지고 북변을 안정시킨 부자 2대의 공덕은 우리 동두천의 자랑으로 이어오게 된다.

2) 어유소(魚有沼)

아버지 어득해가 연 환로(宦路)는 그의 아들 어유소(魚有沼)가 계승하여 자못 위용이 있었다. 어유소의 죽음에 즈음하여 실록은 어유소의 생애를 다음과 같이 정리 평가하였다.

-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어유소(魚有沼)가 졸(卒)하니, 철조(輓朝)·조제(弔祭)·예장(禮葬)을 예(例)와 같이 하였다.

어유소의 자(字)는 자유(子游)이니, 충주(忠州) 사람이다. 본성(本姓)은 지 씨(池氏)인데 먼 선조(先祖) 지중익(池重翼)이 고려(高麗) 태조(太祖) 때의 사람으로 인갑(麟甲) 세 개가 겨드랑 밑에 있었는데, 흑자의 말이 '인갑이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므로, 고려 태조가 보고서 '비늘이 있는 것은 곧 고기인 것이다.' 고 성을 어 씨(魚氏)로 내리었다.

아버지 어득해(魚得海)는 무과(武科)에 장원하여 벼슬이 2품에 이르고, 어유소는 활쏘기와 말달리기가 두드러지게 뛰어났다. 경태(景泰) 병자년에 무과(武科)를 수석으로 급제하여 사복시 직장(司僕寺直長)을 제배(除拜)하였다가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로 전임했다.

천순(天順) 경진년에 북쪽 오랑캐들이 사단을 만들었을 때 조정에서 군사를 출동하여 토벌할 때에 어유소가 종군(從軍)하여 공로가 제일이었으므로 계급을 뛰어넘어 통례문 통찬(通例門通贊)을 제배하였다가, 신사년에 절충장군(折衝將軍)으로 승진하고, 계미년에는 가선대부(嘉善大夫) 회령부사(會寧府使)를 제배했다. 성화(成化) 정해년에 이시애(李施愛)가 함길도(咸吉道)에서 반역(反逆)하여 기세가 매우 퍼지므로 조정에서 제도(譚道)의 군사를 징발하여 토벌할 적에는 어유소가 소속한 군사를 거느리고서 험난함을 무릅쓰고 먼저 나아가 힘을 다해 싸워 크게 쳐부수자 역적들이 드디어 도망하여 무너지매 제도의 군사들이 이기게 되는 기세를 타고 일제히 분발하여 나머지 무리들을 모조리 섬멸했다.

개선(凱旋)하여 돌아오는 날 세조(世祖)가 내전(內殿)에서 인견(引見)하고서 '정충 출기 포의 적개 공신(精忠出氣布義敵愾功臣)의 호(號)를 내리고 예성군(藥城君)으로 봉(封)하였으며, 계급을 뛰어 넘어 정헌대부(正憲大夫) 공조판서(工曹判書)를 제수(除授)했다. 이해 겨울 황제(皇帝)가 건주위(建州衛)의 야인(野人)들을 치면서 우리나라에서 협공(夾攻)하기를 명하므로 세조가 어유소를 보냈었는데, 맞바로 건주위를 막고서 그들의 소굴을 소탕하고 돌아왔다. 이 일을 주문(奏聞)하자, 황제가 사신(使臣)을 보내 은(銀) 50냥(兩)과 단(緞)과 초(稍)를 각각 4필씩 내렸다.

무자년에 아버지의 상사를 만났다가 기축년에는 기복(起復)하여 함경북도절도사(咸鏡北道節度使)가 되었으며, 성상께서 즉위(即位)하신 3년인 신묘년(辛卯年)에는 '순성 좌리 공신(純誠佐理功臣)의 호를 내리고 소환(召還)하여 군(君)으로 봉(封)하였다. 임진년에는 송정대부(崇政大夫)를 가자(加資)하고 다시 영안북도절도사(永安北道節度使)를 제배하였는데, 어미가 늙었기 때문에 사퇴했다.

이때 북쪽 지방에 변이 있게 되자, 임금이 효유(曉諭)하기를, "북도를 진압하여 안정시키기에는 경(卿)과 같은 사람이 없다."고 했다. 이윽고 어미의 상사를 만났다가 또 기복하여 북도절도사가 되었고, 을미년에 임기(任期)가 차게 되었는데, 임금이 책임자를 구득하기 어려워 차유(馳諭)하기를, "경은 고만(考滿)이 되었으니 마땅히 체직해야 한다. 그러나 경은 오랑캐들의 실정을 갖추 알고 있고 무마(無磨)와 제어(制御)를 합당하게 해왔다. 만일 경을 체직한다면 누가 경을 대신할 사람이겠는가? 경은 나의 뜻을 체득(體得)하여 더욱 힘써 하고 게을리하지 말라." 하였으며, 경인년에는 임금이 직제학(直提學) 홍귀달(洪貴達)을 보내어 의복과 신을 하사(下賜)하고 잔치를 내리어 위로했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 체직하여 의정부우참찬(議政府右參贊)이 되었다.

정유년에 병조판서(兵曹判書)로 전임하고 무술년에 의정부우찬성(議政府右贊成)으로 승진했다. 기해년에 건주위(建州衛)의 야인(野人)들이 중국을 침범하자 황제(皇帝)가 사신을 보내 우리나라에 군사를 청하며, 임금이 어유소에게 명하여 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가 황제의 명을 받들게 했는데, 만포진(滿浦鎭)에 이르니 이때는 강에 얼음이 얼 어붙지 않아 군사를 건널 수 없으므로 파병(罷兵)하고 돌아왔다가, 죄를 입어 양근군(陽根郡)으로 귀양 갔다. 신축년에 다시 예성군(藥城君)으로 봉(封)해지고 이어 이조 판서(吏曹判書)를 제배(除拜)하였다가 일로 인해 파직(罷職)되고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제배했다. 임인년에 영안북도(永安北道) 부령(富寧)에 살던 귀화(歸化)한 야인(野人)들이 도망하여 본토(本土)로 돌아가자 명을 받고 가서 불려다 무마하였으며, 홍치(弘治) 무신년에 판중추부사를 제수(除授)받았다가 이때에 이르러 졸(卒)하니, 나이 56세이었다. 시호(諡號)는 정장(貞莊)이니, 청백(清白)하면서 지조(志操)를 지키는 것이 '정(貞)'이고, 적(敵)을 이겨낼 의지(意志)가 강한 것이 '장(莊)'이다.

성격이 진실하고 솔직하여 사람들과 거슬림이 없이 누구나 사랑하고 대중을 용납하여 겉으로 꾸미는 짓을 하지 않았고, 집에 있을 적에도 산업(産業)을 일삼지 않았다. 양계(兩界)에 드나들어 오랑캐들의 실정을 갖추 알았으며 사졸(士卒)들과 고락(苦樂)을 같이하여 가는 곳마다 금방 공로가 있었고, 높은 벼슬을 역임(歷任)했지만 교만하거나 귀하게 처신하지 않았다.⁷⁶⁾

위의 실록 자료에 나타나는 어유소의 생애는 크게 두 가지의 사건에 연관되어 있다.

하나는 이시애의 난을 진압한 사실이다. 이시애는 함경도의 토반으로서 세조가 중앙 권력을 강화하는 과정에 토반의 기득권을 제한하고 중앙의 관리를 행정관으로 파견하자 이에 반발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그는 지역민을 몰살하려 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통하여 함경도 사람들의 지역감정을 선동하여 반란에 합류시켰다. 이에 관련한 기록을 살펴보자.

— 13년 정해에 이시애가 반란을 일으켰다. 시애는 길주(吉州)사람으로 벼슬이 회령부사(會寧府使)를 지내고 상사를 당하여 집에 있으면서 배반할 마음을 두어서 그 일당들을 시켜 유언비어를 퍼뜨리기를, “아래 세 도(道)의 군사가 바다와 육지를 통하여 동시에 진격하여, 충청도의 군함은 경성(鏡城) 후라도(厚羅島)에 닿았고, 또 조정에서 평안·황해도의 군사를 보내어 설한령(薛罕嶺, 또는 설한령(雪寒嶺))에서 북도(北道)에 들어와 장차 본도의 사람을 모두 죽이려 한다더라.” 하였다. 관찰사(觀察使) 오응(吳凝) 역시 이를 믿어서 각 고을에다 공문을 보내어 백성에게 산으로 오르게 하니 인심이 소란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시애가 아우 시합(施合)과 함께 반란을 꾀하여 선언하기를 “본도의 절도사가 여러 진(鎭)의 장교들과 더불어 반역을 꾀한다.” 하였다. 이때 절도사 강효문(康孝文) (세종 경유년에 문과에 올랐으며 전 예조참판이었고 주부(主簿)인 여중(女中)의 아들이다.) 이 길주에 이르자 시합의 첩 딸이 길주의 기생이었는데 효문의 방에서 자다가 문을 열고 군사를 맞이하니 효문과 길주 목사 설정신(薛澄新)을 죽이고 마침내 길주를 점령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효문의 무리가 반란을 꾀하므로 죽었다.” 하고는 사람을 보내어 글을 올리기를, “각 고을 인민이 모두들 죽음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의심을 품고 유언비어가 난무하니 본도의 사람으로 수령을 삼아서 인심을 가라앉히소서.” 하였다. 임금이 진노하여 친히 문서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시애가 반란을 일으키게 된 정상을 물었으나 그 사람은 시애가 나라에 충성하고 본도를 평안케 하려는 것이요, 결코 모반을 꾸미는 마음이 없다고 말하였는데 그 역시 시애에게 속았던 것이다.⁷⁷⁾

어유소는 이때 진압군의 장수가 되어 출전하여 자못 커다란 공을 세운다. 무장 어유소의 빛나는 공훈이 이로써 시작되었다.

어유소는 1456(세조2)년 무과에 급제한 후 평안도와 함경도 일대에서 야인의 침탈을 막는 변무(邊務)에 종사하였으나 정작 이시애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에는

76) (성종 20년 10월 4일(무자))

77) 『연려실기술』 제5권 세조조고사본말(世祖御故事本末), 이시애(李施愛)의 반란, 5월

78) 세조 13년 5월 23일 (정해)

79) 『해동잡록(海東雜錄)』 3본지(本朝, 어유소(魚有沼))

80) 세조 13년 8월 4일 (정유)

진압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시애가 반란을 일으키자 세조는 구성군 이준(李俊)을 도총사(都總使)로 조석문(曹錫文)을 부사(副使)로 하는 진압군을 현지 에 파견하였으나 이들이 반란군의 규모에 놀려 회양(淮陽)에 머무르며 더 이상 진군을 못하게 되자 다시 증원군을 보내게 되는데 이 증원군의 지휘부에 비로소 어유소가 포함된다.

– 이에 임금이 도총관(都總管) 강순(康純)을 진북장군(鎭北將軍)으로 삼아 평안도 군사 3천 명을 영솔하여 영흥(永興)을 넘어 들어가게 하고, 병조참판(兵曹參判) 박중선(朴仲善)을 평로장군(平虜將軍)으로 삼아 황해도 군사 5백 명을 영솔하고 문천(文川)을 넘어 들어가게 하며, 또 경중(京中)의 정병(精兵) 1천 명을 조발(調發)하여 어유소(魚有沼)에게 주어, 직접 준(浚)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게 하고,⁷⁸⁾

이후 전투는 이미 함경도 일대에서 군무에 종사하며 현지의 지형과 인심을 파악하고 있는 어유소 중심으로 전개되고 결국 이시애의 반란을 평정한 대공은 어유소에게 돌아가게 된다.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여러 자료에는 반군 이시애가 전력을 다하여 관군에 대항하고 이에 따라 관군의 진로가 막히게 된 상황을 어유소가 극복하는 상황이 나타난다. 사찬(私撰) 기록과 실록(實錄)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보자.

– 강순(康純)과 어소유가 대장이 되어 이시애와 만령(蔓嶺) 고개에서 싸움을 벌였는데, 적은 높고 험준한 지형을 이용하여 화살을 비오듯 쏘아대어 우리 군사가 올라갈 수가 없었다. 어유소는 작은 배에 정예 부하를 싣고 푸른 옷을 입혀서 초목의 빛과 같이하여 나무를 타고 언덕을 기어오르게 하여 그들이 있는 상소에 나타나 포위하고 북을 치며 소리를 지르게 하니 적은 흩어져서 길주(吉州)로 도망하였다. 길주 사람 허유례(許由禮)가 유인하여 시애와 시합(施舍, 시애의 아우)을 사로잡아 와서 항복하므로, 군진 앞에서 베어 죽이고 그의 머리는 서울에 전달하였다. 『잡기(雜記)』⁷⁹⁾

– 이시애가 중봉(中峯)에 웅거하여 정예(精銳) 군사 2천여 기(騎)를 거느리고 팽배(彭排)를 줄지어 세워 세 겹으로 하니, 준(浚)이 여러 장수(將帥)를 거느리고 진격하였다. 이시애가 죽을 힘을 다하여 힘써 싸웠으므로 견고하여 격파할 수가 없었다. 유시(酉時)에 이르러 어유소(魚有沼)가 동봉(東峯)에서부터 방향을 바꾸어 싸우면서 진군하여 고개 위에 이르러 적의 좌견(左臂)에 임하여 진(陣)에 돌격(突擊)해서 한쪽 면(面)을 열었다. 여러 군사들이 일시에 분격(奮擊)하고, 북을 동동 울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니, 소리가 천지(天地)를 진동(震動)시켰다. 드디어 대파(大破)하니, 적들이 낭패(狼狽)하여 이시애(李施愛)는 홀로 몸을 빼어 말에 올라 도망하였다.⁸⁰⁾

이 두 기록이 전하는 전투의 상보는 조금 다르지만 결국 결정적인 상황 전환이

어유소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은 동일하다. 죽음을 무릅쓴 그의 과감한 돌격과 분전이 전승의 단초를 열었던 것이다. 이 공로로 어유소는 적개공신 1등에 책록되어 예성군(藥城君)에 봉해지고 평안도병마·수군절도사에 임명되었다.

기록이 전하는 어유소의 두 번째 공훈은 북방의 야인들을 제압하고 변경을 안정시킨 일이다. 어유소가 야인들을 제압하던 당시의 북방 상황은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었다.

당시의 기록에 나타나는 야인(野人)은 본래 읍루(挾婁) 또는 물길(勿吉)이라 불리던 반농반목민의 후예로 고구려가 만주를 장악했던 시기에는 말갈(靺鞨)이라는 이름으로 고구려에 예속되어 있었다. 그 후 고구려가 멸망하자 말갈족은 고구려의 유민들과 연합하여 발해를 건국하였고 발해 멸망 후에는 여진이라 불리며 자신들의 고토(故土)인 만주의 송화강, 두만강 일대에 거주하고 있었다. 고려시대에 이들은 아쿠타의 지휘 아래 금(金)나라를 세우고 한 때 황하 지역까지 영토를 넓혀 중국을 지배하기도 했으나 다시 몽골족에 멸망하였고 몽골이 중국에서 철수한 후에는 명의 군사적인 간접지배를 받으며 반 예속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다.

야인의 여러 부족 중 조선과 이웃하여 조선의 북방 변경을 어지럽히던 세력은 대개 건주여진(建州女眞)이었다. 이들은 고려 말부터 두만강 유역에 들어와 정착하였으나 조선 초기에는 대체로 평온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 부족의 추장 이만주(李滿住)가 이들을 인솔하면서 점차 국경을 침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세종은 이들을 정벌하여 4군, 6진을 설치하게 된다.

이후 회유정책으로 야인들과의 조심스러운 평화를 이어가던 조선이 야인과 다시 충돌하게 된 것은 점차 성장해가는 건주여진을 사전에 제압할 필요를 느낀 명이 건주여진에 대한 정벌을 단행하면서 조선에 협력을 요청해 왔기 때문이다.

1467년(세조 13) 명의 출병 요청을 받은 조선은 마침 이시애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 함길도에 진군시켰던 군대를 동원하여 길주(吉州)에서 압록강을 건너 건주위를 공격했다. 이때 조선군은 윤필상(尹弼商)이 총사령관, 강순(康純)이 주장(主將), 어유소(魚有沼)가 좌상대장(左相大將), 남이(南怡)가 우상대장이었고 병

81) 『해동잡록(海東雜錄)』 3본조(本朝), 어유소(魚有沼)

82) 성종 10년 11월 24일 (을사)

력은 약 1만 명이었다. 이 공격은 대성공을 거두었다.

특히 어유소의 좌군은 이만주의 영채를 급습하여 이만주와 아들 고납케[古納舍] 등을 살해하고 명나라 포로를 구출하는 대전과를 올렸다. 당시 어유소의 활약상을 기록은 다음과 같이 전한다.

— 어유소를 우대장(右大將)으로 삼아서 곧장 적의 소굴을 공격하니, 참수한 적의 수를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그런 후에 나무를 깎아서 희게 만들고 거기에 글을 쓰기를, “모년 월 일에 조선 대장 어유소는 건주(建州)의 적을 토벌하고 돌아간다.” 하였다. 명나라 군사가 늦게 도착하여 그 흰 곳에 쓴 글을 보고 명나라 황제에게 알리니, 황제는 칙서를 내려서 치하하고 은 50냥·비단과 주단 각 4필씩 내려주었다. 바야흐로 개선하여 돌아오려 하는데 오랑캐들의 날랜 기병 수천 명이 쏟아져 나오므로 우리 군사가 흩어져 쓰러지게 되었는데, 유소는 눈을 부릅뜨고 나가며 사졸들을 경계하기를, “아무도 따라오지 말라.” 하고, 홀로 달리며 쓰면, 쓰는 족족 그들을 죽이니, 적은 놀라 흩어져 도망갔다.⁸¹⁾

이후 어유소는 특히 야인들의 준동이 있을 때마다 북변에 파견되어 사태를 정리하였던바 그가 북변 안정의 책임을 맡아 야인 제압에 나선 것만 해도 1464년, 1471년, 1475년, 1682년으로 모두 4차례에 이른다. 이 기간 중 부친과 모친이 각각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부모의 복상(服喪) 중임에도 정부의 소환을 받아 임지에 나아가야 하였고 후에는 그가 부임한다는 말만 들어도 국경이 안정되곤 하였다.

어유소가 야인을 효과적으로 제압한데는 물론 그의 뛰어난 무재(武才)도 작용하였지만 그와 함께 야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성심껏 위무하였던 것도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가 야인들을 힘으로만 제압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명이 다시 여진 정벌에 나서면서 다시 그가 출병하게 되었지만 명분없는 야인과의 싸움을 피하여 얼음이 얼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을 건너지 않고 참전을 회피하였다가 크게 곤경에 빠진 일이 이를 입증한다.

— 병조(兵曹)에 전지(傳旨)하기를,

“의정부우찬성(議政府右贊成) 어유소(魚有沼)는 서정(西征)의 장수로서 병졸을 거느리고 강(江)가에 도착하였다가 계품(啓稟)하지 않고서 제 마음대로 편의에 따라 군대를 파하였으니, 그를 추국(推鞠)하여 아뢰어라.” 하였다.⁸²⁾

- 영안도(永安道) 성 밑에 사는 아인부락의 사람들이 가만히 다른 곳으로 옮겨 가는 일이 생기니 조정에서 무슨 변이 생길까 염려하여 특별히 공을 보내어 달래게 하였는데, 이는 공이 예전에 북도의 병사로 있으면서 그 마을 사람들을 복종시켰기 때문이었다. 공이 길을 재촉하여 가면서 사자를 보내어 먼저 임금의 교서(敎書)를 보냈더니, 아인이 처음에는 믿지 않고 말하기를, "이건 우리를 속이는 짓이다." 하고 그 교서를 땅에 던졌다. 사자가 말하기를, "너희들이 어영공이 오시는 것도 믿지 않는가." 하였더니, 아인이 말하기를, "영공이 과연 오시는가. 영공이 오신다면 그분은 우리들의 아버지같이 잘 대해 주실 것이다." 하였다. 공이 들고 그 부락에 달려 들어갔더니 오랑캐들이 모두 늘어 서서 절하였다. 성심껏 깨우쳐 주었더니 모두 기뻐서 복종하였다. 드디어 그 추장을 거느리고 돌아와서 전에 살던 곳에 거하였다.⁸³⁾

83) 『연력실기술』 제5권 세조조고사본말(世祖朝故事本末) 세조조의 명신(名臣) 어유소

이처럼 아인을 제압하고 복변을 평정한 어유소는 물론 평생을 무인으로 살았지만 중앙정계에서도 병조판서나 이조판서를 맡기도 하는 등 단순한 무변(武弁)에만 그치지 않는 다양한 관력(官歷)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특히 어유소와 당대의 기녀(奇女)인 어우동과의 스캔들 같은 것은 그의 생애를 이해하는 대단히 인간적인 측면이기도 하며, 복변의 상황이 급하여 복상(服喪) 중에 기복(起復)하여 변무(邊務)에 나아가며 부모에 대한 상례를 온전히 치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상소(上疏)로 호소한다든가, 정실에서 자녀를 얻지 못하여 그의 사후에 후사문제가 복잡하게 얽히는 일 등도 역시 그의 생애를 이해하는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여 준다.

그는 1489(성종 20)년 임금과 함께 포천 영평에서 강무(講武)를 진행하다가 파로로 급사하였다. 평생 전진(戰塵)을 무릅쓰고 살아 온 무장다운 죽음이었다.

3) 사패지 경영

우리 동두천에는 어유소와 관련한 많은 사회(史話)가 전해져 온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그가 받은 사패지와 관련한 것이다.

어느 날 어유소가 임금과 함께 어등산에 올랐는데 마침 하늘을 날고 있는 솔개를 임금이 보고 이를 쏘아 떨어뜨리도록 명하자 어유소가 바로 활로 솔개를 맞추어 떨어뜨렸고 이에 어유소의 활숨씨에 감복한 임금이 솔개가 떨어진 곳을 어유소의 사패지로 주었다는 것이다.

84) 성종 11년 1월 5일 (병술)

결론부터 말하면 이 전설은 사실이 아니다. 그가 모셨던 세조부터 성종까지의 임금 중 어등산에 오른 임금은 없다. 단, 후대에 이르러 포천 왕방산이나 어등산 인근 영평 등지에서 강무, 즉 사냥을 한 일이 있으나 이들 사건은 어유소와는 관계가 없다.

그러나 어유소는 적개공신(敵愾功臣) 1등과 좌리공신(佐理功臣) 4등으로 두 번이나 공신에 훈록되었으므로 그 상급으로 받은 공신전, 즉 사패지의 규모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규모와 위치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가 사패지를 소유하여 이를 농장으로 경영하고 있었던 것은 다음의 기록으로도 확인된다.

- 의금부(義禁府)에 전지(傳旨)하여, 어유소(魚有沼)를 경기(京畿)의 농장(農莊) 근처에 중도부처(中途付處)하도록 하였다.⁸⁴⁾

위의 기사는 명의 출병 요청을 거절하여 압록강이 얼지 않아 군사들이 도강할 수 없다는 핑계로 야인정벌에 동참하지 않은 어유소를 귀양 보내면서 그를 자신의 농장에 부처(付處)하도록 명하는 내용이다.

현재 동두천시의 향토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어유소 사패지 경계석도 그 진위를 둘러싼 논의가 있지만 역시 어유소가 사패지를 가지고 있었음을 방증하는 또 하나의 유력한 자료이다.

7. 왜란과 동두천

1) 왜란의 발생과 추이

왜란의 발생 원인에 대하여는 다양한 설명이 있었다. 그 중 일본을 통합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중앙 집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제후들의 군사력, 경제력을 탕감하기 위하여 조선과 중국을 대상으로 전쟁을 벌이고 동시에 대륙으로의 진출을 꾀하였다는 설명이 가장 유력하다.

조선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침략의 일격을 맞았고 엄청난 인적(人的), 물질(物的) 피해를 입는데 더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인 충격을 받는다.

임진왜란이 진행된 1592년부터 1598년까지의 7년은 일찍이 조선이 겪어보지 못했던 참혹한 시련기였고 동아시아 사회 전체가 변화하는 전환점이기도 했다. 이 전쟁으로 일본과 중국은 왕조가 교체되었고, 조선은 다시 여진에게 침략 당하는 또 한 번의 시련을 겪어야 했다.

동아시아 사회가 왜란의 혼란을 수습하고 다시 전반적인 안정을 찾게 된 것은 100여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는 힘든 과정을 겪어낸 다음의 일이었고 겨우 안정을 찾자마자 이번에는 다시 서세동점(西勢東漸)이라는 거대한 서양세력의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왜란은 동아시아 세계가 내부의 힘을 축적할 기회와 시간을 상실하고 상처와 혼란을 치유하는데 모든 힘을 낭비하고 난 후 새로이 밀려오는 서양의 침략세력에 휘둘리는 원인(遠因)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조선의 경우 일본의 침략을 저지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낸 것은 지배계층이 아닌 민중의 힘이였다. 양반 계층이 주도하던 조선의 성리학적 가치는 근본적인 도전을 받으며 정치, 문화, 사상의 주도권과 사회 발전의 추동력(推動力)을 상실한 채 점차 민중의 거센 도전을 받게 된다. 기존의 양반 지배계층은 가속되는 사회의 분화와 함께 거세게 밀려오는 새로운 사조에 대응해야 하는 난치한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1592년 4월 부산에 상륙한 왜군은 일거에 부산, 동래, 밀양을 함락하고 충주 저지선에서 조선군을 완파한 후 수도 한양을 점령하였다. 여기에서 길을 나는

그들은 함경도와 평안도로 진격하여 고니시 유키나가가 평양을, 가토오 기요마사가 함흥을 점령하여 조선 정복을 눈앞에 두게 된다. 그러나 명군이 참전하였고, 각지에서 의병이 봉기하여 왜군의 병참선을 유린하는 한편 이순신의 수군이 왜 수군을 격파하여 서진로를 차단하면서 왜군은 총체적인 혼란에 빠지게 된다. 그들은 한양에서 물러나면서 일단 철군하였으나 심유경 등이 주도한 강화회담이 결렬되면서 다시 재침한다. 결국 전선이 남해안 일대로 교착되어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중에 침략의 원흉인 도요토미가 죽고 마침내 왜군은 조선에서 완전히 철수하게 된다.

2) 해유령전투(蟹踰嶺戰鬪)와 임진강전투

임진왜란에서 최초로 승리한 육전인 해유령전투(蟹踰嶺戰鬪)는 선조가 한양을 버리고 북행길에 오른 후 북상하는 왜군과 이를 저지하려는 조선군 사이에 벌어졌다.

선조는 북행길에 오르면서 김명원(金命元)을 도원수(都元帥)로 삼아 한양을 수비하도록 명하였으나 김명원은 한강 방어선을 포기하고 도주하며 휘하의 장수들을 임진강 방어선에 집결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김명원의 부장이었던 신각(申恪)은 도주하는 김명원과 헤어져 유도대장(留都大將) 이양원(李陽元)과 함께 양주 일대에서 도주해 오는 군사를 수습하며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때마침 군사를 거느리고 도성 수비에 합류하기 위하여 남진해온 함경 남병사 이훈(李渾)의 군사 70여 명과 합류하였다.

한양을 점령한 왜군은 성 밖으로 나와 근교를 휩쓸며 약탈을 자행하고 있었는데 이를 탐지한 신각 등 조선군은 왜병이 양주를 약탈하고 귀환하는 길목이 되는 해유령에 군사를 잠복하고 기다렸다가 왜군 70여 명을 몰살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것이 바로 해유령의 승첩이다.

그러나 패전의 책임을 면하려는 도원수 김명원이 신각이 부대를 이탈하여 도주하였다고 거짓 보고를 올림으로 해유령전투의 승장 신각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된다.

기록은 사건의 전말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부원수 신각을 침향하였다. 한강을 지키는 군사가 무너질 때 신각이 이양원을 따라 양주에 와서 흩어진 군사를 수습하니 남병사 이훈(李渾)의 병력이 마침 와서 신각과 같이 진을 치고 양주 개재[蟹峴]에서 적과 맞붙어 싸워 머리 70급(級)을 베었다. 왜적이 우리나라를 침범한 뒤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승전이 있어 모두들 듣고 어깨춤을 추었다. 양원은 이때 산골에 있어 장계를 올릴 길이 막혔는데 명원이 임진에서 장계를 올려, "신각이 주장(主將)의 명을 어기고 마음대로 다른 장수의 진에 가서 불려도 오지 않으니 죄를 주소서." 하고 청하였다. 우의정 유희이 문득 참하기를 청하여 선전관이 이미 출발한 뒤에 신각의 첩서(捷書)가 이르렀으므로 19일에 선전관을 보내고 오후에 첩보가 왔다. 죽이지 말라고 사람을 뒤따라 보내었으나 미치지 못하였다. 『일월록』 <기재잡기>

신각은 비록 무인이나 본래 청렴하고 근신하여 일찍 연안 부사가 되어 성을 수축하고 해자를 파두었으므로 이정암이 연안성을 온전히 지킨 것은 사람들이 신각의 공이라 하였다. 죄 없이 죽은 것을 사람들이 모두 애석해 하였다. 90노모가 있다.⁸⁵⁾

이 해유령전투는 비록 전세에 영향을 주거나 괄목할 만한 전과를 올리지는 못하였어도 패전을 거듭하던 조선군이 최초로 승리하였다는 점에서 조선군 상하의 사기를 크게 진작하였고 비슷한 시기에 벌어지는 장수원전투와 함께 왜군이 동두천 방향의 임진강 계선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동두천 일대가 왜란의 직접적인 병화(兵禍)를 피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3) 고언백의 활동

임진란 중에 국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의병이 봉기하였고 큰 전공을 세운 의병장들이 여럿 있지만 이 중에 우리 동두천·양주 지역에서 크게 활동한 의병장을 꼽으라면 고언백(高彦伯)을 들 수 있다. 그는 낮은 신분인 교동의 향리에서 몸을 일으켜 임진란 중에 크게 활약하고 그 군공을 인하여 마침내 봉군(封君)되는 영예를 누리게 된다. 기록에 나타나는 그의 활약을 보자.

비변사가 아뢰기를,

"이제 심대(沈岱)의 장계를 보니 '양주 목사(楊州牧使) 고언백(高彦伯)은 한 달 사이에 세 번이나 싸움에 이겨 위엄스러움과 명성이 멀리까지 소문이 나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왕왕 멀리서 호응한다.' 하였습니다. 언백이 은연 중에 동로(東路)의 보장(保障)이 되었으므로 이미 높은 가차(加資)를 제수, 그 공을 충분히 보답하였으니, 그 부하들 가운데 참획이 많은 자는 차차 논상(論賞)하여야 할 것입니다.⁸⁶⁾

85) 『연려실기술』 제16권 선조조고사본말(宣祖朝故事本末)

86) 선조 25년 9월 12일(기사)

87) 선조 25년 12월 27일 (계축)

88) 광해즉위년 2월 19일 (병자)

89) 『연려실기술』 제17권 선조조
고사본말(宣朝勝敗事本末) 임진란
때의 여러 장수

고언백(高彦伯)에게 가의(嘉義)를 가자(加資)하였다.【언백(彦伯)은 교동(喬桐)의 향리(鄕吏)였다. 궁마(弓馬)를 잘 다루었는데 적을 만나면 몸을 돌보지 않고 분격(奮擊)하였다. 공(功)으로써 양주 목사 겸 경기 방어사(楊州牧使兼京畿防禦使)가 되었는데, 진(陣)을 쳐 대전(對戰)한 적은 없고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적으로 하여금 그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게 하였다. 또 적의 형세를 잘 염탐하여 혹 야경(夜驚)도 하고 혹은 숲속에서 저격하였는데 자신이 사졸(士卒)들보다 앞서서 싸웠으며 그가 쓴 화살을 적중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전후하여 헌곡(獻域)한 것이 얼마인지 모를 정도로 많았으므로 적들이 매우 두려워하였다.】⁸⁷⁾

고언백이 공초하기를,

“신은 본디 향리(鄕吏)의 자손으로 평시(平時)에 과거에 급제하여 변장(邊將)도 지냈고 경직(京職)도 지냈으며 군관(軍官)으로 아홉 번 부경(赴京)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왜적이 바다를 건너온 뒤 신립(申砮)의 척후장이 되어 적의 수급(首級)을 바쳤었고 해령(蟹嶺)에서의 싸움에서 적의 수급을 베었으며, 평양(平壤)에서는 야격대장(夜擊大將)으로 대동강의 왜적 7진(陣) 1천여 명을 격파하였고 추격하여 공격한 것이 12진(陣)이었으며 또 중화(中和)에서 싸워 수급을 베었습니다. 양주목사(楊州牧使)로 나아가서 왜적에게 투항한 백성 6천여 인을 호유(曉諭)하여 모아서 날마다 왜적과 싸웠으므로 왜적이 진(陣)을 거두어 성(城)으로 들어간 곳이 일곱 군데나 되었습니다. 주상(主上)께서 돌아와 이천(伊川)에 머물면서 하서(下書)하여 포유(褒諭)하기를 ‘평안도가 지금까지 보존된 것은 고장(高將)의 공이다. 경성(京城)을 수복하는 것도 또한 장군에게 달려 있으니, 태만히 하지 말아서 후세로 하여금 그대의 이름을 죽백(竹帛)에 쓰게 하라.’ 하였습니다.(후략)⁸⁸⁾

고언백은, 교동 향리로서 무과에 올라 중군하여 반란을 일으킨 오랑캐를 공격하여 명성이 있었다. 도원수를 따라서 장령이 되었는데 적군을 죽인 공이 있었다. 이때 임진년 7월 양주로 돌아가서 군사를 모아 적군을 칠 것을 자청하였다. 임금이 특별히 당상관으로 올려 양주목사에 임명하고 능침을 보호하라 하였다. 언백은 장사를 모집하여 산꼭대기 험한 곳에 모여 있으면서 때때로 나와 뒤떨어진 적군을 습격하였다. 적군은 대군을 풀어 수색하였으나 언백이 기회를 엿보아 잘 피하고 숨었으므로 끝내 그를 해치지 못하였다. 언백은 항상 여러 능에 복병하였다가 때때로 적군을 쏘아 죽였다. 그러므로 적군이 일찍이 태릉(泰陵)을 침범한 적이 있었으나 언백이 쫓아버렸으므로 여러 능이 온전할 수 있었다. 임금은 그 공을 칭찬하고 여러 번 품계를 올려서 표창하였다. 선무공(宣武功) 3등으로 네 번째이며, 제흥군(濟興君)이다.⁸⁹⁾

고언백이 양주 일대를 무대로 왜군과의 여러 차례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냄으로써 양주 일대에 대한 왜군의 노략과 침탈을 막았으며 이로써 온전히 양주가 보전되었다.

특히 실록은 양주의 여러 선대 능들을 온전히 보전한 것이 모름지기 그의 공이었다고 치하하고 있다. 임진란 시기의 양주인으로 기억하여야 할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광해군 즉위 후 임해군과 결탁하여 역모를 꾀하였다는 죄명으로 문초를 받다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였고 그의 훈적이 삭탈되고 영정이 불타는 치욕을 겪게 된다. 혼란의 시대를 살던 유능한 인재의 억울한 죽음이었다.

8. 이괄의 난과 동두천

1) 이괄의 난

이괄은 인조반정(仁祖反正)의 실질적인 주동자요 가장 으뜸인 공로자라고 할 수 있었다. 본래 인조반정은 광해군과 그를 지지하는 대북 정권을 향한 서인의 치졸한 정치 음모였다. 문제의 핵심은 광해군 정권의 정통성이었다. 광해군은 임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것처럼 대단히 유능하고 외교적 감각도 뛰어난 인재였지만 그의 신분이 왕의 서자이며 그것도 장남이 아닌 차남이었다는 데 문제가 있었다. 선조는 이미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한 상태에서⁹⁰⁾ 늦게 얻은 정실(正室) 인목왕비(仁穆王妃)가 적장자(嫡長子)인 영창대군(永昌大君)을 생산하게 되자 광해군(光海君)을 대신하여 영창대군으로 왕위를 잇게 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세상을 떠나게 된다. 우여곡절 끝에 왕위에 오른 광해군은 왕위의 기반을 확실히 하는 차원에서 형 임해군(臨海君)과 아우 영창대군(永昌大君)을 죽이고 인목대비(仁穆大妃)도 서인으로 강등하여 서궁(西宮)에 유폐하게 된다. 아울러 왕실의 권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소실(燒失)된 궁궐을 수축하고 자신을 지지하여 왕위에 오르도록 주선한 대북(大北)세력과의 연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

한편 만주에서는 누르하치가 여진족을 통합하여 후금(後金)을 세우고 서진(西進)하여 명(明)을 압박하는 한편 조선에 대하여서도 이전과는 다른 형식의 외교 관계를 요구하게 되는데 광해군은 명의 출병 요청에 응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후금과의 관계도 유지하는 중립외교를 펼쳐나가게 된다.

광해군의 대북(大北) 위주의 정국운영은 결국 서인(西人)의 반발을 사고 그들은 앞에 서술한 ‘어머니를 폐하고 형제를 죽였다(廢母殺弟)’, ‘명과의 의리를 저버리고 오랑캐와 친했다(違天親虜)’, ‘함부로 토목공사를 일으켜 백성을 도탄에 빠뜨렸다(宮室建營)’등을 명분으로 반정(反正), 즉 쿠데타를 계획하게 된다.

그러나 김류(金瑬), 이귀(李貴), 김자점(金自點) 등이 주도한 이 반정(反正)은 사전에 고변(告變)되어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게 되고 신변에 위협을 느낀 주모자 이귀는 거사 당일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는 형편이었다. 그나마 동원된 반정군도 장단부사 이서(李曙)와 이천부사(伊川府使) 이중로(李重老)가 거느린 수백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거사가 실패하려는 즈음에 집결지 현장에서 주장(主將) 이귀(李貴)를 기다리

90) 광해군에게는 임해군이라는 형이 있었지만 그는 성격이 패악하여 인심을 많이 잃었고 더욱이 함경도로 근왕병을 모병하러 갔다가 일본군에 포로가 되어 이후 조선의 대일본 전쟁수행과 강화담판에 막대한 걸림돌로 작용하는 등 여러 가지 결격사유로 세자책봉에서 제외되었다.

던 이괄(李适)이 현장을 장악하고 거사를 이끌어 창덕궁으로 진군함에 이미 반정군에 포섭되어 있던 수문장 이흥립(李興立)의 내응으로 간신히 반정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들은 광해군을 폐립(敝笠)하고 인조(仁祖)를 옹립하는 한편 대북(大北)일파를 철저히 숙청함으로써 정국(政局)을 일신하였다. 이로써 동인(東人) 대북(大北)파를 대신하여 서인(西人)이 정국 운영의 주역이 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명과 후금이 벌이는 중원에서의 대권 싸움에서 조선은 중립적 태도를 버리고 명과의 연합을 통하여 후금을 적대하는 외교적 악수(惡手)를 두어 마침내 호란(胡亂)이라는 미증유의 국난(國難)을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한편, 반정에 성공한 서인은 반정 공로자들을 반정공신(反正功臣)에 책봉하면서 실질적인 공로자 이괄(李适)을 2등으로 격하(格下)하고 나아가 그를 평안도 변방으로 발령하는 편파적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결국 이괄은 이와 같은 조치에 반발하여 반란을 일으키게 된다.

이른바 ‘이괄(李适)의 난(亂)’이다.

강병(强兵)을 이끈데다가 항왜(降倭)까지 앞세운 이괄의 진군 앞에 조정은 속수무책이었고, 결국 인조는 한양을 떠나 공주로 몽진(蒙塵)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괄의 반군은 한양에 입성하지만 무악재전투에서 관군에게 패하고 도주하다가 이괄이 이천(利川)에서 살해되므로 결국 반란은 실패로 끝난다. 그러나 이괄의 패잔병들이 후금으로 도주하여 국내의 사정을 여진족에게 참소하고 호란의 단초를 만들고 이어 선봉이 되어 호병(胡兵)을 향도(嚮導)하는 철저한 매국 배신자가 되기도 하였다.

2) 이중로(李重老)의 순국

‘이괄의 난’ 중에 임진강을 건너려는 반군과 싸워 순국한 사람이 바로 이중로(李重老)였고 그가 순국한 장소가 바로 동두천 북방의 임진강 나루였다.

이중로(李重老)는 조선의 개국공신이자 태조의 전우였던 이지란(李之蘭)의 후예로서 인조반정 당시에 강원도 이천부사(伊川府使)로 휘하의 군대를 이끌고 반정에 적극 가담하여 정사공신(靖社功臣) 2등에 녹훈(錄勳)되었고 청흥군(淸興君)에 봉하여졌다. 광해군이 강화도로 쫓겨나자 강화부윤에 임명되어 그를 감시하였고, 세자의 탈출을 적발하기도 하였다.

그 뒤 오위도총부부총관·훈련도정을 겸임하고, 포도대장을 지냈는데, 1624년 이괄(李适)이 반란을 일으키자 부도체찰사 이시발(李時發)과 함께 황해방어사로서 반란군을 저지하는 책임을 맡았다. 예성강 상류인 마탄(馬灘)에서 여울물을 지켜 적을 막으려는 싸움준비를 하던 중, 적의 급습으로 관군이 패할 때 우방어사 이성부(李聖符) 등과 함께 전사하였다.

왕은 그가 늙은 아버지가 있음에도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하여 매우 슬퍼하였다 한다. 다행히 그의 시신은 유효걸(柳孝傑)이 전복(戰服)으로 싸서 묻고 표를 해놓았기 때문에 찾을 수 있었다.

6월에 이괄이 저탄(猪灘)에 이르렀으므로 방어사(防禦使) 이중로(李重老)·이덕부(李德符)가 풍천(豊川) 부사(府使) 박영신(朴榮臣)·평산(平山) 부사 이획(李廓)·연안(延安) 부사 이인경(李寅慶)·웅진(瓮津) 현감 윤정준(尹廷俊) 등을 거느리고 여울목을 지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적이 별안간 낮은 여울을 건너 육박하여 관군을 대파하였다. 이에 중로·덕부 등은 물에 뛰어들어 죽었다. 한편 정충신은 포성을 들고 군사를 재촉하여 구원하러 왔으나 이중로 등이 이미 패한 뒤였다.⁹¹⁾

관군이 평산 마탄(馬灘)에서 적과 싸워 크게 패하였는데 방어사 이중로(李重老)·이성부(李聖符)가 죽었다. 이때 이중로 등이 연안 부사(延安府使) 이인경(李寅卿), 평산 부사 이획(李廓)과 함께 마탄을 파수하였는데, 적이 뜻밖에 나와 엄습하여 치니, 관군이 놀라서 한꺼번에 무너졌다. 강에 빠져 죽은 자가 매우 많았고 나머지는 모두 적에게 항복하였는데, 이중로는 적과 격투를 벌이다가 철총(鐵銃)으로 적 7인을 쳐 죽이고 스스로 언덕 아래로 떨어져 죽었다.⁹²⁾

91) 『연려실기술』제24권 인조조고사본말(仁祖朝故事本末) 이괄(李适)의 변(變)

92) 인조 2년 2월 7일(신묘)

9. 호란과 동두천

1) 호란의 추이

오랫동안 명(明)의 통제를 받아오던 여진족이 다시 흥기(興起)하게 된 것은 임진왜란으로 만주에 주둔하던 명군이 조선으로 이동하면서 생긴 통제의 공백기를 부족 통합의 호기로 활용하면서부터였다.

건주위 출신의 누르하치는 일세(一世)의 효웅(梟雄)으로서 명의 통제가 느슨해진 틈을 타 여진족을 통합하여 후금(後金)을 건국한 후 군사를 휘몰아 서진하며 각처에게 명군을 대파하였다. 요양(遼陽)을 거쳐 심양(瀋陽)에 도읍한 그는

왜란 당시 명의 구원을 받은 조선이 명과 연합하여 여진족의 배후를 칠 것을 염려하여 가능한 조선을 자극하거나 군사적으로 견제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누르하치가 죽고 그의 뒤를 계승한 태종 홍타이지는 적극적인 제국 건설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먼저 조선을 제압하고 그 후에 명과의 전쟁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전략을 세우고 조선에 대한 강경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한편, 조선에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던 광해군이 왕위에서 물러나고 인조 정권이 들어서면서 보다 적극적인 친명반금(親明反金)정책으로 선화하면서 사사건건 후금과 충돌하게 된다. 특히 홍타이지가 몽골, 여진, 한족의 공동추대로 황제의 자리에 오를 때 조선은 축하사절의 파견은커녕, 다른 일로 현지에 와 있던 사절들조차 추대식에의 참석을 거절하는 초강경 자세를 견지하였다. 이와 같은 양국의 대립은 드디어 여진족의 조선 침공이라는 사태로 이어지게 된다.

1627년(인조 5) 후금은 군대를 보내 조선에 침공하였다. 인조가 강화도에 피난한 채, 연전연패를 거듭한 조선은 마침내 강화에 동의하여 청과 조선은 형제관계(兄弟關係)를 수립하고 전투를 종결지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조선의 일방적인 친명정책은 계속되었고, 양국 관계는 살얼음을 밟는 긴장 상태를 지속하게 된다.

한편, 압록강 하구에 주둔하던 명의 모문룡(毛文龍)이 비리(非理)를 이유로 잡혀가 처형되자 그의 부하들이 대거 청에 투항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수군(水軍)과 홍이포(紅夷砲)를 획득한 청은 군사적인 자신감을 얻게 되어 1636년(인조 14) 홍타이지가 직접 대군을 인솔하여 조선에 재침하게 된다.

다시 강화도에 들어가려던 인조는 도르곤의 우익군에게 길이 막히자 허둥지둥 남한산성에 입성하여 절망적인 농성을 시작하였으나 흑한과 기아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해를 넘긴 1663년 1월 30일 삼전도(三田渡)에서 항복함으로써 청이 요구하는 군신관계(君臣關係)를 수용하고 만다. 이 전쟁의 패전으로 조선은 여진족의 번국(蕃國)으로 전락하고 소현세자(昭顯世子)와 봉림대군(鳳林大君) 등 왕자를 비롯하여 홍익한(洪翼漢), 오달제(吳達濟) 등의 척화신과 많은 남녀 포로들이 청에 끌려가는 한편 엄청난 규모의 세폐(歲幣)를 부담하는 등 국가의 자존과 존엄이 상실된 것은 물론 문화적, 경제적 손실을 감당하여야 했다.

2) 후금군의 침공과 동두천

여진족이 조선에 침공하여 전국이 전장(戰場)으로 변한 가운데 동두천 지역에도 예외 없이 청병(淸兵)이 몰려왔다.

병자호란이 발발하자 평양성 북쪽 70리 지점의 자모산성에 들어가 있던 평안감사 홍명구(洪命耆)는 청의 대군이 평양을 지나자 남하를 결정하고 부원수 신경원과 평안병사 유림(柳琳)에게 격문을 보내 군사를 이끌고 평양으로 집결하도록 했다. 신경원은 철웅산성에서 청의 우익군과 싸우다 사로잡히는 바람에 합류하지 못했고 안주에 머물고 있던 유림, 홍명구와 합류해 약 5천의 조선군이 1월 26일 김화에 도착했다. 이때 지나가며 약탈하는 적병 수십 명과 조우하여 10여 명을 베었는데 다른 기록(홍명구의 비문)에는 수백 명을 베고 포로가 된 남녀 수백 명과 가축 300여 마리를 빼앗았다고 되어 있다.

이튿날 27일 청군은 10리 밖에 진을 치며 전투를 준비했는데 유림과 홍명구는 부대 배치 문제에서 서로 이견을 보인다.

처음 유림이 북쪽 산성에 들어가 웅거하는 방법을 제안했으나 홍명구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림이 “적군은 많고 아군은 적으니 반드시 양군을 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으나 역시 홍명구는 듣지 않고 김화 북방 20리 탑곡(塔谷)의 평야지대에 진을 쳤다. 유림은 탑곡은 지형이 평탄하고 낮아서 적의 공격을 받기 쉬우니 높은 곳으로 옮기는 것이 낫겠다고 홍명구 진영 우편의 고지에 진을 쳤다.

청군은 유림과 홍명구군의 사이를 차단한 다음 비교적 평평한 지대에 진을 친 홍명구 군부터 공격했다. 기병이 주력인 청군의 파상 공세 앞에 평지에 진을 친 홍명구 군은 열심히 싸웠으나 패했고 홍명구는 끝까지 싸우다 전사했다.

홍명구 군을 대파한 기세를 등에 업은 청군은 이윽고 유림의 진영으로 향했다. 유림은 미리 험지에 진을 치고 숲을 이용해 목책을 세우며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으나 홍명구 군의 패잔병들이 적과 함께 몰려오자 혼란이 발생하였다. 이에 유림이 높은 곳에 서서 “내가 이곳에 있으니 동요하지 말라”라며 독전했고 유림의 장졸들은 초반의 혼란 상태에서 벗어나 대오를 정비해 침착하게 청군에 맞섰다.

유림은 탄약부족을 우려해 적이 수십 보 거리에 도달했을 때 깃발을 흔들면 사격할 것을 명하며 철저한 사격통제를 실시했고 오랜 교전으로 지쳐 전열을 이탈하는 병사들이 나오자 군악을 울려 진승가를 부르게 해 병사들의 사기를 고양시킨 끝에 수적으로 우위에 있던 청군을 저지할 수 있었다.

적은 물러났으나 물자가 소진되어 더 이상의 전투가 힘들어진 유림군은 이긴 기세를 몰아 셋길로 남한산성으로 향하기로 하고는 파손된 총을 거두어 화약을 장치하고 화승을 어떤 것은 길게 어떤 것은 짧게, 불규칙적으로 묶은 다음 그 끝에 불을 붙여서 숲속 여기저기에 걸어 놓고 떠났다. 밤새도록 들리는 총소리에 공격할 생각을 하지 못한 청군은 다음날 텅 빈 조선군 진영을 점령하고 나서야 속은걸 알았으나 조선군은 이미 퇴각한 다음이었다.

이 전투는 패전으로 일관한 호란의 전투상황 중, 조선군이 승리한 드문 예이다.

3) 호란 이후의 국방태세 강화와 경기북부

(1) 홍복산성 축성 논의

호란을 겪으며 조선 사회가 받은 충격 중의 하나는 여진족 기병이 구사하는 속전전략에 속수무책이었다는 사실과 유목민족의 침공에 대비한 만년지계였던 강화도가 맥없이 함락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이로써 조선은 북방민족의 침공에 대비하는 근본적인 방어개념의 정비가 필요해졌다. 특히 수도인 한양을 포기하고 남한산성에 들어간 것은 조선의 전쟁 지휘부가 병참이 보장되지 않는 좁은 산성에 고립되는 대신 여진족에게는 한양이라는 광대한 보급 기지를 제공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강화도의 수비 태세를 재정비 강화하는 한편, 한양의 북쪽에 효과적인 관방시설을 만들어 여기에서 적을 막음으로써 한양을 병참기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의 적절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홍복산에 성을 쌓는 일이었다.

홍복산은 양주의 남쪽 진산으로 여기에 성을 쌓는 것은 북방에서 남하하는 적을 요격하는 길목일뿐더러 장단로와 삼방로의 양 측면을 감시할 수 있고 무엇보다 한양의 북쪽에 위치하여 보급이 끊기지 않는다는 장점을 두루 갖추고 있었다. 여기에 더하여 산꼭대기에 저수지가 있어 방어의 요체인 급수문제가 자체 해결되고 양주 관아와 인접하여 관리 및 인적 동원이 용이하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이번 9월 20일 영의정 김수항(金壽恒)이 뵈기를 청하고 입시하였을 때 영의정 김수항(金壽恒)이 아뢰기를

“양주(楊州) 고을 서편에 홍복산(洪福山)이란 곳이 있는데, 종전부터 그곳을 본 사람들은 그 형세가 남한(南漢)보다 나아 성을 쌓고 요새로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말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근래 양주목사 이우(李濡)가 여러 번 가서 살펴보았으므로 그의 말을 자세히 들으니 ‘산세가 험준하니 이는 참으로 천연의 땅이다. 그 가운데는 토지가 넓고 비옥하며 냇물이 도도히 흘러 마르지 않고 땅을 파면 물이 안 나는 곳이 없다. 또한 사면의 산줄기가 휘감기며 멀리 뻗어 경성(京城)의 주산(主山)과 서로 가까우니, 만약 성을 쌓아 방어하는 곳으로 만든다면 그 형세가 매우 편리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이로써 우의정에게 물으니,

‘일찍이 대흥산성(大興山城)을 처음 쌓을 때에 홍복산의 형국을 뜯고 사람을 보내 형세를 그려 오게 하였는데, 그 당시 조정 의논이 대흥산성을 먼저 위주로 하였으므로 덮어 두고 의논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농사가 흉작이 되어 경솔히 큰 역사를 거론하기는 어려우나, 지금의 양주가 있는 곳은 본래 고을을 설치하기에 합당치 않은 곳입니다. 또 들으니 본 고을의 여론도 옮기기를 원하는 자가 많다고 합니다. 만약 이곳에다 고을을 먼저 옮기게 하고 승도들을 모집하여 많은 사찰을 세우게 해서 점차로 경영할 수 있게 한다면, 시기를 기다려 역사를 일으켜도 자연히 번거로움 없이 성취될 것입니다. 신이 좌의정에게 물으니 그의 뜻도 역시 고을을 옮기는 것이 편리하다고 하였습니다. 우의정은 그 형세를 이미 잘 알고 있으니 다른 의견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이 중대하니 우의정이 돌아온 뒤에 다시 헤아려 결정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마침 입시하였으므로 감히 이렇게 아뢴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홍복산의 형세를 여러 대신들이 이미 잘 알고 헤아렸다면 다시 의논할 것이 없을 듯하다. 양주에서 먼저 고을을 옮기도록 결정하여 분부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⁹³⁾

– 훈련 대장(訓鍊大將) 이기하(李基夏)가 명을 받들어 홍복산(洪福山)·북한산(北漢山)의 성지(城址)를 가서 보고 돌아와 아뢰기를,

“홍복산의 지세는 안으로 절험(絶險)의 형세(形勢)가 있고, 밖으로 둘러싸일 형세가 없으므로, 성(城)을 쌓는 데 적합하다고 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단지 사면(四面)의 5리 안이 모두 토산(土山)이어서 돌을 깎 곳이나 주머니, 돌을 10리 밖에서 가져다가 쌓아야 하므로 일의 공역(功役)이 매우 어려울 것이며, 또 사산(四山)에 나무가 없어서 땔나무를 할 길이 없으니, 군병(軍兵)들의 취찬(炊爨)도 또한 의지할 바가 없습니다.⁹⁴⁾

이처럼 구체적으로 논의되던 홍복산 축성 문제는 그러나 산성으로 양주 고을을 옮기는 문제와 산내에 축성에 필요한 석재를 구할 수 없는 문제, 숲이 적어 땔나무와 목재를 구할 수 없는 문제들이 겹쳐 결국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하고 공역을 취소하게 된다.

(2) 북한산성 축성

홍복산 축성과 함께 검토되었던 또 하나의 방안이 바로 북한산성 축조 문제였다. 이 역시 한양의 북방에 적을 막는 관방시설이 있어야 한다는 필요에서 시작된 논의였는데 홍복산이 지세가 험하고 요충이기는 하나 성을 쌓기에는 여건이

93) 국역 『비변사등록』 속종 8년 (1682) 9월 22일 홍복산축성(洪福山築城)

94) 속종 36년 10월 13일 (갑술)

95) 국역 『비변사등록』 숙종 29년 (1703) 3월 21일 行史曹判書 金構 등 이 입사하여 北漢山城을 쌓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좋지 않은 것으로 판정이 나면서 그 대안으로 집중 검토되기 시작하였다.

지금 국가가 무사하기를 진실로 바라지만 만약 사변을 갑자기 당하게 된다면 믿을 만한 곳이 한 군데도 없으니 북한산(北漢山)에 성을 쌓자는 의논은 매우 순편하다고 여깁니다. 신이 다시 그곳 형세를 자세히 살피고자 하여 요전에 가서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내외가 천험(天險)의 요해처인 줄은 모르겠으나 이미 도성과 서로 잇달았고 또한 높은 준령과 절벽이 많아, 성을 쌓을 때 공력이 많이 떨어질 듯하였습니다. 그 지형으로 논한다면 천만 가래의 산줄기가 얽히고 중첩되어 아무리 사다리나 누대가 있더라도 힘을 쓸 수 없게 되어 참으로 함락될 수 없는 만전의 형세이니 위급할 때 믿을 만한 곳이 이보다 지나친 곳은 없을 것입니다.

조정 신료들 중에는 혹 도성을 지킬 수 있다는 의논이 있으나 도성의 형세로는 실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임금을 모시고 위험한 성에 있는 것이 어찌 만전의 도리이겠습니까? 만약 먼저 북한산성을 쌓으면 도성과 표리가 되어 서로 의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임금의 수레를 따르는 군병은 북한산성을 지키고, 도성의 장정들과 기타 군병들은 도성을 지키다가 만약 도성이 함락되면 물러가 북한산성을 지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⁹⁵⁾

이와 같은 논의에 따라 결국 북한산에 성을 쌓기로 결정하고 1704년(숙종 30년) 음력 10월 훈련대장 이기하(李基夏)와 어영대장 김석연(金錫衍)으로 하여금 북한산성 축성의 가부를 가서 살피고 오라 하자 이기하는 돌아와 보고하기를 험하기가 남한산성은 비할 바 아니며 도성에 가까운 곳에 있는 이런 형세의 지대를 버릴 것이 아님을 역설하였고, 여러 신하도 이에 동의하는 수가 많아졌는가 하면, 특히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이유(李濡)는 강력히 이를 지지했다.

그리고 총융사(摠戎使) 김중기(金重器)와 사직(司直) 이우항(李宇恒)도 성의 터를 시찰하고 돌아와 찬성의 뜻으로 보고하자 1711년(숙종 37년) 음력 2월에 비로소 축성하기로 결정하고, 음력 3월에 축성의 착수를 명하니 음력 4월에 시작하여 음력 9월에 완료하고, 이듬해에 임금이 행차하였다.

이 산성은 전시에 임금이 거처하고, 만일의 경우 도성의 백성도 수용함을 목적으로 하여 축조하였다. 성의 둘레는 7,620보(步)이며, 문(門)은 14개, 장대(將臺)는 3개,곽성(郭城)은 26개, 우물 99개가 있었다. 이로써 북방의 적이 침공하면 한양을 버리고 강화도에 입도하여 장기전을 치르거나, 남한산성에 들어가 농성하는 기존의 전략을 버리고 한양을 근거로 북방 외곽에서 적을 요격하는 새로운 방어 개념이 수립되었다.

(3) 수어총영

새로운 방어 개념에 따라 군제의 개편이 함께 이루어져 중앙군의 경우 국초부터 유지되던 5위(五衛)가 해체되고 새로이 5군영(五軍營) 체제가 성립되었다.

5군영은 훈련도감(訓練都監), 어영청(御營廳), 총융청(摠戎廳), 수어청(守禦廳), 금위영(禁衛營)을 말하는데 이들 각 부대의 임무와 기능은 각각 상이하였으나 그 대략은 수도 한양을 방위한다는 점에서 같았다. 지방군 역시 국민개병의 개념을 도입하여 양반 사대부에서 중인, 상인, 천민을 망라한 속오군(東伍軍)이 편성되고 군공에 따라 신분을 상승시켜주는 일도 있게 되었다.

이 중 양주 지역에 해당하는 군영은 수어청(守禦廳)이었다.

수어청은 1626년(인조 4) 수축한 남한산성과 그 부근의 진(鎭)을 지키기 위해 설치했다고 하나 수어사(守禦使)의 직함은 1632년에 생겨났다. 처음에는 경기도의 광주읍군(廣州邑軍)·죽산진(竹山鎭)·양주진(楊州鎭)의 3진과 강원도의 원주진(原州鎭)·회양진(淮陽鎭) 및 충청도의 충주진(忠州鎭) 등의 1,600명을 유사시에 방어사나 영장이 인솔해서 입수(入守)하도록 하였다. 그 뒤 몇 차례의 변경이 이루어진 수어청의 조직편제는 경기도 속오군을 중심으로 1704년(숙종 30)에는 3영2부체제(三營二部體制)로 군제가 개편되었다. 이와 같은 수어청이 광주부의 남한산성을 신지(信地)로 하여 편제되었기 때문에 군사책임자인 수어사와 행정책임자인 광주부윤 사이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자 광주부윤을 유수로 승격시키고 수어정청을 산성으로 옮겨 수어사를 겸하게 하는 일원체제를 취하였다. 그러다가 1795년(정조 19) 왕권강화와 관련하여 장용영(壯勇營)이 설치되면서 수어정청을 없애고 산성으로의 출진을 영구화함으로써, 수어청은 사실상 광주유수의 직권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 관원은 사(使; 정2품) 1명, 중군(中軍; 정3품) 1명, 진영장(鎭營將; 정3품) 3명, 별장(別將) 2명, 파총(把總) 2명, 초관(哨官) 26명, 교련관(教鍊官) 17명, 기패관(旗牌官) 19명, 별군관(別軍官) 9명, 수첩군관(守堞軍官) 61명이었고, 1894년(고종 31) 폐지되었다.

수어청의 지휘부는 광주부사(廣州府使)를 수어사(守禦使)로 양주목사를 수어중군(中軍)으로 하여 각각 겸직하도록 하였으므로 양주목사는 수어영의 중군을 겸하고 양주관아에는 당연히 수어중영(守禦中營)이 겸설되었다.

이로써 양주는 개편된 군사체제 아래서 한양 방위의 거점 직위와 거점 산성을 가지는 거진(巨鎭)으로 자리 매김되었다.

10. 세거 문중의 동두천 입향

동두천에 세거 문중이 존재한 것은 고려시대부터의 일이다. 『동국여지승람』 양주 사천현(沙川縣) 기사에는 사천(沙川)의 토성(土姓)으로 경(耿) 씨를, 망성(亡姓)으로 이(李), 임(任), 송(宋), 허(許)의 4성을 들고 있는데 이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되는 1530년(중종 25) 당시에 동두천 지역의 토착 성씨의 상황을 전한다. 즉 당시에 동두천 지역의 유력한 토착 성씨는 경(耿) 씨가 있고 전에는 토착 지배 계층이었으나 이사, 멸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소멸된 토반 가문이 모두 4개라는 이야기이다.

한편, 현재 조사에 나타나는 동두천 세거 성씨 중에는 온양 방(房)씨가 가장 오래 전에 입향한 것으로 되어 있어 『동국여지승람』의 기록과는 일부 상충되는 면이 있다.

1) 광주(光州) 정(鄭)씨와 정사호(鄭賜湖)

동두천에 입향한 여러 문중 가운데 조선 후기에 이르러 크게 부각된 문중이 바로 광주(光州) 정(鄭)씨이다. 광주 정씨는 크게 동백(東伯) 계열과 완백(完伯) 계열로 나뉘는데, 동두천 지역에는 시조의 3세이며 동백계의 증시조인 정구진(鄭龜晉)의 후손들이 주로 거주한다.

광주 정씨 문중에서 배출한 인물이 바로 화곡(禾谷) 정사호(鄭賜湖)다. 그는 1577년(선조 10) 별시문과에 급제, 주서(注書)가 되고, 1586년 안동부사(安東府使), 1599년 호조참의로 구관당상(句管堂上)을 겸하였으며, 대사헌 재직 시 사은사가 되어 중국 명(明)나라에 다녀왔다. 그 뒤 이조참의, 동지중추부사, 황해도 관찰사 등을 지냈다. 광해군이 즉위하면서 병조참판, 이조참판에 올랐으며 동지춘추관사로 「선조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1611년(광해군 3) 대사헌·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를 지냈고, 1613년 김제남(金悌男)의 역모에 관련되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죄가 없음이 밝혀져 경기도관찰사·형조판서 등을 지냈다. 글씨를 잘 썼으며 작품으로 「연성대첩비(延城大捷碑)」가 있다. 시호는 충민(忠敏)이다.

2) 사천 목씨와 목행선

사천 목씨는 본래 중국에서 유래한 성씨로 동두천에는 두 갈래의 경로로 입향하였다. 한 갈래는 목사흠(穆思欽)이 1609년에 벼슬을 버리고 지행동으로 입향한 것이고, 다른 갈래는 목행선(穆行善)이 역시 지행동에 입향한 것이 그것이다.

사천 목씨의 동두천 입향조의 한 분인 목행선의 자는 행지(行之), 호는 남간(南澗)이고 본관은 사천(四川)이다. 1630년(인조 8) 진사가 되고, 1633년 식년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여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예조좌랑 겸 기사관(禮曹佐郎 兼記事官)·지제교(知製敎)로 국사편찬에 참여하였다. 그 뒤 병조좌랑을 거쳐, 경기도 도사로 병자호란에 공을 세우고, 이에 수찬(修撰)·지평(持平)·헌납(獻納)을 거쳐, 1645년 교리(校理)·이조좌랑을 역임하였다. 1649년 사은사(謝恩使)의 서장관으로 청(淸)나라에 다녀 온 뒤 대사성·대사간·승지·예조참의 등을 거쳐 1653년 황해도관찰사, 1655년 승지가 되었다.

이후 사천 목씨는 동두천의 유력한 세거문중으로의 입지를 굳히며 대대로 많은 인재를 배출해 내게 된다.

3) 기타 세거문중의 형성

동두천에서 확인되는 가장 오랜 세거 문중은 온양 방(房)씨이며 그 후 많은 가문이 이곳에 정착하여 현재까지 뿌리를 내리고 이 지방을 가꾸어 왔다. 동두천에 세거문중이 대거 형성된 것은 대략 임진란 이후 1600년대를 전후한 일이며, 대부분의 세거 문중이 이 시기에 입향하여 현재 약 400~500년의 가력(家歷)을 유지한다. 이들 세거 문중의 내력과 생활, 전통을 이해하는 것은 동두천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 현재 확인되는 세거문중의 입향 시기와 입향조를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고려시대

문중	입향조	비고
온양 방(房)씨	방취진	
충주 어(魚)씨	어승진	
전의 이(李)씨	이직간	
의령 남(南)씨	남을진	

(2) 1400년대

문중	입향조	비고
평해 황(黃)씨	황린, 황란, 황곡	

(3) 1500년대

문중	입향조	비고
죽산 안(安)씨	안방경	
광주 정(鄭)씨	정이주	
수성 최(崔)씨	최 영	
양천 허(許)씨	허 난	
남양 홍(洪)씨	홍언수	

(4) 1600년대

문중	입향조	비고
진주 강(姜)씨	강효달	
강릉 김(金)씨	김몽상	
경주 김(金)씨	김현, 김육	
김녕 김(金)씨	김정려	
김해 김(金)씨	김연	
선산 김(金)씨	김홍주	
사천 목(穆)씨	목사흠, 목행선	
여흥 민(閔)씨	민홍	
고령 박(朴)씨	박장휘	
밀양 박(朴)씨	박수소	
여산 송(宋)씨	송영업	
청송 심(沈)씨	심언천	
함종 어(魚)씨	어계장	
벽진 이(李)씨	정부인 박씨 / 이곤, 이배	
전주 이(李)씨	이달준	탑동 무림군파
전주 이(李)씨	이덕홍	인홍동 장천군파
전주 이(李)씨	이태영	상패동 동양정공파
한양 조(趙)씨	조종면, 조종저	
청주 한(韓)씨	한혜량	

(5) 1700년대

문종	입향조	비고
청풍 김(金)씨	김계	
문화 유(柳)씨	유숙영	
반남 박(朴)씨	박태기	
함양 박(朴)씨	박태화	
경주 이(李)씨	이중혁	
광주 이(李)씨	이지운	
전주 이(李)씨	이상경	상패동 덕천군파
전주 이(李)씨	이장혁	지행동 효령대군파
전주 이(李)씨	이중경	동두천동 전성군파
동래 정(鄭)씨	정락	
창년 조(曹)씨	조진주	
창원 황(黃)씨	황신중	

(6) 1800년대

문종	입향조	비고
광산 김(金)씨	김담	
해주 오(吳)씨	오완선	
해평 윤(尹)씨	윤일선	
전주 이(李)씨	이문규	송내동 주부동정파
한산 이(李)씨	이수황	

4) 현지 조사에 나타나는 동두천지역 집성촌의 변화

지역		본관	1934	1953	1990	입항시기
보산동	보산리	강릉 김씨	54	80	해체	1670
내행동	지행리	고령 박씨	27	35	해체	1650
소요동	하봉암리	진주 강씨		56	해체	1640
생연동	생연리	남양 홍씨	50	125	해체	1550
동안동	안흥리	전주 이씨	28		해체	

5) 동두천 집성촌 규모의 한 사례

강릉 김씨의 경우 1933년 조사

지역	본관	입항조	입항시기	호수	등족호수	자산가	농가계층	문중재산
보산리 싸리말	강릉 김씨	김몽상	1670	44	10	김연주 16만5천원	지주자작 7 자작 겸 소작 16 소작 21	없음

11. 이담원(伊淡院)과 조창(租倉)

1) 이담원(伊淡院)

이담원 터는 동보초등학교에서 북동쪽으로 70여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이 곳은 과거 연천·철원 등지로 통하는 대로와 포천에서 파주로 이어지는 길이 고려시대 이래로 나있던 사거리로 오랜 옛날부터 군사적 요충지이며 약 1km 떨어진 곳에 북창이 있었다. 이곳에 설치되었던 이담원(伊淡院)은 자좌우향(子座右向)으로 자리를 잡았고, 규모는 초석과 기와 조각이 산재한 것으로 미루어 백여 칸이나 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150여 년 전에 원은 폐지되었고, 원이 있던 곳이라 하여 '원터(院址)'라는 마을 이름만 남았다. 지금은 아파트단지가 형성되어 있어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 원(院)은 고려와 조선시대 관리들이 공무로 지방등지에 출장 나와 유숙(留宿)하는 숙소 같은 곳을 뜻한다. 1445년(세종 27)에는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 원주로 삼아 이를 관리하게 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원주에게 대로(大路)이면 1결(結) 35부(負)((1결(結)은 100부(負)), 중로(中路)이면 90부(負), 소로(小路)이면 45부(負)를 주어 원을 유지하게 하였다. 원은 한때 크게 번성하였으나 이용자가 적어지면서 후기에 는 점차 쇠퇴해 갔다.

2) 조창(租倉)의 설치

조창(租倉)은 세곡(稅穀)을 모아 두었다가 경창(京倉)으로 운반하는 중간 저장소로 지형(地形)에 따라 노변(路邊)이나 포구(浦口)에 설치하였다. 세곡이란 전조(田租), 즉 토지세를 걷은 것으로 국방의 필요가 있는 함경도와 평안도를 제외한 전국의 세곡은 한양의 경창(京倉)으로 운반하도록 되어있었는데, 당시에는 육로 운송이 발달되지 않아 대개 하운(河運)이나 해운(海運)으로 경강(京江)으로 수송하게 되어 있었다. 이를 조운(漕運)이라 하였다.

동두천의 조창(租倉)은 인근의 한탄강, 임진강을 끼고 있으나 이 두 강은 여울이 많고 물살이 빨라 조운선(漕運船)을 띄울 수 없었기에 세곡(稅穀)을 육로를 이용하여 양주 관아로 운송하였던 것 같다. 우리 지역에 조창이 설치된 곳은 현재 동두천시 동두천동의 창말로, 창말이라는 지명이 바로 '조창이 설치되어 있던 곳'

96) 『여지도서』 양주, 창고

에서 유래된 것이다.

동두천의 조창은 기록에 '북창(北倉)'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양주목의 북부 지역에 설치된 조창(租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회정지역의 동창(東倉)과 함께 양주 고을을 둘러싼 방위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아도 동두천 지역의 세곡은 조운(漕運), 즉 선박 수송이 아니라 육운(陸運)을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지도서(輿地圖書)』에는 사창(司倉), 관창(官廳), 동창(東倉), 현창(縣倉), 북창(北倉)이 있다고 기록하였고 『대동지지(大東地志)』 양주조에는 읍창(邑倉)과 현창(縣倉), 내창(內倉), 동창(東倉), 북창(北倉)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 명칭에 약간의 변동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북창의 규모는 사무실이 4칸, 창고가 30칸이었다.

— 北倉 在伊淡面坐起廳四間庫舍三十間⁹⁶⁾

12. 조선 후기의 동두천 사회상

97) 『일성록』 1785년 윤2월 19일

조선 후기 동두천 지역의 상을 기록에 단편적으로 나타나는 자료를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산송(山訟)

산송(山訟)은 묘지 다툼으로 풍수에 지극한 관심을 보였던 당시에는 지역 토반은 물론 평민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었다. 노비 소송과 함께 이 산송(山訟)은 당시 지방관이 해결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의 하나였고, 때로는 국왕에게 상정되는 예민한 현안이기도 하였다.

다음의 기록은 당시 동두천에서 발생한 산송이 결국 국왕에게까지 보고된 사례로서 당시 동두천 지역 사회상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정조의 문집인 『일성록』에 의하면

- 양주 유학 정재곤이 상소하여 이르기를 "자신의 7대조인 정사호와 6대조인 사복시정 정현원의 무덤이 양주 이담면에 있어 이를 보존해 온지가 수백 년이나 되었는데, 임자년 무렵에 같은 마을에 사는 김종흥(金宗興)이 자기의 처를 무덤의 바로 서쪽 뻗히 보이는 곳에 투장(偷葬)하였고, 종흥의 숙부인 만득(晩得)이 또한 자기의 동생을 종흥 처의 무덤 바로 아래에 투장(偷葬)한 일로 소송하여 그 부당함에 대한 판결을 받았는데 만득의 무리는 여러 차례 항소하면서 무덤 옮기기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중, 마침 그곳을 잠행하던 암행어사를 만나 여러 차례나 소송에 진 것을 숨긴 채 애처러움을 꾸며 울며 호소 하여 암행어사가 금하지 말라는 통문을 보냈으니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어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니다" 하였으니 어사가 통문을 보낸 데에는 그 나름의 뜻이 있겠고, 여러 차례의 (이긴)소송을 한 번에 실패로 돌아간데 대한 원통함에도 또한 이상함이 없으니 특별히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하여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도록 감사에게 분부하여 주소서 하니 이를 허락하였다.

(楊州幼學鄭載坤上言以爲其七代祖判書賜湖六代祖司僕正玄源墳山在楊州伊淡面守護禁養將至數百年壬子年間同里金宗興偷葬其妻於六代祖墳單白虎坐立俱見之地宗興叔晩得又偷埋其弟於宗興妻冢之下呈訴本官晩得輩落訟屢納俦音而此日彼日敢爲延拖之計適會暗行御史潛入之行掩其屢度落訟故作哀矜之態誣陳冤枉御史以不可禁之意嚴辭發關無地號訴冒死哀籲云繡衣發關必有意見而屢捷之訟忽置落科則其所稱冤亦無足怪各別更查從公決折之意請分付道臣允之)⁹⁷⁾

라고 되어 있어 정씨 문중이 제기한 산송의 해결 과정을 알 수 있게 해준다.

2) 동도천장(東道川場)

15C에 발생한 장시(場市)는 17C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여 18C에는 한 고을에서만 5-6군데의 장시가 열리는 정도로 성장하였다. 장시는 지역을 순회하며 날짜를 정하여 열리는 정기시(定期市)로 이는 조선 후기에 들어와 기존의 관영 수송업이 사영화하고, 난전(亂塵)의 규모가 시전(市塵)을 뛰어넘을 정도로 규모가 커지고 아울러 화폐의 유통이 일반화되는 당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들 장시에는 보상(裨商)과 부상(負商)이 내륙과 해안, 도시와 촌락을 연결하는 상권을 형성하여 물자를 매매하였고 이에 따른 여러 시설 즉, 객주(客主), 여각(旅閣), 마방(馬房) 등이 나타나고 화폐교환 경제의 발달에 따른 금전대부, 어음, 위탁판매 등 다양한 경제활동이 나타나게 된다.

이들은 지역의 특산물인 각종 1차 상품은 물론 각지의 사영 수공업자가 제작한 2차 상품 그리고 무역업자들이 수입한 외래물품까지 다양한 상품을 거래하였다.

특히 보부상들은 자신들의 상단(商團)을 형성하여 지역과 상품을 독점하는 등 적극적인 상권 보호에 나서기도 하였다.

우리 동두천 지역에 형성된 장시는 모두 2군데였다. 하나는 동도천장(東道川場)으로 이 동도천장은 현재의 동두천역전 마당에 형성된 것으로 5일, 10일에 열리는 5일장이었고 인근 덕정리와 전곡, 포천 등지에서 보부상과 장꾼이 모이는 큰 장으로 『대동지지(大東地志)』,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양주읍지(楊州邑誌)』 등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장의 명칭인 동도천장(東道川場)은 동쪽에서 흘러오는 개울이라는 의미로 보아 현 지명인 동두천(東豆川)의 원칭(原稱)인 것으로 추정된다. 동두천의 지명 유래를 해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보인다.

또 하나의 동두천지역 장시는 북도천장(北道川場)이었다. 이 장은 현재의 봉양리 지역에 1일, 6일에 모였다. 북도천장(北道川場)이라는 이 장의 명칭 역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북도천(北道川)은 '북으로 흐르는 강'이라는 의미로 현재의 신천(莘川)을 의미한다. '신천(莘川)'은 '신산리(莘山里)'에서 흘러오는 강이라는 뜻으로 비록 강의 연원을 알 수 있게 하기는 하지만 동두천 시내를 관통하는 하천의 동두천지역 지명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자료에 등장하는 신천의 본래 이름

은 모래내, 즉 사천(沙川)이다. 사천(沙川)은 고려시대 우리 동두천의 지명이었으며 후대에 이르도록 여러 고지도에 신천은 사천(沙川)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런데 후대에 이 사천(沙川)을 부르는 다른 이름이 북도천(北道川)이었다. 신천이라는 어색한 하천 이름 대신에 복원해서 사용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양주읍지」 등에 나타나는 양주 지역의 여러 장시는 다음과 같다.

구분	장시명	위치	개시일
1	가업장(加業場)	광석면(廣石面)	3일, 8일
2	동도천장(東道川場)	이담면(伊淡面)	5일, 10일
3	회천장(檜川場)	어등산면(於等山面)	1일, 6일
4	대탄장(大灘場)	청송면(靑松面)	4일, 9일
5	구곡장(仇谷場)	상도면(上道面)	1일, 6일
6	미호장(美湖場)	독음면(禿音面)	3일, 8일
7	덕소장(德沼場)	와부면(瓦孔面)	1일, 6일
8	광릉내장(光陵川場)	진벌면(榛伐面)	3일, 8일
9	북도천장(北道川場)	어등산면(於等山面)	1일, 6일

후일 동도천장은 동두천지역의 핵심 상권으로 성장하는 한편 이 장터였던 싸리말은 동두천지역 최초의 시가지를 형성하며 각종 행정 기관이 들어서기도 했다. 대한제국의 말기에는 이 싸리말장터를 중심으로 의병 항쟁이 일어나며 일제의 침략 기관인 헌병대가 주둔하기도 했고, 포천을 넘나드는 동서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였다.

13. 천주교 신앙의 전래

천주교는 조선 후기에 이르러 중국에 다녀온 사신들에 의하여 서학(西學)이라는 이름의 학문으로 처음 소개되었다. 이후 양난을 겪은 조선 지식인 사이에서 주자학에 대한 반성이 일면서 주자학의 대안으로 검토되다가 점차 신앙으로 발전하였다.

조선의 초기 천주교 신자들은 특히 전례(典禮)문제 즉, 제사를 거부하는 문제를 위시하여 조선의 기존 성리학적 질서와 충돌하며 혹독한 탄압을 맞게 되는데, 이러한 탄압가운데 술한 순교자를 배출하며 오히려 더욱 교세를 넓혀가게 된다.

1) 동두천지역으로의 천주교 전래

동두천에 언제 천주교가 전래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단 아래 항목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동두천 지역의 순교자들을 통하여 그 전래시기가 비교적 전래 초기였다는 사실만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동두천에 천주교가 전래된 통로는 포천 지역의 교회 공동체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승훈이 최초로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온 후 이벽(李篈)과 권철신(權哲身), 권일신(權日身) 형제에 의하여 양근(陽根)에, 그리고 정약용(丁若鏞)·정약전(丁若銓) 형제에 의하여 마석에 형성된 천주교 공동체는 권철신(權哲身) 형제의 외사촌인 홍교만(洪敎萬)·홍인 부자에 의하여 포천으로 확대되었다. 천주교회의 자료에 따르면 박해가 심해 포천의 천주교 공동체는 붕괴되었으나, 19C 중반에는 다시 부활하여 고약리, 격장리, 솟다리, 남의골, 영평 등지에 천주교도들의 공동체가 나타난다.

이들 지역은 모두 동두천의 인접지역으로 특히 고개를 넘어 동두천장으로 장을 보러 오는 곳이기도 하였고, 동두천 생연리 일대는 포천에 천주교 신앙의 씨앗을 뿌린 홍교만 부자와 같은 남양 홍씨의 집성촌이 있던 곳이기도 하였다.

후에 동두천 출신의 천주교 순교자가 모두 남양 홍씨였고, 이들이 포천 고약리 등지에 이주하여 신앙생활을 하였다는 사실들을 감안할 때 두 지역의 지역적, 혈연적 연관성은 포천에서 동두천 지역으로 천주교가 전래되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결국 동두천 지역에는 적어도 1850년경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천주교가 전래되

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동두천 출신의 초기 천주교 순교자들

동두천 지역으로의 천주교 전래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것은 동두천 출신 천주교 순교자의 배출이다.

천주교회의 순교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동두천 출신 순교자들이 있다.

이름	출신지	거주지	비고
홍성원 (아오스당)	양주 일담리 (세거지인)	포천 고악리	1868년 5월 19일 양주 포교에게 체포 나이 43세. 광주에서 순교한 홍 요한의 아우
홍공노 (베드로)			회장, 홍성원, 홍성국의 부친. 나이 82세 백암선과 함께 체포 순교
홍성국 (요한)		광주 정암, 새말	1867년 4월 광주 포교에게 체포 순교. 나이 56세
홍성선		공주 적바위	홍공노의 아들 1879년 5월 공주포교에게 체포 순교, 나이 50세

주목할 것은 이들 모두가 한 가족으로서 양주 일담리의 세거지인(世居之人) 즉, 대대로 일담리에서 살아 온 한 가족이라는 사실이다. 여기에 나타나는 일담리는 현재의 생연동으로 일담(一潭), 즉 커다란 연못을 뜻하는 지명이다. 일부 자료⁹⁸⁾에 이 일담리를 이담면의 옛 지명으로 이해하여 우리 동두천이 조선 전기에는 일담, 조선 후기에는 이담으로 불렸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는 오류이다. 왜냐하면 동두천 지역 전체에 해당하는 지명으로는 '이담(伊淡)'만 나타나고 '일담(一潭)'은 나타나지 않는데다가 '일담(一潭)'은 '일담면(一潭面)'이 아닌 '일담리(一潭里)'로 표기되기 때문이다.

즉, '일담(一潭)'은 동두천 전체의 지명이 아니라 '이담면 일담리' 즉 이담면의 한 마을이름인 것이다.⁹⁹⁾

동두천 천주교회에서 발간한 「동두천천주교회사」에 동두천 천주교회의 시원을 양주군에 소재하는 신암리 공소로 이해한 것은 보다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98) 1969년 판 동두천대관

99) 이담(伊淡)과 일담(一潭), 생연(生淵)은 모두 우리말 (못골)의 각각 다른 한자 표기로 판단된다. 현재의 동두천 시청 자리에 있었다는 남양 홍씨의 저수지, 즉 연못에서 유래된 지명으로 같은 곳을 다르게 표기한 것이라 하겠다

14. 외세의 침탈과 개혁

1) 세도정치와 흥선대원군

정조의 갑작스런 죽음은 정조가 평생 추구하였던 탕평의 원칙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노론 벽파 세력이 조선 정계의 주역으로 확고히 자리잡는 결과를 가져왔다. 아울러 한 정파의 오랜 집권은 정파 내부의 주도세력을 부상시켜 주로 외척이 정권을 독단하는 기형적인 정치체제로의 변환이 이루어지는데 안동 김씨, 풍양 조씨 등 외척 세력이 정권을 전단하는 이런 정치체제를 '세도정치(勢道政治)'라 한다.

세도정치는 특히 한 가문의 정권 독단에 따르는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왔는데, 특히 매관매직과 삼정(三政)의 문란으로 대표되는 민중에서의 경제적 착취, 정치 이데올로기와 사상의 교조화, 언론의 억압과 같은 말기적 현상과 함께 정치력의 부재, 즉 왕권의 심각한 추락 등으로 나타난다.

이는 당시 급격한 진행을 보이는 서양세력의 동양 진출과 제국주의의 영토 침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결국 세계의 주류에서 밀려나 낙후된 변방국으로 전락하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

흥선대원군은 철종의 죽음을 계기로 정권을 장악하고 왕권 강화와 세도 축멸의 해체를 핵심으로 하는 과격한 개혁정치를 시행하여 기형적인 정치체제의 개혁과 시정(是正)을 도모하였으나 그의 개혁정치 또한 왕권 위에 존재하는 또 다른 세도정치라는 태생적 한계와 함께 당시의 시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적 제한으로 개혁에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민씨 외척세력의 준비되지 않은 개화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2) 외세의 침탈과 서구 서구문화의 전래

민씨 개화정부는 일본 및 서구열강에 나라를 개방하고 그들과의 통상 교류를 시작하지만, 이는 그들의 경제, 문화 침략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허약한 개방에 지나지 않았다.

동학농민혁명이나 임오군란, 의병운동, 갑오, 을미개혁 등 다양한 변혁의 시도가 이루어지지만 모두가 당시의 상황을 능동적으로 극복하고 미래를 지향하기보다는 일부 계층의 이익과 입장만을 강조하는 국지적인 저항에 그침으로써 결국

은 혼란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이와 같은 혼란의 와중에 기존의 가치와 기준이 급격히 무너지면서 무분별한 서양의 문화 이입이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한 개화정책은 우리의 전통 가치를 한꺼번에 무너뜨리기 시작하였다. 청일전쟁, 러일전쟁, 영일동맹, 가쓰라테프트조약 등을 거치며 한국 침략의 주도권을 장악한 일본의 진출은 마침내 조선의 망국을 향하여 급한 행보를 거듭하고 있었다. 500년 왕조가 종언을 고하면서 우리민족은 이민족에 의한 압박과 질고를 감당해야할 무겁고 암울한 시기가 도래하고 있었던 것이다.

3) 순정효황후(純正孝皇后)

대한제국의 제2대 황제이며 동시에 조선의 마지막 임금인 순종의 마지막 황후인 순정효황후 윤씨는 우리 동두천 출생이다. 그녀의 본관은 해평(海平)이며 해풍부원군(海豊府院君) 윤택영(尹澤榮)의 딸이다. 1904년에 황태자비 민씨가 사망한 뒤, 1906년 13세의 나이로 황태자비에 책봉되었고, 이듬해 순종이 즉위하자 황후(皇后)가 되었다. 1910년 국권피탈 때 병풍 뒤에서 어전회의의 진행을 엿듣고 있다가 친일파들이 순종에게 합방조약에 날인할 것을 강요하자 옥새(玉璽)를 치마 속에 감추고 내놓지 않았으나, 숙부인 윤덕영(尹德榮)에게 강제로 빼앗겼다. 국권피탈 후 일제에 의해 이왕비전하(李王妃殿下)로 강칭(降稱)되고, 1926년 순종이 후사 없이 죽자 왕제(王弟) 영친왕(英親王)이 이왕가(李王家)를 계승하였다.

만년에 불교에 귀의하여 대지월(大地月)이라는 법명을 받았으며, 낙산재(樂善齋)에서 말년을 보냈고, 유릉(裕陵)에 순종과 합장되었다.

순정효황후 윤씨의 생가는 동두천 동점마을 음식점 민초가 위치한 곳에 있었으나, 망국과 함께 윤씨 일가가 동두천을 떠나 파주로 거처를 옮김으로써 생가는 훼손되고 현재는 황후의 생가를 찾아볼 만한 아무런 단서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이다.

제7절 근대의 동두천

1. 한말 제도개혁

갑오개혁(甲午改革)은 청(淸)과의 전쟁을 서두르던 일본이 군사적으로 조선 정부를 위협하여 단행한 내정개혁(內政改革)이다. 이것은 조선의 낡은 체제를 타파하고, 조선을 근대국가체제로 정비한다는 명분으로 일본이 강압적으로 추진한 타율적 개혁이요, 처음부터 조선정부의 요청에 의한 자율적 개혁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로써 한국근대화의 기점이 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는데 큰 의미를 갖는다.

갑오농민전쟁을 계기로 한국에 진출한 일본은 사태의 근본이 한국의 정치가 부패하였기 때문이니 이를 개혁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청에게 공동으로 한국의 내정 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청은 이는 외국에 대한 내정간섭이라고 거절하였다. 일본은 단독으로 한국의 내정개혁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대원군을 섭정으로 추대하여 민씨세력을 축출한 후 김홍집(金弘集)을 수반으로 하는 제1차 김홍집내각을 조직하였다.

제1차 김홍집내각은 개혁의 중추기관인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를 설치하고 개혁안을 입안하였다. 개혁안의 내용은 청의 종주권(宗主權) 부인·개국기원 사용·의정부와 궁내부의 분리·지방제도 개혁·사법권 독립·신 교육령 반포·연좌법 폐지(蓮座法廢止)·인신구속 금지 등 정치적 개혁, 신분제 타파·과거제 폐지(科擧制廢止) 등의 사회적 개혁, 은본위제 채용·조세(租稅)의 금납화·도량형(度量衡)의 통일·은행과 회사의 설립 등의 경제적 개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같은 개혁내용은 실학사상(實學思想), 갑신정변(甲申政變) 때의 개혁정책, 갑오농민군의 요구조건 등이 반영된 것이었으므로 한국의 근대화에 필요한

것이었으나, 즉시 시행하기에는 곤란한 것도 많았다.

1차 김홍집내각은 대원군과 개혁 방법에서 크게 시각차를 보여 일본이 의도한 것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없었다.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한 혁신적인 개혁사업은 수구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대원군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았다. 더욱이 대원군은 고종과 명성황후를 폐하는 대신 그의 직손자인 이준용을 왕위에 앉히려는 음모를 꾸미는 한편, 갑오농민군 및 청국군과 내통하여 일본군을 축출하려는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하였다.

그러나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은 마침내 개혁에 미온적인 대원군에게 동학당(東學黨)과 내통하며 청나라와 기맥을 통한다는 혐의를 씌워 그를 제거한 후 박영효·서광범 등 친일인사를 입각시켜 김홍집·박영효 연립내각(제2차 김홍집내각)을 수립하고, 군국기무처를 폐지한 후 「홍범 14조」를 발표하였다. 이는 앞서 발표한 개혁을 강화한 것으로 청국의 세력을 멀리하고, 민비와 대원군의 정치 간섭을 제거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제2차 김홍집내각의 개혁은 청일전쟁에서 이긴 일본의 내정간섭 강화로 점차 주체성을 상실하고, 더구나 농민군이 진압된 후에는 민중의 현실적 요구와도 거리가 있었다.

청일전쟁 후 동아시아 정세는 급격히 변화하였다. 한반도에서 청국을 퇴출시킨 후 일본은 청으로부터 할양받은 요동반도를 중심으로 중국대륙으로 진출을 기도하였고, 이에 러시아는 일본의 세력을 견제하려고 독일·프랑스와 함께 일본에 압력을 넣어 요동반도를 청에 반환하도록 강요하였는데, 이를 삼국간섭이라 한다.

삼국간섭 이후 조정 중신들 중에는 배일친러적 양상을 띠는 인사들이 증가하였다. 친러파 인사들은 박영효 등이 폐비음모에 가담하였다고 하여 그들을 축출한 후 이범진 등을 중심으로 한 친러내각(제3차 김홍집내각)을 형성하였다. 이때 갑오개혁은 일시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러시아의 한반도 진출에 위협을 느낀 일본은 친러정권의 배후 실력자 명성 황후를 시해하는 참변을 일으켜 친러내각을 축출하였다. 이후 김홍집내각(제4차 김홍집내각)이 다시 조직되고, 중단되었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여 태양력(太陽曆) 사용, 단발령 반포(斷髮令頒布), 군제개편(軍制改編), 연호(건양)사용, 우편사무 개시 등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지식층인 유학자들에게 단발령이나 양력 사용은 청천벽력 같은 사안이었다. 더욱이 명성황후의 참혹한 죽음은 민심을 자극하였는데 여기에 단발령이 반포되면서 각처에서 의병운동이 일어났다. 을미사변 후 러시아는 비상수단으로 친일정권을 전복시키려고 하였다. 공사 웨베르는 친러파와 모의한 후 고종을 러시아 공사관에 옮기고, 친일파 김홍집을 살해한 후 친러파 내각(총리, 윤용선)을 조직하였다. 이때부터 러시아가 조선 정국을 좌우하며 각종 이권을 침탈하였다.

아관파천(俄館播遷)과 열국의 이권 침탈로 국내외에서 물의가 비등하자 독립협회는 정부를 비판하고, 고종의 환궁을 촉구하며 민국의 독립과 민권의 확립을 추구하였다. 고종은 드디어 러시아공사관에서 경운궁(덕수궁)으로 환궁하여 국호를 대한제국(大韓帝國), 연호를 광무(光武), 왕호를 황제라 칭하여 독립국임을 내외에 선포하였다. 또한 제국의 내정개혁을 발표하여 지방관제개혁·신교육령을 단행하였다.

한편, 한반도에서 각축하던 일본과 러시아는 마침내 충돌하여 전쟁이 발발하였고,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본격적으로 침탈을 강화하여 한일의 정서(韓日議定書)를 체결하였고, 이어 을사조약(1905)을 체결하여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내정에 간섭하였다.

이어 일본은 고종을 퇴위시키고(1907), 정미조약(丁未條約, 1907)을 체결한 후 일본인 차관이 국정을 총괄하면서 군대를 해산하고, 기유각서(己酉覺書, 1909)로 사법권마저 빼앗는 등 한국의 내정을 장악하였다.

이어 1910년에는 경술조약을 체결하여 완전히 한국을 병합하여 총독부를 두고 식민지배를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한말의 혼란한 사회변혁 속에서 양주 지역(현 동두천시 포함)이 지방제도개혁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

1) 지방제도

갑오개혁 후 지방제도의 개혁은 중앙관제 개혁과 인사제도 개혁이 일단락 되면서 착수되었다. 때문에 중앙관제가 개혁된 후 거의 1년이 지난 1895년 5월 26일에 칙령 101호로 개정·공포되었다.(관보 개국 504년 5월 26일) 이에 따라

도제(道制)폐지, 지방제도 개혁과 지방관제가 공포되고 윤 5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표 2-8-11〉 23개 부와 소속군수

부의명칭과 소속군수	부의명칭과 소속군수	부의명칭과 소속군수
한성부 11개군	제주부 3개군	해주부 16개군
인천부 12개군	전주부 21개군	평양부 27개군
중주부 20개군	동래부 10개군	위주부 13개군
홍주부 22개군	대구부 23개군	강계부 6개군
공주부 27개군	안동부 17개군	함흥부 11개군
전주부 20개군	강릉부 9개군	갑산부 2개군
남원부 15개군	춘천부 13개군	경성부 10개군
나주부 16개군	개성부 13개군	

출전*일성록(日省錄), 고종 31년 5월 16일 관보(官報), 개국 503년 5월 28~29일

지방제도의 개혁으로 8도의 감영·안무영과 개성·강화·광주·춘천 등지의 우수부를 폐지하고 소지역주의(小地域主義)를 채택하여 전국을 23부로 개편하고, 종래의 부목(府牧)·군(郡)·현(縣)을 폐합하여 군단위로 통일하는 등 337군을 신설 23부 밑에 분속(分屬)시켰다. 신설된 23개 부와 각 부에 소속된 군의 수를 살펴보면 위의 〈표 2-8-11〉과 같다. 지방제도의 개정과 동시에 지방의 각 부·군관계가 공포되었다.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한성부에서는 관찰사 1명, 참서관 1명, 주사 약간 명을 둔다.
- ② 한성부 이외의 각 부에는 관찰사 1명, 참서관 1명, 주사 약간 명, 경무관 1명, 경무관보 1명, 총순 2명 이하를 둔다.
- ③ 군에는 책임관으로 군수 1명과 기타 직원을 별도로 정하며 군수는 관찰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법률·명령을 관내에 집행하고 관내의 행정사무를 관리한다.
- ④ 경무관은 당해 관찰사의 지휘를 받아 관내의 경찰사무를 정리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한다.

지방제도의 개혁으로 종래 지방관이 통괄하고 있던 행정권, 사법권, 군사권이

분리 독립되어 관할 기관에서 관장케 함으로써 지방행정 체계가 정비되었다. 이러한 지방제도의 개혁은 지방관의 절대 권력을 근본적으로 폐지하여 지방관의 횡포와 부패를 막고, 행정체계를 중앙에 예속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지방제도의 개혁으로 단행된 23부제는 1895년 6월 23일부터 실시되었고, 당시 양주(현 동두천시 포함)는 한성부(漢城府)에 소속되었다. 한성부의 신임 관찰사는 이채연(李采淵 : 1895.5. 29~9.6까지 재임)이었고, 부의 소재지는 한성이었다. 한성부에 소속된 군은 한성·양주·광주·적성·포천·영평·가평·연천·고양·파주·교하 등 11개 군이었다.

이 23부제는 실제 행정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으므로, 아관파천 이후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지방제도를 개혁할 때 23부제를 폐지하고 전국을 1부 13개도로 개편하였다. 이것은 갑오·을미개혁에 일대 수정이 가해진 것으로 복고적 경향을 띄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때 개편한 내용은 23부제를 도제로 환원하여 서울인 한성부 이외의 지역을 13개 도로 개편하고, 그 밑에 7부·1목·331군을 두었다. 한성부는 5서로 나누고, 부에는 부윤(府尹)과 소윤을, 각 도에는 관찰사, 부·목·군에는 부윤·목사·군수를 두고, 앞서 폐지되었던 인천·동래·덕원·경흥 등의 감리서가 복설되었다.

이러한 지방제도의 개혁으로 지방행정은 내부(內部)의 소관이 되었으며 도의 관찰사는 내부대신의 지휘·감독을 받고, 각 부의 주무에 따라 각 부 대신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었다.

개편된 13개도와 도청소재지는 <표 2-8-12>와 같다.

<표 2-8-12> 13도와 도청 소재지

도와 도청소재지	도와 도청소재지	도와 도청소재지
경 기 도 : 수원	경상북도 : 대구	강 원 도 : 춘천
충청북도 : 청주	경상남도 : 진주	함경북도 : 경성
충청남도 : 공주	황 해 도 : 해주	함경남도 : 함흥
전라북도 : 전주	평안북도 : 정주	
전라남도 : 광주	평안남도 : 평양	

당시 양주(현 동두천시 포함)는 경기도에 소속되었다. 이후 일제 침략이

시작되는 1905년부터 여러 차례 부분적인 지방제도 개편이 계속되다가 1910년 1수부, 13도, 11부, 317군으로 되었다.

2) 사법제도

조선시대에는 군현제(郡縣制) 하에서 관찰사를 중심으로 한 지방관들이 사실상 행정·사법·군사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때문에 사법권은 지방관서의 장이 담당하고 있었다. 한국근대화의 개혁이라 할 수 있는 갑오개혁의 제1차 내정개혁에서도 재판권은 법무아문(法務衙門)에 귀속되어 행정관이 재판을 겸무하도록 하였다.

사법권이 행정부로부터 분리·독립된 것은 갑오개혁의 제2차 내정개혁에서 재판소구성법(1895.3.25)이 제정·공포된 후 두 차례에 걸친 전면 개정과 세 차례에 걸친 부분 개정이 있는 뒤 기유각서(1909.7.12)로 우리나라의 사법과 감옥에 관한 사무가 일제에게 약탈당한 뒤 우리나라 정부기구에 사법기관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 1909년 10월 28일 법률 28호로 폐지되었다.

한말의 사법제도를 재판소구성법에서부터 한일합병 때까지를 편의상 5단계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한다.

(1) 재판소구성법(裁判所構成法) 제정

재판소구성법이 제정된 1895년 3월 25일부터 이 법이 전면 개정되는 1899년 5월 30일까지 한말의 사법제도는 2심제였다.

재판소는 지방재판소·개항장재판소·순회재판소·고등재판소·특별법원 등 5종이었고, 지방재판소에는 사정에 따라 지청을 둘 수 있게 하였다. 이 중 지방재판소와 개항장재판소는 1심 재판소로 민·형사사건을 담당하였는데, 개항장재판소는 내국인의 민·형사사건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내국인에 대한 민·형사사건까지 담당하였다.

2심 재판소에는 순회재판소와 고등재판소를 두었는데, 순회재판소는 지방재판소와 부산·원산에 있는 개항장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항소(抗訴)를 담당하였고, 고등재판소는 한성·인천 개항장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상고를 담당하였다.

특별법원은 왕족의 범죄에 관한 형사사건을 재판하는 초심법원(初審法院)이며, 동시에 종심법원(終審法院)으로 상고는 일체 불허하였다.

재판은 모두 공개하였으며, 직원은 판사·검사·서기·정리를 두었고, 고등재판소와 특별법원에는 재판장을 추가로 두도록 하였다. 고등재판소와 특별법원은 합의제 재판소이고, 나머지는 단독판사가 재판을 담당하였다.

재판소구성법의 제정은 근대적 사법제도가 시작되었으며 사법권이 행정권에서 독립된 점이다. 양주지역은 1896년 8월 15일 법무령 제5호에 의하여 한성재판소의 관할지역으로 편입되었다. 한성재판소는 한성부 관할 5서 내의 민·형사소송(民刑事訴訟)을 담당하였는데, 직원은 수판사 1인, 판사 2인(민사 1인, 형사 1인), 부판사 1인, 서기 8인, 정리 8인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1897년 9월 1일에 발표된 칙령은 37호와 38호에 의하여 경기재판소가 설치된 후에 양주지역은 경기재판소 관할지역에 속하였다. 그러나 1896년 2월에 한성재판소와 경기재판소가 각각 한성부와 경기도 관할부에 합설됨으로 사법기관은 다시 지방행정기간에 합설되었다.

(2) 재판소구성법 개정

재판소구성법이 1895년 3월 제정된 이후 지방행정 제도의 개편(23부제에서 13도로 변화), 개항장의 증설, 한성재판소와 경기재판소가 각각 한성부와 경기관찰부에 합설되는(1898)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때문에 재판소구성법은 전면 개정이 불가피하였다. 전면 개정은 1899년 5월 30일 법률 제3호에 의거한 것이다. 개정된 중요한 사항은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를 평려원으로 하고 모든 지방재판소와 개항장재판소의 재판에 대한 상고를 담당하게 된 것, 당분간 지방재판소와 개항장재판소는 각 도 관찰부와 개항시 서(署)에 설치하고, 관찰사와 감리사가 판사를 겸임하도록 한 점, 그리고 순회재판소(巡廻裁判所)는 당장 설치하지 않기로 한 것 등이다. 이 법의 특색은 재판기관을 지방행정기관에 합설하고, 지방관이 판사를 겸임하여 사법권이 또 다시 행정기관에 속하는 등 행정기관에서 독립되었던 사법권이 다시 후퇴하였다는 데 있다.

1904년에는 법무령 제1호에 의하여 재판소의 위치가 일괄되게 정하여졌다. 이에 따라 경기재판소는 수원에 두었다. 이후 법무령 제2호에 의하여 재판소

관할 관계 규정이 정해짐으로써 양주(현 동두천시 포함)지역은 경기재판소의 관할지역에 포함되었다.

(3) 이사청 개설

일제는 1905년 을사조약(乙巳條約)을 체결한 후 통감부를 설치하고, 한반도의 식민지 지배를 본격화하였다. 그 결과 사법부에 침투할 목적으로 일제는 이사청을 개설하였다.

1906년 10월에는 재판소구성법의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재판소 직원의 정원을 판사·검사·주사는 각 1인으로 하고, 평리원은 판사를 기존의 4인에서 6인으로, 주사는 기존의 10인에서 12인으로 증원하였다.

본래 이사청은 사법기관이 아니라 재 한국 일본인의 재판사건을 취급하던 재한일본영사관(在韓日本領事館)의 후신으로서 1905년 설치되었다. 그러나 1906년 위치와 관할구역이 규정되었는데 이때 양주(현 동두천시 포함)지역은 경성 이사청에서 관할하였다. 또한 이사청에서, 재한국 일본인들에 대한 재판의 2심은 1906년 6월 25일에 설치된 통감부법무원(統監府法務院)에서 관장하였다.

(4) 신재판소구성법 제정

1899년에 재판소구성법이 전면 개정되어 사법권이 행정부에 예속되었다. 이후 을사조약이 체결된 뒤에 일제는 통감부(統監府)를 설치하고, 한국의 내정을 간섭하면서 1906년에는 이사청을 설치하여 재판소구성법과 한성재판소 관제를 전면 폐지하였다. 그리고 1907에는 신 재판소구성법을 제정·반포하였다. 이 법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재판소를 구재판소·지방재판소·공소원(公訴院)·대심원(大審院)으로 4종을 설치하고, 3심제도를 채택하였다. 구재판소는 단독제로 경미한 사건을 취급하였고, 지방재판소는 기존의 지방재판소·개항장재판소·한성재판소를 일원화하여 합친 것으로 1심 재판기관이다. 그러나 그 재판소의 소심을 제2심으로 담당하였다. 공소원은 종전의 평리원을 개편하여 지방재판소의 합의 사건에 대한 2심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대심원은 공소원의 재판에 대하여 상고를 관장하는 3심 기관이라는 점이다.

다음으로 각급 법원에는 재판부·검사국·서기과를 두었다. 재판부에는 민사부와 형사부를 두고, 각 부에는 부장을 두었으며, 검사국에는 검사장을 두어 업무를 총괄하게 하였다. 대심원 검사국에는 검찰총장을 두었다. 또한 법원사무를 담당하는 서기과를 두었고, 법원행정사무는 소장 또는 원장이 감독하도록 하였다.

끝으로 왕족들을 특별대우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특별법원을 폐지하고 그 소관사항을 대심원에서 관장하도록 한 점이다. 이때에 양주 지역에서는 구재판소가 설치되어 양주와 고양 지역을 관할하도록 하였으나, 개칭되지 못하여 경성재판소에서 이를 담당하였다.

(5) 통감부재판소(統監府裁判所)

을사조약으로 통감부를 설치하고 외교권을 박탈한 일제는 1909년 7월 12일 대한제국과 기유각서를 교환함으로써 사법권까지 박탈해갔다. 이로써 사법과 감옥에 대한 사무가 모두 통감부(統監府)에 귀속되었다. 이어서 통감부는 1909년 10월 16일 일본칙령 제236호로 통감부재판소령(統監府裁判令)을 공포하고 10월 21일에는 통감부령 제28호로 통감부재판소가 설치되면서 대한제국의 재판소구성법은 10월 31일에 완전 폐지되었다.

통감부재판소령의 공포로 각급 재판소는 통감부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었다. 또한 종전의 대심원은 고등법원으로 개칭되고, 고등법원장을 두어 법원 행정사무를 지휘·감독하였다. 이때 양주(현 동두천 지역 포함) 지역에는 구재판소가 설치되어 양주·고양·영평·포천·가평 지역을 관할하였다.

2. 동두천의 토지소유 실태

전근대사회에서 토지제도는 모든 경제제도의 기초가 된다. 산업이 아직 미분화한 상태에서 농업이 국가의 기간산업이었고, 농업의 기초는 토지이기 때문이었다.

조선시대의 토지제도는 과전법(科田法)으로서, 국가가 토지로부터 조(租)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수조권적 토지 지배에 기초하였다. 이러한 국가적 소유관계를 기반으로 수조권(受租權)의 일부를 국가가 전·현직 관리에게

분배하는 것이 과전법이다. 그러나 토지 부족으로 곧 현직 관료에게만 수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바뀌었다. 이것이 직전법이다. 이같은 직전법도 종종 대에 이르러서는 유명무실해지다가 양란(왜란과 호란)을 겪으면서 사라졌고, 그대신 절수(折受)라는 변형된 형태로 유지될 뿐이었다.

조선 후기에는 토지의 사적 소유가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된 때였기 때문에 이것이 소유권의 지급인지 단순한 지세구취권의 지급인지 애매한 상태였다.

조선의 근대적 개혁으로 상징되는 갑오개혁 과정에서도 재정과 세제의 개혁 일환으로 행해진 것은 역둔토(驛屯土)정리사업이었다. 그리고 대한제국이 선포된 후 광무개혁에서 역점을 둔 양전사업(量田事業)도 역둔토정리사업(驛屯土整理事業)이었다. 양전사업은 본래 갑오개혁 당시부터 정부의 재정적 기초를 튼튼히 하고, 갑오농민전쟁에서 제기된 전정(田政)의 수습책으로 계획되었다. 또한 양전사업이 진행되면서 지계(地契) 발급사무도 1901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구래의 입안제도(立案制度)를 근대적 소유권 제도로 발전시키려 한 것으로서, 지주소유권을 그대로 추인해 주는 데 그쳤고, 지주소유제와 지주·전호 관계는 그대로 존속되었다.

본 절에서는 한말 양주(현 동두천시 지역 포함)에 존재했던 역둔토의 관리방식의 변화와 그것을 둘러싼 분쟁을 살피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광무개혁(光武改革)의 일부인 광무사검(光武查檢)이 양주 지역 사회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살피면서, 역둔토 소유권을 처리하는 광무정권의 모습과 그에 대응하는 농민의 모습을 파악하려고 한다. 또한 궁장토(宮庄土)에서의 농업경영의 실상을 검토함으로써 당시 왕실의 지주경영의 모습과 토지조사사업 결과 역둔토가 대부분 국유지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양주지역에서 토지조사사업의 진행과정도 검토하려고 한다. 이것은 이 지역 농민의 실상과 토지소유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1) 역둔토의 성격

역둔토란 역(驛)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한 역전(驛田)과 근대 주둔지역에 지급하여 군인들에게 경작시켜 자급자족하도록 한 둔전(屯田)을 합쳐서 부르는 명칭이다. 역전은 신라시대부터 우역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역전의 명목이 있을 것 같으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이후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에는 「경국대전」에 등재하여 항구화시켰다.

역전의 규모는 역의 규모에 따라 각각 차등 있게 지급하였다. 역의 공수전(公需田)으로는 대로역(大路驛)의 10~25결, 중로역(中路驛)에는 7~15결, 소로역(小路驛)에는 3~5결을 지급하였고, 역리(驛吏)의 인위전(人位田)으로 장전 2결, 부장전 1결 50부, 역노(驛奴)의 인위전으로 급주전(急走田) 50부를 지급하였다. 또한 역마(驛馬)의 사육용 재원인 마위전(馬位田)으로 대마(大馬)에 7결, 중마(中馬)에 5결 50부, 소마(小馬)에 4결씩 지급하고, 역둔전(驛屯田)으로 각 역에 12결씩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역전은 고수전·인위전인 장전, 부장전, 급주전과 역둔전 및 마위전을 총칭하는 것이다.

역둔전(驛屯田)과 마위전은 공유지로서 각기 당해 역과 입마자(立馬者)가 직접 경작하여 수식(收食)하고 국가에 대해 세를 내지 않는 자경무세(自耕無稅)의 토지이다. 그러나 공수전과 장전, 부장전, 급주전은 민전(民田) 위에 수세권(收稅權)이 설정된 것으로서, 국가에 응분의 세를 지급하여야 하는 각자수세(各自收稅)의 토지이다.

전국의 역은 경국대전에 등재된 것만도 540이나 되며, 역전의 규모가 큰 것은 물론 역전제는 국가 지배체제의 운용상 극히 중요시되어, 마위전이 민전의 소유권을 침탈하면서 설치되기도 하였다. 또한 원래의 공유지인 마위전·역둔전이 사사로이 매매되거나 그 도지권(賤地權)이 함부로 전매되기도 하였다. 때문에 한마에 역둔토가 일괄 조사되고,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의 결과 공유지인 이러한 토지가 국유화되는 과정에서 경작자(불법매입 또는 도지권을 전매 받은자 포함)와 정부사이에 분쟁이 일기도 하였다.

둔전(屯田)은 변경이나 군사 요지 내 설치하여 군량에 충당하는 토지이다. 초기에는 차경차전(且耕且田)의 취지에서 부근의 한광지(閑曠地)를 개간·경작하여 군량을 현지에서 조달하기 위한 국둔전(國屯田)에서 시작하였다. 그러나 후대에는 관청의 경비를 보충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둔전(官屯田)까지 발생하였다.

둔전제는 고려 이전부터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나, 정확한 것은 알 수 없고 현존하는 기록은 고려시대에 처음 나타난다. 고려시대의 둔전은 둔전 경영 및 경작의 과중한 부담과 토지점병에 의한 권세가의 점병으로 큰 효과가 없고 민폐만을 끼쳤을 뿐이다.

고려 말의 사회모순을 비판하고, 새로운 왕조를 개창한 조선에서는 민폐가

되는 둔전의 폐단을 제거하려고 이의 치폐(置廢)를 거듭하다가 세조 이후에는 향구화되어 지방관청의 규모에 따라 5~20결을 분배하였다.

둔전제(국둔전, 관둔전)는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부역 노동에 의존하던 둔전 경영은 노동력 징발의 곤란과 생산성의 둔화가 문제점이었다. 그렇다고 둔전으로부터의 수입이 국가 재정의 중요한 몫을 차지하던 당시로서는 이를 포기할 수 없었다. 때문에 구상된 것이 둔전의 병작경영(併作經營)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척박한 둔전은 농민이 경작을 꺼리고, 일부 호세가(濠勢家)에 의한 관둔전의 사점현상(私占現象)으로 농민의 부담 가중과 민전 침탈만 반복될 뿐 세수 증대에 아무런 효력도 없이 국가 지배체제의 약화만 가져왔다.

조선 전기의 둔전제는 16세기부터 쇠퇴하더니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새로이 영문둔전(營門屯田)과 아문둔전(衙門屯田)이 나타났다. 이것은 토지의 황폐화와 중앙정부의 재정의 고갈에서 국가경비를 보충하려는 의도로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이때의 둔전은 소유권에 따라 분류하면 영·아문둔전과 개인 소유지인 민전(民田)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것은 18세기 유토둔전(有土屯田)과 무토둔전(無土屯田)으로 정리되었다. 이같이 다양한 형태의 둔전은 경영형태도 여러 가지로 복잡하였다.

영·아문의 둔전의 확대는 피역(避役)과 도부(逃贖)하려는 양인과 노비가 투속함으로써 국가세입과 군액의 감소를 가져 왔다. 또한 둔조로 영·아문과 경작자 사이에는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로 대립하였다. 영·아문의 수취 강화와 이에 대한 경작자의 개별적이거나 집단적 저항과 소유권 분쟁 등이 그것이다.

둔전은 1894년 관계개혁으로 의정부 탁지아문(度支衙門)으로 궁내부와 탁지부로 분속되더니, 1899년에는 궁내부 내장원으로 다시 1907년에는 탁지부로 이속되고, 1908년에는 완전히 국유화되어 일제 통감부 수중에 들어갔다.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한 후 1920년부터 10년간 동양척식회사(東洋拓植會社)와 일반인에게 불하함으로써 둔토·둔전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둔토의 관리기구가 변동하는 과정에서도 각 단계의 지주로 된 국가·왕실·일제는 둔토에 대한 지주경영을 계속 강화하기 위하여 토지의 집중, 작인(作人)에 대한 파악 강화, 지대 인상에 의한 잉여생산물 수취 강화, 지대의 상품화 등을 철저히 조사하였다. 이를 위한 기초조사로서 1895년 을미사판(乙未査辦),

1900년 광무사검(光武査檢), 그리고 일제에 의한 각종 조사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내장원에 의한 광무사검과 일제의 역둔토 조사에서는 과거의 둔토를 모두 국유지로 처리하여 사실상 둔토를 모두 국유지로 처리하여 사실상 민전인 무토둔토(無土屯土)에서 많은 소유권 분쟁을 야기시켰고, 둔토의 도전(賭錢)·도조(賭租)는 점차 증가되더니 1920년에는 민간의 소작료와 차이가 없게 되었다. 이같이 도전과 도조의 인상 과정에서 작인(作人)들은 거납(拒納) 등을 통하여 지주에 대한 투쟁이 계속되었다.

2) 갑오개혁 이후 역둔토

한말 근대적 개혁으로 상징되는 갑오개혁 과정 중에서 재정제도와 세제 개혁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이 역토(驛土)·관둔토(官屯土)·궁장토(宮庄土) 등으로 불리는 역둔토 정리 사업이었다. 역둔토는 전국의 국유·관유·왕실소유 토지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갑오개혁 이전에는 여러 관청과 궁방에 소속되고 있었다. 한말 국유지관리정책의 변화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갑오승총(甲午陞總)이었다. 이것은 역둔토에 대해 출세(出稅)하도록 하는 면세지 철폐 조치이다.

1894년 군국기무처 의안(議案)인 '궁토·역토·둔토의 출세(出稅)에 관한 건'이 발표되면서, 궁장토 등의 수입은 각궁의 소관으로 두었지만, 지세는 조세의 금납화조치(金納化措置)로 신식으로 거두었다. 역둔토도 종래 결세가 면세되었던 것과는 달리 은토(隱土)와 결세가 싼 토지 등을 조사하여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죄는 탁지부(度支部)로 재정기구를 단일화하여 국고수입을 총괄함으로써 근대화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려는 것이었다. 한말 역둔토에 대한 조사는 갑오개혁 후의 면세지승총(免稅地陞總) 이래 농상공부에서 시행한 을미사판(乙未査辦), 내장원에 의한 광무사검 등이 있다. 그리고 통감부가 설치된 이후 일제가 행한 황실재산 정리과정에서 국유 역둔토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총독부의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끝을 맺었다.

갑오승총(甲午陞總)은 역토·둔토·사궁장토(司宮庄土)를 탁지부에서 승총하여 매 결당 일률적으로 30량씩 출세(出稅)하도록 한 조치이다. 이로써 무토(無土) 뿐만 아니라 제2종 유토(有土)도 형식적으로는 소멸되었다. 따라서 이후의 역둔토 조사는 유토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

갑오승총은 경작자에게 지세 부담 의무를 지운 것이다. 역둔토의 성립 기원에 따라 도조(賭租)를 받은 지역에서도 결세를 지주 측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갑오승총 이후 작인의 부담은 더욱 증가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갑오승총이 국내외의 소란한 정세 속에서 실질적으로 명확히 조사된 것은 아니다. 때문에 소유권 분쟁이 발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역둔토의 관리가 탁지부에 의해 일괄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우선 역토는 1894년에는 공무아문(工務衙門)에 귀속되었다가, 1895년에는 직제 개편으로 농상공부(農商工部)로 귀속되었고, 1897년에는 농상공부가 역토는 성격상 군부(軍部)가 관할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군부로 이속되었다. 이후 1898년에는 재정 일원화의 명분 아래 탁지부가 관할하더니, 1900년에 내장원(內藏院)은 황실재정 강화를 목적으로 역둔토에 대한 관리권을 주장하여 이를 이속 받아 관리하다가 1907년 통감부에 접수되었다.

둔토는 본래 소속기관의 성격에 따라 여러 아문(衙門)에 분할·귀속되었다가 탁지부·궁내부·군부 등에 분산 관리되었다. 그러나 1896년 이후 궁내부로, 다시 1899년에는 내장원(內藏院)으로 귀속되었다.

역토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것은 농상공부에 의한 을미사판(乙未査辦) 때였다.

이때 전답의 실제 면적과 지품(地品)을 양남지방(兩南地方)의 경우 100두락당 답(畓)은 250량, 전(田)은 50량으로 하고, 기타 지방은 그것의 8할로 하였다. 또 전(田) 1일경(一日耕)은 답(畓) 7두락(斗落)과 같도록 계산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도전(賭錢)은 지품(地品)을 상·중·하로 나누고 각각에 대한 두락(斗落), 일경수(日耕數)와 신규작인(新舊作人)을 표시하고 있다. 면적은 답(畓)은 2석(石) 3두(斗) 5승락(升落), 전은 16일 7식반경(息半耕)이므로, 위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면 답 38량(兩), 전 46량(兩) 9전(錢)으로 1899년의 충훈부둔토의 도조액(賭租額) 38석 15두 5승에 비하면 매우 낮은 것이다. 따라서 농상공부의 관할 하에서 역토에 대한 징수는 갑오승총에 규정한 정액도전제(定額賭錢制)에 의해 이루어졌고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역토의 관리가 군부로 옮겨진 뒤에는 지품(地品)에 따라 도조를 징수하는 도조제로 관리방식이 바뀌었다. 군부는 지방대(地方隊)를 편성하면서 그것에 소요되는 예산을 역토의 소작표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하였고, 수세지(收稅地)를 늘리기 위하여 은결(隱結)·누결(漏)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소유권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게 되었다. 탁지부로 관리권이 옮겨진

후에도 징세 방식은 변하지 않았다. 이 시기의 역토에 관한 관리 주체의 변화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농상공부의 역둔토관리가 군부나 궁내부의 것에 비하면 훨씬 유리한 것이며, 군부나 궁내부로 관리권이 이속되면서 농민의 사적 토지 소유는 점차 부정되기 시작하였다.

내장원(內藏院)으로 역토의 관리권이 이속된 뒤 토지에 대한 수취는 더욱 강화되었다. 내장원은 황실 수입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1900년부터 역토를 관리하였다. 이때에 역토는 지주의 소작지 관리와 같은 성격의 것으로 되면서, 농민의 부담은 점차 증대되었다. 실례로 구곡역(仇谷驛)의 일부 역토에 대한 수조액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이는 분명하다. 농상공부에서 관리할 때는 수조액이 1석 1두 5승, 내장원에서 관리할 때는 4석 10두 『경기도 각 군 소장』 6책 「각사등록」 2, 1901 P. 556)로 수조액이 증가되면서 농민부담은 무거워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내장증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며, 내장원의 역둔토 관리는 황실의 재정강화(財政強化)에 목적을 둔 것으로 일반 재주의 것과 다를 것이 없이 도조액이 증가되었고, 농민의 부담이 가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도조액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는 은결을 찾아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였다. 따라서 내장원은 기존의 도조액을 인상하거나, 도조의 징수 방법을 변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도조액의 인상 즉, 가도(加賭)는 양주군에서도 그 실례를 찾을 수 있다. 「양주군 각역 도조 실수급 각 둔기경양년 조납 미납 구별 병시직성책」, 『경리원가고건經理院可考件 : 奎22052』을 참고해 보면 역토의 관리를 넘겨받은 내장원은 양주군의 6역에 대해 원도조 272속 14두 8승의 42%에 해당하는 가도조(加賭租) 113석 5두 8승을 덧붙여 총 386석 6승을 거두었다. 가도 중에는 1석 10두에 해당하는 신사득분(新查得分)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였지만 엄청난 규모의 도조액 증가라 할 수 있다. 그 외에 도조액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는 지대 징수방법을 변화시켜 수조액을 극대화시키는 방법, 전통적으로 행해지던 흉년 시에 재감(災減)마저도 거의 무시하는 방법이 있었다.

이러한 급속한 역둔토의 관리는 필연적으로 농민의 불만을 사게 되고 마침내 그들이 항쟁을 야기시키는 동기를 주게 되었다. 처음에 농민은 소극적으로 청원하다가 마침내는 거납(拒納)·항조(抗租) 등의 수단을 동원하고 심지어는 관을 습격하여 난동을 부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청원 항조활동은 양주지역에서도 나타났다. 1902년 경기봉세관(京畿封稅官) 이태하는 의정부둔의 작인 13명을 호세거납자(豪勢拒納者)로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들의 거납액은 총 63석

14두로 1902년 의정부둔 납세액 160석 2두의 40%에 이르는 규모였다. 이러한 항조과정(抗租過程)을 거치지 않고는 농민들의 자신의 소유권을 인정받는 사례는 있을 수 없다.

3) 양주의 역둔토

(1) 역둔토의 실태

《양주정간책(楊州井間冊)》에는 양주군 내에 있는 6개의 역토와 14개의 둔토를 소개하고 있다. 둔토 14곳 중 7곳은 장원서둔(掌苑署屯)으로 과목(果木)과 화초를 재배하고 과품(果品)을 진상하기 위해 설치한 동산(東山)이다.

양주지역의 역둔토에 관한 「경기도 각군보고(京畿道各郡報告)」와 「경기도 각군소장(京畿道各郡隔狀)」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양주군(현 동두천시 포함)에는 6개의 역(영서, 사수, 평구, 벽제, 녹양, 구곡)이 있었다. 1800년도 역토에 대한 수조액이 없는 것은 역토가 내장원으로 이속된 것이 1900년이기 때문이다. 역토의 처분과 관련하여 역토 중에서 상등지를 위토(位土)로 이속시켰다. 1902년 장예원(掌禮院)은 능에서 침범한 각 능의 위토를 대토(代土)할 것을 요청하였다.

역토가 잠식되는 것은 능의 위토로 대토되는 경우만은 아니다. 새로운 신작로의 건설로 위토가 잠식되었을 때에도 역토 중에서 대토하게 되므로 역토는 점차 감소되었다. 이렇게 역토가 감소되어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위토로 획급(劃給)되는 토지는 대개 상답(上畓)이나 중답(中畓)이기 때문에 역토에는 하답(下畓)만 남게 되었다. 그러므로 지품(地品)에 따라 도조액을 책정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뒤따랐다. 양주 녹양역 작인들이 홍릉(洪陵)으로 대토한 후 홍년을 당하여 도조의 탕감을 요청하였고, 금촌면의 역토 작인이 각 능으로 상·중답이 이속된 후에도 도조를 상·중·하로 나누어 내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것은 위토이속(位土移屬)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실증하는 내용이다.

이속 후에 정리가 잘못되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퇴계원 서순집의 쌍수역토 중 1식경전은 홍릉위토로 편입된 후에도 세를 받아 일토양세(一土兩稅)라는 원성이 발생하였다.

또한 1905년 관찰부는 회묘(懷墓)·성묘(成墓)·연산묘(燕山墓)·광해묘

(光海墓)를 1904년 새로이 적성군 상수역답 8석 7두 6승락을 위토로 부여했는데 이것을 다시 정리원으로 환부하고, 대신 평구역전 112일 반식경과 구곡역전 39일 2식반경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작년분의 상수역답 도조 36석 8두 9승을 정리원에서 사묘(四墓)로 지급하지 않아 묘군의 원성이 발생하였다.

이상과 같이 역토는 능의 위토로 대토되고, 신작로의 건설에 따라 위토가 잠식되었을 때의 대토로 충당되어 면적이 줄어들었다. 또한 남은 역토로 지품에 다른 도조 문제, 흉년에 따른 도조의 탕감 문제, 위토의 이소과 정리과정에서 여러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다.

(2) 역둔토의 분쟁

역둔토에 대한 분쟁은 소유권 문제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소유권 문제 이외에도 납세자의 변화나 사검과정의 착오 등 관해의 변화에 따른 갈등, 소작인의 이동, 소작료의 인상 등도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 양주지역(현 동두천시 포함)의 대표적인 역둔토 분쟁 사례로는 의정부둔·갑사둔과 녹양역 분쟁이 있었다. 의정부둔과 갑사둔의 분쟁은 제2종 유토(有土)의 소유권 분쟁이며, 세부담의 직인 전가에 대한 분쟁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역둔토의 분쟁을 내용별로 사례를 검토하면서 분쟁의 추이를 살펴보자.

① 소유권 분쟁

의정부둔토의 분쟁의 내용은 민토(民土)였던 것이 궁에 이속되어 제2종 유토로 되었다가 내장원에 사집(査執)되어 사적 소유권을 부정당할 위기 속에서 분쟁이 발생한 것이다.

본래 민토였던 것이 1898년에 선희궁(宣禧宮)에 속하여 매 결당 4석980두의 도조를 냈다. 그런데 이 땅은 다시 1901년에는 내장원으로 이속되어 수세책을 작성할 때 토지 등급을 상·중·하로 나누고 두락당 상답은 6두, 중답은 4두, 하답은 2두씩 징세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1결을 대략 40두락으로 환산할 경우 선희궁에 속할 때 결당 4석(80두, 1두락당 2두)의 도조액에 비하여 상답으로 보아도 3배에 해당하는 6두를 징세하여 세액이 엄청나게 증가한 것이다. 이에 농민들은 인근 갑사둔의 예에 따라 2두씩 징세하여 1898년과 같이 결당 4석(1두락당 2두)으로 도조액을 환원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내장원은 사검의

진의가 지품의 고하에 따라 도조를 책정한 것으로 당연한 것이며, 도조제 하에서 작인납세는 관행이라며 농민들의 주장을 거부하고, 군에서는 오히려 사음(舍音) 김희군·서막동을 잡아 가두었다. 때문에 농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고, 몇 달 후에도 같은 내용으로 농민들의 요구는 계속되었다.

1903년에도 농민들의 분쟁은 계속되었다. 이때에는 내장원이 두락 당 4두의 수준으로 대전납(代錢納)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농민들은 인근한 갑사둔의 예에 따라 징수할 것을 요구하고, 내장원은 갑사둔의 박토(薄土)이고 의정부둔은 후토(厚土)이기 때문에 같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둔민(屯民)들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둔민들은 내장원의 주장에 승복할 수 없다고 계속 항의하였다. 궁색한 내장원은 같은 지역에서도 토품(土品)의 척옥(瘠沃)은 있을 수 있다고 고집하면서 둔민들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1904년까지 농민들과 내장원의 싸움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결국 내장원은 농민의 힘과 명분에 밀려 농민(둔민)들의 주장을 수용하고, 두락 당 오전 10량(2두 수준)으로 환원하고, 봉세관에게 과거의 방식으로 징세하도록 명 하였다. 내장원은 민정(民情)을 고려하여 특별히 처분한 것이니 납세를 충실히 하라고 농민들에게 훈기 시키면서 농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였다. 4년여에 걸친 농민과 내장원의 대립은 결국 농민들의 요구가 관철됨으로 끝났다. 그 까닭은 이 땅은 원래 민토임이 분명하고 농민들의 적극적인 항조운동이 효과를 얻었기 때문이다.

갑사둔 분쟁의 기원은 이 지역이 충용청의 둔안(屯預)이 내려와 사검하고 도조를 징수하려고 한 것이다. 그때 둔민 수백 명이 집단 호소하면서 항의하여 수도(收堵)가 불가능하였다. 그후 1899년에 내장원은 다시 이 토지에 대한 사검을 요구하나, 군수는 전례(1897년의 예)를 제시하면서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결국 도조가 설정되었고, 농민들은 이때 항조운동(抗租運動)으로 맞섰다. 때문에 1900년도에 도전(賭錢)으로 부과할 총액은 총 1,387량 1전이었으나, 수납액은 619량 6전으로 전체 세액의 45%에 불과하였다.

이상의 항조운동 이외에도 많은 소유권 항쟁이 발생하였다. 양주 진궁면 쌍수에 거주하는 이석현 등은 경작 중인 쌍수역토 1일 반경이 을미사판 때에 일경(日耕)과 결수(結數)가 과중하여 탁지부에 조정을 요청하고 그 결과 감급 받아 도조 20두와 결부 24부 5속을 출세하도록 한 문서까지 받았는데, 지금 70두를 납부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원을 제출했다. 그러나 내장원은 조사한

실수대로 납부하라고 하면서 청원을 거부하였다. 이것은 을미사판 때 환급된 토지가 광무사검 시 사집된 경우이다.

또한 사패지(賜牌地)가 속공(屬公)된 사례에 관한 청원도 있었다. 둔야면에 거주하는 류정근은 그의 8대조 전창군(全昌君)이 선조의 사위가 되어 사패지로 받은 토지가 의정부둔과 접해있었다. 그 땅의 면적은 답 1두락, 전 반월경(半月耕)이고 그 외에 울원(栗園)이 있었다. 류정근은 대대로 이를 경작하여 조상의 제향을 받들어 모시고 있었다. 그런데 군에서는 이 토지에 대하여 결부 5부와 도조를 요구한 것이다. 이 토지는 내장원부에는 기록이 없고, 1898년 분의 선희궁토에도 입총(入摠)되지 않은 토지인 까닭에 사집은 불가한 것이라고 항변하면서 문제를 제기하였다.

② 가도(加賭)와 결세(結稅) 부담 전가를 둘러싼 분쟁

도조액을 증가시키는 가도나 결세를 소작인인 농민에게 부담시키는 문제로 작인(作人)인 농민과 내장원 사이에는 대립·분쟁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경우 농민의 부담은 점차 증대되어 갔다. 이때 작인인 농민들은 일토양세(一土兩稅)라는 명분을 제시하면서 반대하고, 내장원은 험한 도조를 설정에 맞도록 현실화시킨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농민과 내장원 양자 사이에는 서로 대립하게 되었다.

가도에 대한 분쟁으로 녹양역토의 작인들이 집단적으로 청원하여 발생한 분쟁이 있다. 이것은 사음권(舍音權)을 둘러싼 분쟁과 얽혀 있었기 때문에 사정 이 더욱 복잡해졌다. 1900년에 각 역이 내장원 편입되면서 일반적으로 도조는 가도되었다. 녹양 역토의 작인들도 가도에 불만을 품고 민원을 일으킨 것이다. 여기에 사음 문제가 얽혀 사건은 더욱 복잡해졌다. 원래 이곳의 사음은 이명선(李明善)이었다. 그러나 1899년도분 수조에 문제가 발생하자 농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한승삼(韓承三)으로 교체되고 탁지부의 허가를 받았다. 역토가 내장원으로 이속되면서 윤봉학(尹奉學)이 사음으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전 사음 이명선은 내장원에 가도를 약속하고 다시 사음으로 차임되었다. 그러나 결국 1900년도분의 수조는 한승삼이 담당하여 처리하였다.

이러한 복잡한 정황 속에서 군은 1900년도 도조액이 증가 즉 가도된 것은 사음 이명선의 허황된 약속에 근거한 것으로 수궁할 수 없었다. 따라서 녹양역

도조는 80여 석을 상납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농민들은 전 1경(田一耕)에 2두, 답 1두락(耨一斗落)에 1두 6승을 한승삼이 자신의 경주인(京主人)의 여비로 거두는 것이니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이때 내장원은 이전의 도조가 지나치게 험하여 새로이 책정하게 된 것이니, 봉세관의 명에 따라 납부할 것이며, 계속 불복하여 끝까지 도조를 불복하면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취하였다. 이러한 내장원의 강경책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을 계속 출세(出稅)를 거부하였다. 이렇게 농민과 내장원 사이에 가도 문제로 대립이 계속되며 타협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자, 내장원은 동소임(洞署任)에게 수세 책임을 맡겨 동에서 공공부담 하도록 조치하였다.

결세(結稅)의 작인 전가를 둘러싼 분쟁으로는 평구역(平邱驛) 사음 고성일(高聖一)이 결세를 작인이 부담하는 새로운 관행을 관철시키려다가 오히려 군에 체포되었다. 이 역의 수조 관행이 결세는 지주 측에서 내는 것으로 타작제(打作制)였다. 그런데 1901년 마름으로 온 고성일이 그해에 흉년이 들어 추수가 부실함을 보고하였으나, 내장원의 지시에 따라 도조를 정식으로 삼았다. 본래 도조는 흉·풍년에 관계없이 매년 일정액의 세를 납부하는 것이고, 그 액수는 평년 수확량의 1/3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타조법(打租法)은 생산량의 약 절반을 납부하는 것이다. 작인의 입장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타조법보다는 도조법이 유리하다. 그러나 도조법은 흉년일 때에도 일정액의 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작인들에게는 위험 부담이 따른다. 1901년 고성일이 마름이 되어 작인들에게 결세를 도조로 정식을 삼으려고 함으로 농민들을 흉년 속에서 엄청난 부담을 담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농민들에게는 백지징세(白地徵稅)의 폐단인 셈이고, 군도 농민에게 호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장원은 이미 도조로 징수 방법이 정해졌으며 도조액은 내장원이 사정하여 이루어진 것이니, 결세를 작인들이 납부하는 것으로 이것은 사리에 당연히 맞는 것이라고 강변하면서, 이전에 6~7년간 타작(打作)을 했다는 것은 사음의 농간이니 논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 농민들의 요구를 일축하고, 도조의 납부를 독촉하였다.

③ 기타 분쟁

이 경우에는 내장원의 오기(誤記)에 의하여 발생하는 분쟁 소작권의 이동을 둘러싼 분쟁, 일진회원(一進會員)에 의한 이작(移作) 때문에 발생하는 분쟁, 국가와 작인이라는 공적 관계로부터 내장원이라는 사적지주의 성격이 강한 관리기구가 등장한 후 전통적인 농민 보호 장치가 사라지면서 나타난 분쟁이 있다.

내장원의 오기에 의한 분쟁은 한 번 세액(稅額)의 실수가 정해지면 내장원의 잘못이 분명하여도 쉽게 정정할 수 없는 데서 발생하는 분쟁이다. 실례로 평구역토 중에 박유복(朴有卜)의 전 4식경이 4일경으로 오기되어 도조는 6두이어야 할 것이 18두로 변하였다. 또한 의정부둔의 작인 이용성(李用成)의 경우에는 답 8두락 위에 형 용근(用根)의 이름으로 6두락이 덧붙여졌다. 그러나 내장원은 “본군의 각 역둔토는 이미 실사하여 정해진 것이다. 백성들이 호소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본원의 사정안(査定案)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하라”고 지시 하면서 내장원의 오기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한 집에 두 형제가 함께 살고 있는데 사감원이 집에 와서 형에게 들은 내용과 들에서 일하는 동생에게 물은 내용을 이중으로 기입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1904년도까지도 처리가 되지 않아 작인과 내장원 사이의 분쟁으로 호소되기도 하였다. 소작권의 이동을 둘러싼 분쟁은 내장원과의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장원과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일단락되는 1900년대 중반에 나타난 청원의 내용이다.

녹양역(綠楊驛)의 가도를 둘러싼 분쟁은 이미 동소임(同所任)의 책임 하에 공동 납부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동소임의 자의적인 이작을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났다. 소임을 자처하는 김한욱(金漢旭)이 사음역(舍音役)의 대가로 이복성(李福成)에게 일정한 토지를 경작시키려고, 이선용(李先用)의 전(田) 반일경(半日耕)과 답(畓) 3두락(斗落), 장상복(張尙卜)의 답(畓) 6두락(六斗落)을 이작(移作)시켜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 경우 구경작인(舊耕作人)에게 계속 경작하도록 처리하였다.

또 다른 사례로는 이담면에 거주하는 조만서(趙萬瑞)가 경작하는 양향둔토 전

1경(田一耕)에서 몇 년 동안 이작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었다. 조만서는 1902년 파원(派員)으로 탈경(脫耕)될 뻔하였으나 청원으로 구제되었다. 그 후 이 토지를 둘러싸고 1905년 마장윤(馬長允)과 소작권 싸움이 시작되어 추수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또 1906년에는 일진회장(一進會長)이 이 토지를 녹탈하여 타인에게 이작시키려고 하자 다시 청원하여 소작권을 회복하게 되었다.

일진회원에 의한 이작으로 발생하는 분쟁도 많았다. 류원상(柳遠商)은 망우리면 내리에 거주하면서 충후부둔 답 2두락과 전 1식경을 경작하였다. 그런데 일진회원 서도순(徐道淳)이 이 토지의 일부를 떼어갔다. 이 때문에 1906년 봄부터 1907년 봄까지 분쟁이 계속되었다. 류원상의 주장은 자신이 소작인으로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자신의 경작 토지 중 일부를 서도순이 떼어갔다는 것이고, 서도순은 자신이 일진회원으로 권력을 남용한 것은 전혀 아니다. 단지 류원상이 경작에 나태함으로 분작(分作)하도록 합의한 것이라고 구실을 댔다. 그러나 사실은 서도순이 일진회를 배경으로 소작을 떼내 자신의 경작권을 확보하려고 한 데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끝으로 내장원으로 둔토가 이속되면서 내장원이 실질적으로 사적 지주의 성격으로 등장하면서 농민 보호장치가 사라진 후 나타나는 분쟁도 많았다. 이는 둔토가 국가 소유일 때는 재해(災害)를 만나 농민이 곤궁해지면 국가는 급재(給災)형식의 조세 감면책을 펴 농민을 보호하였다. 그러나 둔토가 내장원 소속으로 이속되고, 도조제가 실시되면서 과거 전통적인 급재 형식의 감면조치는 사라지게 되었다. 1901년 흉년을 맞았을 때 녹양역토의 작인들이 도조 탕감을 요청하였으나, 내장원은 “세금을 책정하는 규칙은 흉·풍년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다. 도조제 하에서 도조는 매년 정해진 액수를 낼 의무 사항”이라고 원칙을 강조하며 농민들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또한 양향둔토의 작인 현갑봉(玄甲奉)의 토지나 망월사의 토지는 홍수로 일부 혹은 전부가 유실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의 탕감은 쉽지 않았다. 이같이 홍수로 인하여 성천(成川)된 토지에 대한 도조 탕감도 불가능하게 되자 작인들은 내장원에 불만을 표출하며 분쟁이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4) 양주군 명례궁장토(明禮宮庄土)의 지주경영

농업경영 방식을 고찰하는 것은 황실의 역사적 성격을 인식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 까닭은 당시 개혁의 주체라 생각되는 황실이 역둔토의 관리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양주지역(현 동두천시 포함)의 역둔토 지주경영의 일단을 살펴보기 위하여서는 이 지역 방화동(訪花洞)에 소재한 명례궁장토(明禮宮庄土)를 대상으로 하려고 한다. 물론 역토나 둔토에서 분석 대상을 찾아야 하나 현존하는 자료가 지주경영을 분석하는데 충분하지 못하고, 대신 방화동 명례궁장토에는 추수기(秋收記)가 15년에 걸쳐 남아 있어 그 자료를 분석하여 정리하면 지주경영의 일단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양주지역에 존재하는 명례궁 장토는 1900년을 기준으로 할 때 전국 91개 중 4개가 이곳에 있다. 명례궁은 왕비의 내탕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것이다. 명례궁에서는 내별치(內別置)와 원고(原庫)는 장흥면(長興面)과 증산리(甞山里)에 있는 궁장토에 관한 추수기는 거의 매년 분이 남아 있다.

『명례궁원결급전답수세정간책(明禮宮元結及田畝收稅井間冊)』에 의하면 1897년부터 1905년까지 양 지역은 모두 급재(給災)를 받았다. 또한 장흥면의 궁장토는 전 40량을 납부하는 곳으로, 도장(導掌)은 하지사택(河知事宅)이며, 증산리 궁장토는 33~34량을 납부하는 곳으로 마름 추천만(秋千萬)이 관리하였다.

방화동의 추수 시기는 1892년부터 1907년까지 16년간 기록이 남아 있다. 그러나 단지 3년간(1898, 1902, 1903)의 추수기 자료는 찾을 수 없다. 그래도 이 지역의 연구에 큰 단점이 될 수는 없다. 참고로 이 지역의 추수기에 대한 목록을 소개하면 <표 2-8-13>과 같다. 소속필지는 타조와 도조로 구분하고, 두락수(斗落數)와 일경수(日耕數), 수조석수(收組石數), 작인성명(作人姓名)을 기록하는 형식이다.

그리고 끝에는 수조 석수의 합계와 그 중에서 지출된 내역 및 그것을 공제한 후의 실제 상납액을 기록하였다. 1906년 이후의 것에는 다른 것들과는 달리 자번호(字番號)가 추가 기입되었다. 이상 명례궁추수기의 내용을 볼 때 세금

징수방법은 타조법과 도조법이 혼용된 것 같다. 이는 조선 후기 징세 방법의 일반적인 형태이다. 그러나 도조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작인이 토지 개척에 큰 공이 있던가, 아니면 제방의 수축 등으로 일정한 기여분이 있을 때 발생하는 세법인데 추수기의 기록만으로 볼 때 그 사유를 파악할 수는 없다.

〈표 2-8-13〉 명례궁추수기 목록

연도	추수기명칭	전적
1892	명례궁추수기(明禮宮秋收記)	奎21979
1893	명례궁추수책(明禮宮秋收冊)	
1894	명례궁추수책(明禮宮秋收冊)	
1895	명례궁추수책(明禮宮秋收冊)	
1896	명례궁추수기(明禮宮秋收記)	
1897	명례궁추수책(明禮宮秋收冊)	
1899	명례궁추수기(明禮宮秋收記)	
1900	명례궁양주송산방화동추수기 (明禮宮楊洲松山訪化洞秋收記)	
1901	명례동추수기(明禮洞秋收記)	
1904	명례궁양주송산방화동추수기 (明禮宮楊洲松山訪化洞秋收記)	
1905	명례궁추수기(明禮宮秋收記)	
1906	명례궁양주송산방화동추수기 (明禮宮楊洲松山訪化洞秋收記)	
1907	용동명례어의궁추수기 (龍洞明禮於義宮秋收記)	

성명의 기록방식은 성명 3자만을 적어 놓았다. 때문에 그것이 실제 성명인지 또는 호명(戶名)인지 구분하기는 어렵고, 그 신분도 파악할 수 없다. 16년간의 추수기에는 총 38명의 작인이 등장하는데 논의 작인으로는 25명, 밭의 작인으로는 36명이다. 이들 중 논만 경작하는 작인은 단지 2명(조우경, 진순일) 뿐으로 대부분의 작인들은 논과 밭을 함께 경작하였다.

이러한 성명 기재 방식은 다른 곳에 있는 명례궁장토의 추수기와는 차이가 있음을 볼 때 명례궁은 토지관리는 체계적이지 못하였으며, 단지 추수기를 작성하고 정해진 액수를 수취하여 중앙에 상납하는 단지 지대 수취자의 역할만 담당하였던 것 같다. 이는 을미사판이나 광무사검은 장토(庄土)의 농업경영 방식에

큰 변화가 없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국유지를 확보한 후 국유지분필조사(國有地分筆調査)를 마치고, 각 필지별로 소작인을 파악하여 그들을 직접 통제하려던 경영방식을 취하였다. 명례궁의 토지경영방식은 조선총독부의 방식과는 엄밀한 차이가 있다. 1906년 이후 이 지역 추수기에 필지별 자번호를 기록하고, 사슴의 성명을 기록하여 필지별 소작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수세의 책임을 분명한 것은 그 이전의 그곳 추수기와는 달리 진일보한 것으로 의미를 갖는다. 이는 농업경영적 측면에서도 큰 변화를 보이는 것이다. 장토에서의 수입지출 구조를 보면 <표 2-8-14>과 같다.

<표 2-8-14> 양주 방화동 명례궁장토의 수입과 지출구조

연도	수 입			지 출					실입고
			계					계	
1892	29-15	14-11	44-11	3-6	1-0		4-0	8-6	36-5
1893	32-19	14-16	47-15	3-6	1-0		4-0	8-6	39-9
1894	33-18	14-16	48-14	3-6	1-0		4-0	8-6	40-8
1895	20-12	14-14	35-6	3-6	1-0		3-0	7-6	28-6
1896	29-5	14-11	43-16	3-6	1-0		4-0	8-6	35-10
1897	16-0	14-7	30-7	3-6	1-0		3-0	7-6	23-1
1899	22-8	11-1	33-9	1-10-5		3-0	3-0	5-10-5	27-18-5
1900	19-4	11-1	30-5	1-10-5		1-0	3-0	5-10-5	24-14-5
1901	6-7 1-14	6-4 2-1	12-11 3-15 ¹⁾	1-10-5		1-0	1-0	3-10-5	12-15-5
1904	16-18	11-1	27-19	1-10-5		1-0	2-0	4-10-5	23-8-5
1905	17-4	11-1	28-5	1-10-5		1-0	2-0	4-10-5	23-14-5
1906	23-5	11-1	34-6	1-10-5		1-10	2-0	5-10-5	29-5-5
1907	21-1	11-1	32-2	1-10-5	1-0	1-5		3-15-5	28-6-5
계	290-10	162-11	453-1	30-9-5	7-0	7-15	35-0	80-4-5	372-16-5
평균	22-7	12-10	34-17					6-3	2-14

비고: 1) 1901년 흉년으로 이 액수만큼은 메일로 대납을 허용하였다.

2) 지출이 항목별 평균을 구하지 않은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 장토(庄土)는 답 3석 6두락과 전 10일 반경(田十日半耕)의 소규모 토지이다. <표 2-8-14>을 통하여 방화동 명례궁장토의 수입·지출 규모를 살펴려고 한다.

〈표 2-8-15〉 양주 방화동 명례궁정토의 작인별 논경작 누락수

(단위: 石, 斗, 升)

작인	1892	1893	1894	1895	1896	1897	1899	1900	1901	1904	1905	1906	1907
	5												
	8												
	3	7											
	6	6	6										
	5	5	5	5									
	7	7	7	7	5								
	5	5	5	5	5	5							
	6	5	5	5	5	6							
	3	3	3	3	4	3	3	3	7				
	13	13	13	13	13	18	10	10	10	10			
	5	5	5	5	5	5	7	7	7	7	7	12	7
		5	5										
		4	4	4	4	4	4						
		1	1	7	5	5	7	7	7				
			7	12	14	14	10	13	13	20	17	22	26
					6	6	7	7	7			4	4
							3						
								4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3	3	3	3
										4	4		
											6	6	
											11	9	13
											3		3
작인수	11	12	12	10	10	9	11	10	9	9	10	8	8

수입면에서 전의 도조를 보면 내장원의 관리 이전(1899년 이전)에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나, 내장원 관리 이후부터 3석 이상 감소하였고, 답의 경우는 타작제로 운영되어 매년 그 해의 흉풍에 따라 변화가 심하지만 대체적으로 볼 때 감소하고 있다. 특히 1901년의 경우는 흉작으로 전년도 수입의 1/3 이하로 감소하였다. 이처럼 타조액은 흉풍에 따라 일정할 수 없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전체 지대수입이 불안정하였다. 이렇게 지대가 점차 감소되는 현상은 역둔토의 관리에도 문제가 있으나, 농업생산력의 쇠퇴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작인이나 명례궁측 모두에게 생산적 투자는 기대할 수 없고, 자연 조건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농업생산 여건속에서 생산력의 하락은 분명한 사실이다.

지출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종자구입대금과 간추조(看秋條)이다. 공장토의 관리가 탁지부로부터 왕실의 사적 기구인 내장원을 이관되는 1899년부터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

우선 타작제의 결세를 내장원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결세가 새로운 지출 항목으로 등장하였다. 다음으로는 사음료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사음료는 그 해의 총수입에 따라 진폭이 있는 것이나, 전체적으로 크게 감소하는 것은 내장원이 수입을 극대화하려는 방침에 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수입이 감소된 사음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농민에 대한 수탈을 강화시킬 수 있다. 끝으로 종자대금이 절반 이하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타작에서 종자 지급을 지주가 작인과 함께 공동부담 하도록 되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수입에서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1890년대 초 20% 내외의 수준에서 1900년대 후반에는 1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지출면에서 종자대금을 제외한 다른 것들은 모두 비생산적인 것으로 장토의 운영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때 내장원은 농업생산력 증대에는 별로 관심을 쓰지 않고 단지 공장토에서의 수입증대만을 추구한 결과 생산적 지출은 점차 감소하였다. 따라서 전체 수입 중에서 생산적 지출은 그 비중이 낮았다.

공장토의 작인별 경영구조의 변화를 살펴보자. 내장원이 공장토를 관리하기 이전에 밭의 일경수(日耕數)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 경영규모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 수밖에 없다. <표 2-8-15>을 통하여 살펴볼 때, 공장토의 매년 소작인은 8~12명으로 약간의 변화가 있다. 16년간(1892~1907까지; 단지 1898, 1902, 1903년도 분 누락)의 작인과 그 경작규모를 살펴보면 계속하여 작인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원성필(元聖弼) 한 명 뿐이다.

그 외에 김봉석(金鳳錫)은 1892년부터 1904년까지 작인이었고, 김명석(金明石)은 1905년부터 작인으로 등장한다. 이들의 관계는 명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경작규모가 비슷한 점(10두락과 11두락)으로 보아 상속에 의한 이작 현상(移作現象)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또한 이성보(李聖甫)의 경우는 1894년부터 계속하여 작인으로 나타난다. 이들 3명(원성필, 이성보, 이성보)은 모두 안정적인 농업경영자로 분류할 수 있다. 지대를 내지 못할 경우 소작인은 가차없이 이작시키는 것이 당시의 관행이었으므로, 계속 소작인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은 농업경영이 그만큼 안정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이다.

위에서 열거한 3명 이외의 농민들은 몇 년간 소작경영에 참여하였다가 곧 물러나는 불안정한 현상을 보였다. 총 25명 중(실제로는 26명이나 김봉석·김명석은 상속으로 간주하여 1명을 계산) 3명을 제외한 22명이 소작이었으나, 도중에 탈락하였다. 물론 이 같은 소작에서 탈락한 작인들이 다른 곳에서 더욱 많은 소작지를 얻어 이작하였거나, 자작지를 소유한 경우 소작지의 상실이 그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잦은 소작인의 변동은 당시 농업경영의 불안정성을 보여 주는 현상이라 하겠다.

소작인들이 보유한 토지 면적은 1~26두락으로 큰 차이가 있다. 16년간 소작인들이 경작한 두락수를 표로 작성하면 <표 2-8-16>와 같다.

<표 2-8-16> 방화동 명례궁장토의 답의 경작면적별 소작인수

경 작 면 적	소작인수	경 작 면 적	소작인수	경 작 면 적	소작인수
1두락 경작자	2인	8두락 경작자	1인	14두락 경작자	2인
3두락 경작자	15인	9두락 경작자	1인	17두락 경작자	1인
4두락 경작자	12인	10두락 경작자	5인	19두락 경작자	1인
5두락 경작자	44인	11두락 경작자	1인	20두락 경작자	1인
6두락 경작자	9인	12두락 경작자	1인	22두락 경작자	1인
7두락 경작자	2인	13두락 경작자	8인	26두락 경작자	1인

방화동 명례궁장토(訪花洞明禮宮庄土)의 답 총 두락수 66두락이며, 경작인수는 매년 변화하여 8~12명이다. 따라서 평균 경작 면적은 5.5두락으로 소규모의 경작지를 갖고 있었다.

〈표 2-8-16〉에 나타난 현상을 보더라도 5두락 경작자가 44인이며, 26두락 경작자는 단지 1명뿐이다. 이렇게 소규모의 경작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안정적 농업경영자 3인의 경작 면적은 1907년의 경우 46두락으로서 평균 경작 면적은 15두락으로 전체 평균경작지의 2배 내외가 된다. 더구나 이정보(李聖甫)의 경우는 매년 경작지를 늘려 1907년에는 26두락을 경작한다.

명례궁의 입장에서는 성실한 농민을 작인으로 선택해야 지대수입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 3인들은 많은 경작지를 할당받아 안정적 농업경영에 정착할 수 있었다.

제8절 대한제국기의 동두천

1. 시대의 개요

일제는 미국에 의한 강제 개항 이후 적극적인 자세로 근대 서구 문명을 수용하면서 국체(國體)의 변용과 산업 기술의 도입 및 교육, 군사, 사회 전반에 걸치는 개혁을 통하여 급속히 국력을 신장시켜 나갔다. 그리고 근대화에 성공하자마자 식민지 확보를 위한 대외 팽창 정책을 국책으로 추진하게 된다.

그들이 최초로 확보한 해외 영토는 류우큐우(琉球)였다. 임진왜란에 실패하여 도요토미 정권이 붕괴한 직후인 1609년 큐우슈우(九州)의 영주 시마즈 이에히사(島津家久)는 당시 독립국이었던 류우큐우(琉球)를 정벌하여 도쿠가와 막부로부터 영지화하는 승인을 받아낸다. 이로써 오랜 역사를 이어 온 류우큐우(琉球)왕국은 소멸되고 일본령 오키나와가 성립하는 것이다. 이 류우큐우 정복 경험은 이후 일본의 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자신의 해외 영토로 만드는 작업에 대단히 중요한 경험치를 제공하게 된다.

류우큐우에 이어 일본은 홋카이도(北海道)를 영토화하는 작업에 나선다. 본래 홋카이도는 일본의 원주민인 에조(蝦夷) 즉 아이누족이었다. 혈통상 코카서스 인종의 특징을 일부 보유한 이들 아이누족의 일본 본토, 홋카이도 정착 과정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곰 토tems을 중심으로 한 원시신앙과 채집경제를 영위하며, 큐우슈우, 칸사이 등을 근거로 북상해 온 일본인들과는 민족적, 문화적, 역사적으로 현격한 차이를 가진 별개의 민족이다. 왜(倭), 즉 아마토(大和)인들은 이들을 본토에서 구축하고 계속 추적하여 마침내 홋카이도 경영에까지 나서게 되는 것은 동진(東進)해 온 러시아가 이들과 제휴하여 홋카이도에 상륙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부터이다. 그리고 마침내

1) 일본은 러일전쟁에서 승리하고 마침내 사할린의 절반과 쿠릴열도 등의 영유권을 획득하게 된다. 1905년의 일이다

2) 일본이 청과 싸워 이긴 결과 대만을 영토로 획득하게 되고 이를 식민지로 경영한 일본은 여기에서 얻은 경험을 이후 식민지 한국 경영에 적극 활용하게 된다.

홋카이도 전체를 제국 경영 판도에 넣게 되고 이를 발판으로 사할린, 쿠릴열도 등으로의 진출을 획책¹⁾하게 된다.

이처럼 대외 팽창 정책을 추진하던 일본은 이후 해외진출의 주요목표를 조선으로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구체적으로 추진하였다. 명치유신의 결과 대정봉환(大政奉還)이 이루어져, 그동안 도쿠가와 바쿠후(德川幕府)가 세습해 온 일본의 통치권을 천황에게 반납하게 되고, 이에 따라 각지의 영주(領主)들도 통치권을 국가에 반납하는 폐번치현(廢藩置縣)이 이루어지자 영주에게 속했던 무사계급의 반발로 반란이 속출하게 되는데 이를 무마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논의된 <정한론(征韓論)>은 일본의 조선 진출을 공식화하는 첫 번째의 담론이었다.

조선의 강경파 쇠국론자였던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이 실각하면서 새로이 개화정부가 들어선 것을 계기로 조선을 압박하던 일본은 운요호호(雲揚號) 사건을 계기로 불평등조약인 강화도조약을 강요하여 조선을 개국하는데 성공하였다. 항구의 개항과 함께 상인 등 거류민들이 급격히 조선에 진출하자 청(淸)도 역시 기존의 종주권(宗主權)을 내세워 조선에 진출해 오고 양국은 각각 조선의 개화파와 보수파를 앞세워 치열한 각축을 벌인 끝에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진압과정에서 결국 전쟁에 돌입하게 되고 시모노세키(下關) 조약에 따라 청은 조선에서의 일본의 우월권을 승인하고 물러나게 된다.²⁾ 그러나 청일전쟁의 결과에 불만을 품은 러시아가 영국과 프랑스를 끌어들여 간섭하여 일본의 양보를 얻어내자, 조선에서는 명성황후를 중심으로 한 친러파가 대두하고 난국을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일본 침략주의자들에 의하여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사태가 발생한다. 고종은 이에 신변의 불안을 느껴 러시아공사관으로 피신(아관파천(俄館播遷))하였다가, 민중과 열강의 권유로 환궁하면서 대내외에 독립을 천명하는 이른바 대한제국(大韓帝國)의 성립을 선포하고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1897년 8월 12일의 일이었다. 이 대한 제국은 1910년 8월 29일 일본에 국권을 강탈당할 때까지 13년간 존속하면서 2명의 황제가 통치하였고 갑오개혁과 후속조치, 광무양전(光武量田)을 통한 토지 조사사업, 근대교육과 군비 확장, 행정제도의 정비 등 나름대로 근대화와 국력 강화에 노력하였으나 외세의 침탈을 극복할 시간과 기회를 상실한 채 결국 우리나라 역사상 최후의 봉건, 왕정국기에 머물고 말았다.

2. 광무개혁

청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은 조선에 대해 본격적으로 간섭하여 결국 1894년 갑오경장(甲午更張)이라는 근대적 개혁을 진행한다. 대한제국은 이 개혁을 심화(深化)하고 지속하는 선에서 1897년부터 1904년까지 일련의 개혁 작업을 진행하는바 이를 '광무개혁'이라고 부른다.

외세 의존적인데다가, 외국 제도의 모방에 급급하였던 갑오·을미개혁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여 자주독립과 근대화를 지향한 이 개혁은 먼저 군제(軍制)에 대한 전면적이고 근대적인 개편을 하였는데, 서울의 방어와 국왕의 호위를 담당하는 친위대(親衛隊)·시위대(侍衛隊)·호위대(扈衛隊)의 개편과 창설은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

즉, 1895년(고종 32) 칙령(勅令) 170호로 훈련대를 폐지하고 육군편제강령(陸軍編制綱領)을 발표하여 중앙의 육군을 친위대로, 지방군을 진위대(鎭衛隊)로 편성하게 하였다.

각국의 대원수례(大元帥例)에 의하여 황제가 육·해군을 친히 통솔하고, 국방·용병(用兵)·군사에 관한 각종 명령권과 군부 및 중앙과 지방의 군대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가진 원수부(元帥府)가 창설되었다. 또한 헌병·포병·공병·치중병(輜重兵:군대의 화물을 담당하는 병사)·군악대에 대한 새로운 관제가 마련되었으며, 육군법률(陸軍法律)·육군법원(陸軍法院)·육군감옥(陸軍監獄) 등이 창설되었다. 지방군제 역시 전국의 지방군을 진위대(鎭衛隊)로 통합 개편하는 한편, 무관학교 관제(武官學校官制)를 새로이 반포하여 1898년 무관학교가 개교되었다.

최초의 헌법인 대한국제(大韓國制)가 1899년 8월 17일 반포되었고, 훈장 제도(勳章制度)가 창설되었으며, 국가(國歌) 및 각종 기(旗) 등이 제정·발표되었다. 정치부분에서는 내각을 의정부로 환원하고, 지방 행정구역을 갑오 이전 상태로 복귀시켰으나 다시 설치된 의정부는 내각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지방제도도 갑오개혁으로 개편된 23부제를 절충한 1부 13도제로 바뀌어 갑오개혁 이전으로의 완전한 복귀는 아니었다.

청국을 비롯한 각국과의 통상조약으로 대한제국의 국제적 지위가 향상되었

으며, 북간도관리사(北間島管理使)를 설치하여 북간도 이주민을 보호하고, 도문강(圖們江) 이남 지역을 영토로 편입시킬 것을 꾀하기도 하였다.

사회 경제적인 개혁으로서 농상공부에서 주관하던 홍삼(紅蔘)의 제조 및 광산사업과 탁지부 주관의 둔토(屯土)가 궁내부(宮內府)로 이관되었고, 내장사(內藏司)는 내장원(內藏院)으로 개편되어 왕실 재정수입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재정상의 적자를 보완하기 위하여 시작된 백동화(白銅貨)의 주조는 화폐제도가 문란하게 되는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 전결(田結)의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양지아문(量地衙門; 1898년)을 설치하여 양전사업(量田事業)을 실시하였으며, 지계제도(地契制度)를 채택하여 지계아문(地契衙門, 1901년)에서 토지문권(土地文券)을 발급하였다.

한편 개항 후 20년간 외국 자본주의 상품의 생활필수품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근대적 상공업은 진흥·육성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직접 공장을 설치하기도 하였고, 주요 회사에 투자를 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여 상공업 진흥에 힘썼다.

또한, 민간 제조장의 근대기술수용을 장려하고 기술자 장려책을 강구하는 등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교육 정책으로서 해외에 유학생을 파견하여 근대 산업기술을 습득시켰다. 그 결과 인공양잠전습소(人工養蠶傳習所)·직조권업장(織造勸業場)·한성제직회사(漢城製織會社) 등 많은 근대적 회사들이 설립되었고, 철도·운수 부문에서도 근대적인 기술과 기계가 도입되었다.

상업의 진흥책으로는 한성은행(漢城銀行)·대한천일은행(大韓天一銀行)·대한은행(大韓銀行) 등의 금융기관이 설립되었다. 교육면 역시 실업교육을 위주로 하여 체신 사무요원의 양성을 위한 우편학당(郵便學堂)·전무학당(電務學堂)이 설립되었고, 상공인 양성을 위한 상공업학교(1899년)와 의사양성을 위해서 경성의학교(京城醫學校; 1899년)가 설립되었다.

한편으로 재판소의 위치와 관할구역이 재조정되었으며, 재판소 구성법(裁判所構成法)을 개정하여 고등재판소를 평리원(平理院)으로 고치고, 황족의 범죄를 다스리기 위한 특별법원(特別法院)과 순회재판소가 설치되었다. 의료

사업으로는 광제원(廣濟院)이 설립되고 전염병 예방규칙이 반포되었으며, 진혈기관(賑恤機關)으로 혜민원(惠民院)과 총혜민사(總惠民社)가 설립되었다. 1902년에는 아관파천 이후 철회된 단발령이 다시 공포되었다.

3. 공립 양주소학교의 설립

우리나라 근대교육의 시원은 여러 학설이 있어 배론 '성요셉신학교', '원산 학사', '육영공원', '배재학당' 등 여러 학교를 거론하고 있으나,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등교육의 시작은 소학교의 설립으로부터였다. 1894년 지금의 교동초등학교 자리에 최초의 관립소학교인 한성사범학교 부속소학교가 설립되었고(1897년에 관립고등소학교가 됨), 1895년 8월 1일 '소학교령'이 시행되면서 한성에는 수하동소학교를 비롯한 8개의 관립소학교가 세워졌고, 각 도(道)에 약 50여 개의 관찰부 소학교가 설립되었다.

소학교의 취학연령은 만 8세에서 15세로 했고, 교육과정은 보통과와 고등과로 나누었다. 보통과는 수신·작문·습자·산술·체조 등을 가르쳤고, 고등과는 보통과의 교과목 이외에 한국지리·역사·외국지리·이과·도화·외국어 등을 추가했다.(여학생을 위해 재봉을 가르치기도 했음)

1906년 8월 27일에 공포된 '보통학교령'에 의해 소학교의 명칭은 보통학교로 바뀌었다.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은 과거 소학교의 2~3년에서 4년으로 길어졌고, 교과목도 일본어와 실과(수공·농업·상업) 등이 추가되었다. 학교 수는 1910년 한일합병 당시 101개교였다.

따라서 1985년 소학교 설치령에 의하여 양주에 <양주소학교>가 설립된 것³⁾을 동두천 지역의 근대교육 시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⁴⁾ 양주소학교는 당시 양주목사가 주재하던 유양리에 위치하고 있었고 유양리 이외의 양주 지역 학생들은 유양리까지 통학할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의 교통수단으로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양주소학교는 설립은 되었으나 실제 운영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양주소학교의 법통을 잇고 있는 <의정부 중앙

3) <의정부중앙초등학교>의 학교 연혁에는 개교일이 1896년 9월 20일고 종황제의 칙령 145호에 의거하였다고 되어 있다.

4) 1896년 관보에 <양주소학교> 교사 발령 기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1896년 이전에 양주소학교가 설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의정부중앙초등학교 100년사>에 의하면 학교 이전은 1910년 2월 1일로 되어 있다.

초등학교)의 초기 졸업생 명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도 확인된다.

경원선이 개통되고 양주의 행정 중심이 유양리에서 의정부로 이전되면서 <양주소학교>도 <양주공립보통학교>로 교명을 바꾸어 의정부로 이전하게 되자 비로소 동두천 지역의 아동들도 <양주학교>로 통학이 가능해진다.⁵⁾

동두천 지역의 근대 교육기관은 1923년에 설립된 <동두천공립보통학교>가 최초인데 이는 장을 바꾸어 일제강점기의 동두천 항목에서 다시 상술하게 될 것이다.

4. 경기북부 의병운동의 중심지 동두천

주지하는 바 구국 의병항쟁은 이를 크게 3기로 구분한다. 즉 1895년의 을미 의병, 1905년의 을사의병, 그리고 1907년의 정미의병이 그것이다. 먼저 이들 의병활동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1) 을미의병

조선 말 최초의 대규모 항일의병으로서, 1895년(고종 32)의 명성황후(明成皇后) 시해(弑害)와 단발령(斷髮令)이 원인이 되어 일어났다. 주로 경기·충청·강원도·중부지방에서 일어나 남으로는 경상도, 북으로는 함경도 지방까지 퍼져 나갔다. 대표적인 의병장으로는 이천(利川)과 여주(驪州)의 박준영(朴準英)·김하락(金河洛), 춘천(春川)의 이소응(李昭應), 강릉(江陵)의 민용호(閔龍鎬), 제천(堤川)의 유인석(柳麟錫)·이춘영(李春永), 홍주(洪州)의 김복한(金福漢)·이설, 문경(聞慶)의 이강년, 안동(安東)의 권세연(權世淵)·김도화(金道和), 진주(晉州)의 노응규(盧應奎), 김천(金泉)과 성주(星州)의 허위(許爲), 장성(長城)의 기우만(奇宇萬) 등이다.

그 지방의 저명한 유학자를 의병장으로 하여 구성된 의병들은 친일부역자를 응징·처단하고 진압에 나선 관군이나 일본군에 대항하였으며, 일본군의 군용시설과 주둔지를 공격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 의병의 공격목표가 서울·부산·원산 등 일본인이 많이 진출한

도시였다는 사실은 을미의병이 단순히 단발령에 반대하여 일어난 운동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친일정부는 서울의 수비부대를 출동시켜 전국에서 봉기한 의병들을 진압, 해산시키려 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한 친러파는 아관파천(俄館播遷)을 단행, 친러내각을 수립하였는데, 새 내각은 단발령의 철폐, 적체된 각종 공세(貢稅)의 탕감 등 조치를 시행하여 의병 봉기의 명분을 없애고 의병의 해산을 획유하였다. 그 결과 1896년 3월 이후 의병활동은 점차 쇠퇴하였다. 을미의병은 유교적 세계관에 바탕을 둔 척화론(斥邪衛正論)과 존왕양이론(尊王攘夷論)에 입각하여 일정한 한계성을 지녔으나, 조선 말 일본에 대항하여 싸운 최초의 본격적 항일의병운동이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2) 을사의병

1905년 을사조약 강제체결을 계기로 구국항일무력전이 일어났는데, 1906년에 그 활동이 활발하였던 까닭에 병오의병(丙午義兵)이라고도 한다. 가장 먼저 봉기한 지역은 원주·제천·단양 등 중부 일대였다. 1905년 9월 원용팔(元容八) 등이 원주에서 의병진을 편성하였으나 활동개시 전 원주진위대(原州鎭衛隊)와 일진회(一進會)의 급습으로 해체되고 말았으며, 이어 정운경(鄭雲慶)이 제천·단양 등지의 의병을 규합하였으나 역시 원주진위대에 의하여 해산당하였다. 한편 안병찬(安炳贊)·박창로(朴昌魯) 등이 중심이 된 홍주의병(洪州義兵)은 홍주성을 공략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그 뒤 민종식(閔宗植) 등이 재차 의진을 조직, 홍주성을 점령하는 전과를 올렸다.

한편 배일운동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최익현(崔益鉉)의 의병진은 활동은 적었으나 의병항쟁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영남 일대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한 을사의병으로 신돌석(申堧石)의 의병진과 정환직(鄭煥直)·용기(鏞基) 부자의 산남의진(山南義陣)이 있었으며, 이 밖에도 죽산(竹山)·안성(安城)의 박석여(朴昔汝), 여주(驪州)·양평(楊平)의 이범주(李範疇), 양구(楊口)의 최도환(崔道煥), 홍천(洪川)의 박장호(朴長浩), 예안(禮安)의 김도현(金道鉉), 경주(慶州)의 유시연(柳時淵) 등이 이끄는 의병진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을사의병은 을미의병이 해산된 뒤 은거중이던 의병장들이 전국 각지에서 의병들을 다시 규합한 것으로, 무기와 편제가 조잡하고 훈련이 부족하여 신무기와 조직적인 훈련으로 무장한 일본군을 당해내지 못했으나, 점차 확대·발전되어 정미의병(丁未義兵)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3) 정미의병

고종의 강제퇴위, 정미칠조약체결, 군대해산을 계기로 거국적인 구국 항일무력전이 일어났는데, 이를 정미의병이라고 한다. 1907~1910년 사이에 계속되었으며, 1908년 최고조에 달하였다. 정미의병은 한국군대의 강제해산이 도화선이 되어 각 지방에서 해산군인들이 봉기함으로써 촉발되었고, 전국적으로 확대·발전하였는데, 어느 정도의 조직과 무기를 갖추고 대규모적인 항전을 계속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전국의 의병을 규합, '13도창의군'을 결성하고 서울진공작전을 시도하였으나, 동대문외곽전투에서 일본군에게 패한 뒤 대규모 의병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자 소규모 유격활동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다가 1909년 일제의 '남한대토벌작전'으로 점차 그 기세가 꺾이고 국내활동이 어렵게 되면서, 만주로 근거지를 옮긴 의병과 합세, 항일독립군의 모체가 되었다. 정미의병은 참여계층의 다양화로 전면항일전의 성격을 띠었고, 무기와 편제가 정예화하여 전력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의병진이 점차 소규모화, 다원화되어 산간지대를 근거로 효과적인 유격전술을 벌일 수 있었다.

4) 동두천의 의병활동

(1) 양주경찰서와 유산리 헌병 분견대 설치

동두천 지역에서 의병활동이 활발히 전개된 것은 의병활동 제3기인 정미 의병으로 시기적으로는 1907년 이후부터 국권을 완전히 빼앗긴 1910년까지의 기간이다. 당시 일제는 우리나라의 항일 무장투쟁을 진압하기 위하여 헌병대를 설치하였는데, 그들이 운용한 헌병 경찰의 기구를 보면, 헌병사령부와 헌병사령관이 겸임하는 경무총감 밑에 각 도의 헌병대 본부와 각 도의 경무부가 있으며, 각 도의 경무부장은 각 도 헌병대본부장이 겸임하였고, 서울은

헌병사령부 직할이었다. 헌병대 본부 아래에 헌병파견대, 헌병분견대, 헌병분대 등으로 나누어지고, 각 도의 경무부 아래에는 순사파출소와 순사주재소, 그리고 수상 경찰서와 경찰서가 있었다. 서울에는 경찰서, 경찰 분서, 순사주재소, 순사파출소 등이 있었다.

헌병 경찰의 업무는 일반 치안 업무와 위생 업무, 범죄 즉결, 민사 소송 조정, 검찰 사무, 집달 사무를 집행하고 도로 관리, 삼림 보호, 식수 장려 등 행정에도 관여하였고, 일부 지방에서는 관세 사무, 어업 단속, 우편물 보호 업무도 수행하였다. 그 외에도 벽지에서는 일본어 보급, 징세 사무, 강우량 측정 등 광범위한 행정을 담당하였다.

양주 지역에서 의병활동이 활발해지자 일제는 양주에 경찰서를 설치하고 해당 관할지 곳곳에 분견대(分遣隊)를 주둔시키고 있었다. 동두천 지역은 싸리말에 양주경찰서 뉴산리(紐山里)분견대⁶⁾가 주둔하면서 지역의 항일운동을 감시 탄압하고 있었다. 자료에 의하면 유산리 분견대에는 오장(伍長)이 인솔하는 10여 명의 헌병과 상당수의 한인 헌병보조원이 탄압의 업무에 임하고 있었다.

(2) 동두천 지역 의병활동의 내용

정미의병 시기에 활발히 진행된 동두천 지역의 의병활동은 두 가지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 하나는 의병진이 동두천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경우이다. 대체로 이은찬(李殷瓚), 윤인순(尹仁淳), 연기우(延基羽), 정용대(鄭容大), 김연성(金演性) 등이 이끄는 의병부대가 이에 해당한다. 다음의 자료들을 보자.

“근래 우리가 일본군과 여러 차례의 전투를 치르면서 탄약이 부족하게 되고 또한 군자금도 소비되었는바 각 면의 면장들은 매호당 30전씩을 징수하여 20일까지 의병부대로 가져올 것 만일 이를 위반하면 군법으로 다스리겠음”

명치 42년 3월 15일

暴徒首領 金演性, 鄭容大

右兩名ノ名ヲ以テニ三日前楊州郡伊淡面, 於等山面, 泉川面, 古州内面ノ四面ニ大要左ノ如キ告示ヲ發シタリト

近來我々カ日本軍隊ト屢々交戦シ爲メニ彈藥缺乏シ且ツ又軍資金費消セリ故ニ各面長ハ每戸ヨリ金參拾錢ヲ徵收シ來ル二十日迄我義軍ニ持來ル可シ若シ違反スル

6) 싸리말을 한자로 표기하면 柵山리가 되고 이는 뉴산리로 읽는바 두 음법칙을 적용하면 유산리가 된다. 간혹 이 柵山리를 축산리로 읽는 것은 오류이다.

者アラハ軍法ニ依リ處分ス云々
以上
明治四十二年三月十五日

○ 통감부문서
문서제목 (227) 정보 (情報) 전사한 폭도수령 윤인순의 장례비 강제 징수의 건
[戰死한 暴徒首領 尹仁順의 葬禮費 强徴 件]
문서번호 헌기제655호(憲機第六五五號)

발송일 명치 42년 3월 29일 (明治 四十二年 三月 二十九日) (1909-03-29)
1. 경기도 양주군으로 떠나갔었던 한인(韓人)의 말에 의하면 폭도의 수령인 윤인순이 전사한 일에 대하여 그 부하로 서기(書記)직에 있는 김주병(金乘周)이 현재 부하 5-60명을 거느리고 양주군 묵은면, 이담면 등 각지를 배회하면서 윤인순의 조위금으로 한 사람 당 5전에서 1원까지를 거두고 동장이 이를 지참하여 돌아오는 윤15일의 장례기일을 넘기지 말고 가져오도록 하는 통문을 발행하였다 한다.
명치 42년 3월 29일

一. 京畿道楊州郡ヨリ出京シタリ韓人ノ言ニ據レハ暴徒首魁尹仁順ノ戰死ニ對シ其部下書記ノ職ニアリシ金乘周ハ目下部下五六名ヲ率ヒ同郡縣内面、默隱面、伊淡面等ノ各地ヲ徘徊シ尹

仁順ノ戰死ヲ吊フ爲メ各面各里ノ人民ハ五錢以上壹圓以下ヲ補助シ洞長ヲシテ本陣ニ持チ來ルヘク其葬式ハ來ル間十五日ナレハ其期ヲ過クルヘカラストノ通文ヲ發シ居レリト
以上
明治四十二年三月二十九日

○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0(의병편Ⅲ)
四. 융희 2년 (隆熙 二年) 1908년 명치 41년 (一九〇八·明治 四一)
(二) 四月, 京畿道

경성헌병분대장 약사천 소좌의 보고
유산리 헌병분견소장 금급려 오장의 보고 (4월 6일)

1. 이번 달 3일 오후 4시경 양주군 이담면 안흥리 북방 숲속에 폭도 약 6-70 명이 모여 같은 날 오후 6시경 같은 면 하봉암리에 도착하여 지방민에게 저녁을 준비하도록 명령하여 식사를 한 후 8시경 연천 방면으로 출발하였다.
2. 이달 4일 오후 6시 경 폭도 약 100여 명이 어등산면으로부터 천천면(생내) 덕정리, 묵은면을 향하여 (유산리 지역을) 통과하였다 한다.
3. 이담면 유산리의 적 과수 박사 김연성은 언제인가 미국으로 밀항하였다는 소문이 동네 사람들 사이에 떠돌고 있다고 한다.
4. 지방민들의 말에 의하면 현재 이 지역(유산리)을 배회하는 폭도는 총수가 약 300여 명으로 무기는 30년식 보병총 및 기병총 약 7, 8정, 엽총 약 30정, 화승총 약 15정, 기타 한국군의 단발총을 휴대하였다 한다. 폭도 중의 일부는 무기를 산속에 숨겨두고 포벌대나 헌병의 시선을 교묘히 피하여 행동하고 있는 것 같다.
위와 같이 보고함

京城憲兵分隊長 藥師川 少佐 報告

杻山里憲兵分遣所長 今給黎 伍長 報告 (四月 六日)

一. 本月 三日 午後 四時 頃 楊州郡 伊談面 安興里 北方 森林 中에 暴徒 約 六,七十名이 集合하여 同 六時 同面 下鳳岩里에 至하여 土人에게 命하여 夕食을 喫하고 同 八時 漣川 方面을 向하여 出發하였다.

二. 本月 四日 午後 六時 頃 暴徒 約 百名이 於等山面 方向으로부터 來하여 泉川面 德亭里, 縣隱面을 向하여 通過하였다 한다.

三. 伊談面 杻山里 賊魁 前博士 金演性은 月日 未詳 美國으로 渡航한 旨 土人間에 風評하고 있었다.

四. 土人の 言에 依하면 目今 當所 附近을 徘徊하는 暴徒는 總數 約 三百名으로 武器는 三十年步兵銃 及 騎銃 約 七,八挺, 獵銃 約 三十挺, 火繩銃 約 十五挺, 其他 韓兵用 單發銃을 携帶하였다 한다. 暴徒의 一部는 武器를 山中에 隱匿하고 討伐隊 及 憲兵의 視線을 巧妙히 避하여 行動하고 있는 것 같다.

右 報告함.

○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0(의병편Ⅲ)

四. 융희 2년 (隆熙 二年) 1908년 명치 41년 (一九〇八·明治 四一)

(二) 4월 (四月)

통보 (通報)

발송자 한국주둔 한병대장 아카이시 모도지로오(韓國駐劄憲兵隊長 明石元二郎)

수신자 경무국장 마쓰이 스스무(警務局長 松井茂)

발송일 융희 2년 (隆熙 二年) 명치 41년 (明治 四一) 4월(四月)

3. 4월 22일 오전 10시경 약 150명의 폭도가 양주군 이담면 상봉암리 부근을 통과하였다는 정보에 접하고 경성 헌병분대 유산리 분견소 헌병 5명이 현지에 급히 출동하였으나 적은 약 1시간 전 포천군 산내면 방향으로 출발하였다고 하므로 이를 추적하기 2시간에 현지로부터 동방 약 1리의 산 꼭대기에서 약 1,000m 떨어진 곳에 적 50명이 퇴각하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추격하며 사격을 가하였으나, 약 10분 만에 산내면 남접리 방향으로 종적을 감추고 말았다. 이를 계속 추적한 바 약 1,000m 산꼭대기에서 적 70여 명이 사격해와 응사하여 약 30분간의 교전 후에 적은 북방 산중으로 행방을 감추었다. 적의 피해는 미상이고 아군도 피해가 없다. 총 5정과 창(槍) 3자루를 노획하였다.

(三. 四月 二十二日 午前十時頃 約 百五十名의 賊徒가 楊州郡 伊談面 上鳳岩里 附近을 通過하였다는 情報에 接하고 京城憲兵分隊 杻山里分遣所 憲兵 五名이 同地에 急行하였으나 賊은 約 一時間 前 抱川郡 山内面 方向으로 出發하였다 한다. 因하여 一行은 追跡 二時間에 同地 東方 約 一里의 山頂에서 約 一千미터를 隔하여 賊 五十이 退却하는 것을 認定하고 直時 追擊 射擊을 加하였으나 約 十分 間에 山内面 南嶽里 方向으로 踪跡을 失하였다.

繼續 一行은 追跡 約 一千미터의 山頂에서 賊 約 七十名이 射擊하는 바가 되었으나 交戰 約 三十分에 同 方面으로 擊退 北方 山中에서 드디어 踪跡을 失하였다.

7) 당시 순종의 서북 순행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일제는 순종의 순행 길에 흑시 의병이 위해를 가하거나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작전을 진행할지의 여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다. 이구절은 이은찬의 군자금 모금이 흑시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염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賊의 死傷 不明, 我에 損害 없다.
鹵獲品 銃 五, 槍 三)

○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3(의병편Ⅵ)
七. 융희 3년(隆熙 三年) 1909년 명치 42년(一九〇九·明治 四二) 1월 경기도(一月, 京畿道)

폭도 내습 보고(暴徒來襲 報告)
발송자 양주경찰서장 경부 진과장평(楊州警察署長 警部 眞鍋長平)
수신자 내부 경무국장 송정무(內部 警務局長 松井茂)
발송일 융희 3년(명치 24년) 1월(隆熙 三年(明治 四二) 一月)

오늘 오전 3시 10분에 비적의 수령 이은찬이 인솔하는 약 200명의 폭도가 양주군 이담면 유산리(당읍에서 북방으로 약 4리) 헌병분견소를 습격하여 왔으나 교전 약 2시간 만에 이를 격퇴하였다.

1. 폭도는 양주군 현내면 남산모루 쪽에서 유산리로 쳐들어 왔으나 교전 2시간 후 양주군 이담면 송내리 방향으로 퇴각하였으므로 동 헌병은 이를 추격하였으나 그 종적을 찾지 못하였다.

1. 이 전투에서 적은 1명이 전사하고(적의) 군도(軍刀) 한 자루를 노획하였으며 우리 측의 피해는 없다.

1. 이 보고를 접하고 당 헌병분견소의 헌병 상등병 3명과 헌병보조원 10명 양주경찰서 일본인 순사 2명 한국인 순사 2명이 급히 정찰 중에 있다.

위와 같이 보고함

(本日 午前 三時 十分 匪首 李殷贊이 引率하는 約二百名의 暴徒가 楊州郡 伊淡面 杻山里(當邑을 距하기 北方 四里) 憲兵分遣所에 來襲하였으나 交戰 約 二時間 後 此를 擊退하였다.

一. 暴徒는 楊州郡 縣內面 南山偶 方面으로부터 杻山里에 來襲하였으나 交戰 二時間 後 楊州郡 伊淡面 松蘿里 方面에 退却하였으므로 同 憲兵은 此를 追擊하였으나 其踪跡을 失하였다.

一. 此 戰鬪에서 賊의 死 一 鹵獲品 軍刀 一挺으로 我에 損害 없다.

一. 該 情報에 接하자 當憲兵分遣所 憲兵 上等兵 三 同 補助員 十 當署 日 巡查 二 韓 巡查

二는 急行 偵察中이다.

右 報告함.

○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3(의병편Ⅵ)
七. 융희 3년(隆熙 三年) 1909년 명치 42년(一九〇九·明治 四二) 1월 경기도(一月, 京畿道)

비적 수령 이은찬과 윤인순의 행동 건(匪首 李殷贊 及 尹仁淳 行動의 件)

발송자 양주경찰서 경부 마다나베 조헤이, 경시 이와이 게이타로오
(楊州警察署長 警部 眞鍋長平 警視 岩井敬太郎)

수신자 내부 경무국 보안과장(內部 警務局 保安課長)
발송일 옹희 3년 (명치 42) 1월 (隆熙 三年(明治 四二) 一月)

1월 20일(음력 작년 12월 29일) 양주군 회암면 모정리에 있었던 비적의 수령 이은찬과 윤인순은 사자로 하여금 양주군 고주내면 면장 조종구를 모정리로 납치하여 이르기를 화약대금으로 돌아오는 21일 저녁까지 금2,000냥(40원)을 제공하라고 명하였다

1. 당시 적은 약 7-80명의 인원으로 1월 12일 도주한 양주군 유산리헌병분견소 헌병보조원 3명은 적 수령 등과 평소애 내통하고 있었던바 전부터 알고 있던 조 면장이 도착하자 다른 방으로 숨었다. 그리고 외국인이나 중국인은 따라가지 않았다.

1. 유산리 헌병보조원 5명(그 중 2명은 경성에서 체포되었다 한다)이 도주한 것은 인민으로부터 금전을 강제로 징수한 비행이 폭로될 것을 두려워한 것이 원인이지만, 김범일(김연성의 다른 이름-필자 주)의 협박이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1. 김범일(연성이라고도 한다)은 유산리 출신으로 왕년에 경성 성군관에서 공부하여 <박사>의 명칭을 가져 사람들이 <김박사>라고 한다. 지난 봄 폭도에 가입하였으나 여름부터는 소식이 없던 자이다. 헌병보조원이 도주한 수 일 전 향리인 유산리 즉 헌병분견소에 찾아와 친척을 통하여 헌병보조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들은 한국의 신민인데 일본의 헌병보조원이 되어 우리 의병을 토벌함은 부당하다. 지금 이를 그만두고 물러나지 않으면 너의 생명은 물론 삼족에 이르기까지 모두 위해를 가하겠다." 운운하고 협박하고 뇌물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다. 이 지역 주민의 대부분은 김의 친족이라고 한다.

1. 고주내면 면장은 적이 청구한 금액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여 1월 23일 서울로 도주하였다가 1월 27일에 돌아왔는데 그가 없는 동안 적은 계속 사자(使者)를 보내어 독촉하였다 한다.

1. 윤인순은 가만히 음력설을 양주군 석적면 회촌리에서 지냈다고 한다.

1. 이번 달 24일 이은찬은 원수부(元帥府) 중군(中軍)의 명의로 이담면 면장 등에게 26일까지 쌀 30석을 제공하라고 명령하였다 그 통문에 <군용미>라고 하였으나 폐하의 행행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1. 적들이 2, 3일 전 고주내면 산가대에 들어왔다는 정보가 있다. 그들은 민간인으로 위장하여 소규모로 분산한 채 여러 곳에 나누어 머물다가 연락을 통하여 모이고 흩어지는 것 같다.

1. 강원도 평강 지역에 있는 비적의 수령 연기호에게 중국인 3, 4명이 함께 있는 것 같다는 소문이 있다. 연기호는 전 육군 장교로서 이은찬, 윤인순과 기맥을 통하고 있는 자이다.

위와 같이 보고함

(一月二十日(陰曆 昨年 十二月 二十九日) 楊州郡 檜岩面 茅亭里에 있었던 匪首 李殷贊 및 尹仁淳은 使者로 하여금 楊州郡 古州內面 面長 趙鍾九를 同地에 拉來하여 告하기를 火藥代로 翌二十一日 夕刻을 期하여 金 二千兩(四十圓)을 提供하라고 命하였다.

一. 當時 賊은 約 七·八十名의 人員으로 一月 十二日 逃走한 楊州郡 柵山里 憲兵 分遣所 憲兵補助員 三名은 首魁等과 膝을 交하고 있었던 바 豫히 面識이 있는 趙面長이 當到하자 別室로 退去하였다. 그리고 外國人 及 淸人은 附隨하지 않았다.

一. 柵山里 憲兵補助員 五名(其 中 二名은 京城에서 逮捕되었다 한다)이 逃走한 것은 人民으로부터 金錢을 強請한 非行의 暴露를 두려워함에서 出한 것이 一原因이나 金範一의 脅迫이 있었음은 其 一 大原因이다.

一. 金範(寅性이라고도 한다)은 柵山里의 出로서 往年 京城 成均館에서 修學 博士 號를 갖어 사람이 呼稱 金博士라고 한다. 昨春 暴徒에 加入 同夏로부터 其 消息이 없었던 者이다. 憲兵補助員이 逃走한 數日前 鄉里인 柵山里 卽 憲兵分遣所 所在地에 來하여 親族을 通하여 憲兵補助員에 對하여 「汝等은 韓國 臣民인데 日本의 憲兵補助員이 되어 우리 義兵을 討伐함은 不當하다. 只今에 此를 辭免치 않으면 汝의 身命은 勿論 三族에 至하기까지 모두 危害를 加하겠다 云云하고 脅迫하고 또 賄賂하였다는 所聞이 있다. 同地의 大部分은 金의 親族이라고 한다.

一. 古州內面 面長은 賊의 請求한 金額의 調金이 어렵고 恐怖를 不堪하여 一月 二十三日 京城으로 避難하였다. 去二十七日 歸家하였던바 不在中 賊은 不斷히 使者로써 請求하여 왔었다고 한다.

二. 尹仁淳은 가만히 陰曆新年을 楊州郡 石積面 檜村里에서 맞이하였다고 한다.

一. 本月 二十四日 李殷贊은 元帥府 中軍의 名으로써 楊州郡 伊淡面 面長 其他에 對하여 同二十六日을 期하여 糶 三十石의 提供을 命하였다. 其通文에 「軍用米云云」이라 하였으나 陛下行幸의 糧은 아니었다.

一. 賊團은 二·三日 前 古州內面 山佳堡에 來한 形跡이 있다. 그리고 彼等은 常人的 風體를 假裝하고 三三五五 各處에 分宿하고 聯絡을 通하여 時時로 集散하는 것 같다.

一. 同上 江原道 平康郡 方面에 있는 匪首 延基浩에게 清人 三·四名이 附隨하고 있다는 所聞이 있다.

延基浩는 前陸軍將校로서 李殷贊 尹仁淳과 氣脈을 通하고 있는 者이다. 右 報告함)

○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3(의병편Ⅵ)

七. 隆熙 三年(隆熙 三年) 1909년 明治 42년 (一九〇九·明治 四二) 2월 경기도(二月, 京畿道)

폭도에 관한 건, 양주 경찰서장의 보고 요약(暴徒에 關한 件 楊州警察署長 報告 要領)

발송자 경기도경찰부장 반전 장(京畿警察部長 警視 飯田章)

수신자 경무국장 송정 무(警務局長 松井茂)

발송일 隆熙 三年(明治 四二) 二月

이번 달 13일 밤에 양주군 이담면 서낭당에 사는 푸주간 주인 조석근이 폭도들에 의하여 양주군 내동면에서 참살 당하였다.

1. 13일 오후 11시 조석근의 집 문을 두드리며 "나는 헌병보조원이다. 문을 열어라" 라며 불러내어 조에게 폭도의 상황 등을 물은 뒤에 돌연 "나는 의병이다. 너는 유산리 헌병분견소의 밀정이므로 그 죄를 용서할 수 없다"하고 그 집에 함께 있던 정대근이라는 사람과 함께 납치하였다.

1. 적은 이은찬의 부하 6 - 7명으로 그 중에는 유산리 헌병보조원이었던 자도 함께 있었던 모양이라고 한다. 그리고 적은 내동면에서 조석근을 참살하고 정대근은 지금도 의병의 수중에 있다고 한다.

위와 같이 보고함

(本月 十三日 夜 楊州郡 伊淡面 城隍堂 居住 處肆商 趙石根은 暴徒에 依하여 同郡 內洞面에서 慘殺當하였다.

一, 十三日 午後十一時 趙石根의 門을 두드리며 我是 憲兵補助員이다 開扉하라고 呼起 趙에 對하여 暴徒의 狀況 等を 물은 後 突然 我是 義兵이다 汝는 柵山里 憲兵 分遣所의 密偵이므로 其罪을 容恕할 수 없다 하고 同人家에 滯在中인 鄭大根이란 者와 共히 拉去하였다.

一, 賊은 李殷贊의 部下 六·七名으로 該 賊中에는 元柵山里 憲兵補助員도 加入하고 있었던 模樣이라고 한다. 그리고 賊은 內洞面에서 趙石根을 慘殺하고 鄭大根은 現在 賊手에 있다고 한다.

右 報告함.)

○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6(의병편IX)

융희 3년(隆熙 三年) 1909년 명치 42년 (一九〇九·明治 四二) 11월, 경기도 (十一月, 京畿道)

폭도 토벌의 건(暴徒討伐의 件)

발송자 양주경찰서 경부 진과장평(楊州警察署長 警部 眞鍋長平)

수신자 내부 경무국장 송정 무(內部警務局長 松井茂)

발송일 융희 3년(명치42) 11월 (隆熙 三年(明治 四二) 十一月)

오늘 오후 3시 양주군 이담면 행단리(당지로부터 북방 3리)에서 헌병 3명은 폭도 이윤명의 일단 13명을 공격하여 1명 사살, 1명 체포, 총기 5정, 권총 1정, 탄환 30발, 기타 잡품 약간을 노획하고 일찍이 그들에게 납치되었던 양민 2명을 탈환하였다. 폭도에 3명의 부상자가 생기자 약 20분 후 도주하였다. 우리 측의 피해는 없다.

1. 당(유산리) 헌병분견소의 상등병 1인, 헌병보조원 2인은 행단리 마을 주변에 보초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이를 공격하였다.

2. 폭도들은 민가에 잠복하여 노름을 즐기고 있었던 듯, 무기 등을 수습할 겨를도 없이 창황 중에 도망친 것이다.

3. 포로는 의업(醫業)에 종사하는 자로서 폭도에 가담한 의사이다. 그의 말에 의하면 폭도는 13명으로 두목이 이(李)라고 하는데, 생각컨대 이윤명(李允明)(명호(明鎬))일 것이다.

一, 탈환한 2명의 양민은 오늘 8일(八日) 밤에 납치된 박용범(朴龍範)과 최준홍(崔濬弘)이란 자이다.

一, 현재 헌병대(憲兵隊)에서 취조(取調) 중 위와 같이 보고함

(本日 午後三時 楊州郡 伊淡面 杏檀里(當時의 北方 三里)에서 當地 憲兵 三名은 暴徒 李允明의 一團 十三名을 攻擊하여 一名을 殲하고 一名을 逮捕 銃器 五 拳銃 一 彈藥 三十發 其他雜品 若干을 鹵獲하고 일찌기 拉去되었던 良民 二名을 奪還하였다. 暴徒는 負傷者 三名을 出하고 約 二十分 後 潰走하였다. 我에 損害 없다. 一, 當 楊州 憲兵分遣所 上等兵 一 補助員 二는 前記 杏檀里의 村端에 暴徒의 步哨가 佇立하였음을 發見하고 直時 攻擊하였다.

一, 暴徒는 民家에 潛伏 賭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서 武器 其他의 收取의 餘暇없이 蒼惶潰走한 것이다.

一, 捕虜는 醫業을 하고 있었던 者로서 暴徒附의 醫師다. 同人의 言에 依하면 暴徒는 十三名으로 首魁는 李라고 한다. 생각컨대 李允明(明鎬)일 것이다.

一, 奪還한 二名의 良民은 本月 八日 夜 拉去된 朴龍範 及 崔濬弘이란 者이다.

一, 目下 憲兵隊에서 取調 中 右 報告함.

8) 양주의 유명한 의병장 강기동 역시 헌병보조원 출신이다. 그는 헌병보조원 당시의 경험을 의병 활동에 적극 반영하기도 하였다.

위의 기사들은 우리 동두천 지역에서 실제로 벌어진 의병활동을 주로 일본군의 헌병조직에서 상부에 보고한 문서들이다. 이 문서들에는 의병장 김연성의 동태, 정용대·김연성부대의 선무 공작활동, 이은찬·윤인순 부대의 활동 그리고 소속을 확인할 수 없는 의병부대와와의 전투 상황, 군자금 징모, 헌병보조원 귀순공작, 부역자 처단 등 다양한 의병활동이 언급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유산리 즉 싸리말 지역을 근거로 활동하는 의병이 약 300명에 달하며 이들 상당수가 다양한 총기로 무장하고 있다는 정보 보고이다. 동두천은 양주와 포천을 잇는 산중 연락 통로로 이용되어 많은 의병들이 동두천을 거쳐 이동하면서 전투를 벌였는데, 동두천 지역에도 이렇게 많은 의병이 근거를 두고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들이 무기를 산중에 은닉하여 두고 평시에는 민간인으로 위장하여 있다가 상황이 발생하면 무력투쟁에 임하였다는 새로운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동두천 유산리의 의병이 산중에 무기를 은닉하였다면 그 산은 마차산과 소요산일 것이다. 유산리는 이 두 산의 산자락이 만나는 지역이기에 이런 추론이 가능하다. 일제에 의하여 자재암이 불탔다는 사실 역시 의병이 소요산에 무기를 은닉하고 자재암을 활동 근거로 삼거나 숙소로 활용하였다는 보고를 방증하는 자료가 될 것이다.

아울러 주민들에게 군자금을 각출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어기면 군법으로 다스리겠다고 공시한 것은 1907년 당시 동두천의병이 가지고 있던 지역에 대한 권위와 영향력을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다. 물론 이런 유의 문구는 지시 이행을 강조하는 어조상의 강력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은 표현이 가능하다는 그 자체가 의병의 권위와 위력을 반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군자금 징수를 명령받은 면장이 이를 행정 계통에 고발하지 못하고 서울로 도망하고 있는 정황은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 주요한 포인트가 되어야 한다.

당시 일제 헌병과 함께 의병 토벌에 나선 헌병보조원과 밀정에 대한 귀순 공작도 주목할 만하다. 유산리 헌병분견소에서만 한꺼번에 5명의 헌병보조원이 이탈하여 일부는 의병과 함께 행동하고 있는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⁸⁾ 그리고 이들 헌병보조원의 귀순에 의병장 김연성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들을 민족 대의로 설득한 점도 당시 동두천 의병이 가진 당위성을 민중 모두가 공감하고 지지했다는 사실에 대한 방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제는 의병을 탄압하기 위한 명분으로 이들을 폭도(暴徒), 비적(匪賊)으로 규정하고 특히 의병들이 군자금 징모에 나선 것을 집중 부각하여 강도(強盜), 강탈(強奪) 등의 죄목을 강조하고 있는 점도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다. 그들의 의병 재판 기록에 물품 강탈을 집중 조명한 결과 정당한 구국활동 내용은 묻혀지고 범법(犯法)으로 해석될 사항만이 부각되어 나타나 현재까지도 일부에서는 의병 활동을 폄하하는 소재로 활용되고 있는 까닭이다.

아래의 자료는 일제가 의병활동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떤 방향으로 탄압의 명분을 설정하였는지를 보여준다.

○ 판결 응희 2년 형(刑) 제355호

경기도 양주군 이담면(伊淡面) 외보안리(外保安里)

농업 홍희영(洪喜永) 28세

위 내란죄사건에 대하여 검사 소야정태랑(小野政太郎)이 관여하고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문

피고 홍희영을 유형 5년에 처한다.

이유

피고 홍희영은 응희 원년 음력 10월경 폭도 과수 황순일(黃淳[順一])의 지휘 밑에서 동류 약 40명과 무장하고 양주군·포천군 등지를 횡행 중, 동년 음력 12월경 양주군 현내면(縣內面) 신촌(新村) 백성들에게서 돈 14원을 징발하였다.

이상 사실은 피고의 공술, 피고에게 대한 검사의 신문 조서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다. 피고의 소위는 형법대전 제195조에 해당하나, 지휘자 밑에서의 하수자이므로 동법 제79조·동 제80조·동 제135조에 의하여 수범률(首犯律)에서 1등을 경감하고, 소범 정상이 용서할 만하매 동 제125조에 의거 다시 4등을 경감하여 처분함이 가하다고 여긴다.

판결

경기도 양주군 이담면(伊淡面) 광암리(廣岩里) 7동 2호

경기도 양주군 이담면(伊淡面) 광암리(廣岩里) 7동 2호 출생

농업 이금래(李兢來) 28세

위의 피고에게 대한 강도사건에 대하여 검사 하촌정수(河村靜水)가 입회하고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문

피고 이금래를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제1. 피고는 응희 2년 음력 10월경부터 동 3년 음력 2월경까지 사이에 재물 겁탈을 목적으로 하는 정용대(鄭用大)의 부하에 가입하여 그의 부하 십 수 명과 같이 총검을 가지고 경기도 양주군·포천군·적성군(積城郡)·영평군(永平郡) 등에서

이름 미상의 촌락에 침입하였으나 모두 재물을 얻지 못하였다.
 제2, 피고는 동년 음력 10월경 이명호(李明鎬) 외 4명이 동도 포천군 서면(西面) 왕방리(旺坊里) 송주태(宋柱泰) 집에서 검탈한 물건이라는 사정을 알고도 그에게서 벼 3섬(덧가 7원 80전)을 돈 6원에 매입한 자이다.
 위 사실은 피고의 당 법정에서의 진술, 검사 및 육군 헌병의 각 피고인 신문 조서, 피해자 송주태의 시말서의 각 기재에 징합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의 제1 각 소위는 형법대전 제593조 제3호 미득재(未得財)에 해당하여 모두 중신징역에 처할 것이나, 소범 정상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기로 동법 제125조에 의거 각각 본형에서 5등을 경감할 것이고, 제2의 소위는 동법 제620조 제2호에 해당하여 동조에 의거 동법 제631조 좌장률(坐贓律)을 적용, 태 1백에 그칠 것이므로 태 1백에 처할 것이며, 5죄가 함께 생겨서 제2의 소위는 기타 소위보다 가벼우며 기타 소위는 이에 과할 형이 각각 상등하므로 동법 제129조에 의거 무거운 것의 1인 제1 소위 중, 양주군에 침입한 강도의 소위에 따라 처단함이 가할 것으로 여겨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결 율희 3년 형(刑) 제87호
 경기도 양주군 이담면(伊淡面) 지동(紙洞)
 농업 목자상(睦子商) 40세
 위 강도사건에 대하여 검사 능곡정오(菱谷精吾)가 입회하고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문
 피고 목자상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피고는 지방민이 의병이라 자칭하는 도적의 환난을 두려워함을 틈타서,
 제1, 도적 과수 황재호(黃在浩)란 자들과 함께 비밀히 계락을 꾸미고서 율희 2년 8월 1일경 양주군 영근면(嶺斤面) 상원리(上遠里)에 가서 동장 정문호(鄭文浩)에게 대하여 '의병 군수비로 돈을 내라'고 강청하며 '만약 불응하면 이 동리에서 의병에게 제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공갈하여 마침내 그에게서 돈 1천 9백 냥(38원)을 내게 하여 이를 약취하였고, 제2, 동년 11월 24일경 도적 수령 오수영(吳壽泳)·이주현(李周賢) 등과 모두 함께 남몰래 계락을 꾸미고 동군 이담면 이학우(李學宇) 집에 같이 가서 앞과 같은 수법으로 그를 공갈쳐 돈 6천 5백 냥(130원)을 내놓게 하여 이를 약취하였다.

이상 사실은 피고에게 대한 검사의 신문 조서, 피고에게 대한 헌병오장의 피고인 조서, 정문호 및 이학우의 각 피해 계출서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다.
 피고의 제1·제2의 소위는 모두 형법대전 제599조에 해당하니 각각 동조에 의하여 제1의 소위는 동 제595조 제4호의 율에 준하여 1등을 가중하고, 제2의 소위는 동조 제9호의 율에 준하여 1등을 가중하며, 2죄가 함께 생겼기로 동 제129조에 의거 무거운 제2의 죄에 따라 처단할 것이다.

주지하는 바 위 자료는 일제에 피검된 동두천지역의 의병항쟁 지사들이 저들의 법정에서 재판받고 그들로부터 신고된 형량과 그 이유를 기록한 재판 기록들이다.

홍희영, 이공래, 목자상 등은 각각 유형 5년,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이유가 모두 재물을 강탈한 죄였다. 그런데 재물을 강탈하였다고 적시된 내용이 홍희영이 1건에 14원, 이공래가 1건에 6원 (그나마 이 건은 강탈이 아니고 부정 장물을 구입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음), 목자상이 2건에 168원이 전부이다. 이는 절대 합리적이고 정당한 판결이 아니다. 실사 그것이 사실이었다 하더라도 단지 1, 2건의 강탈 행위만으로 수년의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일제가 의병항쟁을 강도행위로, 의병 참가자를 강도, 폭도로 규정하여 대내외에 왜곡 홍보하는 만행이며 흉계인 것이다. 만일 의병을 법에 따라 처벌한다면 이는 마땅히 사회질서 교란이나, 폭력 등의 혐의에 근거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는 의병의 구국 투쟁을 징계할 명분이 미약하고 재판과정에 전개될 논쟁에서 항쟁의 의지가 정당화 될 사태를 염려한 졸렬한 조치인 것이다. 아울러 자료에 등장하는 일제 밀정 조석근의 처단 기사는 의병활동을 전개한 구국지사들을 현상하는 일과 함께 당시 일제에 붙어 민족의 대의를 팔아먹은 매국노들의 진상을 규명하고 규탄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 준다.

또 하나의 관점은 양주 지역의 의병이 동두천을 이동 통로로 활용하고 있는 사실이다.

다음의 자료는 이와 같은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 자료인데, 인용이 좀 장황하겠으나 당시 최대 실권자인 매국노 이완용의 조카가 의병장 홍원유에게 납치되었다가 탈출하는 과정을 기록한 보고문으로 자료에는 사건에 즈음하여 사태의 중대성을 인식한 일제의 당황하는 모습과 양주 일대의 의병이 동두천 지역을 작전 이동 통로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으므로 자료 전체를 인용하여 보기로 한다.

○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5(의병편Ⅷ)
九.용희 3년 1909년 명치 42 (隆熙 三年(一九〇九·明治 四二)
10월, 경기도 (十月, 京畿道)

발송자 양주경찰서장 경부 진과장평(楊州警察署長 警部 眞鍋長平)
수신자 내부 경무국장 송정 무(内部警務局長 松井茂)
발송일 용희 3년 (명치 42) 10월 (隆熙 三年(明治 四二) 十月)

9월 29일 새벽 양주군 광석면에서 폭도 홍원유에게 납치당한 이성구(李成九)(聖九는 오기)에 대한 수사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이성구는 그 다음 날 30일 밤에 폭도 21명과 함께 양주군 백석면 고령리 보광 등 (당지로부터 서남방 약4리의 불각)에 숙박하고 다음 10월 1일 파주군 천현면 둔방리에 이르러 거기에서 하룻밤을 묵은 후 다음 날 2일 다시 양주군으로 들어왔다.

1. 폭도들은 이성구에게 무기를 짊어지게 하고 함께 행동하며 이르기를 "너는 매국노이다. 총리대신 이완용은 실로 그 (매국의) 주범이다" 라고 말하였다.

1. 이는 밀정의 말이므로 다 믿기 어려우나 현재 헌병대와 협력하여 힘을 다하여 수사 중이다

위와 같이 보고함 (이어 개성경찰서장에게 전보 및 서면으로 보고하였음)

(九月二十九日 未明 楊州郡 廣石面에서 暴徒 洪元裕에게 拉去當한 李性九(聖九는 誤記)에 對한 搜查狀況은 左와 如하다.

一. 李性九는 翌三十日夜 暴徒 二十一名과 共히 楊州郡 白石面 古靈里 普光 等(當地로부터 西南方 約四里의 佛閣)에 宿泊하고 翌十月 一日 坡州郡 泉峴面 屯防里에 이르러 同地에서 一泊하고 翌二日 다시 楊州郡에 入하였다.

一. 暴徒는 李性九로 하여금 銃器를 擔게 하고 同行하여 日 汝는 賣國賊이다. 總理大臣 李完用은 實로 其主된 者이다 云云.

一. 右는 密偵의 言이므로 信을 두기 難하나 目下 憲兵隊와 協力 極力搜查中 右 報告함.

追而 開城警察署長에게 打電 및 書面으로써 通告하였다.)

10월 9일

조진야 경부

국우 경부 앞

이성구에 대한 건

1. 이번 달 6일 폭도 홍원유는 양주군 이담면 광암리 소요동에 잠복 중으로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조여장이라는 자가 몰래 폭도들을 위하여 식량과 피복 등을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2. 이 첩보에 접하여 양주경찰서의 순사 및 양주 헌병대의 헌병이 혼성부대를 편성하여 광암리 좌기동 (당지로부터 북방 5리)에 살고 있는 조여장의 집을 밤중에 급습하였으나 아무런 소득이 없었음

1. 그런데 그 동네 소요동에 이번 달 5일 오후 1시 폭도가 들어 왔었다는 것을 알아내고 즉시 현지로 향하였던 바 과연 그날 오후 1시 11명이 들어와 약 1 시간 가량 휴식을 취한 후 포천군 서면 방향으로 떠나 갔다고 한다. 그들은 서면으로 가는 도중에 이담면 동점리에도 들렀다고 한다.

1. 폭도는 같은 날 (5일) 오후 6시경 현지(동점리) 송사중의 집에 들어 와 그를 때리고 저녁을 준비하도록 명령하였다.

1. 현재 송사중의 집에 머물고 있는 서울 사는 재목상(材木商) 최명옥(崔明玉)이가 우리 서의 순사에게 말한 바에 의하면 폭도 중 한명은 20세 전후로 피부는 희고 얼굴이 길며 짧은 머리 수염이 없는 학생 모습인데 다른 폭도와 떨어져 혼자말 하듯이 말하기를 "저 사람은 총리대신 이완용의 생질인데 며칠 전 양주군에 있는 선조의 무덤에 찾아왔다가 납치되었다"고 말하며 우수 어린 기색이 있었고 복장은 다른 폭도처럼 다갈색 한복을 입었다고 하였다. (11명 중 1명은 군도를 차고 나머지는 한국식의 낡은 총으로 무장)

1. 이 폭도들은 저녁을 먹은 후 포천군 서면 왕방리(양주군의 경계) 방향으로 향하였다 하여 즉시 급히 추격하였던 바 오후 8시 서면 목동에서 동민을 길 안내로 하여 포천군 뒷 송우리로 갔다

안내하였던 사람의 말에 의하면 밤중이었으므로 인상착의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폭도 중 한 명이 발이 아프다고 하니 다른 사람들이 독촉하며 빨리 걸으라고 하였다 한다. 또 폭도 중 한 명이 말하기를 “우리는 강대장(전 헌병보조원이었던 강기동)을 찾는 중이다. 공촌(양주군 시북면-현재의 의정부시(필자 주))은 몇 리나 되느냐고 물었다 한다.

1. 폭도들은 위 송우리의 이견익(李建益)이 운영하는 주점에 이르러 술을 마셨다. 여주인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두려운 나머지 폭도들을 자세히 살펴보는 못하였지만 폭도 중 한 명은 버선을 신고 있었고 술은 많이 마시지 않았다. (다른 폭도는 발싸개를 하고 있었다).

1. 폭도들은 다시 아래 송우리 이장의 집 문을 두드려 이장이 밖으로 나오자 회암리 고개는 어느 쪽으로 가느냐고 물어 이리이리라고 대답하니 그대로 떠나갔다고 한다. 그리고 폭도는 이장이 빨리 안 나온다고 총대로 문 일부를 부수었다(수사가 눈으로 확인하였음).

1. 따라서 헌병, 경찰부대는 회암고개(양주군 회암면으로부터 포천으로 통하는 산 고개 길)에 이르렀던 바 형적이 없고 어디로 갔는지도 알 수 없었다.

1. 아상은 어제 밤까지의 상황

1. 계속 수사 중임

1. 김 경부가 어제 양주에 도착하였다. 오늘은 포천군 내북면 칠성사(七聖寺)로 향한다.

1. 총리대신이 직접 파견한 사람 2명(민간인)이 양주군 동쪽을 수사하고 있었다. 수사 방법은 아는 소작인들을 찾아 다니며 탐문하는 것 같았다.

1. 오늘에 이르러서도 찾지 못하여 미안하다.

1. 몹시 죄송하나 이 사건을 반전(飯田)부장에게 전화하여 주었으면 좋겠다.

(十月九日

朝眞野警部

國友警部 앞

李性九에 대한 件

一. 本月 六日 暴徒 洪元裕는 楊州郡 伊談面 廣岩里 逍遙洞에 潛伏中으로 同地 居住 曹汝長이란 者가 秘密히 該 暴徒를 爲하여 軍糧 及 被服을 供給하고 있었다고 聞知하였다.

一. 此報에 接하고 當署巡查 及 當憲兵混成一隊가 되어 廣岩里 坐起洞(當地로부터 北方 五里強) 居住 曹汝長方을 夜襲 亂問하였으나 何等 得한 바 없다.

一. 그런데 同里 逍遙洞에 本月 五日 午後一時 暴徒가 來하였다는 것을 探知하고 直時 同地로 向하였던 바 果然 同日 午後一時 十一名이 來하여 約一時間 休息 後 抱川郡 西面 方面으로 去하였다 한다. 따라서 西面으로 가던 바 同面 銅店리에 來하였다고 한다.

一. 暴徒는 同日(五日) 午後六時頃 同地 宋四仲方에 來하여 同人을 毆打 夕食을 命하였다.

一. 目下 宋四仲方에 滯在中인 京城 居住 材木商 崔明玉이가 當署巡查에게 말한 바에 依하면 暴徒 中 一人은 二十前 後로 色白 面長 斷髮 無鬚髯의 學生 風인 一人이 他暴徒의 隙을 보아 말하기를(오히려 獨語이었다 한다) 余는 總理大臣 李完用의 甥孫인 바 過日 楊州郡 所在 先祖의 展墓次 來하였을 時 拉至當한 者이라하고 그리고 憂愁의 色이 있었으며 服裝은 他暴徒同樣 茶褐色의 韓服을 着하였다 한다.

(十一名中 一人軍刀 他는 韓式古銃)

一. 該 暴徒는 夕食을 喫한後 抱川郡 西面 旺方里(楊州郡界) 方面으로 向하였다

하여 直時 同方面으로 急行하였던 바 同午後八時 西面 木洞으로 來하여 洞民을 길 案内로 하여 抱川郡 上松隅로 갔다. 案内者의 言에 依하면 夜中이므로 人相服裝 等 判明치 않으나 暴徒 中 一人이 발이 아프다고 하니 他者는 督促하여 빨리 걸으라고 하였다 한다.

또 暴徒 中 一人이曰 余等은 姜大將(元憲兵補助員이었던 姜基東)을 찾는 것이다. 宮村(楊州郡 柴北面)은 몇리나 되느냐고 물었다 한다.

一. 該 暴徒 等은 上松隅 李建益이란 酒店에 至하여 飲酒하였다. 女將의 말하는 바에 依하면 恐怖의 나머지 暴徒에 關한 評細는 判明되지 않으나 暴徒 中 一人은 普通 韓足袋를 穿하고 있었던者 있다. 若干 飲酒하였다 한다(他의 暴徒는 布片으로써 足を 卷하였다).

一. 該 暴徒는 다시 下松隅 里長이 門戶를 두드리므로 里長은 戶外로 出하였던 바 檜岩岬는 어느 길로 가느냐고 問議하므로 이리이리라고 對答하니 그대로 去하였다 한다. 그리고 暴徒는 里長의 戶外로 出함을 窺다 하여 銃臺로써 門扉의 一部를 打破하였다(巡査의 目擊한 바).

一. 따라서 警憲隊는 檜岩岬(楊州郡 檜岩面)으로부터 抱川으로 通하는 峻路)에 이르렀던 바 來한 形跡 없고 同時에 出發方面 不明에 屬하였다.

一. (右는 昨夜까지의 分)

一. 繼續 搜查中

一. 金警部 昨日來楊하였다. 本日は 抱川郡 內北面 七聖寺로 向한다.

一. 總理大臣으로부터 直接派遣한 者 二名(常人) 楊州郡의 東方을 搜查하고 있었다. 其 手段은 아는 小作人을 歷訪 搜查하고자 하는 것 같았다.

一. 今日에 이르러서도 發見치 못하여 未安하다.

一. 甚히 罪悚하나 本件 飯田部長 앞으로 通話를 付托한다)

위에 인용한 자료에는 이성구를 납치한 의병이 그를 압박하면서 서울 집에 연락하여 돈을 가져오도록 강요하는 장면이 나타난다. 즉 의병 운영자금이 부족 해지면서 군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요인 납치가 항쟁의 한 형태로 등장한 것인데 특히 정미의병의 쇠퇴기인 1909년 무렵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바로 이 부분이 일제가 의병을 강도, 강탈범으로 몰아가는 주된 원인이 된다.

총리대신 이완용의 조카 이성구를 납치한 홍원유는 양주 광적에서 파주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양주로 돌아오고 거기에서 동두천으로 옮겨 소요동, 동점을 거쳐 왕방산을 넘어 포천 송우리로 다시 거기에서 회암고개(현재의 투바이고개)를 넘어 양주로 잠입하는 경로를 따라 이동을 거듭하고 있다. 이는 정미의병 초기 김연성, 이은찬, 윤인순 부대의 전투 예에서 보는 것처럼 지역을 장악하고 왜적의 통치기관을 습격하던 상황에서 크게 후퇴하여 적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하여 계속 산중을 이동하면서 보급투쟁에 치중하는 말기의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보급투쟁이 일부 민가에 폐해로 나타나면서 의병에 대한 민중의 지지도 급속히 저하되고 투쟁의 강도도 낮아져

생존 위주의 전략에 치중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의병은 국내의 활동을 정리하고 만주, 연해주 등으로 탈출, 이동하여 투쟁을 이어가게 된다.

다음은 정미의병의 말기, 생존을 위한 보급 투쟁을 벌이던 의병의 양상을 증언하는 자료이다. 앞에 제시한 대로 홍원유 부대에 납치되었던 이성구가 동 부대를 탈출하여 의병의 생활상을 증언한 내용이다. 자료 중 해당되는 부분만을 발췌하여 인용한다.

○ 적도가 촌락에 들어갔을 때에는 마을 사람들을 강제 동원하여 촌락의 입구에서 감시하도록 시켜 헌병, 경찰의 접근을 미리 알리게 함으로 폭도들은 적어도 헌병이 수백m 밖에 도착한 것을 미리 알 수 있다. 이 감시자들은 낮을 가지고 풀을 베거나 호미로 밭을 매는 등의 위장한다. 폭도가 촌락에 들어오면 식사는 물론 목면(木綿), 금전(金錢), 담배, 술 등 각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헌납하도록 강요하고 마을 사람들은 뒷일을 두려워하여 부득이 이에 응하고 감히 거절하는 자가 없다. 특히 왕왕 부녀를 욕보이는 일이 있으나 마을 사람들은 이에 조차 감히 저항하는 자가 없었다. 폭도는 낮에 산 중에 숨어 있는 동안 술을 마시거나 잠을 잔다. 폭도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화승총 4, 모젤 총 2, 사입장(仕入杖) 2, 군도(軍刀) 1, 권총(단발식으로 소총의 총신을 자른 것인데 파손이 심하여 사용이 안된다) 1이었는데, 10월 4, 5일 경 포천군 솔모루(松隅) 시장 부근 산 중에서 쉬며 술을 마실 때 두 명의 폭도가 난동을 부려 2정의 화승총이 파손되어 소용이 없게 되고 탄약은 100발 정도가 있는 것 같다.

이성구가 잡혀있는 동안 폭도는 헌병 기타와 충돌한 일은 없었다. 이 폭도들은 항상 적성, 포천, 양주 각지에서 행동한 것 같고 어두운 밤의 시골길도 주저없이 행진하였다. 이성구가 폭도에게 잡혀있는 동안 식사 등은 충분히 제공되었다.

이번 달 5, 6일 경 폭도의 수령 전성서(田聖瑞, 정용대의 뒤를 이은 사람)로부터 홍원유에게 보내져 온 편지에 의하면 이번 달 15, 16일 전성서와 홍원유는 솔모루 시장에서 만나는 것 같다고 한다.

이상 명치 42년 10월 16일

(... 賊徒가 村落에 出하였을 때는 村民에게 強命하여 村落의 入口에 서서 監視를 시켜 憲兵 巡查 等の 近接을 豫報하므로 暴徒는 約 半里 以外の 地에 憲兵 等 到着을 前知할 수 있다. 此 監視番은 晝間은 鎌으로써 草刈를 假裝하고 또는 鋤을 携帶 耕夫로 擬게 하는 例라고 한다.

暴徒가 村落에 出하자 食事は 勿論 木綿 金錢 煙草 酒等 各人の 意에 따라 人民에게 出給을 強迫 人民은 後難을 두려워함으로써 不得已 此에 應하여 敢히 拒絕하는 者 없다. 특히 往往 婦女를 辱보이는 일이 있으나 人民은 此에 對하여서까지 敢히 抵抗하는 者 없었다. 暴徒는 晝間 山中에 潛伏하는 間은 或은 酒를 飲하고 或은 假眠하는 것을 例로 한다.

該 暴徒의 携行武器는 火繩銃四 모-젤 銃二 仕入杖二 軍刀一 拳銃(單發式으로 小銃의 銃身を 裁斷한 것 같은 것으로 破損이 甚하여 所用이 않된다) 一이었는데 十月 四, 五日頃 抱川郡 솔물 市場 附近 山中에서 休憩 飲酒中 二名의 暴徒가 喧嘩를 하였을 時 二挺의 火繩銃은 破損되어 所用이 없이 되고 彈藥은 百發內外가 있는 것 같다.

李性九가 잡혀 있는 동안 暴徒는 憲兵 其他와 衝突한 일은 없었다.
該 暴徒는 恒常 積城 抱川 楊州各郡에서 行動한 것 같고 暗夜村道도 躊躇 없이 行
進하였다.

李性九가 暴徒에게 逮捕된 其間 食事 等 모두 充分히 給與되었다.

本月 五. 六日頃 賊魁 田聖瑞(鄭容大의 後를 受한 者)로부터 洪元裕에게 送한 書
面에 依하면 本月 十五. 六日 田聖瑞 洪元裕는 抱川郡 「술물」市場에서 會晤하는
것 같다고 한다.

以上 明治 四十二年 十月 十六日)

위의 자료를 통하여 1909년경 즉 정미의병 후기의 동두천 지역 의병들의 모습을 조명하려면 몇 가지 유념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 먼저 이 기록은 일제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저들의 주관과 관점이 심분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정황들은 일제의 관점을 감안, 배제하여야 그 내부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이 기록에 먼저 과장된 부분을 보자. 대표적인 내용이 부녀자 강간에 관한 서술이다.

이 기록은 의병에게 납치되었던 이성구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보고서이다. 그런데 의병들에 의한 부녀자 강간은 의병이 촌락에 들어가 식량 등 보급 물자를 조달하는 내용을 기술한 다음 항목에 첨부되어 있다. 그리고 전체 맥락을 살펴보면 이 부분은 이성구가 직접 목격한 내용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저 막연한 추론이거나 들은 소문을 과장한 것 아니면 일제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자의로 끼워 넣었을 개연이 강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의병이 이성구를 데리고 이동하는 전체 과정에 헌병과 충돌한 적이 없고, 포로인 이성구에게조차 충분한 식사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이다. 즉 그들은 일부 강제된 면이 있다 하더라도 민중들로부터 원호와 보호, 그리고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부녀자를 자의로 강간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불가하다.

또 하나 그들은 술모루시장에서 의병장끼리 회합을 가지고 있다.

전성서와 홍원유 모두 당시 일제로부터 지역의 현상금이 걸린 의병대장들인데

그들이 다른 곳 즉, 깊은 산중이 아닌 장터 그것도 술모루장터에서 서신을 통한 사전협의를 거쳐 만남을 가진다는 것은 민중의 지지와 응원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부녀자 강간 같은 것이 일어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근거이다.

이성구를 납치한 의병은 모두 11명인데 그들을 일제 헌병, 경찰이 합동 부대를 편성하여 필사적으로 쫓고 있었다. 일제는 그 추적 상황 보고서에 성과가 없어 “미안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 정도이다. 그리고 별도로 파견된 민간인 탐정들이 역시 혈안이 되어 이들 의병을 탐문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성구가 당대의 총리대신 이완용의 조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 의병들은 대낮에 술모루장터 인근 야산에 은거하여 있으면서 술을 마시고 싸움까지 벌이고 있다. 낮에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잔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야밤이라도 험한 촌길을 조금도 거리낌 없이 바른 속도로 이동한다고 기술한다.

이 내용은 이들이 지형에 숙달되어 있고 추격군의 동향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으며 민심의 지지를 받고 있음을 다양하게 증언하는 내용들이다. 물론 그들이 자주 술을 마신 것은 아마도 쫓기는 자의 불안한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하겠지만 그들은 대담하고 능동적이며 여유로웠다. 대의명분을 앞세워 침략자와 싸우는 장부들의 모습이 역력하지 않은가?

3) 동두천 의병의 면면들

일제가 남긴 의병 토벌, 체포, 재판 기록에 나타나는 동두천 지역 의병들은 다음과 같다.

(1) 이은찬(李殷贊 1878~1909)

조선 말기 의병장. 일명 언찬(諲贊)·헌찬(憲贊). 본관은 전주(全州). 강원도 원주(原州) 출신. 1907년(순종 1) 고종이 퇴위하고 군대가 해산되자 원주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이인영(李麟榮)을 대장으로 추대한 뒤 전국 각지에 격문을 보내어 양주(楊州)에 의병들을 규합시켜 13도 의병연합부대를 편성하고 서울 공략을 계획했다. 그러나 총대장 이인영이 부친상을 당하여 귀향하면서

이 계획이 실패로 끝나자 그는 소속부대를 이끌고 양평(楊平)·포천(抱川) 방면으로 이동하여 임진강 유역에서 허위(許蔭)와 합세해 크게 위세를 떨쳤다. 1909년 일본군의 압력이 심해지자 의병부대를 거느리고 남쪽의 연안 도서지방을 중심으로 활약했다. 그해 양주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여 큰 타격을 입혔으나 의병 또한 많은 희생자를 냈다. 이후 간도(間島)로 들어가 정병을 양성한 뒤 보다 적극적으로 항전할 계획을 세웠으나, 이때 서울에 있던 박노천(朴魯天)·신좌균(申左均)의 군자금을 제공하겠다는 유인으로 체포되어 교수형을 당했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2) 윤인순(尹仁淳 1880~1909)

조선 말기 의병장. 경기도 양주(楊州) 출생.

1907년(순종 1) 일본에 의하여 한국군대가 강제해산되자 양주에서 의진을 형성하고 진동창의부우군장(鎭東倡義府右軍將)으로 양주·파주(坡州)·적성(積城)·포천(抱川) 등지에서 활약하였다. 같은 해 이인영(李麟榮)을 총대장으로 한 13도 연합의진에 참여하여 서울 진공작전을 폈으나 일본군에 의하여 좌절된 후 허위(許蔭)를 대장으로 임진강 일대에서 활약하였다. 1908년 허위가 체포된 뒤에도 소규모 의병을 이끌고 일본군과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1909년 이은찬(李殷贊)·정용대(鄭用大)·강기동(姜基東)·연기우(延基羽) 등과 연합하여 경기도와 황해도를 연결하는 육상과 도서지방에서 활약하다 그해 3월 양주 북방 16km 지점에서 부하 16명과 함께 전사하였다. 198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3) 정용대(鄭用大 1882~1910)

조선 말기 의병장. 경기도 파주시(坡州市) 적성(積城) 출생.

1908년 대한제국 군대의 강제해산에 대한 의분으로 수백 명의 의병을 모집, 적성·풍덕(豐德)·통진(通津) 등지에서 활발한 의병활동을 전개하였다. 그해 2월 인근에서 활약하던 다른 의병부대와 연합전선을 구축, 일본헌병대 및 경찰대와 교전하였다. 그 뒤 군자금과 군량미 조달 등 전투준비를 하다가 1909년 체포, 내란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이듬해 순국하였다.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4) 강기동 (姜基東 1884~1911)

의병장. 서울 출생. 본명은 기주(基周). 1907년 대한제국군 기병부위(騎兵副尉)로 있다가 군대가 해산되자 해산군을 규합하여 의병항쟁을 전개하였다. 일본헌병대에 위장 귀순하여 보조원으로 일하면서 포로의병과 동지들을 풀어주기도 하였고 무기·탄약을 탈취하여 경기도 포천·양주 등지와 강원도 금성·회양·통구 등지에서 의병활동을 재개하기도 하였다. 1908년에는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일본군을 습격하였고, 그 해 겨울 창의한북대장(倡義韓北大將) 연기우(延基羽)의 부대와 합세하여 200여 명의 의병을 거느리고 포천·송우(松隅) 등지에서 일본군을 격파하는 전과를 올렸다. 1911년 2월 원산에서 일본경찰에게 붙잡혀 옥중항쟁을 하다가 용산 일본군 행형장(行刑場)에서 총살당하였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5) 연기우 (延基羽 ?~1914)

조선 말기 의병장. 경기도 삭녕(朔寧; 지금의 漣川郡) 출신. 일명 연봉렬(延奉烈)·기호(基浩)라고도 하였다. 강화진위대부교(江華鎭衛隊副校)로 있을 때인 1907년(순종 1) 대한제국군이 강제 해산되자 덕물포(德物浦)에서 의병을 일으키고 지홍윤(池弘允)과 합류하여 일본군과 싸우다 패하였다. 그 뒤 다시 의병을 모아 적성(積城)·삭녕 등지에서 일본군 수비대와 경찰을 공격하였다. 1908년 원수부13도총대장(元帥府十三道總大將)인 이인영(李麟榮)의 휘하에 합류하여 서울진격작전을 감행하였으나, 양주(楊州)에서 패한 뒤 창의한북대장(倡義韓北大將)이 되어 다시 고양(高陽)·강화(江華) 등지에서 의병활동을 전개하였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6) 김병기 (김병기, 1850~?)

독립운동가로 양주 출신이다.

한말 일제의 침략을 저지하고자 의병에 참여하여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아들 연성(演性)도 의병활동 중 적에게 체포되어 죽음을 당한 바 있는 의병 집안의 가장이다. 1910년 조선이 식민지가 되었으나 투쟁을 멈추지 않고 1913년 9월 의병장 임병찬·이인정·전용주 등이 의병 출신들을 모아 새로운 항일투쟁 조직체인 독립의병군을 조직하자, 여기에 참여하였다.

독립의군부는 일본 내각총리대신과 조선총독부에게 국권반환요구서를

보내기도 하고 한국인이 일본에 굴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국외에 알리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1914년 4~5월 독립의 군부 동지들과 함께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고초를 겪었다.

(7) 김연성(金演性, 1870~?)

구한말의 성균관 박사로 자는 범일(範一), 호는 송천(松川), 본관은 강릉(江陵)이다. 애국지사 병기(秉氣)의 아들로 보산동(싸리말)343번지에서 태어났다. 1891년 성균관 박사가 되고, 충청도도사(都事)로 재직 중에 일제에 의해 명성황후가 시해되자 붓을 던지고 을미의병에 가담하여 대일투쟁에 앞장섰다. 1905년 을사조약(乙巳條約)이 강제적으로 체결되고 1907년 일제에 의해 우리 군대가 강제로 해산되자, 선생은 고향으로 내려와 의병을 모집하여 휘하에 3백여 명의 의병을 거느리고 양주와 연천 지역의 의병장이 되어 윤인순(尹仁淳)·정용대(鄭用大)·황재호(黃在浩) 등의 의병장들과 같이 군성(軍聲)을 떨치었다. 1908년 양주군 주내전투 때 이인영(李麟榮) 총대장을 도와 선봉에서 싸웠으며, 소요산전투(원효대)에서 일본군을 격퇴시켰다. 삭령(朔寧)·마전(麻田)·적성(積城)·철원(鐵原) 등지까지 작전 범위를 넓혀 일본군과 싸웠다. 그러나 휘하에 있던 전목기(全木基)·유재만(柳在萬) 등의 지사들이 일제에 의해 체포되자 전의를 상실한 상태에서 일본군과 교전 중 전사하였다.

(8) 목자상(睦子尙, 1870~?)

의병으로 이담면 지동 출신이다.

농사를 짓다가 황재호 의병부대에 들어가 항일무장투쟁을 하면서 군자금 확보, 투쟁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1908년 8월 영근면 상원리에서 같은 해 11월 이담면에서 체포되어 고초를 겪은 후 1909년 3월 9일 경성지방법판소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9) 송창근(宋昌根, 1888~?)

의병으로 덕도리에서 태어나 은현면 상패3리로 이주하여 농사를 지었다. 1907년 일제의 침략에 분노하여 윤인순 의병부대에 들어가 항일투쟁을 펼쳤다. 송창근의 활동 중에 기록에 남아 있는 것으로 군자금 확보투쟁에 관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07년 12월 동료 의병 30여 명과 함께 묵은면 내묵은리에서, 1910년 8월 23일 백석면에서 각각 군자금을 확보한 것이 그것이다. 그러던 중 일본헌병대에 체포되어 1910년 10월 26일 경성지방법판소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10) 우병창(禹炳昌, 1866~1952)

의병으로 이담면 곁산리 출신이다. 1909년 농사를 짓다가 양주군 일대에서 의병활동을 하였다. 1910년 일제의 식민지가 된 이후에도 의병투쟁을 계속하였다. 1911년 1월 현내면 선암리(현 은현면) 등지에서 군량미 확보가 그것이다. 그러던 중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경성지방법판소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곧 항소하였으나 1911년 5월 31일 경성항소원에서 기각되어 복역하였다.

(11) 이금래(李兢來, 1883~?)

의병으로 이담면 광암리(廣岩里) 출신이다. 1908년 농사를 짓다가 일제의 침략에 분노하여 정용대 의병부대(鄭用大 義兵部隊)에 들어가 양주군(楊州郡) · 포천군(抱川郡) · 적성군(積城郡) · 영평군(永平郡) 일대에서 항일의병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런데 그의 활동 경력 중 특이한 것은 1908년 음력 10월 포천군 서면 왕방리에서 군량미를 확보하면서 당시 다른 의병들과는 달리 유상(有償)으로 확보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그가 의병투쟁을 벌이면서 가능한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후 적에게 체포되어 1910년 7월 20일 경성지방법판소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12) 유재만(柳在萬, 1882~?)

의병으로 이담면 안흥리 출신이다.

1907년 농사를 짓다가 일제의 침략에 분노하여 김연성 의병부대에 들어가 30여 명의 동료 의병들과 함께 양주군과 연천군 일대에서 의병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던 중 일본군에게 체포되어 1908년 10월 27일 경성지방 재판소에서 유형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13) 전목기(全木基, 1881~?)

의병으로 이담면 창리 출신이다. 1907년 농사를 짓다가 일제의 침략에 분노, 그들을 이땅에서 축출하기 위하여 김연성(金演生) 의병부대(義兵部隊)에 들어가 40여 명의 동료 의병들과 함께 양주군(楊州郡)과 적성군(積城郡) 일대에서 활동하였다. 그러다가 일본군에게 체포되어 1908년 10월 27일 경성지방재판소에서 유형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14) 전순만(全順萬, 1879~?)

의병으로 이담면(伊淡面) 상봉암리(上鳳岩里) 철동(鐵洞)서 농사를 짓다가 1907년 황재호 의병부대(黃在浩 義兵部隊)에 들어가 양주(楊州)와 적성(積成) 일대에서 의병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던 중 체포되어 1908년 10월 8일 경성지방재판소에서 유형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15) 정두환(鄭斗煥, 1880~?)

의병으로 이담면 안흥리 출신이다.

일제를 이땅에서 축출하기 위하여 정용대 의병부대에 들어가 항일투쟁을 펼쳤다. 1909년 의병장 정용대가 적에게 체포되고, 조선이 일제의 완전한 식민지가 된 직후에도 좌절하지 않고 정용대 의병부대의 남은 동료 의병들과 함께 양주군과 적성군 일대에서 투쟁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의병장이 없는 부대의 활동에 한계를 느끼고 1910년 음력 9월에 홍원유 의병부대에 들어가 8명의 동료 의병과 함께 양주군 일대에서 군자금 확보투쟁을 하는 등의 활동을 계속하였다.

그러던 중 적에게 체포되어 1910년 9월 26일 경성재판소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였다.

(16) 정제환(鄭濟煥, 1878~?)

의병으로 이담면 안흥리 출신이다.

1908년 일제의 침략이 더욱 노골화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연기우 의병진에 들어가 연천군과 삭령군 일대를 중심으로 의병투쟁을 전개하였다. 정제환의 활동 내용 중 현재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은 군수품 확보투쟁에 관한 것인 바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08년 음력 9월 삭령군 서면에서 동료 의병 수십 명과 함께 그곳에 있는

포목상으로부터 포목 수십 점을 확보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연천군 서면 면민들로부터 1천 냥의 군자금을 얼마 후 같은 군 서면 면민들로부터 5백 냥의 군자금을 각각 확보하였다.

그러던 중 적에게 체포되어 1909년 4월 17일 경성지방법재판소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17) 정충환(鄭忠煥, 1888~1962)

양주(楊州) 출생으로 서울 동부(東部) 연화방(蓮花坊) 연지동(連池洞)으로 이주하여 살다가 의병이 되었다. 1908년 5월 12일 황재호 의병부대(黃在浩義兵部隊)의 동료 의병 80여 명과 함께 무장을 하고 양주군(楊州郡) 묵은면(默隱面)(현 은현면)에 진입, 의병투쟁에 필요한 군수품을 확보하였다. 이어 같은 달 18일 포천군(抱川郡) 덕둔리(德屯里)에서 군자금을 모금하다가 일본군의 습격을 받아 체포되었다. 1909년 2월 4일 경성지방법재판소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경성공소원에 공소하였으나, 같은 해 3월 19일 기각되었고, 대심원에 상고하였으나 역시 같은 해 4월 5일 기각됨에 따라 복역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을 기리어 1989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8) 추삼만(秋三萬, 1881~?)

의병으로 회천읍(檜泉邑) 출생이다. 이담면 하봉암리(현 동두천시)로 이주하여 농사를 짓고 살았다. 1907년 들어 일제의 침략은 더욱 노골화하여 헤이그특사 사건을 빌미로 고종을 퇴위시키고 정미7조약을 강요하여 한국군대를 강제로 해산시켰다. 이에 분노하여 같은 해 8월 황재호(黃在浩)의병부대에 들어가 동료 의병 20여 명과 함께 양주에서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그 후 이재학(李在學)의병부대로 옮겨 적성군(積城郡)과 삭령군(朔寧郡) 일대에서 무장투쟁을 펼치면서 친일모리배들도 아울러 처단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07년 음력 9월 8일밤 삭령군 남면(南面, 현 양주군) 귀재리(貴在里) 양지동(陽智洞)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군 밀정이자 일진회원(一進會員) 김영덕(金永德)과 이승영(李承寧)을 처단하기 위하여 의병장 이재학의 지휘하에 동료의병 30여 명과 함께 이 마을에 진주하였다. 먼저 김영덕을 포박한 후 담을 넘어 도망가는 이승영에게 발포하여 다리에 관통상을 입히고 그 역시 체포하

였다. 다음날인 9일 아침 이재학 의병장의 명령에 따라 직접 두 친일배들을 처형하였다. 그 후 적에게 체포되어 1909년 12월 21일 경성재판소에서 사형선고를 받았고 공소하였으나 1910년 1월 15일 경성공소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사형당하고 말았다.

(19) 홍희영(洪喜永, 1881~?)

이담면 보안리 출신의 의병이다.

양주군 일대에서 의병투쟁을 펼쳤다. 직업은 농업이다. 1907년 홍정순 의병 부대에 들어가 의병이 되었다. 이 해 음력 10월 경 동료의병 40여 명과 함께 양주군을 비롯하여 포천군 일대에서 의병투쟁을 전개하였고, 같은 해 음력 12월에는 현내면(현 상패동) 신촌에서 군자금 확보 투쟁을 펼쳤다. 이같은 활동을 하던 중 적에게 체포되어 1908년 11월 10일 경성지방재판소에서 유형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20) 김병주(金秉周, 1884~?)

1884년 이담면 보산리 출생으로 의병에 투신하였다. 김연성 의병부대에 들어가 양주·포천·적성 등지에서 활동하다가 일경에게 잡혀 모진 고문과 악형으로 출옥 후 형독으로 죽었다.

(21) 이명기(李明基, 1881~?)

1881년 포천군 탑동에서 출생하여 농사에 종사하다가 의병에 투신하였다. 1907년 연기우(延基羽) 의병부대에 들어가 양주·포천·적성 등지에서 활동하다가 1910년 일경에 잡혀 많은 고초를 겪었다.

(22) 김병원(金秉愿, 1882~?)

1882년 이담면 보산리에서 출생했다. 농업에 종사하다가 의병에 투신하여 활동하다가 1908년 김연성(金演性) 의병부대에 들어가 양주·포천·적성 등지에서 활동하다가 부상을 당해 평생 반신을 못쓰는 불구로 세상을 마쳤다.

(23) 이병하(李秉夏, 1873~?)

1873년 탑동 조산(造山)마을(현 동두천시)에서 태어났다. 농사에 전념하다가

1908년 정용대 의병부대에 들어가 양주·포천·적성 등지에서 활동하다가 1910년경에 잡혀 모진 악형으로 고문을 당해 불구가 되어 출옥하여 고초로 생을 마쳤다.

(24) 김병시(金秉媿, 1891~?)

1891년 이담면 보산리에서 출생하였다. 농업에 종사하다가 1908년 젊은 나이로 종질(從姪)인 김연성(金演性) 의병부대에 들어가 양주·포천·적성 등지에서 전목기·유재만 지사들과 같이 투쟁을 전개하는 등 경기북부의 의병운동이 지속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식량과 무기 등의 부족으로 많은 고초를 겪었다.

제9절 일제강점기의 동두천

1. 시대의 특징과 구분

일제강점기(日帝強占期, 1910년 8월 29일 ~ 1945년 8월 15일)는 한반도가 일본 제국의 지배 아래 놓였던 시기이다.

일반적으로 이 시기를 일본의 한반도 지배 정책에 따라 세 시기로 구분하는데, ‘헌병경찰통치기(무단 통치기)’(1910~1919년), ‘민족분열통치기(문화 통치기)’(1919~1931년), ‘민족말살통치기’(1931~1945년)로 각각 지칭한다.

1876년 강화도조약 이래 일본 정부는 조선을 무력으로 식민지화하기 위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였고, 1894년 청일전쟁과 1905년의 러일전쟁에서 승리하여 조선에 대한 침략을 가시화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그 외에도 엄연한 독립국인 대한제국의 국권을 무시하고, 영일 동맹 및 태프트-가쓰라 밀약 등으로 제국주의적 침략을 본격화하였으며, 1905년의 무력을 동반한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침탈한 데 이어 한일신협약과 기유각서 등으로 대한제국의 국권을 차례차례 박탈하였다.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조약(한국에서는 경술국치라고 한다)이 맺어지면서 5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대한제국은 일본제국의 영토로 편입되었다. 이로써 한반도 전체가 일본제국의 식민지가 되어, 소위 천황 직속의 식민 통치 기구인 조선총독부에 의해 1945년까지 35년간 가혹한 식민 지배를 받게 되었다.

1) 헌병경찰통치기(1910 - 1919년)

‘헌병경찰통치기’라는 명칭은 1910년 9월에 창설된 헌병경찰제도에서 나왔다. 즉 헌병이 일반 경찰 행정까지 담당하면서, 언론·집회·출판·결사의 자유를 박탈하고, 즉결처분권 등을 갖는 것을 말한다. 조선 총독은 일본군 헌역 대장 중에서 임명되었고, 천황에 직속되어 입법권·사법권·행정권 및 군대 통솔권까지 장악하였고, 내각이나 의회의 간섭을 받지 않았다. 총독의 아래에는 행정을 담당하는 정무총감과 치안을 담당하는 경무 총감을 두었고, 2만여 명의 헌병경찰과 헌병보조원을 한반도 전역에 배치하여 무단 통치를 자행하였다. 헌병 경찰은 치안업무와 함께, 독립 운동가 색출과 기타 민생 관련 전반에 관여하였는데, 여기에 당시 통치의 강압성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조선 태형령으로, 갑오개혁 때 폐지된 태형을 조선인에게만 적용하여 처벌한 것이다. 또한 이 시기에는 조선인의 각종 단체가 해산당하였는데, 1911년 신민회를 해산시킨 ‘105인 사건’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또 일본은 신문지법, 출판법, 보안법을 통해 조선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였다. 그리고 제1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여, 3면 1교 주의를 채택하고 수업 기간을 축소하여 조선인의 교육 기회를 대폭 축소하였다. 학제는 보통교육과 전문학교, 실업학교만 인정하여 대학교육은 그 자체를 불허하였다. 그리고 근대 시기부터 존재한 개량서당이나 애국계몽세력이 설립한 사립학교를 서당 규칙과 사립학교 규칙을 통해 탄압하였다. 이 시기에는 교사가 제복과 같은 찬 채 수업하여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일본은 식민지 지배를 위한 재정을 마련하고 일본인의 토지 수탈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1912년부터 토지조사사업을 진행하여 기한부 신고제를 잘 이해하지 못한 농민들의 토지를 침탈하였고, 소유권이 불분명한 마을이나 문중의 토지, 정부와 왕실의 토지 등을 동양척식주식회사에 넘겼다. 침탈된 토지는 일본 이민자들에게 싼 값에 팔렸고 이 때에 종래의 관습적 경작권인 도지권 개념을 완전히 무시하였다. 이는 한반도 실질적 근대 토지 소유 개념을 도입한 정책이기는 하나, 광무개혁 시기에 이뤄진 양전사업이나 지계의 발급이 일본 측의 방해로 실패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 실질적 의도는 토지의 침탈이었다.

이외에도 조선 총독부의 허가에 의해서만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회사령을 공포하여 민족 자본의 성장을 억제하고 결국 일본 기업이 대부분의 중요산업을 독과점한 채, 일부 조선인만이 정미업이나 피혁업에 종사할 수 있었다.

산림령과 임야 조사령, 어업령, 광업령 등으로 민족자원의 약탈이 가속화해 경제적 지배권은 완전히 일본에 넘어가고 한국을 원료 공급지와 상품 시장으로 전환시켰다. 담배와 인삼, 소금의 전매제를 실시하여 식민지 재정 수입 증대를 꾀하는 한편 신작로와 간선 철도, 항만 시설을 정비하여 한국의 식량과 원료를 일본으로 수송하고, 일본 상품의 한국 판매를 효율화하였다.

일본의 경제적 수탈로 인해 한국인들은 토지를 잃고 생활은 피폐해져 많은 사람들이 농지를 찾아 만주로 떠났고, 1920년 17만여 명이던 일본인 한국 거주자는 1940년에는 70만 명으로 급증하였다.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민족자결주의를 주창함에 따라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이 일어나면서 전국적으로 평화적인 만세 시위가 일어났다.

일본은 이를 적극적으로 탄압하여 결과적으로 만세운동은 실패 하였으나, 이후 독립운동이 조직적으로 체계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조선 총독부의 통치 정책 방향 또한 급선회하게 되었다.

2) 민족분열통치기 (문화 통치기, 1919 ~ 1931년)

3·1 운동에 의해 일본 정부나 총독부 측에서는 기존의 통치 방식을 심각하게 재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사이토 마코토 총독의 파견을 기점으로 기존의 강압적 통치에서 회유적 통치로 그 방향을 선회하게 된다.

그 결과 제한적이거나 단체 조직 및 언론 활동이 허용되었고, 아주 기초적인 초등 교육과 농업 교육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강압통치의 본질을 유지한 채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하여 친일파 양성을 통해 조선 민족의 분열을 시도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가혹한 식민 통치를 철저히 은폐하고 오히려 강화하려는 간악하고 교활한 통치 방식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사이토 총독의 대책문에서 뚜렷이 알 수 있다.

1. 핵심적 친일 인물을 골라 그 인물로 하여금 귀족, 양반, 유림, 부호, 교육가, 종교가에 침투하여 계급과 사정을 참작하여 각종 친일 단체를 조직하게 한다.
2. 각종 종교 단체도 중앙 집권화해서 그 최고 지도자에 친일파를 앉히고 고문을 붙여 어용화한다.
3. 조선 문제 해결의 성공 여부는 친일 인물을 많이 얻는 데에 있으므로 친일 민간인에게 편의와 원조를 주어 수재 교육의 이름 아래 많은 친일 지식인을 긴 안목으로 키운다.
4. 양반 유생 가운데 직업이 없는 자에게 생활 방도를 주는 대가로 이들을 온갖 선전과 민정 염탐에 이용한다. 조선인 부호 자본가에 대해 일·선 자본가 연계를 추진한다.
5. 농민들을 통제 조정하기 위해 민간 유지가 이끄는 친일 단체인 교풍회(矯風會), 진흥회(振興會)를 두게 하고, 이들에게 국유림의 일부를 불하해 주고 입회권을 주어 회유, 이용한다.

일본제국주의 침탈세력이 한반도에서 축출될 때까지 단 한 명의 문관 총독도 임명되지 않았고, 헌병경찰제를 보통경찰제로 바꾸었다고는 하나 오히려 경찰 수와 장비는 더욱더 증강되었으며, 전문적으로 독립운동가 색출을 위한 '고등경찰제'를 도입 운영하였다. 또 신문에 대한 검열·삭제·폐간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1925년에는 치안유지법을 도입하여 민족 운동을 적극 방해하였다. 거기에 더하여 문화통치를 통하여 자신들을 조선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소수의 친일 관료들을 키워 조선인을 이간, 분열시키고, 민족의 근대 의식 성장을 오도하며,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을 탄압하는 한편, 초급 학문과 농업 교육만을 허용하여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도움이 될 친일집단을 대량 양성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결국, 민족주의 세력은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민족 개량주의로 분열하고, 민족성 개조론에 입각한 자치 운동(참정권 운동)으로 독립투쟁의 수위를 낮추게 된다.

한편으로 이 시기에는 일본의 급격한 공업화로 인한, 일본 내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산미증식계획이 추진되어 토지를 개량하거나 수리 조합의 역할을 증대하여 한반도의 미곡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증산되는 양보다 오히려 일본으로 유출되는 양이 더 많아져 한반도의 식량 부족이 심각해졌다. 거기다 증산 비용을 소작 농민에 전가하고 식민지 지주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등 식민지 지주제가 더욱 심화해 갔다. 이 계획은 1930년대 초반 일본 내부의 쌀 공급 과잉으로 잠시 중단되었으나, 1930년대 후반 대륙 침략이 가속화하면서 다시 재개되었다.

또 1차 대전을 통한 일본 공업 자본의 성장으로 잉여 자본을 통한 식민지 공업화 정책이 강화되었다. 제사, 면방직 등의 경공업 중심의 중소 자본 투자가 증가하였고, 일부 대자본도 조선에 투자하였다. 아울러 조선 자본에 의한 회사와 공장이 확대되어 조선인 노동자 수가 증가하였는데, 민족 간의 임금차별과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노동쟁의가 활성화되기도 하였다.

3) 민족말살통치기(1931 ~ 1945년)

만주사변이 발발하면서 일본은 중국 침략을 본격화하여 한반도를 일본의 중국 대륙 진출의 병참 기지로 삼고, 지배 정책도 병참 기지화 정책으로 선회한다. 이 시기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 등을 공포하여 사상 통제를 강화하였고 '일선동조론'과 같은 역사 날조도 자행되었다.

일제는 대공황 이후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보호 무역 강화로 면방직 원료의 공급이 부족해지자 공업 원료를 증산하기 위해 '남면북양(南綿北羊)' 정책을 수립하여 남부에는 면화 재배를, 북부에서는 면양 사육을 독려하였다. 그리고 대륙 진출을 위한 병참 기지화 정책에 따라,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에 발전소를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북부 지대에 군수공장을 대거 건립하였다.

1937년 중일전쟁을 기점으로 중국 침략 전쟁을 본격화하면서, 국가총동원령 하에 산미증식계획이 재개되고 미곡공출제가 시행되어, 한반도 민중은 식량을 배급받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다. 이 침략전쟁 초기에 지원병제와 징용제를 실시하였고, 1940년대 태평양전쟁을 도발하면서 일제는 더욱 한반도 수탈에 광분하였다.

조선인들을 완벽한 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한 민족 말살 정책이 추진되어, '내선일체'와 '일선동조론'에 의거한 '황국신민화정책'이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은 황국신민의 서사 암기와 신사참배 및 일본어의 사용을 강요하였다. 애국반을 통해 국민 생활 전반을 통제하였는데, 학교의 한글 교육은 중단되었고, 한국의 역사를 배울 수 없게 되었으며, 창씨개명이 강압적으로 행해졌다. 민족성이 강한 전문학교는 폐교되거나 강제 개편당했다. 또한 우리말 교육을

금지하여 학교에서 조선어 과목을 폐지하고 조선어학회를 강제 해산하였다.

특히 일본은 강제 징용으로 노동력을 착취하였다. 1941년까지 약 160만 명의 한국인이 일본 내의 공장, 건설 현장, 탄광, 농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또한 일본은 징병 제도를 실시하여 수많은 젊은이들을 전장의 총알받이로 내모는 한편, 10만에서 20만 명에 이르는 젊은 여성들을 정신대(挺身隊)라는 이름으로 강제 동원하여 군수 공장 등지에서 혹사시켰으며, 그 중 일부는 중국과 남양지방의 최전선에 투입하여 군인 상대의 일본군 위안부가 되게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최근 들어 그 진상이 밝혀지기 시작한 중군 위안부 문제를 간과하기 어려운 까닭은 이러한 범죄 행위가 개인이 아닌 국가에 의해 조직적으로 행해졌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태평양전쟁 패전과 함께 한반도가 해방되면서 일제 시대는 종결되어 한반도는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이하였다.

2. 일제강점기의 동두천 행정 구역

일제는 대한제국을 병합하고 조선총독부를 설치하면서 1901년 「조선총독부 관제」를 공포하였으나 지방의 행정체제는 여전히 대한제국의 관제를 습용하였다.

그러다가 1913년에 이르러 부(府), 군(郡), 면(面)의 정리, 통·폐합이 이루어져 양주군 관할이던 영근면이 연천군으로, 고양주면이 고양군으로 각각 편입되어 양주군 관할에는 주내, 회천, 은현, 광적, 백석, 시둔, 별내, 진접, 진건, 화도, 와부, 미금, 구리, 노해, 장흥, 그리고 이담의 16면이 배정되었다. 이중에 시둔면이 1938년 의정부읍으로 승격하여 군청을 비롯한 행정 관청이 이전하였다.

1913년 구 한국의 행정구역을 정리할 당시의 이담면은 다음과 같다.

1) 『朝鮮英密醫府官報』 1914.9.26

하봉암리 - 하봉암리, 상봉암리, 동막동 각각의 일부
 상봉암리 - 상봉암리, 하봉암리, 동막동, 안흥리, 창말 각각의 일부
 동두천리 - 가정자리, 창말, 싸리말, 보안, 안흥리 각각의 일부
 안흥리 - 안흥리 일부
 보산리 - 동두천리, 보안, 싸리말, 황매동 각각의 일부
 생연리 - 못말(연동리), 황매동, 생골, 싸리말, 종이골 각각의 일부
 광암리 - 광암리 일부
 지행리 - 종이골, 생골, 행단 각각의 일부
 송내리 - 안골(내동리), 송라리, 행단 각각의 일부

이후 일제에 의하여 경원선 철도가 부설되고, 이담면 지역에 동두천역이 설치되면서 이담면은 공식적인 지역명인 이담을 대신하여 동두천이라는 역명이 더욱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결국은 '동두천'이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명으로 자리잡게 된다. 한편 일제시기 동두천에 설치되었던 행정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이담면사무소

일제는 당시 양주군 이담면으로 확정된 동두천지역의 행정을 위하여 면사무소를 설치하였다. 면장을 한국인으로 임명하고 일부 직원도 한국인을 채용하였으나 행정의 일체는 일제에 장악되어 식민 통치의 내무 행정의 일환으로 운영되었으며 그들의 통치 방식을 철저히 반영하였다. 다음의 자료에 나타나는 것처럼 수탈과 강압이 면사무소 운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 경기도(京畿道)의 안주가도(安州街道) 교량가설공사(橋梁架設工事) 시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양주군민(楊州郡民)의 부역(夫役)을 부과(賦課)하다.
 부역(夫役) 3,002명(시둔면(柴屯面) 211명, 주내면(州內面) 891명, 회천면(檜泉面) 213명, 은현면(隱縣面) 713명, 이담면(伊淡面) 974명)¹⁾
- 이담면(伊淡面) 당국(當局)에게
 어느 관청(官廳)이나 인민(人民)을 근본(根本)하지 아니리오 마는 더욱이 면사무소로 말하면 인민(人民)의 관계(關係)가 가장 밀접(密接)해야 그의用心(用心) 여하(如何)가 민간(民間)의 안위(安危)고락(苦樂)에 미침이 빠르나니 만약 태홀(怠忽) 오만(傲慢)이 행정(行政)하는 사이에 일호(一毫)라도 잇스면 그 면(面)의 인민(人民)은 곧 학정(虐政)에 신음(呻吟)함을 면(免)치 못하리라. 이러쿠서 면(面) 당국(當局)에 엄연자처(儼然自處)하면 어찌 육민(戮民)의 죄(罪)를 면(免)하리오.

지금 조선(朝鮮) 인민(人民)의 궁아(窮餓)가 불인(不忍) 도(觀)할 절정(絶頂)에 달(達)함은 누구나 시인(是認)할 것이며 이런 처지(處地)에 있는 우리 민족(民族)의 금일(今日) 부과(賦課)가 너무나 태심(太甚)한 것은 누구나 또한 부인(否認)치 못할 사실(事實)이다.

이러면 이러한 잔폐(殘廢)한 인민(人民)에게 태심(太甚)한 세금(稅金)을 받다가 혹(或)은 사복(私腹)을 채우며 혹(或)은 무용(無用)에 낭비(濫費)하면 이는 곳 천지(天地)간(間) 용납(容納)치 못할 죄(罪)이다. 이럼을 불구(不拘)하고 이담면(伊淡面) 직원(職員)으로 면비(面費)를 수백원(數百圓)씩 소비(消費)한 일이 2차(次)나 잇섯스니 이 돈이 모다 인민(人民)의 피와 기름을 짜낸 것이어늘 이처럼 무성의(無誠意)하게 소비(消費)하였으면 면(面) 대표(代表)라는 면장(面長)의 부하(部下) 감독(監督)이 불성실(不誠實)함을 추측(推測)키 불난(不難)하다.

추수(秋收)사 방은(方殷)한 이때에 무리(無理)한 부역(負役)으로 인민(人民)을 구사(驅使)하면 이는 학민(虐民)이다. 보교장(普校長)²⁾의 사택(私宅)을 건축(建築)함은 교장(校長) 자신(自身)의 일(一)이요, 인민(人民)이 하등(何等)의 부역(負役)할 의무(義務)가 없거늘 면장(面長)으로 무리(無理)히 사역(使役)을 시킴은 그 의의(意義)가 어대 있는지 추측(推測)키 난(難)하도다. 의무(義務)가 없는 사역(使役)을 시킴이 상자(上者)에게 아함(阿陷)이 아니면 곳 자기(子器)의 권력(勸力)을 남용(濫用)함이 아닌가? 일면(一面)이 적다하여도 누천인(累千人)이 거주(居住)하는 데요 그 면(面)을 대표(代表)한 자는 인민(人民)의 안위(安危)를 담임(擔任)한 자이다. 이런 중임(重任)을 자부(自負)하고서 부하(部下)의 자행(恣行)을 미연(未然)에 방지(防止)하지 못하고 사실(事實)이 발생(發生)한 뒤에도 엄준(嚴峻)한 자책(自責)과 처치(處置)가 업스며 추수(秋收) 방은(方殷)한 이때에 무리(無理) 사역(使役)으로 인민(人民)의 력(力)을 강탈(強奪)하니 차배(此輩)의 미테서 생활(生活)을 엇고자하는 잔민(殘民)이 엇지 안도(安堵)하기를 어드리오?

“가정(苛政)이 심어호(甚於虎)³⁾”라더니 이런데서 참 그런 줄을 깨닫겠도다.

이담면(伊淡面) 당국자(當局者)여!

하로 밧비 인민(人民)의 부담(負擔)을 덜어주기 바라는 동시에 충고(忠告)를 던져 두는 것이다 (간원생(懇願生)⁴⁾)

이처럼 일제 면사무소의 행정이 조선인을 향한 수탈과 억압의 전면에 있었으므로, 면사무소는 저항과 항거의 대상이 되었다. 1919년 3월 26일 동두천 일대에서 전개된 만세시위 당시 민중이 당시 이담면장이었던 신공우를 강제하여 앞장 세우고 만세를 부르게 하였던 일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한다.

한편 당시 이담면사무소의 신축을 위하여 거금을 헌금한 사람이 있어 신문에 미담으로 보도되기도 하였다.

“면사무소 개축비로 2천 원을 희사”

양주군 이담면 동두천리 김원명(金元明) 씨와 동군 동면 보산리 김진구(金振求) 씨 양씨는 다년간 사회사업에 진력하여 오던바 본 면사무소가 퇴락되었음을 보고 각각 천원씩 면사무소 건축비로 기부하였다 한다.⁵⁾

다음은 일제 강점기의 양주군수와 이담면 면장의 명단이다.

2) 보통학교 교장의 줄임말이다.

3) 혹독한 정치가 호랑이보다 더욱 무섭다라는 뜻

4) 『시대일보』 1924년 10월 10일 자 <분화구(噴火口)>

5) 1935년 11월 6일 자 『동아일보』

〈표 2-8-17〉 일제강점기의 양주군수

성명	재임기간
고원식(高元植)	1911-1915
강원달(康元達)	1916-1922
송영환(宋榮煥)	1923-1926
홍종국(洪種國)	1927-1930
송문화(宋文華)	1931-1935
원산수도(遠山秀道)	1936-1937
조기행(趙箕行)	1938-1939
가천의영(嘉川義英)	1940-1941
삼산청오(森山淸吾)	1942-1943
김정재(金正濟)	1943-1945
김종규(金宗奎)	1945-1947

〈표2-8-18〉 일제강점기의 이담면장

역대	성명
초대	조규주(趙奎周)
2	홍기영(洪嗜泳)
3	이근하(李根夏)
4	신공우(申公雨)
5	어명례(魚命禮)

※ 재임기간 불명

2) 양주경찰서, 양주헌병대 유산리(杻山里) 분견소

1910년대 총독부의 식민 통치 핵심 기관은 헌병 경찰이었으며, 이를 통한 무단 통치가 그 특징이었다. 경무총장의 지휘를 받은 헌병 경찰은 치안은 물론 일반 행정 및 사법 행정에도 관여하여 한국 강압 통치의 주역을 담당하였다. 헌병 경찰의 기구를 보면, 헌병사령부와 헌병사령관이 겸임하는 경무총감 밑에 각 도의 헌병대본부와 각 도의 경무부가 있으며, 각 도의 경무부장은 각 도 헌병대본부장이 겸임하였고, 서울은 헌병사령부 직할이었다. 헌병대본부 아래에 헌병과견대, 헌병분견대, 헌병분대 등으로 나누어지고, 각 도의 경무부 아래에는 순사파출소와 순사주재소, 그리고 수상경찰서와 경찰서가 있었다. 서울에는 경찰서, 경찰분서, 순사주재소, 순사파출소 등이 있었다.

헌병 경찰의 업무는 일반 치안 업무와 위생 업무, 범죄 즉결, 민사 소송 조정, 검찰 사무, 집달 사무를 집행하고 도로 관리, 삼림 보호, 식수 장려 등 행정에도 관여하였고, 일부 지방에서는 관세 사무, 어업 단속, 우편물 보호 업무도 수행하였다. 그 외에도 벽지에서는 일본어 보급, 징세 사무, 강우량 측정 등 광범위한 행정을 담당하였다.

동두천 지역에는 현재의 동두천 역전 지역에 유산리 헌병분견소가 있어 일제의 헌병 경찰과 이를 보조하는 한국인 헌병보조원, 그리고 밀정 등이 독립운동 탄압과 착취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치안 확보에 종사하였다.

- 6) 『동아일보』 1921년 9월 21일 자
- 7) 『동아일보』 1922년 9월 9일 자
- 8) 1926년

3) 동두천역

경원선이 개통되면서 동두천 지역에 동두천역이 설치되고 이로써 동두천이 우리 지역의 대표 지명으로 확정되는 계기가 된다. 동두천역에 경원선 열차가 정차하면서 역 근처의 소요산 단풍은 매스컴의 보도와 입소문을 타고 전국에 알려지고 특히 학생들의 소풍지와 풍류객의 유람지로 각광을 받아 단풍철에는 임시열차가 배정될 정도였다.

- 자재암에 임시열차

- 경원선 승객에 편의

만철회사(滿鐵會社)에서는 차차 가을 빛이 깊어가고 일기가 서늘하여 단풍(丹楓)을 구경하는 승객이 자로 왕래(往來)하게 되었으므로 지난 15일부터 금월 말까지 경원선 소요산(逍遙山) 및 자재암(自在庵) 입해 임시로 정거장을 설치하고 임시로 정거장의 사무를 취급한다더라⁶⁾

- 단풍열차(丹楓列車) 운전(運轉)

- 경원선(京元線) 소요산(逍遙山)에

가을이 되면 경원선 동두천(東豆川) 부근에 있는 소요산(逍遙山)으로 구경 가는 사람이 만으므로 그러한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만철(滿鐵) 경성관리국에서는 오는 15일부터 10월 말일까지 동두천(東豆川)과 전곡(全谷) 사이에 하루에 두 번 임시열차를 운전 한다 하며 남대문정거장, 룡산정거장, 인천정거장에서 활인 왕복 승차권을 발매한다더라.⁷⁾

그러나 일제의 경원선 동두천역의 설치 운행의 본질은 식민지 착취를 위한 기본 인프라 건설이었으므로 이 본질을 추구하는 데 보다 더 중점을 두었다. 그들은 경원선 전체를 사찰하며 특히 여행객의 동향과 혹시 있을 수도 있는 독립운동가의 열차 이용을 샅샅이 검색하고 있었다.

다음은 그들이 극비로 분류한 문서의 하나로 일제의 경원선 운행이 어떤 목적과 의도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승객에 대한 사찰이 어느 정도로 철저했는지를 보여주는 직접적인 문헌 증거이다.

- 연고비(漣高秘) 제312호

대정15년⁸⁾ 6월 13일 연천경찰서장

경기도 경찰부장 앞

경성지방법원 검사정 앞

열차(列車) 안의 사찰(査察) 경계(警戒) 상황(狀況) 일보(日報)
(5월 11일 부 경고비(京高秘)제2549호에 대한 통첩입니다)
위의 건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6월 13일 상행 각 열차에 탑승한 순사의 성명과 취급사항

열차시간	역별 하차 인원					열차탑승자 성명		
	청량리	왕십리	용산	경성	계	감독자	순시자	
오전 4시 45분	39		12	57	108		復部德儀	이제한
오전 8시 13분	70	30	10	10	120		정희봉	
오후 3시 35분	150	20	50	30	250		富田傳藏	이제한
오후 6시 27분	72	7	8	14	101		日下部伊平	

9) 1934년 9월 20일자 "동아일보"
10) 이 광고는 동두천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동일한 내용의 광고가 의정부역 동아일보 여수 자국 등의 명의로 동일 지면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각지의 역은 그 나름대로의 관광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동두천역은 조선총독부 산하 철도국 소관, 경성운수사무소의 통제를 받고 있었으나 그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사업도 운영하고 있었다.

1934년에 신문에 게재된 다음 광고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금강산(金剛山) 탐승단(探勝團) 모집

제1단 9월 23일 오전 0시 25분 발(發)

9월 25일 오전 4시 47분 착(着)

제2단 9월 24일 오전 0시 25분 발(發)

9월 27일 오전 4시 47분 착(着)

여비 금14월 50전

주최 동두천역

후원 동아일보사 동두천 분국⁹⁾

이 자료는 동두천역에서 제한적이거나 독자적인 사업을 벌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당시 금강산을 탐승하는 풍습의 일단을 엿볼 수 있어 대단히 흥미롭다.¹⁰⁾ 이외 동두천역의 규모나 운영 조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찾지 못하였다.

이후 경원선 열차는 승객의 이동은 물론 특히 함경도 일대에서 생산되는 우피(牛皮)나 북어(北魚) 등 물산의 수송을 통하여 식민지 경영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 11) 1914년
- 12) 1930년
- 13) 1930년 6월 25일 자 조선총독부 관보 1042호
- 14) 『朝鮮總督府官報』 1913.9.20

4) 동두천소방서

일제는 1930년 6월 25일자 관보를 통하여 1914년 동두천에 설치된 소방서의 정원(定員)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하였다.

- 조선총독부 경기도 고시 제 49호
대정(大正) 3년¹¹⁾ 1월에 설치한 동두천 소방서의 소방조(消防組)의 조원(組員)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소화(昭和) 5년¹²⁾ 6월 13일 조선총독부 경기도지사 도변 인(渡邊 忍)

조두(組頭)	부조두(副組頭)	소두(小頭)	소방수(消防手)	계(計)
1	1	5	30	37

동두천 소방서가 설치된 이후에도 상당기간 <동두천 소방조>라는 명칭으로 불린 것으로 보아 일제 강점기의 동두천 소방서는 아마도 지서나 파출소의 개념으로 운영되었던 것 같다. 기타 보유 장비나 운영의 자세한 내역은 현재 파악된 자료로는 그 상세를 알 수 없다.

5) 동두천우편소

동두천 우편소는 1913년 9월 13일에 설치되었다.

일제 조선총독부 관보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보도한다.

- 동두천우편소(東豆川郵便所) (양주군 이담면 동두천리(楊州郡 伊淡面 東豆川里)), 구룡포우편소(九龍浦郵便所) (장기군 외북면 사라리(長鬮郡 外北面 土羅里))를 설치(設置)하다.¹⁴⁾

이 우편소는 우체, 통신, 저금, 송금 등의 업무를 보았고 조선총독부 직속 체신국, 경성우편국분장구역 소속이었다. 소장은 10급관으로 마쓰기(松木己之助), 모리다(森田喜三郎), 토이(土井義次郎), 아리카와(荒川 濟) 등 역대 소장이 이 직을 역임하였다.

6) 동두천판매소

15) 『동아일보』 1933. 2. 17

동두천판매소는 전매청의 역할을 한 곳으로 주로 담배의 판매를 담당하였다.

동두천판매소는 총독부 - 전매국 - 경성전매 지국 - 직할 동두천판매소로 그 관할이 구성되었으며 양주 지역에는 의정부와 동두천 두 곳에 이 판매소가 설치되었다.

다음 자료는 1934년 당시 담배 소비에 관한 통계로서 당시 사회상과 지역 경제의 일단을 이해할 수 있다.

○ 경기도 양주군의 1932년 1년간 담배소비액 : 115,318원84전
(의정부판매소 77,289원84전 · 동두천판매소 38,029원)¹⁵⁾

판매소의 위치와 규모 운영 내용은 상세히 알 수 없다.

7) 이담면협의회

일제의 면(面) 단위 행정 협의체로서 일종의 지방 의회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민심을 수합하고 당시 일제에 협력적인 현지 조선인을 규합하여 행정 자문과 체제 홍보의 역할을 겸하였던 것으로 실제로는 일종의 명예직 역할을 담당 하였으나 선임은 선거의 형식을 띠고 있었다.

1935년 선출된 이담면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다.

김문호(金文鎬) 목정상(穆鼎相) 이우필(李愚必) 토이 기지로(土井義次郎)
정용성(鄭用成) 홍병헌(洪秉憲) 이약우(李若雨) 황○수(黃○秀)
김연○(金演○)

3. 3 · 1만세운동과 동두천

1) 3 · 1 만세운동의 개요

1910년 8월 국권을 일제에 강탈당한 후 일제에 의하여 10여 년간 자행된 무자비한 폭압정치는 헌병경찰제도를 통한 무단 억압과, 특히 동양척식회사를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진행된 토지 수탈의 결과 전국적인 반발과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다. 마침 제1차 세계대전을 종결하는 강화회의가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서 개최되고 이 회의를 주도하던 전승국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강화의 원칙으로 「민족자결의 원칙」을 선포하면서 아시아를 비롯한 각지 피억압 민족은 자결권 획득에 지대한 관심과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

우리 민족 역시 일제의 억압통치에 대한 반발과 자주 독립에의 의지를 세계에 표명하고 민족 자결권을 쟁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선구적 역할을 담당한 것이 바로 동경의 한인유학생들에 의한 2·8 독립선언이었다. 일본에 유학중이던 한인 유학생이 2·8 독립선언을 발표하자 국내의 민족지도자들도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간다. 그들은 우선 천도교와 기독교가 각각 준비하던 독립운동을 하나로 합치기로 결의하고 여기에 불교계 인사들을 합류시켜 거족적인 의거 준비에 돌입하였다.

천도교의 손병희(孫秉熙)와 기독교의 이승훈(李昇薰)이 중심이 된 민족 지도부는 독립운동을 비폭력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기독교, 천도교, 불교를 망라한 33인의 민족대표를 선정하는 한편, 최남선이 기초한 독립선언서를 천도교가 운영하던 보성인쇄소에서 은밀히 인쇄하여 각지에 운반·배포하였다.

마침 고종황제가 붕어(崩御)하고 황제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일제에 의한 독살 이라는 풍문이 확산되면서 인산(因山)일로 정해진 3월 3일에는 황제 장례식에 참가하기 위한 대규모의 군중이 서울에 모일 것을 예상하고 이를 만세시위에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인산 당일인 3월 3일은 황제에 대한 예우로 피하기로 하여 하루 전인 3월 2일을 거사일로 검토하였으나, 이날은 일요일이어서 거사 주체의 하나인 기독교 측의 꺼리는 바 되어 다시 하루를 더 앞당겨 3월 1일로 거사일이 결정되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적인 거사를 위하여

각 지방은 해당 지역의 기독교 교회와 천도교 회당을 근거로 신도 및 군중을 동원하며, 독립선언서를 운반하고 지역적인 연락조직을 가동하는 실무는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담당하기로 하였다.

1910년 3월 1일 종로 태화관에 모인 민족지도자들이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 엄숙히 독립을 선언하는 한편, 별도로 파고다 공원에 운집한 5,000여 명의 군중들은 12시 정각 정재용(鄭在鎔)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는 것을 시작으로 만세 시위에 돌입하였다. 동시에 당일 지방에서도 만세 시위가 벌어져 진남포, 대구, 선천, 안주, 의주, 원산, 함흥 등지에서 대규모의 시위가 벌어졌다. 이후에도 국장 당일인 3월 3일을 제외한 4월 중순까지 전국은 만세시위의 열풍에 휩싸였고, 휴교, 철시, 파업, 퇴직 등 다양한 형태의 저항이 신분, 지역, 종교, 남녀를 초월하여 저속적이고도 치열한 항쟁이 전개되었다. 일제는 만세 시위를 제압하기 위하여 헌병, 경찰을 총동원한 무력 유혈 진압에 나서 숭한 인명 피해를 불러왔고 시위자의 체포, 구금, 처형은 물론 건물 수색, 방화에 학생들의 정학, 퇴학에 이르기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특히 제암리의 학살과 같은 비인도적인 만행도 서슴치 않았다.

3·1운동 이후 3개월간의 만세운동 상황은 202만 3,089명이 시위에 참가하였으며, 시위 횟수는 1,542회, 사망자 7,509명, 부상자 15,961명, 피체포자 46,948명이었으며, 헐리고 불탄 민가가 715호, 교회가 47개소, 학교가 2개 교였다.

조선총독부의 축소된 공식 집계에 따르면이라도, 총 106만 명이 시위에 참가하였고, 진압 과정에서 553명이 사망, 12,000명이 체포되었다

조선 민중의 거족적인 저항에 직면한 일제는 3·1 만세시위 이후 조선 통치의 방향을 수정하여 기존의 무단통치 대신 문화통치를 표방하며 교묘한 민족 이간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민족지도자들 역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국권회복운동을 도모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발족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외교, 문화, 군사의 전 방향에서 가열찬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가게 되었다. 아울러 3·1 만세운동은

중국의 5·4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인도네시아의 대 네덜란드 독립운동에도 큰 자극을 주어 이후 제국주의자들의 압제에 대항하는 민권운동의 기폭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2) 동두천의 3·1 만세운동

3월 1일 서울 지역과 동시에 시위가 벌어진 곳이 바로 개성이었는데, 고종의 인산(因山)이 거행된 3월 2일과 3일에 서울에서는 시위가 없었지만 개성에서는 2일에는 물론 6일까지 연속 6일간 줄기찬 만세 시위가 이어진다. 개성에서의 시위는 인근 양주에 영향을 주어 3월 14일에 퇴계원 노루고개(獐峴)와 금곡으로부터 양주지역의 시위가 시작되어 덕소, 마석 등으로 확산되어 간다. 3월 21일에는 연천지역의 백학에서 시위가 일어나 미산 전체로 확산되고 이어 23일부터는 양주의 인근지역인 돈암동, 왕십리, 녹번동, 구파발 등에서도 큰 규모의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동두천의 3·1 만세시위는 3월 26일에 발발하였다.

기록에 나타나는 이 날의 상황을 먼저 검토해 보자.

A. 『매일신보』

양주, 3월 15일 덕소(德沼)에서 500여 명의 시위가 있었고, 동 26일에는 동두천(東豆川)에서, 29일에는 양주(楊州)에서 500여 명이 시위하였는데 30일에는 일경의 발포로 2명의 죽사를 비롯하여 수십 명의 부상자와 피검자가 있었다.

B. 1978년 「양주군지」

일시	지역	유형별	인원	참가자 별	피검인원	지역관할
3월 26일	양주군 이담면 동두천리	비폭력	1,300	보통민	22	한병

C. 1988년 「동두천시 향토지」

우리 지역에서의 3·1 만세운동 상황을 보면 다른 곳과는 달리 學生과 靑年이 주동이 되었고 中央과의 연락도 배제학당에 다니던 鄭元伊가 맡고, 청년층에서 지도자급인 韓元澤, 朴彰培 등이 거사준비를 완료하고 각 부락마다 책임자를 정하여 擧事日은 음력 2월 25일로 정하고 정오에 장마당에서 거사하기로 계획을 세워 송내, 지행, 좌기골, 기촌, 빈양말, 하봉암, 상봉암, 안흥리, 창말, 싸리말 등 10 여개 부락 주민 1,000여 명은 가슴속에다 태극기를 품은 채 지정된 장마당에 모였다.

그러나 청년들과 학생들이 주동한 관계로 선두에서 군중을 지휘할 지도자가 없었다. 그때 만세운동에 참가했던 洪德文 先生이 앞으로 나서며 “내가 선봉에서 지휘하겠으니 여러분들은 나를 따르라” 하며 앞으로 돌진하면서 만세를 선창하니 군중들이 대한독립만세를 복창하며 뒤를 따르는데 그 수가 1,000여 명이 되었고, 모두 만세를 부르며 면사로 물려가 면장 申公雨를 끌어내 군중 앞에 세우고 만세 부를 것을 다그쳤고, 면장은 군중들에 의해 만세 삼창을 선창하고 선두에서 흥덕문 선생과 같이 군중을 이끌고 만세를 부르며 뒷장거리(현, 미○사단 정문 앞)로 올라오니 군중은 더욱 늘어났고 다시 만세를 부르며 아래장거리(현, 동안역전)로 내려 왔는데 그때가 오후 4시경이었다.

한편, 동두천에 주둔하고 있던 헌병분견소에서는 자체로 진압하지를 못하고 주내에 있던 본대에 증원을 요청하였고 지원대로 기마헌병들이 기차를 타고 내려와 역전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때 만세를 부르며 군중들이 내려오자 대기하고 있던 일본 기마헌병들이 칼을 빼 휘두르며 앞으로 나오자 군중 틈에 있던 朴慶弼과 高福亨이 다가오는 일본헌병의 말다리를 몽둥이로 후려쳐 쓰러뜨리니 헌병들은 더욱 발악하며 총개머리로 선두에 서있는 흥덕문 선생과 정원이, 한원택 등을 후려치고 발길로 차며 무지막지한 무력을 행사하니 갓끈은 끊어지고 옷은 찢어져 유혈이 낭자하였다.

헌병들에 의해 의사들은 체포되고 군중들은 해산되었는데 그때가 오후 5시 경이었다. 본대로 끌려간 의사들은 계속 만세를 부르며 독립을 외쳐대니 日本 憲兵들은 이들을 회유하려 하기도 하였으나 이에 굽히질 않았으며, 옥중에서도 계속 만세를 불러대고 더욱이 洪德文 先生께서는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내가 전부 지시한 일이니 젊은 사람들은 모두 풀어주라”고 항의하고 모든 죄를 스스로 자청하고 배재학당에 다니던 鄭元伊와 청년 韓元澤, 朴彰培, 朴慶弼 등은 태장을 맞고 풀려났으며 흥덕문 선생은 6개월의 형을 살고 풀려났다.

(考證 : 金錫卿 (當 84 世) 李德亨 (當 82 世))

D. 1992년 「양주군지」

-이담면 시위

이담면의 시위는 학생과 청년들이 주도하였다. 배재학당에 다니던 정원이(鄭元伊)가 중앙지도부와의 연락을 맡았고, 한원택(韓元澤), 박창배(朴彰培) 등이 각 부락마다 책임자를 정하는 등 거사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다. 이에 따라 송내, 지행, 좌기골, 기촌, 빈양말, 하봉암, 상봉암, 안흥리, 창말, 싸리말 등 10여 개 부락 주민 1,000여 명은 태극기를 가슴에 품은 채, 거사일인 3월 26일 지정된 장소인 장마당에 모였다. 그러나 젊은 청년과 학생들이 시위를 주도하였던 관계로 선두에서 군중을 지휘할 지도자가 없었다. 이 때 군중 속에 있었던 흥덕문(洪德文)이 앞으로 나서 “내가 선봉에서 지휘하겠으니 여러분은 나를 따르라”고 외치면서 만세를 선창하자, 시위 군중들은 “대한 독립 만세”를 복창하며 뒤를 따랐다.

시위대는 계속해서 면사무소로 물려가 면장 申公雨(申公雨)를 끌어내 함께 만세 부를 것을 다그쳤다. 면장은 어쩔 수 없이 만세 삼창을 하였고, 선두에 선 흥덕문과 함께 군중을 이끌어 나갔다. 시위 군중은 면내 뒷장거리와 아랫장거리를 지나면서 그 수가 더욱 불어났고, 불요불굴의 의지를 나타냈다.

시위가 확산됨에 따라 면내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 헌병분견대는 자체 진압을 하지 못하고 주내(州內)에 있던 본대에 증원을 요청하였다. 곧이어 지원대로 일본 기마헌병들이 파견되어 역전에서 기다렸다. 마침내 군중들이 만세를 부르며 다가오자, 일본 헌병들은 칼을 빼어들고 시위대를 공격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군중 틈에 있었던 박경필(朴慶弼)과 고복돌(高福亨)이 다가오는 일본 헌병들이 타고 있던 말의 다리를 몽둥이로 후려쳐 쓰러 뜨리자, 헌병들은 더욱 미친 듯이 날뛰었다. 선두에 서있던 흥덕문·정원이·한원택 등은 헌병들이 휘두른 총개머리에 맞아 옷이 찢겨지는 등 유혈이 낭자하였다.

제대로 무기를 갖추지 못한 시위대는 헌병들의 폭력에 주춤하였고, 홍덕문 등 주모자들이 체포됨에 따라 해산할 수밖에 없었다. 끌려가는 의사들이 계속 독립만세를 외쳐대자, 일본 헌병들은 이들을 회유하려 하였으나, 이에 굴하지 않았다. 특히 옥중의 홍덕문은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내가 전부 지시한 일이니 젊은 사람들은 모두 풀어주라"고 하여 거사의 모든 책임을 자청하였다. 이날 시위로 정원이·한원택·박창배·박경필 등은 태장을 맞고 풀려났으며 홍덕문은 6개월의 형을 받고 복역하였다. 이담면 시위 양상은 중앙지도부와의 연락 하에 학생, 청년들이 주도하는 등 조직적인 계획 하에 이루어졌다.

E. 1998년 「동두천 시사」

3월 19일부터 25일까지의 침묵은 양주군민의 충격과 분노의 깊이를 대변하며, 선부른 거사보다는 치밀한 준비의 필요성을 절감시켰다. 서울과의 연락은 배재학당 학생인 정원이(鄭元伊)가 맡고, 청년층의 지도자인 한원택(韓元澤)·박창배(朴煥培)를 중심으로 선언서와 태극기를 준비하고 각 마을 책임자를 선정하였다. 거사일도 동두천 장날인 3월 26일로 잡는 등 다수의 군중 동원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송내·지행·좌기골·기촌·빈양말·하봉암·상봉암·창말·싸리말·안흥리 등 10여 마을 주민 1,300여 명은 일시에 동두천시장으로 집결하였다. 이전 만세시위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홍덕문(洪德文)은 선두에서 대오를 지휘하여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장가를 행진하는 가운데 군중은 더욱 증가되었다.

시위대는 면사무소로 몰려가 면장 신공우(申公雨)로 하여금 선언서에 서명하고 만세 삼창의 선창을 요구하였다. 면장 신공우는 홍덕문과 함께 시위대 선두에서 서서 만세를 부르며 시위대를 이끌었다. 시위대는 아래 장거리의 기차역에 이르러 점차 열차를 향하여 만세를 고창하는 등 분위기는 절정에 이르렀다.

동두천헌병분견소는 자체의 병력으로 만세시위의 진압이 불가능함을 알고, 주내면(州內面)에 위치한 본대의 증원을 요청하는 한편 증원대의 도착을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기차를 타고온 기마헌병대는 역전에 대기하고 있다가 시위대가 다가오자, 칼을 빼어들고 시위대를 저지하려고 필사적인 발악을 하였다. 시위대 선두에 섰던 박경필(朴慶弼)·고복돌(高福墮) 등은 다가오는 일본헌병이 탄 말의 다리를 몽둥이로 후려쳐 쓰러뜨렸다.

흥분한 일본헌병대는 시위대 선두에 있던 홍덕문·정원이·한원택을 총개머리로 후려치고 발길로 차는 등 무자비한 탄압을 자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위 주모자 7명이 일본헌병에게 체포되어 헌병분견소로 수감됨으로써 동두천의 3·1운동은 이후 외형상 침체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인근 면에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양주군내 3·1운동의 파급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나아가 식민지시기 동두천의 민족운동은 일제의 간악한 탄압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계속되었다.

동두천 지역의 3·1 운동을 취급한 자료들을 이렇게 열거하여 비교하는 이유는 동두천 지역의 3·1 운동에 관한 원전 자료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백방으로 노력하였지만 당시 의거의 상황을 증언할 재판, 수사기록을 포함하여 보도 자료나 수기 등 1차 자료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위에 제시한 관련 기사들의 경우 시기적으로는 자료 A가 비교적 원전에 가깝다 할 것이나 지나치게 소략하고 간단하여 시위의 내용이나 추이를 이해할 충분한 단서를 제공하지 못한다.

자료 B 역시 시위의 대략만을 짐작하게 할 뿐 전체적인 양상이나 흐름을 알게 하는 자료는 아니다.

기사체로 작성된 자료 C, D, E는 내용의 유사성에 비추어 가장 연대가 오래된 자료 C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료 C는 문헌이 아니라 증언이다. 채증 당시 증언자인 김석경 씨의 연세가 84세, 이덕형 씨의 연세가 82세이므로 두 분은 시위운동 당시 각각 7세, 5세의 나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직접 시위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하여도 현장을 목격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이후 여러 어른들이 전하는 시위 상황을 전문(傳聞)하였다가 특히 40세 이전에 광복을 맞아 사건이 다시 조명되는 과정에서 유년적에 들었던 내용을 상세히 기억하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자료 C는 나름대로의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고, 나름대로의 사실성(史實性)도 갖춘듯하다.

그러나 당시 동두천의 만세시위를 보완 조사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의 의문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거사일이 당시 동두천 장날이었다는 부분이다.

주지하는 바 동두천 장은 5일, 10일이다. 이는 1770년 간행된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에 『동도천시장(東道川市場)』 항목에 나타난 이래 서유구(徐有榘)의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19세기 초 탁지부사세국(度支部司稅局)이 발간한 『한국각부도군시장상황조사서(韓國各府郡市場狀況調查書)』, 1909년 9월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간 『조선지리지자료(朝鮮地誌資料)』, 1919년 경성상공회의소(京城商工會議所)에서 만든 『조선에서의 시장 현황(朝鮮に於ける市場取引の現況)』, 1929년에 발간된 『조선경제잡지(朝鮮經濟叢誌)』 165호, 1938년 12월, 1939년 1월에 발간된 『경제월보(經濟月報)』 275, 276호 등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1919년 3월 26일은 동두천 장날이 아니다. 물론 당시 통용되던 음력으로 환산하면 3월 26일은 2월 25일이 되므로 동두천 장날이 되지만, 조선 말기의 을미개혁 당시에 이미 양력을 사용하기로 하였고 일본이 국권을 강탈한 이래 일관되게 양력의 사용을 강제하였던 사실을 감안하면 이 부분은 보다 상세한 검증을 요한다. 추후의 보다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두 번째는 동두천 3·1운동의 핵심 주모자 정원이(일명 정인태)의 학력에

관한 부분이다. 대부분의 자료에 그가 배재학당 재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작 배재학교 학적부에는 그가 전혀 등재되어 있지 않다. 정밀한 추적을 하였지만 본명과 별명을 막론하고 배재학교 학적에는 그와 관련한 기록이 전혀 없다. 이는 이를 증언한 자료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상당한 의문을 제공한다.

세 번째는 안타깝게도 동두천 3·1운동의 주모자 모두의 관련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홍덕문의 경우 그가 6개월의 실형을 살았다는 확실한 증언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수사기록이나 재판기록을 전혀 찾을 수 없다. 그 외에도 정원이, 한원택, 박창배, 박경필, 고복돌 역시 정밀한 추적을 진행했지만 기록상으로는 그들의 행적을 확인할 길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상정할 수 있는 가정은 일제에 의한 고의 은닉의 가능성이다.

앞에도 기술하였지만 일제는 3·1운동의 규모를 고의로 축소하여 참가인원, 사망, 부상자, 피검자 및 건물 재산상의 피해 전체를 절반 이하로 축소하여 진상을 은폐하려 하였다. 제암리 학살 사건 역시 급보를 받고 현장에 나갔던 선교사의 사진과 제보가 없었으면 은폐되어 묻혀 버렸을 것이다. 아마도 동두천 지역의 3·1운동도 그 규모와 내용은 물론 주모자와 관련된 수사기록이나 사건 보고서 자체가 은닉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 다른 가능성은 동두천 지역의 3·1 운동 관련자들이 상당기간 조사만 받고 기소되지 않은 채 석방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일제가 민심수습차원이나 사건 축소 은폐차원에서 관련자를 기소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말한다.

동두천의 3·1운동은 이담면이 당시 양주군 내의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지역의 크기와 인구 등 규모면에서 비중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위의 규모와 전개 상황, 성격 등에서 타 지역의 시위를 압도하고 있다. 이는 아마도 의병전쟁 이래 혁연히 유지되어 온 동두천 지역의 구국 항일의지가 반영된 자랑스러운 쾌거라고 하겠다.

4. 경원선 개통과 동두천역 설치

일제는 한국 침략을 본격화하면서 수탈을 위한 기본 인프라 건설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중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된 것이 철도, 도로, 항만 등 운송수단의 확보였다. 당시 청이나 러시아와의 전투에 필요한 병력과 보급물자의 수송이 긴박한 요구로 대두되었고, 이후 이들 확보된 운송 수단들은 모두 착취와 수탈의 도구로 적절히 활용되었다. 그와 동시에 새로 건설되는 도로, 특히 철도는 새로운 물산 집산지와 인구 집중지를 창출해냄으로써 기존의 향촌사회를 파괴하고 전통 산업질서를 재편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더러는 조선 민중의 사고 기저에 확립된 기존의 풍수 가치에 정면으로 도전하여 이를 흔드는 이른바 총체적인 변혁의 도구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서울 - 원산 간 철도 부설을 처음 기획하고 추진한 것은 프랑스였다. 그들은 이미 부설이 끝난 경인선 철도가 외국 업자에게 위탁하여 건설된 전례를 들어 자신들에게 1896년 경의선, 경복선(추후의 호남선), 경원선의 건설을 허가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철도를 국내 업자에게 건설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었으므로 이를 불허하고 1899년 궁내부내장원(宮內部內藏院)에 서북철도국을 설치하여 경의선과 경원선의 건설을 관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철도회사가 자금사정으로 착공을 못하고 있던 중 1905년(고종 42) 러일전쟁이 일어났고, 일본은 군사상의 목적을 위하여 경의·마산철도와 함께 경원군용철도(京元軍用鐵道)의 부설권을 강요하여 승인을 얻어 그해 11월 용산에서 기공식을 거행하였다. 1911년 용산-의정부 구간이 처음 개통되었고, 1914년 세포(洗浦)-고사 구간이 개통되어 222.7km의 전 노선이 완공되었다.

경원선 철도의 개통상황을 보면 용산-의정부 구간 개통에 이어 1912년 7월 2일에는 의정부-연천 구간이 개통되고 이어 1914년 9월 16일에 연천~원산 구간이 마저 개통되었다.

이중 현재의 의정부, 양주, 동두천 지구에는 창동, 의정부, 동두천의 3개 역이 설치되었고 이들 역의 설치 이후 지역의 발전과 변화에 대단히 큰 변인(變因)과 동력(動力)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양주 지역에 역이 설치되지 않은

- 16) "침상 머리의 어린 종이 큰부채를 흔드느냐"
- 17) 선풍기를 이르는 듯하다
- 18) 종질종알 말하여 떠드는 모습

것은 이후 양주의 급격한 쇠퇴를 가져와 인구가 의정부 지역으로 이동하고 이에 따라 행정, 교육, 문화의 중심축이 유양리 주내에서 의정부로 이전되는 상황으로 발전되어 간다.

당시 경원선 철도에 배치된 각 역에 대한 기행문을 예시해 보자.

.....지리한 장마가 겨우 들랑말랑할 때라 바람도 없고 해도 없도 찌는 듯한 서울의 거리를 등두고 기차 박취가 스르르 굴느기 시작하니 달니는 속력에 자아내는 청풍(淸風)이 땀 배인 샷스 속으로 선뜻선뜻 참으로 이 맛이야. 床頭奴子搖大扇⁶⁾따위야 호랭이 담배 먹든 때 일이라 말할 것도 업지마는 전기(電氣)부채⁷⁾ 어름 냉수(冷水)가 엇지 이 멋을 따르랴.

근교(近郊)의 절경(絶景) 한강리(漢江里)의 강물을 감돌아 석벽(石壁) 사이사이로 남산(南山)의 창수(蒼翠)를 가르칠 때 구름이 흐터지고 푸른 하늘이 방그죽이 열이니 성난 햇빛이 차창(車窓)을 나리 쏜다. 은근히 마음속으로 조부심하던 천기(天氣)도 이만하면 안심이다.

상암(堂巖)밑에 선영(先塋)을 건너다보며 그대로 차를 달리기 미안하야 아희들을 이르켜 목례(目禮)를 드리는 동안 차(車)는 벌써 왕십리역(往十里驛)에 다었다. 장도(長途)의 여행 처음으로 맛보는 아희들이라 화희작약(歡喜雀躍) 점점남남(喋喋喃喃)⁸⁾ 실로 귀여움이 잇서 사랑스러웠다.

청량리(淸凉里) 기름진 눈에 청청(靑靑)하고 씩씩한 벼폭이를 구버보는 동안 차가 창동(倉洞)에 다니니 다른 말하는 배낭(背囊)지고 각반(脚絆)두른 청년(靑年) 4, 5 사람이 나리고 있다.

이 뜨거운 염천(炎天)을 극복하고 도봉(道峯)을 정파(征罷)하라는 의기(意氣)다. 등산대(登山隊)다. 이 용기 이 활기에도 뒤떨러지는가 하니 답답하다. 청수(淸秀)한 북한(北漢)은 마치 쪽(藍) 물감을 끼언진듯 하다.

뽀조록 뽀조룩한 청산(靑山)이 어는 것 하나 버리고 남으랄 수 없이 생기(生氣)가 팔팔 약동(躍動)한다.

깜아득한 연봉(連峯)이 바로운 듯 모로운 듯 누은 듯 안진 병풍같이 둘러었으니 풍수(風水)의 일은바 화성(火星)이오 문필(文筆)이다.

문장(文章) 명필(名筆)이 난다는 산(山)이오 백의재상(白衣宰相)이 난다는 산(山)이다. 신중에 가장 격(格)이 높고 귀한 산이다. 진국명산(鎭國名山) 만장봉(萬丈峯)에 청천(靑天)이 삭출금부용(削出金芙蓉)이란 한양(漢陽) 배편 짝의 시조(時調)가 생각난다.

차가 의정부(議政府)역에 다엇을 때 천고(千古) 소유부(小儒夫) 신숙주(申淑舟)의 무친 산(山)을 두리번 찾고 동두천(東豆川)의 소요산(逍遙山)을 가라치며 철원(鐵原) 궁예(弓裔)의 옛 도읍에 유일의 운하(運河)을 일우엇을 임진(臨津)의 지류(支流) 한탄강(寒灘江)을 점두(點頭)해 건너는 동안 천년(千年)의 옛 꿈을 꾸라 피곤한 눈을 감고 머리를 창틈에 기대버렸다.

위의 자료는 월탄(月灘) 박종화(朴鍾和) 선생이 1935년 9월 1일자로 발행된 잡지 『삼천리』 제8호에 기재한 <청산백운첩(靑山白雲帖)>이라는 기행문의 일부이다. 자체들의 방학을 맞이하여 경원선 기차를 타고 금강산을 유람한 내용인데 위에 인용한 부분에 서울역에서 동두천역까지의 노정이 나타나 있다. 즉, 서울역 - 용산 - 왕십리 - 청량리 - 창동 - 의정부 - 동두천이다.

경원선이 개통되면서 동두천 지역에 역이 설치된 것은 아마도 양주, 적성과 포천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로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점은 의정부역의 설치와 동일한 입지조건이 고려되었다고 하겠다. 동시에 이는 기존의 행정 중심지를 대신할 새로운 식민지배 거점을 확보하려는 통치 정책의 반영이기도 하다. 공주를 대신한 대전, 동래를 대신한 부산, 의주를 대신한 신의주 등 무수한 실례(實例)를 예거할 수 있고 실제로 기존의 양주 읍치인 주내는 경원선 개통 이후 급격히 쇠퇴하면서 작은 촌리로 축소되는 결과를 맞게 되어 기존의 향촌 세력은 급격히 쇠퇴하게 된다. 이는 정치는 물론 문화, 교육, 상업 등 다방면에서 일제의 강압, 동화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결과로 작용하였다.

동두천역의 설치에 교통의 거점 설치와 이를 통한 주변부의 개발 및 수탈의 확대라는 기본 목적보다 오히려 소요산 관광 확대라는 부수적인 측면이 더 부각되었다. 경원선에 동두천역이 설치되면서 소요산은 서울에서 하루거리 유락지로 알려지고 특히 단풍의 아름다움이 화자되면서 학교의 소풍이나 각종 유락의 장소로 유명세를 타게 된다. 이에 관련된 자료들을 보자.

『동광』 제38호 (1932년 10월 1일 발행)

기사제목 〈가을의 誘惑, 가을이면 내가 가는 숨은 명소는 어디어디〉

◇ 산이 그리워 - 최독견(崔獨鵞)¹⁹⁾

벌써 10여 년 동안 주거를 경성(京城)에 두고 있는 나는 해마다 단풍소식을 따라 소요산(逍遙山)을 찾아갑니다. 내가 처음으로 찾을 그때에만 해도 소요산(逍遙山)은 어느 정도까지 숨은 명소의 감(感)이 깊더니 요즘처럼 단풍시절이 되면 소요산행(逍遙山行) 임시열차를 발(發)하느니 가정거장(假停車場)을 설치(設施)하느니 「장사치」의 눈이 붉게 타게 되어서는 마치 창경원(昌慶苑)의 벚꽃, 아니 그보다도 시골처녀가 분을 바르고 유곽(遊廓)으로 팔려오는 것 같아서 불쾌합니다. 그러치 않았다면 돈과 시간이 많이 소비 되지 않고 서울 시민의 질탕관처럼 끝는 뇌를 하로 세척할 곳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규모는 적을망정 폭포가 있고 협곡(峽谷)이 있고 풍림(楓林)이 가의(可)이 정차할만하고 니승(尼僧)의 염불소리 고요히 들리고...

◇ 소요산(逍遙山)의 단풍 - 이종명(李鍾鳴)²⁰⁾

소생은 아직 널리 여행을 해보지는 못 했고 또 그러한 자연에 대하여는 대단히 둔감하여 무슨 숨은 명소라든지 또는 그 풍광(風光)을 말할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구타여 소생이 질기는 곳을 말하라 하시면 소생은 소요산(逍遙山)을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벌써 몇해 전에 신문에서 무슨 소금강(小金剛)이니 무엇이니 하고 선전을 해 놓았으니까 아실만한 분은 다 아시겠지만 하여간 소규모이나마 그 아담한 맛이 마음을 이끕니다. 기암(奇岩)이 있고 폭포가 있고 단풍이 있고 암자가 있고-그야말로 금강산(金剛山)의 모형을 떠 논 것 같아서 가난한 서울의 양복쟁이들의 하로의 향락지(享樂地)로는 가장 좋은 곳 같습니다.

19) 최독견(崔獨鵞 1901~1970) 소설가·언론인. 황해도 신천(新川) 출생. 본명은 상덕(象德), 필명은 독고독(獨孤獨).

1921년 중국 상하이(上海(상해)) 웨이링전문학원(惠靈專門學院(혜령전문학원)) 중문과를 졸업한 뒤 상하이 일일신문·중외일보 등에서 일하였다. 《유린(蹂躪, 1921)》, 《소작인의 딸(1926)》, 《유모(乳母, 1926)》, 《푸로 수기(1926)》, 《책략(1926)》, 《고구미(1927)》, 《머보의 진노(1927)》 등 경향적 작품을 발표하였다.

1927년 《조선일보》에 최초의 영화소설인 《승방비곡(僧房悲曲)》을 연재하여 큰 인기를 끌었다. 광복 후 평화신문·서울신문·연남신문 등에서 활동하였고 《양심(1951)》, 《남만시대(1964~65)》 등의 소설을 발표 하였다.

20) 소설가 1933년 8월 김7림 등과 순수문학을 표명하는 9인회를 조직하고 이를 주도하였음

조선 각지 단풍명소 순례기(朝鮮各地 丹楓名所 巡禮記)

◇ 소요산 단풍(逍遙山丹楓)

경원선(京元線) 동두천역(東豆川驛)에서 하차(下車)하여 동북(東北)으로 약7리(約7里)(조선구리(朝鮮舊里))- 가령을 걸어가면 근교(近畿)의 소금강(小金剛)이라 칭(稱)하는 청초수려(淸楚秀麗)한 산(山)이 있스니 이것은 서울의 보통학교(普通學校) 학생(學生)들도 춘추(春秋)의 원족(遠足)을 흔히 가는 소요산(逍遙山)이다. 이 산(山)에는 옛날 신라(新羅)의 명승(名僧) 원효법사(元曉法師)가 서식(棲息)하던 소요사(逍遙寺)란 절이 있섯기 때문에 인(因)하여 이름한 것이니 그 절은 원효법사(元曉法師)와 가티 벌서 그 자취가 살아져 업서진지 오랫동안 그 이름만은 아즉까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수석(水石)도 절가(絶佳)하거니와 가을에는 특(特)이 단풍이 좃기로 이름난 곳이다. 옛날에는 소위(所謂) 춘남한(春南漢), 추북한(秋北漢)으로 북한(北漢)의 단풍(丹楓)이 근교(近畿)에서 유일(惟一)한 회자(膾炙)를 버텨지만은 경원선(京元線)이 개통(開通)되며부터 이 처녀지(處女地)인 소요산(逍遙山)이 차차 세상(世上)에 알려지게 되며 저- 500년래(年來) 독세도(獨勢道)하던 북한(北漢)도 이 산(山)에 대(對)하여 일두(一頭)를 양(讓)하지 안이치 못하게 되었다.

산중(山中)에는 수석풍광(水石風光)이다. 절호(絶好)한 자재암(自在菴), 백운암(白雲菴)이란 두 암자(庵子)가 있스니 일야(一夜) 혹(或) 일시(一時) 휴게(休憩)하기에 편리(便利)하러니와 자재암(自在菴)의 근측(近側)에는 절애석벽(絶崖石壁)에서 높히 약(約)20척(尺)가량 되는 비폭(飛瀑)이 쓰다저 내려오고 그 폭포(瀑布)의 소(沼)옆에는 약(約)2,30인(入)이 안질만한 거석(巨石) 반석(盤石)이 있스니 이 반석(盤石)에 과좌(跨坐)하여 앉뒤에는 무르녹은 천홍만자(千紅萬紫)의 홍엽(紅葉)을 구경하며 앙(仰)하야는 만리장천(萬里長天)에서 낙하(落下)하는 은하(銀河)와 가튼 폭포(瀑布)를 바라보면 참으로 기절장쾌(奇絶壯快)함을 느끼지 안이치 못할 것이다. 단풍은 이 폭포(瀑布)로 하여 더욱 생색(生色)이 나고 폭포(瀑布)는 또 단풍(丹楓)으로 이채(異彩)를 더 하게 되니 이것은 가위(可謂) 이 산(山)의 쌍절(雙絶)이라 안이치 못할 것이다.

『동광』 제38호 (1932년 10월 1일 발행)

『별건곤』 제51호 (1932년 5월 1일 발행)

제목: 오뽀모꼴의 신춘행락(新春行樂) 경제학(經濟學)

필자 이서구(李瑞求)

◇온양온천에를 간대도 토요일에는 왕복 러비가 반액이 되고 소요산을 가도 경원선 동두천에서 나리면 구비구비 선경가튼 산곡을 돌코 드러가는 괴이한 풍경을 대하게 됩니다. 폭포가 있고 암자가 있고 험한 길과 그윽한 숲과 빼어난 봉오리가 잇서 『소금강』의 찬사를 맞하 가지고 있습니다. 아츰에 일출 가면 종일 놓고 저녁에 도라오게 됩니다. 절에는 술 과자의 준비까지 있고 오십전만 내면 진수선찬을 배설하야 내뵈습니다.

이상의 자료들에 나타난 내용을 검토하면 경원선 동두천역의 설치 이후 소요산이 단풍과 유람의 명소로 조야에 회자되기 시작하였고 특히 학생들의 원족, 즉 소풍지로 각광을 받으면서 이를 각 신문이 다투어 명사의 기행 소감 형식으로 소개하면서 서울 근교의 대표적 명소로 알려지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5. 백백교와 천원광산

일제의 강압통치 기간 억압과 수탈에 시달리던 민중은 현실의 괴로움과 불만을 종교에 기대어 해소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종교에 더하여 많은 신흥종교가 발생하였고 그중에는 상당한 교세를 떨친 종교도 여럿 있었다. 그리고 그들 신흥 종교 중에는 종교 본연의 위치를 벗어나 민중을 현혹하고 재산을 강탈하거나 인명을 해치는 경우도 있었는데 민중을 오도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대표적인 종교가 바로 백백교(白白敎)였다.

백백교는 동학 계통의 백도교(白道敎)에서 파생한 유사종교의 하나이다. 백도교는 1899년 무렵 함경남도 문천에서 동학교도 전정운이 주문을 외우며 하늘과 땅에 예배하면 무병장수하고 신선이 된다는 교리를 토대로 창립하였다. 그 뒤 신자가 점점 늘자 1912년에 강원도 김화의 오성산에 본거지를 두고 정식으로 교주(敎主)가 되었다. 이후 각지에 지부를 두고 적극적인 포교에 나서 1916년 무렵에는 신도수가 1만 명을 넘을 정도로 교세가 확장되었다.

1919년에 교주 전정운이 사망하자 간부인 우광현이 교주의 둘째 아들 전용해(全龍海)와 짜고 전정운이 죽은 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암매장하였는데, 이 사건이 드러나면서 간부 이희룡(李禧龍)이 백도교에서 이탈하여, 1923년에 전정운의 맏아들 전용주(全龍珠)를 내세워 함경남도 문천에서 인천교(人天敎)를 창설하였다. 이에 우광현은 경기도 가평에서 기존의 교명인 백도교를 백백교로 바꾸고 자신을 교주로 하는 새 교단을 창설했다. 백백교는 퇴폐한 민심을 교화하여 광명 세계를 이룩한다는 이름 아래 포교를 시작하였는데, 처음부터 뚜렷한 교리나 깊은 사상적 근거를 갖지 못하였다.

1924년에 김공연이 교주가 되었고, 1927년에 차병간이 명목상 교주가 되면서 본부를 경성으로 옮겼으나, 실권은 전용해가 가지고 있었다. 1930년에 전용해가 직접 교주가 되면서 백백교는 전국 각지에 책임자를 두고 백도교 때보다 더 은밀히 비밀결사 조직을 갖추며 범죄집단으로 전락하였다.

백백교는 전용해를 천부님의 아들로 받들고 세상은 머지않아 물과 불의 심판이 임한다는 종말론을 강조했다. 이때 살아남기 위한 피난소를 전국에

설치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신도들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고 부녀자들을 겁탈하면서 맹목적인 복종을 강요하며 조직의 힘으로 신도들을 다스렸다. 점차 범죄행위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자, 그들은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비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는 사람들을 깊은 산속으로 끌고 가서 무참히 살해하였다.

우리 동두천에도 이에 관련된 유적이 있다. 상봉암동에 있는 소요초등학교에서 마을길을 따라 마차산 방향으로 진행하면, 좌측에 소요골프연습장이 나오는데, 골프연습장을 지나 200m 정도 올라가면 소망기도원에 못미처 판잣집이 있고, 이 집 앞을 흐르는 계곡을 건너 작은 골짜기를 따라 50여m 올라가면 우측에 철창으로 가로막은 폐광이 위치한다. 이곳이 바로 백백교의 살인 범행 현장인 천원금광이다.

이 천원금광은 금광을 가장하여 만든 살인 시설로서 투자를 목적으로 사람들을 금광의 현장인 듯이 이곳으로 유인하여 재물을 갈취한 뒤 살인을 저지른 곳이다. 범행이 드러나고 주요 인사가 자살 내지는 체포되어 결국 백백교가 해체될 당시 이곳 천원금광과 마차산 일대에서 확인된 시신이 70여 구에 이르렀다고 한다.

6. 자재암의 재건

동두천의 소요산에는 소요사라는 큰 절이 위치하여 역대의 선승과 대덕들의 수도처가 되었는데 특히 이 절은 조선 왕조의 창업자 태조 이성계와의 인연으로 인하여 세종 대에 전국의 사찰을 모두 정리하고 36개 처만 남길 때에도 존속이 결정되었던 유서깊은 절이기도 하다.

일찍이 이 절을 찾은 매월당 김시습은

길 따라 계곡에 드니 봉우리 마다 노을이 붉네
 산은 높고 험한데 흐르는 물은 맑고 차구나
 불전에 모셔진 화려한 불상
 모여 든 스님들 많기도 해라
 태상왕 머무시던 옛 자리건만
 가는 길 끊어지고 발자취 없네
 (路入寒溪洞 千峯落照明 四山皆翠嶽 潤正清冷
 殿有金銀像 僧多雲水情 上王曾駐蹕 徑廢少人行)

라고 절의 모습을 노래하였었다. 아울러 율곡 이이(李珣)를 비롯한 여러 사대부들이 이 절을 찾아 그 명승을 노래하는 절귀(絕句)들을 남기고 있다.

현재 소요산 사기(史記)에는 소요사라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자재암이라는 사명(寺名)의 변천만을 설명하면서 1872년(고종 9) 원공(元空)·제암(濟菴)이 증건한 뒤 영원사(靈源寺)로 고쳤다가 다시 자재암으로 복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 중, 후기에 이르도록 이 절을 찾은 많은 시인 묵객들이 「소요사(逍遙寺)」라는 사명을 시제(詩題)에 넣고 있어 자재암보다는 소요사라는 이름이 더 오랜 연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1872년 증창된 이절은 그러나 의병항쟁의 와중에 소실되고 만다. 자료²¹⁾에 따르면 1908년 김연성이 이끄는 의병진이 이 절이 위치한 소요산 일대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던 중 전장(戰場)에 포함된 자재암이 소실되고 만다. 그리고 소실된 절을 1909년 성파(性坡)와 제암이 증창하면서 사찰의 이름을 다시 자재암이라 복원하고 약사여래상·지장보살상·관음보살상 등의 불상과 원효·의상(義湘)·윤필(尹弼) 등의 화상(畫像)을 그려서 봉안하였다.

1909년 7월 16일자 동아일보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21) <독립운동사자료집>, 인천 경기북부 독립운동사적지, p384-385.

양주 소요산은 근기(近畿)에서 소금강(小金剛)이라 할 만큼 여름의 녹음수석(綠陰水石)이며 가을의 백운홍수(白雲紅樹)로 명승(名勝)의 이름이 높은 것은 일반이 다 아는 바이다. 경원선 동두천역에서 불과 1리 지점에 있는 교통 편리한 곳으로 매년 유산객(遊山客)이 답지하는 중 금년 봄에는 산에 있어 고적(古蹟) 자재암을 주지 김덕조(金德照) 씨의 호의로 거대한 금액을 들리어 수축(修築)하였으므로 더욱이 금상첨화(錦上添花)의 미(美)를 나타내었다더라.

일제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유독 불교 사찰을 통제하여 각 사찰의 주지 교체를 총독부의 직할 사항으로 다루어 주지의 이·취임을 총독부 승인을 통하도록 통제하였다. 일제 강점 이후 일제 총독부의 관보에 나타나는 자재암 주지 이·취임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8-19〉 일제강점기 자재암 주지 이·취임 사항

관보게재일자	이임주지	이임사유	취임주지	기타
1912. 2. 18			이보산(李寶山)	
1914. 5. 11	이보산(李寶山)	사직	이제암(李濟庵)	
1915. 7. 19	이제암(李濟庵)	사망	김도현(金道玄)	
1928. 6. 13	박용하(朴龍夏)	임기만료	이벽봉(李碧峰)	
1930. 4. 16	이벽봉(李碧峰)	사직	김덕조(金德照)	
1933. 4. 20	김덕조(金德照)	임기만료	김덕조(金德照)	재취임
1937. 5. 18	김덕조(金德照)	임기만료	김필제(金必濟)	
1939. 2. 6	김필제(金必濟)	사직	서상인(徐相仁)	
1942. 2. 13	장곡천인무(長谷川寅武)	임기만료	장곡천인무(長谷川寅武)	재취임

위의 자료는 일제 총독부 관보에 나타나는데 일부 결손된 자료가 있어 중간 중간 빠진 부분이 있다. 관련기록이 관보에 최초 등장하는 1912년 이전인 1909년에 의병전쟁 기간 중 소실된 자재암을 재건한 주지로 김덕조(金德照)의 이름이 보도자료에 나오는 것으로 보아 김덕조는 1912년 이전에 이미 자재암의 주지를 역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김덕조와 관련하여는 주지 임명건 외에 두 가지 사항이 자료에 더 나타난다.

하나는 그가 빈민을 구제하였다는 언론 보도이고 하나는 사찰 소유의 임야를 별채하였다는 내용이다. 이는 그가 소실된 자재암을 증건하였다는 사실과 함께 상당히 유능한 사찰 경영인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당시의 어려운 여건에

맞서 나름대로는 민간구제와 사찰 발전에 애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소요산 기슭 빈민을 구제〉

양주군 이담면 상봉암리(楊州郡 伊淡面 上鳳巖里) 소요산 기슭에 사는 동민(洞民)들은 극빈(極貧)한 생활에 몰고 있던 바, 그 중 8호는 구년말은 고사하고 당장의 기한(飢寒)에 쫓겨 속수무책(束手無策)으로 모진 목숨만 저주할 뿐인데 자재암 주지 김덕조(金德照)씨가 백미(白米) 1두(豆)씩을 분급(分給)하여 주었다더라.²²⁾

위의 기사는 자재암 주지의 선행 미담을 소개하는 기사이거나와 동시에 1933년 당시 일제 강점기 아래 착취와 수탈에 시달리는 동두천 지역 주민의 생활상을 일부나마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는 자재암이 가지는 고찰 고적으로서의 역사적 의미와 함께 종교시설로서 현지민이나 참배객들을 향한 사회적 책무의 하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른 자료는 자재암 소유 임야의 벌채(伐採)와 관련한 자료이다. 총독부 관보에는 관련 자료가 여러 건 나오는데 자재암에서 임야를 벌채하는 이유와 목적은 알 수 없다. 사찰의 중수나 운영을 위한 자금 마련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동시에 우리는 이 자료를 통하여 당시 자재암이 소유한 임야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자재암 소유 임야는 모두 227정보(町步), 2단보(段步), 6무보(畝步)로서 현재의 단위로 환산하면 약 210만²m²(70만 평(坪))에 이른다.

이 임야는 현재도 자재암의 소유로 되어 있다.

사유림(寺有林) 벌채(伐採) 허가(許可)

허가일시	소화(昭和) 6년(1933년) 10월 9일
벌채구역	경기도 양주군 이담면 상봉암리 산 1번지 자재암 소유 임야 227 정(町) 2단(段) 6무보(畝步) 중 105정(町) 8단(段) 7무보(畝步)
벌채방법	택벌(擇伐)
벌채 수종 및 수량	7년 내지 20년 생 잡목 2칸 그루
벌채기간	허가일로부터 1년 반
출원인	경기도 양주군 이담면 자재암 주지 김덕조

22) 『동아일보』 1933년 1월 27일

23) 현동두천감리교회의 전신이다

자재암에서는 이후 1940년과 1943년에도 각각 당시 주지 서상인과 하세가와의 이름으로 각각 2,000그루와 6,500그루의 나무를 베어내도록 허가받고 있다. 이 시기는 이미 일제의 대륙 침략이 본격화하고 전선이 태평양으로 확대되면서 민족 말살정책과 함께 각종 전쟁 물자의 무조건적인 수탈이 본격화하던 시기인 점을 감안하면 혹시 자재암 임야의 벌채도 이와 관련된 사항은 아닌가 추론하여 본다.

7. 기독교의 동두천 전래와 교회의 설립

기독교는 1860년대에 공식 전래되어 교육, 의료, 사회사업, 폐약 타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사업을 진행한 결과 짧은 시간 안에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였다. 이와 같은 빠른 정착과 성장에는 특히 한국인 성직자 양성, 한글성경의 발행 등 기독교의 현지화 전략과 함께 한국에 진출한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의 선교부가 교파별로 지역을 나누어 집중 선교하는 방법 등이 효율적으로 작용하였다. 아울러 이민족의 국권 강탈과 한국인에 대한 혹독한 착취, 수탈은 기존의 사상, 가치에 대한 반성을 가져오고 기독교의 적극적인 현실 참여와 함께 이상향 천국을 약속하는 미래 지향적인 교리가 민중의 소망에 부응했던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우리 동두천 지역에 기독교가 전파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1905년 이전에 이미 교회가 설립된 것만은 확실하다고 여겨진다. 동두천의 기독교는 최학보 씨에 의하여 황매동에 황매동교회²³⁾가 설립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기독교를 전하는 매서인, 혹은 선교인으로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온갖 박해 끝에 마침내 자신의 집에 교회를 설립하였다고 한다.

최학보라는 설립자와 황매동교회라는 최초의 교회는 확인되지만 교회의 설립 시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각각 나름대로 근거를 가진 3개의 다른 설명이 있어 이를 입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1) 1900년 이전설

이는 기독교대한감리회가 발행한 『서울연회사』 1권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근거로 한다. 이화학교에 목우인(牧牛人)으로 근무하던 노형달(盧亨達)이 예수를 믿은 후 그가 데릴사위로 있던 양주 독바위에 1898년 교회가 설립되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옹아미교회’, 혹은 다른 이름 ‘옹아니교회’이다. 그리고 최학보 씨는 이 옹아니교회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추론이다.

“1898년이라. 아편설라(亞扁高羅)²⁴⁾ 목사를 동반하여 양주 옹암리(瓮巖里)에 전도하니 이화학당(梨花學堂)에 목우인(牧牛人) 노형달(盧亨達)은 근본 양주 읍내인으로 파도(播道)를 소개(紹介)함이라. 그곳에서 강재희(姜在熙) 가(家)에 유(留)하였시니 처(此)는 초숙(初熟)한 과실(果實)이요 현재 남감리회에서 열심히 역사(役事)하는 강조원(姜助遠) 목사는 재희씨(在熙氏)의 자(子)이러라”²⁵⁾

그런데 이처럼 아편설라와 최병헌의 전도로 시작된 독바위 선교는 남·북감리교 선교회 간의 선교지역 협정에 따라 양주와 고양 일대가 남감리회 선교지역으로 확정되면서 1900년 10월부터 남감리회 선교부가 맡게 되었다. 이로써 미감리회는 독바위 선교에서 손을 떼었지만 독바위교회는 형제교회인 남감리회 선교부로 넘어간 후에도 계속 발전하여 인근 의정부와 동두천, 포천, 연천 등지로 선교가 확장되는 거점이 되었다.²⁶⁾

2) 1905년 이전설

이 설은 의정부감리교회를 담임하던 윤춘병 목사가 동 교회 설립 80년을 기념하는 『의정부감리교회 80년사』에서 양주군 남면 임관리교회의 정순창 장로의 증언을 바탕으로 주장한 것으로 그 증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05년 경성구역장으로 임명받은 무야곶선교사의 지도밑에 문산교회에서 신자가 된 송학서씨일가(송학서씨와 그의 삼촌 송명선씨와 송학서씨의 자제 송명학씨 등)가 연천군(현 양주군) 남면 임관리로 이주해 와서 살면서 임관교회를 세웠으나 송학서씨가 천민(백정)이었으므로 임관리 부락에는 전도가 되지 못했고 구암리(龜岩里)의 정성삼씨 등 이웃부락에서 호응 임관리교회를 다녔다. 그리고 임관리에서 10리 상거되는 오산리(梧山里)에서 송영선(宋英善)씨가 신자가 되어 교회를 세웠는데 송영선씨는 곧 전도사(현 장로)가 되어 양주구역에 큰 일꾼이 되었다.

24) 우리나라의 최초 감리교 선교사인 아편설라 목사의 우리식 한자 표기이다.

25) 《최병헌선생 약전》 서울연회사에서 재인용

26) 『서울연회사 1』 P. 257 이덕주, 2007.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

27) C.G.Hounshell, "Report of Seoul Circuit", MAMECS, 1907, p20

— 종락 —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 황매동에는 최학보씨(최요한 목사의 조부)의 노력으로 교회가 설립되었고, 양주군 고을이던 유양리와 포천군 소흘면 용상동과 송우리에 교회가 설립되었다. 그것이 1900년과 1905년까지의 6년까지의 말이었다.

그리고 이 증언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자료가 있다.

1907년 남감리회 선교지방회에서 당시 서울구역을 담당하고 있던 하은셀(C.G.Hounshell)의 보고이다.

"서울 순회구역(circuit)은 시내와 고양, 파주, 교하(현 파주군 교하리 - 필자주), 양주, 그리고 포천 등의 지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순회구역 중 가장 급속한 성장을 보이는 곳은 포천구역입니다. 이 구역은 약 1년 전만 하더라도 아무런 성과도 없었던 곳인데 지금은 세 개의 희망적인 그룹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우리 선교부에서 강력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지경터와 서울의 중간지점에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지난 연회이후 4개의 작은 교회(기도처 - 필자주)가 조직되었으며 3개의 비조직된 그룹들이 이 구역에 첨가되었습니다."²⁷⁾

위의 보고를 통해 파주, 양주, 포천, 김화지역의 기독교 전파시기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이 보고서는 1907년 6월 20일에 열린 제11차 남감리회 선교지방회에 보고된 것이므로 1906년 9월 17일에 선교지방회에서 1907년 6월 13일까지 선교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1906년 이전에는 분명히 양주구역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양주구역이 연회록에 등장한 것은 이 기록이 최초이다.) 이 기록은 다시 말해 최소한 몇 개의 기도처가 양주군 내에 설립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 가운데 황매동교회가 포함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앞의 정순창 장로의 증언에 의하면 1905년 이전에 양주군에 황매동, 웅아니, 유양리 등에 교회가 설립되었다는 보고를 상기할 때 양주 구역 안에 황매동 교회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3) 1907년설

이 설은 황매동교회의 설립자인 최학보 씨의 손자 최요한 목사의 증언으로 설립자의 직계후손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여보십시오, 여보십시오,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장터에서 소를 팔고 돌아가는 최학보(20대 후반) 젊은이에게 낯설은 외국인이 뒤를 쫓아오며 말을 건넨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검은 포장의 책 두 권을 건네주면서 “나는 도마련 선교사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이고 또 이것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송가책입니다. 거저 드리니 가지고 집에 가서 잘 읽어보세요” 이것이 동기가 되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최학보 씨는 매 주일 찾아오는 도마련 선교사와 함께 가족예배부터 드리게 시작했다. 부친의 완강한 반대에도 무릅쓰고 얼마동안 이웃사람 몇 명을 모아 도마련 선교사 인도하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세례를 받은 그는 그렇게 즐겨하던 술과 담배를 끊었다. 그리고 바쁜 시간에도 틈을 타서 같은 마을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도를 했다.

최요한 목사는 1907년 도마련 선교사의 전도를 받은 그의 조부 최학보 씨가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봉헌한 시점을 창립일로 보고 있다. 최요한 목사의 증언은 그의 조부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증언보다 상대적으로 그 정확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 그의 증언 속에 나타나는 도마련(M.B.Stocks)의 선교활동이 1907년에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그의 증언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다. 도마련 선교사는 1907년 9월에 입국하였으며, 그 다음 해 9월 16일 제13차 남감리회 한국선교 지방회에서 송도 동구역 선교책임자로 파송을 받는다. 이때에는 현재의 양주군을 송도 동지방에서 관할하였으며 그 구역은 양주군, 포천군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1908년 9월 이후에 스톡스가 양주군의 선교를 책임지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주로 스톡스가 입국 후 1년 동안 양주군 지역에서 주로 선교활동을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최요한 목사의 증언 또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한편 일제가 발행한 총독부 관보 <소화> 5562호(1928년 11월 2일자)에도 동두천예배당의 “포교책임자”로 감보리에 이어 “도마련”이 취임 승인을 받고 있어 도마련과 동두천교회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게 해 준다.

이상 세 설은 모두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 어느 것이 보다 신빙성이 있는지 확증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1907년 이전에 황매동에 교회가 설립되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동두천의 초기 교회 모습의 일단을 짐작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있다.

1911년에 발간된 <그리스도회보>라는 신문 기사인데 당시 평안남도 증산군에 발생한 극심한 기근을 구제하기 위하여 각 지역의 교회에서 연보한 헌금의 내역을 소개하는 내용 안에 동두천의 교회가 등장한다.

해당 기사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증산구황연보>

평남 증산군에서 거하는 우리 교우 여러 백 명이 기황(饑荒)을 면치 못하는 정상에 대하여 각 처 교회에서 다소한 금액을 거두어 본사로 보내였기로 여러 형제자매의 자선심(磁善心)을 감출 수 없어서 그 거주와 씨명을 이 아래 차례로 기재하노라

— (중략) 양주 이담면 황매동교회 내
최학보 씨 25전
임준상 씨 25전

— (중략) 양주 이담면 내동교회 내
한석진 씨 1원
원빨나 씨 60전
원원보 씨 40전
한택수 씨 30전
이용승 씨 10전
이엘리사벳 씨 30전
한리디 씨 20전
원이베가 씨 20전
이사라 씨 10전
한네오미 씨 10전
한줄례 씨 10전
한민의 씨 10전
한명진 씨 6전
최네오미 씨 4전

위의 자료를 통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1) 1911년에는 동두천 지역에 확실한 형태의 교회가 존재하였다는 것
- 2) 동두천의 교회는 황매동교회, 또는 내동교회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이는 교회가 위치한 황매동 지역을 부르는 각각의 지명을 따서 교회의 명칭을 삼고 있어 아직 확정된 교회의 명칭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
- 3) 최초의 교회는 설립과 동시에 이웃을 섬기는 구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 4) 교회에 나오는 여자 신도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어 주고 있다는 것 - 당시에만 하여도 여자에게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아 교회에서는 성경에 근거한 이름을 별도로 지었던 것으로 추정됨

본 자료에 나오는 <황매동교회>와 <내동교회>는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같은 교회의 별칭으로 보이거나 정확한 사실 여부는 보다 깊은 자료의 발굴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8. 일제의 토지 수탈과 저항

일제는 한국 강점과 함께 본격적인 자원과 민중 수탈에 몰두하였는데 그 중 행정력을 가장 집중하였던 부분이 바로 토지의 수탈이었다. 그들은 일찍이 영국이 인도의 자원을 조직적으로 수탈하기 위하여 설립하였던 동인도회사를 모방하여 1908년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이어 국권 강탈과 동시에 토지조사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토지 수탈에 나서게 되었다.

이 사업은 일본자본의 토지점유에 적합한 토지소유의 증명제도를 확립하고, 은결(隱結) 등을 찾아내어 지세수입을 증대시킴으로써 식민통치를 위한 재정자금을 확보하며, 국유지를 창출하여 조선총독부의 소유지로 개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이 모두 한국을 식민지로 개편하려는 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었다.

이 토지조사사업은 1905년 을사늑약 직후 통감부가 설치되면서부터 계획되어 1907년부터 국유지와 민유지로 나누어 국유지 점유 정책부터 집행되었다. 일제는 통감정치를 실시함과 동시에 한국정부에 요구하여 일본에 한국의 측량기술자를 초빙, 측량술을 습득하도록 하는 한편, 이듬해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법적으로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준비과정을 거쳐 1910년 초 토지조사국을 설치, 이어 국권침탈과 함께 토지조사국을 조선총독부로 이관, 임시토지조사국으로 개칭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다.

1912년 조선부동산등기령·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토지조사령을 공포하여

사업을 촉진시키는 한편 1914년 지세령과 토지대장규칙을, 1918년에는 조선임야령 등을 공포함으로써 전국적인 토지조사사업을 진행, 완료시켰다.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에 앞서 토지조사에 따르는 분쟁을 해결하고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토지관습조사(土地慣習調査)를 하였다.

그리고 토지조사를 크게 ① 토지소유권조사 ② 토지가격조사 ③ 지형지모(地形地貌)조사로 나누어 진행하였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업무와 측량업무를 병행하였다.

민유지(民有地)에 대한 토지조사 절차는 대체로 ① 토지신고서 용지 배포와 설명 ② 토지신고서 작성과 제출 ③ 토지신고서와 결수연명부(結數連名簿) 대조 ④ 필지의 지구·강계(疆界)·지목·지번조사 ⑤ 사정(査定) ⑥ 토지등기제도의 시행 등으로 실시되었다.

이러한 절차와 방법으로 시행된 토지 조사사업은 여러 가지로 많은 모순이 있었다. 먼저 국민 대다수가 근대적인 소유권에 대한 지식이 없었으므로 토지소유자가 국가인지 경작자 자신인지를 구별하지 못하였고, 특히 농민들은 근대적인 법령·절차에 대한 경험이 없어 신고주의를 이해하지 못하였으며 민족감정의 발로로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았다.

무엇보다도 정한 기일 안에 신고해야 하였으므로 교통이 불편한 당시로서는 이를 이행하지 못한 농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갔으며, 더욱이 토지를 정직하게 신고하면 과중한 세금을 붙여 토지를 빼앗는다는 유언비어를 흘림으로써 일제에 대해 극도의 의구심을 품고 있던 농민들로 하여금 신고를 기피하도록 하여 토지를 강탈하는 구실로 삼았다.

이러한 신고제를 통하여 종래의 국유지는 모두 식민지당국의 소유가 되어 당시 일제가 국유화한 1,120만 6,873정보는 전 국토 총면적의 50.4%에 해당하였다. 그 밖에 신고되지 않은 농민의 토지 다수와 미개간지·간석지·산림 등이 조선 총독부의 소유가 되었다.

약탈한 농지·간석지·산림 등은 동양척식주식회사를 비롯한 일본의

토지회사나 일본인 이민자들에게 무상이나 싼값으로 불하되었다. 따라서 조선총독부는 최대의 지주가 되고 일본인 대지주가 많아졌다. 토지조사사업의 결과 파악된 농지면적은 총 487만 1,071정보로서, 이는 1910년 당시의 농지면적에 비하여 80.7%가 증가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 조사사업으로 조선총독부는 지세수입의 원천을 확보하고 수탈경제의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였다.

한편 이러한 토지신고는 토지소유권자에게만 허락되고 전호(佃戶)의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그들은 계속 소작농으로 남게 되어 봉건적인 지주·소작인관계가 지속되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지주의 권익을 엄호해주는 일제와 한국인 지주와의 구조적인 밀착이 이루어져 소작료율이 앙등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작농이 몰락하여 유리민(流離民)이 되고 그들이 임금노동자로 전락하는 계기를 이루는 등 농민층의 분화를 한층 가속시켰다.

임금노동자로 전락한 농민의 숫자는 해마다 증가하여 1912년 약 35만 명, 1917년에는 약 45만 명이었으며, 또한 화전민으로 전락하는 농민의 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1916년 24만 5,000명이던 것이 1933년에는 144만 명이 되었다. 이와 같은 고율의 소작료제도에는 일제의 간교한 술책이 담겨 있었다. 높은 소작료를 받음으로써 한국인이 생산한 많은 쌀을 자연스럽게 일본으로 가져갈 수 있었고, 빈궁화한 농민의 노동력을 도시나 광산 등에 집중시켜 싼 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었으며, 고율의 소작료와 농민의 궁핍화에 부수되는 고율의 이자율로 일본인 고리대금업자·금융자본가에게 큰 이익을 줄 수 있었다.

일제는 토지조사의 결과 국유지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익을 제기하게 하고 심사를 거쳐 이익을 수용하는 방편을 사용하였는데 동두천 지역에서도 일제의 토지 수탈에 항거하여 이익을 제기하는 사례가 속출하였다.

28) 양주군지 p.214-215 1992년 양주문화원

29) 『韓陽銀行會社組合要錄』(1929년판)

30) 大館金融組合(平安北道 朔州郡 外南面 大館洞) 및 東豆川金融組合(京畿道 楊州郡 伊淡面 東豆川里)이 設立되다. 『韓陽總督府官報』 1919.10.21 · 23

〈표 2-8-20〉²⁸⁾ 동두천 지역에서 일제 토지 수탈에 항거한 이의 제기

종류	토지 소재지	번지 및 필수	분쟁 제기자	결정일자
소유권	광암리	286	조병도	1916. 9. 11
소유권	걸산리 외 2곳	50 외 3 필지	경기도 장관	1916. 9. 19
일부	송내리 외 6곳	504 외 73필지	철도국 장관	1917. 7. 7
소유권	지행리	484, 485	이재룡	1917. 11. 28

위의 분쟁 기사를 보면 민간인의 이의 제기가 2건, 조선총독부 측의 이의 제기가 2건이다. 이는 쌍방 토지 소유권의 귀착을 상호 인정하지 못하고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일제의 악착같은 토지 수탈과 이에 대응하는 동두천 민중의 저항을 양면 모두 확인할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9. 일제강점기의 동두천 산업

일제 강점기에 동두천 지역에 나타나는 산업은 기본적인 농업 외에 일부 일본인들에 의하여 점유된 금융 및 판매, 운송업이 있었다.

자료에 나타나는 일제 시기의 동두천 기업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명 동두천운송합자회사(東豆川運送(合資))

자본금 3,000 원

목적 운송 및 운송 취급업

사장/대표 김병호(金炳皓)

업종 운수창고

설립일 1927-09-10

본점주소 경기도 이담면 동두천리²⁹⁾

2) 회사명 동두천금융조합(東豆川金融組合)³⁰⁾

자본금 2,120 원

적립금 18,000 원

사장/대표 한정석(韓鼎錫)

중역 우라가와(浦川數之助)

업종 금융조합

설립일 1919-09-13

본점주소 경기도 양주군 이담면 동두천리

동두천금융조합은 사업이 번창하여 덕정리에 지점을 내고 있는데 신문기사에 의하면 이 지점의 대부가 저금액을 초월하여 1인당 평균 저금액이 11원인데 대부액은 1인당 평균 80원에 이른다는 당시 사회상의 일면이 보도되고 있기도 하다.

3) 회사명 : 길문상점(吉門商店(합자合資))

업종 상업

설립일 1930-09-17

대표자 나이토(内藤正二)

목적 신탄薪炭제조 도소매

자본금 8,000원

본점주소 경기도 이담면 동두천리

4) 회사명 : 동광주조(東光酒造(합자合資))

업종 양조업

설립일 1941-01-09

대표자 오오쿠리(大倉德藏)

목적 조선주의 양조 판매

자본금 20,000원

본점주소 경기도 양주군 이담면 동두천리

아울러 1930년대 후반에 이르러 갑자기 동두천 여러 지역에 광업권이 설정되고 광산 사업에 착수하는데 이는 당시에 일었던 금광 개발 붐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당시 기록에 나타나는 동두천 지역 광산개발과 관련한 자료를 일람하면 다음과 같다.

〈표 2-8-21〉 일제강점기 동두천 지역 광산 개발 자료

채굴 대상 광물	광산의 위치	채굴 신청자	관보등재일	내용
금, 은, 아연	이담면	모리(森 峰一)	1926,1,30	광업권 설정
금, 은, 아연	이담면	가토오(加藤良房)	1938,2,9	안흥리 86번지 마차산에 가등금광사무소를 설치 채굴에 착수
금, 은	이담면	김재영 외 3인	1938,11,26	광업권 설정
금, 은	이담면 포천면	박기준	1939,11,27	송내리에 칠봉광산사무소 설치 광업에 착수
금, 은	이담면 청산면	마쓰다(松田昌元)	1941,3,11	광업권 설정

이외에 요식업 장소로 당시 신문기사에는 송월관(松月館)이라는 식당과

한성여관이라는 숙박업소가 나타나고 있으며 송내리와 지행리의 농기싸움의 결과 부상자가 나왔다는 기사에는 동제의원이라는 병원이 등장하고 있다.

한편 일제 하의 동두천 상업은 여전히 정기시가 중심이 되고 있다.

동두천의 장시에 관하여는 1770년에 간행된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와 서유구(徐有榘)의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등에 동도천장(東道川場)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이 가장 오래된 문헌 기록이다. 동도천은 <북도천장(北道川場)>과 함께 나타나는데 이 북도천이라는 지명은 현재 동두천을 관류(貫流)하는 신천(莘川)의 옛 이름으로 추론된다. 왜냐하면 신천이 북류(北流)하는 내천이므로 아마도 이에서 북도천(北道川)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기록에는 동도천장이 현재의 동두천역 앞에, 북도천장은 현재의 봉양리에서 각각 열렸다고 되어 있어 이 추론의 신빙성을 더해준다. 당시에 동도천장은 현재처럼 5일장으로 각각 5일, 10일에 열렸는데 이 장은 경기 북부 지역에서 솔모루장, 다락원장, 가래비장과 함께 규모가 큰 장으로 손꼽혔다. 동도천장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가 바로 동두천 지역의 기미 만세시위이다.

당시 시위는 동두천 장날을 이용하여 거사하였는데 이에 참가한 인원이 1,300여 명에 달하여 당시 경기도 각기의 시위 군중으로는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 동두천장은 동두천 일원은 물론 포천, 덕정 등 인근 지역에서도 장꾼이 참여하여 각지의 물산을 거래하는 등 대규모의 장터였고 이렇게 큰 규모의 장이 서는 곳이었기에 장터 인근에 동두천역이 설치되는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짐작된다.

10. 일제하 동두천의 기타 생활상

31) 1939년 5월 10일 자 『동아일보』

1) 동두천번영회(繁榮會)

일제 강점기 동두천에는 <동두천 번영회>라는 단체가 조직되어 있었다. 당시의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단체는 특히 단오절을 맞이하여 각종 여흥을 베풀어 시민들과 함께 즐기고 있다.

궁술(弓術), 각희회(脚戲會) 등 성황

동두천번영회에서는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궁술, 씨름, 농악 경기회를 개최한다는 데 일반에 참가를 바란다하며 여흥으로 매일 성악연주와 13, 14일은 광대의 풍성노리를 겸행하고 상품은 다음과 같다 한다.

- 궁술(弓術)경기회 1등 황우 1두
2등 백미 1섬 외 5등까지
- 각희(脚戲) 경기회 1등 황우 1두
2등 백미 1섬
- 농악(農樂)경기회 1등 황우 1두
2등 백미 1섬 외 4등까지³¹⁾

2) 조기회(早起會)

동두천리를 중심으로 조직된 일종의 자조(自助) 협력 조직이다.

양주군 이담면 동두천리에서는 구장 김인수(金仁洙) 씨를 비롯하여 어명례(魚命禮) 사토(佐藤)의 노력과 지도하에 주민 200여호가 조기회(早起會)를 조직하고 매일 새벽 5시경이면 집합하여 도로수선 시가(市街)청결(清潔), 기타 퇴비(堆肥) 등으로 조반(朝飯)전 시간을 이용하여 공동생활에 많은 편익을 주고 있다 한다.

한편 신문사에 투고한 학생의 문학 습작 중에 우리 동두천을 소재로 한 시 한편이 소개되고 있는데 아직 어린 학생의 습작이라 문학적 완성도는 낮지만 당시 동두천이 학생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다가섰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자료라고 생각되어 여기에 소개해 보기로 한다.

32) 그가 투고한 시는 이 <동두천 소견> 외에도 <산촌(山村) 모경(暮景)>, <산촌(新春) 망향(望鄉)>, <다방(茶房)>, <탐추서정(探秋抒情)>, <청추백골부(淸秋白骨賦)>, <추회(秋懷)> 등이 보인다.

동두천 소견(所見)

- 혜화전문 장성진(張星軫)

비단결 푸르른 수면(水面)에
백양(白羊) 털 구름이 뭉게뭉게 흐르고
열 여덟 가시내 푸른 마음도
물 따라 흐르고 흐르고 끝이 없나니
6월 훈풍이
초원(草原)을 지나서 시내를 건넜으

기름진 버들은 하느적 하느적
피꼬리 울고 간 뒤 음향(音響)이 곱고
주홍 빛 댕기가 풀밭에 숨었으

이 시를 쓴 장성진은 혜화전문 학생으로서 동아일보 등에 많은 시를 투고하고 발표한 당대의 학생 시인이었다.³²⁾

한편 아직 농사일에는 두레가 필수적이었던 당시 농기(農旗)싸움도 자주 일어났는데 두레가 농기를 앞세우고 농지(農地)로 행진하는 중에 다른 두레패를 만나면 선후를 가려 농기배(農旗拜), 즉 절을 하는 것이 예의였는데 이 경우 선후 관계가 애매하면 곧잘 시비가 붙어 집단 난투가 벌어지곤 하였다. 당시 동두천 지역에서 일어난 농기싸움의 전말을 보자.

-농기(農旗) 때문에 싸워, 8명의 중경상(重輕傷)내어 농기에 대한 지나친 생각에서, 1명은 생명(生命)이 위독(危篤)

동두천 농촌진흥회 보조기관인 동계(洞契)는 공동작업, 간식배지, 조기(早起) 등 유익한 계(契)인데 양주군 이담면 지향리 입구 경원가도에서 동군 동면 지향리(紙香里) 농기와 동면 송내리(松內里) 농기가 서로 기 싸움이 이러났다. 지난 12일에 전기 두 동리 농계에서 한 줄에다가 기를 꺾고 화목하게 공동 작업을 하고 서로 기를 들고 자기 동리로 도라 가든 중 지향리 농기를 송내리로 가는 도중에다가 세우고 송내리 기가 지나가겠다고 길을 빗겨주지 않아 기 옆으로 지나가랴한 지음에 기 줄을 잡아 단여 기가 넘어지게 한 후 호미와 돌로 서로 따리며 싸움을 한 후 송내리 측에서 부상자 3인을 내고 헤어진 후 동리 모 유지의 화해로 사건은 원만해결을 지랴 할 지음 14일 밤 8시 경에 양편이 서로 돌과 곤봉을 들고 싸움을 하다가 결국에는 두 동리 싸움으로 되어 수백 명이 한데 어우러져 싸운 후 지향리 농회 측에 부상자 5인을 내고 헤어 져는데 부상자는 밤으로 즉시 동두천 동제의원(東濟醫院)에 입원 치료 중인데 지향리 측 부상자 중상자 중 박덕빈(42)은 생명이 위독하다고 한다.

송내리측 부상자 : 어선우(魚善愚) 조인득(趙仁得) 윤수홍(尹秀弘)
지향리측 부상자 : 진우(陳愚) 박덕빈(朴德彬) 박석순(朴石順) 조(趙)억(億) 박태민(朴泰萬)

11. 일제강점 말기의 민족말살정책

일제는 1931년 9월 18일 밤 중국 동베이[東北] 지방의 선양 근교를 침공하여 이른바 만주사변을 일으킨데 이어, 1937년에는 중국 본토를, 1941년 12월 8일 새벽에는 하와이 진주만(眞珠灣)을 기습하는 등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의 기치 아래 태평양전역으로 전쟁을 확대시켜 나갔다.

그리하여 1938년에는 지원병 징용제도를 실시하고 1942년 5월 한반도 징병제, 1943년 8월 해군특별지원병제, 10월 학도병제 실시로 젊은이들을 대량 동원시켰다. 한편 대륙침공의 전초 기지로서 한반도에 군수산업을 이식하여, 군수물자 생산과 자원개발에 조선인을 징용하여 공장과 광산으로 보냈는데, 1940년까지만 해도 국내 동원 260여만 명, 일본 및 점령지역 72만 명에 이르렀다.

1939년에는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어야만 하는 창씨개명(創氏改名)을 법제화하여 개명을 강요하였고, ‘제3차 교육령’을 공포하여 일본 본토 학교에서와 똑같은 교육 내용의 내선공학(內鮮共學)을 실시하여 조선어 과목을 아주 없애고 우리말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체벌을 가할 뿐만 아니라, 이름 바꾸기에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불령선인(不逞鮮人)’이라는 딱지를 붙여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주고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등 못살게 굴었다. 즉, 창씨개명을 하지 않으면 각급학교에 입학이 허가되지 않았고, 각 행정관청에서 사무취급이 거부되었으며, 더 나아가 식량과 그 밖의 다른 물자를 배급받을 수 없었고, 조선식 성명으로 우송된 화물의 수송이 전면 금지되는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극심한 탄압을 가했다. 그리하여 1년 남짓 되는 기간 안에 거의 80%에 달하는 사람이 이름을 바꾸기에 이르렀다.

그밖에도 일본은 조선민족을 근본적으로 말살하기 위해 어용학자들을 동원해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 즉 일본민족과 조선민족의 조상이 같다는 동조동근론(同祖同根論)을 내세우며, 민족 자체를 말살하고 일본정신을 가지도록 강요했다. 즉 고대사회에서는 조선민족과 일본민족이 같은 민족이었음을 내세워 일본의 조상신인 천조대신(天祖大神)의 신주를 조선인의 가정에 걸어놓고 숭배하도록 강요하고 동방요배, 황국신민의 서사 등 민족 정신 말살에 전력을 기울였다.

33) 1939년 3월 21일 동아일보 석간

한편 징용과 징병에 이어 공출이라는 미명하에 각종 전쟁물자를 수탈하고 국방헌금을 강요하였다. 참으로 암울하였던 당시 민족의 수난은 동두천이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다음의 자료는 당시의 동두천 상황의 일단을 보여준다.

동두천 소학교 지도생 윤선봉(30)은 3원을 국방헌금으로 학교에 전하여 왔는데 윤선봉은 근실한 학도로 매일 나무를 해다 아침마다 시장에 내다팔아 가정경제에 보태는 한편 품꾼이 저급하여 황국을 향한 열정의 헌납금으로 일반은 칭송이 자자하다고 한다³³⁾

12. 해방공간의 동두천

1) 민족해방과 국토분단

한국은 1945년 8월 15일,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이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을 함으로써 일제의 강압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이때부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까지를 군정기(軍政期)라고 부르며, 38선 이북에서는 소비에트연방군이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이전까지, 38선 이남에서는 미국군이 1945년 9월 9일부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 한반도를 다스리게 된다.

이는 알타회담(1945년 2월)에서 미국, 영국, 소련 사이에 이루어진 비공식적 합의에 따라 소비에트 연방과 미국이, 한반도를 위도 38도선을 경계로 각각 분할 점령하게 되었으나 이는 잠정적인 것으로 우선은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이에 따른 치안 확보, 그리고 나아가서는 각각의 점령지에서 민중이 선택하는 형태의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미·소 양 점령군의 점령정책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형태의 정부 수립을 목표로 추진되어 결국 북쪽에는 소비에트사회주의 연방(소련)의 영향 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남쪽에는 미국의 원조 아래 대한민국이 국가적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 남한에서는 수많은 정치 단체들이 조직되어 이합집산(離合集散)하였고, 제주 4·3 사건 등 좌우익이 심각하게 대립하였다. 38선 이북에서는 1946년 2월 8일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구성되어 사실상 정부의 구실을 하였다. 1947년 국제연합에서 제안한 남북한 총선 실시가 북한에 의해 거부되어, 1948년 5월 10일 남한 지역의 총선을 거쳐 제헌국회의원과 대통령이 선출되었으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건국과 정부수립을 만방에 선포하였다.

아울러 1949년 국제연합은 대한민국을 합법정부로 인정하였다. 한편 소련을 후광으로 하여 정권을 잡은 김일성은 점차 공산주의 지배 체제를 확고히 한 뒤 마침내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다.

군정이 실시되던 해방공간에서 동두천은 분단의 기준점인 38도선이 한탄강 남안을 지나기 때문에 남북 분계선의 남측 최북단에 위치하게 되어 당시의 남북관계의 혼란과 대립을 가장 첨예하게 겪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일시적이라던 남북의 분단이 점차 국경선의 형태로 고정되고 이에 따라 남북의 군사적 대립도 격화되어 갔는데 그 대립과 대결의 현장이 바로 동두천이었다. 경원선이 동두천까지만 운행되면서 역시 원산에서 전곡까지 운행되던 북측지역의 경원선을 이용한 남북의 물자교역이 동두천에서 이루어졌고, 남한으로 넘어오는 피난민이 한탄강을 도하하면 처음 만나는 남한 지역이 바로 동두천이었기 때문이다.

소요산 단풍 관광지이자 제법 큰 규모의 장이 서던 조용한 시골이 갑자기 분단의 현장이 되었고 나아가 민족 상쟁의 전쟁이 시작 되는 비극의 시발점이 된 것이다.

2) 경원선 열차의 분단 종점 동두천

해방이 되고 남북이 분단되면서 경원선 열차도 분단되었다. 서울에서 원산까지 운행하던 열차는 서울역에서 동두천까지로 그 운행 구간이 축소되었다.

34) 『조선일보』 1946년 1월 9일 자

35) 『동아일보』 1946년 2월 1일 자

물론 북쪽 구간에서도 원산을 출발한 경원선 열차는 서울로 오지 못하고 전국에서 멈추어야 했다. 구간의 축소와 함께 열차를 운행하던 기간 인력이 일본으로 떠나고 나자 당장 열차 운행에는 심각한 차질이 발생했다. 열차의 상당 부분을 정상운행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 숙련된 기간인력의 이직과 함께 열차 운행에 필요한 연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였다.

이후 열차의 정상운행을 위한 정부의 각별한 노력이 집중되었고 그 결과 점진적이거나 열차 운행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 운송국에서는 38도 이남에 있어 소하물취급이 중지되어 있는 것을 다시 부활시키기 위하여 9일 오후 1시부터 경성, 대전(大田), 부산(釜山), 순천(順天), 경북 안동(安東)의 지방철도사무소 관계자와 조선운송(朝鮮運送)관계자, 본국 배차계 관계자가 참석하여 중간 차타합회(中間車打合會)를 개최하였다. 각 철도사무소 구간마다 소하물취급 전용차를 한번씩 운행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각역에서 소하물취급을 이달 15일부터 실시하기로 되었다. 그러나 중간차 운용이 없는 구간에 대하여서는 소관사무소에서 적당한 열차의 차장 차로 수송하도록 열차지정을 한다. 이 소하물취급 부활로 객차의 파손을 방지하며 일반 여객의 혼잡을 완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간차 운행구간은 다음과 같다.

- △ 경성(京城)-대전(大田) △대전(大田)-대구(大邱) △대구(大邱)-부산(釜山)
- △ 경성(京城)-인천(仁川) △김천(金泉)-점촌(店村) △삼랑진(三浪津)-마산(馬山)
- △ 마산(馬山)-진주(晉州) △대전(大田)-송정리(松汀里) △송정리(松汀里)-목포(木浦)
- △ 이리(裡里)-순천(順天) △순천(順天)-여수(麗水) △송정리(松汀里)-순천(順天)
- △ 경성(京城)-토성(土城) △경성(京城)-동두천(東豆川) △청량리(淸涼里)-제천(提川)
- △제천(提川)-안동(安東) △안동(安東)-부산(釜山)³⁴⁾

- 일본에서 들여올 예정이던 석탄이 들어오지 아니하여 극도의 석탄난을 면치 못한 운송국에서는 2월 1일부터 전국선(全局線)에 한하여 대폭으로 열차운행을 줄이기로 되었다. 이번 열차운행 제한으로 경부선(京釜線)과 경인선(京仁線)은 2회 왕복(이밖에 경성-천안간 구간열차를 1회 왕복, 경의선과 경원선 이밖에 청량리-동두천간 1회 왕복)은 1회 왕복으로 열차운행이 줄었는데 경성-목포·여수간 601·602 직통 왕복열차 운행은 폐지되고 이에 대신 대전-목포와 대전-순천간 열차가 운행된다. 그리고 용산선은 종전과 다름이 없는데 이밖에 모든 각 지선의 열차운행은 1회 왕복만으로 줄었다. 석탄의 순조로운 수입과 운송당국의 노력으로 지난 2월 1일부터 일부 휴지되었던 열차운행이 4월 15일부터 다시 대량으로 부활되는데 주요간선의 운행수는 다음과 같으며 이 실시기일은 각 현장의 준비여하에 따라 25일 또는 그 후로 연기 될지도 모른다 한다.

- 경원선(京元線); 경성(京城)-동두천(東豆川) 3왕복(1왕복 증설예정)³⁵⁾

- 복잡을 이루고 있는 경원선여객을 완화하기 위하여 운수부에서는 18일부터 경의선(京義線) 간에 1왕복을 증발하는 동시에 경원선(京元線)간도 매주 토요일마다 1왕복 임시열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동 열차의 발차시간은 다음과 같다.

◇ 경의선(京義線)

경성 발(京城發) 14시 15분 토성 착(土城着) 17시 0분
토성 발(土城發) 10시 0분 용산 착(龍山着) 14시 30분

◇ 경원선(京元線)

매주 토요일 운행(每週土曜運行)

경성 1발(京城發) 12시 50분 동두천 착(東豆川着) 15시 27분
동두천 발(東豆川發) 6시 30분 청량리 착(淸梁里着) 17시 55분³⁶⁾

철도종업원의 일부 취업을 보아 철도당국에서는 9월 30일에는 경인선과 경부선의 시운전을 하고 10월 1일부터 당분간 통근열차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열차를 부활 운행하였다.

◇ 京元線

청량리발 4, 25	동두천착 5, 28
동두천발 5, 50	경성착 7, 30
경성발 17, 20	동두천착 19, 00
동두천발 19, 30	청량리착 20, 29 ³⁷⁾

운수부, 철도여객과 화물운임 인상 통첩

전기요금의 6배 인상에 뒤이어 철도운임(鐵道運賃)에 대한 당국의 조치가 주목되고 있었는데 운수부에서는 1일 관하 각 역에 5일부터 철도운임을 여객은 5할 화물은 평균 4배를 인상하라는 통첩을 발하였다.

철도운임 인상은 전년에 중앙경제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던 것인데 인상하는 이유는 운수부의 경비가 증고(增高)한 것과 철도의 각종 시설 경비에 대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때문인 바 일반에게 미치는 영향 자못 심대한 것이 예상된다. 이와 같이 운임 인상된 결과 서울역으로부터 주요 각 역으로 가는 여객운임은 부산 620원, 대구 490원, 대전 270원, 목포 640원, 여수 680원, 인천 60원, 개성 110원, 동두천 90원으로 오르는데 화물운임은 원거리체감법(遠距離遞減法)에 의하여 근거리는 비싸고 원거리면 싸지는 바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생략)

위의 자료들에 나타나는 것처럼 해방 직후의 열차 운행은 제반 사정에 따라 어려움을 겪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집중 경주되었다.

당시 경원선 열차의 종점인 동두천에서 서울까지 2시간이 넘게 소요되었던 것과, 서울에서 동두천까지의 운임이 50% 인상되어 90원이었다는 사실을 알려 주기도 한다.

36) 『조선일보』, 1946년 5월 17일 자

37) 『서울신문』, 1946년 10월 6일 자

38) 『동아일보』, 『조선일보』, 1947년 03월 21일, 1947년 03월 30일, 1947년 04월 08일

39) 『경향신문』, 1947년 04월 30일

40) 『동아일보』, 1947년 05월 21일

3) 월남 피난민과 동두천

3·8선의 분단이 고착되면서 동두천은 자유를 찾아 월남해 오는 북한 피난민의 주요한 도착점이 되었다.

당시의 자료에는 동두천에 몰려드는 피난민을 수용하기 위한 임시 수용소가 동두천에 설치되었고 여기에서 소독과 신원 및 소지품에 대한 검열이 있는 후 다시 의정부의 수용소로 수송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에 관련된 자료를 보자.

봄을 따라 조국으로 돌아오는 만주방면으로서의 전쟁동포와 북조선의 식량사정으로 살길을 찾아 마의 장벽 38선을 넘어 들어오는 피난민이 매일 1천 수백명에 달한다고 함은 기보한 바와 같거나와 남조선은 한겨레의 사는 땅이라고 육속 남진하여 오는 전재동포와 피난민들의 사태를 시급히 구호 지도하기 위하여 보건후생부에서는 막대한 예산으로

청단(靑丹) 500명	토성(土城) 750명	동두천(東豆川) 1,000명
춘천(春川) 250명	주문진(注文津) 250명	

이상과 같이 5개소에 매일 총수 2,750명을 수용하여 급식 치료 숙박 무임승차 갈 곳 지도 등 모든 구호를 할 수 있는 국영구호검역소를 4월 1일부터 개설할 것을 결정하고 각각 현지에 직원을 배치하고 있다. 그리고 따로 강원도와 경기도에서도 전기 5개소 이외의 요소 요소에 임시검역 구호소를 두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겨울 전재동포구호를 위한 가 주택 건설에 실패한 경험에 비추어 후생부에서는 만전의 조치를 다하고 있다.³⁸⁾

38선 접경 3개소 월남 수용자수가 2천여 명으로 알려짐
38선 접경에 수용소를 설치하고 이북에서 넘어오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을 물론하고 일단 수용하였다가 방역과 신분조사가 끝나야만 내놓고 있는데 보건 후생부 발표로 4월 24일 현재의 수용인원을 보면 수용소 10개소 중 동두천(東豆川) 1,091명 청단(靑丹) 538명 토성(土城) 643명으로 3개소에만 2,273명에 달한다고 한다.³⁹⁾

월남 동포 위한 보건후생부 직영수용소 각도에 설치 예정
요즈음 38이북에서 남하하는 동포의 수효는 날로 증가되어 매일 수천명에 달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보건후생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청주(淸州) 충주(忠州) 대전(大田) 진주(晉州) 대구(大邱) 영주(榮州) 의성(義城) 마산(馬山) 광주(光州) 전주(全州) 춘천(春川) 원주(原州) 김천(金泉) 오산(烏山) 등 남조선 각지에 각도 직영 전재민수용소를 신설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번 도지사 회의석상에서 예산 기타사항에 대하여 지시한 바 있었다고 한다.

현재 청단(靑丹) 토성(土城) 개성(開城) 동두천(東豆川) 주문진(注文津) 등 각지에 설치된 수용소는 전부 국영으로서 38선 근처에 편재하고 있으므로 전재민의 도시집중을 막을 길이 없을 뿐 아니라 각도에 연락기관이 없으므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 각도에 사무통일계통의 수용소를 설치하게 되어 전재피난민에 대한 통일적 항구대책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⁴⁰⁾

한편 당시 동두천에 설치된 피난민 수용소에 관하여는 이를 탐방한 기획기사가 남아 있어 전모의 일단을 살펴볼 수 있다. 관련 자료를 검토해 보자.

41) 『동아일보』, 1947년 6월 7일

〈전재민수용소 현지보고〉 사선을 넘는 희망의 행렬 - 동두천 편

「한탄강아 잘 잊거라」

남부여대(男負女戴)로 남하(南下)하는 초라하고 창백(蒼白)한 그들의 정상(情狀)

- 가지가지의 비극을 자아내며 사선의 3·8선을 넘어 남하하는 전재민의 숨은 행렬의 움직임은 암담한 현실을 보고져 기자는 구진 비 나리는 4일 밤 남북국경 동두천 구호소를 차졌다. (동두천에서 한(韓) 특파원)

살인적인 식량부족과 공포적인 강압정치로 말미암아 살길을 차져 월남하는 동포들을 구호하고자 지난 4월부터 청단, 토성, 개성, 의정부, 주문진, 춘천, 포천 등지에 국립구호수용소를 설치하고 방역 구호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지난 7월 10일 현재 각 구호소를 거쳐 온 동포의 총수는 9만 2천 5백 7십 4명으로 연인원 28만 6천 2백 5십 2명 급식인원 16만 8천 1백 8십 4명 그 중에 구호를 받는 사람만 6천 4백 14명에 달하였다. 일본 군인의 무장해제를 하기 위하여 설정되었던 3·8선은 갈수록 복잡 미묘한 국제정세의 추이에 따라 미소 양군이 서로 총검으로 대치한 국경을 이루어 남북에 나누인 동포 형제들의 가슴을 몹시도 안타깝게 하였고, 경제 적으로 만신창의를 만들게 하고 말았다.

연천(漣川) 방면으로부터 남부여대(男負女戴)하고 물결 사나운 한탄강(寒灘江)과 험준한 산마루턱을 넘고 넘어 구사일생(九死一生)으로 남천(南天)을 향하여 동두천으로 몰려오는 함경남북도와 강원도의 이재 피난민들의 보따리 행렬은 초라하고, 우선 D·D·T로 소독하고 예방주사를 노흔 다음 경찰에서 보따리 짐짝과 신체를 검사하고 임시로 처노는 20여개의 미군 천막에 나누어 수용하였다가 매일 한 번씩 기차로 의정부수용소까지 경찰에서 호송하게 되는데, 지난 4월과 5월에는 매일 하로에 500명씩 이곳을 거치게 되더니 지금은 50명 내지 백명이나 되며 또 따로 지름길을 더듬어 서울 방면으로 가는 사람도 날마다 백명을 넘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지난 3,4월 경에 넘어 온 사람들은 대개 노동자 농민이었는데, 지금은 각급 인민위원회 사무원, 의사, 교원, 소시민들이며 이제까지 초근목피(草根木皮)로 삼순구식(三旬九食)을 하여 오다가 감자의 수확과 만주로부터 수수 좁쌀 등이 약간 넘어와 식량사정은 다소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돈이 생길 일자리가 없고 억압이 가중되어 할 수 없이 조상의 뼈를 파무든 고향을 버리고 비장하게 3·8선을 넘어 온다.

북조선에는 소련군이 진주한 후 김일성씨를 위원장으로 하는 인민위원회가 소련의 정치이념을 그대로 받아들여 「쓰비엣뜨」화를 최종의 목표로 군사, 정치, 경제, 과학, 종교, 문화, 교육, 사회 등 모든 봉건제도의 개혁을 단행하였고, 더구나 토지, 노동, 산업정책을 쇄신하여, 농민, 노동자, 사무원들의 낙천지로 미주과업을 과감하게 실천하고 있는 듯이 남조선노동당을 중심으로 하는 민전계열에서 그들의 체계있는 조직망과 복잡한 선전면을 통하여 거대한 모락을 띄우고 있으나, 사실은 냉철하게 비판되어야 할 것으로 대량적 민족의 이동을 보고 또 그들의 입을 통하여 듣건대, 북조선의 암흑 경찰 행정과 양의 가죽을 쓴 이리(狼) 무리와 같은 「공산팃소」의 민족 기만적 선전에는 새삼스럽게 슬퍼하지 않을 수 없었다.⁴¹⁾

42) 『동아일보』, 1948년 6월 2일

위의 기사는 동두천에 설치된 피난민 구호 수용소를 르포한 기사로서 한국 전쟁 이전의 기사이다.

즉 기자와 같은 당시 지식 계층의 상당수가 사회주의를 호의적(好意的)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던 상황에서 동두천 수용소의 현실은 북의 실상을 강력히 증언하고 좌익의 거짓 선전을 반박하는 유력한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북한 주민의 월남은 1946년에 들어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임박하고 아울러 북에서는 그들 나름대로의 사회주의 독재정권의 수립이 가시화하면서 더 대규모로 이루어진다. 이는 계급독재에 따르는 기존의 부유층에 대한 숙청과, 사회주의 노선을 부정하는 북한 우익 지식인, 종교인 층의 대거 월남으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 5월중 만 여명의 북조선 동포 월남

남조선의 2천만 동포의 열렬한 애국지성으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독립 조선중앙정부의 수립을 위한 국민의회에서 민족의 여망을 등지고 헌법을 제정하며 국가구성법을 기초하는 등 중요한 의사를 차례로 진행하고 있거니와 소련진주군의 억압과 공산당 계열 반동분자들의 굴욕을 참아가며 진정한 민주주의적 국권의 회복을 바라는 애절한 비원이 하늘에 사모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10일의 총선거의 감격을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구경이라도 하려고 보따리 짐짝으로 38선을 눈물로 넘어오는 동포는 날을 더하여 늘어가 지난 한달 동안에 개성방면으로 6천7백여명, 동두천방면으로 3천7백여명, 주문진 5백여명, 춘천 6백여명 총계 1만1천5백여명에 달하였고 계속하여 어제도 오늘도 남부여대하여 울며 넘는 38선을 남하하고 있다. 이리하여 남북의 통일은 이들 월남동포의 증가와 아울러 가속도적으로 어질것기 기대되어 있으므로 남조선동포들도 그들의 서러운 사정을 힘과 정신으로 헤아려 주어야 할 것이 동족애로서 요청 되는 바이다.⁴²⁾

그러나 북한은 남으로 넘어 오는 피난민의 행렬을 거꾸로 이용하여 대남 적화 공작기도를 강화하고 있었다.

피난민과 남한 정부를 이간하고 피난 구호 정책에 편승하여 대남 공작을 시도하는 양면전략이었던 셈이다. 그들은 파괴, 공작 요인을 이들 피난민 대열에 잠입시켜 남쪽으로 파견하고 있었다. 대중봉기와 유격투쟁을 병행하려는 의도였다.

철도경찰청, 팔로군 포병학교 영장(營長)장석삼을 미군에 인도
북한 공산군이 월남하여 남한 일대에 일대폭동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신문보도로 이미 알려지고 있거니와 지난 6월 23일에는 철경의 손에 북한공산군의 간부가 체포되어 미군당국으로 인도되었다.

즉 철경사찰과 근무 김영도(金榮道)형사는 지난 6월 23일 동두천발 서울행 1302 열차에 이동 승무 중 거동이 수상한 자를 지목하고 이를 경찰청사찰과로 인치하여 엄중한 취조를 한 결과 이는 본적을 황해도 평산군 용산면 황촌리 477에 두고 또 전에는 만주(滿洲) 목단강성(牧丹江省) 목릉현(穆稜縣) 8면도(八面道)에 거주한 적도 있는 장석삼(張錫三)(37)으로 팔로군영장증(八路軍營長證)과 중국공산당의 신임장을 소지하고 있으며 또 그는 팔로군 포병학교 제3영장이라 자칭하고 있다 하며 철경에서는 6월 26일 이를 미군당국에 인도하였다.⁴³⁾

철도경찰청, 팔로군 포병학교 영장(營長)⁴³⁾장석삼을 미군에 인도
북한 공산군이 월남하여 남한 일대에 일대폭동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신문보도로 이미 알려지고 있거니와 지난 6월 23일에는 철경의 손에 북한공산군의 간부가 체포되어 미군당국으로 인도되었다. 즉 철경사찰과 근무 김영도(金榮道)형사는 지난 6월 23일 동두천발 서울행 1302열차에 이동 승무 중 거동이 수상한 자를 지목하고 이를 경찰청사찰과로 인치하여 엄중한 취조를 한 결과 이는 본적을 황해도 평산군 용산면 황촌리 477에 두고 또 전에는 만주(滿洲) 목단강성(牧丹江省) 목릉현(穆稜縣) 8면도(八面道)에 거주한 적도 있는 장석삼(張錫三)(37)으로 팔로군영장증(八路軍營長證)과 중국공산당의 신임장을 소지하고 있으며 또 그는 팔로군 포병학교 제3영장이라 자칭하고 있다 하며 철경에서는 6월 26일 이를 미군당국에 인도하였다.⁴⁴⁾

청량리 철도경찰대, 김일성대학 출신 남조선노동당 세포 30여 명 체포
신판 남로당 지하세포 공작대를 철도경찰대에서 대량 체포하였다. 즉 청량리 철도경찰대에서는 지난 7일 이후 3차에 걸쳐 동두천 방면 열차 내에서 남로당원 황효길(黃孝吉)(35) 외 12명과 여자당원 배옥희(裴玉姬)(20) 외 9명을 검거하였는데 취조한 결과에 의하면 전기 황(黃) 등은 작년 가을 남로당 중앙본부의 지령으로 38선을 넘어 월북하여 평양에 있는 김일성대학 부속 정치학원에서 6개월 동안 공산주의 교육을 받고 돌아오는 길이라 하며 그네들이 이북 소위 인민정부에서 받고 온 임무는 남한의 민국정부를 전복하고 김일성 정치주도하의 인민정부를 수립할 것과 국방군을 선동하여 내란을 일으킬 심산으로 국군에게 보내는 '국방군이여 그대들은 누구를 위하여 복무하는가?'라는 제목의 인쇄물 수백 매를 소지하고 있었다 한다. 또한 그네들이 고백한 바 현재 평양에 있는 동 정치학원에는 1,000여 명의 동무(?)들이 강습을 받고 있으며 이번 월남한 세포도 약 400여 명으로 각지에 잠복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하는 바 철경 본대에서는 급후 맹렬한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 한다.⁴⁵⁾

철도경찰, 북조선노동당(北朝鮮勞動黨) 위폐단을 검거
악착하게도 끝까지 민족을 좀먹으려는 좌익계열의 위폐단이 또 철경(鐵警)에 체포되었다. 즉 북로당원 이오열(李五烈)(28) 외 8명은 남한 중요시설 파괴 공작비를 조달하기 위한 수단을 수개월 전부터 청단과 동두천을 무대로 삼아 북한괴뢰집단의 화폐를 제작하여 월북하려는 사람들과 정부화폐를 5할인으로 교환하여 공작비에 충당하여 오던 바, 22일 시내 종로구 모처에서 철경대원에게 일망타진 되어 문초한 결과 북한 김일성인쇄공장의 지원을 얻어 위폐를 제작하여 이미 정부화폐와 교환한 것이 1,000만 원에 달하고 있었으며 더구나 위폐 제작에는 현 국회 내 모 전문위원(가명 李在信)의 지도로 일반인쇄는 물론 심지어는 모 권력기관의 경비원까지 동원, 경비시커가며 진행시켰다는 것도 자백하였다는 바, 배후관계가 극히 주목되고 있다 한다.⁴⁶⁾

43) 『동아일보』, 1948년 7월 7일

44) 『연합신문』, 1949년 5월 25일

45) 『동아일보』, 1949년 7월 27일

46) 『호남신문』, 1948년 12월 19일

47) 『동아일보』 1949년 5월 3일

이들 자료에는 북한 대남 공작의 다양한 양상이 모두 드러나 있다. 즉 전문적인 군사 전문가를 남파하거나, 월북한 남한 청년들을 교육하여 다시 남파하거나, 북한의 위조지폐를 남한의 정규화폐로 할인 체환(替換)하여 공작금을 만들고 아울러 남한 경제를 교란하려는 등의 다양한 기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위에 등장하는 자료들은 모두 우리 동두천을 무대로 검거되거나 실행되었던 사건들이다.

이미 남북의 '국경도시 동두천'이라는 르포 기사에도 나타나지만 동두천은 남북 대립의 첨예한 현장으로 앞으로 장기간 지속될 군 주둔지, 군사도시로서의 입지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다. 남북의 국경도시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당시 상황을 반영하는 자료가 있다. 기사의 정확도는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분단의 현장 동두천의 당시 상황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되어 이 자료를 인용 검토해 보기로 한다.

제5여단 사령부, 남·북조선 노동당(南·北朝鮮勞動黨) 대표의 동두천회의에서 결정된 지령에 대해 발표

육군 제5여단 사령부 보도부에서는 지난 18일 가공할 북로당 지령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제5여단 보도부 18일 발표 : 갖은 모략과 책동으로써 대한민국정부를 전복하고 살인파괴를 상투수단으로 하는 북한 괴뢰정부의 극렬분자들의 음모정체를 폭로시키며 이에 대하여 국군은 확고부동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음과 동시에 지난 15일의 매국지령 내용을 국민에게 공포하려고 한다.

◇ 북한 12월 15일 매국지령 : 남노당(南勞黨)과 북노당(北勞黨) 대표들은 객일(客日) 북한 동두천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전남사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집회하였다. 그 남노당(南勞黨) 중앙지령의 내용을 보면

- (가) 12월 15일을 기하여 남한 철도 급 자동차 도로를 파괴하는 동시에 정부요원 암살과 남한 중요건물을 동시에 파괴할 것
- (나) 북한은 미군이 간섭치 않으면 남한을 공격하려 함
- (다) 세포원을 동원하여 선전빠라 투입 혹은 산포(散布)를 13, 14 양일간에 철저히 감행할 것
- (라) 선전대는 12일부터 동원하여 협박·벽보·낙서 등으로 투쟁을 전개할 것. 1명이 5개소 이상의 낙서를 할 것
- (마) 동민(洞民) 반동(反動)청년동원대에 향하여 협박전술을 감행할 것. 중점을 각 동 사무소 무식 대중에게 둔
- (바) 경축대회에 관한 포스터를 찢어버릴 것
- (사) 선전탐을 소각할 것
- (아) 테러는...(이하 불상(不詳))
- (자) 구호, 소위 UN승인이라는 매국 경축대회를 쳐 부셔라. 조선민주인민공화국 만세⁴⁷⁾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의 반정부 투쟁 지침인데 문제는 이 투쟁 지침이 '북한의

동두천에서 남, 북 노동당 합동회의에서 결정되었다는 내용이다. 1948년 12월은 이미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완료되고 3·8선에서는 크고 작은 충돌이 계속 진행될 시기인데 이때 남북의 노동당이 동두천에서 회합하여 이와 같은 투쟁 지침에 합의하고 산하 세포에 지령을 내렸다는 것은 상당부분 수궁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보도의 출처가 육군 5여단 사령부라는 점에서 이를 무조건 부정하기만은 어렵다. 적어도 이 발표가 작전을 담당하는 군으로부터 나왔고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이 보도의 내용이 신뢰성을 확보하였건, 못하였건 우리에게 흥미로운 것은 1948년 당시를 포함한 해방 공간에서 동두천이 가지고 있던 국경도시, 남북 대립의 치열한 현상이었음을 다시 한 번 확증시켜 주는 자료라는 것이다.

이윽고 정부는 이와 같은 북의 대남 침투에 대비하기 위하여 당시 동두천에 대공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경찰서를 신설하여 대처하려 하였다. 동두천경찰서는 2009년에 와서야 개설되지만 남북 간에 전쟁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60년 전에 이미 개설되었을 수도 있다.

- 내무부, 38선 경비 강화를 위해 3개 경찰서를 증설
내무부에서는 38선의 경비를 강화키 위하여 금번 3개 경찰서를 증설케 되었다는데 해상경비를 위하여 인천에 수상경찰서 그리고 38접경인 동두천과 장성의 두 곳에는 각각 경찰서를 신설하기로 되었다 한다.

국경도시 동두천이 해방공간에서 확보하였던 또 하나의 입지는 동두천이 남북 교역의 현상이었다는 점이다. 분단이 고착되면서 동두천 지역은 특히 경원선의 접점으로서 기왕의 경원선 교역이 축소된 규모로나마 이어지는 현상이 된 것이다.

북은 남의 물자를, 그리고 남은 북의 물자를 서로 필요로 하고 있었고 이들 상대 물자의 교역은 상당한 이익이 남는 장사이기도하였다. 당시의 자료를 통해 남북 교역의 일단을 살펴보기로 하자.

48) 『경향신문』, 『서울신문』, 『조선일보』 1947년 6월 15

경기도 물가 감찰서, 남북교역상태 조사 발표 경기도물가감찰서(京畿道物價監察署)에서는 5월 21일 22일과 27일 두 번에 걸쳐 38선에 감찰관을 파견하여 왕래하는 사람과 물자교류 상태를 조사한 바 있었는데 그 결과를 다음과 발표하였다. 소자본 상인(약3만원 정도)은 육로로 대자본 상인은 연안 인천 마포항을 이용하고 있다.

※ 이북에서 수입하는 물품(토성(土城), 청단(靑丹)방면) 비누, 성냥, 양말, 비료(10관 한 포대 대금 이북 800원 이남서는 쌀 소두 세말에 교환) 복선 비단, 중고양복, 설탕(대련 등지에서 팔로군이 일본군 창고에서 이북에 가져온 것 이북시세 한 130원-150원 이남서 한근 230-1,560원)

이남서 수출되는 물품수입품 교환으로 미국 잡곡을 반출하며 미국 잡곡 현지 가격은 토성(土城) - 백미(白米) 1소두(小斗) 600 ; 소맥(小麥) 1소두(小斗) 380
연안(延安) - 백미(白米) 1소두(小斗) 580 ; 소맥(小麥) 1소두(小斗) 390
청단(靑丹) - 백미(白米) 1소두(小斗) 620 ; 소맥(小麥) 1소두(小斗) 400
해주(海州) - 백미(白米) 1소두(小斗) 800 ; 소맥(小麥) 1소두(小斗) 600

이남서 수출되는 물품수입품 교환으로 미국 잡곡을 반출하며 미국 잡곡 현지 가격은 토성(土城) - 백미(白米) 1소두(小斗) 600 ; 소맥(小麥) 1소두(小斗) 380
연안(延安) - 백미(白米) 1소두(小斗) 580 ; 소맥(小麥) 1소두(小斗) 390
청단(靑丹) - 백미(白米) 1소두(小斗) 620 ; 소맥(小麥) 1소두(小斗) 400
해주(海州) - 백미(白米) 1소두(小斗) 800 ; 소맥(小麥) 1소두(小斗) 600

※ 동두천(東豆川) · 포천(抱川) 방면(方面)
수출품(輸出品)
식량(미국밀 · 쌀) 의약품(미국제약품과 염산 키니네 사카린 등)

생필품(의복 전구 기타 잡화)
수입품
세탁비누 세수비누(홍남제) 건명태 기타 해산물 비료(홍남 암모니아) 농우 설탕^㉔

동두천 지역 남측에서 북측으로 수출한 것은 식량과 생필품이 주가 되고 수입한 것은 홍남 지역의 공업제품인 비료나 비누 등이라는 점이 흥미롭다. 이는 동두천이 경원선 열차의 중단점에 위치하고 있어 당시 북한의 주요 공업지대인 홍남 지역으로부터의 물자 반입 통로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경의선 지역인 개성, 청단 지역에서는 북한의 생필품과 남한의 곡식이 주로 거래되고 있고 특히 설탕은 그 가격이 2배에서 10배 정도로 거래되고 있어 당시 남북 교역의 폭리 상황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소규모로 축소되어 그나마 근근히 지탱되던 남북교역은 남북의 분단 상태가 고정되어 가며 결국은 중단되고 만다.

검찰총장 이인, 테러행위 엄벌·기부강요단속 등에 대해 기자회견 이인(李仁)
 검찰총장은 5일 법조기자단과의 정례회견석상에서 기자단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전략)

(문) 은닉물자의 이동에 대하여

(답) 주문진, 동두천, 강릉, 양양, 원주, 인천, 개성, 육지와 해상경비를 엄중히 하여
 물자의 밀수가 없이 하도록 각 지방 검찰청과 경찰에 대하여 지령을 내리었으므로
 대량 밀수출은 없을 것이다.⁴⁹⁾

49) 『동아일보』 1947년 3월 6일

제10절 동두천 현대사

1. 동두천의 발전

1948년 8월 15일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건국이 만방에 선포되었다. 이는 분단 현장에 위치한 동두천이 국경 아닌 국경 도시로 고정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어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의 발발과 함께 최전방 전쟁터로 변하는 한편 도시의 지리적 환경에 따른 군사적 중요성으로 외국군과 국군이 밀집 주둔하는 군사도시가 되었다

6·25동란으로 인한 대규모 외국군의 주둔은 급격히 인구 증가를 초래하여, 1963년 이담면이 동두천읍으로 승격되었고, 1981년 7월 1일 법률 제3425호로 동두천읍이 동두천시로 승격되면서 양주군에서 분리되었다.

이때 생연 1~7리가 생연 1~4동이 되고, 보산1·2리와 걸산리가 보산동으로, 생연리·지행 1·2리와 송내리가 내행동으로, 동두천 1·2리와 안흥 1·2리가 동안동으로, 상봉암리, 하봉암리가 소요동으로, 광암1·2리와 탑동 1·2·3리가 광암동으로 개편되는 등 총 9개 동으로 개편되었다.

1983년 2월 15일 양주군 은현면 상패리 등 3개 리가 상패동으로 편입되면서 12개 법정동과 10개 행정동을 갖춘 행정체제가 되었다. 10개의 행정동은 생연1동, 생연2동, 생연3동, 생연4동, 보산동, 내행동, 광암동, 동안동, 소요동, 상패동이다.

1998년 11월에는 생연3동과 생연4동이 합쳐서 중앙동이 되었으며, 내행동과

광암동이 합쳐서 불현동이 되었으며, 동안동과 소요동이 합쳐서 소요동이라는 행정동이 되었다.

현재는 7개 행정동을 갖춘 행정체제로 생연1동, 생연2동, 중앙동, 보산동, 불현동, 소요동, 상패동이 있다.

2. 동두천의 현재와 미래에의 전망

1979년 제3공화국이 급작스레 종결되고 이어 신군부에 의한 권위주의 정부가 집권하면서 사회의 갈등은 폭발적으로 분출하고 마침내 광주민주화운동과 같은 거센 저항이 나타나게 된다. 이후 한국은 선거에 의한 문민정부의 수립에 뒤이어 사회 평등을 보다 강조하는 참여정부와 다시 보수적인 색채의 실용 정부가 집권하는 등 전반적인 민주화가 정착되었다.

동두천 지역에서도 민선 시장이 선출되고 시의회가 구성되면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정치와 행정에 반영되는 시대가 시작되었고, 이에 따른 다양한 시민운동이 대두되어 왔다. 한편 미군의 한강 이남으로의 이주와 해외 진출은 그동안 모색되어 오던 군사도시로서의 기능과 구조의 변혁을 보다 구체적으로 모색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현재 새로운 도시 기능과 구조를 설계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에 들어가 있다.

동두천은 임진강에서 수도 서울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면서 유럽 대륙으로의 연결이 가능한 경원선의 출발점이라는 지리적 위치와 각지의 물산이 집중하며 경기 북부의 동서를 연결하는 교차점이라는 장점을 적극 활용하고 아직도 개발의 여지가 많은 지역적 여건을 활용한 새로운 시대 비전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통일 이후의 거점 역할도 모색하여야 할 단계이다.

한때는 외국인 주둔지로서의 부정적인 이미지와 이질적인 문화지대로서 비상식적인 주목을 받았던 적도 있으나 이제는 이를 극복하고 5천 년 역사와 문화의 향기로운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를 키워 나가는 문화도시를 지향하여야 한다.

시 승격 3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과거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롭고 의미있는 미래를 설계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시민들의 지혜와 힘을 함께 모을 때이다.

제11절 한국전쟁과 동두천

1. 해방 정국과 동두천

1) 제2차 세계대전 개요

한민족 5,000년 역사상 굴욕의 일제 식민통치 35년을 청산하고 대한민국이 태동한 배경으로 제2차 세계 대전을 떼어 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동방의 강자를 꿈꾸던 일본제국이 제2차 세계대전을 치루고 또 항복을 한 후에야 우리는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1938년, 세계는 예견된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멈출 수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질주하고 있었다. 유럽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의 패전 후 강압적인 베르사이유 조약을 통하여 군대를 해산당하고 가혹한 패전 대가를 치르며 절치부심하던 독일이 힘에 의한 정치를 구사하는 히틀러라는 강력한 지도자를 만나면서 도전적인 국력회복을 시도하며 유럽대륙에 전쟁의 소용돌이를 몰아오고 있었고 동북아시아에서는 명치 유신의 성공 이후 국가의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이 불운하게도 힘에 의한 정치를 구사하는 정치가들이 집권하면서 러시아 극동 함대를 격파한 후 아시아의 패자를 꿈꾸며 위험한 국력확장을 계속하고 있었다.

유럽에서 국가 간의 이해가 얽혀 시작된 유럽의 전쟁 초기에 미국은 직접 참전하지 않고 독일에 대항하여 싸우는 영국에 1941년 한 해에만 유럽전선에 13조 원이 넘는 물자를 제공하면서 우방국 간접지원을 하였으나 대서양에서 미국의 비무장 여객선과 상선들이 독일 잠수함들의 무차별 공격을 직접 받게 되자 미국은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대서양전쟁에 참가하였다.

태평양에서도 문제는 심각하였다. 군국주의 팽창정책으로 동북아의 강국으로 떠오른 일본은 조선을 강제로 병합하는데 그치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무력을 행사하면서 동북아시아에서 강성대국을 꿈꾸고 있었다. 일본은 자국의 자원부족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고자 주변 국가를 공공연히 넘보았고 태평양으로 진출을 꿈꾸는 동북아시아의 강자인 러시아의 극동함대를 격파하고 기어올려가는 대국 중국을 침탈하였다. 이러한 도발은 태평양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평화로운 공존을 기대하던 미국의 이해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태평양에서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압박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동북아의 강자가 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일본은 태평양에서 미 해군 함대를 격파하지 않고는 국가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보고 하와이의 미 해군 함대를 기습적으로 공격하였다.

미국은 본격적으로 대서양과 태평양에서 세계대전에 휘말리게 되었고 자국의 이익과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꺼이 독일과 일본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였다. 미국은 군대를 투입하여 직접 전쟁에 개입했을 뿐만 아니라 소련, 중국, 영국, 프랑스군에게 무기와 전쟁 물자를 제공하는 역할도 기꺼이 수행하였다. 미국은 일본에 대항하여 싸우는 중국의 장개석 군에게도 무기와 전쟁 물자를 제공하며 지원하였다. 세계 공산화를 주창하는 공산주의 정권인 소련과 연합하여 싸운다는 것이 유쾌하지는 않았으나 독일을 굴복시키기 위하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미국은 일본을 굴복시키기 위하여 수많은 젊은이들의 피를 희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군수물자를 중국군과 소련군에 지원하였다. 부패한 중국의 장개석 군에게 제공한 무기와 전쟁물자가 모택동의 공산농민군에게 흘러 들어가 그들을 재무장시킨다는 사실도 일본을 굴복시킬 때까지 감수해야 할 문제였다. 1945년 일본과 독일이 항복했을 때 소련에 인도된 사용하지도 않은 미제 화포가 4,000문, 군용트럭이 15,000대, 휘발유가 300만 드럼이었고 모택동의 공산군도 이미 적지 않은 미제 무기로 무장되어 있었다. 미국은 우방국인 영국과 소련, 중국과 함께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세계는 상처투성이였고 또 다른 이념 갈등과 냉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태평양과 대서양 그리고 거의 모든 대륙에서 전쟁에 휘말렸던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통틀어 1,000조 원이 넘는 전쟁비용과 2,500만의 전사자·실종자·부상자, 3,500만 명의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한 전쟁의 상처는 세계 도처에 남아 있었다. 전쟁을 일으켰던 독일과 일본은 각각 420만, 200만의 인명피해를 겪었고 소련과 유고슬라비아가 각각 1,800만, 150만의 피해를 입는 등 동유럽의 피해가 심각하였고 폴란드는 580만의 인명피해로 인구의 20%를 잃었다.

2) 한반도 분단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다.

1945년 8월 9일 일본 군부는 패배를 인정하고 패전조건을 미국에 타진하기 시작하였고 미 육군성에서는 승전국으로서 전후 일본의 식민지배하에 있던 조선반도를 포함하여 일본과 그 영향지역에 관한 점령관리체계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미 국무성은 육군성 정책과장 본스틸 대령(후일 주한미군사령관 역임)과 딘 러스크 대령(후일 미 국무장관)에게 트루만 대통령에게 보고할, 전후 미 육군이 관리해야 할 점령지역 관리에 관한 일반명령 1호의 초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소련과 나누어 점령 관리할 한반도의 분할선을 타당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가용한 시간은 한 시간도 채 되지 못할 만큼 상황이 급박하였다. 일본이 원자 폭탄의 공격을 받고 전의를 상실하자 소련군이 재빠르게 대일 선전포고를 하면서 북한 영토로 남진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소련군은 일본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자 조만간 다가올 일본의 항복을 예감하고 동북 아시아 지방에서 승전국으로서의 기득권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욕심에 원폭 투하 이틀 후인 8월 8일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지체없이 소련 25군을 만주 동북지방과 북한영토로 남진시키기 시작한 것이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여 굴욕을 당한 이래 4년 여에 걸친 기나긴 태평양전쟁을 통하여 미군은 약 35만 명의 희생을 치른 후에 일본을 굴복시킬 수 있었기에 일본의 점령통치를 포함하여 한반도의 관리를

소련과 나누고 싶지 않았다. 이미 미국은 공산주의 소련의 팽창정책과 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미국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소련은 오랫동안 태평양 진출을 꿈꾸고 있었고 동북 아시아에서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절대적인 기회를 맞이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직적이고 준비된 남진정책을 시행에 옮기고 있었다.

소련의 준비된 25군은 치스차코프 대장의 지휘 하에 대일본 선전포고를 하자 즉시 대군을 남진시켜 선전포고 나흘째 되던 날 이미 청진을 점령하였고 일주일 후 원산에 상륙하여 평양에 진출하고 있었으나 미군은 부산에서 600마일이나 떨어진 오키나와에 머물러 있었다. 태평양에서 승전국의 주도권을 소련과 공유하고 싶지 않았던 미국은 마음이 급했다.

미 국무장관 번즈는 다급하게 일본과 그 영향력 하의 영토에 대한 시한부 점령 통치계획에 관한 초안을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고하였고 내용을 검토할 틈도 없이 이 안은 8월 16일 모스크바에 보내졌다. 만일 스탈린이 미 측의 안을 거부하고 양국 군대가 전진하여 만나는 선을 분할 통치지역으로 하자고 우긴다면 미국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까지 생각하였다. 그럴 경우 신속히 부산이라도 상륙하여 부산 지역만이라도 확보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으나 다행히 소련은 한반도를 대략 양분한 계획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고 미국의 제안에 동의하였다. 승전국이 된 소련, 영국, 미국은 공식적으로 포츠담회담을 통하여 영토 확장 의도가 없음을 상호 간에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미군은 한반도 상륙 준비도 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미 한반도에서 남진을 시작한 소련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분할선이 어디인지 고심하던 스틸웰 대령과 러스크 대령은 서울과 인천을 넘겨주지 않은 상태에서 대략적 중앙선이 38도선이라는 데 주목하였다.

그들은 38도선 부근에서 행정구역에 파괴하지 않고 도 경계를 따라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짓고 지도를 찾았으나 불행하게도 도 행정경계가 표시된 지도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후일 민족을 갈라놓은 통한의 분단선은 이렇게 탄생하였고 무작위로 그어진 38도 분할경계선은 12개의 강과 75개의 하천,

6개의 철도, 8개의 국도와 15개의 지방도로 104개의 무명 도로를 인위적으로 절단하여 통행을 막았고 수백 개의 평화로운 마을을 토막 내어 왕래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동두천도 예외는 아니었다. 인구 3천 명도 채 되지 않는 작고 평화로운 이담면 주민들은 큰 장을 보거나 집안 대소사를 앞두고 되면 덕정읍이나 연천읍으로 나가 필요한 생필품도 구하고 행사도 치르며 자유롭게 살아왔는데 불과 십 리, 이십 리 길만 걸으면 나갈 수 있는 이웃마을이 이제는 갈 수 없는 국경 넘어 먼 곳이 되고 말았다. 멀고 가까운 친척과 친구들도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되었다.

3) 주변 열강의 국제정세와 군사 전략

7년여에 걸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세계 각국의 구도와 질서 그리고 세력판도가 급변하였다. 가장 큰 변화는 유럽 열강들의 쇠퇴로 인하여 그들의 식민지였던 많은 국가들이 자주 독립국가로 새롭게 출발한 것과 소련과 중국 등 공산주의 국가의 팽창이 그것이었다.

(1) 소련

제정러시아는 국내 경제가 악화일로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무리하게 동원령을 선포하여 독일과 전쟁에 개입하였다. 농민과 시민들은 먹고사는 문제를 등한시하는 황제에게 불만을 갖게 되었고 마르크스 이론에 고무된 노동자와 농민계층에서 혁명에 대한 열망이 고조되는 동안 제정러시아 통치자들은 사회 불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1917년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는 2월에 발생한 대규모 민중혁명의 힘에 밀려 퇴위하며 몰락하고 말았다.

인민대표자(소비에트)를 선발한 후 온건한 사회혁명당과 멘셰비키가 주도한 임시정부는



미 해군 미조리전함 갑판에서 항복 문서에 조인하는 일본 대표(1945년)

부패한 자본주의를 청산하고 인민들을 위한 국가를 세우고자 희망했으나 기득권층과 혁명이 확산되는 것을 우려한 주변 열강들의 방해가 심해지자 레닌이 주도하는 혁명 과격파인 볼셰비키파가 “자본주의 타도 없이 평화는 불가능하다”라고 선언하며 10월 무장혁명을 일으켰고 11월 7일 러시아에는 레닌이 이끄는 소비에트 정권이 탄생하였다.

이후 기득권층인 제정러시아 옹호세력들이 혁명의 확산을 원치 않는 유럽의 열강과 미국, 일본 등의 지원을 받아 직업적인 군인들로 구성된 백군을 조직하여 볼셰비키 적군과 4년여에 걸친 긴 내전에 돌입했으나 시민과 농민의 지원을 받는 적군이 승리하였고 1922년 12월 러시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등의 주변 국가를 통합하여 소비에트 연방을 설립하였다.

1924년 레닌이 죽자 등장한 스탈린은 세계 공산 혁명의 기치보다 나라의 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일국 사회주의를 내세우며 경제 개발과 반대파 숙청을 통한 독재체제를 구축하였다. 스탈린 체제 하의 소련은 배후의 위협을 제거하고 싶어 하는 독일의 전면 침공을 받았고 스탈린은 독일에 맞서 연합국의 편에 서서 싸웠으며 모스크바와 전 국토를 황폐화시키는 전화와, 천만여 명의 인명피해를 겪으면서도 명실공히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승전국이 되었다.

소련은 1945년 8월 8일 알타회담에 미국의 루스벨트, 영국의 처칠과 함께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판도를 다시 짜는 회의에 참가하여 승전국의 주체로서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였다. 러일전쟁에서 패하여 일본에 빼앗겼던 사할린도 되찾았고 북한이라는 소련의 위성국가도 건설하여 동북아시아에서 태평양으로 진출할 발판도 마련하였다.

세계 공산혁명을 국가 이념으로 주장하는 트로츠키를 몰아내고 국가 안정정책을 택했던 스탈린은 세계대전의 승전국이 되면서 세계 공산화의 팽창정책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소련의 공격적인 팽창정책은 독일의 일부를 동독으로 분리시켜 공산국가로 만들었고, 전쟁으로



침몰하는 미 전함 아리조나호. 일본은 기습적으로 하와이의 미군 기지를 공격하였다.(1941년)

피폐해진 동유럽 국가들을 지원하며 이들을 공산위성국가로 만들었고, 공산권 바르샤바조약기구를 만들어 공산권 군사력을 통합하여 서방의 나토연합군에 대항하는 국제적 군사 조직을 만들어 동서 간 냉전체제를 구축하고 아프리카 신생 독립국가들에게도 친소련 정권이 들어서도록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이제 소련은 자유 서방국가들과 미국에게 가장 위협한 적으로 등장하였다.

스탈린은 1953년 사망할 때까지 어제의 동지였던 미국을 포함하여 서방세계와 교류를 철저히 단절하면서 세계 공산화 팽창정책을 시행하였다. 로켓과 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군비경쟁, 우주개발 경쟁 등을 통하여 미국과도 무한 경쟁을 시도하였다. 소련은 국가를 철저히 공산당 조직에 의하여 통제함으로써 서방세계에는 철의 장막 속의 비밀스러운 국가라는 소리를 들었다. 세계는 초강대국의 대결이 지속되는 기나긴 냉전시대로 돌입한 것이다.

(2) 중국

1911년 부패하고 외세의 침략에 속수무책이던 허약한 청조가 불만이 팽배한 농민들의 혁명으로 무너지고 1912년 손문이 이끄는 혁명당에 의해 중화민국이 탄생하였다. 손문은 외세의 침략에 대항하고 근대 중국을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당파와 계파를 초월한 강한 중국을 세우기 위하여 공산당을 포함한 모든 계층을 포용하고 계몽과 신교육에 몰두하였다.

이 와중에 국민당 내에서 자생력을 키워 나가던 공산당은 1921년 상하이에서 중국공산당 창립을 선포하고 전혀 함께 화합할 수 없는 국민당에 정면으로 도전하기 시작하였다. 공산당의 불안한 반란의 조짐은 일본제국의 대륙 침략과 맞물려 중국 국내 정세를 혼탁한 정국으로 몰아갔다.

중국공산당을 언젠가는 제거해야 할 내부의 흑으로 간주하던 국민당 장개석은 1933년 말 공산군(홍비라고 불렀음)의 대대적인 토벌을 시작하였다.

모택동과 주덕, 주은래, 유소기 등의 공산군 지도자들은 장시성 소비에트(공산군이 장악한 해방구) 근거지에서 장개석의 70만 대군에게 공격을 받게 되자 피난 집을 싸 생존을 위한 탈출을 시도하였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 그로부터 3일 후 일본은 미국에 항복의 조건을 문의하였다.



1945년 8월, 북한에 기습적으로 진주한 소련군

이른바 모택동의 농민군이 후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고난의 대장정이었다. 전멸을 피하기 위하여 8만여 명의 공산군은 북서내륙으로 1년여에 걸쳐 9,000km의 탈출행군을 감행하였고 섬서성에 도착했을 때 살아남은 자는 불과 7천 명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 행군을 통해서 모택동과 공산군 지도자는 좌절하는 대신에 농민들의 힘을 확인하고 혁명은 실패할 수 없다는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었다.

1937년경 일본군의 침탈이 거세어지자 국민당군과 공산군은 힘을 합쳐 일본에 대항해 싸우기로 합의하였다. 당면한 공동의 적을 물리치기 위하여 장개석의 국민당군과 모택동의 공산군은 잠시 힘을 합쳐 일본을 상대로 싸웠으나 최후의 적은 상대방이라는 사실을 서로 잘 알고 있었다.

공산군은 국민당군에 속하여 일본군을 상대로 싸웠지만 조만간 일본군이 물러간 후 격돌해야 할 국민당군과의 최후의 전투를 대비하며 전력과 물자를 비축하였다. 이는 당연한 것이었지만 곧바로 국민당군의 내부 분열과 약화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국민당군의 패배는 예견된 것이었다.

1945년 일본이 항복하고 물러가자 필연적으로 국민당군과 공산군은 다시 격돌하였다.

그러나 이미 농민들의 민심은 공산군에게 기울었고 린바오(임표)가 이끄는 동북인민해방군이 만주에서 국민당군을 패퇴시킨 것을 시작으로 1949년 2월에는 북경을 함락시키고 4월에는 국민당 정부의 수도 난징을 탈환하였다.

모택동과 주덕이 이끄는 공산 농민군은 초기에는 스스로 홍군으로 불렸고 장개석군은 이들을 홍비(공산 도적떼의 의미)라고 비하하여 불렀는데 홍군의 주력은 국민당 군대 내의 제8로군(팔로군)이었다. 팔로군은 항일전투에 참가해 용감히 싸워 명성을 얻었으나 1945년 일본이 항복하자 부대를 인민해방군으로 바꾸고 국민당군에 반기를 들었다. 초기에는 국가의 지원도 없이 원시적인 농민으로 구성된 군대였던 인민해방군은 무기도 변변치 못했고 전술적 전문 지식을 위한 정규교육도 받지 못한 군대였지만 이념으로 무장된 목표가 확고한 집단이었다.

인민해방군은 중국공산당의 지배를 받으며 당 중앙위원회가 군정치권과 군사 작전 명령권까지 행사하는 독특한 체계를 가지며 군 지휘관은 정치위원의 동의 없이 독단으로 부대를 지휘할 수 없었다. 그러나 당과 군대가 일심동체로 전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농민군이 국민당군을 대만으로 밀어내고 대만을 제외한 중국을 통일했을 때 인민해방군은 역동적으로 팽창하여 이미 650만 대군을 보유한 군사강국으로 성장해 있었다. 국민당군이 패퇴하여 대만으로 물러간 후 모택동은 1949년 10월 1일 천안문광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자랑스럽게 전 세계에 알렸다.



북위 38도선에 인위적으로 그어진 남과 북의 분단선이 도로 위에 표시되어 있다. 주민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처음에는 몰랐다.

그 1년 후 한국전쟁에 개입한 중공군은 태동한지 1년도 되지 않은 군대였지만 이미 국가 선포 이전에 수년간 일본군과 국민당군을 상대로 전투를 치르며 성장해 온 확고한 목표의식과 이념으로 무장된 강한 군대로 성장해 있었다. 당 중앙위원회와 모택동은 20년 가까이 내전에 휘말렸던 중국을 경제적으로 재건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생각하였고 650만 농민군의 상당 부분을 해체하여 고향으로 돌려 보내거나 군대 편제를 유지한 부대도 전투임무에서 재건임무로 전환하고 있었으나 아직 끝나지 않은 마지막 전투인 대만 탈환전을 위하여 최소의 부대를 호남성 일대에 집결시키고 있었다.

중공군은 재래식 형태를 벗어나지 못한 부대였지만 국가를 통일시킨 정신력이 강인한 군대였다. 수십 년간 계속된 내전과 혁명으로 피폐해진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의 하나였으나 세계가 원하지 않는 공산국가로 통일이 된 때문에 서방세계의 도움을 받거나 교류할 수 없었다. 그러나 중국은 자력갱생의 길을 걷기로 결정하고 국가의 약점을 은폐하기 위하여 경제와 국력이 회복될 때까지 소련처럼 나라의 문을 굳게 닫아걸었다. 오랫동안 죽의 장막 속의 비밀스러운 국가로 불렸던 이유이다.



혁명기념일에 행진하는 소련군. 소련은 일본의 항복 직전에 선전포고를 하고 재빠르게 남진해 왔다.



스탈린. 소련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 되었다.



전승국의 대표들이 모여 전후 세계 재편 구도에 대한 토의를 하였다. 좌로부터 처칠(영국), 루스벨트(미국), 스탈린(소련)

(3) 일본

중국의 청조가 힘을 잃고 비틀대자 일본을 포함한 서구 열강들이 쓰러져가는 청국을 상대로 영토와 이권 쟁기 경쟁에 돌입하였고 자원의 확보와 군사 강국을 꿈꾸는 일본 제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중국 내정에 개입하였다. 일본 제국은 조선을 병합하고 중앙정부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군벌들의 통치하에 있던 만주사변을 통해 일본이 조정하는 만주국을 세우며 식민통치국가로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다.

러시아 함대 격파와 조선의 병합에 고무된 일본제국은 제한된 승리에 만족하지 않고 1937년 거대한 중국 전체를 식민지화하려는 침략전쟁을 일으켰고 중국에서 기득권을 상실한 미국과 서구 열강들이 일본의 중국 침략을 비난하며 일본과 모든 통상을 금지하는 극단 조치를 취하였다. 중국에서 무조건 철수를 강경하게 요구하는 미국의 금수조치로 일본은 전쟁에 필요한 공산품 원료를 구할 수 없게 되자 원천적인 자원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도차이나까지 전선을 확대하여 아시아 전체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고 갔다.

인도차이나에서의 극적인 성공에 고무된 일본 군부는 스스로 자제력을 상실하고 이미 유럽전선에서 독일을 상대로 힘겨운 전쟁을 수행하는 미국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는 것만이 자국의 이익에 최선이라고 믿었다. 1941년 12월 일본은 미 해군과 공군력이 모여 있는 진주만의 미 해군기지를 기습적으로 공격하였다. 진주만 기습의 경이로운 성공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쓰러지지 않았다.

미군은 미드웨이해전을 통하여 일시적으로 상실한 태평양 통제능력을 유지하고 과달카날 전역을 시작으로 빼앗긴 태평양의 영향력을 하나씩 되찾아 1944년에 사이판과 필리핀, 유황도와 오키나와를 차례로 탈환하며 일본 본토에 성큼 다가갔다. 1944년 말 유럽전선을

승리로 종식시킨 미국은 죽창을 깎아 세우며 본토 결전을 독려하는 일본을 조기에 굴복시키기 위하여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각각 한 발씩의 원자폭탄을 투하하였다.

원자폭탄의 위력은 대단한 것이어서 본토결전을 준비하던 일본군부가 천황의 안위를 조건으로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게 만들었다. 피로 물든 태평양에 충성이 멈추었다. 4년여의 태평양전쟁을 통하여 일본은 210만 명의 희생자를 내었고 미국은 35만 명의 희생자를 내었다. 미국은 패전에 대한 허탈감과 사회적 무력감으로 깊게 가라앉은 일본을 “군국주의 일소와 일본의 민주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며 주변국가에 위협적이지 않은 평화로운 국가로 만들려고 하였다.

맥아더장군은 일본이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새로 만든 헌법 제9조에 전쟁의 포기, 군대의 유지포기 그리고 교전권한 부인이라는 항목을 법조항에 포함시킨 이른바 평화헌법을 새로운 국정의 기초로 삼았으나 천황을 국가의 상징이자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유지함으로써 여전히 천황이 일본의 구심점이 되게 하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

맥아더는 재임 중 천황을 정중하게 예우하면서 천황을 보위하는 “벽안의 소군”이라는 비난을 들어야 했다. 일본은 재무장을 헌법에 의거 포기하는 대신 미국의 핵우산 속에서 국가 안전을 보장 받으려 했고 미국은 세계 공산화의 기치 아래 등장한 또 다른 적 소련과 중공을 견제하기 위하여 동북아시아에서 이들을 견제할 전진기지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은 서로가 필요한 존재였고 은밀히 많은 것을 주고받았다. 미국은 1949년 한국에서 지상군을 모두 철수시켰지만 일본에는 여전히 8군 이하 4개 정규 사단(1사단, 24사단, 25사단, 1기병사단)을 상주시키고 있었고 일본 오키나와에는 해병 원정군단과 공군 사단을 상주시키고 있었다.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전략적 군사배치인 셈이었다.

(4) 미국

제2차 세계대전의 최대 전승국이자 가장 강력한 군사대국이었던



항일전투에 참가한 중국 농민군

미군은 전쟁 기간 중 전 세계 도처에 군대를 보내어 전쟁에 개입하였고 또 승리하였다.

미국은 독일을 항복시키고 그들로부터 당시 가장 앞서가던 로켓 무기체계와 기술들을 압수하여 로켓과 미사일 개발의 선두주자로서 우주개발의 기초를 다지게 되었고 영국, 프랑스, 소련에게 무기를 제공하면서 전쟁을 이끌어 대부분의 무기체계 분야에서 앞서가기 시작했으며 이를 토대로 핵무기를 개발하여 일본을 굴복시킨 천하무적의 군사강국이 되었다.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미군은 이미 대서양과 태평양에서 세계최강의 함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육군은 350만 병력에 100개가 넘는 전투사단을 보유하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주도하며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한 미국이었지만 미국의 군사지도자들은 새롭게 등장한 강력한 소련을 불안한 경계심을 가지고 바라보며 지체 없이 강력한 대비책을 강구하기를 바랐으나 오랫동안 세계대전의 고통을

인내하고 감수해온 끝에 조용한 휴식과 평화를 갈망하는 국민들에게 쉴 틈도 없이 다시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국민을 독려해야 한다는 현실이 생각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소련과 공산주의자들의 팽창이 잠재적으로 미국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이의를 다는 사람들은 없어 보였으나 미국의 국민들은 이젠 자신들의 아들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낼 때라고 믿고 있었고 정치지도자들도 이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었다.



도강중인 일본군



1949년 10월 1일 천안문광장. 모택동은 중국을 통일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건립을 선포하였다.

미국의 지도자들은 강력한 핵무기가 재래식 군대의 공백을 메워주고 전쟁 역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라고 믿으며 국민들의 염원에 맞추어 지체 없이 동원된 부대들을 해체하여 소집된 젊은이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해군은 최소의 함대와 함재기를 유지할 병력만 남기고 해체 작업에 돌입하였고 육군은 육군 항공대를 공군으로 재편하는 한편 100여 개가 넘는 사단과 15개의 군단사령부를 해체하기 시작하였다. 동북아시아에서 소련을 견제할

4개 사단과 유럽에서 소련의 바르샤바 공산권 동맹군에 대항할 나토군의 주축 6개 전투사단만을 남겨두고 부대들을 감소편성하거나 지휘기구만 남기고 대부분 해체하였다. 대전 직후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미국의 정치가들은 핵무기로 차세대 전장터에서 여전히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믿었고 이것이 전략적으로 커다란 오류였음을 인지하는데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4) 국내 정세와 한국전쟁 전야

일제 35년 동안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지식인들과 스스로 독립을 쟁취해보고자 나선 많은 젊은이들이 제정러시아에서 혁명과정을 통한 소련 탄생을 착취와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한 독립투쟁을 위한 모델로 인식하고 있었다.

일본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는 최선의 길은 민중의 투쟁과 결집을 통해 제정러시아 왕조를 무너뜨리고 인민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민중들의 공산국가를 세우는데 성공한 소련의 사례를 따라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이해하고 있었고 스스로의 성공에 고무된 소련도 주변의 약소한 민족들에게 자신들의 성공을 전파하는데 적극적이었다.

권력으로부터 속박 받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하고 싶어 하는 많은 자유인들과 지식인들은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하게 되었고 일제의 압박과 탄압을 받으며 조선의 독립을 갈구하던 조선인들도 공산주의식 혁명을 통하여 조선이 일본 제국주의의 통제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들의 끈질긴 노력이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해방은 공산주의자들이나 민족주의자들의 힘에 의해 해방되지 못하고 세계제패를 꿈꾸던 독일과 일본을 굴복시킨 연합국의 승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국 미국, 소련, 영국, 중국은 독일과 일본에 대항하여 함께 싸웠지만 국가 이념은 각기 다른 나라들이었다.

소련은 민중의 힘으로 국가를 전복시키고 혁명을 이룩한 공산국가였고 영국은 여전히 형식상이긴 하지만 혁명 대상이 된 왕권 국가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또 다른 방법으로 독립을 쟁취한 민주 자본주의 체계를 가진 민중의 국가였다. 출생과 국가운영 이념이 각기 다른 승전국들은 전쟁이



이등 중인 일본군

끝나면 각자 갈 길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서로 경쟁관계이거나 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진작 인지하고 있었다. 새로운 세계의 평화적 균형과 질서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종전이 임박하자 재빨리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북한 땅으로 진군한 소련은 지체 없이 조직적인 공산주의의 씨를 뿌리기 시작하였다. 민중에 의한 혁명을 위하여 세포조직을 구축하고 공산혁명에

성공했던 소련은 이미 새로운 공산주의식 세포조직을 구성하고 이를 통하여 짧은 기간 내에 새로운 공산 국가를 만들어내는 전문가였다. 소련 25군 민정부대는 지체 없이 조선총독부 관리들과 관동군을 제압하고 북한 전국에 조직을 만들어 일시불란하게 공산주의식 행정 통치체계를 확립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천황은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발표하였다.

1945년 10월에는 북한에 5도 행정위원회를 구성한 후 이듬해 2월 전국의 토지를 강제 몰수한 후 농민을 대상으로 재분배하는 급진적 토지개혁을 단행하였고 그해 11월 3일에 3,459명의 각 도, 시, 군의 대표 대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하였다.

소수의 기독교장로회의 반발 속에 일요일에 치러진 선거에서 투표권자 450만 명 중 99.6%가 투표에 참가하는 빈틈없는 행정 장악 능력을 보여주었고 찬반 투표로 진행된 선거결과 96.9%가 찬성표를 던지게 해 공산조직을 통한 일방 독재통치의 틀을 만들어 놓았다. 북한은 1948년 2월 국가의 방패인 인민군을 창설하고 그해 9월 북조선인민공화국을 창설하면서 독자적인 국가의 틀을 세우는 한편 인민군 현대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남한에 비하여 질적, 양적 우위의 군사력을 키우기 시작하였다.

발 빠르게 북한에 진주해 온 소련군과 달리 일본 본토를 상대로 결전임무를 부여받았던 24전투군단은 갑작스러운 일본의 항복으로 조선반도에 상륙하여 전투임무가 아닌 군사행정임무를 부여받게 되었다.

북한에 진주를 시작한 소련군보다 한 달이나 늦은 9월 8일경 인천을 통하여 상륙한 미 24군단은 행정통치를 위한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도 못하였고



맥아더 장군과 일본 천황. 일본을 군정통치하던 맥아더 장군은 천황체제를 유지한 채 일본의 무장을 해체하는 평화헌법을 발표시켰다.

전문적인 군사행정요원을 보유하고 있지 못했으므로 어쩔 수 없이 조선총독부 관리들의 협조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한국인들이 35년 동안 일본의 강압적인 식민통치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들과 추종세력을 척결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미 군정청도 알았지만 한시적인 군정통치에 일본인과 친일 추종 한인관리들의 협조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것도 또한 현실이었다.

일본 관리들은 미 군정청에 협조하는 대신에 일본인들이 그들의 재산과 함께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보장해줄기를 원했다. 일본인들은 갑작스러운 항복과 조선의 준비되지 않은 해방으로 발생할지 모를 일본인들의 신변을 위협하는 치안부재 상태를 두려워하였다.

조선총독부 관리들은 조선인들의 집단행동을 공산주의자들의 불순행동이며 이는 미군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미 군정청 고위 장교들을 설득하여 그들의 의도대로 자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본국으로 철수하는 데 성공하였다.

조선을 탄압하던 일본인들은 수탈한 적지 않은 재산과 보물들을 방해받지 않고 일본으로 가져갈 수 있었고 청산되어야 할 친일 관리와 지식인들이 여전히 군정청의 비호 아래 신생 남한 정부의 기초와 중추역할을 하며 변신할 기회를 제공하는 부작용도 낳았다. 준비되지 못한 미 군정청은 남한을 행정 통치하면서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

군정청 장교들은 일본제국의 식민통치에서 해방된 조선에 혁명을 통하여 만민에게 평등한 국가가 세워져야 한다고 믿는 이 땅의 공산주의자들에게까지 평등한 시민의 권리를 부여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이는 공산주의자들에게 혁명의 호기가 도래했다고 오관하게 만들었고 연일 국민을 선동하는 시위와 폭동이 반복되던 끝에 군대 내의 반란까지 발생하면서 혼란에 빠져들자 미 군정청은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이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이들을 제거하려고 하였지만 이미 공산주의자들과 오염된 상처는 넓고도 깊어 쉽게 치료될 것 같지 않아 보였다.



유창도를 점령 후 성조기를 세우는 미군. 미군은 1945년 8월 일본을 굴복시켰다.



1945년 5월, 유럽에서 전쟁에 승리한 미군이 파리의 개선문을 뒤로 하며 행진하고 있다.

신생 자유 민주 국가는 서로 논쟁과 토론을 통해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고 방향을 설정하여 나아가는 진통을 겪으며 성숙해가는 것임을 확신하는 미 군정청의 결정권자들이 내정 간섭을 하지 않으려 시간을 허비하며 바라보는 동안 친일 세력의 반성과 척결의 기회를 상실하고 국가의 간성이 되어야 할 군대 안에서까지 반란이 일어나고 무장세력화하여 후방 전선을 형성하였고 지휘하는 부대원을

모두 이끌고 월북하는 반역 지휘관이 발생하는 등 국내 정세는 혼란의 극에 달하였다.

국민이 기대한 바대로 성숙한 자유민주국가로 자리 잡기도 전에 미국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또 하나의 자유 민주국가가 스스로 성숙해가기를 기대하며 1949년에 무책임하게 모든 미군 전투부대를 철수시키고 말았다.

이에 비해 북한의 정세는 남한의 그것과 여러모로 대비된다. 북한정부는 전국 대의원을 뽑는 선거에서 97%의 투표율을 나타낸 사실에서 보듯이 소련의 지원에 의하여 일사불란하게 공산 세포조직을 구성함으로써 산골 구석의 주민들까지 중앙정부의 행정조직과 연결하는데 성공했으며 소련 25군이 이미 전의를 상실한 관동군을 제압하며 신속하게 진군하면서 북한지역의 조선총독부 관리를 모두 제거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일본 관리들과 그들에게 협력했던 친일 인사들까지 제거하여 성공적으로 친일세력을 청산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혁명 전위세력으로 가장 중시하는 인민군대를 구성할 때 공산주의 활동경력을 최우선으로 중용하였기 때문에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세력이 군대 내에 뿌리를 내릴 수 없어 이념적으로 단일화를 이룬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었다.

남한에서는 국내의 공산 좌익주의자들의 저항과 방해를 받으며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불안한 상태에서 이승만 정부가 출범하였다.

남한 정부는 조선총독부 일본 관리들과 그들의 추종 친일세력들에게 의존하는 서툰 미국의 군정정책 아래에서 국민들이 열망하는 친일세력 청산에 실패하고 기회주의자들의 생존을 용납하고 이념적으로나 국민 정서적으로도 힘을

결집하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남한 정부와 미 군정청은 공산주의자들의 세계 통일에 대한 야욕을 경시하고 자유 민주국가의 건립이라는 이상을 실현하려는 열망에 몰두한 나머지 남한 정부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자들의 내부 분열시도를 조기에 제압하지 못하였다. 게다가 북한 공산정권의 무장능력을 과소평가하여 국방력 대비에 소홀한 커다란 약점을 안고 출발하였다. 남한 정부 내에는 국민의 안정된 평화를 원하는 소망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자, 친일파, 공산주의자, 기회주의자까지 자유민주국가라는 허명 아래 자기 주장만을 끝없이 펼치며 악을 쓰는 불량한 정치가들이 설치하는 불안한 정국이 반복되고 있었다.

좌우 이념전쟁으로도 불리는 한국전쟁은 이미 해방되기 전부터 시작되었고 북한의 정규군이 기습 남침을 했던 1950년 6월 25일 이전에도 전투는 곳곳에서 진행 중이었다. 박헌영이 이끄는 남조선 노동당은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과격한 정치투쟁을 거쳐 무력투쟁을 남한 곳곳에서 펼치고 있었다.

무장투쟁은 여수와 순천에서 군대의 반란을 촉발시켰고 지리산, 태백산, 오대산 일대에 은거한 채 북한의 지원을 받는 좌익 무장 세력의 끈질긴 도발 때문에 남한 정부는 경찰과 군부대의 상당수를 광주, 대구, 대전에 배치해 무장공비 토벌사령부를 설치하고 내전에 가까운 토벌전투를 치르고 있었다.

북한 정규군의 도발에 대비하여 전선을 지켜야 할 남한의 8개 사단 중 절반에 가까운 4개 사단이 후방의 토벌전투에 동원되어 있었다. 2사단은 대전에, 3사단은 대구에, 5사단은 광주에 묶여 있었고 8사단의 절반은 강릉 이남의 태백산 토벌전투에 투입되어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전선을 지키는 춘천의 6사단에서 대대장 두 명이 대대병력을 이끌고 월북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허약한 군 구조와 불리한 부대 배치를 보강할 여유도 없이 미군의 전투부대가 모두 철수한 한반도에서 발생한 남침전쟁은 필연적인 것처럼 보였다.



박헌영. 조선공산당을 창당하였고 남한에 뿌리를 둔 남로당을 한반도 공산화에 실패한 후 북조선으로 넘어가 북한 정부의 부수상으로 한국전쟁을 치렀으나 전후 숙청됨



미24군단장 하지 중장과 군단 패치. 제24전투군단은 일본의 항복에 따라 한국의 군정부대로 임무를 변경하였다.



2. 동두천 지역의 한국전쟁

1) 동두천

동두천은 조선 후기까지 양주군의 이담면(伊淡面)으로 불렸으며 지금의 시 관할 구역과 거의 비슷한 안흥리, 하봉암리, 동막리, 내동, 연동, 창동, 걸산리, 황매리, 가정자리, 행단리, 지동, 동두천리, 상봉암리, 축산리, 광암리 등 18개 리로 분할되어 살았으며 한때는 이곳이 일담면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1948년, 남한의 경비대 군사 훈련

서울에서 출발하는 경원선 기차는 의정부, 연천, 철원, 평강을 거쳐 원산에 도달하며 의정부에서 북쪽으로 직선거리 21km 지점에 위치한 조그마한 간이역을 통과하였는데 이곳이 옛 동두천역인 동안역이었다. 동두천역에서 북쪽으로 직선거리 8km 지점에 38선이 가로놓이게 되자 경원선은 더 북상하지 못하여 초성리역이

종착역이 되고 말았다.

1950년 무렵 동두천은 18개 부락이 산등성이와 양지바른 골짜기에 들어앉은 인구 3,000명 남짓한 평화롭고 조용한 시골이었고 서울에서 원산으로 향하는 열차는 양주군 북방의 작고 조용한 동두천역을 통과하여 북으로 오르내렸고 그 뒤편에 5일장이 서는 장마당이 하나 있었다. 역 주변은 여름이면 자주 범람하여 마을을 이루어 살기 적합한 곳이 아니어서 역을 중심으로 수시로 장이 서는 것 이외에는 부락이 크게 형성되지 않았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기습적으로 발발하고 서울이 함락되면서 남한 정부 기관들과 서울 시민들이 남으로 피난을 떠날 때 이담면 주민들은 피난을 떠나지 못하였다. 전쟁으로 나라 전체가 들썩일 동안 대부분의 주민들은 가난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평화롭게 농업에 매달려 살았으므로 피난 짐을 짊 이유를 알지 못하였다. 조용하고 평화롭던 이담면의 주민들은 갑작스럽게 원치 않는 한국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다.

2) 기습남침과 동두천 초기전투 (1950. 6.)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이른 아침부터 동두천 북방에는 비가 내리거나 음울하게 잔뜩 흐려 있었다. 주민들이 새벽잠에 깨어날 무렵 전곡리 일대의 인민군 부대들이 전차의 굉음을 앞세우고 기습적으로 한탄강을 건너 초성리 방면으로 기습공격을 시작하였다.

이 지역의 국군 7사단은 1연대를 전초에 배치하여 법원리 동 측방에서부터 동두천과 포천의 동 측방까지 광범위한 정면에서 적의 초기 도발을 탐지하고 후방의 연대가 증원해 올 때까지 방어를 해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다. 국군 1연대가 책임진 방어 면적은 현재 약 15배 이상의 전력인 국군 5개 사단이 방어하고 있다는 사실로 보아 창조지문과 같은 허약한 방어벽을 펼칠 수밖에 없어서 준비된 공격부대의 기습공격을 저지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북쪽에서 서울로 접근할 때 관문에 해당하는 의정부는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인데 의정부를 잃으면 서울까지 방어할 유리한 지형이 거의 없어 서울을 방어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 지역의 방어책임을 가지고 있는 7사단은 주요 접근로인 덕정-의정부 축선에 3연대를 배치하고 포천-송우리 축선에 9연대를 각각 배치하였다.

동두천 축선은 덕정 북방의 철봉산자락과 덕정 남쪽의 도락산자락(덕계리 일대)이 방어에 유리하며 의정부 북방 천보산이 의정부 직접 방어에 유리한 지형이다. 포천 축선은 포천 동북방의 천주산과 서측방의 국사봉, 왕방산이 있으며 송우리까지는 장애물이 거의 없는 개활지로서 탱크를 포함한 고속 기동 부대의 남쪽으로 전진이 용이하여 의정부 북방 축석고개에서 지지하지 못하면 의정부와 서울을 속절없이 빼앗기게 되는 방어에 불리한 지형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북한군은 그들의 주공격부대를 이 방향으로 투입했었던 것이다.



1948년, 북한 인민군 보병 훈련



1949년 가을, 여수와 순천에 주둔한 국군14연대의 반란은 남한 내부 혼란을 가중시켰으나 한편 군의 평화작업의 계기가 되었다.

지형의 여건상 동두천 축선의 3연대와 포천 축선의 9연대가 긴밀하게 협조된 방어 작전을 펼칠 수 있었다면 방어에 보다 더 유리한 협조된 밀집방어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나 애석하게도 국군은 전쟁 이전에 연대 간의 협조된 작전수행을 위한 훈련을 한 번도 해 본 경험이 없는데다가 지형을 극복하기 위한 공중 기동수단이 없었고 통신수단도 열악하기 그지없었다. 양치기 소년의 경고처럼 반복되는 북한의 군사도발 위협경고 때문에 지난 6월 내내 비상훈련과 영내 대기가 반복되다가 모두 지치고 무감각해져 규정 이상의 병력들이 상식을 무시하고 주말 외박을 나간 사이에 남한의 방어부대들은 기습 남침을 당하고 말았다.

기습 돌파를 당한 국군 1연대는 속절없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력화되고 말았다. 과도하게 넓은 정면에 분산 배치되어 있어서 기습적으로 돌파당한 후에는 후방으로 조직적인 철수를 하여 제2방어선에서 지속적인 축차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었다.

북한 인민군은 의정부에 주공격부대를 투입하였다. 동두천 축선으로 이건무 소장이 이끄는 인민군 4사단과 전차 1개 연대가 남침하였고 포천축선으로 이영호 소장이 이끄는 인민군 3사단이 전차 1개 연대의 지원을 받아 의정부를 목표로 양개 사단이 협조된 공격을 시도하였다.

인민군의 공격전술은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것으로 고도의 훈련 후에야 가능한 조직적인 협조공격 전술을 구사하였다.

정면공격부대와 우회포위부대가 협조된 공격을 함으로써 용감하게 성공적으로 방어를 하던 부대들도 멀리 자신의 방어 진지를 우회하여 포위하여 좁혀오는 부대를 보면서 진지에서 버티기 쉽지 않았고 당시로서는 최신형 소련제 전차를 앞세우고 공격을 했던 북한 인민군은 전차를 파괴시킬 무기가 전무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군병사들 사이에 통제할 수 없는 공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인민군들의 기습적인 공격전술은 국군의 방어 부대에게 협조된 방어도 허용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배후 포위전술을 노련하게 구사하는 바람에 용감한 일부 병사들의 진지고수 의지도 무산시켜버리기 일쑤였다.

국군 1연대의 창호지 문짝 같은 방어선은 전차를 앞세운 기습 돌파부대에 의하여 6월 25일 오전에 만나절도 버티지 못하고 붕괴되고 말았다.

포천지역의 제2선 방어부대인 9연대는 첫날 밤 노출된 개활지에서 방어를 해야 하는 약점을 안고도 결사저지를 하여 포천을 지키고 있었으나 동두천 지역의 3연대는 전차에 의한 충격 돌파와 보병부대의 우회포위공격에 밀려 그날 밤 초성리, 상봉암리, 동두천리까지 내주며 후퇴를 하고 말았다.

천만다행한 것은 인민군 3사단과 4사단 모두 야간에는 야습에 대한 위험부담 때문이었는지 야간이 되자 공격을 멈추고 기동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26일 아침 7사단장 유재흥 준장은 동두천 지역으로 즉각 반격을 독려하는 총참모장 채병덕 소장의 명령으로 포천을 방어하던 9연대를 철수시켜 포천 지역을 비워둔 채 동두천 방향으로 반격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대전에서 오기로 한 2사단의 가용한 반격부대는 대전의 5연대 예하 2개 대대만이 도착하였다.

충청도 지역의 빨치산들이 출동준비를 위해 연병장에 집결한 부대에 교란사격을 가하는가 하면 서울로 향하는 철도에 지뢰공격을 가하는 등 조직적으로 반격부대의 이동을 방해하는데다 공비토벌을 위해 부대들이 분산 활동하고 있어서 출동준비가 늦어졌을뿐더러 휴가나간 장병들이 과도하게 많았고 철도수송계획이 미비하여 출동이 지연되었다. 수 미상의 후방지역 빨치산들의 적극적인 방해 공작이 사단급 부대의 기동을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부전선 공격 제1집단군 사령관 김웅 중장은 초기 기습으로 반격부대의 추가 투입 이전에 의정부까지 점령을 완료하고 싶어 하였다.

인민군 전쟁 지도부는 의정부를 점령하고 서울을 압박하면 더 많은 남쪽의 부대들이 서울을 사수하기 위하여 서울로 몰려들 것이고 이 부대를 동부전선의 포위부대(2사단과 7사단)가 서울 후방을 포위하며 국군의 주력부대를 독안에



1950년 동두천역(아수동역)



이담면사무소



남침의 선두에 선 북한 인민군의 전차는 그 자체가 충격과 공포였다.

가둔 후 섬멸하여 서울에서 전쟁을 끝내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만 된다면 구태여 부산까지 교전하면서 전진할 필요도 없이 정치적으로 남한을 통일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강력한 희망을 가졌던 것이다.

26일 아침 인민군 3사단과 4사단이 덕정 방향과 포천 방향으로 각각 신속하게 다시 남진을 시작하였고 이보다 조금 이른 시각에 의정부의 국군 7사단도 충분하지 못한 반격 부대이지만 총참모장의 독려에 의해 동두천 방향으로 공격을 시도하였다.

동두천 축선에서는 인민군 4사단의 선봉연대가 불의의 역습을 받고 후퇴하여 잠시나마 7사단의 역습이 성공한 듯 보였으나 방어부대였던 9연대가 밤사이에 철수하여 방어부대가 없는 포천 축선에 인민군 3사단 선봉연대가 남하하면서 포천과 송우리를 통과하며 남진을 계속하는 전선 붕괴 사태가 발생하였다.

국군은 당황하여 우왕좌왕하기 시작하였다. 후속해서 도착한 국군 5연대와 포병대를 쫓개어 송우리 방향으로 밀어 넣었으나 저지할 수 없는 전차가 고속으로 남진하고 보병부대들이 고지 후사 면으로 우회 포위를 시도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포위된 적지 한복판에서 진지를 사수하는 것은 무모한 죽음이라고 생각하며 방어진은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당시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남한 국군에 비하여 체계적인 전술훈련을 받고 협조된 돌파 및 우회 포위 전술을 구사하는 인민군의 공격전술은 방어부대를 공포와 혼란에 빠뜨릴 수밖에 없었다.

동두천 축선에서 국군 7사단의 기습 역습으로 잠시 인민군 4사단을 물리나게 한 작은 승리에 도취되어 라디오 방송이 국민들의 전의를 고취하기 위하여 승리를 과대선전하고 있을 무렵 포천으로 투입된 5연대는 속절없이 축석고개마저 빼앗기고 대책 없이 의정부로 진입하는 전차를 바라보고 있었다.

동두천 축선에서 작은 승리에 고무되었던 7사단 9연대와 2사단 예하 2개 대대는 인민군 4사단이 전차를 앞세워 전진하면서 배후 포위기동을 실시하자 덕정 일대까지 방어전을 수행하여 필사저지를 시도하였으나 전차의 전진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과 포천 축선이 무너졌다는 소식에 전의를 상실하고 무질서한 개별 탈출과 전선 붕괴로 이어지고 말았다.

포병학교 교도대(신병을 훈련시키는 임무)는 부대 소속의 훈련용 야포까지 축석고개로 투입하여 밀려드는 인민군의 신형 전차를 막아보려 노력하였다. 포병 야포로 직접조준사격을 시도하다가 산화한 포병 대대장 김풍의 소령과 포병대원들의 활약과 폭약을 들고 전차로 뛰어든 용감한 병사들의 돌격도 소용이 없었다.

26일 저녁 인민군 3사단은 전차를 앞세우고 축석고개를 넘어 의정부로 진입하였고 4사단의 선봉 부대도 덕정을 돌파하여 의정부에 진입하였으나 인민군 대 포위 계획에 의거 국군의 부대들을 최대한 서울 이북으로 끌어들이기 위함인 듯 의정부 일대에서 잠시 전진을 멈추었다.

북한 인민군의 의도대로 국군 총참모장 채병덕 소장은 가용한 모든 부대를 서울 북방으로 집결을 명하여 서울사수를 위한 일대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일부 국군 지휘관들은 인민군의 포위의도에 밀려드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여 준비되지 못한 채 도착한 부대들을 축차적으로 투입시켜 인민군 공격부대의 꾀가 되게 만들지 말고 한강 남쪽에 방어선을 치고 준비된 조직적 방어전투를 수행하자고 건의하였지만 채병덕 소장은 군사책임자로서 극한 상황에 몰린 나머지 승산이 없는 의정부 탈환을 위한 반격에 매달렸다.

6월 27일, 전쟁 3일째 아침, 국군은 인민군의 의도대로 7사단 잔여 병력, 대전의 2사단, 대구의 5사단, 광주의 3사단, 수도사단 병력 이외에도 동원할 수 있는 준 전투 병력이었던 사관생도들과 군사학교 교도대까지 의정부 탈환을 위해 끌어 모았다. 그러나 이미 조직적인 방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



한국전쟁 초기 전투, 국군이 포병사격을 하고 있다.



한국전쟁 초기 전투, 국군이 박격포 사격으로 적의 전진을 저지해보려 하고 있다.



1950년 6월 26일, 일본의 신문들이 일제히 북한 인민군의 남침을 보도하고 있다.

아니었다.

전선에서 전의를 상실한 채 후퇴한 병사들은 인민군 전차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후방에서 올라온 부대들도 도착하는 순서대로 전선에 투입되는 바람에 체계적인 지휘체제를 상실한데다가 교도대나 생도들은 기동방어 작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참호에 투입되었으나 곧 와해되었다.

질서없이 축차적으로 등 떠밀리듯 전선에 투입되었던 부대들은 인민군들의 우회 포위기동과 저돌적으로 돌파하는 전차를 보며 공포체험만 하고 전의를 상실한 채 후퇴하였기 때문에 조직적인 방어능력은 이미 의정부 선에서 상실되고 말았다.

27일은 하루 종일 국군의 지휘기능은 상실된 채 용전지지를 불태우는 각개병사들의 영웅적인 방어 전투가 산발적으로 빛을 발한 날이었다. 조직적인 지휘기능은 상실되었으나 책임감에 불타는 젊은 군인들과 소부대 지휘관들이 스스로 서울 북방에서 언덕을 점령하고 밀려오는 적을 격렬하게 저지하였다.

조선 500년 도읍지 서울은 크기도 크기려니와 일시에 점령하기엔 만만한 도시가 아니었다. 도처에 장애물과 크고 작은 산과 언덕길이 있어서 전차의 전진이 쉽지 않은 곳이었다.

인민군의 주공축선인 의정부 축선은 돌파당하였지만 다행히도 서울 북쪽의 국군1사단은 선전하여 봉일천 일대에서 방어 중에 있었고 무엇보다 인민군 대포위 부대인 인민군 2사단과 7사단이 서울 후방에서 포위는 고사하고 춘천과 홍천 일대에서 국군 6사단의 저지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춘천 북방의 인민군 2사단이 국군 6사단의 예하 연대가 준비된 방어진지에서 대기하고 있는 줄 모르고 전진하다가 포병 사격 망에 걸려 큰 피해를 입자 인제에서 홍천을 거쳐 서울 서측으로 전진하던 인민군 7사단이 오던 길을 되돌아가 춘천의 2사단 구출 작전에 가담하는 작전상 대실수를 범했기

때문이었다.

서울에 밀집된 국군을 포위하기 위해 한강 이남 양수리 방향으로 전진해야 할 포위부대가 춘천과 가평 일대에서 움직이지 못하였다.

6월 27일의 밤은 깊어갔고 의정부 축선의 인민군 3사단과 4사단이 서울 동 측방을 일부 무너트려 불안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전투력이 적지 않은 국군의 부대들이 서울 지역에 남아 있어 전투력을 집중 운용할 수 있는 조직된 방어전을 수행한다면 서울 방위는 아직 작으나마 희망이 있어 보였다. 유능한 지휘관의 조직적인 방어의휘가 절실한 순간이었다.

자정이 넘어 28일이 되었지만 서울의 밤은 전차의 굉음과 산발적인 총소리에 어수선하기만 하였다. 28일 새벽 2시 15분 서울 북쪽과 남쪽을 이어주는 유일한 교량인 한강교가 폭파되었다. 인민군 전차가 교량을 통과하기 전에 폭파하도록 지시한 채병덕 소장의 명령에 의해서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인민군의 포위의도에 가장 충실하게 부응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만일 전차의 교량통과 직전에 교량을 폭파하여 적의 서울 이남으로 전진을 막으려 했다면 국군의 주력부대가 조기에 철수하여 한강선 방어를 수행하도록 조치했어야 했지만 철수 명령이나 철수 후 한강선 방어를 지시받은 부대는 없었고 불러 올라온 가용한 모든 부대가 유일한 후퇴 기동로인 한강철교가 폭파된 후 북쪽에 고스란히 적과 함께 남게 되었다.

국군의 전투력 절반 이상이 한강 이북에서 포위망에 갇힌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였고 곧이어 붕괴된 군대의 비극적 탈출이 시작되었다.

많은 부대들이 한강위의 마지막 철수로가 폭파되자 도하가 불가능해진 한강 앞에서 전투 의지를 꺾었고 중장비, 화포와 차량을 포기하고 개별 탈출을 시도하였다. 붕괴되어 후퇴를 거듭하던 국군은 미국의 참전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때부터 대한민국의 방위에 대한 책임이 한국군에서 미군에게 넘어간 꼴이



1950년 6월 말, 의정부. 국군총참모장 채병덕 소장은 돌파당한 의정부 축선을 막아보려 방어부대를 독려하고 있다.



1950년 6월 말, 남침한 인민군들이 서울에 입성



1950년 6월 수원비행장

되고 말았다.

미국과 유엔의 참전결정에 따라 일본에 주둔하던 미 24사단 부대 중 가장 먼저 소집되고 한국으로 이동할 수 있었던 21연대 1대대가 1950년 7월 초 화급하게 한국으로 건너와 수원 남쪽지역에서 남침 선봉이었던 인민군 3, 4사단의 정면을 막아섰다. 북한 인민군의 전력을 얹잡아 판단한 미국과 남한 정부는 미 24사단의 보병대대가 지상 전투에 투입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인민군의 기를 꺾게 하고 진격을 멈추게 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이러한 희망은 반나절 만에 무너지고 말았다. 그러나 미 24사단은 좌절하지 않고 대전까지 밀리면서도 인민군의 예봉을 막아 내느라 비록 축차적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었던 악조건에서 사단 전력의 대부분을 희생 시키고 사단장이 포로가 되는 헌신적인 방어 전투에 힘입어 대한민국은 국가의 붕괴를 피하고 낙동강 일대에서 겨우 북한 인민군의 기습 남침을 저지할 수 있었다.

국가와 국민의 운명이 풍전등화였던 숨 막히는 그해 여름에 일본에 주둔하던 주일 미 8군 사령부가 한국으로 이동해 와 전쟁 지휘부를 설치하였다.

일본에 주둔하던 4개 사단 중 홋카이도에 주둔하여 대 소련전선을 지키던 미 7사단을 제외한 24사단, 25사단, 1기병사단이 지체 없이 한국전선에 투입되었고 미 본토에서는 전시 동원령이 선포되고 미 2사단과 해병 1사단이 동원되어 한국으로 이동하는 동안 아사직전의 국군은 서서히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하였다.

3) 인천상륙과 반격의 발판(1950. 9.)

북조선 인민군들의 한여름 기간 숨 막히는 총 공세를 막아 내며 선전하던 미

8군 사령관 워커 장군의 낙동강방어전과 1950년 9월 15일 맥아더 장군이 5000:1 도박으로 비유되는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키면서 유엔군의 반격과 북진이 시작되었다. 공세 종말점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총공세에 몰두하던 인민군에게 김일성은 드디어 공격의 실패를 자인하고 9월 23일 인민군 총퇴각을 명령하였고 팽팽하게 대립하였던 전선이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상륙부대의 선봉인 미 1해병사단은 인천에서 서울로 진격하였고 상륙작전에 추가로 투입된 홋카이도의 미 7사단과 배속된 한국군은 수원으로 진격하여 낙동강 전선을 돌파한 미 1기병사단 선봉부대와 연결 작전을 성공시켰다. 9월 28일 중앙청에 다시 태극기를 게양하면서 서울을 탈환한 국군과 유엔군은 폐허가 된 서울을 뒤로 하고 북진하였다.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잃었던 실지를 회복하고 38선에서 멈췄하던 미군과 달리 국군은 남침에 대한 복수라도 하듯이 38선을 돌파하고 북으로 내달렸다.

10월 1일이었다.

10월 2일 미군도 맥아더라인이라고 불리는 정주 - 함흥선까지 전진한다는 조건부로 북진을 시작하였으나 일단 패주하기 시작한 인민군의 뒤를 쫓기 시작하면서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완전한 승리를 쟁취한다는 유혹에 따라 전진하고 있었다.

워커 장군은 미 1군단에게 평양 함락을 명령하였고 미1군단장 밀번 장군은 1기병 사단을 주공으로 개성에서 한국군 1사단을 조공으로 평양을 공격하였다.

우측의 한국군 2군단도 적의 수도 평양을 먼저 공략하고자 하는 일념에 불타올라 7사단이 동두천과 연천에서 토산과 평산을 거쳐 산길로 평양을 향하였고 6사단과 8사단이 가평과 춘천에서 철원과 화천을 향해 북진을



1950년 7월 초, 남으로 향하는 도로에는 피난민들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1950년 6월 28일 새벽, 남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한강 위의 주교량이 아군에 의하여 폭파되었다.



1947년 6월 일본에 주둔하던 미24사단 사령부



산발적으로 흩어져 철수하던 국군의 부대원들, 1950년 여름



1950년 7월 1일, 임무를 부여받은 미24사단 21연대 1대대가 급히 한국으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였다. 평양 탈환을 경쟁하던 미 1기병사단과 한국군 1사단 그리고 7사단이 10월 19일 거의 동시에 평양에 쇄도하였다. 북진부대는 멈추지 않고 압록강까지 내달렸다.

동해안을 따라 북진하던 국군 1군단의 수도사단이 소련국경이 멀지않은 청진에 도달하였다. 원산으로 상륙한 미 10군단 예하 미 7사단이 혜산진까지 깊숙이 전진하였고 중서부 지역의 국군 6사단은 초산에서 압록강 물을 수통에 담았다. 한 달 남짓한 기간에 반격으로 전환하여 북진한 유엔군과 국군은 북한 대부분의 영토를 석권하였고 맥아더 장군은 승리를 확신하고 크리스마스를 고향에서 보낼 수 있다며 큰소리를 칠 동안 용감하게 전진하던 최전선의 부대들이 소리도 없이 국경을 넘어 들어온 중공군 13병단 예하 5개 군단이 펼친 커다란 포위의 덫 속에 갇히고 말았다.

적지 않은 북한의 조선인들이 자신들의 일처럼 참가하여 온몸을 바쳐 희생함으로써 중국 인민공화국이 탄생하는데 일조하였다는 사실과, 중국인들과 북조선 인간의 끈끈한 혈맹 관계가 중국군대를 출병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당시에는 모두 이해하지 못하였다.

서측의 미 8군의 추격부대 정면에 소리 없이 스며들어 대 포위망을 형성하던 중공군 13병단과 별도로 혜산진 방향으로 9병단 예하 9개 사단이 전진하고 있었는데 맥아더 장군이 추격전의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미 10군단을 원산으로 상륙시켜 미 8군의 지휘를 받지 않고 단독 추격 작전을 수행하게 한 것이 불행의 시작이었다.

결과적으로 서부전선에서 거침없이 북진하던 국군 1사단과 미1기병사단이 10월 26일 중공군 13병단의 덫에 걸려 적지 않은 피해를 당하였고 우측의 국군 2군단 예하 최전방 부대들이 보이지 않는 적으로부터 심대한 타격을 당하였다.

그래도 유엔군은 여전히 중공군의 실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일부 동원된 소규모의 의용군 지원부대 정도로 판단하고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전쟁을 끝낸다는 환상 속에 지속적인 전진을 독려했다.

중공군 대부대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포위된 호랑이 입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유엔군에게 더 큰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중공군 제9병단이 중부 산악지대에서 전개를 시작한 11월 중순에 시작된 중공군과 유엔군의 2차 격돌이 있었고 이 피해는 훨씬 심각하였다.

서부전선에서 한국군 2군단이 대부분 포위망에 걸려 군단 정면이 붕괴되어 퇴각하게 되었고 이어서 미 2사단도 깊은 협곡에 포위된 채 움직이지 못하다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탈출하는 곤경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중부전선에서는 상륙하여 북한의 임시 수도인 강계로 전진하던 해병 1사단과 미 7사단이 장진호 일대에서 9병단의 포위에 갇혀 극심한 피해를 입은 채 어렵게 탈출하는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었다.

방심한 채 달리기 경쟁하듯 무방비로 북진하던 국군과 유엔군에게 낮에는 숨어들고 밤만 되면 대부대를 기동시켜 포위하고 공격하는 중공군은 유령군대 그 자체였다. 북진은 멈추었고 불과 한 달여 만에 유엔군은 김일성이 9월 23일 총퇴각 명령을 내린 것처럼 12월 3일 총퇴각 명령을 받고 퇴각을 시작하였고 볼 수 없는 유령군대의 공포를 털어내지 못한 채 두려움과 추위에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평양도 포기하고 부랴부랴 남으로 무너지듯 퇴각하였다.



1950년 9월 15일. 상륙전의 선봉대인 해병5연대가 월미도로 접근하고 있다.



1950년 10월 1일, 동해안. 38선을 통과하여 북진을 계속하는 국군3사단

4) 겨울의 두 번째 피난(1951. 1.)

그러나 중공군은 38선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중공군은 거침없이 38선을 돌파하여 서울로 밀려 들어왔고 태백산맥 줄기를 타고 남진하는 유령의 군대는 영월과 단양까지 깊은 돌파구를 형성하며 서부전선의 유엔군 주력을 포위 섬멸하고자 시도하였다.

지난 여름과 달리 이번에는 많은 시민들이 피난길에 나섰다. 동두천과 의정부 시민들은 서울 시민들과 함께 얼어 붙은 한강을 건너 남으로 피난길에 나섰다.

이른바 흑한 속 피난길에 나서 겪은 고생을 생생히 기억하는 한국인들이 1·4 후퇴라고 부르는 2차 피난길이었다.

동두천에도 예외 없이 또 한 번의 전운이 몰아쳤다.

1950년 12월 31일 저녁 무렵 동두천 서측 안흥리와 상패리에도 중공군의 무리가 남진해왔다. 제13병단 예하 40군단 117사단이 이 지역으로 공격해왔고 방어하던 국군 6사단은 속절없이 동두천을 내주고 의정부 동 측방으로 후퇴해 갔다.

중공군은 열악한 기동장비와 화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흑한 속에서 눈부신 전과를 올리면서 37도선 깊숙이 치고 내려왔다.

전투기나 포병의 지원도 없이 빈약한 화기에 의지한 중공군들은 식량과 탄약을 스스로 휴대하고 산길로 야간에만 이동해야 하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침략군을 몰아 낸다는 열정과 인내심으로 한 달여 만에 잃어버린 북한 영토를 모두 되찾고 37도선인 단양과 영월까지 밀고 내려왔으나 보급지원이나 지원화력도 없이 시행하는 공격에는 그것이 한계였다.

항미 원조지원군 총사령관 팽덕회는 유엔군을 일거에 부산 앞바다까지 밀어내고 빛나는 승리를 쟁취하고 싶은 유혹을 냉철하게 뿌리치고 과도하게 늘어난 군수지원 보급로를 정비하고 유엔군의 반격에 붕괴되지 않도록 방어대비

체제로 전환하였다.

처음부터 중공군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지 못한 채 밤에만 나타나 공격하는 중공군의 야간 기습공격으로 공포를 경험한 유엔군 병사들은 중공군을 유령의 군대라고 두려워하여 대적하려 하지 않았으나 교통사고로 순직한 워커 장군의 후임으로 부임한 리지웨이 장군의 탁월한 현장 리더십은 후퇴를 거듭하던 유엔군 장병들이 심리적 공황을 극복하고 분연히 뒤 돌아서서 유령의 군대와 마주서게 만드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리지웨이 장군은 적의 실체를 똑바로 보고 싸우려 하지 않는 전의를 상실한 장병들을 매섭게 다그쳤다. 중공군은 태백산맥 축선을 주공으로 37도선까지 치고 내려온 3차 공세 이후 짧은 공세능력 때문에 스스로 기력이 다해 숨어서 재 충전과 4차 공세를 준비하고 있는 동안 리지웨이 장군은 전 부대 지휘관들을 독려해 중공군 전선부대들의 위치를 확인하고 접촉을 유지할 것을 강력히 명령하고 이를 위하여 적의 위치를 찾기 위한 무력수색대를 편성하여 과감하게 북진시켰다.

1951년 1월 말 리지웨이 장군은 속절없이 전의를 상실한 채 엉거주춤하고 있는 유엔군과 국군에게 적의 실체를 확인하고 접촉을 유지한 후 공세작전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무력수색 부대를 구성하여 유령부대의 실체를 찾아 나섰다.

유엔군은 서부전선에서 썬더볼작전을 시행하였고 중동부전선에서 라운드업 작전을 시행하여 2월 초에는 수원과 양양을 잇는 지역에서 중공군의 주력부대 앞을 막아섰고 유령군대의 실체와 접촉을 유지하며 반격의 발판을 마련하는 전환을 이루었다.

유엔군이 중공군 주공격 부대 앞에 대치하여 유령군대의 실체를 벗겨내는데 성공할 동안 중공군은 흥천과 원주 일대의 중부전선을 돌파하여 서부전선 배후를 포위격멸하려는 제4차 공세전투를 시도하였다.

5) 실지회복을 위한 국지 기동전투(1951.4.-1951. 7.)

중공군은 단기간에 압록강을 건너 북한 전역을 석권하고 남한 영토까지 치고



1950년 11월 초 압록강 (혜산진)에 도달한 미7사단의 선발대



1950년 10월 평양 부근 북진에 동참한 유엔군의 병사들도 전리품을 찾아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1950년 10월 말, 압록강 (초산)에 도달한 국군6사단



1950년 11월, 국경을 넘어 북한으로 진출한 중공군의 보급부대

내려왔기 때문에 과도하게 늘어난 보급로를 유지하고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다.

게다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유엔 공군과 해군은 안동(단동)-신의주-평양-서울로 이어지는 보급로를 매일 격렬하게 폭격하고 있어 보급로 유지는 또 다른 생존을 위한 작전이었다. 중공군의 모든 병사들에게 스스로 자신들의 식량과 탄약을 휴대하고 전투에 가담하도록 하는 유격전 형식의 전투를 수행하게 하여 공격지속 능력은 최대 1주일을 넘기기 힘들었다.



1950년 12월, 북한 인민군의 선도를 받으며 남으로 진격중인 중공군

보급의 제한 때문에 일시 공격을 중단한 중공군은 식량과 탄약을 재보급한 후 네 번째 공격을 시도하였는데 이번 공세전투의 격전지는 전선 돌출부인 중부전선의 지평리(미 9군단)와 황성(국군 3군단) 일대였고 미 2사단, 1기병사단 그리고 한국군 8사단이 그 한복판에 있었다.

중공군은 황성지역의 국군에게 적지 않은 타격을 가하는데 성공하여 방어선의 국군부대들이 일시적으로 붕괴되면서 좌측방의 미 2사단도 일시 포위되었으나 8군의 역습이 성공하여 미 2사단은 포위망을 뚫고 탈출할 수 있었다.

미 2사단 23연대의 진지 고수방어와 1기병사단의 증원에 힘입어 지평리 지역의 사수에 성공한 유엔군은 유엔군 주력 격멸을 노리던 중공군의 제4차 공세를 성공적으로 저지하고 이어서 즉각 반격을 통한 서울 수복의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중공군의 짧은 공격기간을 간파한 리지웨이 장군의 지체 없는 반격작전은 효과를 보아 미 25사단이 미사리에서 한강을 도하하고 187공정사단이 문산에 대규모 공중강습작전을 펼치고 1기병사단과 미 2사단이 가평과 춘천을 탈환함으로써 잃었던 38선 이남의 실지를 대부분 회복하였다.

3월 23일 유엔군은 문산 별판에 187공정단의 강습



1950년 12월, 청천강을 뒤로 하고 후퇴중인 국군과 유엔군

투하하여 임진강 이남에서 인민군 1군단과 중공군 26군을 포위격멸하려 시도하였지만 부대격멸에 실패하였다.

미 187공정단의 문산 강습전은 한국인에게는 난생 처음 보는 경이로운 장면으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수백 개의 낙하산 투하장면은 많은 이야깃거리를 만들어내었다.

공중에서 쏟아지는 수백 개의 낙하산이 하늘을 뒤덮고 순식간에 허허벌판에 중무장한 군인들이 전개하고 한 시간도 안 되어 차량이 굉음을 내며 포가 불을 뿜는 장관을 처음 보았던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중 미군만이 가지고 있던 공중으로 이동하는 대규모 전투부대의 위용이었다.

전선은 다시 처음 출발점이었던 38선상에서 대치하게 되었고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잘못된 정세 판단으로 중공군까지 끌어들이게 된 정치적 실수를 맥아더 장군 해임으로 마무리한 후 자칫 끝없는 전쟁이 될 수도 있는 한국전쟁을 끝낼 구실을 찾게 되었다.

맥아더 장군의 후임으로 리지웨이 장군이 극동군 사령관에 보임되고 밴플리트 장군이 리지웨이 장군의 후임으로 8군사령관에 보임되었고 미국은 조만간 현 전선에서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였고 극동군사령부는 방어에 유리한 지형을 확보하려는 소극적인 국지전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많은 부대와 물자가 소요되는 기동전투보다 곧 끝날 것으로 기대한 한국전쟁의 종전 후 방어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았고 이는 전투 병력과 물자를 절약하는 경제적인 전투 방식이라고 미국의 정치가 들은 생각하였다.

중공군과 인민군도 봄이 되면서 전력을 재정비하였는데 중공군은 19개 군단,



1950년 1월 4일(일사후퇴), 중공군의 남침으로 촉발된 휴전 속의 피난길은 모두에게 지옥의 고통이었다.



초기 기습에서 대성공을 거두어 사기가 충천한 중공군의 행진



1951년 3월 22일, 문산 벌판에서 중공군을 포위하기 위하여 실시된 공중작전



57개 사단을 재편성하였고 인민군도 6개 군단, 18개 사단으로 증편하고 장기전에 대비하였다.

작전상 승리보다 명분과 체면을 유지한 현 상태에서 이루어질 휴전에 더 관심이 많았던 정치가들과 미국인들 때문에 8군 사령관 밴플리트 장군은 유능하고 공격적인 지휘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전쟁에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할 대규모 공세작전을 시행할 수 없었다.

1951년 4월에 미 8군은 휴전을 염두에 둔 38도선 북방 10~20km선에서 방어에 유리한 지형인 캔사스선을 확보하기 위한 제한된 공세작전, 러기드작전을 시행하였다.

미 1군단은 임진강을 따라 문산에서 동두천선을 따라 전진하였고 미 9군단은 철의 삼각지대(철원, 김화, 평강)로 전진하였으며 동부의 미 10군단은 인제와 양구를 확보하기 위해 국지전투를 수행하고 있었다. 반면에 지난 3개월여간 길게 늘어난 병참선과 제한된 물자지원, 네 번의 대공세로 약화된 전력을 보강하고 재편성하느라고 소극적이었던 중공군은 또 한 번의 대공세를 준비하고 있었다.

중공군 5차 공세는 4월 22일에 시작되었는데 지난 4차 공세 시 공격 목표를 중앙 지역의 미 9군단(지평리, 원주)에 지향했던 반면에 이번에는 미 1군단(서부전선: 국군 1사단, 미 3사단, 영국 29여단, 미 25사단)과 미 10군단(동부전선: 미 2사단, 미 7사단, 국군 5사단)을 돌파하여 중앙(동두천)의 미 9군단(미 24사단, 미 해병1 사단, 국군 6사단, 영국군 27여단)을 양쪽에서 포위하려는 작전을 구사하였다.

유엔군도 전처럼 중공군을 유령의 군대라고 두려워하지 않았고 만만하게 후퇴하지도 않았다. 밴플리트 장군은 적의 기습 돌파에 대비하여 각 군단에 예비대를 대기시켰는데 미 1군단 지역에 1기병 사단을, 미 9군단 지역에 미

7사단과 한국군 2사단을 미 10군단 지역에 미 2사단과 한국군 5사단을 집결 대기시켜 기습적이고 중심 깊게 돌파당하여도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중공군은 서측에서 임진강을 건너 설마리고개를 돌파하여 덕정과 동두천 방향으로 미 9군단의 배후를 포위함으로써 유엔군의 전선을 붕괴시키려 하였으나 설마리 일대의 영국군 29여단 1대대(글로스터서대대)가 대대장 이하 대부분이 전사하거나 포로가 되는 결사방어로 진지를 사수함으로써 중공군의 대포위작전의 기도를 무산시켰고 유엔군은 문산-동두천-청평-홍천-속초를 잇는 방어선을 사수하며 중공군의 돌파를 저지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한국군 3군단이 또 한 번의 뼈아픈 시련을 겪게 되었다.

5월 18일 동부전선에서 중공군의 공격을 받은 국군 7사단의 일부 부대 철수가 오미재고개에서 차단당하자 다시 지난 겨울 중공군의 포위에서 겪은 악몽이 되살아나 7사단의 철수로를 개척하는 대신 포위에서 벗어나려는 혼란스러운 탈출로 이어져 3군단 전체가 공황상태에 빠져 붕괴되고 말았다.

국군 3군단의 붕괴는 유엔군 전체를 위협에 빠트렸다. 5월 18일 유엔 공군은 하루 종일 오미재고개 일대로 출격해 3군단이 유기한 차량과 화포들을 적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폭격하여야 했고 8군사령관은 3군단의 붕괴로 홍천 북방에서 포위된 미 2사단의 탈출에 총력을 지원하였다.

동해안의 강릉비행장이 포위되어 피탈될 위기에 몰렸으나 국군 1군단의 선전으로 가까스로 강릉비행장을 지켰고 의정부 일대의



샌프란시스코 개선 퍼레이드. 맥아더장군은 트루만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해임되었으나 국민들은 노장군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1951년, 중공군은 전력을 전면 재정비하고 새로운 병력과 무기를 투입하였다.



1952년 하늘의 요새라는 별명을 가진 B-29중폭격기가 북으로 향하고 있다.



중부전선, 포병 사격



주한미군 8군 사령부 예하 미군 군단과 사단들

미 3사단을 흥천으로 기동시켜 미 2사단을 구출하는 등 위기를 넘기고 중공군의 공격이 멈춘 5월 25일 밴플리트 장군은 한국군이 방어지역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쉽게 후퇴하여 미군들까지 또다시 포위의 위협에 빠뜨리게 한 것에 매우 실망하여 한국군에게는 수치스러운 결정을 정일권 총장에게 통고하였다.

그동안 한국군의 작전에 간여해 오던 강릉의 한국군 육군본부 지휘부에게 한국군 작전개입을 금지하고 국군 3군단은 해체한다고 통보한 것이었다. 동측에서 해군의 함포지원에 힘입어 가장 깊숙이 북진하며 선전하고 있는 국군 1군단을 제외하고 한국군은 한동안 사단 단위로 미군 군단장들의 지휘를 받게 되었다.

중공군은 여러 번 공세전투를 펼쳐 유엔군의 전투력 말살을 시도하여 전쟁을 끝장내고 싶어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고 유엔군도 적을 시원스럽게 평양과 원산선 이북으로 밀어낼 수 없었다.

기나긴 준비 끝에 벌인 중공군의 제5차 공세전투는 그 기간이 50여 일이나 지속된 야심찬 전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군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국군 3군단을 붕괴시키고 국지적인 전투의 빛나는 승리에도 불구하고 중공군은 조선의 허리(평양-원산)까지 진격하여 국경선을 고착시키려는 유엔군의 의지를 꺾는 데 만족해야만 하였다.

전선은 미군들이 와이오밍선이라고 부르는 문산 북방-동두천 북방-철원-김화-화천-문둥리-간성을 잇는 방어선에서 대치하였고 7월 10일부터 쌍방 합의에 의하여 휴전을 위한 회담이 시작되었다.

모든 이들은 어떤 형태로든 전쟁은 곧 끝날 것으로 기대하였다. 전쟁은 이제

기동전쟁의 한계를 드러내고 휴전을 염두에 둔 유리한 강제방어고지를 더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진 고지전투의 양상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러나 곧 타결될 것 같은 종전회담은 휴전회담으로 바뀌어서도 2년 이상 끌었고 기간 중 집중했던 고지전투와 지역제한 전투는 정치가들의 의도와 다르게 더 많은 희생과 전투물자의 소모를 요구하였다.



동해안에서 함포 지원 사격중인 미군 전함

6) 고지전투(1951. 7. - 1953. 7.)

동북아시아의 척박한 땅에서 일 년 동안 격렬한 기동전투를 치르며 극심한 고통을 맞본 유엔군 장병들은 막 시작된 정전회담에 안도하면서 조만간 귀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종전회담장은 공산주의자들에게는 또 다른 전선이었음을 처음에는 인지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압도적으로 우세한 유엔 공군과 해군에 의해서 진행된 중공군과 인민군의 주요 병참선 파괴 시도에 대항하여 후방작전을 진행할 시간을 벌기 위하여 회담을 의도적으로 질질 끌었고 전력 재충전의 기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전쟁 도발의 정당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선전장소로 변질시키며 회담은 모든 이들의 희망을 저버리고 2년을 넘게 계속되었다.

회담기간 중 남과 북은 회담장에서 정전의 유리한 조건을 상대방에게 관철시키기 위하여 공세적인 전투의 힘을 풀지 않았다.

유엔군은 공중과 해상에서의 우세권을 이용해서 북한의 주요 산업도시와 항구를 끊임없이 폭격하였고 대치하고 있는 155마일 전선 고지에서는 한 치의 땅이라도 더 뺏으려는 기 싸움이 계속되었다.

이 시기에 대폭 증강된 유엔 공군의 후방 타격은 중공군의 신장된 병참선에 집중하여 전선의 중공군 전투력 말살을 시도하였으나 별반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북측의 회담 대표 지팡, 남일, 이상조, 장평산



1952년 하늘의 요새라는 별명을 가진 B-29중폭격기가 북으로 향하고 있다.

병참선은 남행열차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엔공군은 북한지역 남행 철도의 목에 해당하는 신안주, 서포, 개천 일대의 철로와 조차장을 집중 폭격하여 병참 보급선 차단을 시도하였는데 약 2,600회 출격에 38,000개의 폭탄을 투하하는 등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공격을 시도하였다.

중공군은 이에 대응하여 고사포 62사단과 63사단을 이곳에 배치하여 대응하는 한편 군단급 병력을 철도 복구병력으로 전환하여 밤이면 1km구간 당 200~300명의 병력이 복구에 밤을 지새우는 방식으로 보급로를 유지하여 전선부대의 탄약과 식량을 보급할 수 있었다. 중공군에게는 전방의 전투 이상으로 중요한 전투가 후방 보급물자 수송과 보급로를 유지하는 것이었고 이를 무력화시키려는 유엔공군의 활약과 노력은 그 어느 전쟁터보다 치열한 것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유엔공군은 적의 보급로를 철저히 차단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였다.

중공군과 북한 인민군은 휴전회담을 시작하면서 전략적 기동공세 전투를 전략적 방어전투로 전환하여 장기방어전에 대비하기 시작하였고 유엔군은 철수 에 대비하여 한국군 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1951년 7월 40년 만의 대홍수가 휩쓸고 간 직후 중공군은 장기전에 대비하고 식량과 탄약의 제한으로 공세전투에 제한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 전선에 걸쳐 지하땅굴을 파는 대규모 공사를 시작하였다. 이른바 지하 만리장성이라 부르는 대규모 토목 공사였다.

최전선의 경계부대와 투입된 전투부대를 제외한 전군이 동원되어 250km 전 전선에서 중심 20~30km 폭으로 땅굴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군단별로 40여 개의 자체 대장간을 건설하여 소형 굴토장비를 만들어 공급하였고 만주의 심양에서 대형 굴토장비를 생산하여 보급하였다.

처음에는 비가 많이 오거나 유엔군 폭격에도 쉽게 무너지는 등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였으나 점차 튼튼하고 장기전에 대비할 수 있는 거대한 지하요새가 만들어졌다.

지하요새 건설에는 7대 원칙이 있었는데 공중폭격에 견뎌야 하고 포병사격에도 견뎌야 하고 독가스 공격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하며 큰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아야 하고 습기, 불, 겨울철 한기에도 보호될 수 있도록 요구되었고 또 축성되었다.

중전회담은 쌍방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대립하자 잠시 전투행위를 멈춘다는 의미의 휴전회담으로 바뀌었고 워싱턴의 전쟁지도부는 대규모 상륙전이나 군단급 이상의 공세전투를 승인하지 않았다.

휴전이 임박했다고 믿은 쌍방은 버티고 선 고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고심하였고 장차 유리한 방어진지 확보를 위하여 적을 감시하고 방어에 유리한 고지들을 차지하기 위한 고지전투가 치열하게 반복되었다.

중전이 아닌 휴전을 앞둔 유리한 방어진지 만들기를 염두에 두다 보니 아군에게 유리한 진지는 적에게도 유리한 진지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름도 없는 작은 언덕과 고지 하나를 두고 쌍방이 물러 설 수 없는 기 싸움과 격전을 벌이다 보니 예상치 않게 천문학적인 양의 포탄을 필요로 하였고 더 많은 인명이 희생되었다.

휴전에 대비하여 쌍방이 작전수행 차원에서 확보하고자 했던 지역은 개성, 철의 삼각지대 그리고 편치볼 지역이었다.

개성지역은 북한이 결사적으로 확보하려 한 반면 유엔군 측은 방어 선이



1952년 8월 B-29중폭격기가 평양의 조차장을 폭격하고 있다.



1952년 중공군의 포사격



1951년 여름, 인제. 그 해의 여름 장마와 홍수는 대단하였다.



1952년 부산의 유엔묘지. 휴전회담이 지연되면서 고지전투를 통한 희생자는 계속 늘어났다.

확장된 개성을 포함한 종래의 38선보다 현재의 임진강 장애물을 사이에 두고 방어하는 것이 유리 하다고 판단해 적극성을 보이지 않은 대신 철의 삼각지대와 펀치볼 지역에서 결사적으로 전투를 벌였다.

철의 삼각지대는 낙동강전선에서 총퇴각 시 북한 인민군의 집결지로 철원 일대를 지목했던 것처럼 비옥한 철원평야를 끼고 있어 전방부대의 식량조달이 용이하고 평양과 원산에서 평강에 이르는 철도의 조차장이 있어 군수 및 병참지원을 용이하게 하는 요충지였기 때문이고 펀치볼

지역은 험준한 태백산맥 줄기가 남으로 이어져 차량과 기계화 부대가 기동하기 쉽지 않은 지역에 유일하게 반경 10킬로미터가 넘는 거대한 분지가 위치하고 있어 5만 명 이상의 대부대 집결과 재편성이 용이한 지형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었다.

한반도 동측에 등뼈처럼 북에서 남으로 내리 뻗은 태백산맥을 타고 중공군은 제4차 공세 시 영월까지 깊숙이 돌파하여 유엔군 지휘부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이후 태백산맥 축선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양구 동북방에는 흔치 않게 몇 개 사단이 집결하고 재편성을 할 수 있는 펀치볼 분지는 그 위치상 이유로 인하여 전술적 중요도가 부각되었다.

접시 모양의 넓은 분지를 뜻하는 이 지역은 피아 서로 선점하고 싶어 하는 중요한 지역이 되었고 미군들이 펀치볼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펀치볼을 사이에 두고 1년을 넘게 공방전을 펼쳐 3천여 명의 미군과 유엔군이 희생되었고 36만 발의 포탄을 퍼부은 피의 능선, 단장의 능선 전투는 뉴욕타임즈지에서 중계 방송하듯 전투경과를 보도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 되기도 하였다.

전방에서 국지전투가 계속되는 동안 지하 만리장성 공사는 1년을 넘게 진행되었고 1952년 8월 중국 공산당 전국위원회 상무위에서 모택동은 항미 원조군 전원이 추가 보급지원 없이 3개월을 버틸 수 있는 식량을 비축했으며 유엔

공군의 군수 및 병참 차단작전은 실패했다고 자랑스럽게 보고하였다.

피아간 눈에 띄게 영토를 잃거나 확보하지도 못하면서 계속된 지겹고 고통스러운 고지전투는 휴전을 기다리며 25개월이나 계속되었다.

전투는 서측으로부터 임진강을 따라 문산과 적성, 전곡 북방과 역곡천을 따라 금화, 금성천을 횡단하여 동부전선의 양구 편치불 분지를 지나 태백산맥을 가로질러 동해안의 간성과 고성 일대까지 이어진 전선에서 이어졌다. 모든 골짜기와 산에는 고유 지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선을 지휘하던 부대가 상당부분 미군과 유엔군들이어서 적지 않은 이곳 고지들과 전투지역들이 영문 명칭으로 널리 알려졌다.

미 1군단의 지휘 하에 작전을 수행하던 서부전선에는 베가스고지, 베를린고지, 병커힐고지, 폭잡힐고지로 불리는 고지전투들이 널리 알려졌고 철의 삼각지대의 격전장이었던 중부전선은 미 9군단의 지휘 하에 치러졌던 티본힐고지, 에로우고지, 백마고지, 올드발디, 헤리고지, 파파상고지의 격전이 알려졌다.

미 10군단이 지휘하던 태백산맥 일대의 동부전선에서 벌어진 고지전투로 저격능선, 단장의 능선, 피의 능선, 수도 고지, 크리스마스고지로 불리는 험준한 산악지역 고지전투들이 널리 알려졌고 편치불 분지는 작전상 중요 지역으로 부각되었다.

해군 전력이 전무한 북한 인민 군과 중공군을 상대로 막강한 미 극동함대의 함포지원을 받으며 동해 안 축선에서 싸운 국군 1군단은 38도선보다 무려 70킬로미터나 더 북진하여 월비산과 고성 남방까지 밀고 올라가는 탁월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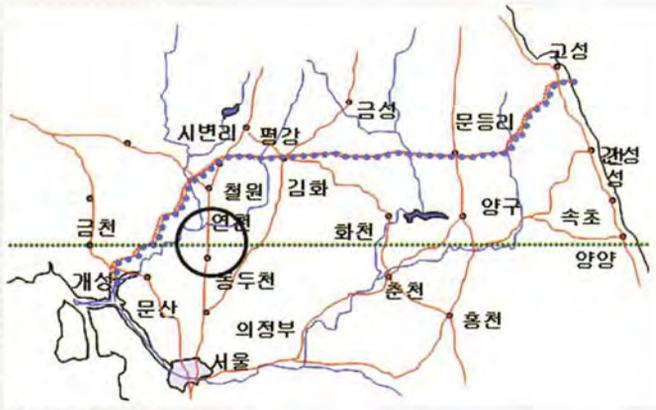
1952년, 사격 후 쌓인 포탄의 탄피 더미. 예상 외로 엄청난 전쟁물자를 요구하는 고지전투는 또다른 군수전쟁이기도 하였다.



1952년 동부전선 피의 능선 미 2사단



1952년 11월 한국의 겨울은 고통이었다.



휴전 1953년 7월 27일 10시

전과를 올렸고 이 선을 따라 휴전선이 지금까지 굳어져 있다.

전선에서는 포성이 끊임없이 울렸지만 개전 초기처럼 밀고 밀리는 기동 전투가 아닌 고지전투 양상이 2년 넘게 계속되다 보니 전방사단의 바로 후방 지역에 긴급 상황을 대비하여 각 군단의 예비사단이 위치하면서 휴식을 취하거나 교대투입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서부전선 1군단은 문산에 중부전선 9군단은 동두천과 운천에 동부전선 10군단은 양구와 가평에 예비기지를 운영하였다.

예비부대의 주변에는 휴식이 필요한 유엔군 병사들을 위하여 최소한의 PX시설과 극장과 매점이 설치되었으나 보다 더 자극적인 오락거리를 찾는 병사들의 기호에 부응하여 유엔군을 상대하는 술집과 유흥가들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이곳 미군 기지주변에 유흥가와 기지촌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7) 휴전

1953년 7월 27일 드디어 휴전이 조인되었다.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 장군은 미 육군의 1/3병력을 지휘하는 총사령관으로서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고 끝내지도 못한 전쟁의 휴전조인 문서에 참담한 마음으로 서명하였고 이승만 대통령과 반공인사들은 한반도에서 공산세력을 척결하지 못한 채 전쟁을 잠시 멈춘다는 어정쩡한 휴전을 결사적으로 반대하였지만 오랫동안 전장에서 고통 받은 많은 젊은이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결과에 만족하며 기뻐하였다.

중공군도 자신들의 참전으로 세계 최강이라는 미군을 상대로 싸워서 압록강에서 38선 일대의 현 전선까지 북한 전지역 영토를 되찾은 대승리라고 자축하며 휴전문서에 기꺼이 서명하였다. 휴전문서에 조인하기 전 4월에 먼저 부상포로의 교환이 있어 7,224명이 북으로 보내졌고 720명이 돌아왔고 휴전조인

다음 달에 포로교환이 있어 75,079명이 북으로 돌아가고 12,941명이 남으로 돌아왔다.

3. 외국군의 주둔과 동두천

1) 유엔군 21개국의 발자취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의 요청으로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결로 북한에 의한 남침의 불법성을 만장 일치로 가결하였고 많은 국가들이 국제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북한을 응징할 군대를 보내거나 의료 및 보급지원을 하였다.

미국을 포함하여 영국, 캐나다, 호주, 터키, 필리핀, 태국, 에티오피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그리스, 프랑스, 콜롬비아,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자유 우방 16개 국가들이 군대를 보내 참전하였고 덴마크, 인도,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등 5개 국가들이 유엔의 깃발 아래 의료서비스와 보급지원을 제공하였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승국이며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많은 약소 국가들을 일본과 유럽의 선진 국가들의 식민체제로부터 해방시켜 국가적 독립을 이루게 하였는데 특히 미국은 우리나라와 3년여 한국전쟁을 함께 치르며 60년 혈맹의 우의를 다져왔고 지금까지 각별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소련의 공산야욕의 위협성을 직시하지 못하고 조선인들의 의식구조와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균정과 신탁통치 결정으로 불필요한 고통을 조선인들이 겪게 하고 북한의 무력 적화통일 야욕을 경시한 채 남한정부가



1953년 7월 27일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 장군이 휴전 협정문서에 서명하고 있다.



1953년 여름 휴전회담이 성사되고 포로들이 교환되었다.



1953년 4월 2년여를 끝낸 휴전 협상이 마무리되어 부상포로 교환을 위한 토의를 하고 있다.



충분한 자주국방의 능력을 갖추기 전에 미군을 철수시켰고 잘못된 동북아시아 정책을 표명하여 북한의 남침을 유도한 측면도 있었지만 일단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망설임 없이 즉각 참전하였고 또 총력을 다하여 우리를 도왔다.

급박한 전황 속에서 미군은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주일 제8군 예하

4개 사단(24사단, 25사단, 1기병사단, 7사단)을 추차 투입하고 본토에서 2사단, 3사단 해병 1사단을 즉각 동원하여 참전하였으며 전쟁이 장기화되자 주방위사단인 40사단과 45사단을 추가로 동원하여 파병하였다.

4성 장군인 8군사령관을 야전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하여 3개 기동군단(1군단, 9군단, 10군단)을 구성하여 9개 사단과 독립여단을 직접 지휘하였고 한국군 3개 군단(초기 1, 2군단 8개 사단, 후기 1, 2, 3군단 12개 사단)을 직간접 지휘하였고 유엔의 깃발 아래 참전한 15개 국가의 군대(여단 또는 대대급)를 작전 통제하여 전쟁임무를 수행하였다. 동해와 서해에서 영국 해군과 연대하여 극동함대를 주축으로 해상 및 공중지원을 하였고 오키나와에서 극동 공군 미 해병 원정군단의 항공모함과 항공기의 지원하에 공중지원 작전을 수행하였다.

미군은 자신의 국가를 방위하여 싸우는 한국군 못지않게 헌신적이고 용감하게 한국 전쟁을 수행하였다. 말단 병사에서부터 최고 지휘관까지 모든 열정과 헌신적인 자세로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많은 희생을 감수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민들도 미국 정부의 참전 결정을 존중하고 인내하면서 후방에서 군수산업을 가동시키고 전쟁비용을 위한 무거운 세금을 감내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공산주의의 야욕과 싸우는 총력전쟁을 지원하였다.

미군은 초대 8군사령관 워커 중장이 전쟁터 한복판에서 교통사고로 순직하였고 최초 투입된 미 24사단의 사단장 딘 소장이 최전선에서 포로가

되었으며 9군단장 무어 중장이 항공기 사고로 순직했고 수많은 연대장, 대대장이 전쟁터에서 포로가 되거나 전사하는 등 격렬한 전쟁터의 중심에서 싸웠고 또 희생을 감수하였다.

37개월간의 한국전쟁 기간 중 미군은 총 577만여 명이 참전하여 54,246명이 전사하거나 순직하였고 103,284명이 부상하였으며 5,178명이 실종되었거나 포로가 되는 희생을 치렀으며 미국 국민들은 200억 달러 이상의 전쟁비용을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휴전 이후 한국군 증강을 위한 군사원조 17억 달러와 1971년까지 한국의 경제재건을 위한 연 2억 달러 규모의 경제원조를 지원하였다.

이 외에도 박애정신에 빛나는 수많은 개인과 사회단체들이 전쟁고아와 과부 그리고 상이군경들을 지원하여 우리가 전쟁의 상처와 굶주림을 물리치고 폐허에서 소생할 수 있도록 도왔다.

영국군은 1950년 8월 28일 홍콩에 주둔하던 스코틀랜드 27여단을 신속히 한반도에 투입하여 미 24사단에 작전 배속되어 왜관과 성주방어전에 투입된 이래 낙동강 방어전투와 북진 전투에도 참가하였고 27여단은 영국 연방부대로 구성된 연방 28여단으로 교체된 후 서부전선에서 독립여단으로 전투에 참가하였다. 그해 11월 영국군은 29여단을 추가로 파병하여 각각 미 1군단과 9군단에 배속되어 전투에 참가하다가 1951년 7월 28일 덕정에서 영국연방 28여단, 영국군 29여단, 캐나다 25여단으로 영국군 1사단을 창설하여 휴전 시까지 임진강 일대의 서부전선을 굳건히 지켰다.

육군과 별도로 해군이 항공모함, 구축함, 순양함 등 21척을 보내 서해안을 지켰고 해병 41코만도부대가 서해안지역에서 독립작전을 펼친 영국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군대를 보내어 참전한 국가였다.

호주군은 1950년 9월 28일 왕립연대의 선발대대가 투입된 이래 영국군 27여단에 배속되어 미 1군단의 서부전선에서 싸웠으며 1951년 7월 영국 연방군 1사단의 부대로 배속된 이후에도 서부전선에서 주로 전투에 참가하였으며 1953년 초에는 미 2사단과 교대한 이후 동두천 캠프 케이시로 이동하여 약





2개월 간 주둔하면서 캠프건설과 교육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동두천과 인연을 맺고 있다. 육군 2개 대대가 참전한 이외에 항공모함과 구축함 등 선단을 보내어 영국해군의 지휘 하에 서해안 작전에 참가하였고 공군 전투기 1개 편대와 항공수송단이 참전하였다.



벨기에-룩셈부르크대대는 룩셈부르크소대를 합편한 벨기에 대대로서 미 3사단 15연대의 예하에 배속되거나 또는 영국군 29여단 예하로 배속을 옮겨가면서 서부전선 일대와 임진강, 철원, 금화, 연천 일대의 전투에 참가하였고 미 3사단에 배속되어 휴전 시까지 김화(와수리) 지역의 방어전투에 참가하였다.



캐나다군은 최초 여단 규모를 파견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유엔군의 반격이 성공하여 북진이 순조롭게 진행되자 1개 대대를 파견기로 계획을 수정하였다. 1950년 12월 한국 전선에 투입되어 다음해 2월 영국군 27여단의 예하부대로서 가평전투에 참가하였고 그해 5월 25여단의 본대가 도착하자 필리핀 대대를 배속받아 미 25사단 예하로 의정부-운천 축선에 투입되었고 미 3사단, 미 1기병사단에 배속되어 철원과 임진강, 사미천 흑고지 전투에 참가하였다.

1951년 7월 28일 영연방군 사단이 적성에서 창설할 때 캐나다군은 여단 규모로 증강하여 혼성 편성된 28여단, 영국군 29여단과 함께 영국 연방 1사단의 부대가 되었고 영국 1사단의 지휘 하에 임진강 일대에서 휴전할 때까지 크고 작은 전투에 참가하였고 1955년 4월 철수하였다. 육군 이외에 구축함대를 보내 서해에서 영국 극동함대에 소속되어 싸웠고 캐나다 공군 수송단도 참전하였다.

콜롬비아군 대대는 1951년 6월 부산에 도착하여 미 24사단에 배속되어 금성지역(화천, 사방거리 북쪽) 전투에 투입되었다가 1952년 초 미 24사단이 미 7사단과 교체 철수하자 미 7사단에 배속되어 양구, 외수리, 금성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전투에 참가하다가 1952년 11월 미 25사단과 미 7사단이 진지를 교대하자 화천에서 잠시 예비로 있다가 미 7사단 31연대와 다시 연천 북방에 투입되어 올드발디, 폭참힐 전투에 참가하였다. 육군 이외에도 해군의 프리깃함이 미 극동함대에 소속되어 참전하였다.



에티오피아 대대는 셀라시에 황제의 유일한 근위연대였는데 황제의 명으로 1개 대대 원정전투단을 편성하여 1950년 8월부터 자체적으로 8개월간 산악지역에서 훈련을 실시한 후 1951년 5월 부산에 도착하여 현지 적응훈련을 거쳐 그해 7월 미 7사단 32연대에 배속되어 전선에 투입되었다. 가평에서 잠시 대기하다가 24사단과 교체하여 화천지역에 투입된 7사단의 예하 부대로서 사방거리 말고개 등지에서 매복과 정찰전투를 수행하였고 그해 10월 가평으로 이동하여 재정비후 미 2사단의 작전지역을 인수하여 문동리지역에 투입되어 단장의 능선지역 축성공사와 정찰전투 임무를 수행하였고 1952년 봄에 가평으로 물러나 부대원 교체와 훈련을 거쳐 7사단 32연대를 따라 철원 김화 일대 전투와 티본힐, 폭참힐 전투에 참가하였다. 에티오피아 대대는 휴전 이후 바로 철수하지 않고 미 7사단에 배속되어 동두천 지역에서 1965년 초까지 주둔하였다. 육군 이외에도 해군의 프리깃함이 미 극동함대에 소속되어 참전하였다.



프랑스 대대는 1950년 11월 투입되자마자 미 2사단 23연대에 배속되어 원주, 횡성, 지평리 전투에 참가하였고 미 2사단과 함께 동부지역의 흥천, 화천, 편치불, 단장의 능선, 피의 능선 전투와 중부지역 금화전투, 연천지역(티본힐 화살머리 고지)전투에 참가하였으며 1953년 4월 동두천 캠프 케이시로 이동하여 훈련과 캠프 건설에 참여하였다.

프랑스 대대는 다시 미 2사단 23연대와 김화 지역(중가산)에 투입되어 고지를 지키다가 휴전을 맞이하였고 미 2사단과 더불어 어느 부대보다 격렬하게 격전의 북판에서 싸워왔다. 프랑스 대대는 1953년 10월 또 다른 전쟁터 인도차이나로 떠나갔다. 육군 이외에도 프리깃함이 미 극동함대에 소속되어 참전하였다.



그리스 대대는 1950년 12월 부산에 도착하자 미 1기 병사단에 배속되어 의정부 금오동 일대에 투입되었다가 중공군의 공세에 밀려 충주 지역까지 밀려 후퇴하였다. 1951년 봄 대대는 서부전선 무력정찰대로 투입되어 선더볼트 작전에 참가하였다. 이후 그리이스 대대는 여주-의정부 축선으로 반격을 개시하여 양주 남면의 임진강까지 도달한 후 연천 지역 전투에 참가하였고 1951년 11월 미 1기병사단이 일본으로 철수하고 미 3사단이 투입되자 3사단에 배속되어 연천 북방 신망리에 투입되었다. 1952년 봄 거제도 폭동진압부대로 차출되어 거제도로 이동하였다. 대대는 그해 여름까지 일동 기산리와 동두천 지역에서 훈련과 정비 기간을 보냈다.

그리스 대대는 이후 3사단의 배속부대로서 연천, 철원 일대의 노리고지, 헤리고지 전투와 금성전투에도 투입되어 싸웠고 휴전 이후에도 즉각 철수하지 않고 철원 지역에 주둔하다가 1954년 9월 미 3사단이 철수하고 미 7사단이 교체 주둔하자 미 7사단의 예비로 철원 일대에 주둔하다가 1955년 4월 부대를 중대 규모로 축소하여 31연대의 배속부대로서 동두천 동측방에 주둔하다가 1955년 10월 귀국하였다. 육군 이외에도 공군 수송단이 극동공군에 배속되어 참전하였다.

네덜란드 대대는 1950년 11월 1개 대대가 부산에 도착하자 수원으로 이동하여 미 2사단 38연대에 배속되어 지역 게릴라 토벌작전을 수행 중 중공군 공세에 밀려 충주까지 후퇴하였다가 동부전선 라운드업 작전 이후 반격이 개시되자 횡성 지역까지 반격하였으나 우측 한국군 2군단의 붕괴로 포위 고립된 미 2사단 38연대와 함께 커다란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1951년 4월 재정비한 네덜란드 대대는 홍천과 가리산 일대 방어전투에 참가하였고 인제 탈환전투에도 참가하여 임무를 완수한 후 미 2사단과 함께 9군단 예비로 홍천으로 물러났다. 재정비 후 1951년 7월 미 해병1사단과 교체하여 펀치볼 지역에 투입되어 그해 10월 말 미 7사단과 진지 교대를 할 때까지 '피의 능선'과 '단장의 능선'에서 격렬한 전투에 참가하고 가평으로 물러나왔다.

네덜란드 대대는 그해 12월 재정비를 마친 후 미 2사단과 함께 금화지역에

다시 투입되어 1952년 4월 거제도 폭동 진압부대로 출동할 때까지 전선을 지켰고 4월 말 거제도에서 인천을 통하여 복귀하자 곧바로 연천지역에서 미 45사단의 부대들과 진지를 교대하여 폭잡힐, 티본힐 전투에 참가하고 1952년 12월부터 2개월간 미 1군단의 예비부대로 동두천 캠프 케이시에 주둔하였다.

1953년 1월 말 캐나다 연대와 교체하여 사미천 지역에 투입되어 4월 예비 부대가 되어 덕정 지역으로 이동할 때까지 고지전투를 수행하다가 휴전 직전에 위기에 빠진 국군 2군단의 금성지역 전투에 증원하여 참가하였다. 문혜리 지역에서 휴전을 맞이하였고 대대는 이듬해 10월까지 영등포에 주둔하다가 귀국하였다. 육군 이외에도 구축함 3척, 프리깃함 3척이 미 극동함대에 소속되어 참전하였다.

뉴질랜드는 포병대대를 파병하여 주로 영국군 27여단을 포병화력으로 지원하였는데 작전 상황에 따라 한국군 6사단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1950년 12월 31일 부산에 도착하여 이듬해 2월에 여주 일대에서 38선 회복을 위한 길러작전에 참가하였고 1951년 7월 28일 영국연방 1사단이 창설되었을 때 영국군, 캐나다군, 인도군, 호주군과 함께 영국 연방 1사단의 일원이 되어 임진강 동두천 서측 일대에서 코만도작전, 흑고지전투 등에 참가하였으며 1954년 10월 귀국하였다.

육군 이외에도 프리깃함 2척이 미 극동함대에 소속되어 참전하였다.

필리핀은 보병 1개 대대, 중전차중대, 경전차중대, 장갑정찰대, 포병포대, 지원부대로 구성된 필리핀 대대전투단을 파병하여 1950년 9월 20일 부산에 도착한 후 인민군 6사단의 서 측방 돌파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산에 출동한 미 25사단(킨 특수임무부대)에 배속되어 사천비행장 방호임무를 시작으로 북진에 참가하여 개성과 평강 간 1번 국도 방호임무를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중공군 남침 시에는 개성 금천 시변리 도로 방호전투를 수행하며 수원을 거쳐 대구로 이동하여 8군 직할부대로 대전-김천간 도로 방호작전에도 참가하였다.

유엔군 재반격 시기에는 미 3사단 65연대에 배속되어 잠실에서 한강을 도하하여 서울 동측을 따라 정릉, 도봉산, 감악산 방향으로 북진하였으며 잠시





동두천 남방에 주둔하기도 하였다.

필리핀 대대는 1951년 4월 말 미 25사단의 예비부대로 전환하여 포천-만세교 축선에 투입되어 철원 방향으로 진격하여 학저수지 일대 정찰활동과 백마고지 티본고지 전투에 참가하였고 그해 11월 말 미 3사단으로 배속을 전환하여 임진강 일대와 연천 북방에서 전투에 참가하였다.

1952년 4월 교체 투입된 미 45사단에 배속되었고 6월에는 동두천 캠프 케이시로 잠시 이동하여 부대 정비와 신병보충을 실시한 후 7월에는 미 45사단을 따라 10군단의 동부전선으로 이동하여 휴전 시까지 펀치볼, 단장의 능선, 피의 능선 전투에 참가하였다. 대대는 휴전 이후에도 양구 일대에 머물다가 1955년 5월에 귀국하였다.

태국군 대대는 1950년 11월 7일 부산에 도착하여 진작전에도 참가하였으며 중공군 남침 시기에 개성-문산 엄호작전을 수행하며 오산까지 철수하여 문경과 상주 일대에서 후방도로 엄호작전을 수행하였다.

1951년 3월 유엔군 반격작전 시 미 1기병사단에 배속되어 춘천을 탈환하였고 4월에 미 1기병사단이 서부전선으로 이동할 때 함께 금곡지역으로 이동하여 창동-의정부-동두천 축선 동측의 국사봉을 점령하고 연천, 전곡에 도달한 후 11월까지 사미천, 전곡, 신망리, 천덕산 일대에서 방어 및 정찰임무를 수행하였다.

1951년 12월말 중부전선으로 이동하여 미 2사단 9연대에 배속되어 와수리 일대 방어임무를 수행하다가 1952년 5월 말 진지를 미 7사단에게 인계하고 7월 중순에 미 2사단을 따라 동두천으로 이동하여 9연대와 10월 말까지 캠프 케이시에서 예비부대로 주둔하였다.

태국군 대대는 11월에 동두천 서측 임진강변 전투에 투입되어 방어임무를 수행하였고 1953년 초 미 2사단이 중부 전선의 9군단 지역에 투입되자 운천 지역에 주둔하면서 철원 일대의 전투에 참가하였고 휴전 이후에도 운천에 주둔하면서 미 7사단에 재배속되어 1970년 11월 철수할 때까지 중부전선을 지켰다. 육군 이외에도 해군함정 3척, 시누크 수송편대, 적십자 의무 지원대를 보내어 참전하거나 지원하였다.

터키는 영국에 이어서 세 번째로 대규모 부대인 여단을 보내어 참전하였는데 1950년 10월 부산에 도착하여 북진 시 미 2사단에 배속되어 임무를 수행하다가 중공군 남침 시 평양 북방군우리에서 포위되어 커다란 피해를 입기도 하였으나 1951년 초 유엔군 반격 시 미 25사단과 함께 수원, 수리산 일대로 진출한 후 미사리에서 도하하여 포천 방향으로 진격하는 등 눈부신 활약을 하였다.



1951년 4월 중공군 공세 시 서울 북방까지 철수하였으나 5월 의정부를 회복하고 일동, 이동, 신술리 방향으로 진격하여 금화를 탈환하고 그해 말까지 신술리와 남대천 일대의 방어임무를 수행하였다.



1952년 2월 미 7사단과 진지를 교대한 미 25사단과 함께 동부전선 문둥리 지역으로 이동하여 8개월 동안 '단장의 능선'과 '피의 능선' 전투에 참가한 후 10월 말 7사단과 교대하여 금화 지역으로 이동한 후 지역 방어임무를 수행하다가 1953년 5월 미 해병 1사단과 진지교대를 하고 예비로 물러나는 미 25사단을 따라 의정부로 이동한 후 이듬해 7월 귀국하였다.

남아프리카공화국도 참전을 결정하였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1950년 11월 제2차 세계대전중 동아프리카, 지중해, 중동 지역에서 참전했던 "플라이 치타스"라고 불리는 전투기 편대를 미 18전폭항공대 예하 12전투기편대의 일부로 배속시켜 참전하였다.

처음 다섯 대의 무스탕전투기가 사천비행장에서 임무를 위해 발진한 이래 1953년 여름 휴전할 때까지 미 공군과 함께 지속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였는데 마지막 전투임무는 1953년 7월 의주와 신의주 일대의 적 비행장을 폭격하는 임무였다. 기간 중 미그기 21대를 격추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투기 편대는 그해 10월 임무를 종료하고 철수하였다.

이외에도 군대를 보내 참전하지는 않았으나 전쟁기간 중 의료지원을 수행한 나라는 스웨덴, 인도,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가 있었다.



노르웨이 야전병원, 동두천

스웨덴은 무장 영세 중립국이면서도 한국전쟁에 제일 먼저 의료지원단을 보냈다. 의사 10명, 간호사 30명, 기타 행정 등의 요원을 포함하여 160명의 요원으로 적십자 병원을 조직하여 9월 28일에 한국에 도착하여 초대 병원장 칼 에릭 그로스 대령의 지휘 아래 부산(부전동)에 200병상 규모의 병원을 운영하였다.

스웨덴 적십자병원은 부상병들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민간인들도 치료했으며 아직 의료 수준이 낮았던 한국 의료진에게 선진 의료 기술을 전수하기도 하였으며 전쟁이 끝난 후 스웨덴 적십자병원은 스칸디나비아 교육병원으로 바뀌어 1968년 대한민국 정부로 운영이 넘겨졌는데 이것이 현재의 국립의료원이다. 많은 귀중한 인명을 구하는 데 기여하고 선진 의료기술을 전수하는 데 앞장섰던 스웨덴 적십자병원은 1957년 4월에 철수하였다.

인도는 1950년 11월 20일 의사 14명, 위생병 329명, 행정관 1명, 보급관 1명으로 구성된 인도군 60야전병원을 파병하였다. 이 병원은 인도군 공수사단 소속 부대로 공수작전도 가능한 부대였으므로 1951년 3월 23일 문산 공수작전 시에 미국 187공수연대 전투단과 함께 강하하여 187연대전투단을 지원하기도 했다.

60야전병원 전방지원팀은 영연방 28여단에 배속되어 영국군을 직접 지원했고, 후방 지원팀은 대구에 주둔하며 한국 육군병원 지원과 민간인 치료를 지원했다. 영연방 여단에 배속된 인도군 야전병원은 1951년 7월 28일에 영국군 28여단, 29여단, 캐나다 여단을 통합한 영연방 사단이 창설되자 그대로 사단 직할 야전병원으로 전환하여 임무를 수행하였다. 의료지원과 별도로 인도는 휴전 협정의 결과 포로송환감시단으로 인도군 연락단을 파견하여 포로 송환 업무를 지원했고, 1954년에 모두 철수하였다.

덴마크는 의료지원 5개국 중에서 3번째로 의료지원단을 파견하였다. 덴마크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100명의 인원과 함께 병원선(유틀란티아호)을 파견했는데

초기에는 부산항에 정박하였고 1952년 가을부터는 인천항에 정박하여 의료지원을 수행하였다.

덴마크 병원선은 의료진 교체와 보급품 확보를 위해 전쟁 중에 두 번 덴마크로 귀환했는데, 이때 유럽 각국에서 파견된 국가(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네덜란드, 터키,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기 전에 거치게 되는 에티오피아)들의 부상병들 및 송환된 포로를 함께 데리고 가기도 했다. 덴마크 병원선은 1953년 8월 16일에 한국을 떠났다.

노르웨이는 의료지원국 중 4번째로 의료진을 파견했다. 의무 및 행정요원 83명으로 구성된 60병상 규모의 야전 병원이었고, 나중에 106명으로 늘어났다. 1951년 6월 22일에 파견되어 동두천(봉암리)에 야전 병원을 설치하고 파견 기간 중 서부전선을 담당한 미 1군단(국군 1보병사단, 미 24보병사단, 미 1기병사단)을 지원했으며, 여유가 있으면 주변 민간인들도 치료했다. 병원 인력은 6개월마다 교체하였으며, 연 근무 인원은 623명이었다.

노르웨이 야전병원은 동두천 주민들과 각별한 관계에 있었는데 주민들도 의료 혜택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어려웠던 시절 병원에 취직하여 생계를 꾸렸던 시민들도 있어 그들의 고마움을 기리고자 동두천시는 소요동에 건립한 전쟁기념관 내에 별도로 노르웨이군의 의료 활동을 소개하며 기념하고 있다.

노르웨이 야전병원은 1954년 10월 18일에 철수, 귀국하였다.

이탈리아는 의료 지원국가 중 마지막으로 의료진을 파견하였는데 1951년 11월 16일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군의관 6명, 약제사 1명, 간호원 6명, 위생병 50명으로 150병상 규모의 야전병원을 개설하고 의료 지원 활동을 하다가 1955년 1월 2일에 철수하였다.

이외에도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많은 자유 우방 국가들이 물자지원 과 성원을 보내왔다.



1953년 12월 15일 1군 사령부 창설, 인제



1952년 9월 22일 한국군 장교 250명이 미 군사학교 유학

2) 주둔군 지위 협정과 방위조약

(1) 방위조약

1953년 2월 군사 분계선상에 대치하고 있는 남측과 북측의 전투력은 최고조에 도달해 있었는데 공산군 측은 중공군 642,000명과 인민군 225,000명 합계 867,000명이었고 유엔군은 264,000명과 국군 344,000명 합계 608,000명이었다.

지지부진하기는 하였으나 휴전회담이 조만간 성사될 것이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어서 쌍방 모두 중공군과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의 철수 이후에도 전력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미군은 미군과 유엔군의 철수 이후에도 휴전회담을 통하여 그들이 흘린 피가 헛되지 않도록 국군이 독자적으로 공산세력에 대항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휴전 회담 기간 중 곧 철수하게 될 유엔군과 미군의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추가로 한국군 10개 보병사단이 창설되었고 20개의 보병사단을 효과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5개 전투군단과 8군 사령부를 대체할 군사령부 창설이 계획되었다.

참전했던 1군단과 2군단 이외에 곧 철수할 미 10군단을 대체할 3군단을 강원도 관대리에서 창설하였고 미 9군단을 대체할 5군단도 철원에서 창설되었다. 빈약한 산탄포로 한국전쟁 초기에 고전했던 국군 포병도 미군들이 철수하면서 남겨주고 간 155mm 곡사포와 8인치 중포로 화력을 대폭 보강하였다. 새로운 미군의 무기체계를 원활하게 운용하고 전술교리를 배우기 위하여 젊은 장교들이 미군의 병과학교로 유학을 떠났다.

미군은 철군 이후의 한국군의 독자적인 방위능력을 위하여 미국식 군대편제에 의한 20개 국군 사단으로 증강시키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으나 이승만 대통령은 이러한 국군의 증강을 미군과 유엔군들의 철수를 위한 임시적인 방편이며 공산 측의 재도발을 유도하는 매우 위험하고도 무책임한 조치라고 생각하였다.

지난 3년간의 전쟁을 통하여 공산주의자들의 야욕과 북한과 중공의 전력을 인지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군과 유엔군이 철수한 이후 국군 단독으로 즉각 효율적으로 한반도를 방위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미군이 떠나간 이후 한반도 안보에 확신을 가질 수 없었으므로 어정쩡한 휴전을 결사적으로 반대하였다.

반공주의자들을 앞세워 휴전반대 데모를 전국적으로 계속하는 한편 국군 단독으로라도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의 외골수 고집은 미국을 곤란하게 만들었고 미국은 휴전을 방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한국군의 증강, 독자적인 방위능력을 갖출 때까지 무상 군사원조 제공과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에 동의하였다.

미국은 한국정부가 휴전을 동의하는 대신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2억 달러의 무상 경제 및 군사원조와 국군 20개 사단의 창설뿐만 아니라 한국군의 독자생존 능력의 보장을 상호 방위조약을 통하여 명문화하는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협정체결에 합의하였다.

1953년 10월 1일 대한민국 외무장관이 워싱턴으로 날아가 미 국무장관과 한국과 미국이 방위협정에 조인 서명을 하였고 양국 대통령의 추인을 받아 1954년 11월 18일 조약 제34호로 발효되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6개 조항으로 간결하게 작성되었는데 명백히 한반도 평화안정과 외세의 침략에 함께 대응한다는 결의와 의무를 표명하였고 제 4조에는 “상호 합의에 따라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 도서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락한다.” 라고 명시하였고 이 조항에 근거하여 미합중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토내에 주둔하는 조건을 상세하게 명시하는 주둔군지위협정(SOFA : Status of Forces Agreement)이 체결되었다.

한국에 주둔할 군단은 그동안 서울을 방어하기 위하여 서울 북방에서 싸워 왔던 1군단으로 결정되었고 미 9군단과 10군단 그리고 그 예하사단과 독립부대 그리고 배속부대들이 떠나갔다. 미 1군단은 사령부를 의정부에 위치하고 미 1기 병사단을 문산 지역에 배치하여 서울 북방을 방어케 하였고 미 7사단을 동두천과



1954년 11월 18일 한미방위협정 조인

운천 지역에 배치하여 3년 전 북한이 주공으로 남침을 시도했던 철원 북방을 방어케 하였다.

(2) 주둔군지위협정

1950년 7월 12일 후퇴를 하던 때 미군이 참전을 결정하고 부대가 한반도로 상륙하던 시기에 미국은 한국정부에 미군의 법적 지위 보장을 요청하였고 이승만 대통령은 바로 그날 지체없이 이를 승인 하는 문서에 서명하였다. 이른바 대전협정이 그것이었다.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운 순간에 구원병으로 상륙한 미군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왈가왈부할 상황이 아니었던 때문이었다.

내용의 주요 골자는 미국 군법회의가 주한미군 구성원에 대하여 형사 관할권을 행사하며 한국인이 미군 또는 그 구성원에게 피해를 가했을 경우 한국인을 구속할 수 있다는 것과 주한미군은 미군 이외의 기관에게도 구속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독자적인 재판권과 한국인 범법자의 구속권한까지 인정한 대전협정은 1945년 군정시기의 법적 지위와 권한에 버금가는 것이어서 휴전 이후 군정부대가 아닌 전투부대의 주둔시기에 주둔 군인들과 한국인 사이에 마찰이 발생할 때마다 일방적으로 한국인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1954년도에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둔군의 지위에 대한 구체적 조항이나 주민들과의 마찰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즉각 마련되지 못했다. 이 역시 위협적인 공산 군대를 코앞에 두고 끝나지 않은 전쟁을 미룬 채 미군들이 떠나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팽배하던 때 한국을 버리지 않고 계속 보호하며 자주국방이 이루어질 때까지 군사원조를 계속하며 전후 복구와 경제재건을 돕기 위한 경제 원조를 약속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어렵사리 체결하는 자리에서 주둔군의 지위를 자국민과 대등하게 만들기 위해 협상의 줄다리기를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정부 관리들은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직후 바로 행정 협정의 초안을

만들고 미국에게 비준을 제안하였으나 미국의 반응은 여러 이유로 소극적이었다. 한미상호방위협정은 공산군의 도발이 재발할 시 미군과 유엔군이 자동으로 개입하도록 문서화함으로써 획기적으로 한반도 안보와 안정에 기여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나 반면에 향후 한반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유엔군이 철수할 때까지 외국군들의 주둔에 따른 불편함을 감수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었던 데다 일방적으로 군사원조와 경제지원을 받는 약자의 입장에서 평등한 권리를 명시하는 행정협정을 이끌어 내기도 쉽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우려했던 대로 크고 작은 사건들이 터지기 시작하였다. 1957년에 양주에서 피엑스 물품을 운반 중이던 열차에 강도사건이 발생하는 와중에 한국인이 미군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듬해에는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종업원과 기지 근처의 주민들이 미군들이 세워놓은 규정을 위반하거나 물건을 훔치다가 들켜 매를 맞거나 가혹행위를 당하는 사건이 연이어 터졌다. 술집 여종업원이 말을 듣지 않거나 서비스가 나쁘다고 매를 맞거나 삭발을 당하는 등 보고되지 않은 가혹행위도 반복되었다. 한국정부도 이를 모르는 바가 아니어서 지속적으로 행정협정의 교환을 끈질기게 요구하였는바 미국의 소극적인 태도와 국내에서 발생한 군사혁명의 혼란기 때문에 지연되던 협정이 1966년 7월에 가서야 합의 서명되었다. 이것이 바로 주둔군지위협정(SOFA : 소파라고 부름)이다.

SOFA, 즉 주둔군지위협정은 제1조에는 본 협정에 적용대상이 되는 미군, 미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였고 제2, 3, 4조에는 미군이 사용하는 토지와 시설의 수용, 사용기간 중 설치할 보안조치 그리고 토지와 시설의 반환조건들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5조에는 미군 시설과 토지의 사용 경비의 분담조건을 명시하고 제6조는 군대의 주둔에 따라 필요한 공익사업과 용역의 이용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7조에는 주둔군과 그 가족들은 대한민국의 법령을 존중하고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제8, 9, 10, 11조에 출입국 사무, 통관과 관세문제, 선박과 항공기 출입관계, 기상 업무를 명시하고 있고 제12, 13, 14, 15, 16조에 항공 교통관계, 현지수입자금 운용, 과세, 초청 계약자 관계, 물품 현지조달 조건들을 명시하였고 제17조에는 노무지원 조건을 명시하고 별도의 한국인 노무단 운영 세부

각서를 만들어 두고 있는데 이는 한국전쟁 시 노무단의 활약과 그 중요성에 거는 미 8군의 기대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제18, 19, 20, 21조에는 외환관리, 군표관리, 군사우체국, 회계절차를 각각 설명하고 있으며 제21, 22조에는 자국민의 기본 권리를 침해당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사회문제로서 말썽이 끊이지 않는 형사재판권 조건과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 조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이 역시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합의 또는 직접 재판을 통한 해결을 이루지 않고 국가 대 국가 간의 단일 창구를 이용한 협상방식을 통하여 처리함으로써 시일이 오래 걸리고 자국민에게 불리한 결론에 도달하기 다반사여서 오랫동안 사회적인 불만이 쌓여 불합리한 협정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제24, 25, 26, 27조는 차량과 운전면허, 보안조치, 보건과 위생, 현지에서 예비역으로 편입된 미국 시민의 체류조건을 명시하였고 마지막 제28조에 상기 협정 보안을 위한 합동위원회 설치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둔군지위협정은 다분히 주둔군의 편익에 맞추어 만들어졌고 주둔 군인들과 군속들이 법령을 위반하여도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없어 많은 불평등 사례를 남기게 되었고 한국 국민들의 피해와 불만사례가 끊이지 않아 몇 차례 협정내용이 개정되었으나 한국 국민들의 견해에 비추어볼 때 여전히 불평등한 협정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휴전 직후 전 국민들이 살아남아야 하는 생존의 문제 때문에 허우적대던 시절에 그래도 미군부대 주변에서 살아야 굶어죽지 않고 얼어 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지촌 주변으로 몰려들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미군 주둔군지위협정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왔다.

주둔군지위협정은 미군, 미 군속과 그 가족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이 영향의 강도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능가하리만큼 강하게 영향을 끼쳤는데 상대적으로 풍부한 물자와 경제력을 행사하는 미국과 미군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거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우리에게는 대한민국의 헌법보다 SOFA규정을 더 잘 알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

주둔군지위협정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대등한 국가 대 국가, 국민 대 국민으로서 협정이 만들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국가와 도움을 받는 국가 간에 교환한 “주둔군 지위협정서”는 다분히 주둔군대의 편의와 이익에 부합되도록 주관적이고 불공평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특히 1970년대 이후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한국의 경제 성장이 궤도에 오름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자산가치가 상승하면서 미군들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및 그 주변에서 자국 국민들과 이해관계가 얽힌 마찰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SOFA는 국민들 사이에서 자주 등장하는 불편한 단어가 되었다.

국민들의 불편과 불공정한 협정의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강해지자 1991년 제1차 주둔군지위협정을 개정하게 되었는데 가장 문제가 되었던 형사재판 관할권 주장,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의 노동여건 개선, 미군 피엑스를 통한 시장경제 교란과 탈세 차단, 불필요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점용지의 반환 근거 마련 등이 주요 변경 내용이었으나 이후에도 국민들은 여전히 이것이 평등한 협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제2차 협정 개정은 2001년 1월에 합의 시행되었는데 동두천 윤금이 씨 살해사건의 불씨가 되어 기지 주변의 한국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미군들의 범죄를 더 이상 비호하지 말고 적법하게 처벌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줄이자는 목적으로 개정되어 살인, 강간 등 12개 중요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 행사와 환경보호법 적용,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보호와 불용지 반환에 대한 협의 의무 부과 등을 내용으로 보다 평등한 협정이 되도록 진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2002년 6월 두 여중생이 양주군 북방에서 훈련 복귀중인 미군 차량에 의해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예민해진 민심은 이를 단순 교통사고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둔국가 국민의 인명을 경시한다는 국민적 분노를 폭발시켰다. 현재 미군의 훈련일정과 이동경로를 지역 행정기관과 협조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사용 중인 주둔지의 환경보호 감시제도 적용과 범죄 초동수사의 유기적 협조 의무를 포함한 추가적인 개정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3) 미 1군단 주둔기 (1953. 7. - 1971. 4.)

(1) 의정부, 파주, 문산



미 1군단은 제2차 세계대전 중 태평양전투에 투입되었던 공격형 전투군단으로서 종전과 함께 일본의 점령군으로 주둔하다가 기능이 다하여 1950년 봄에 해체되었으나 한국전쟁 중 인천 상륙 작전이 계획되고 시행될 무렵 낙동강전선에서 반격을 위한 기동군단으로서 필요성이 대두되어 1950년 8월 2일 제5군단이 있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포트브래그에서 긴급 재창설되어 한국전선에 투입되었다.

1군단은 낙동강전선을 박차고 반격에 가담한 선봉 기동군단으로서 한국 전쟁에 참전한 이래 평양 함락과 북진을 주도하였고 중공군의 기습적인 반격에 고전하며 후퇴하기도 하였으나 서부전선에서 재반격에 성공하여 서울을 탈환하고 서부전선의 크고 작은 전투를 지휘하며 미군의 주력 사령부로서 3년여 전쟁을 치른 후 휴전을 맞이하였다.

한국전쟁을 지휘했던 미 8군사령부는 1954년 11월 20일 임무가 종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일본의 캠프 자마로 철수하여 극동군사령부와 통합하였다가 제6대 8군사령관이 지상군 사령관을 겸직하면서 이듬해 7월 용산으로 다시 복귀하였고 일본 내 주일 미군의 감축 여론에 의해 주일 미 지상군은 새로이 하와이에 창설된 태평양육군사령부 예하로 배속 변경, 이동하고 극동군사령부는 해체됨에 따라 1957년 7월 1일 새로 부임한 제7대 주한미군사령관은 제 8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을 겸직하며 용산에 주둔하고 있다.

휴전협정이 조인되자 참전했던 대부분의 유엔군 부대들이 철수하기 시작하였고 한국군 사단의 증·창설을 도우며 전선에 머물던 미군들도 철수를 시작하였다.

동부전선의 관대리에서 한국군 3군단을 창설하여 미 10군단 지역을 인수케

하는 동안 주 방위군으로 동원되어 참전했던 40사단과 45사단이 1954년 무렵 모두 철수하였고 중부전선의 철원 지역에서 한국군 5군단이 창설되어 미 9군단 지역을 인수케 하는 동안 미 2사단과 미 3사단이 철원 지역에서 같은 시기에 모두 철수하였고 초기부터 참전하여 싸웠던 미 25사단도 이 시기에 철수하였다.

서부전선의 미 1군단도 부대 편성과 배치의 재조정이 있었는데 예하의 미 해병 1사단이 휴전 조인 직후 창설된 한국 해병 1여단에 임무를 인계하고 철수를 개시하였고 영국군 1사단도 1953년 말에 철수를 시작하였으며 그 빈자리에 미 7사단과 일본에서 다시 돌아온 미 24사단이 배치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약체였던 국군의 독자적인 방위능력이 갖춰질 때까지 서부전선을 담당하던 미 1군단을 당분간 주둔시키기로 결정하였다. 미 1군단은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에 군단사령부를 설치하고 미 24사단을 파주-문산 축선에 미 7사단을 동두천과 운천 축선에 배치하는 한편, 군단 포병들은 백의리 일대에 전진 배치시켜 철원 축선의 도발에 화력으로 대비하였다.

의정부, 동두천, 파주 지역에 주력 지상군 부대들이 주둔하였고 춘천과 원주 지역에 항공부대와 지원부대들이 주둔하면서 군단사령부와 직할 예속 배속부대들이 철근한 1971년까지 주둔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전후 파괴된 교량과 도로 복구에 요긴하게 운용될 미 1군단 공병대는 의정부 캠프 스탠리에 위치하여 도로 개발 및 복구, 학교 및 고아원시설 건설, 도시재건 및 복구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정부, 동두천, 문산 지역에 많은 공공시설, 도로 복지시설 건설과 재건에 많은 힘이 되어주었다. 1957년 10월 미 24사단은 현지에서 미 1기병사단과 부대기 및 부대 패치 교환의 방식으로 인수인계를 마치고 철수하였고 미 24사단의 빈 자리에는 일본에서 다시 돌아온 미 1기병사단이 임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미 1기병사단은 1965년 여름 미국으로부터 재소집되어 한국으로 온 미 2사단과 임무를 교대하고 월남 전선으로 투입되었고 한국전쟁 초기부터 격렬한 전쟁의 고통을 겪으며 함께 싸워왔던 미 2사단은 1965년 여름 파주-문산

축선에 투입되어 사령부를 봉일천에 위치한 캠프 하우스에 주둔시키고 판문점과 군사분계선을 포함한 서부전선의 중심을 지켜 오면서 파주와 문산지역의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미 2사단은 6년여 동안 파주와 문산 지역에 주둔하면서 도로 및 교량건설, 전쟁고아 및 미망인 지원을 위한 활동 등 지역재건에 많은 도움을 주어왔으나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유흥문화를 확산시켜 유교적 관습에 엄격했던 주민들의 빈축을 사기도 하였다.

1970년 월남전이 한창 절정에 이르던 시기에 미국은 미국이 세계경제와 안보를 모두 책임질 수 없으며 아시아와 중남미 국가들도 스스로 자주국방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였다. 주한미군사령부가 미 1군단 직할부대와 중부전선의 미 7사단의 철수를 발표함에 따라 제2차 감축과 철수가 시작되었고 미 지상군 전력은 향후 미 2사단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2) 미 7사단과 동두천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동두천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이담면, 아니 옛 동두천 주민들은 1950년 6월 25일부터 그해 9월 말까지 북한 주민으로서 또 그해 9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남한 주민으로, 다시 1951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북한의 주민으로 살았고 그해 4월 이후부터 다시 남한의 주민으로서 신분이 뒤바뀌는 기구한 삶을 살아왔다.

동두천 주민들은 수시로 정부가 바뀌는 국경선 일대의 주민으로서 북이나 남이나 어느 쪽의 편도 들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농사를 지으며 살게 내버려 두기만 바랄 뿐이었다. 전쟁이 발발한 이래 처음 1년간은 뺏고 빼앗기는 기동전투가 반복되어 동두천이 북한 땅이 되었다가 남한 땅이 되기를 반복한 끝에 다시 원래대로 남한의 접경마을로 자리를 잡았고 이후 약 2년여 간

반복되는 지루하고 힘든 지역전투와 고지전투를 수행하는 동안 주둔해 온 많은 군대의 외국인군인들과 뒤엉켜 사는 원치 않는 변화를 겪게 되었다.

더구나 주둔해 온 군부대는 한국군이 아닌 미국군대를 포함하여 들어보지도 못한 먼 외국의 군인들이 주둔하면서 주민들에게 정체성과 가치관의 혼란도 함께 가져왔다. 미군 7사단, 3사단, 2사단이 주둔했다가 이동하였고 유엔군의 일원으로 에티오피아군, 필리핀군, 벨기에군, 태국군, 영국군이 동두천에 머물거나 작전 임무를 위해 이동해 왔다가 떠나갔다. 진지가 고착되어 방어전 양상을 띠게 되자 장기 주둔에 대비하는 부대들이 문산, 파주, 덕정, 동두천, 연천, 운천 일대에 주둔 캠프를 설치하기 시작하였는데 보급열차가 가깝게 통과하는 문산과 동두천 일대에 부대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였다. 이는 군사 시설들이 몰자 보급이 용이한 기차역 일대에 주둔 캠프를 설치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3년간의 전쟁으로 전 국토가 피폐해지고 국민들이 굶주림과 힘든 생활고에 지쳐가는 동안 정의를 위해 먼 한국 땅까지 이동해와 참전했던 미군과 유엔군들도 지쳐갔고 북한과 중국군도 마찬가지였다. 1953년 7월 27일 승자도 패자도 없는 휴전이 조인되었고 참전 16개국 유엔군과 5개 의료지원국들이 차례로 귀국하였다.

떠나가는 유엔군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남한의 국군은 미군의 도움으로 전력을 증강하여 5개 군단 사령부와 20개의 사단 규모로 증강되었으며 북한도 소련과 중공의 도움으로 전력을 증강하고 있었다.

미 7사단은 한국과 가장 질긴 인연을 가진 사단이었다.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하여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며 일본으로 진격하던 미 육군 24군단과 예하 7사단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하자 방향을 바꾸어 1945년 9월 7일 인천에 상륙하여 서울역과 남대문 앞을 행진하여 조선총독부를 접수하고 항복을 받아내는 역할을 수행하여 한국과 인연을 맺었다.

미 7사단은 한국 내 군정통치부대로 주둔하며 해방 직후 격동의 현장에 함께 있었으며 1948년 12월 31일 군정이 종식되고 미군 철수가 결정되자 주일 미 8군

예하의 부대로서 일본 홋카이도로 이동하였으나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낙동강 전선이 돌아오르던 8월에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전준비를 하였고 9월 18일 두 번째로 인천에 상륙하여 복진과 후퇴를 거듭한 끝에 휴전을 맞이하였다.

미 7사단은 휴전이 발효되자 중부전선에서 전선 부대배치 조정을 거쳐 동두천 캠프 케이시에 사령부를 설치하고 철원 축선을 방어하는 주력부대로 배치되었다.



한국전쟁 직후 미 육군은 한국전쟁 경험에 의거 비정규전 방식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공산군과 전투에 2차 대전시 사단 전투 편제가 적합하지 못하다고 결론짓고 전술 핵탄을 운용할 수 있는 사단 편제를 도입하여 1958년 무렵 한국에 주둔한 7사단에 처음으로 적용하였는데 이것이 팬토믹 사단이었다.

이 사단은 연대나 대대가 없는 대신 5개의 전투단(Battle Group)으로 구성되었고 각각의 전투단은 증강된 대대 규모의 부대였으며, 예하에 5개의 소총중대를 두고, 별도로 1개의 4.2인치 박격포 중대를 두는 등 경량화하여 핵전쟁 시 공중수송수단을 통해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부대규모를 축소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팬토믹 사단의 포병부대는 공중수송에 방해가 되는 155밀리 포병대대를 제외시키고 5개의 105밀리 포병대대로 구성되었으며, 전술핵무기의 발사가 가능했던 어네스트 존 로켓중대를 사단 내에 편성하였고 병력도 사단 병력 17,455명에서 13,750명으로 축소하여 경량화하였다.

팬토믹사단은 전술핵탄을 운용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 이외에 사단의 기능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이 인지되어 1962년 무렵 편제계획을 백지화하고 ROAD(Reorganization Objective Army Division) 사단개념을 도입하였는데 육군의 사단을 보병사단, 기계화보병사단, 기갑사단, 공수사단의

4가지 형태로 편성하고 사단 예하에 연대 대신 여단 편제를 도입하여 주어진 임무에 맞게 사단 형태를 쉽게 재편성할 수 있도록 융통성이 주어졌다.

그러나 미 육군이 팬톰사단 편제를 포기하고 ROAD사단개념을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는 전술핵탄을 이용한 전쟁 억제기능은 중요하게 인식되어 한동안 이 기능을 유지시켰고 7사단 포병대 앞에 세워놓은 어네스트 존의 모형은 핵탄 사격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상징으로서 모두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였다.

1960년대 후반에 미국은 전술 핵탄두의 소형화에 진전을 이루어 155밀리 야포와 8인치 야포로도 전술핵탄을 사격할 수 있게 되자 미군과 한국군 포병 155밀리급 이상 야포부대는 전술 핵탄두 발사연습을 하면서 기세를 올리기도 하였다.

7사단은 동두천 캠프 케이시에 사령부를 두고 연천, 백의리, 운천 일대에 여단 및 예하부대를 배치하고 중부전선의 핵심전력으로 임무를 수행하였다.

닉슨독트린에 의거 주한미군 감축이 결정되자 운천에 위치한 캠프 카이저의 미 7사단 예하 1여단이 한국인 직원의 감원을 통보하고 철수를 시작하였고 그때까지 운천에 함께 주둔해 있던 태국군 중대도 철수를 준비하였다.

운천 지역에서만 천여 명의 한국인 직원들이 감원통보를 받았고 캠프 카이저, 캠프 비버 등 28개의 미 1군단과 미 7사단 캠프들이 한국 정부에 반환을 통보하였다. 오천만 평이 넘는 묶인 땅들이 한국정부로 반환되었고 1970년 10월 16일 성조지는 주한미군의 숫자가 64,000명에서 52,000명으로 감소하였다고 보도하였고 주한미군의 숫자는 미 7사단이 완전히 철수하는 1971년까지 계속 감소하였다.

1971년 3월 27일 대부분의 부대를 철수시키고 잔류 지휘부 30여 명이 참가해 용산의 나이트필드 연병장에서 상징적인 이한 행사를 시행하였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참가해 직접 대통령 부대표창을 수여하며 7사단의 노고와 공적에 국민을 대표하여 진심을 담아 감사하였다.

1945년 이래 인천에 두 번 상륙하였고 동해 이원으로도 상륙, 북진에 참가하여 해산진까지 진격했던 부대, 철의 삼각지대 편치불, 올드 발디, 폭잡힐 전투 등 격전지를 두루 참전하여 한국전쟁 805일간 15,126명의 희생을 치른 부대, 이승만 대통령이 특히 미 7사단에 애정을 표시하여 아리랑을 부대가로 사용토록 허가했던 부대, 휴전 이후에도 동두천과 연천, 운천 일대에 주둔하면서 한국인들과 끈끈한 정을 쌓았고 군사원조 자금 299,000달러를 전환하여 동두천 일대의 댐, 교량, 고아원 등 26개 시설 건축, 8개 의료시설, 99개 학교 교실을 지어주었으며 8개 고아원에 철군할 때까지 15년간 54만 달러어치의 지원과 헌혈과 봉사를 해 왔으며 홍수와 가뭄시에 공병장비와 급수차를 동원하여 복구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고락을 함께 해 온 부대, 아리랑사단은 이렇게 철군하였다.

(3) 동두천과 외국군

7사단 주둔기의 동두천은 7사단만큼이나 굴곡도 많았고 애환도 많았다.

동두천 동안역 주변에 미 보병 7사단이 주둔하기 시작한 이래 급격히 인구가 증가하여 인구밀집 부락을 형성하기 시작하였고 1963년 1월 1일자로 이담면이 동두천읍으로 승격되었다.

휴전이 성립되고 피난을 떠났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폐허가 되다시피한 마을을 재건하고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며 자리를 잡아가는 동안 돌아갈 고향이 휴전선에 가로막혀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동두천에 임시로 머물렀다. 북에서 남하했던 실향민이 그들이었다. 그들은 부산과 서울에서 떠돌았고 많은 사람들이 휴전선이 풀리면 서둘러 고향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하면서 고향으로 가는 길목의 마을 근처에 임시로 터를 잡았다.

3년 전쟁의 후유증은 12만 명의 전쟁 불구자와 이들을 돌보아야 하는 아내들을 길거리로 내몰았고 6만5천 명의 과부들과 4만 명의 전쟁고아를 양산하였다. 춥고 배고픈 고통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들도 동두천으로 몰려들었다.

한국전쟁이 터지기 전에는 인구 3천여의 조용하고 평화롭던 농촌마을 이담면과 동두천 주변에 미군 캠프가 설치되면서 외지인들이 몰려들며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는데 이를 보면서 미군들은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금맥이 발견되던 서부개척시대의 마을을 보는 것 같다고 말하곤 하였다.

기지촌 주변에는 제일 먼저 술집과 유흥가가 들어섰고 주둔 군인들과 주민들은 서로가 필요한 것을 교환하였는데 미군들은 서부개척시대의 황금 대신에 달러와 같은 화폐기능을 가진 군표를 사용하여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풍부한 물자를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한국인들은 그들이 원하는 모든 서비스, 심부름, 오락거리를 제공하였다.

1953년 무렵부터 동두천 신천을 바라보는 언덕과 골짜기에 대형 군용천막(24인용이라고도 불림)이 임시 주둔지용으로 설치되었으나 곧 이전해 갈 줄 알았던 천막의 숫자는 점점 늘어났고 1955년 전후하여 장기주둔을 위한 콘셋형 막사로 대체되어 건설되었다.

동두천에 미 7사단 부대들과 7사단에 배속된 태국군 대대가 장기 주둔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 기지 주변에는 고향을 잃은 실향민과 굶주리고 허약한 전쟁 희생자들이 몰려들었다. 동두천의 낮과 밤은 서로 다른 두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낮에는 전형적인 군사기지와 농촌마을로 각자 훈련과 농사일에 전념하며 평화를 유지하였고 동두천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3번 국도는 미군부대 안내 표지와 영어로 된 간판들이 많아졌다는 것이 전과 다를 뿐이었다.

한국전쟁이 동두천에 끼친 많은 영향 중에 하나는 가장 짧은 시간에 초청되지도 않은 많은 외국인들이 밀려 들어왔다가 떠나간 사실이다. 우리는 동두천을 미군들이 함께 머무는 군사도시쯤으로 알고 있지만 동두천에는 많은 외국인과 외국 군인들이 짧게는 몇 달, 길게는 수십 년을 머물다 떠나갔다.

1945년 8월 7일 일본이 항복하기도 전에 소련군은 패전으로 무너져가는 조선 주둔 관동군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였고 한소국경을 넘어 남진을 거듭한 끝에 8월 말경에는 소련군이 동두천 일대까지 전진하였고 9월 8일 미군이 인천을 통해 상륙한 이후 소련군이 초성리 이북으로 물러가고 초성리역 주변에 미 7사단 예하의 군정 중대원들이 부대 주둔지를 설치하면서 미군은 두 번째로 동두천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게 된 외국인이 되었다.

이들도 1948년이 저물면서 모두 철수하였고 1950년 여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남침을 불법으로 규정하였고 16개 국가가 불의를 응징하기 위하여 파병을 결정하였고 더 많은 나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전란에 휩싸인 대한민국을 돕겠다고 나서게 되었다.

세 번째로 동두천에 나타난 외국인은 중공군이었다. 예상치 못한 중공군의 역습에 밀려 철수하던 국군 1사단이 문산과 적성 지역을 방어하면서 철수 중에 있었고 국군 6사단은 전곡에서 동두천 방향으로 지연전을 수행하면서 철수 중이었다.

1950년 12월 31일 밤, 중공군 40군 예하 117사단이 국군 1사단과 6사단의 틈을 돌파하여 동두천 서측 안흥리와 상패리로 밀려들었고 중공군들은 지체 없이 남쪽으로 전진을 계속하여 1월 3일에는 서울을 점령하여 많은 시민들이 또 다시 한겨울에 피난 보따리를 싸서 집을 나서야 했다. 이른바 1·4후퇴였다.

37도선까지 깊숙이 남쪽으로 치고 내려갔던 중공군은 보급의 제한 때문에 전력이 급속히 약화된 데다가 미 8군의 신속한 반격작전에 힘입어 1951년 3월 14일 중공군들이 서울을 포기하고 철수한 데 이어 4월 초에는 개성 지역을 제외하고 잃었던 38선 이남의 영토를 대부분 회복하였고 중공군은 전곡 방향으로 물러갔다.

38선 일대에서 중공군이 1951년 4, 5월에 시도한 제2차 춘계 공세(중공군은 5차 전역으로 부름)시 동두천 일대에는 미 9군단 예하 미 1기병사단, 미 24사단이 국군 6사단과 함께 주둔하면서 중공군 39군, 40군과 대치하였고 미 7사단과 국군 2사단이 예비로 주둔하면서 중공군의 포위돌파를 시도한 공세를 막아내었다.

1951년 여름이 다가오면서 전선은 고착상태에 빠지고 소모적 전투가 반복되면서 휴전회담이 시작되었고 전투는 휴전회담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과 곧 다가올 휴전 이후에 장기적으로 방어에 유리한 지형을 선점하려는 전술적 요구에

따라 이루어졌다.

미군은 서부전선에 1군단, 중부전선에 9군단, 동부전선에 10군단을 배치하여 제한된 국지 기동전투와 고지쟁탈전을 계속하였는데 예하 사단은 수시로 순환시켜 휴식과 무기 교체 및 정비를 수행하였다. 또한 험준한 산악지역에서 전투 중인 사단을 서부지역 저지대 방어임무를 수행하던 사단과 정기적으로 교대시키면서 작전임무를 수행함에 따라 동두천은 예비부대 집결지 역할을 수행하면서 많은 외국 군인들이 동두천에 머물다 떠나갔다.

벨기에·룩셈부르크 대대는 영국군 29여단에 배속되어 미 3사단 작전 통제를 받으며 싸워왔는데 1951년 4월경에는 동두천 지역으로 이동하여 주로 동두천 서측 임진강 전투에서 싸웠다.

캐나다 대대도 미 3사단, 25사단, 1기병사단의 작전을 받으며 의정부-포천-운천 축선을 전진하며 싸우다가 1951년 7월 덕정에서 영국 연방 1사단의 편제연대로 임진강, 사미천 등 서부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필리핀 대대는 미 3사단 65연대에 배속되어 임무를 수행하면서 1951년 4월 동두천에 잠시 주둔하기도 하였다.

태국군은 1951년 말부터 미 2사단 9연대에 배속되어 임무를 수행하던 중 이듬해 여름에 동두천으로 이동하여 주둔하였고 1953년 이후 미 7사단 예하 여단에 배속되어 운천에 주둔하였다. 1953년 초 영국연방 1사단의 예하부대로 임진강변에서 방어전을 수행하던 오스트레일리아군 대대가 미 2사단과 교대 후 미 1군단 예비부대로서 캠프 케이시로 이동하여 2개월간 정비, 휴식과 캠프 건설에 참여하였다.

프랑스군 대대도 1953년 4월경에는 1군단의 예비가 된 미 2사단 23연대를 따라 동두천 캠프 케이시로 이동하여 정비, 휴식과 캠프 공사에 참여하였다.

그리스군 대대도 미 3사단에 배속되어 연천, 임진강 서안 등 서부전선에서 전투에 참가하면서 1952년 7월에는 동두천에 주둔하면서 휴식과 부대정비를 하기도 하였다.

네덜란드군 대대도 미 2사단 38연대에 배속되어 임무를 수행하면서 1952년 12월말 1군단 예비로 캠프 케이시로 이동하여 휴식과 부대정비를 하기도 하였다.

미군 사단들도 동두천과 인연이 많아 1952년이 저물어갈 무렵에 미 45사단이, 1953년 초 미 해병 1사단이 잠시 머물렀으며 미 2사단, 3사단, 7사단, 25사단이 머물다가 이동해 갔다.

비록 파병은 하지 않았으나 동두천과 각별한 인연을 맺은 나라가 노르웨이 였는데 1951년 6월 22일 의무 및 행정요원 83명으로 구성된 60병상 규모의 야전 병원단을 파견하여 동두천에 야전병원을 개설하고 파견 기간 중 대부분을 미 1군단(미 24 보병 사단, 미 1 기병사단)을 지원했으며, 동두천 주민들을 위한 의료 지원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전쟁의 상처와 재건



1954년 한국인을 돕는 뉴욕 모금회. 밴플리트 장군은 퇴역 후에도 한국을 지원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미군이 한국인 지역사회를 위하여 제공한 소방차

〈미 1군단과 의정부〉



미군과 고아 소녀



1968년 동두천 북방 38선 지역에는 미 8군과 미 1군단의 부대마크가 새겨진 이정표가 세워져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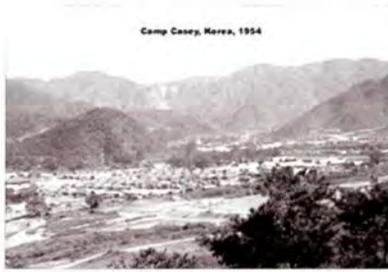


조용한 시골마을에도 미군들을 상대하는 상점들이 줄지어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미 1군단과 동두천〉



1954년 의정부 미군을 상대로 한 상점 간판이 이채롭다.



1954년 휴전 직후 보산동 일대에는 미군의 텐트촌이 건설되었다. 캠프 케이시 초기 모습



1960년 초 태국군 캠프. 동두천. 태국군이 운천으로 이동 후 이곳에 캠프 캐슬이 건설되었다.



1960년 동두천. 미 7사단의 부대표지가 서있다.



1967년 캠프 케이시. 영성한 부대 울타리와 벌거벗은 산들이 여전히 음울해 보인다.



1955년 동두천 캠프 케이시. 기차역이 가까운 3번 국도변에 천막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임시로 주둔하던 미군들이 소요산 아래 본격적으로 반 영구적인 콘크리트와 시설들을 짓기 시작하였다.



1969년 동두천 캠프 케이시. 미 7사단 포병 주둔지



1967년 동두천. 미 7사단 사령부 정무



1964년 캠프 케이시, 동두천 여름 화재로 소실된
하사란 클럽



동두천감리교회



초가집과 토담으로 만들어진 농가



동두천극장



안흥보육원



해성고아원(현 어린 목자의 집)



동성교회



1969년 동두천, 보산동, 경원선 철도



1960년대 말, 동두천 보산동 풍경, 3번 국도



1969년 동두천 캠프 케이시, 미 7사단 정문 앞 3번 국도



1955년 동두천, 동두천 장터 한쪽에 자연스레 미군들을 겨냥한 고정상가가 생겨났다.



동두천을 1958년



동두천 읍내 1960년대 초기



한국전쟁 이후 보산동 뚝방 철길



1960년대 보산동 골목길, 주민들과 섞여 미군들이 자연스럽게 왕래하고 있다.



1960년 초 미 7사단 사령부가 들어선 캠프 케이시 앞길에는 영문으로 간판을 세운 상점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보산동 골목길



1960년대 초 의정부와 동두천을 잇는 비포장 3번 국도



1960년대 초 동두천 읍내



동두천 보산동, 뚝방 위로 열차가 지나가고 있다.



동두천 보산동, 노점상 리어카에는 온갖 미제 잡동사니 물품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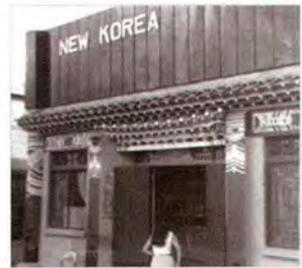


동두천 보산동, 미군 병영과 마을이 공존하는 곳이다.

1970-1980년대 보산동 자화상

낮선 미국식 술집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던 보산동 골목은 어렵고 힘든 시절 우리가 생존할 수 있었던 중요한 외화수입의 창구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풍경은 보산동 뿐만 아니라 광암동, 덕골, 삼거리 등 미군들이 출입하는 거의 모든 곳에 퍼져 있었다.



1960-1970년대 동두천에서 유통되던 미군 군표



1990-2000년대 보산동 자화상

대한민국이 경제성장을 거듭하면서 미군들을 상대하는 거리의 모습도 변하였다. 미 7사단이 철수하고 미 2사단 사령부가 의정부로 이동하면서 술집의 숫자는 현격히 줄어들었고 한국 여성 종업원들이 떠난 자리에 동남아시아계 여성들이 유입되었다.



4) 미 2사단과 동두천

(1) 미 1군단 철군 후 주둔 1기 (1971.4.-1993.6.)



미 2사단은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모두 겪으며 오랜 전통을 가진 사단으로서 사단 전투서열도 매우 높아 자부심이 대단한 사단이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소집명령을 받은 2사단은 미 워싱턴주 포트루이스에서 출정하여 긴 항해 끝에 1950년 8월 초 부산에 상륙하여 전선에 투입되었으며 낙동강 방어전투와 북진에 참가하였고 청천강 북방 군우리에서 중공군에게 포위되어 심대한 피해를 입는 고통과 이듬해 반격전투 시 지평리에서 통쾌한 복수전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2년 이상 지속된 한국전쟁 시에 피의 능선, 단장의 능선, 펀치볼 전투 등 언제나 격전의 현장에 있었으며 한반도 방위를 위하여 많은 피를 흘렸다.

휴전이 선포되자 한동안 중부전선을 지키던 미 2사단은 1954년 9월 미국으로 철수하였으나 1기병사단을 대신하여 1965년 여름에 다시 한국에 배치되어 파주-문산 축선을 지켜왔다.

1971년 미 1군단과 미 7사단이 철수하자 한국에는 미 8군 지휘부와 미 2사단만 남게 되었고 미 2사단은 판문점을 제외한 서부전선의 군사분계선 책임지역을 국군 1사단에게 인계하고 반격부대로서 작전지역 중앙에 재배치되었다.

사단사령부를 미 7사단 사령부가 위치하던 동두천 캠프 케이시로 이전하고 1, 2여단과 직할부대를 캠프 케이시와 캠프 호비 지역으로 재배치하였고 3여단은 사단사령부가 위치하던 봉일천의 캠프 하우스에 잔류시켰으며 포병여단과 항공대는 미 1군단 공병여단이 위치하던 의정부의 캠프 스탠리에 재배치하였다.

유도탄 사령부가 주둔하던 춘천의 캠프 페이지에는 미 2사단 항공대대가 재배치되어 주둔하였다.

이제 주한미군은 곧 미 2사단이라고 인식될 정도로 미 2사단은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며 한반도에서 대북 전쟁억제를 위한 유일한 지상군 전력이었다. 한국군 사단들이 교육 훈련과 무기체계, 전술 훈련을 따라 배우는 모델이 되었다. 동두천으로 사령부를 옮긴 이후 미 2사단은 지역 방어임무에서 해제되어 작전중심 반격부대로서 부대를 개편하였다.

미 육군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헬리콥터와 전차의 기능이 향상되고 신속 기동의 수요가 증대되면서 Army86이라는 육군 사단 현대화 작업을 전개하여 사단들을 중사단, 경사단, 기갑사단, 공정사단 등으로 특성에 맞게 변화시켰고 1991년 1차 이라크전쟁을 통하여 경량화한 여단단위 전투단 운용의 효율성을 시험하였다. 이에 따라 미 2사단은 한반도에서 수행하는 전투양상에 맞도록 사단의 편제 개조작업을 시행하였는데 기존의 보병사단과 다르게 항공여단, 군수지원 여단, 공병여단을 사단에 편제하여 군단급 이상 제대에서 수행하던 독립작전을 사단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만들었다.

제5전술공군의 근접 항공지원이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통신 체계 통합을 이루었고 다연장 로켓과 표적획득 수단을 개선시켜 즉각적이고 위협적인 화력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군은 여전히 군단급 이상 제대가 독립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던데 반하여 미 2사단은 사단 독립작전이 가능해진 것이었고 한반도에서 기동작전부대로서 획기적으로 강화된 2사단은 한국군 1~2개 군단의 전력과 비교할 정도로 강화되었다.

1976년부터 1993년까지 실시해 왔던 '팀 스피리트 한미 합동 야외 기동 훈련'을 통해 연합 방위능력과 대북 전쟁억제능력을 과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군은 미 2사단의 무기체계, 전술 교리, 야외 훈련방식을 한국군 발전의 모델로 삼아 전력증강에 박차를 가하였다. 미 1군단이 철군한 자리에 미 2사단이 재배치를 하는 동안 한국군 부대의 전력증강의 모델로서 한국군의 전투력 증강을 지도하던 미 1군단은 작전과 훈련을 지도하는 연합지휘기구로서 축소되어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에 남았다.

비록 미 1군단의 지휘부와 공병여단, 포병여단 그리고 예하 군수지원부대가

워싱턴주 포트루이스로 철수하였지만 한국정부는 미국과 협상을 통하여 중요한 대북 전쟁억제 효과와 한국군에 대한 전술지도를 위하여 연합 한미 1군단이라 불리우는 새로운 지휘기구를 탄생시켰다.



한미 1군단의 기능은 성공적으로 평가되어 후일 '한미 연합 야전군 사령부'로 개칭되어 한국군에 대한 훈련지도, 신교리 전과 연합작전의 수행을 통하여 연합방위 능력을 발전시켜 나갔다.

직할 예·배속부대 없이 미 1군단이 주둔하던 캠프 레드클라우드에 주둔하며 미 2사단과 국군 1사단, 25사단을 지휘하는 형태의 단순한 지휘부였지만 한국군 군단에게 모델이 되었고 미군의 신교리 전과, 전술훈련 지도, 무엇보다 대북 전쟁억제력의 상징으로 존재하였다.

한미 1군단의 존재 기능은 매우 효과적이어서 1980년 '한미 연합 야전군사령부'로 개편되면서 1992년 해체될 때까지 서부전선의 한국군 1, 5, 6군단의 전술훈련 지도, 교리전과 등의 상급 사령부 역할을 지속하였다.

(2) 미 2사단 주둔 2기 (1993.6.-현재)

1992년 여름에 한미 야전 방위전력의 중심에 있던 '한미 야전군 사령부'가 해체되고 사령부가 위치하던 의정부의 캠프 레드 클라우드는 미 2사단이 접수하였고 과거 미 1군단 지휘부였고 한미 1군단을 거쳐 '한미 연합 야전군 사령부'의 지휘부로 사용되던 시설들은 고스란히 미 2사단이 승계하였다.

이제 미 2사단은 사령부를 미 1군단 사령부가 위치하던 의정부 캠프 레드 클라우드로 이전하고 파주, 문산, 동두천, 의정부, 춘천을 아우르는 중서부 전선의 42개 미군 캠프와 시설에 분산 배치되었다.

서울 동북부에 위치한 양주군은 인구증가와 서울의 발전에 맞추어 행정구역을 개편하였다. 양주군의 의정부읍이 1963년 양주군에서 분리된 이후, 1980년 4월 1일 남양주군이 양주군에서 분리되었고 이듬해 7월 1일 양주군 동두천읍도 분리되어 동두천시로 승격되었다.

미 2사단은 사령부를 의정부로 이전하고 주력 전투여단을 동두천에 상주시킨 1993년부터 약 10년간 현대화된 사단으로 재편하여 최강의 전투사단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에 전념하였다. 한반도에서 최고의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과감한 편제개편을 시도하여 하천, 산악 등 장애물이 많은 한반도에서 장애물 제거능력과 기동력을 보장하기 위해 공병부대를 여단급으로 증강시켰고 다연장 로켓, 표적탐지 레이더 배치 등으로 열세였던 대북한 화력전 능력을 강화시켰다. 산악지역에서 신속한 기동과 공격능력을 위하여 항공여단을 사단에 보강시키며 훈련에 매진하던 전투력 최고의 시기였다.

아울러 사단은 스트라이커여단을 시험 운용하면서 여단 단위 독립작전 능력을 시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단기전으로 끝날 것으로 예측하며 개입한 이라크전쟁이 끝을 보이지 않고 계속되자 대 북한전선에 고착시켜 운용하던 미 2사단도 전략적 유연성을 부여하여 다양하게 운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2004년 미 2사단 2여단이 이라크에 투입되고 미 2사단은 중(heavy)여단 작전체제로 변화를 시도하면서 사단은 여단단위 전투단으로 개편되었다.

조만간 전시 작전 통제권이 한국군에 이양되면 주한미군은 공군과 지원부대로서 한국군을 지원하는 지원 내지는 증원부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전투 병력은 일부 감소하였으나 미 2사단은 여전히 동두천과 의정부에 주둔하고 있으며 기지 통폐합 및 복지개선 계획의 일환으로 기지건설이 완료되면 평택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4. 외국군 주둔지로서 동두천의 명암

1) 주둔군 위락시설과 지역경제

휴전상태가 지속되자 생존의 기로에 선 외지인들이 기지촌으로 몰려들었고 살아남기 위하여 외국 군인들을 상대로 돈이 되는 일은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하였다.

합법적으로 유엔군 전용 술집들과 세탁소가 문을 열어 영업을 개시하였고 주변에 미장원과 옷가게가 들어섰으며 군부대에서 사용이 불필요하게 되어 불하된 물자를 거래하는 상점들이 늘어났으며 비록 기초적인 농산품에 불과하였지만 군에 납품하는 사업도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미군부대에 고용된 한국인 직원들의 숫자는 1960년대 말 6만 명을 상회하였으며 이들은 당시에 가장 안정되고 선호하는 직업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주한 미군에 고용된 직원들은 당시로선 보기 드물게 직업과 직장의 근무환경을 배려하고 피고용인들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는 노동조합 결성이 허용되었기 때문인데 동두천 지역에는 1958년 5월에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이를 전후하여 서울, 파주, 의정부 지역에도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1967년 주한 미군 산하 15개 지부 38,500명의 노동조합원이 보고되었고 노동조합의 기능과 역할은 오늘날까지 성공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3년 한국전쟁 중 치열한 격전의 복판에 서서 두 번씩이나 적 치하에서 파괴된 끝에 피폐해진 대도시 서울과 달리 동두천은 파면 팔수록 무한정 돈이 쏟아져 나오는 황금도시로 부풀려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동두천에 몰려든 실향민들, 먹고 살길을 찾아 나선 힘없는 전쟁 미망인과 고아들을 비롯하여 한 몫 잡아보려는 이들이 모두 모여 1966년 동두천읍의 인구가 6만을 헤아렸고 이중의 90퍼센트가 외지에서 온 유동인구였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은 부끄러움을 잠시 잊게 만들었고 동두천의 밤은 절도, 성매매, 인신매매, 마약이 판치는 곳이 되어갔다.

특히 상대적으로 풍부한 물자와 자재가 쌓여있는 미군 병영은 굶주림과 추위에 떠는 한국인들에게는 천국처럼 보였고 생존을 위한 다급한 몸부림은 다양한 방식의 절도로 이어졌다.

주요 목표는 풍부한 물자가 쌓여 있는 미군 병영 내의 피엑스, 물자를 운반하는 차량과 열차를 대상으로 한 절도와 불법 반출이었다. 내부 군인이나 직원들과 결탁한 피엑스텔이 전문절도단이 극성을 부렸고 외부에서 땅굴을 파고 들어가는 황당한 절도사건도 수시로 보고되었다. 1960년대 중반까지 미군은 중대단위 이상 부대가 주둔하는 120개소 지역에 피엑스를 운영하였고 연 300억 원어치

이상의 물자를 한국에 들여와 소비하였다.

전쟁이 언제든지 재개될 것에 대비한 휴전상태였으므로 미군부대의 보급수준은 전시 최상급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헛수에 상관없이, 신청하면 보급되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어서 미군들은 좀도둑이 훔쳐가거나 집어가는 소규모 절도정도는 무시하거나 관대하게 대하였다.

피엑스물건이나 부대물건들을 합법 또는 불법으로 외부반출을 하는 사건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암묵적 동의를 있었는데 미군들에게는 유흥비를 쉽게 마련할 수 있는 기회였고 절도에 가담한 한국인 절도범이나 종업원들은 한밑천 건질 수 있는 기회로 생각했으며 무엇보다도 주민들은 이를 통하여 배고픔과 생필품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 다른 통로는 미군과 동거하는 한국인 여종업원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부대 내의 물자들이었는데 이 때문에 꽃다운 어린 소녀들이 결혼 아닌 동거라는 부끄러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미군과 동거를 시작하였고 주민들은 이 소녀들의 행위에 수치스럽다고 침을 뱉으면서도 주위에서 공존하는 사회 기현상이 널리 퍼졌다.

밤의 동두천은 더 이상 평화로운 옛 모습이 아니었다. 한국인들에게는 한낮의 훈련과 군사임무로 맘에 찌든 채 오락과 피로회복의 자극제를 찾아 나선 미군들을 상대로 먹고 사는 생존을 건 또 다른 전쟁터였다. 밤의 동두천에 적용되는 법은 한국 국법과 무법에 가까운 서부개척시대의 현지법이 교묘히 뒤섞인 것이었고 밤의 경제를 순환시키는 화폐는 원화도 달러도 아닌 군표였다.

미국 군인들의 취향에 따라 단장한 술집들이 들어섰고 술집 영업주의 지휘 아래 호객꾼이 길거리를 누볐으며 양공주라고 불리는 여성들이 술집 안을 휘젓고 다니며 술값과 서비스 대가로 군표를 거두어 들었다. 미군 하나만 애인으로 삼을 수 있다면 가족들을 모두 부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린 소녀들은 선택의 여지도 없이 술집으로 내몰렸다.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결혼도 보장받지 못한 생계형 동거가 늘어났고 혼혈아와 미혼모가 늘어나면서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짙게 드리웠다.

〈미 2사단과 동두천〉



2007년 동두천 캠프 케이시 정문 앞 미2사단의 상징인 인디언 동상이 서 있고 왼쪽에 전투경찰대원이 서 있다. 동상은 반미주의자에 의해 자주 손상을 입다가 2008년 캠프 영내로 옮겨졌다.



1983년 캠프 케이시 영내. 남측 고지에서 내려다본 캠프 케이시 영내 전경



2000년 캠프 케이시. 피엑스 시설이 모여 있는 쇼핑가



1990년대 보산동



1990년대 보산동



1993년 여름 폭우로 물에 잠긴 보산동 거리



1973년 동두천 캠프 케이시. 미2사단사령부가 봉일천에서 동두천으로 이동한 지 2년이 지났다.



2000년 캠프 케이시 정문. 미 2사단사령부는 의정부로 이동하고 전투부대들만 동두천에 남아 있다.



2004년 캠프 케이시, 1998년 동두천 지역의 대홍수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캠프 케이시로 현대적인 건물들이 영내에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1966년 전국의 기지촌 지역에 등록된 여성봉사자 숫자가 2만 명을 넘어섰고 동두천에만 6천 명을 웃돌았다. 양공주, 전쟁 고아, 혼혈아들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시기에 이들은 사회의 부끄러운 치부로 간주되고 외면당하면서 그들은 이중의 고통을 겪었다. 미군들의 옷을 세탁해 주고 구두를 닦아주며 생계를 꾸려가는 이들, 부대에서 합법·불법으로 반출된 풍요롭고 질 좋은 물자들이 동두천의 시장에 넘쳐나면서 동두천은 한때 서울보다 더 호황을 누리기도 하였다.

1946년 군정시기에 처음 초성리에 파견되어 온 군정중대원들이 보산동, 생연동, 광암동, 동두천리의 농민들과 평화롭게 공존할 때와 다르게 외지에서 몰려들어 떠나가는 것을 전제로 한 철새인구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의 목표는 대부분 한 재산 건져 살기 좋은 다른 도시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기에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서슴없이 넘나들었다. 국민 일인당 국민소득이 60달러도 채 안 되던 아시아 최빈국에서 국민소득 수천 달러의 강국 군인들이 하룻밤 즐거움을 위해 마시고 쓰는 달러는 전성기 동두천에서만 한 달에 20만 달러를 웃돌 만큼 대단한 호황을 누리 온갖 꾀과 범죄가 동두천에 몰려들었다.

미군 전용클럽의 업주들은 과중한 생계 부담과 낯선 환경 속에 우울한 얼굴로 미군을 대하는 여종업원들에게 항상 미소를 지으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려는 욕심에 마약을 상습 복용시키기도 하였다. 1966년 보고된 바에 따르면 전국의 미군클럽 여종업원들의 1/3이 마약중독에 빠져 있다고 보고될 정도였다.

미군들에게도 문제는 많았다. 동두천의 밤은 곧잘 흑인병사들과 백인병사들의

난투극으로 얼룩졌는데 1970년대까지 흑백갈등은 심각하게 잔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캠프 케이시 정문을 기준으로 철길을 따라 북쪽의 클럽들은 흑인 전용클럽이었고 남쪽은 백인 전용클럽으로 자리 잡았다. 광암동 지역도 지역이 구분되지는 않았지만 각 클럽은 백인과 흑인 전용클럽으로 구분되었고 여종업원들도 양쪽 모두를 상대할 수 없었고 흑인 또는 백인들의 기호에 맞도록 머리모양이나 복장을 하여야 했다.

백인들은 여종업원들의 외모에 크게 까다롭지 않았으나 예민하고 괴팍한 성격을 가진 자들이 여종업원들을 곤경에 빠트리기도 한 반면 흑인들은 여종업원들의 외모에 예민하여 흑인전용 클럽에 미인들이 많았으며 한국인들 처럼 정이 많고 가족중심의 정서를 가지고 있어서 여종업원들에게 비교적 친절하여 한국 여성들이 흑인들과 결혼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지촌 일대의 경기가 활성화하고 물자가 풍부하게 순환되자 외지인들이 몰려들었고 조용하고 평화로웠던 시골마을 동두천은 폭력, 절도, 마약, 매춘, 인신매매에 살인까지 수시로 벌어지는 타락한 도시로 악명을 떨쳤다. 많은 사람들이 동두천을 불법이 판치던 알 카포네 시절의 시카고를 떠올리며 작은 시카고(Little Chicago)라고 불렀다.

기지촌의 악명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국의 연간 예산과 맞먹는 2억 달러의 경제를 자신들의 땀과 노력으로 벌어들이고 이것으로 전 국민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고 큰소리를 치기도 하였는데 전혀 틀린 주장만은 아닐 것이다. 굶주림과 영양실조에 시달리던 한국인들에게 미군들의 음식들은 그야말로 영양덩어리여서 부대 식당에서 잔반으로 버린 음식조차도 거두어다가 다시 끓여 배고픔과 영양실조에 시달리던 어른과 아이들에게 먹였고 이것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해 온 세대가 우리 아버지 세대였다.

지금은 부대찌개라 부르며 가끔씩 간식거리 삼아 먹어보는 이 미국인의 음식은 살찌는 정크푸드로 경계하게 되었으니 격세지감을 느낄 뿐이다. 리틀 시카고의 악명은 1961년 군사혁명에 의하여 임시 계엄정부가 들어서고 전국의 깡패와 절도범 단속을 대대적으로 벌이면서 수그러들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1966년 SOFA(주둔군 지위 협정)이 문서로 발효되어 피엑스 물품 운용, 군납, 불하 및 용역사업 재판 관할권 등 미군부대 관련 사업과 규정이 체계화하면서 범죄가 줄어들었고 월남전이 본격화하며 전시체제 무제한 물자보급이 허용되던 주한미군에게 제한된 부대유지 물자 보급 수준으로 통제되고 피엑스 숫자도 절반 이하로 격감하면서 미군부대들은 본격적으로 부대 물자관리를 강화하였고 기지촌 주변의 경기는 꺾이기 시작하였다.

1971년 동두천에서 미 7사단이 철수한 후 미 2사단의 일부가 동두천으로 이전해 오면서 한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미군 물자의 한국 시장 내 유출을 단속하기 시작하였다.

이제 막 자립경제의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대한민국의 내수 시장경제에 여수, 부산을 통해 일본과 홍콩에서 들어오는 밀수품과 미군 피엑스에서 나오는 물품들의 양은 상상을 초월하여 국내 굴뚝산업(제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었고 세금을 포탈한 채 유통되는 많은 밀수품과 피엑스 물품 때문에 국내 경제가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977년 한 해 관세청의 군 피엑스 물품 유출 단속건수는 6,200건에 10억 원에 이르고 있으나 이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았다. 이제는 과거 줌도둑과 양공주들을 통한 생계형 물품 유출과 유통의 형태에서 피엑스 물품 유통망을 이용한 차떼기 부정유출이 극성을 부렸는데 운송 도중 몽땅 빼돌려도 빼돌린 물건은 장부상에는 모두 이상 없이 도착하고 정상적으로 팔려나간 것처럼 장부가 정리되어 물품대금이 미 정부로 입금되어 회계장부상 손해 본 것이 없는 미군부대 측은 사건해결에 소극적이었다.

면세금액으로 책정된 물품 판매대금을 전상 입금시키고도 빼돌린 물자를 시중에 내다 팔면 배 이상의 이익을 남길 수 있어 운송차량 빼돌리기 수법은 지속되었는데 전자제품을 실은 대형 컨테이너 한 차가 빼돌려지면 종로의 세운상가(한때 국산품 전자제품 판매의 중심지)가 일주일간 장사가 안 되어 몸살을 앓는다는 말이 퍼질 만큼 국내 시장경제에 깊게 주름을 만들기도 하였다.

한때 한국인들의 젖줄이었고 굶주리고 영양실조에 빠진 우리 아버지세대를

지탱하였던 기지촌과 피엑스문화는 1988년 올림픽을 서울에서 치르고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급속히 쇠락하였다. 대량 국제교역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각종 외국 농산품과 전자제품의 홍수는 국민들의 눈을 더 이상 피엑스 물품에 고정시키지 못했고 경제성장과 더불어 치솟는 인건비용과 열악한 고용환경을 외면하고 떠나버린 기지촌 양공주들의 자리는 필리핀 여성과 러시아 여성들로 대체되었다.

동두천은 이제 더 이상 외지인이 몰려들어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리틀 시카고도 아니고 한국 경제를 쪼먹는 탈세의 온상도 아니며 암울하고 희망도 없는 기지촌도 아니다. 암울했던 시절 생존의 발판으로 동두천에 몰려들어 고향치고 서로 치고받으며 어려운 시절을 함께 살아온 끝에 떠나갈 외지인들은 모두 떠나갔고 이제 동두천을 고향 삼아 눌러앉은 사람들과 토박이들만 남았다.

인구 3천여 명의 조용했던 농촌 이담면은 현대식 아파트가 숲을 이루고 국제도시 서울과 연결된 전철이 왕래하는 인구 9만의 성장가능성이 어느 도시보다 풍부한 훌륭한 전원도시로 탈바꿈하였다. 그러나 동두천은 여전히 거대한 군사시설을 가슴에 품고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안은 채 여전히 소외된 도시라는 인식을 지우지 못하고 기회만 되면 떠나고 싶어 하는 주민들이 다른 도시에 비해 여전히 많은 주민들이 살아가는 도시 중의 하나로 남아 있다.

한국전쟁의 복판에 서있던 동두천에는 수많은 외국군이 밟고 지나가면서 많은 상처를 남겼다. 원치 않는 기지촌의 악명 속에 기를 펴지 못하는 자녀들을 키우며 어둡고 소외된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온 동두천 주민들에게 이제는 정부가 자신의 고향에 대한 자부심이 충만하고 누구나 그 어느 곳보다 더 들어와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동두천 주민들도 이제 아직도 떠나지 않는 거대한 군사시설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나 동두천의 희생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이룩한 국가가 동두천 주민들에게 충분하고도 신속하게 보상하지 않는 현실에 분통을 터뜨리고 짜증을 내기보다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을 스스로 고양해야만 한다.

동두천은 지금까지 버티며 살아온 주민들의 고향이고 그 어느 곳보다 발전

가능성이 높은 미래의 도시이기 때문이다.

2) 동두천 사회의 그림자

휴전이 되면서 북한을 떠나 남으로 내려온 채 통일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던 500만 실항민들은 60년 긴 세월동안 대부분 고향 땅을 밟아 보지도 못하고 회한을 품은 채 망부석이 되었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등급고 귀먹은 노인들 일부가 남아 고향땅에 묻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북한 땅을 바라보며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동두천에는 고향이 북한 땅이 아니어도 살던 집과 마을을 찾아 돌아가지 못한 채 고향 마을 주변을 맴돌며 60년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한국전쟁 중 피난을 갔다가 돌아와 보니 피난 떠났던 마을은 군부대가 점령하고 있었고 곧 이동해 갈 줄 알았던 군부대는 60년이 되는 지금까지 떠날 줄을 모르고 버티고 있기에 이들은 가슴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도 주변을 맴돌며 60년째 속절없이 기다리고 있다. 캠프 케이시와 캠프 호비 지역에 살고 있었던 동두천 주민들의 이야기이다.

거대한 미군 캠프가 마을로 들어가는 길을 막아 고립된 동두천 마을 걸산동의 이야기도 있다. 조상 대대로 이어 살아 온 마을의 주민이면서도 미군들의 허락을 받아야 통과가 가능하고 친구나 친척들이 찾아와도 들어가기 어려운 불편을 감수하며 지금도 그런 불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캠프 케이시 뒷동네 마을 걸산동.

캠프 케이시와 캠프 호비 영내에는 적지 않은 향토 문화재와 조상의 묘소들이 자리 잡고 있다. 묘소들은 모두 60년 전에 모셔진 묘소들인데 그 후손들은 해마다 미군들의 허락과 안내를 받아 자신들의 조상의 묘를 찾아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그 외에도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감수하며 살고 있다. 캠프 호비를 거쳐 캠프

케이시로 흘러내리는 하천이 범람하는 여름이면 보산동이 물에 잠기고 부대 내의 오물과 폐수가 심심치 않게 보산동 주민들이 사용하는 식수원과 뒤섞여 흘러내리며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기도 하였다.

광암동에서 미군 캠프 사이를 흘러내리는 신천 지류를 정화시키기 위한 오수관을 별도로 매설하는 작업이 동두천시의 주도하에 미군과 협조하여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신천을 맑게 하고 보다 깨끗한 도시환경이 갖추어지리라 생각한다.

외국군 군사기지와 공존하는 동두천은 알 카포네를 연상시키는 시카고의 한국판이라고 불릴 정도로 한때는 마약과 매춘이 판치는 곳으로 치안과 환경이 좋지 못한 도시 중의 하나였다.

여전히 남아 있던 흑백갈등이 표출하는 현상이어서 밤마다 흑인과 백인들 간의 싸움이 끊이지 않았고 그들이 출입하는 장소도 알게 모르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이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한국인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기 일쑤였다. 술에 취한 젊은 외국군 병사들은 곤잘 객기를 부려 민가에 불쑥 뛰어들어 행패도 부렸고 타고 가던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거나 강도로 돌변하기도 하였다. 영내의 풍부한 생활필수품을 노린 한국인들의 불법 유출과 절도에 용돈이 필요한 미군들이 가담하기도 하였다.

참기 어려운 인권유린도 다반사로 발생하였다. 영내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종업원이 근무 중 실수를 하거나 군인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업소의 종업원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했을 때 특히 영내에서 자잘한 절도사건이 발생했을 때 군인들은 곤잘 관용을 베풀거나 법대로 처리하지 않고 개인적인 판단으로 개인감정에 따라 처벌을 가하기 일쑤였고 한국인들은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주둔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보다 주둔 군인들의 권리만을 언급한 1950년 7월 대전협정만이 존재할 동안 주둔국 국민들의 인권은 오간데 없었고 범죄와 사건사고에 재수없이 연루되면 법적으로 국민을 보호할 방법이 없었다. 그나마 다행히도 1966년 주둔군지위협정이 체결되어 부분적으로 국민들의 인권과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되었고 계속해서 불평등한 부분들은 개정되거나 개정

협약이 진행되고 있음은 그나마 다행이라 하겠다.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던 무차별적인 주둔국 국민의 모욕과 학대사건은 1971년 대규모 철군이 단행되면서 수그러들었고 미군 지휘관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병사들에게 주둔국가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고 주민들에게 예의를 갖추도록 교육을 하기 시작하였다.

젊고 피 끓는 젊은 병사들이 집을 떠나 먼 외국 땅에 와서 엄격한 병영생활과 힘든 훈련을 받으며 생활하다보니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탈선을 하기도 하지만 유사한 사건들은 주둔하고 있는 군인들의 숫자를 고려할 때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평균적인 수준 이하로 확연히 줄어들고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가 국민을 지켜내지 못하고 국민들이 헐벗고 굶주리게 되면 가장 먼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 아녀자들과 아이들이기 마련이다.

고아원에서 미처 수용하지 못한 전쟁고아들과 심지어 부모가 있어도 굶주리던 아이들은 깡통 밥그릇을 들고 거지와 양아치가 되어 길거리를 떠돌았고 아녀자들은 시장판을 헤매며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거나 이도 저도 할 수 없게 되면 몸을 도구삼아 서비스업에 나서게 되기 마련이었다.

주둔하던 미군들 숫자만큼이나 많은 여자들이 밤거리로 나서 웃음을 팔아 자신과 딸린 가족들을 먹여 살렸고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바라보는 주민들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짓밟아 국민적 마음의 상처가 되었으나 당시에는 별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그들의 희생과 질긴 생명력이 우리를 회생시켰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상처받은 국민적 자존심에 여자를 밝히는 잡놈들이라고 그들을 욕하고 비하해보지만 식량이 부족한 시절을 겪는 인간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질서가 흔들리며 벌어지는 이런 추한 모습들은 비단 미군들과 우리들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들은 아니었을 것이다.

양색시 또는 양공주라고 불리던 우리의 딸들, 누나들이 말도 통하지 않는데다 특하면 인권을 유린하며 폭행을 일삼던 파란 눈의 두렵고도 거친 외국 군인을 상대로 한밑천 잡아보겠다고 스스로 뛰쳐나왔겠는가? 남자에게 손목 한번 잡혀보지 않았던 순결한 처녀들, 남편이 죽거나 불구가 된 채 딸린 아이와

살아가기 위한 수단으로 나선 젊은 유부녀와 과부들이 두려움을 떨쳐내고 나서서 주민들과 사회의 지탄을 받는 줄 알면서 양색시가 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거나 이와 유사한 이유를 가지고 자신을 내던지는 심정으로 이 길에 나섰고 다시는 고향과 한국사회가 자신들을 정상적인 보통 한국 여인으로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과거 직업이 양색시라고 밝히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한국 남자와 결혼하여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살아 보겠다고 당당하게 나설 수 없는 비정한 사회에 살던 그녀들의 작은 소망은 흑인이든 백인이든 가리지 않고 미국 군인들과 결혼하여 이 지긋지긋한 땅을 떠나는 것이었다. 극히 일부지만 착한 미국 군인들과 결혼하여 이 땅을 떠나 미국으로 간 여인네들도 있었지만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어서 머나 먼 미국 땅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학대받고 버림받은 채 고생하거나 죽어가기도 하였다.

이에 못지않게 대책도 없이 비참하게 사는 여인들이란 미국행 기회도 갖지 못한 채 나이를 먹어 더 이상 양색시 노릇도 할 수 없이 이 땅에 남아있는 그들 속의 여인들이었다. 이들은 극심한 사회기피와 자폐성향을 보여 양색시로서 수명을 다해도 기지촌을 떠나지 못하고 주변을 맴돌고 있다.

자신들도 한국인이면서 한국인들의 사회가 자신들을 받아들여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또 다시 한국사회에 나가 새 출발하기 위하여 감내해야 할 수모와 모욕을 견딜 자신이 없었던 것이어서 용기를 낸 일부는 신분을 숨긴 채 숨어살다시피 사라져버리고 대부분은 기지촌 언저리에서 젊은 양색시들의 심부름을 해주거나 허드렛일을 하며 힘들게 연명하고 있었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국가경제가 성장하고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젊은 양색시들은 이곳을 벗어나 보다 나은 직업을 찾아 대도시로 떠나 갔고 그 빈자리에는 저임금 고용이 가능한 주변국가의 외국 여성들이 차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초창기부터 기지촌에 머물던 나이 든 여인들은 갈 곳이 없었고 생계가 막연해지면 나이 먹어 드리워진 주름살을 짙은 화장으로 가리고

술에 취해 귀가하는 젊은 병사를 상대로 폰돈을 흥정하는 것이 한국인 사회에 자폐성향을 가진 그녀들에게는 시내 식당에서 일하는 것보다 차라리 쉬운 일이었을 지도 모른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가끔 그녀들보다 어린 미군 병사가 어머니나 할머니뻘 되는 여인들을 폭행하거나 강간했다는 엽기적이고도 슬픈 사건이 벌어지는 배경이기도 하다.

동두천시에는 퇴역했지만 떠나지 못하는 양색시들의 자활수단으로 상부상조하는 민들레회가 조직되어 있었고 한때는 회원 수가 삼천 명을 넘을 정도로 많았으나 대책도 없이 세월이 흐르면서 일부는 죽거나 활동할 수 없는 나이가 되면서 점차 숫자가 줄어들었다.

가장 연약하면서도 가장 표면에 드러나 모진 비난을 받으며 인고의 세월을 견디며 잡초처럼 살아 온 이들의 희생이 국가가 회생하고 젊은 세대들이 풍요와 행복을 누리게 만든 밑거름이었다는 사실에 숙연함을 가지고 이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2010년은 한국전쟁 발발 60년이 되는 해였다. 3년 전쟁의 폭풍이 지나간 한반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도처에 남게 되었다. 750만 명의 청년들이 참전하여 181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고 300만 명의 월남 실항민과 폭격과 전쟁 후유증으로 집을 잃은 수백만 남한 주민들이 추위와 배고픔에 고통을 받으며 살아왔고 38만여 명의 무고한 양민들이 이념투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학살되거나 또는 전쟁의 와중에서 죽거나 불구가 되었다.

전쟁이 없었다면 평화롭게 그들이 돌보아야 했을 수많은 아내와 어린 아이들은 전쟁과부와 전쟁고아라는 이름으로 발가벗겨진 채 차가운 거리로 내팽개쳐졌다. 얼마나 많은 전쟁 과부와 고아들이 발생하였는지 통계를 잡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계 숫자가 그들을 제대로 돌보지도 못한 채 60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 왜 중요하겠는가?

동두천에 떠돌던 전쟁고아와 전쟁과부의 숫자는 정확한 통계를 제시하기

쉽지 않으나 적지 않은 숫자의 고아원 시설들이 동두천 지역에 아직도 남아 있는 사실이 말해 주듯 많은 수의 전쟁고아들이 이곳에서 살아왔고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졸지에 가정을 잃은 채 살아남은 어린 전쟁고아들은 본인이나 부모들의 희망에 상관없이 기구하고도 다양한 방식으로 삶을 이어왔음을 알 수 있다. 그래도 입양기관을 통해 해외로 입양된 아이들은 운이 좋은 경우로 치부하였다.

넉넉하지 못한 고아원시설에서 어머니의 따뜻한 정을 느껴 보지도 못한 채 추운 겨울밤 어깨 위로 스며드는 냉기에 이불을 끌어당기면서도 춥다고 불평 한마디 할 곳이 없었던 외로운 고아원 생활, 그리고 자신들은 언제든지 이곳을 뛰쳐나가도 아무도 찾지 않는 버려진 아이들이라는 사실에 외로웠던 아이들, 미군부대 안에 머물며 군인들의 구두를 닦아주고 심부름도 해주며 밥을 얻어먹고 밤이면 온기가 남아 있는 보일러실이나 막사 구석에서 살아온 하우스보이라고 불리던 고아들, 낮에는 시장바다를 헤매며 먹을 것을 찾고 밤이면 미군들이 즐겨 찾는 클럽 주변에서 구걸과 호객행위를 하며 살아온 아이들이다.

이들에게 춥고 배고픔도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겠지만 버려졌다는 두려움, 마음대로 응석을 부릴 엄마가 곁에 없다는 외로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학대와 폭행 그리고 범죄와 성폭행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었다는 과거의 악몽들이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였다. 그 험하고 힘들었던 시절을 온몸으로 겪어온 전쟁고아들이 이제 머릿결이 희끗해진 6, 70대 노인이 되었다.

어두운 그림자는 또 있었다. 1945년 미군이 주둔한 이래 3년 한국전쟁을 거치고 미군들이 장기주둔하면서 이 땅에는 약 3만여 명의 혼혈아가 태어났고 미 7사단이 철군하던 1971년까지 약 7천 명이 해외로 입양되었다. 혼혈아는 백인계가 약 70퍼센트였고 나머지는 흑인계였으나 혼혈이라는 차가운 시선은 백인계이거나 흑인계이거나 상관없이 모두를 힘들게 하였다.

혼혈인종이 일반화된 미국이나 유럽에서와 달리 혼혈아의 존재는 한국 사회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어서 외계인을 대하듯 이들이 겪은 차별과 모멸감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사회의 부정적인 선입관에 의해 냉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호적을 만들기도 쉽지 않아 교육도 차별을 받았고 친구를 사귀기도 쉽지 않아 항상 외톨이었다.

미군들이 흑인과 백인 병사들 간에 갈등이 심했던 것과 달리 백인계 혼혈아와 흑인계 혼혈아 사이에는 벽이 없었다. 흑인계 또는 백인계이기 이전에 혼혈아라는 사회적인 약점이 그들을 뭉치게 한 것이었다.

혼혈아들도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상대적으로 적은 해외입양을 원했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 땅에 남아서 차가운 냉대와 차별을 고스란히 겪으며 60년을 살아왔고 이젠 황혼을 바라보는 나이들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뒤늦게라도 그들의 고통을 보상받았다거나 혜택을 받았다는 소식은 들어본 적이 없다.

전쟁 속에서 모질게 살아남은 젊은 미망인들, 전쟁고아들, 미군을 상대로 달려들 벌여 가족을 부양하던 양생시들, 혼혈아들이 속절없이 인생의 황혼을 맞이하거나 죽음을 목전에 둔 노인으로 남은 이때까지 국가와 사회는 그들이 사회적 냉대와 외면 속에 겪어왔을 고통과 배고픔을 외면해 왔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감사해야 하는 마음밖에 전해 줄 것이 없다.

이들의 희생과 고통을 보듬고 치유해야 할 국가와 사회는 폐허가 된 국가 기반시설과 경계를 되살리는 일이 더 급한 것이었다는 이유로 그들이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할 때 돕지 못하고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챙기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5. 국가안보의 현장 동두천과 주한 미군

1) 동두천시와 공존하는 주한미군 캠프들

동두천은 지난 60년 동안 유엔군과 미군들이 주둔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과 상이하게 상당 부분의 군사시설들이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금도 여전히 주둔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캠프 케이시로 대변되는 동두천시는 1971년 미 7사단이 철군할 때까지만

해도 미군들이 동두천의 주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부분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와 문화관습의 변화에도 주도적인 영향을 끼쳤다.

지금과 달리 동두천 일대에는 미 7사단 대부분의 부대들이 주둔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용하던 훈련장들이 대부분 부대 주변에 분산되어 있었고 동두천 주민들은 미군이 주둔하지 않는 하천 변이나 골짜기에 분산되어 군락을 이루고 살아 왔다.

미군들이 점유한 군용지는 1970년대에 동두천 내에 보산동뿐만 아니라 소요동, 상패동, 불현동 일대 모든 지역에 약 78km²(2억 8,500만 평 규모) 넓이로 분산되어 있었다. 소요동, 상패동, 불현동 주민들은 밤낮으로 훈련장에서 들려오는 전차포 사격, 기관총 사격, 수류탄 투척과 소총 사격의 소음을 견디며 살아왔다.

현재는 캠프 케이시(3,496에이커/14.15km²), 캠프 호비(3,928에이커/15.90km²), 캠프 캐슬(51에이커/0.21km²), 캠프 모빌(30.8에이커/0.12km²) 등의 주요 주둔지와 일부 훈련장과 고지대의 통신시설 일부가 남아있고, 주둔지역은 아니었지만 거대한 훈련장지역으로 민간인들의 주거와 활동이 제한되었던 모빌훈련지역(4,396에이커/17.79km²), 유니폼, 빅터, 위스키, 탱고, 시에라 등 5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던 당시에는 동두천의 주인은 주민들이 아니라 미 7사단의 군인들이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동두천 주민들의 인구가 증가하자 주거지역 내의 훈련장들이 정리되기 시작하였고 위험한 실탄 사격장들이 정리되기 시작하였다. 짐볼 훈련장(7,452에이커/30.16km²)이 1980~1990년대에 동두천시에 반환되었고, 2007년에 캠프 님블이 반환되었고 현재 캠프 모빌의 반환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때가 되면 남은 캠프들도 반환되고 미군 주둔 캠프는 이전될 것이다.

그동안 동두천시의 행정구역상 변화가 다소 있었다 하더라도 현재 동두천시 전체면적인 95.66km²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부분(30.38km²)을 여전히 미군들이

군사목적으로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말에 들어서면서 미군들은 대대적인 기지 통폐합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는 경제 발전에 따라 인구밀도가 증가하고 교통량이 폭주하는 도심의 작은 캠프들을 폐쇄하고 외곽의 통합기지에 통폐합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운용예산을 절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1) 캠프 케이시

캠프 케이시는 동두천역(구 동안역) 부근에서 소요산 남쪽 기슭을 따라 동쪽으로 뻗은 골짜기에 폭 1마일, 길이 3마일의 넓이로 펼쳐져 있는데 중공군의 기습 남침으로 서울을 두 번째 빼앗긴 이래 반격에 성공하여 38선을 회복했던 1951년 봄부터 연천과 전곡 일대에 투입된 유엔군의 예비대 집결지로 운용되기 시작하였다.

지역 내에 작전 임무에 따라 많은 부대들이 임무를 교대하며 수행하였는데 태국군, 필리핀군, 프랑스군, 호주군, 미 해병 1사단, 미 45사단, 미 1기병 사단, 미 2사단, 미 3사단, 미 7사단, 미 24사단, 미 25사단의 예하 부대가 교대로 잠시 또는 장기적으로 주둔하던 곳이었다.

미군은 전선의 고착과 장기주둔을 예견하고 1952년부터 고정 캠프로서 공사를 시작하여 예비대로 주둔하는 부대에게 틈틈이 부대 울타리 공사와 초소 공사 임무를 부여하면서 장기주둔에 대비하였고 캠프 케이시에는 미 25사단 예하 35연대가 1954년 9월 초까지 주둔하다가 떠난 후 미 7사단의 주력부대가 장기 주둔하기 시작하였다.

동두천시 보산동 소재 450만평(3,487에이커) 부지에 세워진 거대한 캠프는 전쟁 중에는 이름도 없는 야전 부대 집결 지역이었다가 1954년 1월 14일 정식으로 캠프 케이시로 명명하였는데 캠프 명칭은 한국전쟁 중 미 3사단장의 전속부관이었던 케이시 대위가 임무수행 중 항공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것을 기리기 위하여 그의 이름을 캠프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미 7사단은 사단의 주 캠프로서 동두천 지역에 캠프 케이시와 캠프 호비 그리고 운천 지역에 캠프 카이저를 건설하고 주둔하였는데 이외는 별도로 미 1군단 포병부대들이 백의리 지역에 세인트 바바라, 비버 등의 캠프를 설치하고 주둔하였다.

야전천막의 군락을 형성했던 초기 캠프 케이시는 1956년도부터 둥근 반원형의 콘셋 막사로 교체되면서 반영구적인 미군 기지의 모습을 갖추어 갔다.

막사나 사무실 공간 이외에 극장, 체육관, 강당 등의 대형시설을 짓기 시작하였고 철조망 울타리를 보강하면서 걸산동 부락은 이후 오늘날까지 미군이 주둔하는 지역을 통과해야만 갈 수 있는 단절된 부락이 되었다.

동두천 주민들이 사용하던 전통적인 지명들이 미군들의 편익에 맞추어 새로운 지명들로 대체되었다. 미군들은 자체적으로 필요한 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광암천에 불도저를 동원하여 커다란 임시 저수지를 만들었고 그 저수지 옆에 헨슨(Hanson상병: 미 7사단 31연대 소속의 병사로 한국전쟁 중 무공으로 명예훈장을 추서) 필드하우스라는 커다란 체육시설을 지어 사용하였는데 그 큰 규모 때문에 주민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소요산 남쪽 보산동 방향으로 흘러내리는 계곡에 공용화기 사격장인 포머로이 사격장(Pomeroy range)과 소규모 탱크훈련장인 쿠마(한국전쟁시 무공으로 명예훈장을 받은 미 2사단 72전차대대 Kouma 상사의 이름을 따서 호칭)전차사격장이 들어섰다. 걸산동 주민들이 동두천읍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에는 스쿠노버(한국전쟁 시 무공으로 명예훈장을 받은 Schoonover 상병의 이름을 따서 호칭) 불이라는 커다란 야외 원형 체육시설도 건설되었다.

미 2사단 주력이 주둔할 당시 사단장 집무실이 있는 케이시 헬기장 부근을 지나 캠프 케이시 동측 끝부분에 이르면 미군들의 소규모 사격장인 아파치 사격장(Apache Range)과 잉그마 사격장(Ingma Range)이 보이고 훈련장 입구 우측에는 고립된 마을 걸산리(지금은 걸산동으로 개칭)로 출입하는 통문이 있다. 걸산동 주민들은 지금도 이 통문을 통해야만 자신들의 마을로 들고 나갈 수 있다.

(2) 캠프 호비

캠프 호비는 덕거리지역에 형성된 약 3,930에이커(15.89km²) 크기의 미군 캠프로서 1954년 초에 설치되었으며 한국전쟁 중 유명한 폭찹힐전투에서 탁월한 전공을 세운 미 7사단 17연대 A중대의 호비 상사(Master Sergeant Howard Hovey)의 공을 기려 1959년 2월 4일 기념행사를 치르면서 캠프 호비로 명명하였다.

캠프 호비 동 측면에 셰아 레인지(Shea Range)라고 불리는 개인화기 사격장이 위치하고 있으나 지금은 더 이상 사격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캠프 호비에는 미 2사단이 이전해 온 이후 2여단이 계속 주둔해 왔으나 2004년 이라크전쟁이 악화함에 따라 2여단이 이라크로 이동한 후 1여단이 분산 재배치되었다.

1980년대까지는 캠프 케이시와 캠프 호비가 각각 출입문을 가지고 있는 별도의 캠프였으나 훈련장과 정비시설들이 늘어나면서 두 캠프를 잇는 확대된 외곽 울타리를 세우고 하나의 캠프로 묶는 바람에 동두천 시민들이 예전에는 두 캠프 사이로 왕래를 하였으나 이제는 통행이 어렵게 되었다.

최근에는 동두천시에서 산악자전거 일주 도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다시 미군 공여지역 사용문제와 성묘객들의 출입이 제한되는 문제들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 관계관들이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3) 캠프 캐슬

옛 동두천초등학교가 있었던 창말지역(현 동두천역 부근)에 약 40에이커 크기의 작은 캠프가 들어섰다. 캠프 캐슬은 미군 사단들이 동두천에서 예비부대의 집결 또는 정비임무를 수행할 당시에 배속된 유엔군 부대(대부분이 대대규모 이하의 작은 부대들이었음)들이 잠시 주둔하거나 머물다 간 곳이었는데 전곡 북방에서 전선이 고착될 무렵부터 태국군이 주둔하기도 했던 곳으로 1954년 1월에 한국정부로부터 정식 승인을 득하여 캠프 캐슬로 명하였다.

캠프 캐슬은 조그마한 캠프이기는 하지만 3번 국도를 사이에 두고 두 개의

캠프로 나뉘어 창말 고개마루 양쪽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1990년대 중반부터 좁은 2차선 국도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도시계획이 입안되자 캠프 일부를 반환받아 4차선 공사를 마무리하였고 분리된 두 개의 캠프는 현재 조그마한 구름다리를 만들어 통행을 하고 있다. 캠프 캐슬 북쪽에 위치한 캐슬 노스라고 불리는 보급시설은 미군들이 훈련장들을 반납할 때 일부를 반납하지 않고 지금의 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4) 캠프 모빌(H-220 비행장)

훈련목적으로 미군이 점용하고 있는 지역 중에 캠프 케이시 정문 앞, 철길 건너편에 약 30에이커의 땅에 미군들의 간이 활주로를 포함한 보급 및 수송 기지를 건설하였는데 1961년 4월부터 미군들이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H-220 (활주로 명칭)비행장으로도 불렸다.

원래 모빌이라는 명칭은 상패리 일대에 넓게 펼쳐진 미군 훈련장의 명칭이었는데 1990년대 말 사용하지 않는 훈련장 지역이 반환되고 난 후 H-220비행장을 캠프 모빌로 호칭하였다. 캠프 모빌도 현재 사용 기능이 다하여 반환을 준비하고 있다.

(5) 주변 시설들

캠프 케이시와 캠프 호비 중간에 스토리 바락스(Story Barracks : 한국전쟁 시 무공으로 명예훈장을 받은 스토리 상병의 이름을 따서 호칭)라고 불리는 조그마한 독립캠프가 있었다.

1965-1970년대까지 미 7사단이 하사관학교(NCO Academy)로 사용하였고 미 7사단이 철수한 이후 미 2사단이 1986년 도봉산 밑 캠프 잭슨으로 이사할 때까지 사단의 하사관 학교로 사용하였다.

스토리 바락스에 하사관학교가 운용되고 있을 당시에는 스쿠노버 볼 체육 시설이 있는 곳에 캠프 케이시 후문이 있었고 하사관 학교가 따로 울타리를 치고 있었으므로 비록 이곳 지역은 미군이 훈련장으로 사용하는 공여 토지였지만 그

사이로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왕래할 수 있었다.

걸산동주민들은 동두천읍에서 목골을 거쳐 걸산동마을까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으나 1980년 무렵 캠프 케이시와 캠프 호비 사이의 공여지에서 훈련 횡수가 증가하자 캠프 케이시와 캠프 호비를 단일 캠프 개념으로 묶고 울타리를 연결하고 간이 훈련장을 설치하면서 주민들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6) 과거의 캠프와 훈련장들

캠프 님블은 상패동 신천변에 약 14에이커 규모의 조그마한 규모의 독립캠프로서 한국전쟁 중인 1952년부터 미군들과 유엔군들이 주둔하던 곳이었는데 1953년 1월 한국정부의 승인을 받아 반영구 캠프를 건설하였고 1971년까지 미 7사단이 사용하였다. 7사단 철수 이후에는 미 2사단이 보급지원 부대를 주둔시켜 임무를 수행하다가 부대규모의 축소와 기지 통폐합계획에 의거 2003년 캠프를 폐쇄하고 기지를 한국정부에 반납하였다.

2) 주한미군 이전계획과 전망

주한미군은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발전에 따라 한국 내의 근무환경이 개선되었고 한국군의 자주 국방능력이 확고하게 향상됨에 따라 그동안 대북한 전선에 고착되어 임무를 수행하던 주한 미 지상군에게 전략적인 유연성을 부여하는 새로운 전략개념을 도입하였다. 아울러 과거에는 근무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분류된 한강 이북지역으로 부임하는 장병들의 근무환경을 개선시키는 노력을 지난 10년간 지속해 왔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보장을 위한 부대 재배치와 오랫동안 국제도시 서울 한 복판에 위치한 용산기지의 이전을 동시에 진행하여 평택지역에 대규모 주한미 육군 통합기지가 건설 중에 있으며 이는 2016년을 전후하여 완공 및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투부대의 평시 훈련을 위하여 훈련장의 유지와 필수적인 일부 부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상군 부대들이 평택지역으로 이전이 완료되고 나면

〈동두천시와 미군 캠프들〉



2000년 캠프 케이시, 잘 정돈된 묘소가 미군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묘소 35~40여 개가 미군 주둔지 영내와 주변에 산재되어 있다.



2000년 캠프 캐슬, 3번 도로 4차선 확장공사 이후 캠프 캐슬(동, 서의 두 개 캠프)은 구름다리로 통행하고 있다.



2000년 캠프 모빌, 원래 사단 비행장이었던 H-220이 캠프 모빌로 호칭이 변경되었다. 이 캠프도 반환철차를 받고 있다.



2009년 캠프 호비 정문



2009년 상패동, 노르웨이 병원이 있던 자리에 병원 건물이 보존되어 있다.



2008년 보산역 뒷길, 소요산 입구까지 서울의 지하철이 연장 개통되자 미군들을 상대하는 클럽과 상가가 몰려 있던 보산동이 기차길을 켜며 재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2009년 캠프 케이시 정문 앞에서 오세창 시장과 한미 지도자들이 참석하 가운데 옛 케이시 소령을 기리는 기념탑이 세워졌다.



2007년 캠프 님블, 한국정부로 반환되어 재개발을 준비 중에 있다.



2009년 결산동 가는 길

동두천을 포함한 대부분의 한강 이북의 미군 기지들은 주둔임무를 종료하고 기지를 한국정부에 반환함으로써 그동안 기지촌이라는 그림자를 안고 오랫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경제를 희생해 왔던 소도시들이 기지개를 켜고 지역 도시계획과 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을 활성화하여 낙후된 부분들과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진 경제와 살림살이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 동두천시 발전 방향

동두천시도 현재 커다란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평택지역에 활발하게 진행 중인 통합기지 건설 일정을 예의 주시하며 이 통합기지 건설 완료시기에 맞추어 동두천 일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들이 대부분 이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들이 이전하고 난 이후 동두천시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며 기대에 부풀어 있다.

동두천 시민들의 희망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동두천시 재개발 계획은 아직 구체화한 것이 없는 상태이다. 동두천 지역에 주둔하는 부대들의 이전 전망이 아직은 2016년 이후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기지 폐쇄, 그리고 주둔지역의 반환 및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이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장기 이전계획이 발표되고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면서 동두천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고 주인으로서 자부심이 살아나고 있다.

변화의 바람은 동두천 시민들뿐만 아니라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동두천의 캠프 케이시 지역은 그동안 미군들에게는 휴전선과 근접하여 안전하지 못한 군사기지로서 분류되어 군인가족들이 함께 살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곳으로 분류되어 가족 동반 근무가 허용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미 육군은 군인들도 특별 근무 수당을 받으며 근무하는 근무 기피지역이던 동두천이 더 이상 부적절한 근무지역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고 2006년 무렵부터 위험지역 또는 가족동반 부적절지역에서 해제되어 군인가족들이 함께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이다.

동두천에 남아있는 미군 캠프에서는 동반할 가족들을 위하여 그들이 주민들과 더불어 살 주거지역을 물색하고 자녀들이 공부할 학교를 짓고 있으며 가족들이 타고 다닐 자가용의 등록절차를 위하여 동두천시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동두천지역이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주민들이 애항심을 가지고 동두천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끝에 서울 지하철 노선이 소요산까지 연장 운행되고 현대적인 아파트단지가 대규모로 들어서면서 과거의 기지촌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60년 만에 밝고 현대적이며 살기 좋은 쾌적한 전원도시로 탈바꿈하였다.

어둡고 암울했던 기지촌의 그늘에서 미군들에게 기대어 살던 슬픈 과거를 떨쳐버리고 이제는 당당하게 주인국가의 시민으로서 그들이 살 주거환경을 제공해주고 편의를 베풀며 그들을 환영하고 무슨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볼 수 있는 당당한 주민이 되었다는 사실은 동두천 시민들이 자부심을 갖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